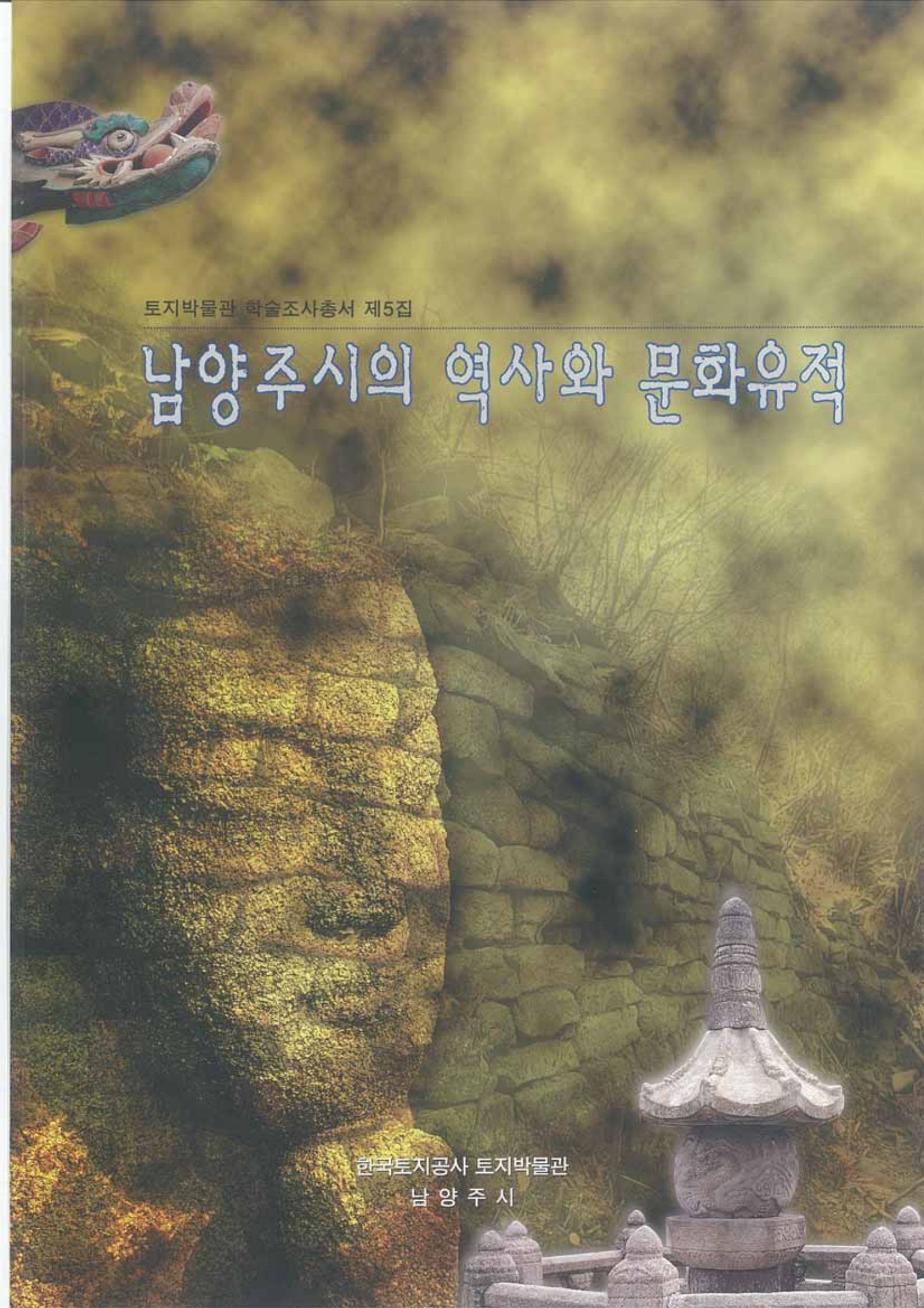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5집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 양 주 시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5집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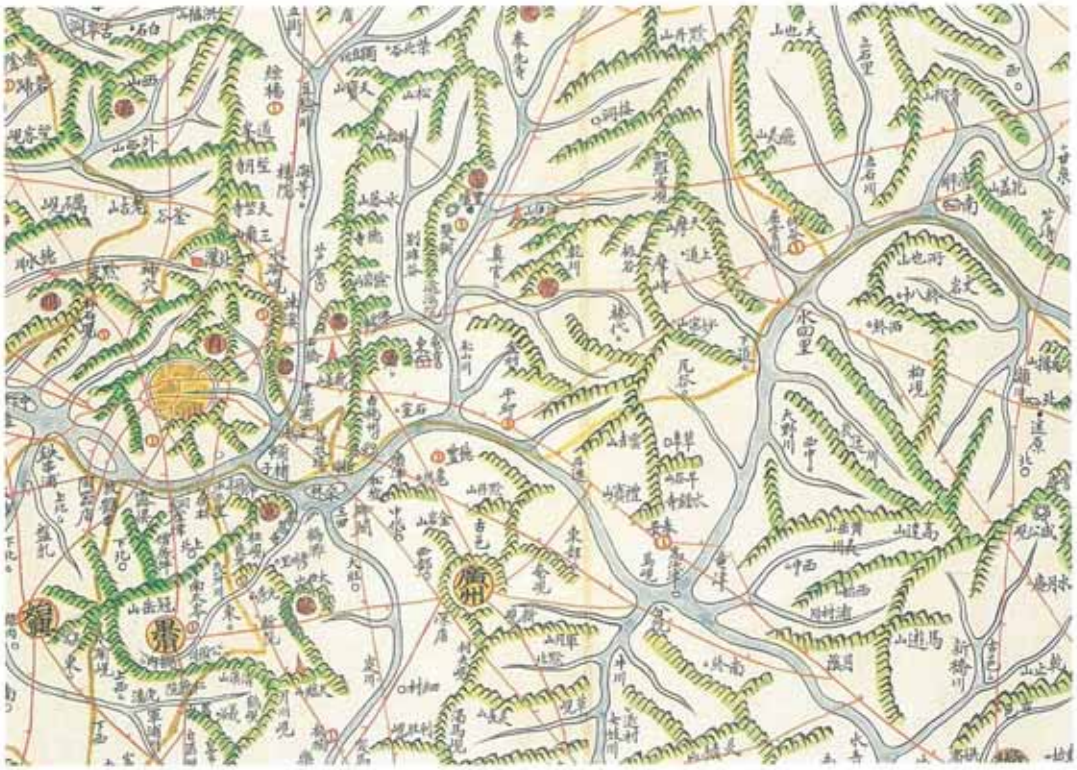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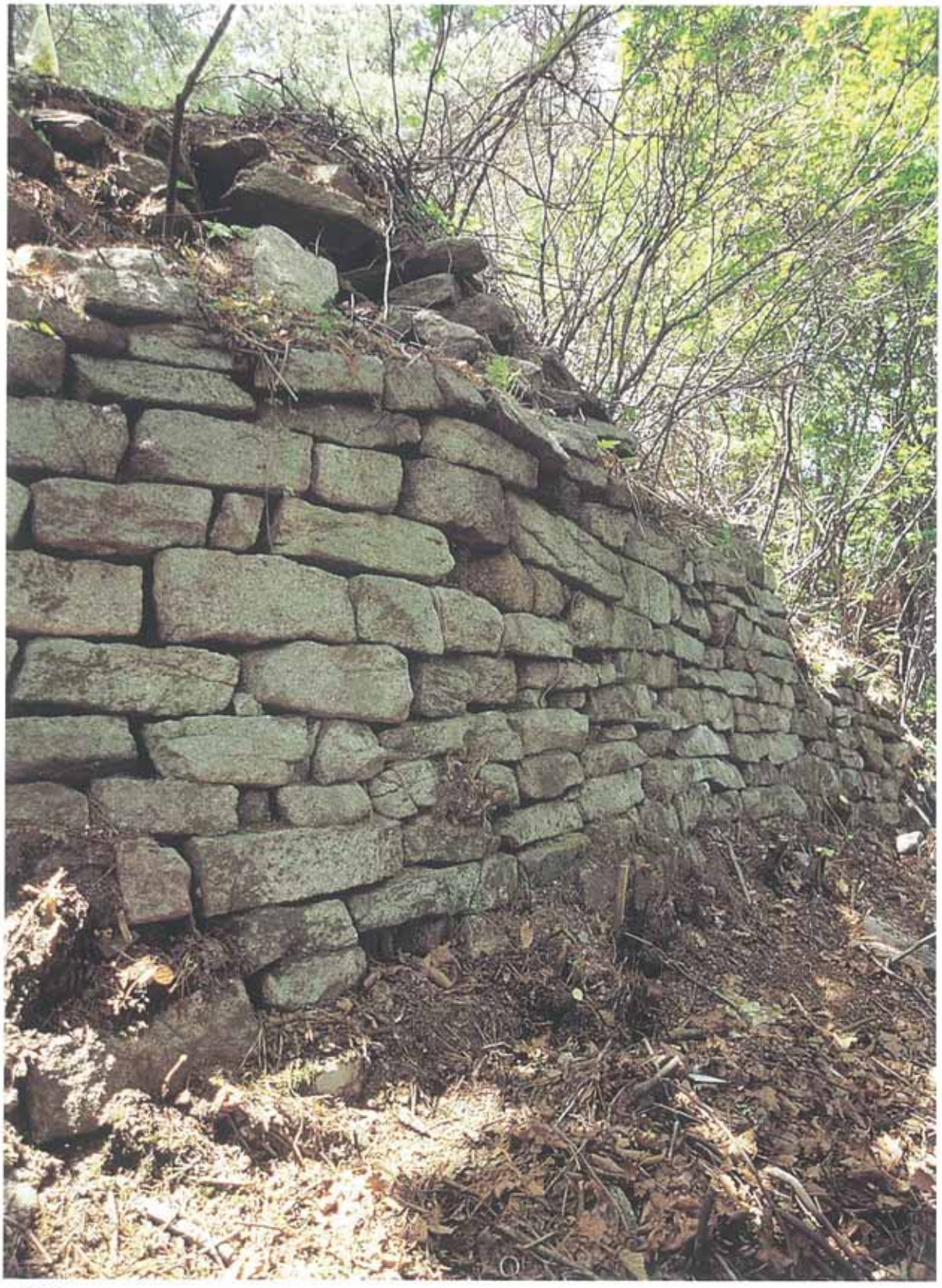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 양 주 시



『동여비고』의 남양주 부근(18세기) ※사진제공 : 경북대 출판부



『동여도』의 남양주 부근(19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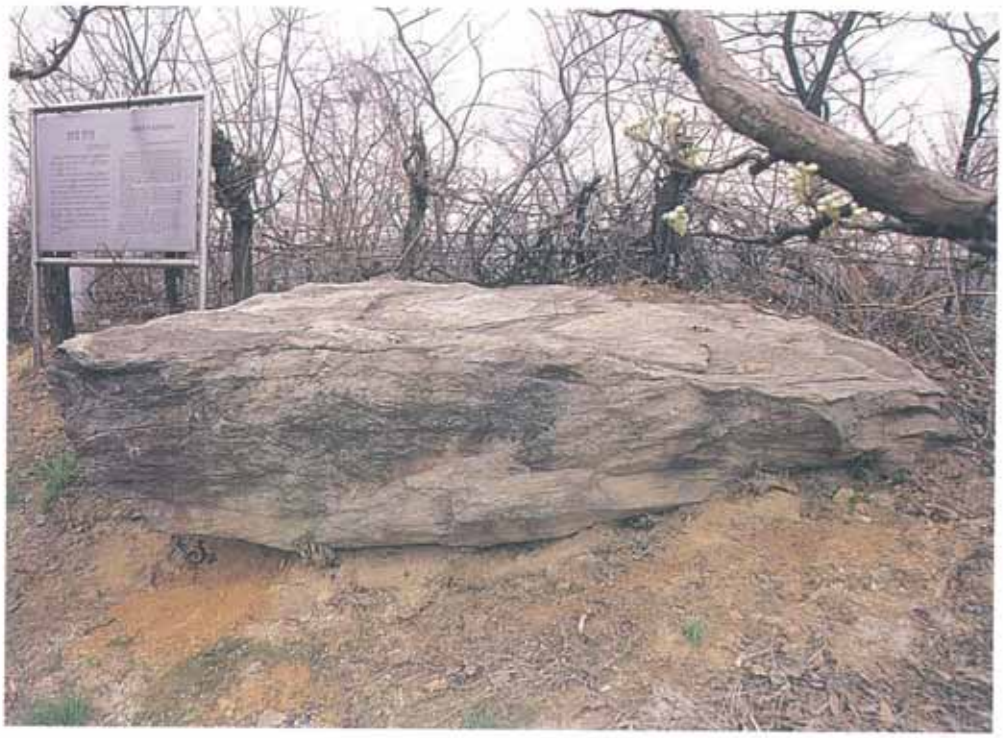
불암산성



남양주시 일대에서 출토된 선사유물



국사봉보루 출토 토제마



가운동 지석묘(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0호)



진중리 석곽분



봉선사대종(보물 제397호)



흥국사 대웅보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56호)



봉인사 부도암 사리탑(보물 제92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재)



수종사 용두



흥국사 용두



흥국사 목조사천왕상



수종사 부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및 팔각오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호)



조말생(1370~1447) 묘비 1707년(숙종 33)건립



박원종(1467~1510) 신도비 이수 1511년(중종 6)건립



구사맹(1531~1604) 신도비 이수 1635년(인조 13)건립



김극효(1542~1618) 신도비 이수 1647년(인조 25)건립



김상준(1561~1635) 신도비 관석



변안렬(1334~1390) 묘표 관석 1571년(선조 4)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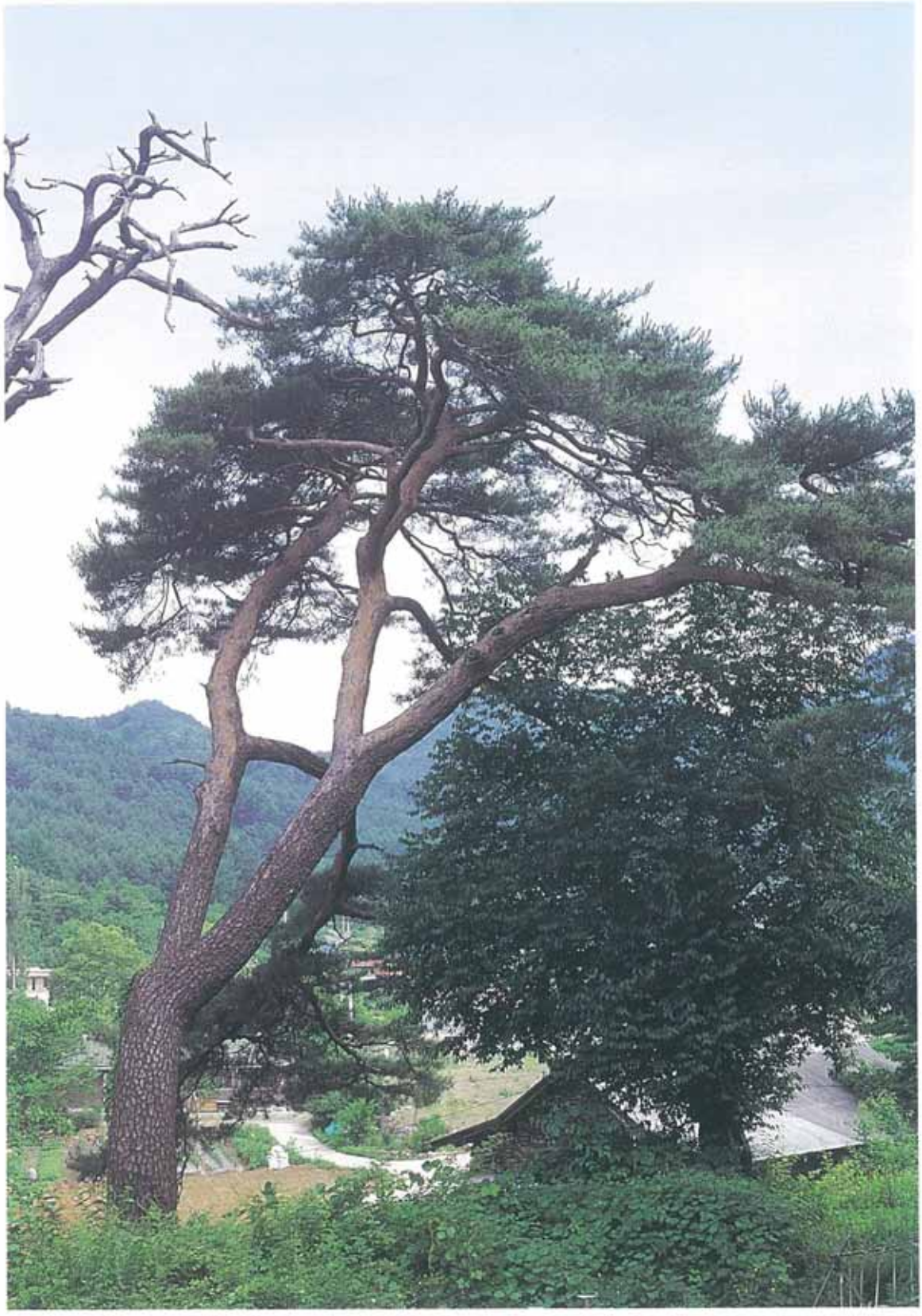
박운(1493~1562) 묘표 관석



겸재 정선의 「석실서원도」



퇴계원산대놀이



외방리 소나무(남양주 - 43)



궁집(민속자료 제1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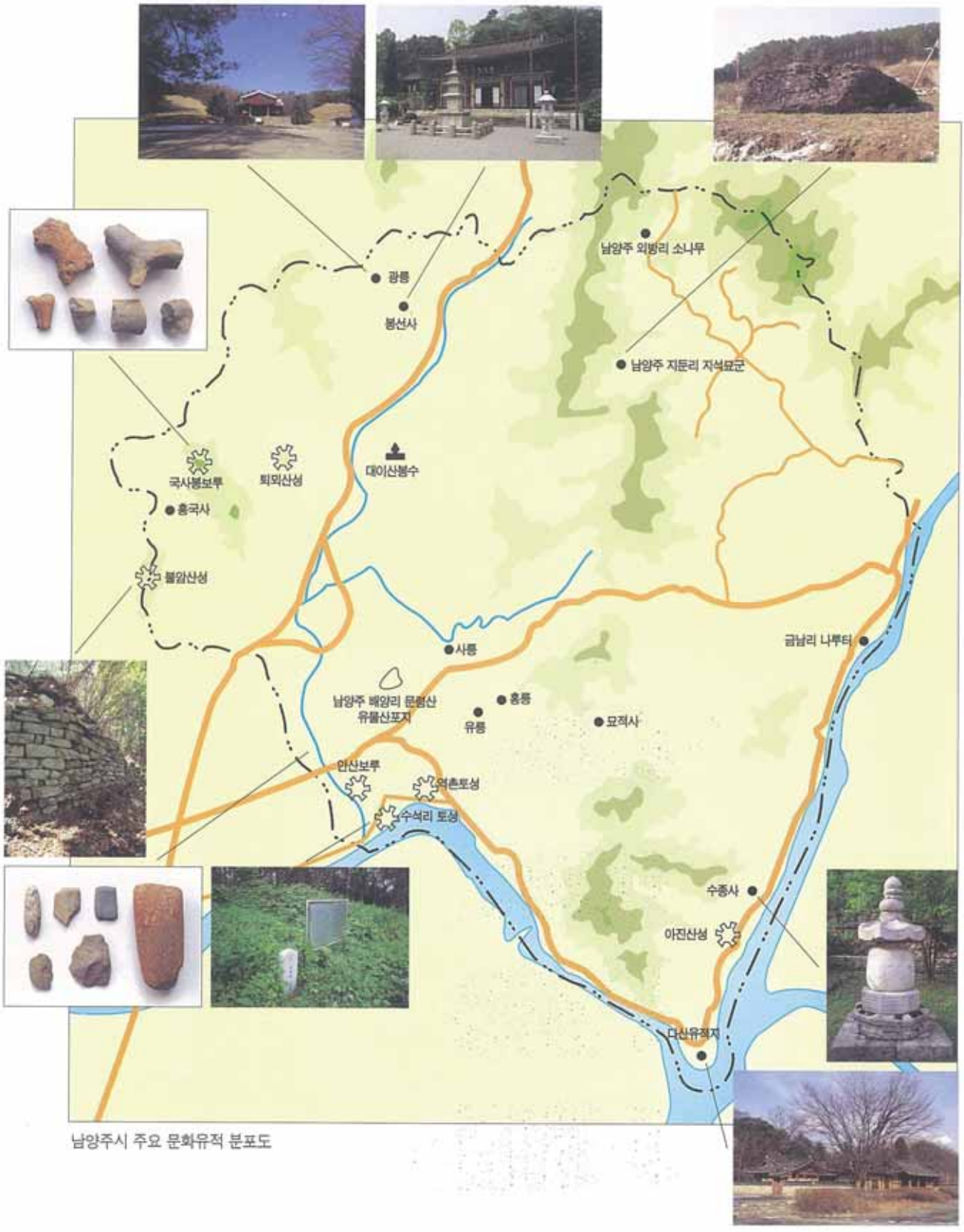
여경구 가옥(민속자료 제129호)



정약용 생가(여유당)



홍릉(사적 제207호)



남양주시 주요 문화유적 분포도

일러두기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보고서는 남양주시의 역사 · 민속 · 관방 · 고고유적 · 노거수 등 가능한 모든 지정 · 비지정의 부동산 문화재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유적조사의 구체적 시기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시　　기 : 선사시대부터 근 · 현대까지　　• 대상지역 : 현 남양주시 전역

• 대상유적 : 국가지정문화재, 시 · 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부동산문화재, 미발견 매장문화재

2. 명칭

본 보고서에 수록된 유적의 명칭은 고유명칭이 있거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지정명칭이 있는 경우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는 시명+동 · 리명+유적종류를 원칙으로 유적 명칭을 부여하였다. 다만, 선현분묘의 경우 존칭을 생략한 채 성명+묘의 명칭을, 관방유적의 경우 유적의 성격상 산 · 봉+성 · 보루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예) • 지정문화재 : 광릉 • 비지정문화재 : 남양주 덕소리 느티나무 • 선현분묘 : 김상헌 묘 • 관방유적 : 불암산성, 국사봉보루

3. 유적번호

유적에는 일련번호를 부기하였으며, 일련번호는 행정구역 · 단위별 위계순서에 따라 부여하였다.

4. 그림번호

본문 내의 지도 · 사진 · 도면번호는 유적번호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기하였다.

5. 지도

1) 유적 분포지도 : 지도번호는 국립지리원 발행 축척 1/25,000 지도번호와 동일하게 부여하였으며 수록순서는 지도번호순을 따랐다. 보고서에 수록된 지도는 1/25,000지도를 판형에 맞게 축소한 것이다.

2) 유적 위치도 : 문화유적편의 각 유적설명 앞에 유적의 위치를 표시한 1/25,000 지형도를 첨부하였다. 한 위치도에 여러 유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유적번호가 제일 빠른 유적원고 앞에 첨부되었으며 위치도가 빠져 있는 유적원고에 위치도가 있는 쪽을 표기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3) 남양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 남양주시내의 전체 유적의 분포상황을 알 수 있도록 1/50,000 지도에 표시하고 유적목록을 하단에 기록하여 별지로 첨부하였다.

4) 각 읍 · 동별 유적 분포지도 : 문화유적 부분에서 각 읍 · 동의 첫장에 문화유적의 분포상황을 알 수 있도록 1/25,000 지도를 축소하여 첨부하였다.

5) 유적의 표시에 있어 위치표시는 점으로, 범위표시는 폐곡선으로, 성 및 보루 등의 경우는 성 표시기호로 하였다.

예) • 위치표시유적 : ●　• 범위표시유적 : ⬭　• 성 · 보루 표시 :

6. 부록

본 보고서의 부록편에는 조사유적에 대한 통계와 지역별 , 시기별, 종류별, 지정문화재별 목록을 수록하였다.

7. 유적분류 및 시기구분

1) 유적분류 : 『문화유적총람』의 40개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포괄하지 못하는 유물산포지를 기타유적으로 추가하여 총41개의 분류항목을 설정하였다.

2) 시기구분 : 일반적인 한국사의 구분에 따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원삼국,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 · 현대 등 9개로 나누었다.

8. 도면

본문의 유물 실측도면은 유물의 크기에 따라 30%(일반 유물의 경우), 50%(기와의 경우)로 축소하였으며 각각 Scale을 붙여서 크기에 대한 비교를 용이하게끔 하였다.

9. 기타

1) 본 보고서에 표시된 유적분포범위의 경우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2) 본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에서 유적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묘유적의 墓向과 묘표 · 묘갈 · 신도비 등 碑向의 경우 後面에서 관측한 方位이다.

3) 본 조사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이 남양주시의 용역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조사와 보고서 간행에 필요한 비용은 남양주시에서 부담하였다.(조사비용 : 5,800만원)

차 례

화보
일러두기

Ⅰ. 조사개요

1. 조사경위 ····· 31
2. 조사방법 ····· 33

Ⅱ. 역사

1. 양주의 남쪽에 위치한 큰 마을 ····· 41
2. 풍양에서 남양주시까지의 역사 ····· 42
3. 남양주의 지역문화 ····· 50

Ⅲ. 문화유적

와부읍 ····· 67
진접읍 ····· 116
화도읍 ····· 162
별내면 ····· 196
퇴계원면 ····· 256
진건면 ····· 258
수동면 ····· 298
조안면 ····· 306
오남면 ····· 344
호평동 ····· 355
평내동 ····· 370
금곡동 ····· 383
양정동 ····· 397
지금동 ····· 438

Ⅳ. 문화유적 분포지도

송우……466
연하……468
의정부……470
양지……472
마석……476
청평……478
덕수……480
양수……484

부록

1. 통계표……489
2. 유적 목록……491

찾아보기……544
별지 : 남양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1/50,000)

사진목록

와부읍

사진1-1 김번 묘 ····· 68
사진1-2 김번 묘갈 ····· 68
사진2-1 김생해 묘 ····· 69
사진2-2 김생해 묘갈 ····· 69
사진3-1 김극효 묘 ····· 70
사진3-2 김극효 신도비 ····· 70
사진3-3 김극효 신도비 이수 ····· 70
사진4-1 김상헌 묘 ····· 71
사진4-2 김상헌 묘비 ····· 71
사진5 김광찬 묘 ····· 73
사진6-1 김상용 묘 ····· 73
사진6-2 김상용 신도비 ····· 74
사진6-3 김상용 신도비 이수 ····· 74
사진7 김상용 충효문 ····· 75
사진8 김수증 묘표 ····· 75
사진9 김창협 묘 ····· 76
사진10 송백당 유허비 · 취석 · 석실서원 묘정비 ····· 77
사진13 도산석실려 ····· 79
사진16 이맹현 문인석 ····· 80
사진17 대산재 ····· 81
사진18 김세민 묘 ····· 81
사진19 김겸 묘 ····· 82
사진20 남양주 덕소리 느티나무 ····· 83
사진21-1 박원종 묘 ····· 84
사진21-2 박원종 신도비 ····· 84
사진21-3 박원종 신도비 이수 ····· 84
사진21-4 박원종 문인석 ····· 84
사진22 세덕사 ····· 85
사진23 도산재 ····· 86
사진24-1 박운묘표(전면) ····· 86
사진24-2 박운묘표(후면) ····· 86
사진25-1 박중선 묘 ····· 87
사진25-2 박중선 신도비 ····· 87
사진26 박가흥 묘 ····· 88
사진27 박원종 정자터 ····· 89
사진28-1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전경 ····· 90
사진28-2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90
사진29 흥완군 이정응 묘 ····· 92
사진30 백조 이해선 추모비 ····· 93
사진31 신빈신씨 묘 ····· 94
사진32 이인교 효자정문 ····· 94
사진33 반공투사 배순동 충혼비 ····· 95
사진34-1 이세백 묘 ····· 96
사진34-2 이세백 신도비 ····· 96
사진34-3 이세백 신도비의 옥개석 ····· 96
사진35-1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 ····· 98
사진35-2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 뒤 神木에 매달아 놓은 현납속 ···· 98
사진36 남양주 팔당리 오종섭家 터주가리 ····· 101
사진37 미 제25사단 한강도하 기념비 ····· 103
사진38-1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 ····· 104
사진38-2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터에 있는 산제바위 ····· 104
사진38-3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의 제물로 바칠 쇠고기를 걸어두는 제물가름대 ····· 104
사진39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 107
사진40 묘적사 활터 ····· 108
사진41 남양주 월문리 보리수 ····· 109
사진42 남양주 월문리 향나무 ····· 110
사진43-1 김상준 묘 ····· 110
사진43-2 김상준 신도비 ····· 110
사진43-3 김상준 신도비의 雲鶴紋이 새겨진 冠石 ····· 110
사진44 김수흥 묘 ····· 112
사진45-1 김흥복 묘 ····· 113
사진45-2 김흥복 묘갈 ····· 113
사진46 남양주 율석리 느티나무 ····· 114
사진47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 ····· 115

진접읍

사진49-1 영빈김씨 묘 ····· 117
사진49-2 영빈김씨 묘의 문인석 ····· 117
사진50 외솔 최현배 묘 ····· 118
사진51 남양주 장현리 3 · 1운동 기념비 ····· 119
사진52-1 인빈김씨 묘 ····· 120
사진52-2 인빈김씨 묘 상석 고석의 귀면 ····· 120
사진53-1 의창군 이광 묘 ····· 122
사진53-2 의창군 이광 신도비 ····· 122
사진53-3 의창군 이광 묘 상석 고석의 鬼面 ····· 122
사진54-1 풍양궁지 ····· 123
사진54-2 풍양궁지 궁궐유지비 ····· 124
사진54-3 풍양궁지 출토 수키와 ····· 125
사진55 완원군 이유명 묘 ····· 126
사진56 함릉군 이직 묘 ····· 126
사진57 현창지 ····· 127
사진58-1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 128
사진58-2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상량문과 성주 ····· 128
사진58-3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조라술 터주가리 ····· 128

사진58-5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에 칼이 꽂힌 채 제물로 바쳐진 쇠머리 ····· 128
사진58-6 술잔 따르는 모습 ····· 129
사진58-7 절을 하는 모습 ····· 129
사진58-8 소지 올리는 모습 ····· 129
사진58-9 뒷전풀이 하는 모습 ····· 129
사진58-10 산제사 후 하산 하는 모습 ····· 129
사진59 남양주 내각리 느티나무 ····· 133
사진60-1 대이산봉수 내부 ····· 134
사진60-2 대이산봉수 내부에 설치된 삼각점 ····· 134
사진61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1 ····· 136
사진62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2 ····· 137
사진6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 138
사진64 홍주국 묘 ····· 139
사진65 홍만적 묘갈 ····· 139
사진66 이민보 묘 ····· 140
사진67 영지동비 ····· 141
사진68 태극정 ····· 142
사진69 쌍수역 ····· 142
사진70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1 ····· 143
사진71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2 ····· 143
사진72 여경구가옥 ····· 144
사진73-1 광릉 ····· 145
사진73-2 광릉 무인석 ····· 145
사진74-1 휘경원 정자각 ····· 147
사진74-2 휘경원 ····· 147
사진75 이단상 묘 ····· 148
사진76-1 이시원 묘 ····· 149
사진76-2 이시원 묘 망주석 ····· 149
사진77 이희조 묘 ····· 150
사진78 봉선사 대종 ····· 151
사진79 봉선사 하마비 ····· 152
사진80 봉선사 당간지주 ····· 153
사진81 봉선사 보운당부도 ····· 153
사진82 남양주 부평리 느티나무 ····· 154
사진83 임중선 묘 ····· 155
사진84-1 유순 묘 ····· 156
사진84-2 유순 묘갈 ····· 156
사진84-3 유순 묘의 동자석 ····· 156
사진85 남양주 팔야리 느티나무 ····· 157
사진86 한상경 묘 ····· 158
사진87 한상경 사당 ····· 159
사진88 한혁 묘 봉분 후면 ····· 159
사진89 한계순 묘갈 ····· 160

화도읍

사진91 순국선열추념비 ····· 163
사진93 남양주 가곡리 느티나무 ····· 164
사진94 사기막나루터 ····· 165
사진95-1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전경 ····· 166
사진95-2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167
사진96 인촌 김성수 묘 ····· 168
사진97 이춘원 신도비 ····· 169
사진98-1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 170
사진98-2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 171
사진99-1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 173
사진99-2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 174
사진100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1 ····· 175
사진101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2 ····· 175
사진102 금남리 내미연 나루터 ····· 176
사진103 금남리 나루터 ····· 176
사진104 남양주 답내리 느티나무 ····· 177
사진105 남양주 월산리 3 · 1운동기념비 ····· 177
사진106 남양주 월산리 느티나무 ····· 178
사진107-1 국태공원소 원표 ····· 179
사진107-2 흥원 ····· 179
사진107-3 흥선대원군 신도비 ····· 179
사진108 영선군 이준용 신도비 ····· 180
사진109 이재면 신도비 ····· 182
사진111-1 능원대군 이보 묘 ····· 183
사진111-2 능원대군 이보 신도비 ····· 183
사진112 남양주 녹촌리 느티나무 ····· 185
사진113 남양주 녹촌리 향나무 ····· 186
사진114-1 유성증 묘 ····· 186
사진114-2 유성증 신도비 ····· 187
사진115-1 유황 묘 ····· 188
사진115-2 유황 신도비 ····· 188
사진116-1 유철 묘 ····· 189
사진116-2 유철 신도비 ····· 189
사진116-3 유철 신도비 이수 ····· 189
사진117 유강 묘 ····· 191
사진118 박호현 처 기계유씨 정문 ····· 192
사진119 유수 신도비 ····· 192
사진120 이순지 묘 ····· 193
사진121-1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1 ····· 194
사진121-2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2 ····· 194

별 내 면

사진122 남선 묘 ····· 197

사진123-1 남병철 묘 ····· 198
사진123-2 남병철 신도비 ····· 198
사진124 남상길 묘 ····· 199
사진125 남응익 묘 ····· 200
사진126-1 이홍술 신도비 ····· 201
사진126-2 이홍술 신도비 비좌 ····· 201
사진127 남양주 청학리 은행나무 ····· 202
사진128 내원암 석불입상 ····· 203
사진129 내원암 석조 ····· 204
사진130 이곤 묘 ····· 204
사진131 이종인 묘 ····· 205
사진133 송은 정충환 묘 ····· 206
사진134-1 덕흥대원군 이초 묘 ····· 207
사진134-2 덕흥대원군 이초 신도비 ····· 207
사진135 덕흥사 ····· 208
사진136-1 하원군 이정 묘 ····· 209
사진136-2 하원군 이정 신도비 ····· 209
사진137 남양주 덕릉마을 산신각 ····· 209
사진138 순빈김씨 묘 ····· 210
사진139 순화군 이보 묘 ····· 211
사진140 안홍량 문인석 ····· 212
사진141 남양주 덕송리 느티나무 ····· 212
사진142 흥국사 대웅보전 ····· 213
사진143 흥국사 영산전 ····· 214
사진144 흥국사 만월보전 ····· 214
사진145 흥국사 시왕전 ····· 215
사진146 흥국사 성임당부도 ····· 216
사진147 흥국사 만월보전 뒷편 부도 ····· 216
사진148 흥국사 석종형부도 ····· 217
사진149 흥국사 범종각 내 법고 · 목어 ····· 217
사진150 흥국사 석조 ····· 218
사진151 흥국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 218
사진152 흥국사 석조약사여래좌상 ····· 219
사진153 흥국사 소조16나한상 ····· 219
사진154 흥국사 목조시왕상 ····· 220
사진155 남양주 덕송리 상수리나무 ····· 220
사진156-1 한효원 묘 ····· 221
사진156-2 한효원 신도비 ····· 221
사진157 남을번 묘 ····· 222
사진158-1 남재 묘 ····· 223
사진158-2 남재 신도비 ····· 223
사진159 충경사 ····· 224
사진160-1 남치욱 문인석 ····· 225
사진160-2 남치욱 묘표의 비문 ····· 225
사진161 남언순 묘표의 비문 ····· 226
사진162 김광서 묘표 ····· 227
사진163 김기명 묘 ····· 227
사진165 김흔 묘 ····· 229
사진166 연주현씨 묘역 ····· 230
사진167-1 김효원 묘 ····· 231
사진167-2 김효원 묘갈 ····· 231
사진167-3 김효원 묘의 문인석 ····· 231
사진168-1 윤천뢰 묘 ····· 233
사진168-2 윤천뢰 신도비 ····· 233
사진169 윤지청 묘 ····· 234
사진170-1 불암산성 동벽 ····· 234
사진170-2 불암산성 남벽 ····· 235
사진170-3 불암산성 정상부 ····· 235
사진170-4 불암산성내의 석축유구 ····· 235
사진170-5 불암산성 출토유물 ····· 237
사진171 불암사 사적비 ····· 238
사진172-1 국사봉보루 북쪽 성벽 ····· 239
사진172-2 국사봉보루 남쪽 성벽 ····· 239
사진172-3 국사봉보루 정상부 ····· 239
사진172-4 국사봉보루 출토유물 ····· 241
사진172-5 국사봉보루 출토토제마 ····· 241
사진173-1 견성군 이돈 묘 ····· 243
사진173-2 견성군 이돈 문인석 ····· 243
사진174 선성군 이흠 묘 ····· 244
사진175 보성군 이용 묘 ····· 244
사진176 보청재 ····· 246
사진177-1 변사겸 묘 ····· 246
사진177-2 변사겸 묘갈 ····· 246
사진178-1 퇴뫼산성 성 내부 전경 ····· 247
사진178-2 퇴뫼산성 북쪽 성벽 ····· 247
사진178-3 퇴뫼산성 북쪽의 치 ····· 248
사진178-4 퇴뫼산성 출토유물 ····· 251
사진178-5 퇴뫼산성 출토기와편 ····· 252

퇴계원면

사진179 남양주 퇴계원리 느티나무 ····· 257

진 건 면

사진180-1 사릉 ····· 259
사진180-2 사릉 ····· 259
사진181-1 정효준 묘 ····· 260
사진181-2 정효준 신도비 ····· 260
사진182-1 정미수 묘 ····· 261
사진182-2 정미수 신도비 ····· 261

사진182-3 정미수 묘표 ····· 262
사진183 해평사 ····· 263
사진184 조정구 묘 ····· 263
사진185 이광수 은거지 ····· 264
사진186 남양주 사릉리 느티나무 ····· 265
사진187-1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원경 ····· 266
사진187-2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전경 ····· 266
사진187-3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266
사진188-1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원경 ····· 267
사진188-2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전경 ····· 267
사진188-3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 268
사진189-1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전경 ····· 269
사진189-2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 269
사진190 충목사 ····· 270
사진191 효간사 ····· 271
사진192 남양주 진관리 느티나무 ····· 271
사진193 남양주 신월리 느티나무 ····· 272
사진194-1 익현군 이연 묘 ····· 273
사진194-2 익현군 이연 문인석 ····· 273
사진195 이덕감과 정순공주 묘 ····· 274
사진196 이계린 묘 ····· 274
사진197-1 변안렬 묘 ····· 275
사진197-2 변안렬 묘표(전면) ····· 275
사진197-3 변안렬 묘표(후면) ····· 275
사진198 변현 묘 ····· 276
사진199 변이 묘 ····· 277
사진200 변상복 묘 ····· 277
사진201 추원재 ····· 278
사진202 김종 묘 ····· 279
사진203-1 최청 묘 ····· 279
사진203-2 최청 신도비 ····· 280
사진204 모송재 ····· 281
사진205 홍익한원배 능성구씨 묘 ····· 281
사진206 이화영 묘 ····· 282
사진207 청해재 ····· 283
사진208 광해군 묘 ····· 284
사진209-1 성묘 ····· 286
사진209-2 성묘 문인석 ····· 286
사진209-3 성묘 무인석 ····· 286
사진210-1 안빈이씨 묘 ····· 287
사진210-2 안빈이씨 묘 묘표의 비문 ····· 287
사진210-3 안빈이씨 묘 동자석 ····· 288
사진211 임해군 이진 묘 ····· 289
사진212-1 조맹 묘 ····· 289
사진212-2 조맹 신도비 ····· 289
사진213 조상우 묘 ····· 291
사진214 남양주 송능리 느티나무 ····· 292
사진215 견성암 대웅전 ····· 293
사진216 견성암 수양굴 ····· 293
사진217 견성암 석조약사여래좌상 ····· 294
사진218 봉인사 부도암사리탑 ····· 294
사진219 봉인사 사리탑 중수비 ····· 296
사진220 봉인사 풍암취우대사비 ····· 297

수동면

사진221 남양주 운수리 느티나무 ····· 299
사진222-1 남양주 지둔리 지석묘군 원경 ····· 300
사진222-2 1호 지석묘 ····· 300
사진222-3 2호 지석묘 ····· 300
사진222-4 3호 지석묘 ····· 300
사진223 남양주 지둔리 시무나무 ····· 301
사진224 남양주 지둔리 소나무 ····· 302
사진225 남양주 외방리 소나무 ····· 302
사진226 남양주 외방리 은행나무 ····· 303
사진227 반공희생자 합동위령비 ····· 304
사진228-1 이유원 묘 ····· 304
사진228-2 이유원 묘 수장비 ····· 304

조안면

사진229-1 한확 묘 ····· 307
사진229-2 한확 묘 장명등 ····· 307
사진230 정약용 묘 ····· 308
사진231 여유당 현판 ····· 309
사진232 남양주 능내리 느티나무 ····· 310
사진233-1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 310
사진233-2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311
사진234-1 마진산성 원경 ····· 313
사진234-2 마진산성 근경 ····· 313
사진234-3 마진산성 출토유물 ····· 314
사진235-1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전경 ····· 316
사진235-2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근경 ····· 316
사진235-3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주변 출토유물 ····· 317
사진236 변협 묘 ····· 318
사진237 변응성 묘 ····· 319
사진238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 320
사진241 용진나루터 ····· 322
사진242 3 · 1의거애국선열추념탑 ····· 322
사진243 수종사 부도 ····· 323
사진246-1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1 ····· 325

사진246-2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2 ····· 325
사진247-1 유량 묘 ····· 326
사진247-2 유량 문인석 ····· 326
사진247-3 문충사 ····· 327
사진248 남양주 시우리 산제당 ····· 328
사진249-1 남양주 조안리 도당집 ····· 331
사진249-2 남양주 조안리 조라 터주가리 ····· 331
사진250 남양주 조안리 당집 ····· 334
사진251 남양주 조안리 박치홍家 터주가리 ····· 339
사진252 남양주 조안리 박광덕家 터주가리 ····· 340
사진253 남양주 조안리 느티나무 ····· 343

오남면

사진254-1 하자종 묘 ····· 345
사진254-2 하자종 묘갈 ····· 345
사진255 발현재 ····· 346
사진256 남양주 오남리 향나무 ····· 346
사진257 남양주 오남리 느티나무 ····· 347
사진258 심선 묘 ····· 348
사진259 망세정 ····· 349
사진260 심안인 묘 ····· 349
사진261-1 심빈 묘 ····· 350
사진261-2 심진 족장비(좌) 및 심광언 신도비(우) ····· 350
사진262 심광문 묘 ····· 351
사진263 심광언 묘 ····· 352
사진264 심금 묘 ····· 353
사진265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 353

호평동

사진266-1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1 ····· 356
사진266-2 호평동 평촌마을의 산제바위 ····· 356
사진267-1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 359
사진267-2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의 산제당 ····· 359
사진267-3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의 신목에 걸어 놓은 현납속 ·· 359
사진267-4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내부에 설치된 단 ····· 360
사진267-5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아궁이 ····· 360
사진268 남양주 호평동 김춘수家 터주가리 ····· 363
사진269 남양주 호평동 김진택家 성주단지 ····· 365
사진270-1 남양주 호평동 산제당 ····· 366
사진270-2 남양주 호평동 지사마을의 산제터 ····· 366
사진270-3 호평동 지사마을의 굿터 ····· 367
사진271 남양주 호평동 느티나무 ····· 369

평내동

사진272 궁집 ····· 371
사진273 능성위 구민화와 화길옹주 묘 ····· 372
사진274-1 남양주 평내동 산제당 ····· 373
사진274-2 남양주 평내동 산제터 ····· 373
사진274-3 남양주 평내동 산제당 부엌 ····· 373
사진275 남양주 평내동 김식순家 터주가리 ····· 376
사진276 남양주 평내동 느티나무 ····· 378
사진277-1 의안대군 이화 묘 ····· 378
사진277-2 의안대군 이화 묘표 ····· 379
사진278 의안대군 이화 사당 ····· 379
사진279 목세칭 묘 ····· 380
사진280 목첨 묘 ····· 380
사진281-1 목장흠 묘 ····· 381
사진281-2 목장흠 신도비 ····· 381

금곡동

사진282-1 홍릉 ····· 384
사진282-2 홍릉 상석의 고석 ····· 384
사진282-3 홍릉 망주석 ····· 384
사진283-1 유릉 ····· 385
사진283-2 유릉 침전 앞의 문 · 무인석과 석수 ····· 386
사진283-3 유릉 상석의 고석 ····· 386
사진284-1 영원 정자각 ····· 387
사진284-2 영원 ····· 387
사진286 남양주 금곡동 느티나무 ····· 389
사진287 구수영 문인석 및 망주석 ····· 390
사진288 구희경 묘표 ····· 390
사진289 구순 묘 ····· 391
사진290-1 구사맹 묘 ····· 392
사진290-2 구사맹 신도비 ····· 392
사진290-3 구사맹 신도비 이수 ····· 392
사진291-1 구굉 묘 ····· 393
사진291-2 구굉 신도비 ····· 393
사진292 구인기 신도비 ····· 394
사진293-1 구일 묘 ····· 396
사진293-2 구일 묘표 ····· 396

양정동

사진294 계양군벌묘 및 이선영효자정문 ····· 398
사진295-1 계양군부인 한씨 묘 ····· 398
사진295-2 계양군부인 한씨 묘 장명등 ····· 398
사진296-1 부림군 이식 묘 ····· 399
사진296-2 부림군 이식 묘 문인석 ····· 399
사진297 영원군 이예 묘 ····· 400

사진298 이응기 묘 망주석 ····· 400
사진299 전성군 이변 묘 ····· 401
사진300 광천군 이수기 묘 ····· 402
사진301 평산군 이숙 묘 ····· 403
사진302 선성군 이신윤 묘 ····· 403
사진303 평해군 이담 묘 ····· 404
사진304 영산군 이예윤 묘 ····· 404
사진305 민제인 신도비 ····· 405
사진306 민사옹 묘 ····· 406
사진307 민영준 묘의 상석 ····· 407
사진308-1 민광훈 묘 ····· 407
사진308-2 민광훈 신도비 ····· 408
사진309-1 이민승 묘 ····· 409
사진309-2 이민승 묘갈의 옥개석 ····· 409
사진310 구성 묘 ····· 410
사진311-1 해병대북한강지구전첩비 ····· 411
사진311-2 해병대북한강전첩비 안내판 ····· 411
사진312 현충탑 ····· 412
사진313-1 김수항 묘 ····· 412
사진313-2 김수항 묘표 ····· 413
사진313-3 김수항 묘갈 ····· 413
사진314-1 김한구 묘 ····· 414
사진314-2 김한구 묘갈 ····· 415
사진314-3 김한구 문인석 후면 ····· 415
사진315 변계윤 묘 ····· 416
사진316 이의진 묘 ····· 416
사진317 이의현 묘 ····· 417
사진318-1 삼정각 ····· 418
사진318-2 삼정각 현판 ····· 418
사진319-1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원경 ····· 420
사진319-2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근경 ····· 420
사진319-3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421
사진320 남양주 이패동 은행나무 ····· 422
사진321-1 김육 묘 ····· 422
사진321-2 김육 신도비 ····· 423
사진321-3 김육 신도비 이수 ····· 423
사진321-4 김육 신도비 비좌 ····· 423
사진322-1 김식 묘 ····· 424
사진322-2 김식 신도비 ····· 424
사진322-3 김식 신도비 이수 ····· 424
사진323-1 김좌명 묘 ····· 426
사진323-2 김좌명 신도비 ····· 426
사진323-3 김좌명 신도비 비좌 ····· 426
사진324-1 김성응 묘 ····· 427
사진324-2 김성응 신도비 ····· 427
사진325 김권 묘 ····· 428
사진326 김윤식 묘 ····· 429
사진327-1 김시묵 묘 ····· 430
사진327-2 김시묵 묘 문인석 ····· 430
사진328-1 역촌토성지 원경 ····· 431
사진328-2 역촌토성 출토유물 ····· 433
사진328-3 역촌토성 출토수키와 ····· 433
사진329 평구역터 전경 ····· 435
사진330-1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 435
사진330-2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436

지금동

사진331-1 안산보루 성벽 ····· 439
사진331-2 안산보루 정상부 ····· 439
사진331-3 안산보루 출토유물 ····· 440
사진332 가운동 지석묘 ····· 441
사진333-1 정사룡 묘 ····· 442
사진333-2 정사룡 묘표 ····· 442
사진333-3 정사룡 묘갈 ····· 442
사진334 남양주 가운동 음나무 ····· 443
사진335-1 조말생 묘 ····· 444
사진335-2 조말생 묘비 ····· 444
사진335-3 조말생 묘비(후면) ····· 444
사진335-4 조말생 신도비 ····· 444
사진336 영모재 ····· 446
사진337 조무강 묘 ····· 446
사진338-1 수석동 토성 성벽 ····· 447
사진338-2 수석동 토성 정상부 ····· 447
사진338-3 수석동 토성 주변 출토유물 ····· 448
사진339-1 남양주 수석동 선사유적 전경 ····· 450
사진339-2 남양주 수석동 선사유적 근경 ····· 450
사진340-1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원경 ····· 451
사진340-2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전경 ····· 451
사진340-3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 452
사진341-1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전경 ····· 453
사진341-2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 452
사진341-3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출토 고구려기와 ····· 452
사진342 석실서원지 ····· 456
사진343 미음나루터 ····· 457
사진344 남양주 수석동 은행나무 ····· 458
사진345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1 ····· 458
사진346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2 ····· 459
사진347-1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 460
사진347-2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출토 마제석부 ····· 461
사진348-1 남양주 지금동 느티나무 ····· 462

도면목록

도면28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91
도면60 대이산봉수 평면도 ····· 135
도면72 여경구가옥 평면도 ····· 144
도면95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167
도면98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 172
도면99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 174
도면170 불암산성 출토유물 ····· 237
도면172 국사봉보루 출토토제마 ····· 242
도면178-1 퇴뫼산성 출토유물 ····· 253
도면178-2 퇴뫼산성 출토유물 ····· 254
도면178-3 퇴뫼산성 출토유물 ····· 255
도면187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 267
도면188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 268
도면189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 269
도면233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313
도면234 마진산성 출토유물 ····· 315
도면235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주변 출토유물 ····· 318
도면272 궁집 평면도 ····· 372
도면319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421
도면328 역촌토성 출토유물 ····· 434
도면330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437
도면331 안산보루 출토유물 ····· 440
도면338 수석동 토성 주변 출토유물 ····· 449
도면340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 452
도면341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 455
도면347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 461

지도목록

와부읍 문화유적 분포현황 ····· 67
진접읍 문화유적 분포현황 ····· 116
화도읍 문화유적 분포현황 ····· 162
별내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 196
퇴계원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 256
진건읍 문화유적 분포현황 ····· 258
수동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 298
조안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 306
오남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 344
호평동 문화유적 분포현황 ····· 355
평내동 문화유적 분포현황 ····· 370
금곡동 문화유적 분포현황 ····· 383
양정동 문화유적 분포현황 ····· 397
지금동 문화유적 분포현황 ····· 438

와부읍

지도1 김번 묘 위치도(성동 059) ····· 68
지도16 이맹현 묘 위치도(성동 070) ····· 80
지도20 남양주 덕소리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69) ····· 83
지도21 박원종 묘 위치도(성동 070) ····· 83
지도27 박원종 정자터 위치도 (성동 080) ····· 89
지도29 흥완군 이정응 묘 위치도(성동 070) ····· 92
지도34 이세백 묘 위치도(성동 070) ····· 96
지도35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 위치도(양수 081) ····· 98
지도36 남양주 팔당리 오종섭家 터주가리 위치도(성동 090) ····· 101
지도38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 위치도(양수 051) ····· 104
지도39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위치도(양수 051) ····· 107
지도42 남양주 월문리 향나무 위치도(성동 070) ····· 110
지도44 김수흥 묘 위치도(성동 059) ····· 111
지도45 김홍복 묘 위치도(성동 059) ····· 113

진접읍

지도49 영빈김씨 묘 위치도(성동 018) ····· 117
지도51 남양주 장현리 3·1운동 기념비 위치도(성동008) ····· 119
지도54 풍양궁지 위치도(성동 017) ····· 123
지도57 현창지 위치도(성동 027) ····· 127
지도60 대이산봉수 위치도(성동 028) ····· 134
지도61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1 위치도(성동 029) ····· 136
지도6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위치도(성동 018) ····· 138

지도66 이민보 묘 위치도(성동 027) ····· 140
지도73 광릉 위치도(포천 098) ····· 145
지도74 휘경원 위치도(포천 098) ····· 147
지도75 이단상 묘 위치도(포천 099) ····· 148
지도78 봉선사 대종 위치도(성동 008) ····· 151
지도83 임중선 묘 위치도(성동 009) ····· 155
지도84 유순 묘 위치도(포천 099) ····· 156
지도85 남양주 팔야리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10) ····· 157
지도86 한상경 묘 위치도(성동 019) ····· 158

화도읍

지도90 화도면민 독립기념비 위치도(양수 043) ····· 163
지도91 순국선열추념비 위치도(양수 043) ····· 163
지도93 남양주 가곡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23) ····· 164
지도96 인촌 김성수 묘 위치도(양수 035) ····· 168
지도97 이춘원 묘 위치도(양수 054) ····· 169
지도98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위치도(양수 045) ····· 170
지도100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1 위치도(양수 045) ····· 174
지도104 남양주 답내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34) ····· 177
지도105 남양주 월산리 3 · 1운동기념비 ····· 177
지도106 남양주 월산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34) ····· 178
지도110 의안군 이성 묘 위치도(양수 042) ····· 183
지도112 남양주 녹촌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42) ····· 185
지도114 유성증 묘 위치도(양수 042) ····· 186
지도119 유수 묘 위치도(양수 043) ····· 192
지도121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43) ····· 194

별내면

지도122 남선 묘 위치도(성동 015) ····· 197
지도126 이홍술 신도비 위치도(성동 025) ····· 201
지도128 내원암 석불입상 위치도(성동 024) ····· 203
지도130 이곤 묘 위치도(성동 016) ····· 204
지도134 덕흥대원군 이초 묘 위치도(성동 025) ····· 206
지도138 순빈김씨 묘 위치도(성동 025) ····· 210
지도140 안홍량 묘 위치도(성동 035) ····· 211
지도156 한효원 묘 위치도(성동 036) ····· 221
지도157 남을빈 묘 위치도(성동 036) ····· 222
지도162 김광서 묘 위치도(성동 035) ····· 226
지도166 연주현씨 묘역 위치도(성동 045) ····· 229
지도167 김효원 묘 위치도(성동 046) ····· 231
지도170 불암산성 위치도(성동 034) ····· 234
지도173 견성군 이돈 묘 위치도(성동 036) ····· 243
지도175 보성군 이용 묘 위치도(성동 025) ····· 244
지도177 변사겸 묘 위치도(성동 036) ····· 246
지도178 퇴뫼산성 위치도(성동 026) ····· 247

퇴계원면

지도179 남양주 퇴계원리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37) ····· 257

진건면

지도180 사릉 위치도(성동 048) ····· 259
지도183 해평사 위치도(성동 048) ····· 263
지도187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위치도(성동 048) ··· 265
지도188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위치도(성동 047) ····· 267
지도190 충목사 위치도(성동 047) ····· 270
지도191 효간사 위치도(성동 047) ····· 270
지도193 남양주 신월리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37) ····· 272
지도194 익현군 이연 묘 위치도(성동 038) ····· 272
지도203 최청 묘 위치도(성동 028) ····· 279
지도205 홍익한원배 능성구씨 묘 위치도(성동 038) ····· 281
지도206 이화영 묘 위치도(성동 039) ····· 282
지도208 광해군 묘 위치도(성동 039) ····· 284
지도210 안빈이씨 묘 위치도(성동 049씨) ····· 287
지도213 조상우 묘 위치도(성동 039) ····· 291
지도214 남양주 송능리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49) ····· 292
지도220 봉인사 풍암취우대사비 위치도(성동 039) ····· 297

수동면

지도221 남양주 운수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13) ····· 299
지도222 남양주 지둔리 지석묘군 위치도(양수 013) ····· 299
지도223 남양주 지둔리 시무나무 위치도(양수 012) ····· 301
지도225 남양주 외방리 소나무 위치도(양수 003) ····· 302
지도227 반공희생자 합동위령비 위치도(일동 092) ····· 304
지도228 이유원 묘 위치도(양수 024) ····· 304

조안면

지도229 한확 묘 위치도(양수 092) ····· 307
지도230 정약용 묘 위치도(양수 093) ····· 308
지도232 남양주 능내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82) ····· 310
지도234 마진산성 위치도(양수 073 · 083) ····· 313
지도235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위치도(성동 067) ····· 316
지도238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위치도(양수 073) ····· 320
지도239 이덕형 별서지 위치도(양수 073) ····· 321
지도243 수종사 부도 위치도(양수 073) ····· 323
지도247 유량 묘 위치도(양수 063) ····· 326
지도248 남양주 시우리 산제당 위치도(양수 062) ····· 328
지도249 남양주 조안리 도당집 위치도(양수 083) ····· 331

지도250 남양주 조안리 당집 위치도(양수 082) ····· 334

오남면

지도254 하자종 묘 위치도(성동 030) ····· 345
지도256 남양주 오남리 향나무 위치도(성동 029) ····· 346
지도258 심선 묘 위치도(성동 018) ····· 348
지도265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위치도(성동 028) ····· 353

호평동

지도266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1 위치도(양수 031) ····· 356

평내동

지도272 궁집 위치도(성동 050) ····· 371
지도277 의안대군 이화 묘 위치도(양수 041) ····· 378

금곡동

지도282 홍릉 위치도(성동 049) ····· 384
지도286 남양주 금곡동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59) ····· 389
지도287 구수영 묘 위치도(성동 048) ····· 389

양정동

지도294 계양군별묘 및 이선영효자정문 위치도(성동 058) ····· 398
지도299 전성군 이변 묘 위치도(성동 058) ····· 401
지도305 민제인 묘 위치도(성동 058) ····· 405
지도309 이민승 묘 위치도(성동 058) ····· 409
지도310 구성 묘 위치도(성동 048) ····· 410
지도314 김한구 묘(위치도) ····· 414
지도317 이의현 묘(성동 058) ····· 417
지도319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위치도(성동 068) ····· 420
지도321 김육 묘 위치도(성동 068) ····· 422
지도328 역촌토성지 위치도(성동 068) ····· 431
지도330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위치도(성동 068) ····· 435

지금동

지도331 안산보루 위치도(성동 067) ····· 439
지도332 가운동 지석묘 위치도(성동 068) ····· 441
지도330 조말생 묘 위치도(성동 068) ····· 444
지도340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위치도(성동 068) ····· 451
지도347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위치도(성동 057) ····· 451

기타목록

16~19세기 양주 지역의 지명변천 ····· 46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현 남양주 지역과 이후 변화내용 ····· 48
연주현씨 묘역 일람표 ····· 230
당집 내부 제물진설도 ····· 337
구능제 제물진설도 ····· 337
후산 제물진설도 ····· 337

Ⅰ. 조사 개요

1. 조사 경위
2. 조사 방법
3. 조사성과 및 조사단 견해



1. 조사경위

남양주시는 서울의 동북쪽에 접한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북한강을 경계로 양평군 · 가평군과 접해 있고 서남쪽의 일부는 한강을 경계로 광주 · 하남 · 구리시와 북쪽으로는 의정부시 · 포천군 등과 인접하여 시의 형상이 부채를 활짝 펼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과거 楊州郡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지역의 발전에 따라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현재 3읍 · 6면 · 6동의 행정구역 편제를 갖추고 있다. 전체면적은 460㎢이며, 1999년 현재 인구는 약 30만명 정도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면적은 안성시, 이천시에 이어 13번째이며, 인구는 의정부시, 용인시에 이어 11번째이다. 남양주시는 시청이 있는 금곡과 도농, 덕소, 퇴계원, 장현, 평내 정도에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은 산지와 도 · 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남양주 일대에는 비교적 많은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한강과 왕숙천을 따라 많은 선사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일제시대에 실시된 조사에서 밝혀진바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재조사가 실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간의 문화유적 조사는 능 · 원 · 묘 등과 같은 유교유적에 한정된 개략적인 현황파악에 머물러 있었고, 기초자료로는 1970년대에 작성된 『문화유적총람』과 『팔당댐 수몰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정도였다.

본 조사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광역 문화재조사의 일환으로 남양주시와 토지박물관의 학술용역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사의 목적은 도내의 여러 지역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향후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자료를 획득하고 각종 공단, 택지개발 및 사회 간접시설확충 등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남양주시에 대한 조사를 토지박물관에서 실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1997년 양주군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고양시 · 양평군 · 연천군 등 경기 중 · 북부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남양주시는 양주군에서 분리되었고, 양주군에 대한 조사에서 많은 유적을 발견한 바 있어 양주군과의 연계선상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사는 1998년 11월 5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실시되었으며, 남양주시의 역사 ·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 **조사단장**

홍 경 표(토지박물관장)

□ **자문위원**

한 병 삼(전 국립중앙박물관장)

김 병 모(전 한양대학교박물관장,
현 전통문화학교교장)

□ **역사분야**

책임조사원

주　혁(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사)

□ **불교 · 유교 · 분묘유적분야**

책임조사원

장 희 흥(남양주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이 관 호(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관방유적분야**

책임조사원

심 광 주(토지박물관 학예1실장)

조사원

김 주 홍(토지박물관 학예연구사)

정 나 리(토지박물관 학예연구사)

□ **고고유적분야**

책임조사원

김 상 익(토지박물관 학예2실장)

조사원

김 성 준(토지박물관 학예연구사)

윤 우 준(토지박물관 학예연구사)

김 충 배(토지박물관 학예연구사)

최 형 균(토지박물관 학예연구사)

유 병 린(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 화 종(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학년)

□ **보호수 및 천연기념물분야**

책임조사원

김 선 미(한국토지공사 시설설계처 조경부 과장)

조사원

유 재 식(한국토지공사 시설설계처 조경부 대리)

유적에 대한 조사는 각 분야별로 수행되었으며, 현장조사 이후 원고는 각 분야별 책임조사원이 작성하였으나 고고분야는 김충배가 집필하였고, 관방유적분야 중 봉수부분은 김주홍이 작성하였다.

보고서발간을 위한 실무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유물 도면은 정나리 · 이화종이 맡았으며, 탁본은 이화종, 불교 · 유교 · 분묘유적 분야에 대한 유적사진 촬영 및 편집은 김주홍이, 유물사진의 촬영은 심광주가 하였으며, 조사의 기획과 조사진행과 점검 및 보고서 발간작업에 이르기까지 총괄업무는 김주홍이 담당하여 수행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자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삼 선생님과 김병모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현장으로 직접 안내해주시며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향토사료관 임병규 관장님과 최상인 사무국장님 그리고 남양주시사편찬위원회의 장희흥 선생과 귀한 필름을 제공해 주신 남양주문화원의 윤원하 이사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적적인 뒷받침을 하여 주신 김영희 남양주시장님과 문화공보실 김삼수 선생과 김영민 선생께 감사드린다. 또한 수업시간을 옮겨가면서까지 틈틈이 본 조사에 도움을 준 양평 양서종고의 홍석주 선생과 본 책의 편집작업을 위해 애써주신 도서출판 큰기획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토지박물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기 사장님과 오국환 부사장님, 김재현 택지본부장님, 그리고 이번 조사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주신 김명섭 사업개발처장님과 홍경표 관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 조사방법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문화재의 현황파악에 주력하였다. 조사작업은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기록과 사진촬영 및 유적의 위치를 1 : 5,000 지도에 표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 분야별 조사는 토지박물관 내 · 외의 관련전문가로 세분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 현장조사 전에 이미 조사된 유적에 대한 문헌자료의 확보 및 각 동리의 동 · 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발견 매장문화재의 파악에 주력하였다. 본 조사는 유형문화재의 위치와 현황파악이 목적이었으므로 민속분야의 조사도 유형의 유적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의 성과를 보면 전체 조사유적의 수는 348개소이다. 이것은 양주군에서 조사된 유적 258개와 합하면 전체 606개로 이는 『문화유적총람』에 수록된 양주와 남양주가 분리되기 전의 양주군의 유적총수인 150개에 비하면 약 4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렇지만 본 조사는 광역조사라는 한계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시되기 어려웠음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문화재유무에 대한 가능성 판단을 위한 개략적인 자료일뿐 해당지역에 문화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사분야

역사분야에 대한 조사는 우선 남양주시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즉, 기존의 일반적인 통사형식의 서술을 탈피하고 남양주시 자체의 역사적 흐름을 밝히고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남양주시가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는지와 남양주시가 근대에서 현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기본적인 사료의 조사 이외에도 몇 차례의 현장 조사도 실시하여 사료와 문헌의 사실성 여부를 실사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런 방법의 역사 서술은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는 전혀 새로운 지역사 서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불교 · 유교 · 분묘유적분야

불교 · 유교 · 분묘유적분야는 남양주시 문화유적 지표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은 부분이다. 특히 분묘유적분야의 경우 남양주시사 편찬작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조사에서 종2품 이상 사대부의 묘역만 500여 개소, 신도비만 70여 기가 넘고 아직 미 파악된 묘역까지 합치면 정확히 얼마인지는 파악이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 언급된 분묘유적은 향토유적 이상으로 지정되었거나 현장조사를 통해 인물의 약력이 뚜렷하거나 귀감이 될 수 있고 묘역이 어느 정도 옛 모

습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하여 문중간의 형평성과 전체분량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분묘를 중심으로 선별 수록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되는 분묘유적의 墓向과 묘표 · 묘갈 · 신도비 등 碑向의 경우에는 묘역의 後面에서 관측한 方位이다.

아울러 분묘유적과 관련있는 사당 · 재실 등 유교유적의 경우는 해당 묘의 바로 다음에 서술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래에 건립된 것일지라도 시기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서술하여 소개하였다.

3) 민속분야

민속조사는 남양주시 전 지역에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유형의 민속자료를 확인 · 조사 · 기록하고, 이에 대한 발굴 조사와 보존 여부를 결정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는 다양한 유 · 무형의 민속자료 중 유형으로 전승되고 있는 산제당 · 산신각 · 터주가리 등 민간신앙과 관계있는 것을 중심으로 10개 마을 16개소의 유적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지역인 남양주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가도(46번 국도)와 북한강을 중심으로 동서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만아니라 전원생활지로서 적합한 지역이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도시화를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다. 다행히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 자연마을의 경우 상당량의 전통문화가 유지 계승되고 있음을 현지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실례로 지금도 마을마다 공동으로 산신당을 지어놓고 산신제를 지내는가 하면, 가정에서는 터를 지켜주는 터주신과 재산을 관장하는 업신 등을 짚 주저리 형태로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 마을 중 호평동에 대한 민속조사는 『호평동 향토지』(1994)를, 마을의 지명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지명총람』(1985)을 많이 참고하였다. 기타 지역 개관 등에는 『풍양신문』(1990~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 『남양주시 호평 · 평내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1998), 『경기도 민속지』(1998), 『남양주시 문화관광 길잡이』(1999)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현지 조사에는 이관호(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전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8년 12월 13일부터 1999년 5월 15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수시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택해 실시하였다.

자료 제보자로는 될 수 있는 대로 통장의 협조 하에 그 마을의 연장자 및 제관이나 축관을 여러 차례 지낸 사람을 택하였고,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함으로써, 공통된 견해를 추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점에서 경로당의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자료 조사에 도움 말씀을 주신 마을의 제보자들은 오른쪽의 표와 같다. 또한 조사와 병행하여 사진 촬영, 실측, 녹음을 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그리고 민속 전반에 대한 설문지를 미리 준비하여 현지 조사에 활용하였다.

조사 분야는 크게 총 3개 분야로, 조사지역의 문화적 배경, 마을공동체신앙, 가신신앙 등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19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마을생활 문화의 역동적인 면모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4) 관방유적분야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관방유적은 모두 8개소이다. 봉수유적으로는 한이산 봉수가 있고, 성이나 보루로는 퇴뫼산성과 불암산성, 마진산성, 역촌토성, 수석동토성, 안산보루, 국사봉 보루 등이다. 이러한 관방유적의

민속유적분야 제보자 현황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주 소	기 타
정 명 국	남	44	상업	남양주시 호평동	
이 봉 기	남	51	농업	남양주시 호평동	지사마을 통장(1통)
이 복 동	남	88	농업	남양주시 호평동	제관 · 축관 경험 多
황 진 범	남	42	농업	남양주시 호평동	호만마을 통장(4통)
김 진 택	남	73	농업	남양주시 호평동	제관 · 축관 경험 多
배 영 희	여	45	농업	남양주시 호평동	호만마을 부녀회장
김 춘 수	남	48	농업	남양주시 호평동	터주신 모심
허 진	남	50	농업	남양주시 평내동	3통장
이 강 은	남	52	상업	남양주시 평내동	1통장
홍 종 택	남	62	농업	남양주시 평내동	10통장
김 식 순	여	74	농업	남양주시 평내동	터주신 모심
김 태 성	남	59	농업	남양주시 평내동	제관 경험 多
김 후 동	남	63	농업	남양주시 평내동	축관 경험 多
박 광 석	남	75	농업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 4리	노인회장
김 춘 희	남	67	농업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 4리	노인회 총무
신 남 복	남	55	농업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 4리	
김 익 수	남	74	농업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 2리	노인회장
양 성 묵	남	74	농업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 2리	
김 인 수	남	59	농업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 2리	
박 인 중	남	55	농업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 2리	
오 명 례	여	68	농업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 2리	
김 정 환	남	65	상업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 1리	마을 이장
박 광 응	남	82	농업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 2리	
박 광 소	남	74	농업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 2리	
박 홍 렬	남	65	농업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 2리	
박 치 홍	남	83	농업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 2리	터주가리 모심
박 광 덕	남	63	농업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 2리	터주가리 · 업가리 모심
이 준 하	남	80	농업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제관 경험 多
윤 준 덕	남	74	농업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신 복 동	남	71	농업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신 영 구	남	42	농업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김 영 구	남	66	농업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축관 경험 多
박 종 덕	남	63	농업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소임
박 광 문	남	70	농업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이 영 호	남	40	농업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소임

수는 양주군 관내에 28개의 관방유적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숫자가 매우 적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의 관방유적은 주요 간선도로상의 요충지에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남쪽으로는 한강이 가로막혀 있고, 내륙교통망으로는 왕숙천을 따라 형성된 47번 국도와 의정부로 연결되는 43번 국도가 주도로이며, 동서방향으로는 강안을 따라 형성된 6번 국도와 중심부를 관통하는 46번 국도가 주도로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들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3번국도의 보조도로로서 그 도로선상에는 퇴뫼산성과 국사봉보루, 불암산성 등이 구축되었을뿐 대형의 성곽은 축조된 것이 없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하여 나루를 관장하던 수석동 토성의 경우는 지표상으로 유적의 성격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추후 시굴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마진산성이나 역촌토성은 성의 흔적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5) 고고유적분야

남양주시의 선사유적은 1970년대의 팔당 · 소양댐 수몰지구에 따른 조사에서 인근 양평지역과 함께 그 중요성과 유적 분포범위가 일부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조사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적의 범위와 성격이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매장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고고유적분야에 대한 조사는 과거에 조사가 이루어졌던 지역을 재답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입지상 문화재부존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여 토지박물관 다수의 조사인력이 투입되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그동안의 도시화 개발과정에서 이미 많은 수의 유적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그나마 확인된 유적지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행이었던 것은 구 원진레이온 공장 북쪽에 인접한 지금동 지사마을 동편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구릉상부에서 완형의 마제석부 1점을 지표채집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6) 보호수분야

남양주시의 보호수 및 천연기념물분야에 대한 조사는 남양주시청 산림과의 협조를 얻어 보호수 관리대장의 목록을 입수하고 그 내용을 근간으로 남양주시 전역을 답사하면서 보호수의 상태, 수령, 크기, 모습, 그리고 나무와 관련된 민간신앙 등을 채록하여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대한 역사를 담고자 하였다.

현지 답사를 통해 보호수에 대한 기록과 함께 수목의 사진촬영 및 1 : 5,000 지형도에 위치를 표기함으로써 보호수의 현 상태에 대해 충실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지속적인 보호관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지정된 보호수는 모두 51개소 64그루에 달하였으며, 수종은 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와 같은 장수목과 상수리나무, 향나무, 소나무처럼 마을어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나무들이었다. 그 외 시무나무와 사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보리수가 주된 조사대상이었다.

지정된 보호수들은 간판이 세워지고 높다란 울타리가 둘러쳐지고 이름 그대로 보호를 받게 되지만 보호수 중에는 열악한 생육환경에 그대 노출되어 있고 기본적인 보호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나무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주변환경을 나무의 생육에 유리하도록 확보해주고 정기적으로 병충해방지 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마을사람들이 나무의 숨결을 느끼며 아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등 사람과 나무가 공존할수 있는 보호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성과 및 조사단 견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은 총 348개소이다. 이중 선사시대 유적 15개소, 삼국시대의 유적 6개소, 고려시대의 유적 3개소로 선사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유적은 모두 24개소로 전체 유적의 7%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분묘와 신도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유적은 295개소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남양주시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적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으로 남양주 지역은 산세가 수려하고 길지가 많아 조선시대의 음택이 많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조사에서는 그 많은 묘역과 묘비명중 보고서에 수록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스러울 정도였다. 더구나 남양주시에서 이러한 형태의 조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적들의 위치나 현황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것이 고고유적이었다. 남양주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한강유역과 넓은 면적으로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의 중심부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며 왕숙천이 흐르고 있어 많은 선사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일제시대에 조사된 자료라든가 팔당댐이 수몰되기 전만 해도 이 지역은 많은 선사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조사결과 저평한 구릉지에 분포되어 있던 유적들은 이미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유적들은 팔당댐으로 인하여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몰되었고, 왕숙천변에 위치하고 있던 유적들은 도시의 확장에 따라 절토되거나 성토가 되면서 더 이상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었다. 저평한 구릉지의 밭에서 고구려토기편을 발견하고 흥분했다가, 그 토기편이 발견된 흙은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흙을 받아서 객토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 구릉의 완경사지나 저지대의 경우에는 원래의 토양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 찾게된 새로운 가능성은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들이었다. 해발고도가 100~200m에 달하는 야트막한 소봉의 정상부에 의외로 많은 유적들이 부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양주지역의 경우 향후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잘 고려하여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양주시에 대한 광역조사를 마감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유적들이 이미 사라졌지만 아직도 유적보존정책을 수립할 시간이 늦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문화자산이 제 빛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어떻게든 이 문화재들이 보존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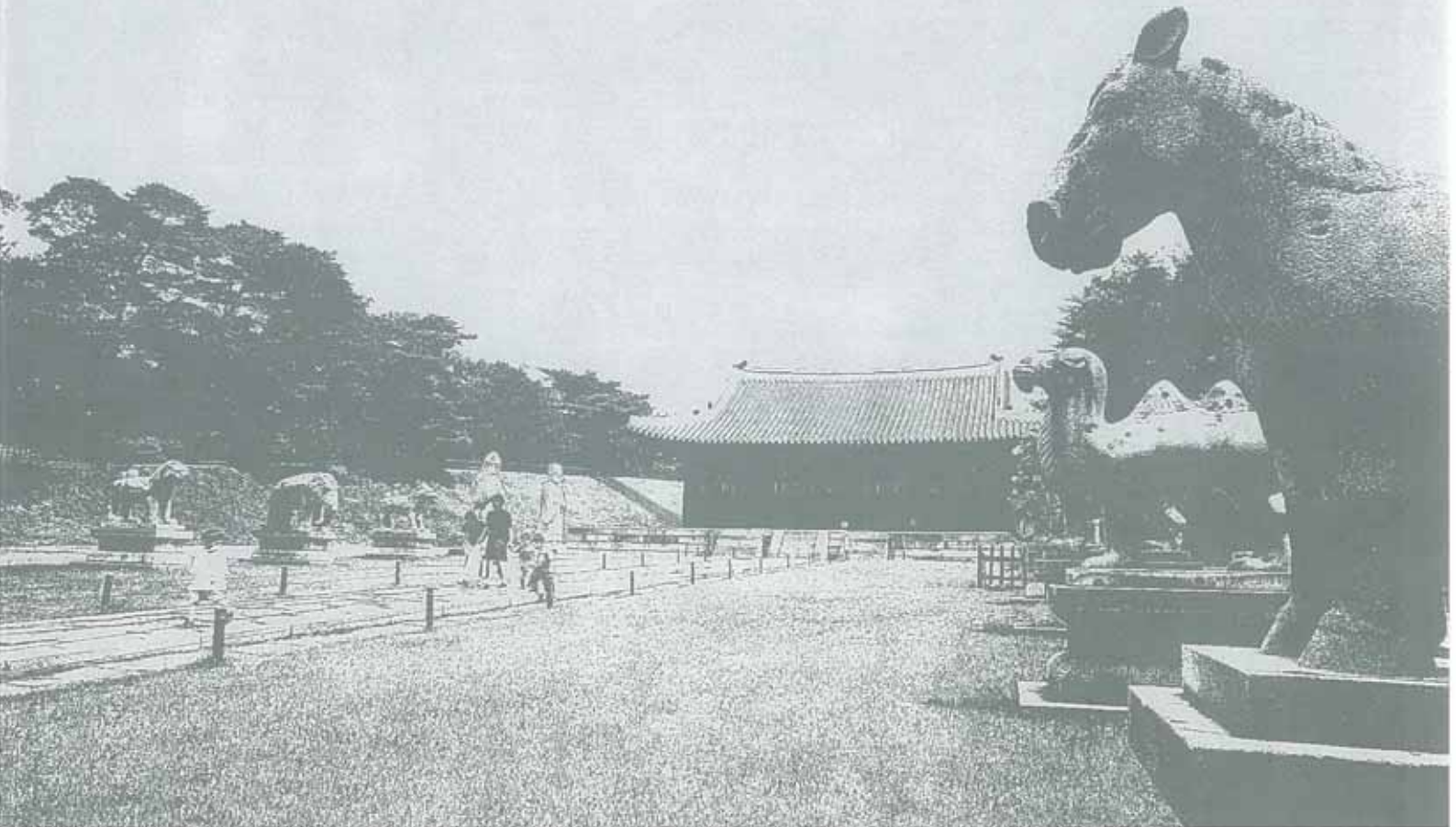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

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몇 십 년전부터 농촌의 땔감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산에 잡목이 우거지고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단순한 지표조사만으로 유적을 찾아낸다는 것은 점점 더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지리와 유래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문화재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조사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음을 밝힌다. 일일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분들께 새삼 감사드리며, 방치된 우리의 문화재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Ⅱ. 역 사

1. 양주의 남쪽에 위치한 큰 마을
2. 풍양에서 남양주시까지의 역사
3. 남양주의 지역문화
4. 남양주가 안고 있는것



1. 양주의 남쪽에 위치한 큰 마을

1999년 현재의 南楊州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관문도시이자 21세기 문화관광 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다. 남으로는 한강이, 동북쪽으로는 북한강이 흐르고 동북지역의 주금산 · 천마산 · 축령산 · 운길산과 서쪽의 수락산 · 불암산이 등뼈를 이루며 시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때문인지, 이곳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들은 남양주시를 소개하는 소책자에 '녹색문화도시 남양주' 혹은 '山紫秀麗한 녹색의 도시'라는 문구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현재의 남양주는 楊州의 반쪽과 기타 인접한 몇 개 시 · 군과의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舊양주는 매우 오랫동안 현 남양주시를 포함하여 현재의 동두천, 의정부, 구리에다 서울의 일부지역까지를 포괄하고 있었다. 1980년 4월 1일 양주군에서 분리, 남양주군에서 다시 시로 승격한 지 몇 년 안된 까닭에 여전히 양주 땅의 반쪽이었다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남양주의 역사와 문화는 옛 양주지역의 변화과정 모두를 시야에 넣어야만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주가 포괄하였던 광범위한 지역의 역사를 살펴본 보고서가 최근 발간된 바 있기 때문에,[1] 여기서는 현 남양주 일대의 변천과정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구한말 시기인 100년 전 까지만 해도 현 남양주 지역은 양주, 양평, 가평, 광주 등 다양한 군현으로 나누어져 있던 상태였다. 다시 말해 양주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던 1,000년 전부터 불과 100년전까지는 매우 복잡한 邑號昇降 과정은 물론 다양한 군현으로 편제된 곳이었다는 말이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많은 행정구역 개편이 잇따랐고, 특히 양주에서 分郡된 이후에도 인구증가와 도시화 추세의 확산에 따라 몇 차례의 개편과정 끝에 1995년 1월 1일부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統合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확정지었다. 특히 남양주시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시로 유명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양주 지역과 관련하여 문헌에 나타나는 지명과 그 변천과정, 각 시기마다 남양주 지역의 기능과 위상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남양주 지역을 가리켰던 삼국시대부터의 군현 명칭과 그 소멸과정, 양주의 관할구역으로 정착한 이래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신도시로 부각되는 과정까지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겠다. 그 과정에서 남양주지역 고유의 '地域文化'[2] 라고 볼 수 있는 면모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

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양주군, 1998,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37~62쪽 참조.

2) 여기서 '지역문화'라 함은 첫째, 해당 지역의 지리적(자연환경)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지역의 역할과 기능, 혹은 주민들의 생업기반 등으로 축적되어 왔던 것, 둘째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이념 및 사상 가운데 오랜 기간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2. 풍양에서 남양주시까지의 역사

본 장에서는 남양주시의 연혁을 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삼국~고려시대까지는 한강의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삼국간의 쟁패와 그에 따른 지명변천, 즉 현재의 남양주지역을 가리켰던 고리성, 골의노현, 그리고 풍양(현)의 변화까지를 고찰대상으로 하겠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 풍양현이 양주에 귀속되고 조선후기까지 양주의 직할지역으로 남아있었던 시기,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전국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 당시 현 남양주 지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은 1980년 남양주군으로 분군된 이후 신도시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까지이다.

1) 고리성/골의노현에서 풍양(현)까지의 변천

현 남양주 지역을 가리키는 오랜 지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기원전 3세기 전후에 형성되었다는 삼한은 馬韓, 辰韓, 弁韓을 말하는 것으로, 이중 마한은 현 경기, 충청, 전라도 일부 지역을 포괄하면서 약 50여 개의 '國'을 두었다. 이중 남양주 지역도 한곳으로의 비정이 가능할 것이나 확실하지는 않다.

삼국이 정립했던 시기에 현 남양주 일대를 가리켰던 지명으로 豊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양이란 지명이 『三國史記』[3]에 기록된 사실에서 삼한시기부터 부족국으로 출발하여 차츰 성장해 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양주목의 속현으로 등장하는 풍양 관련 기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풍양군은 州의 동쪽 50리에 있으며, 본래 고구려시대 골의노현이며, 신라가 황양으로 고쳐 한양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 풍덕으로 고치고, 현종 9년 양주에 속하고 후에 포주에 속하다가 조선시대 세종 원년 본래로 귀속되었다.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와 백제는 국경을 접하면서 상호 정복전쟁이 시작되었다. 고구려 광개토왕이 본격적인 남하정책을 전개하기 이전까지 현 남양주 지역은 일찍부터 한강변에 도읍을 정한 백제의 영토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력을 강화한 고구려는 점차 남진정책을 펼쳐 396년(광개토왕 6)에 백제의 58개 성과 700개의 촌락을 점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廣開土王陵碑」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三國史記』 권35, 雜誌 4, 地理(二).

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軍至窠南攻取寧八城臼模盧城各模城幹氐利城○○城閣弥城牟盧城弥沙城古舍蔦城阿旦城古利城…

위 기사에서 광개토왕이 396년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잔국(백제)의 토벌에 나섰고, 영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고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등을 공격하여 취했음을[4] 알 수 있다. 비문 중에 아단성 다음에 나오는 古利城에 주목해 보자. 고구려의 지명인 骨衣奴縣과 음이 유사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骨衣→古利→古離가 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날의 남양주시 진접읍·진건면 일대를 마한의 古離國이라고 보는 견해가[5]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현 남양주 지역은 마한의 고리국에서 백제의 고리국으로, 396년 고구려에 점령당한 이후 그 명칭이 골의노현으로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광개토왕의 백제도성 침공 이후 남양주 지역은 삼국간의 본격적인 쟁패지역으로 등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남양주의 경계인 한강유역은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한가운데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475년(장수왕 63) 9월 고구려 군사 3만명이 백제의 도읍지 한성을 함락시킴으로써 한강이남의 지역이 고구려 관할 하에 들어감으로써 남양주시는 고구려 買城 또는 昌化郡에 소속되었다. 이에 남양주지역은 漢山州에 속한 北漢山郡(현 서울지역) 관내인 骨衣奴縣(오늘날의 진접일대)에 속하였다. 또 고구려 買省縣은 지금의 남양주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현 남양주 지역을 가리켰던 지명은 고구려와 백제의 쟁패과정에서 자주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하기 전까지 고구려는 80년 가까이 이 일대를 장악, 통치할 수 있었다.[6] 고구려 관할 하에 들어갔던 한강 주변 영역은 551년(성왕 29) 백제가 일시적으로 다시 찾은 적이 있지만 553년(진흥왕 14)에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하류 지역을 신라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때부터 남양주지역은 오랫동안 신라에 속하였다. 685년(신문왕 5)에 완비되었다는 9주 5소경은 주로 한강을 경계로 이남지역, 특히 백제 故土를 중심으로 한 지배권역의 정비를 위해 실시했던 듯하다. 한편 신문왕대 지방제도 관련 기록에서 한강 이북지역과 관련된 지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삼국을 통일한 후 신라는 757년(경덕왕 16)에 단행한 지방행정 조직은 9주 5소경을 설치하고 115군 201현 등으로 하는 체제였다. 이때 고구려의 옛 영토에는 漢州 등 3주를 두었는데 그 치소는 廣州로 漢陽郡이 있었다. 고려시대 양주와 관련된 지명은 來蘇(현 주내면 지역), 沙川(현 동두천 지역), 荒壤(현 진접·진건 지역), 漢陽(현 북한산 지역) 등이다. 현재의 서울을 중심으로 북한산군을 한양군으로 개칭하면서 골의노현도 荒壤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이때 황양현은 한양군에 속하게 되고 현 남양주지역도 여기에 속하게 되었다.

통일 이후 신라 서북지역의 확장과정을 살펴보면 남양주지역의 통일기 상황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 통일 직후인 신문왕대에는 9주 5소경 체제로 지방제도를 개편하였다. 한산주지역은 통일전쟁기 이래 州治가 있었던 廣州를 중심으로 한강 이남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신문왕이 나당전쟁 이후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한 한강 이북지역의 통치문제보다는 귀족세력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중앙집권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757년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7] 지방 9개 주를 비롯한 군현의 명칭이 바뀌었다. 고구려 지명인 골의노현이 한주에 속한 한양군의 영현인 荒壤縣으로

4) 王健群, 1984, 『好太王碑の研究』, 160쪽.
5) 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篇)』, 진단학회, 284~285쪽.
6) 남양주 일대에서는 이번 지표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고구려의 유적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7) 경덕왕대의 일련의 개혁조치는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이 새로운 잔골 귀족세력의 등장하자 그들 세력을 제어하고 왕권의 재강화를 위한 목적을 띠었다.

호부 수주보다는 하급 관청이고 부평부 · 수원부로 된 樹州 · 水州와는 같은 등급의 관청으로 자리잡았다.[22] 한양부로 바뀐 양주는 3속군 · 6속현을 지배하는 하급 관청으로 지금의 서울 · 남양주 · 양주 · 포천 · 고양 등 서울과 그 주변 일대만을 다스리게 되었다.

남양주지역은 1171년(명종 1)에 楊廣忠淸州道가 楊廣州道와 忠淸州道로 나뉘어졌고, 얼마후 양광충청주도가 되었다. 충선왕대 다시 양광도로 개칭되었다. 1308년(충렬왕 34) 남경이 한양부로 개칭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양주라는 명칭은 1067년(문종 21)경부터 고려말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했듯이 풍양현은 고려초 그대로 풍양으로 하였는데 豊德이란 명칭으로도 불리웠다. 1018년 소속이 抱州郡으로 바뀌었다. 고려시대 당시 현 남양주 지역을 가리켰던 지명으로 平丘(현 삼패동 일대)을 들 수 있다.[23] 평구는 당시 육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던 곳이었고, 조선조 이후에도 계속 주목받았다.

고려시대에는 현재의 서울지역이 양주 또는 南京으로 불리우면서 군사적 요충지에서 점차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때 양주의 속현으로 진접일대를 중심으로 풍양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4년(태조 3)에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서울의 주변에 위치하게 되었고, 모든 생활권이 한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 당시 양주에 포괄되었던 광할한 영역은 점차 수도의 외곽지역을 가리키게 되었고, 풍양은 양주의 속현이 되었다.

조선 건국 당시 양주의 치소도 한양부 밖으로 밀려나 정해지면서 강등하여 知陽州事로 삼았다가 1397년(태조 6)에 府로 승격하여 府使를 두었다. 府治는 견주 옛 양주군 고읍리로 옮겼다. 1413년(태종 13) 양주는 도호부로 되고 속현으로 견주 · 풍양 · 사천 등 3개가 있었다. 연산군은 1504년 양주목을 폐지, 사냥터로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고, 1511년(중종 6)에 다시 復州하였다.

진관체제는 1册 1郡 5縣이 있었다. 따라서 관내는 파주와 고양군이 있었고, 5현은 永平, 포천, 적성, 교하, 가평이었다.[24]

세조는 대개혁을 단행하여 軍翼道의 체제가 진관체제로 변화한다. 따라서 주요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중 · 좌 · 우익의 편성을 하던 종래 체제가 바뀌어 주요한 鎭을 巨鎭으로 하고 주변 여러 진은 諸鎭이 되었다. 따라서 양주진은 漣川, 麻田, 적성, 原平, 교하, 고양, 영평, 포천, 가평이 제진이다. 이러한 사실은 거진을 중심으로 제진이 군사적으로 相輔하는 조직체이다. 남양주는 양주에 속하며 양주진은 여러 진을 거느렸다.

다음은 현 남양주 지역을 포함하여 16~19세기의 양주 지역 전체의 지명변화을 살펴본것이다.

16~19세기 양주 지역의 지명변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古州內, 州內, 於等山, 別非谷, 榛代, 眞官, 尾谷, 上道, 下道, 苧夜, 龜旨, 忘憂里, 海等, 廣石, 泉川, 縣內, 山內, 嶺斤, 檜岩, 接洞, 乾川, 金村, 柴北谷, 美音, 古楊州, 蘆原, 白石, 石積, 神穴, 陳沓, 伊淡, 靑松	
『여지도서』(1760년)	명칭 변화	州內→邑內, 榛代→榛伐
	새로운 지명	瓦孔, 內洞, 長興, 禿音
	사라진 지명	尾谷, 美音
『대동지지』(1864년)	명칭 변천	邑內→州內, 榛伐→榛代
	새로운 지명	瓦谷, 美音
	사라진 지명	內洞, 瓦孔, 禿音

22) 『高麗史』 권56, 지10 지리1 남경유수관.
23) 『高麗史』 권82, 병지 참역 春州道와 平丘道조.
24) 육군본부, 1968, 『韓國軍制史』軍制 朝鮮前期編, 157쪽.

16세기에서 19세 중엽에 이르기까지 양주 지역의 명칭은 크게 변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의 기록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의 읍면 명칭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를 알수 있다. 즉 현 진접읍은 진벌과 접동이 합쳐서, 별내면은 별비곡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이후 양주 지역에는 큰 행정구역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가 구한말 시기에 전국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과정속에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앙관제의 개편 이후 지방관제 개혁은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칙령 제101호」로 개정 · 공포되었다. 이때 양주군은 칙령 제36호 지방제도 · 관제 · 봉급 · 경비 개정 제5조에 의하여 경기도에 속하는 3등 郡 중의 하나가 되었다.[25]

이른바 갑오개혁은 중앙관제에 관한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었고 지방조직의 개편방향은 쉽지 않았다. 여기서 논란은 현재 지방제조 府, 郡, 縣治가 너무 많아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폐합하느냐였다. 그러나 일본은 駐朝 일본공사를 井上馨 공사로 교체하여 1894년 10월 23일에 全文 20개조에 달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을미개혁을 말하는데 조선의 내정개혁에 한 걸음 더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단행된 지방관제 개편 내용은 전국을 23府, 331郡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이때 부에는 관찰사를 두고 군에는 군수를 두었다. 이때 지방관제는 23부 13도로 개편되었다. 이같은 을미개혁은 지방제도에 더욱 확고한 개편을 통하여 지방관속의 수를 줄여서 지방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일본 침략정책을 더욱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지방제도 개편은 정치적 변화가 있으면서 다시 논의되어 1896년 8월 6일에 칙령 제36호로 다시 23부에서 13도제로 개편되었고, 府制가 폐지되어 道制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지방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국민을 위한 참다운 개편이 아니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전국은 한성부를 제외하고 모두 13도로 나누었고 도는 다시 7부 1牧 331군으로 개편되어 신임 관찰사를 발령하였다.

3) 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

일제는 총독부 통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지방제도의 정비를 단행했다. 왜냐하면 한말의 제도를 자기들의 식민통치조직으로 합리화시킴과 아울러 실로 복잡한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10년 9월 30일 「總督府官制」와 함께 일제의 勅令 제357호로 「朝鮮總督府 地方官 官制」를 공포하여 도 관찰사를 道長官으로 개칭하고 각도에 內務部와 財務部를 두도록 함과 아울러 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府郡에서 面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었다.

조선병합을 단행한 일본은 강제 통치구조를 추진하면서 1914년 4월 1일 전국에 걸친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때 양주군은 16면 148개 리동으로 구성되었고, 현 남양주 지역은 양주군의 몇 개 면과 광주군 초부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같이 1914년에 단행된 대대적인 지방행정 구역 통폐합 조치는 일제가 보다 고효율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침략적인 성격이 농후한 것이었다.[26] 당시 단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로 당시 317개 군을 220개 군으로, 4,322개 면이 2,521개 면으로 대폭 감축된 것에서 그 개편 폭을 짐작할 수 있다.[27] 85년 전에 단행된 이 조치는 과거 한때의 기구정비에 그치지 않는다. 2000년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도 전국 지방행정 구역의 골간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

25) 국회도서관, 1987,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Ⅱ, 119쪽.

26)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는 종래의 府郡制를 폐지하여 府를 도시행정의 기본단위로 하고 일본 居留 民團의 各國共同租界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기한다는 점, 郡과 面의 대대적인 廢置分合을 통하여 군 · 면의 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통제력의 강화, 경비의 절감을 기한다는 점에 주 목적이 있었다.(孫禎睦, 1992, 『韓國地方制度 · 自治史硏究』(上), 일지사, 122쪽)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현 남양주 지역과 이후 변화내용[28]

읍 · 면	1914년 3월 개편내용/이후 변화	현 관할 구역
瓦阜邑	瓦孔面 · 草阜面 전체, 金村面 · 下道面 일부, 廣州郡 東部面 일부를 11개 리로 통합하고 와공면과 초부면의 한글자씩을 따서 와부면이라 함/1980년 12월 읍으로 승격. 1940년 2월 설치된 조안출장소가 1986년 면으로 승격, 분리	德沼 · 陶谷 · 八堂 · 月文 · 栗石 등 5개 리
榛接邑	榛伐面 · 接洞面 전체, 別非面과 乾川面의 일부를 9개리로 합치고 진벌면과 접동면의 앞글자를 따서 진접면이라 함/ 1968년 1월 水山里를 수동면에 이관시킴. 1989년 4월 읍으로 승격. 1992년 4월 오남출장소 개설.	長峴 · 內閣 · 內谷 · 蓮坪 · 富坪 · 八夜 · 榛伐 · 金谷 등 8개 리
和道邑	下道面과 上道面을 합쳐 13개 리로 편제하고 화도면이라 함/雲水 · 松村 · 芝屯 등 3개 리가 1964년 신설된 水洞面으로 편입됨. 1991년 12월 읍으로 승격.	磨石隅 · 墨峴 · 嘉谷 · 琴南 · 沓內 · 月山 · 倉峴 · 鹿村 · 車山 · 九岩 등 10개 리
別內面	別非面 · 內洞面 전체, 芦原面 · 眞官面 일부를 8개 리로 통합하고 별비면과 내동면의 앞글자를 따서 별내면이라 함/1966년 퇴계원출장소가 설치되고 1989년 12월 면으로 승격, 분리됨.	青鶴 · 龍岩 · 廣田 · 德松 · 花蛾 등 5개 리
退溪院面	別非面 퇴계원리와 全道里 일부와 眞官面 本眞官里 일부를 통합하여 별내면 퇴계원리라 함/1966년 퇴계원출장소가 설치됨. 1989년 12월 면으로 승격.	退溪院里 1개 리
眞乾面	眞官面과 乾川面 전체를 합쳐 9개 리로 편제하고 두 개 면의 앞글자를 따서 진건면이라 함/八賢 · 梧南 · 陽地 등 3개 리가 1983년 2월 진접면으로 이관됨.	思陵 · 培養 · 眞官 · 新月 · 龍井 · 松陵 등 6개 리
水洞面	화도면, 진접면, 와부면 등의 각 리로 분산되어 있었음/1964년 신설될 당시 화도면의 운수 · 지둔 · 송촌리를, 1968년 1월 진접면의 水山里를, 가평군 외서면의 내방 · 외방 · 입석리를 각각 행정구역으로 편제함.	雲水 · 芝屯 · 松川 · 水山 · 內坊 · 外坊 · 立石 등 7개 리
鳥安面	1940년 2월 14일 와부면 조안출장소가 신설됨. 1986년 조안출장소가 조안면으로 승격됨.	陵內 · 鳥安 · 鎭中 · 松村 · 三峯 · 時雨 등 6개 리
梧南面	乾川面 팔현리가 팔현리로, 건천면 일부가 오남리로, 건천면 일부와 接洞面 일부가 양지리로 편제됨/ 1992년 4월 진접면내에 오남출장소 설치됨. 1995년 5월 진접읍에서 오남면으로 분리, 승격됨.	陽地 · 八賢 · 梧南 등 3개 리
好坪洞	上道面 5개 리 지역을 통합하여 渼金面 호평리라 함/1989년 1월 미금시 호평동으로 편입, 1995년 1월 미금시와 통합된 남양주시에 편제됨.	好坪洞 1개 동
坪內洞	上道面 2개리 일부를 통합하여 渼金面 평내리로 편제됨/1989년 1월 미금시 평내동으로 승격 · 분리, 1995년 1월 미금시와 통합된 남양주시에 편제됨.	坪內洞 1개 동
金谷洞	金村面 일부와 乾川面 일부를 합쳐 미금면의 금곡리로 편제됨/1980년 4월 양주군에서 남양주군 미금읍으로 관할구역 변경, 1989년 1월 미금시 승격에 따라 금곡리가 금곡동으로 승격됨.	金谷洞 1개 동
養正洞	金村面 · 瓦孔面 각 일부를 통합하여 渼金面의 일패 · 이패 · 삼패리로 편제됨/1989년 1월 미금시 승격으로 미금읍 일패 · 이패 · 삼패리를 통합하여 미금시 양정동 신설, 1995년 1월 미금시와 통합된 남양주시에 편제됨.	一牌 · 二牌 · 三牌 등 3개 동
芝錦洞	渼陰面 일부와 眞官面 · 金村面 일부를 합쳐 渼金面 지금 · 가운 · 수석 등 3개 리로 편제됨/1980년 양주군에서 남양주군 미금읍으로 관할구역 변경, 1989년 1월 미금시 승격으로 지금리 · 가운리 · 수석리를 통합하여 지금동 신설, 1995년 남양주시 지금동으로 편제.	加雲 · 水石 · 芝錦 등 3개 동
陶農洞	渼陰面의 3개 리 · 동 일부와 九旨面 일부를 합쳐 渼金面 도농리라 함/1989년 미금읍의 시승격에 따라 도농동사무소 개청, 1995년 1월 미금시와의 통합에 따라 남양주시에 편제됨.	陶農洞 1개 동

4) 1980년대 이후 新都市로서의 위상

남양주시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계속해서 행정구역 상의 변화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점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상황에 대한 표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1980년 이후의 변화과정은 서울과 인접한 곳으로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사례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9년 5월 1일 미금면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읍으로 승격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980년 들어 현 남양주시의 기틀이 마련되는 큰 행정구역 조치가 단행된 것을 필두로 잇달아 구역조정이 이루어졌다. 즉 기존의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이 신설되어 현 행정구역의 대강이 확정된 것이 1980년 4월이었다. 같은해 12월 1일 와부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 2월에는 진건면 양지리, 오남리, 팔현리가 진접면에 편입된 바 있다. 1986년 1월 1일 구리읍이 시로 승격, 군에서 분리되었다. 4월 1일 와부읍 조안출장소가 조안면으로 승격되고, 퇴계원출장소가 퇴계원면으로 승격된 바 있다.

계속해서 1989년 1월 1일부로 미금읍이 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조치와 효율적인 행정편제를 위해서 4월에는 진접면이 읍으로 승격, 1991년 12월 화도면이 읍으로 승격된 바 있다. 이듬해 4월 1일 진접읍 오남출장소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해인 1995년 1월 1일에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오늘날의 남양주시가 신설되었다. 1995년 5월 6일 오남출장소가 오남면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3읍 4면 6동 50법정리를 갖추었다.

이러한 변화 끝에 남양주시는 새로운 도시로 태어났다. 향후 남양주시는 서울북부와 남부에 걸친 신도시와 함께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매김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종합적인 지역구분을 시도한 기존 연구에서 남양주가 경기 동북부의 중심지역으로 설정된 바 있다. 한 연구는 경기 지역을 인천권, 수원권, 평택권, 여주권, 남양주권, 동두천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28] 물론 문화지역의 기준과 지역 설정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30] 남양주가 경기 동북부를 대표할 만한 지리적, 문화적 요소가 충분함을 반증하는 예로 보인다.

---

27) 이렇게 과감히 통폐합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비의 절약과 施政上의 편의에 있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반도 전역에 걸친 土地調査事業으로 각 지방의 지형, 지세, 면적 등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자, 이를 근거로 주민의 반대, 민심의 동요를 막을 자신이 생긴 때문이었다(손정목, 위의 책, 155~156쪽).

28) 이 표를 작성하는데 참고한 문헌은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地方行政區域發展史(내무부, 1979), 韓國行政制度(鄭時采, 法文社, 1986), 韓末近代法令資料集(국회도서관, 1971),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地名由來集(경기도, 1987), 지방행정구역요람(경기도, 1997) 등이다.

2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6, 『지방문화실태조사 및 균등배치연구』.

30) 종합적인 지역구분은 각 분야별, 영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형, 하천, 기후, 토양, 식물, 농업, 생활, 관광, 교통, 지역계획 등 분야별 기초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들을 종합하는 지역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같은 문화권이라 해도 언어권(방언권), 종교권, 민요권, 놀이권, 가옥권, 음식권 등 보다 작은 지역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을 모아 종합적인 문화권, 문화지역을 구상해야 지역구분이 적합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양보경, 1997, 「경기지역 향토문화의 이해」,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쪽).

3. 남양주의 지역문화

특정한 지역의 '地域文化'라 할 때 그 필요조건은 '자연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든 '그곳에서 살아간 역사 주체들의 삶의 내용'이건 간에 오래 축적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固有性을 띠어야 충분조건을 갖추는 것이고, 두 조건이 합치될 때 참다운 지역문화로 매김될 것이다.

지역문화의 특징을 밝히는 지역사가 편협한 복고주의나 자기 중심주의의 향토애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한다면 자신이 살아가는 삶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보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익숙한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라는 이분법 체계에서 보면 남양주 지역은 중앙에 서 있기보다는 사대문 밖 동부지역을 망라한 변방의 '양주군'으로 회자되어 왔다.

남양주시가 축적해온 지역문화의 특색은 실로 다양한 측면에서 발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문화란 결국 사람들이 축적시켜온 결과물이라 할 때 남양주과 관련하여 먼저 유일한 관적성씨인 豊壤 趙氏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양 조씨의 경우 남양주 권역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경기도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풍양 조씨가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31] 흔히 지역의 고유한 문화출현 시점은 200년 이상, 즉 조선후기에서 더 올라가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남아있는 문화유적이나 사료, 구전되는 이야기 등을 감안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선사인들의 흔적에서 현대시기까지를 포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선사인들이 살았던 흔적

현 남양주 지역에서 제일 앞서 터를 잡고 그들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간 이들은 당연히 先史人들이었다. 남쪽과 동쪽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적 조건을 감안하면 현 남양주 지역에 다양한 선사문화가 꽃피웠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남양주시의 선사시대 유적지로는 水石里, 陶農里, 芝錦里, 加雲里, 琴南里, 陶谷里 등 한강유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32] 이것은 인접한 미사리유적지처럼 한강을 중심으로 널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유적지에서는 선사인이 사용한 토기, 목탄, 석기 등이 발굴되었다.

31) 1985년 현재 경기도내 풍양 조씨의 가구수 현황은 남양주시 191, 평택군 161, 화성군 175, 시흥군 160, 포천군 195, 김포군 189가구 등이다(박병련, 1997, 「경기지역의 성씨와 씨족」,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78쪽).

32) 남양주 선사유적에 대한 조사 및 연구성과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김원룡, 1966, 「수석리 선사취락주거지 조사보고」, 『미술자료』11, 국립박물관: 이백규, 1977, 「양주군 자금리 유적」, 『고고학』4집, 한국고고학회: 손보기 · 이융조, 1974, 「양평군 양근리, 앙덕리지역 유적발굴보고」, 『팔당 · 소양댐수몰지구유적발굴종합보고서』, 문화재관리국: 이융조, 1976, 「새로이 발견된 구석기 및 구석기전통 유물의 몇 예」, 『백산학보』20: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상권):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8, 『북한강유역의 선사문화』.

선사시대 유적지인 수석리 토성에서 보여주듯이 남양주는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선사시대 문화가 번영을 이루던 지역이었음은 분명하다. 구석기시대 유적지로서는 정식으로 발굴된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지표조사에서 얻어진 유물만이 있다. 남양주 지역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는 와부면 능내리, 와부면 삼봉리, 화도면 금남리와 화도면 검터, 와부면 송촌리 두촌 유적, 와부면 진중리 마진유적, 와부면 능내리 마재유적 등이 있다. 하지만 중랑구 면목동과 양평군 병산리 등 주변에 한강을 끼고 많은 유적이 발굴, 조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남양주시 일대의 조사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행해진 조사인 까닭에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나올 것이라 전망된다.

신석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정착생활은 집자리터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구석기시대에 이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이미 생활방법상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양주 지역과 인접한 한강변에 하남의 미사리유적과 강동구의 암사동유적에서 대단위 집단 취락지가 발견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암사동 혹은 미사리와 서로 왕래가 있었음을 상정해 볼 때 이 지역에서도 향후 집자리가 발견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선사 집자리는 정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서 주로 발견되는 것인데 남양주지역은 이번 토지박물관의 지표조사가 처음인 관계로 발견된 예가 매우 적은 편이다. 기존에 알려진 주거 유적지는 수석리 선사 집자리와 가운동 선사집자리가 있다. 이외에 청동기문화로는 지금동의 가운동 지석묘가 있으며, 이번 토지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 수동면 지둔리에서 새롭게 3기의 지석묘가 발굴되었다.

특이한 사례로 수석동에 있는 선사유적은 일명 '약물터' 유적이라고도 하는데 유적이 발견된 곳에서 강변으로 150m 떨어진 곳에 작은 샘물이 있다. 이는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선사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식수원이라고 전한다.

2) 奉先寺와 水鐘寺로 꽃핀 불교문화

남양주시에는 오랜 전통과 명성을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사찰이 적지 않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수종사, 봉선사, 묘적사, 흥국사, 불암사, 봉영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여기서 봉선사와 수종사 만을 언급하려는 이유는 두 개의 사찰이 갖는 남양주 지역을 대표하는 명성이 아니라, 두 사찰의 내력 속에서 드러나는 서로 대비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먼저 봉선사에 대해 살펴보자. 진접읍 부평리의 운악산 기슭에 위치한 봉선사는 조선조 교종의 첫째가는 수사찰로 교종 승과를 보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현재는 한강 북부의 사찰을 총괄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에 해당한다. 이곳은 고려 때인 969년(광종 20)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1469년(예종 1) 이웃한 세조의 능인 광릉을 수호하는 원찰인 資福寺刹로[33] 주목받았다. 예를 들어 봉선사의 影殿에 참봉 2인을 베풀게 하거나,[34] 노비 40구를 내려주거나[35] 봉선사는 다른 사찰과 비교하지 말고 쌀과 베를 내린 사실에서도[36] 잘 드러난다.

봉선사가 능침을 받드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초기부터 후기까지 왕실의 거둥이 적지않게 이루어졌다. 정조는 광릉을 참배하고, 양주목을 출발하여 축석령에서 쉬고 봉선사에서 중을 위로하고 무휼

33) '자복사찰'이란 능침 역할을 하는 사찰을 의미한다.
34) 『睿宗實錄』 권5, 睿宗 1년 4월 21일.
35) 『成宗實錄』 권4, 成宗 1년 3월 11일.
36) 『成宗實錄』 권258, 成宗 22년 10월 15일.

한 바 있었다.[37] 구한말인 1902년(광무 6)에는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는 首寺刹로 격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봉선사는 1919년 3 · 1운동 당시 남양주 일대의 만세시위운동의 근거지 중의 하나였다.

수종사는 현재 와부읍 송촌리 운길산 중턱에 있는 사찰인데 옛날에는 광주목에 속해 있었다. 법당 앞에서 내려다보면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줄기가 양수리에서 합쳐지는 장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런 천혜의 절경 때문인지 옛날 문인들은 배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 여주 쪽으로 가거나 북한강을 거슬러 춘천 쪽으로 갈 때면 으레 시문에 수종사를 담아내곤 하였다. 수종사를 찾는 발길은 현대까지 이어져, 많은 이들이 수종사로 향하는 이유와 옛 묵객들의 그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절은 신라 때에 지은 절로 돌 틈으로 흘러나오는 샘물이 땅에 떨어질 때 종소리를 낸다고 하여 수종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39]

세조가 1458년 금강산을 다녀오다가 양수리에서 잠을 자려 할 때 한밤중에 맑은 종소리가 나는 산위의 암혈 속에서 십육나한을 발견하고 이듬해에 중창하였다고 한다.

400여 년이 지나 절이 퇴락하자 1890년(고종 27)에 중창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74년에 대웅보전을 신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사찰 안에는 조선 초기에 세운 수종사 5층석탑과 부도가 자리잡고 있다.

수종사는 신라 때에 창건되었지만 조선 세조가 중창할 때까지는 크게 알려진 사찰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 이전에 지은 사찰제영시나 기문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 서거정을 비롯한 이명한, 남용익, 김창집, 이병연, 정약용 등 많은 문인들이 찾아 시를 남겼다. 특히 정약용은 소내에 거주하면서 친구, 문인들과 함께 수종사 일대를 여러 차례 찾아 많은 시를 지었다.

여기서 白洲 李明漢(1595~1645)의 「水鐘寺」[38]의 일부분을 인용하면

해 저물어 높은 누각의 제일층에 기대고
석단의 가을 잎에는 이슬꽃이 엉기었네
산은 잇고 또 이어져 세 고을에 서려 있고
큰 강물은 도도하게 두 능을 알현하네.…[40]

가을날 수종사에 올라 주변의 경관을 묘사한 작품으로 지은이의 호방한 기품이 느껴진다. 이 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남양주시가 갖고 있는 지역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셋째 줄의 세 고을은 楊州, 廣州, 楊根을 의미하고, 넷째줄의 두 능은 태조의 健元陵과 세조의 光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수종사에서 주변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세상사를 관조하던 장소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조선 후기 東國眞詩의 거봉인 李秉淵(1671~1751)[41]의 「水鐘寺」라는 시구이다.

昭陽江水下楊根 漢水橫連太白源 …
소양강 강물이 양근으로 내려오는데
한강물은 횡으로 태백산의 수원에 이어졌네.…

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운체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의 시구는 현 남양주시의 지리적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문구이다. 즉 양근으로 흘러드는 소양강물은 멀리 태백산에서 발원하여 큰 물줄기를 형성하여 도도히 흐르는 형세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병연의 활동연대에는 현 남양주시가 여러 군현으로 나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구절은 현재의 남양주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미리 준비되었던

37) 『正祖實錄』 권35, 正祖 16년 9월 11일.
38)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13, 「遊水鍾寺記」(1995, 아름출판사, 435~436쪽).
39) 이 시는 수종사를 읊은 한시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로 후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40) 李明漢, 『白洲集』 권7, 「水鐘寺」(『韓國文集叢刊』 97권).
41) 영조대의 시인. 김창흡의 문인으로 放翁(남송의 시인인 육유)이라 불리웠다.

듯한 느낌마저 준다.

정약용만큼 수종사와 그 주변의 경관에 빠져들어 많은 시구를 남긴 사람도 드물다. 고향이 한눈에 들어오는 수종사 일대는 그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삶의 활력을 제공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봉선사는 왕실의 보호와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던 방대한 규모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현재도 과거의 영화에 그치지 않고 그 위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수종사는 절경의 아담한 사찰로 중앙에서 소외된 문인과 사상가들이 머물면서 세상을 관조하거나 새로운 사상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3) 왕이 머물고, 잠들어 있는 곳

남양주를 포함한 옛 양주지역은 한양과 인접해 있고,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자리임이 알려져 있었던 까닭인지 조선조 왕실의 능침지로서 일찍부터 자리잡고 있었다. 왕릉으로서의 위세는 과거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옛 양주지역(양주군, 구리시, 남양주시)의 곳곳에 위치한 왕릉은 예전의 권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곳은 조선 초기부터 왕릉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까지 전국 제일의 능침지였다.

한 예로 영조 원년에 "양주는 서울에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능침을 받들게 되어 民役이 치우치게 고달프므로 대동미를 결마다 3두를 감해주라고 명하고, 畿驛도 잔폐하였으므로 받아들이지 못한 還上穀을 감해 주기까지 할 정도였다.[42] 계속해서 감사 홍봉한은 "양주에는 능과 묘가 27개소가 위치하여 월봉으로는 공급을 충당하기 부족함을 알리고" 있는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43]

19세기 후반의 다음의 기사도 능침지로서 양주 지역의 실상을 보여준다.

"양주는 바로 우리 역대 임금들의 능이 있는 고을이다. 대체로 조정에서 돌보아주는 것이 다른데 비하여 특이한 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零落된 곳이 극도에 이르러 거의 다 고을이 구실을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걱정된다. 행차한 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또 어려운 정상을 익히 들었으니 응당 성의를 보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읍에서 이전에 바치지 못한 세가운데서 이미 기한을 정하여 배정해서 납부하도록 했는데, 특별히 그 절반을 탕감시켜주어 백성들이 허리를 펴게 하도록 묘당에서 行會하라."[44]

양주의 零落함은 19세기 후반 당시 만의 현상은 아니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였다. 다시 말해 이곳 주민들의 부역 강도가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유리현상이 잇따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혜택을 내리는 조치도[45] 동시에 수반되었다.

능침이 있다는 이유로 크게 혜택을 보았다면 그것은 읍호승강의 문제였다. 즉 영릉 · 광릉이 속해 있는 여흥부 · 양주부를 목으로 승격시킨 적이 있고,[46] 반대로 양주 고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책임을 물어 전 양주목사를 파직시켰으나, 능침이 있는 고을이어서 읍호를 강등하지 않았다.[47] 17세기 후반에는 이조의 건의로 역적의 고을인 춘천 · 충주 · 양천을 현감으로 강등하고, 능침이 있는 양주 · 고양은 그대로 두게 한 바 있

42) 『英祖實錄』 권7, 영조 1년 9월 5일.
43) 『英祖實錄』 권68, 영조 24년 8월 11일.
44) 『高宗實錄』 권24, 고종 24년 윤4월 23일.
45) 『光海君日記』 권36, 광해군 2년 12월 29일. 기사내용은 특별히 양주 백성에게 1년 전세의 반을 감면해주었는데, 능에 배알하러 갈 때에 양주 백성들이 물자를 바쳐야 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조에 하교하기를, "여러 차례 능에 배알하러 갈 때마다 양주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도 위로하거나 보답하지 못하였다. 구례에 따라 전세의 반을 감면해 주도록 하라." 는 것이었다.
46) 『成宗實錄』 권232, 성종 20년 9월 16일.
47) 『顯宗改修實錄』 권22, 현종 11년 4월 28일.

다.[48]

여기서는 현 남양주 지역과 보다 구체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풍양이궁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강무장과 사냥터로 활용된 사례를 실록기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자.

(1) 豊壤宮의 설치와 운영

진접읍 내각리에 위치했던 풍양궁은 1420년(세종 2)에 설치한 이궁 중의 하나이다.[49] 이궁을 설치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왕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피방할 장소와 휴식처 마련에 있었다. 이외에도 조선 건국 초라는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50]

東離宮이라고도 불리웠던 풍양궁은 『세종실록지리지』 양주도호부조에는 "楊州의 동남쪽에 있으며 곧 풍양현의 옛터이며, 또한 태종이 거둥하여 계시던 곳"이라 하였다. 또한 "풍양은 전토는 없으나 옛 읍터에 집을 짓고, 또 묵은 밭을 노자에게 주어 생계를 돕도록 하였다."[51] 라는 기사에서 풍양궁이 옛 읍터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풍양이궁의 조성이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1419년(세종 1) 11월이었다.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은 신하들을 불러 이르기를 "근일에 부엉이가 와서 우는데 내가 괴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마는, 궁을 떠나 피해 있는 것은 예로부터 있는 일이다. 또 『韻會』에 유자를 풀이하기를, '유는 새 이름인데, 울면 흉하다.' 하였으니 나는 피해 있고자 한다."고 하여[52] 이궁 설치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그 후 1420년 1월에 역사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寢殿이 완성되자 태종과 세종은 廣津을 거쳐 풍양에 행차하여 이궁을 보았다. 태종은 이궁을 짓는 데 참여한 군인들을 위로하고, 여러 신하들과 주연을 베풀었다.[53] 이후 태종과 대비가 풍양궁에 거처했던 관계로 세종은 자주 풍양궁으로 행차했다. 태종은 낙천정과 풍양궁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거처하였다. 태상왕인 정종도 이곳에 머문 경우가 있었다.[54] 풍양이궁이 완성된 이후 상왕인 태종이 머무는 기간이 많아짐에 따라 세종이 문안인사차 방문하는 기사가 실록기사에 빈번히 등장한다.

풍양궁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특히 한 여름철의 휴식처로서 각광받아 태종이 단오절이 임박하여 石戰戲를 보려고 하자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풍양궁을 떠나 도성으로 가려고 했다. 그렇지만 신하들이 도성에서 여름을 나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여 다시 풍양궁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55] 여기서 풍양궁이 여름 휴식처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풍양궁에 살다시피한 태종이 승하하자 풍양궁에 대한 관리가 점차 허술해 졌다. 1441년(세종 23) 11월에 崔萬里가 태종이 거처하신 풍양궁과 낙천정은 잡초가 무성함을 지적하고 있고, 항상 거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직하는 관리만을 두어 허물어지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56]

이후 중종대에는 풍양궁이 왕의 행차시 머무는 장소인 大晝停으로 사용되었다. 중종이 풍양궁을 대주정으로 삼게 된 것은 1523년(중종 18) 흉년으로 먼 곳에 참

48) 『영조실록』 권85, 영조 31년 6월 1일.

49) 서울 도성을 중심으로 동쪽에 풍양궁, 서쪽에 衍禧宮, 남쪽에 樂天亭(일명 臺山離宮)을 지어 이를 삼이궁이라 칭하였다. 삼이궁은 모두 태종대에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준공은 모두 세종대에 이루어졌다.

50) 기존의 이궁은 모두 개경에 있어 이동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양 근처에 이궁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즉 풍양에 국가 전토와 노비가 있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양 천도 이후 왕의 잦은 개경방문은 개경에 대한 미련을 보임과 동시에 신하들의 개경 환도를 뒷받침해주는 방편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양을 명실상부한 서울로 자리잡기 위해 이궁을 설치함으로써 서울로서의 위치를 세우려는 목적도 강하게 작용했다.

51) 『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23일.

52) 『世宗實錄』 권6, 세종 1년 11월 23일.

53) 『世宗實錄』 권7, 세종 2년 윤1월 7일.

54) 『世宗實錄』 권13, 세종 3년 9월.

55) 『世宗實錄』 권12, 세종 3년 5월 8일. 왕위를 물려준 태종은 여러 궁을 옮겨가면서 거처하였다. 풍양궁도 태종이 거처하는 여러 이궁 중에 하나로 보이고 실제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56) 『世宗實錄』 권94, 세종 23년 11월 11일.

배할 수 없게 되자 추석을 기하여 광릉에 참배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를 갖춘채 봉선전에서 茶禮를 거행하고, 궁으로 돌아올 때는 사냥을 구경하고자 하였다. 풍양궁은 태종이 계시던 곳이고, 세종께서 때때로 거둥하던 곳이라 하여 병조로 하여금 길을 살피게 하였다.[57]

1525년에도 왕이 광릉에 참배하려고 하자 신하들은 거처할 곳을 논의하면서 풍양궁이 능소와 가까우므로 합당하다고 하여 풍양궁과 교량을 수리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간은 "풍양궁은 사방에 보리밭이 매우 많아 굶주리는 민생들이 날마다 익기를 바라고 있는데, 한 번 군마가 지나가게 되면 여지없이 밟혀 버려 민생의 폐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래 비워둔 궁을 5~6일 동안에 어떻게 수리하겠습니까 만일 수리가 허술하게 된다면, 아직도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지존하신 몸으로 풍상을 무릅쓰고 경솔하게 유숙하시도록 하는 것이 신하된 사람의 마음에 더욱 미안하오니, 대신들과 다시 의논하여 가을을 기다렸다 거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건의했지만 "이번에 거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고 하였다. 계속되는 연기요청에 중종은 풍양궁을 수리하지 말고 장막만 치게 하도록 하였다.[58]

위의 기사에서 풍양궁의 기능 말고도 보리밭 천지의 입지조건에 궁 수리라는 부역에 동원되는 인근 민들의 현실도 그려진다. 극단적인 사례로 전 왕대인 연산군은 풍양궁이 바라보이는 인가를 모두 철수시킬 정도로[59] 풍양궁 주변의 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풍양궁 관련 실록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어떤 연유로 불타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60] 이와 같은 이유는 1696년(숙종 22) 정월에 지평 李世載가 明惠公主房의 宮人이 대내의 분부를 받아서 소를 잡고 제수를 장만하여 풍양궁터에서 이틀 동안이나 神祀를 베풀고 파하였는데 이때 그 비용의 지극히 사치하고 풍성함을 비난한 사건이 있었다.[61] 이것으로 보아 풍양궁은 이미 건물이 불타고 터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도 풍양궁에 대한 사용을 중히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태종이 거처한 이궁에 무당으로 하여금 굿을 하였는 데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종 이후 풍양현이 폐지된 다음 풍양이라는 지명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남양주지역 일대는 여전히 왕실의 강무장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터만 남아있는 풍양 이궁에 비를 세우도록 한 것은 1755년(영조 31)의 일이다. 영조는 자기가 늙어 선대의 릉을 알현하고 풍양에 거처하려고 하는데 聖祖의 옛 궁궐터에 아무 표식이 없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양주 풍양의 태조대왕 구궐 유지에 碑를 세우도록 하였던 것이다. 영조가 직접 碑의 전면에 '太祖大王在上王時舊闕遺址', 후면에 '皇明崇禎紀元後三乙亥仲春晝停于此拜手敬書' 라고 썼다. 경기 감영으로 하여금 비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또 두 줄로 '地名豊壤' 네 글자를 썼다.[62] 이상에서 보듯이 풍양궁터에 비를 세운 것은 태종이 머문 이궁이 아니라 태조가 거처한 곳이라는 점이다.

태종 사후 풍양궁은 강무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축과 보수를 계속하였다. 세조는 강무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거처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비석만 남아 있고 주위의 지명만이 그곳에 宮址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대궐터였음을 알리는 지명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앞서 언급한 진접읍 내각리에 있었다는 풍현궁과 관련된 것이 많다. 특히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가 내각리의 비각마을에 행궁을 정하고 계실 때 왕비 강씨가 임시

57) 『中宗實錄』 권49, 중종 18년 8월 6일.
58) 『中宗實錄』 권53, 중종 20년 2월 29 · 30일, 3월 5일.
59) 『燕山君日記』 권55, 연산군 10년 8월 19일.
60) 풍양궁은 임진왜란 시에 불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조의 광릉과 봉선사 등이 임진왜란 시에 불타 없어졌다.
61) 『肅宗實錄』 권30, 숙종 22년 정월.
62) 『英祖實錄』 권83, 31년 1월 28일.

로 머물렀다 하여 內洞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궐리라는 지명은 태조가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고 난 후 태종이 이곳에 행궁을 정했던 곳이라서 비각을 세운 후로 이 마을은 비각마을로 불렸으며, 일명 '대궐터'라고도 불리웠다고 한다.[63]

진접면과 인접한 退溪院面의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조선 8대 왕인 睿宗이 선왕인 세조가 묻힌 光陵을 참배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이르는 길이 불편하여 길을 신설할 때 하천 바닥으로 길을 닦기 위해 당시의 하천을 바깥으로 물리쳤다"[64]고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특히 퇴계원은 풍양궁이 조성된 후 한양에서 이곳으로의 행차시 거쳐가야 코스였음이 분명하다.[65]

이외에도 진건면의 思陵里는 조선조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 송씨 능이 쓰여진 후부터 붙여졌다고 하며, 인근의 松陵里는 소나무가 많고 光海君의 묘가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66]고 한다. 태조와 관련된 지명으로 진접읍 八夜里는 함흥에 있던 태조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곳에 이르러 '여덟 밤이로구나' 한데서[67] 붙여진 것이라 한다.

(2) 강무장과 사냥터

앞서 언급했듯이 풍양을 비롯한 양주 등지는 오랫동안 국방 혹은 군사적인 요충지에 해당했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편제로 바뀌었다. 고려 중기 이후 점차 군사적인 면보다는 사냥터로 활용되거나 왕실의 휴양지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한양을 새로운 도읍지로 삼으면서 계속 유지되었다. 즉 서울과 가까운 데다가 강무장과 사냥터로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많았던 까닭이었다.

세종 초의 기사를 보면 태종은 풍양궁에 거처하면서 매사냥을 하거나 고기잡이를 구경하는 기사가 자주 보인다. 태종이 풍양이궁의 西山 · 北山 · 東山 등지에 사냥을 즐기고, 풍양 北村 掛羅里(현 오남면 양지리 일대로 추정)의 산골에서 놀이하고 작은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은[68] 풍양 주변이 적당한 사냥터였음을 알게 해 준다.

태종 사후 풍양궁에 왕이 특별히 오랫동안 머문 경우는 드물었다. 이유는 삼이궁 이외에 왕궁 근처에 새로운 궁을 수축하였기 때문이다. 1446년 정월에 세자가 鐵原 등지로 강무하는 것을 농사의 실패로 폐단이 많다고 보고, 왕은 일찍이 강무한 풍양 등지에서 하루에 100여 마리의 짐승을 잡은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강무 장소로 풍양을 언급하였다. 1448년 12월에 삼군진무소가 강무장을 선정하면서도 풍양현의 入串山 · 居叱乙山 등을 비롯하여 경기 일대의 여러 산지를 강무장으로 삼고 伐木을 금지시켰다.[69]

이렇게 한성과 가까운 곳을 강무장으로 삼음으로써 풍양궁은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용되었다. 강무는 한번 이동시의 번거러움과 비용, 백성들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먼 곳의 강무를 피하고 근거리에 위치한 강무장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냥을 목적으로 풍양궁을 특히 자주 찾은 이는 세조였다. 이러한 까닭에 1459년 정월에 세조는 병조판서 한명회 등에게 명하여 풍양에 가서 이궁의 기울어져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고 堤堰을 쌓을 만한 땅을 살펴보게 하였다.[70] 세조는 풍양의 城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이궁에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어 세조는

> 태종께서 이 宮에 계실 때 세종께서 朝啓를 받던 곳인데, 유적이 宛然하니, 感愴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

63) 경기도, 1987, 『地名由來集』, 235쪽.
64) 경기도, 1987, 『地名由來集』, 229쪽.
65) 『世宗實錄』 권8, 세종 2년 4월 3일 기사에는 상왕(태종)이 풍양 새 궁으로 거둥하던 중 퇴계원에 이르러 비가 내려 가뭄을 해소하자 기뻐했다는 기사를 담고 있다.
66) 경기도, 1987, 『地名由來集』, 234쪽. 지역 토박이들의 증언에 의한 이와 같은 지명유래가 문헌적인 근거로 뒷받침되기는 어렵지만 개연성 만큼은 충분한 것이다.
67) 한글학회, 1993, 『한국 지명 총람』(경기편 · 상), 344쪽
68) 『世宗實錄』 권9, 세종 2년 9월 8일.
69) 『世宗實錄』 권122, 세종 30년 12월 10일.

다. 나도 또한 重修하여 봄 · 가을 · 講武 때 이곳에 거처하겠다.[71]

면서 이궁의 수축에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였으며, 겨울 공사에 부역하는 군졸들이 추위에 얼고 비에 젖을까 염려하여 注書를 보내어 술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궁 축조를 겨울철에 단행한 것은 농한기를 활용하려는 까닭이었다. 한편 풍양천에 防川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궁 앞에 흐르는 풍양천 냇가에 제방을 만들기도 하였다.

세조가 풍양궁을 강무와 사냥시의 거처로 자주 거둥하자, 신하들은 풍양궁은 태종이 유람을 하기 위하여 만든 곳으로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고 하고 빨리 환궁할 것을 건의하였다.[72] 그러나 세조는 군사들로 하여금 10일의 양식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갑자기 환궁할 수 없다고 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세조는 豊壤 냇가의 산봉우리에 올라서 花川君 權恭을 左廂大將으로 삼고, 中樞院使 朴薑을 右廂大將으로 삼아서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習陣하게 하였다.[73]

이와 같이 풍양이궁은 태종 · 세종조에는 피방을 위한 장소나 휴식공간의 기능을 맡았으나 세조대는 주로 강무와 사냥 장소의 거처로 이용되었다.

강무장의 역할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473년(성종 4) 10월에 성종이 풍양에서 강무한 이후 풍양궁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보인다.[74] 즉 풍양궁은 세조 이후 강무의 장소로 널리 이용되었고, 풍양은 관렵지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강무장으로 사용된 이유는 한양과 가깝다는 것과 한강을 건너는 경우 비바람이 불게 되면 피해가 크다는 점, 풍양은 가까우면서도 짐승이 많이 잡힌다는 점 때문이었다.[75]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이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골몰한 것은 다름 아닌 사냥터의 확보였다. 연산군은 도성 주변의 산에 강무장을 만들고, 강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또한 한양 근처를 사냥터로 정하고 여러 곳에 금표비를 세웠다. 연산군이 설정한 금표영역의 규모를 살펴보자.

좌찬성 이계동, 경기관찰사 송일이 금표의 경계를 물린 圖를 바치니, 서로는 임진 건너 편 5리 쯤에 이르고, 동으로는 용진에 이르고, 북으로는 회암에 이르고, 남으로는 용인현 북쪽에 이르렀는데, 전교하기를, "반드시 백 리가 되도록 한계하여야 한다." 하매, 일이 아뢰기를, "기내의 땅이 반이 넘게 금표 안에 들어갔사오니, 가까이 붙인 충청도의 고을을 갈라서 경기에 붙이소서. 양주 · 파주의 금표 밖으로 남은 땅 및 이민들을 이웃 고을에 옮겨 붙이고, 금표 안의 각 역을 금표 밖으로 설치하고, 양주진의 군정을 다른 고을로 옮김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76]

이같은 조치로 현 남양주의 거의 다가 금표 영역안에 놓였다. 이에 앞서 1499년(연산군 5) 9월에 연산군은 풍양궁과 碧蹄館을 수리한 후에 병조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 거둥을 기다리게 하였다.[77] 연산군은 사냥을 즐기기 위하여 풍양궁을 수리시킨 후 사냥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냥을 즐기자 신하들은 풍양궁에서 밤을 새우며 사냥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건의도 올린 바 있다.[78] 연산군은 射場의 편리 여부를

70) 『世祖實錄』 권15, 세조 5년 1월 3일.
71) 『世祖實錄』 권15, 세조 5년 1월 19일.
72) 『世祖實錄』 권18, 세조 5년 10월 16일.
73) 『世祖實錄』 권18, 세조 5년 10월 18일.
74) 『成宗實錄』 권35, 성종 4년 10월 18일.
75) 한명회는 1485년(성종 16) 강무는 국가의 중대사로 폐지할 수 없는 데, 지금 광릉산에 짐승이 많아 곡식에 피해를 미친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76) 『燕山君日記』 권58, 연산군 11년 5월 29일.
77) 『燕山君日記』 권35, 연산군 5년 9월 11일.
78) 『燕山君日記』 권50, 연산군 9년 8월 계해.

가서 살펴보고 圖形을 만들라는 영을 내렸다.

京城에서 注葉山 泉岾까지의 거리가 70여 리니, 성상의 옥체가 수고로우실까 염려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車駕가 떠나는 날 豊壤宮에서 주무시고 이튿날 주엽산, 또 이튿날 천점, 또 이튿날 峨嵯山에서 사냥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78]

연산군은 사냥에 몰두하면서 사냥터 안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는데, 그것이 금표비였다. 먼저 서울 주변지역 중 풍양궁을 금표 안에 넣고, 이후 光陵山 泉岾과 풍양산까지 금표지역으로 세웠다. 광릉 봉선전과 봉선사에 출입한 사람을 다른 능의 예대로 수를 줄였다.[79]

이와 같이 금표비를 현재 남양주 일대까지 확대한 것은 연산군이 사냥시에 백성들의 벌목으로 짐승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백성들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다. 이에 풍양이 금표안에 속하게 되면서 자연히 풍양현은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高陽은 파주에 부치고 풍양의 곡식 1018석을 양주에 부치게 하였다.[80] 이와 같이 풍양궁을 사냥시 숙소로 자주 사용되었다.

중종대 역시 강무장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1536년(중종 31) 7월에 중종은 녹양장에 대열을 하기로 정하고, 대열한 후에 병기와 군복의 점고를 마친 후 풍양궁에서 묵고 강무를 그치지 않았다.[82] 조선 초기부터 풍양 일대의 현재 남양주는 왕의 강무장으로 꾸준히 사용되었다.

현 남양주 일대에서는 풍양궁 주변 이외에도 강무장소와 왕실의 사냥터로 이용된 곳이 많았다. 특히 묘적산 일대는 단골 사냥장소였음과 동시에 강무장으로서도 주목받았다. 세종은 강원도 횡성 등지를 거쳐 妙寂寺의 북쪽 산에서 몰이를 하고 낮참에 時雨洞(현 조안면 시우리)에 머물렀다가 시우현의 동구에서 몰이하고, 용진에서 머문 적도 있었다.[83] 재위기간이 짧았던 단종도 묘적산에 나가 사냥할 정도였고,[84] 세조 또한 여러 차례 묘적산으로 향하였다. 한번은 세조가 양주 묘적산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저물 무렵에 돌아오면서 승정원은 병조판서 홍달손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뒤를 호위한 사람 중에 만약 질병이 있는 자는 구휼하라고 영을 내린 적도 있었다.[85]

이러한 탓인지 묘적산 인근 민들의 생활여건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이에 전생서주부 변철산이 "四時의 사냥은 예로써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이고 강무할 장소도 폐할 수가 없으나, 양주 묘적산 안팎의 토지가 薄하여 산 밑의 백성들이 능히 생산을 하지 못하고, 봄이면 화전을 개간하여 먹고, 겨울이면 땔나무를 해다 팔아서 먹고 입을 거리를 오직 이 산만 의지하고 사는데, 강무장을 설치하고부터는 백성들이 밭갈고 땔나무를 벨 수 없도록 금하여 먹고 입을 근원을 끊었으니, 이는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기도 하고, 더구나 초목이 무성하여 도적과 모진 짐승의 의지할 곳이 되어 크게 백성에게 害가 되기도 합니다. 청컨대 禁令을 완화하여 백성의 생업에 자본이 되게 하소서."라고[86] 건의한 적도 있었다.

강무장소는 대부분은 백성들이 살지 않고 금수가 많은 閑曠한 곳을 택했다고는 하나, 연산군의 예에서 보이듯이 그 원칙이 항시 준수된 것은 아니었다. 강무장 인근 민들의 불편은 강무장소를 조성하거나 사냥에 동원되는 혹독한 부역에 그치지 않았다.

금표가 설치된 강무장에는 백성들이 들어가 풀을 베

79) 『燕山君日記』 권50, 연산군 9년 9월 10일.
80) 『燕山君日記』 권55, 연산군 10년 8월 19일.
81) 『燕山君日記』 권55, 연산군 10년 8월 29일.
82) 『中宗實錄』 권82, 중종 31년 7월 16일.
83) 『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13일.
84) 『端宗實錄』 권14, 단종 3년 4월 2일.
85) 『世祖實錄』 권11, 세조 4년 윤2월 21일.
86) 『成宗實錄』 권48, 성종 5년 10월 9일.

지 못하게 하였고, 금령을 어긴 자는 고을 수령과 감사까지 논죄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강무장내에 들어간 범법자는 장 100대에 처해졌고, 이를 막지 못한 고을 수령은 資級 3등을 감하기까지 했다.[87]

4) 이념과 학문의 본고장

현 남양주 지역은 조선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적 이념을 강론하고 그안에서 실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준비해 갔던 장소였다. 당대 최고의 사상가와 시인묵객들이 이곳에서 머무르고 학파를 형성해 간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경기 학문의 중심지, 石室書院

석실서원은 조선 후기 경기 학문의 중심지로서 많은 名賢들을 배출한 명소이다. 1663년(현종 4) 사액서원이 되었는데 김상용, 김상헌, 김수항, 민정중, 이단상, 김창협, 김창집, 김조순이 차례로 배향되었다. 安東 金門의 인물과 이들의 문인들이 여기에서 학문과 사상을 논의하면서 조선 후기의 이념을 만들어 갔던 곳이었다.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하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현재 수석동에 '석실서원지'라고 새긴 비석만이 쓸쓸히 남아있을 뿐이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과거 이곳에서는 치열한 정신적 모색과 정이 있었음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石室은 본래 안동김문의 선영이었다. 평양부서윤을 지낸 文端 金璡(1479~1544)을 모신 이후로부터 大孝, 元孝, 尙憲 등 여러 자손들이 이곳에 안장되었다. 김번에 이어 그의 뛰어난 후손들이 속속 배출되기 시작했고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 淸陰 金尙憲(1570~1652)이었다. 그는 청음 이외에도 石室散人이라는 호에서 알 수 있듯이 석실서원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병자호란 때에 척화를 주장하다가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가 귀국한 이후 석실에 은거하며 많은 시문을 짓기도 하였는데 절의로써 명성이 높았다. 사후 지방의 유림들이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형 金尙容(1561~1637)과 함께 두 분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1656년(효종 7) 石室祠를 세워 제향과 강학의 일을 수행하였다. 1663년(현종 4)에 '石室'이라는 사액을 받고 서원으로 승격되었는데 이로부터 석실이란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그의 손자 '三壽'와 증손 '六昌'이 잇따라 배출되어 가문의 명성이 사방에 드날리게 되었다. '삼수'는 金壽增(1624~1701), 金壽興(1626~1690), 金壽恒(1629~1689)을, '육창'은 김수항의 아들인 金昌集(1648~1722), 金昌協(1651~1708), 金昌翕(1653~1722), 金昌業(1658~1721), 金昌緝(1662~1713), 金昌立(1666~1683)을 말한다.

이들 모두 학문과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했는데 뛰어난 후손들이 계속 배출되어 조선 후기 대표적인 명문가로 자리잡았다. 한편 1695년(숙종 21)에 김수항, 閔鼎重(1628~1692), 李端相(1628~1669),[88] 1710년(숙종 36)에 김창협을 추가로 배향하여 서원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러나 노론이 실각한 뒤인 1723년(경종 3) 沈埈, 尹會 등이 김수항과 김창협 부자의 배향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黜享을 건의하면서 이 서원을 '金氏祠宇'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89] 그러나 영조가 즉위한 뒤 양주의 유생 李志沆이 김수항과 김창협을 復享할 것을 청하여 다시 모셔지게 되었다.[90]

이후 1857년(철종 8) 趙斗淳이 석실서원이 강학의

87) 『東國輿地勝覽』 권11, 楊州.
88) 『肅宗實錄』 권28, 숙종 21년 4월 10일.
89) 『景宗實錄』 권12, 3년 6월 3일조.
90) 『英祖實錄』 권3, 원년 2월 2일조.

장소이자 명현들의 배출지였음을 강조하고, 이를 임금은 윤허하고 있다.[91] 앞서 살펴본 인물 이외에 이희조, 황윤석, 홍대용 등도 이 서원과 관련이 깊다. 芝村 李喜朝(1655~1724)는 이단상의 아들로 宋時烈에게 수학하였는데 김창흡과 교분이 두터웠고, 頤齋 黃允錫(1729~1791)과 湛軒 洪大容(1731~1783) 등은 渼湖 金元行(1702~1772)의 제자이다. 나아가 이들의 학맥은 蔗巖 朴趾源(1737~1805)에게도 연결된다. 이렇듯 석실서원은 17세기 후반 이후 당시 정치, 사상, 문단계를 비롯하여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시킨 구심점이었다.

석실서원과 관련하여 많은 시문을 남긴 사람으로 김원행을 꼽을 수 있다. 자는 伯春, 호는 미호·雲樓로 농암 김창협의 손자이다. 미호라는 호는 남양주시의 옛 지명 중 하나인 渼陰·渼音에서 따온 것이다. 조부 김창협, 종조부 김창흡, 陶菴 李縡에게서 학문을 전수받았다. 신임옥사로 가문이 풍비박산 나자 벼슬을 단념하고 미음에 거주하며 학문에 전념하였는데 이때에 홍대용, 황윤석 등이 그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다.

이렇듯 석실서원은 안동 김문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와 사상가를 배출해 나갔고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학문과 사상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92] 특히 18세기 이후 본격화된 湖洛論爭 당시 낙론의 본거지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 계보는 김창협에서 김원행까지 이어져 낙론사상의 주류를 형성했다.

(2) 다산학파의 형성지

조안면 능내리는 다산의 고향이자 다산학파를 형성해 자신의 사상을 완성시킨 곳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더욱이 남양주시가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지역문화제 명칭이 '다산문화제'인 것을 보면 남양주가 다산을 배출한 고장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로 자는 美庸, 호는 다신 이외에 俟菴·紫霞道人·鐵馬山人 등 여러 개의 호를 사용하였다. 아버지는 진주목사를 역임한 載遠이고, 어머니는 尹斗緖의 손녀인 해남 윤씨이다. 정약용은 1762년(영조 38)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내[苕川] 마재[馬峴]에서 태어났다.

소내는 정약용이 성장한 곳일 뿐만 아니라 학문의 연마장이자, 마음의 안식처였다.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나 유배지를 전전할 때에도 고향 소내를 그리면서 많은 시문을 지었고, 1817년(순조 17) 오랜 유배생활을 마친 뒤 소내로 돌아와 실사구시와 경세치용적인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였다.

정약용은 소내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水鍾寺, 雲吉山, 苕川, 廣津, 孤山亭 등 주변지역을 유람하며 많은 시문을 지었다. 또한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유배지를 전전할 때도 여러 편의 시를 지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다산이 남긴 수많은 시문 중에 고향을 노래한 작품은 수없이 많다.[93] 원래 정약용이 거처한 마재마을은 일제강점기 당시 청평댐이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현재의 위치보다 물가쪽에 가까이 있었다. 주지하듯이 1925년 전국을 강타한 '을축년 대홍수'는 이곳을 비껴가지 않았다. 이때 전국에 걸친 물적, 인적 피해가 대단했고, 특히 마재마을도 물에 잠기는 바람에 다산의 장서 상당부분이 물에 휩쓸려 내려갔다. 그나마 다산의 정치사상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목민심

91) 『哲宗實錄』 권9, 철종 8년 5월 10일조. "팔도 유생 김칠환 등이 상소하여 문강공 臣 김창흡, 문경공 신 김원행, 贈 領議政 신 김이안을 석실서원에 追配하게 할 것을 청한 일로 인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三賢은 이 서원에 곧 祖孫과 父子를 전에 이미 배향한 곳인데, 삼현이 道學과 名義를 닦은 것이 粹然히 빛나 백세 뒤에도 觀感하고 崇慕하게 되었습니다. 돌이보건대 그 곳은 형제끼리 학문을 닦은 곳이요, 부자간에 교훈을 주고 받은 곳으로, 모두 이 물과 이 언덕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추배하자는 논의는 다만 신리와 인정에 화합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돕고 어진이를 본뜨게 하는 정사에 있어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컨대 儒疏의 청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92) 이외에도 수석동은 국문시가의 거봉인 孤山 尹善道(1587~1671)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윤선도는 수석동 일대의 고산촌에 머물면서 많은 시조를 남겼다. 그와 인척관계인 다산은 고향에 머물면서도 고산이 머물렀던 장소를 자주 찾았다.

93) 대표적인 시 제목 몇 가지를 들면 「宿水鍾寺」, 「夏日苕川雜詩」, 「莫春由豆毛浦還苕川舟中作」, 「春日遊水鍾寺」, 「過孤山亭遺墟」, 「上雲吉山」, 「陪家君還苕川」, 「思鄕」, 「次韻送都尉以下諸人上水鍾寺」 등이다.

서』, 『경세유표』 등은 후손들의 구원의 손길로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남양주 땅에서의 사상적인 모색은 과거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이어져 왔다. 수동면 지둔리에 위치한 지곡서당이 그 한 예이다. 지곡서당은 1999년 4월 운명을 달리하신 임창순 선생의 학문적 열정으로, 1970년대 이후 20년 넘게 한문학의 산실로 부각되었다. 특히 서당이 위치해 있는 수동면은 어디가나 맑은 물이 넘쳐 물골안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던 곳이다. 임창순 옹이 처음 이곳에 자리잡고 나서 주변 일대의 금석문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은[94] 이곳에 배어있는 학문과 사상의 깊이와 열정을 이어받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곳에서 한문학을 수학하고 학계에 배출된 인사가 수십명에 달한다. 이곳을 거쳐간 인사들은 예외없이 지둔리 일대의 산자수명한 경치와 학문적 열정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셈이다.

5) 퇴계원 산대놀이

현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에서 연행되었던 퇴계원 산대놀이의 기원은 楊州 別山臺놀이에서 비롯된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서울의 아현동 · 녹번동 · 사직골 · 구파발 · 노량진 · 송파 뿐만 아니라, 의정부 등지를 비롯해서 매우 넓은 지역에서 행해졌다.

현 퇴계원면 일대에서도 독자적으로 연행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 이르러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놀이는 1920년대까지도 전승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퇴계원 일대는 조선 후기 옛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써 근교 상업과 소비재 산업이 활발했는데, 당시 100여 호의 객주와 역원이 왕숙천을 끼고 크게 발달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의 장시를 순회하며 장사하는 소상인들의 활동도 더욱 활기를 띠게 만들었다.

상업의 발전은 자연히 교통의 발달과 장시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주로부터 함경도로 통하는 길뿐만 아니라 동북지방에서 서울로 바로 연결되는 三防路와 같은 새로운 길들이 개척되거나 확대되었다.[95] 상인들과 旅客들이 주로 이길을 이용하였고, 이들에게 잠자리는 물론 술과 밥을 제공하는 旅店이 길가에 수없이 생겨났다.[96] 산대놀이라는 큰 놀이판이 연속해서 벌어졌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할것이다. 다시 말해 퇴계원 지역은 사람의 왕래가 잦고 물자가 넘쳐났던[97] 곳으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퇴계원 일대는 이러한 상황속에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演行이 이루어져 점차 주위에 회자되고 명성을 얻어간 것으로 보인다. 놀이가 거듭되고 확산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성을 띠고 주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음은 당연했을 것이다.

본래 광해군 때 산대놀이를 주관하는 산대도감이 설치된 바 있었다. '山臺'란 '산과 같이 높은 무대'를 가리키는데, 이 무대를 만들어 연행된 놀이는 주로 외국 사신을 영접할 때나 나례의식 때, 왕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왕이 종묘에서 제사를 주관할 때, 왕의 각종 행사 때, 왕후의 잉태를 축하할 때, 각종 궁중잔치 때, 지방관리를 환영할 때 공연된 국가적 차원의 여흥이자 행사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조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민간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퇴계원 산대놀이도 이 같은 확산과정에서 지역화된 놀이였다고 할 수 있다.

---

94) 남양주시사편찬위원회 장희홍 선생님 인터뷰(1999년 10월).

95) 홍희유, 1989, 『조선상업사』(고대 · 중세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339쪽.

96) 『승정원일기』 1634책, 정조 11년 9월 29일.

97) 남양주시와 인접한 누원점(도봉산 기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누원점은 동북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물을 도매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남양주 일대의 사상인들도 관북지방의 건어물을 주로 취급하였고, 누원 주변에는 마석우장, 동도천장, 신천장, 송우장, 처탄장 등이 위치하여 멀리는 철원 · 원산으로 연결되었고, 가깝게는 송파 · 용산 · 뚝섬 등과 연계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특히 1920년대 이후 퇴계원 일대의 산대놀이는 급속한 쇠락과정을 거친다. 일본 경찰은 치안확보를 이유로 산대놀이 구경꾼들을 해산시키고 연행자의 탈과 의상, 악기를 압수하여 불태우는 탄압정책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일제는 조사해 온 조선의 민간신앙과 풍습이 미신적이라는 미명으로 조선 전래의 전통적인 풍습을 소멸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퇴계원 산대놀이의 명맥은 급속히 쇠퇴해 갔던 것이다.[98]

대원군의 경복궁 중수 때 남양주 산대놀이가 연행되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시연 당시의 탈이 남아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같은 연행의 소멸은 무엇보다도 일제의 의도적인 조선 고유의 것에 대한 탄압임이 분명하다.

언제인가부터 퇴계원 산대놀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 KBS의 타큐멘타리 프로그램에서 퇴계원 산대놀이의 시작과 소멸과정, 산대놀이에 동원되는 탈, 시연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방송한 것에서 그 단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래 전승된 지역놀이를 복원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담아내려는 노력에 다름 아닐 것이다.

98) 남양주문화원, 1998, 「퇴계원산대놀이」, 남양주문화원 전통민속예술연구소.

4. 남양주가 안고 있는 것

남양주는 멀리 선사시대부터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러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여건에 따라 주요도시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남양주의 지형도와 관광지도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조형물로 들어차고 있다. 그것이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개발 일변도의 드라이브가 걸린 것인지에 따라 21세기의 청사진이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남양주지역은 한강과 연접한 지리적 요충지라는 특성만 가진 것은 아니다. 다산 정약용의 학덕이 깃들어 있는 조안면 능내리, 17세기 후반부터 김상용 · 김상헌 형제를 노론 계열의 수많은 사상가를 배출한 석실서원의 위상도 빼놓을 수 없다. 마현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의 생가는 시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산기념관으로 단장되어 찾는 이들이 적지않다. 이곳 남양주시가 옛 한양과 가까웠다는 지리적 특성에 더하여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갔던 이들의 사상적 · 정신적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조선후기 이래 다양한 측면에서 발현된 민족문화의 실체 말이다.

왕실의 휴식공간, 양반 사대부들의 정신적 모색처, 한반도의 젖줄이 한눈에 보이는 절경, 광나루에서 이어져온 홍청거리는 상권과 민속문화를 뿜어냈던 곳. 한강의 서쪽으로 광나루 · 마포나루에 이르기 전 중간 기착지가 바로 이곳이다. 여주의 이포나루를 거쳐 내려온 남한강과 협곡을 따라 흘러든 북한강의 물길은 남양주의 두물머리(양수리)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의 한강으로 합쳐진다.

21세기의 문화 ·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남양주시는 폭넓은 문화유적지와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을 곳곳에 보유하고 있다. 단지 슬로건 차원만이 아니라 시 당국은 물론 많은 문화관련 인사들의 노력에 의해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특히 1997년 1월부터 관내에 산적한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는 셔틀버스 운행이 현지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99]

남양주시 앞에 장미빛 희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30년만에 풀린 그린벨트의 활용도 슬기롭게 대처할 문제이다. 보다 현실적이면서 코앞에 닥친 사항은 연일 신문에 보도되는 팔당호로 인한 물 문제로 보인다. 즉 水源 확보는 동쪽으로 북한강이 흐르다가 조안면 능내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을 이뤄 와부읍과 지금동의 남단을 비켜 서해로 흘러드는 지리적인 여

99) 참고로 대표적인 문화유적 및 관광코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적답사로는 시청을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로 나눌 수 있다. 동부코스는 평내동 궁집-모란미술관-李純之묘역-妙寂寺-水鐘寺-茶山 丁若鏞 유적지-韓禮先生紳道碑-水石里 土城-趙東生선생 묘역이고, 서부코스로는 洪 · 裕陵-思陵-양지리 향나무-光陵-奉先寺大鐘-興國寺 대웅보전-德興大院君 묘역-佛巖山 경판이다. 강변레저 및 자연환경코스로 팔당댐-종합영화촬영소-강변수상스키장-새터호반-마석조각공원-祝靈山자연휴양림-수동관광지-天摩山 심신수련장(스키장)-서울리조트이다. 필자는 원고를 의뢰받기 전부터 남양주 권역을 돌아볼 기회가 많았다. 이 지역을 안내하는 관광가이드 역할을 자임하고 싶을 정도로 돌아볼수록 곳곳에 오랜 역사의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문화유적 중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남양주시에 대한 역사탐방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건을 갖춘 남양주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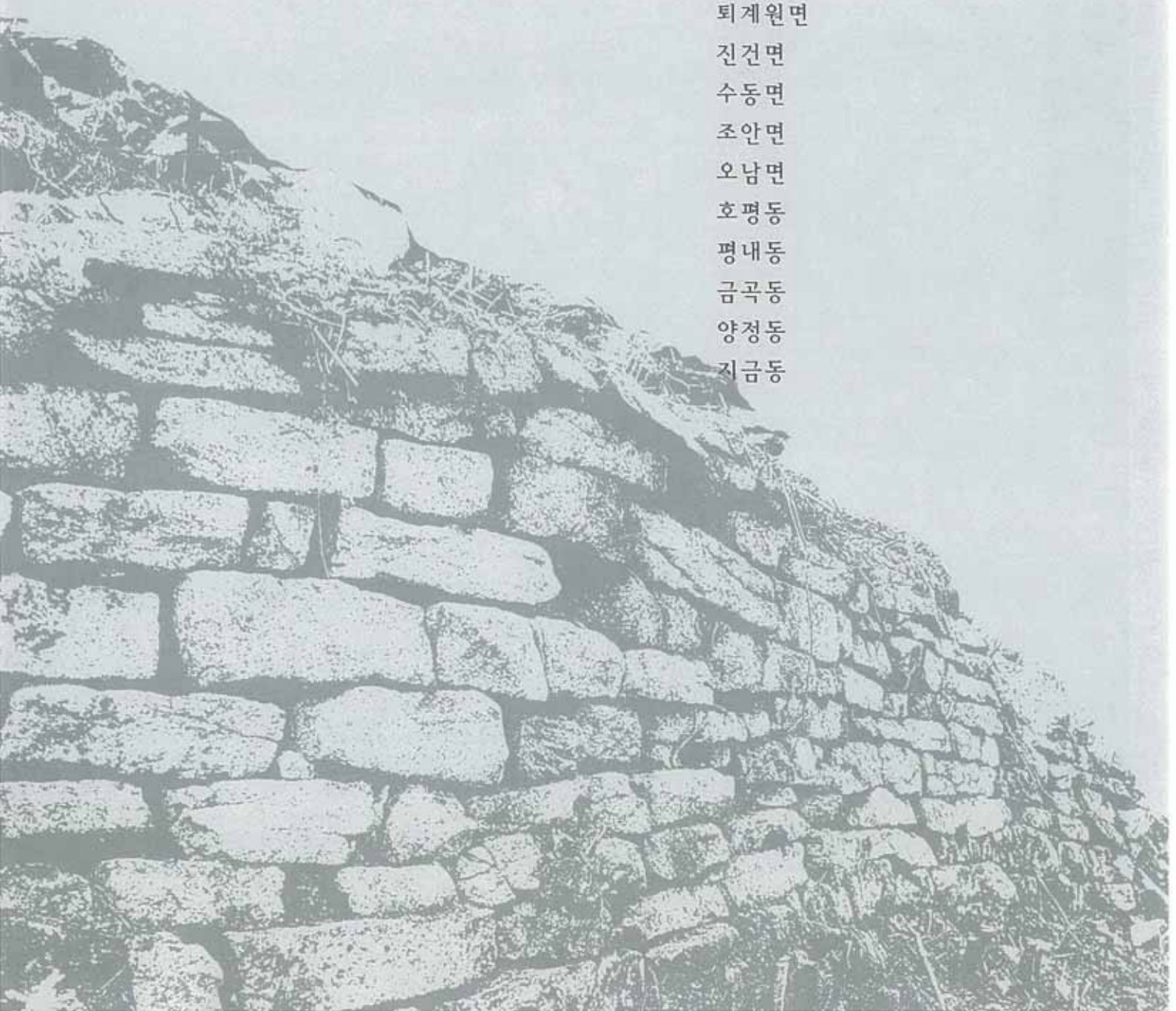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1995년 10월 경기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 · 연구 · 협의 · 조정 · 처리함으로써 권역내 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동부권협의회'도 이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과 팔당상수원 물 문제로 인한 각종 법적인 규제의 완화와 철폐를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100] 향후 남양주시의 변화양상을 예측할 수 없지만 현 남양주 지역이 설정된 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아직까지 남양주 고유의 문화를 언급하기에는 이르지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남양주 지역은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새로운 그림을 그려 갔던 곳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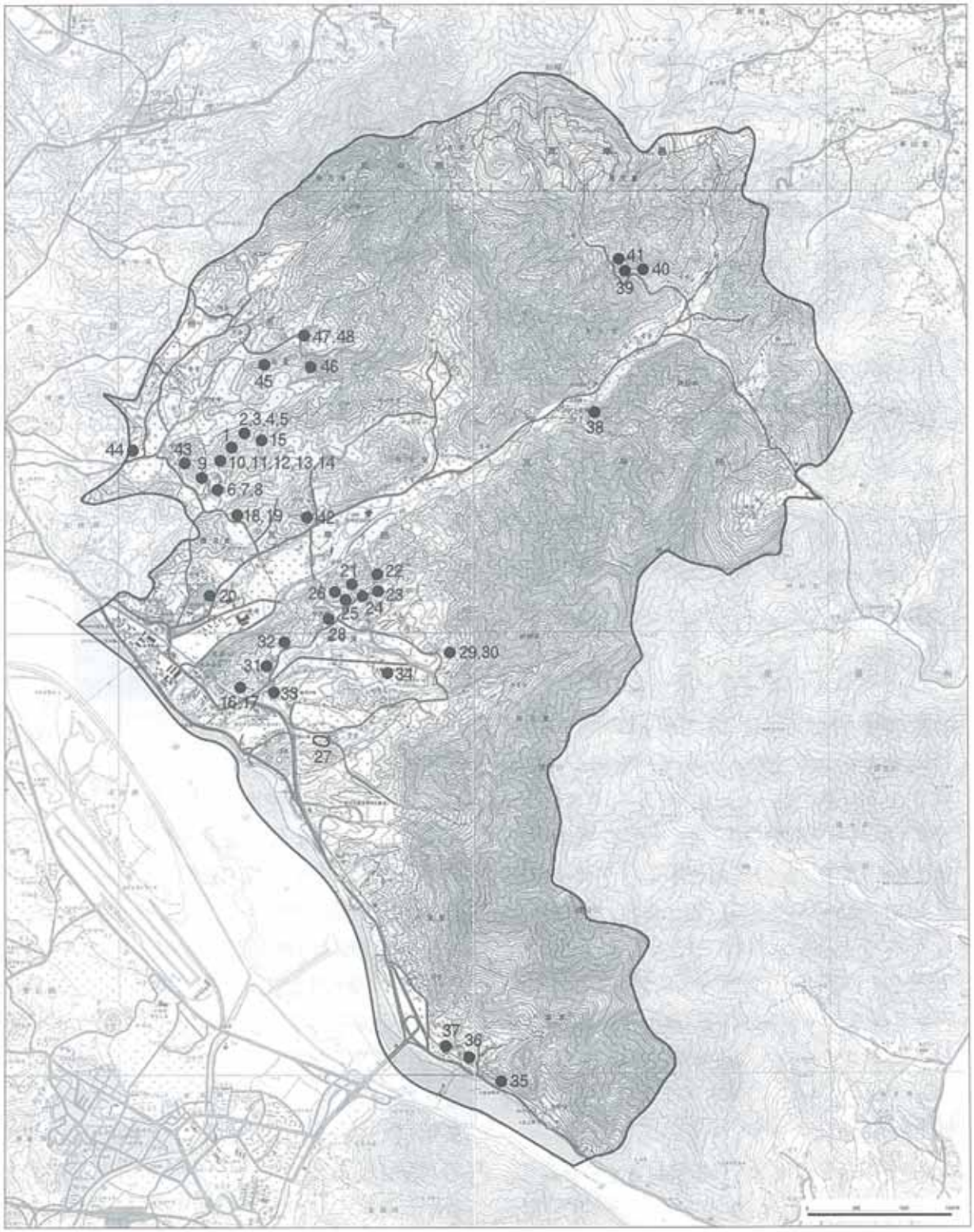
100) 경인일보사, 『메트로폴리탄』 1997. 8. 23.

Ⅲ. 문화유적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수동면
조안면
오남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瓦阜邑



와부읍 문화유적 분포현황

1. 金璠 墓 및 墓碣



지도1 김번 묘 위치도(성등 059)



사진1-1 김번 묘(우리나라 8대 명당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사진1-2 김번 묘갈(옥개석이 평평한 평옥개석형이다)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번(1479~154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安東, 자는 文瑞, 父는 군수를 지낸 永銖이며, 母는 강릉 김씨이다. 1498년(연산군 4) 진사가 되고, 1513년(중종 8)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史官과 군자감직장을 거쳐 사간원정언 · 성균관전적 · 예조좌랑 · 병조좌랑 · 평양서윤 · 시강원문학 등을 지냈다. 평양서윤으로 일하던 1523년에는 관서지방에 전염병이 크게 돌자, 둔전책을 건의하고 농업에 힘쓰며 백성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잡다한 세금을 없애주는 등의 치적을 올려 명성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뒤에 요승 學祖의 조카라 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았지만 왕의 신임이 두터워 화를 면하기도 하였다. 사후에 이조판서 · 대제학에 추증되었다.

묘는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안동김씨 문중 묘역에 위치하여 正南向하고 있다. 정부인 남양홍씨와의 합장묘로 묘역은 표주박형이라 하여 우리나라 8대명당 중의 하나로 꼽혀지고 있다. 봉분 앞에는 복연을 조각하고 파도문을 사방에 새긴 비좌와 비신 월두형의 묘비가 있다. 前 · 後 2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에는 3열로 "贈吏曹判書行平壤府庶尹金公璠之墓 貞夫人南陽洪氏祔"라 새겨져 있다. 묘표의 음기는 김수증이 찬하고 썼으나, 후면의 글씨는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크기는 비좌 높이 23㎝ · 너비 101㎝ · 두께 62㎝, 비신 높이 130㎝ · 너비 60㎝ · 두께 14㎝이다. 비 앞에는 혼유석 · 장대석 · 상석 · 6각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망주석은 하단부에 복연 및 상단에 앙화를 조각하였으며, 높이 170㎝이다. 문인석은 幞頭

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크기는 左 195㎝, 右 191㎝이다.

봉분의 좌측에는 원래의 묘갈이 西向하고 있고, 우측에는 근래에 원 묘갈과 같은 형태로 새로 세운 묘갈이 東向하여 마주보고 있다. 원래의 묘갈은 민무늬 비좌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평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4면에 걸쳐 "贈吏曹判書行平壤府庶尹金公墓碣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行通訓大夫平壤府庶尹兼春秋館編修官金公墓碣銘 并序"이다. 비신 전면의 하단부로는 결락이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30㎝ · 너비 95㎝ · 두께 62㎝, 비신 높이 133㎝ · 너비 61.5㎝ · 두께 30㎝, 옥개석 높이 30㎝ · 너비 98㎝ · 두께 65㎝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사진2-1 김생해 묘



사진2-2 김생해 묘갈(비신과 雲紋의 冠石이 一石이다)

2. 金生海 墓 및 墓碣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생해(1512~1558)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之渾이다. 1537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신천군수를 역임하였으며, 死後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김번의 아들로 극효 · 대효 · 원효 · 선효의 父이다.

묘는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의 김상헌 묘 바로 위에 위치하여 南西向하고 있다. 원형봉분은 정경부인 완산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복연을 조각하고 안상문과 파도문을 사방에 조각한 비좌 위에 비신 월두형의 묘비가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贈議政府左贊成行信川郡守金公生海之墓 貞敬夫人完山李氏祔"라 써 있으며, 후면은 마모되어 판독이 곤란하다. 묘표의 글씨는 김수증이 찬하고 썼다.

크기는 비좌 높이 27㎝ · 너비 84㎝ · 두께 51㎝, 비신 높이 123㎝ · 너비 51㎝ · 두께 12㎝이다. 비 앞에는 혼유석 · 장대석이 있으며,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검게 산화된 상석 · 4각향로석 · 앙화를 조각한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墓碣은 묘의 좌측에 위치하여 西北向하고 있다. 복

연을 조각하고 안상문과 파도문을 사방에 새겨 넣은 비좌와 비신 및 구름문양을 새긴 冠石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碑題는 "有明朝鮮國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訓大夫信川郡守黃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金公墓碣銘 并序"이다. 비문은 鄭惟吉이 찬하고 李滉이 글씨를 썼으며, 김수증이 음기를 새겼다. 관석의 구름 문양 속에는 해와 초승달을 새겨 넣었다.

규모는 비좌 높이 23cm · 너비 112.5cm · 두께 63cm, 비신 높이 144.5cm · 너비 71cm · 두께 21cm, 관석 높이 54cm · 너비 81cm · 두께 30cm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3. 金克孝 墓 및 神道碑



사진3-1 김극효 묘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극효(1542~1618)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希閔, 호는 四味堂, 본관은 안동이며 군수 生海의 아들이다. 新안동김씨의 중시조로서, 나란히 정승에 오른 김상용과 김상헌의 부친이다. 임당 정유길의 문하에서 공부했고, 그의 가문에 장가를 들었다. 1562년(명종 17) 세마에 임명되었고, 1564년 진사가 된 후,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원종공신에 봉해졌고 관직은 동지돈녕부사에 이르렀다.

묘는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김상헌의 묘 우측에 위치하여 南西向하고 있다. 봉분 앞에 있는 墓表는 복연을 조각하고 안상문을 사방에 조각한 장방형의 비좌와 비신 및 구름문양에 해와 달을 새긴 이수로 되어 있



사진3-2 김극효 신도비



사진3-3 김극효 신도비 이수(前面 : 구름속에서 발가락이 4개인 雙龍이 몸을 'ㄹ' 자로 틀어 입을 벌린 채 서로 마주보면서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

다. 특히 해는 최상단에 있고, 달은 2/3 지점에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3열로 "贈議政府領議政行敦寧府都正金公克孝之墓 貞敬夫人東萊鄭氏祔左 皇明雍正3年8月日立"이라 써 있다. 비의 건립연대는 1630년(인조 8)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38㎝ · 너비 100.5㎝ · 두께 63㎝, 비신 높이 129.5㎝ · 너비 64.5㎝ · 두께 16.5㎝, 이수 높이 52㎝ · 너비 75㎝ · 두께 24㎝이다. 묘표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계체석 · 4각향로석과 하단에 복련을 장식하고 상단에 앙화를 조각한 화려한 망주석 및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神道碑는 묘역 입구에 김광찬의 묘갈과 나란히 위치하여 西北向하고 있다. 비는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복련을 조각하고 안상문과 파도문을 사방에 조각하였다. 비신에는 前後 2면에만 비문이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前後 2면에 걸쳐 "贈領議政金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觀象監事行通政大夫敦寧府都正金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義政 李廷龜가 찬하고, 孫女胥 通訓大夫 柳時定이 썼으며,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 金尙容이 전액했다. 건립연대는 1647년(인조 25)이다. 이수는 前後 2면에 걸쳐 구름 문양에 발가락이 4개인 두 마리의 용이 몸을 'ㄹ' 자로 틀어 입을 벌린 채 서로 마주보면서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을 화려하게 조각하였는데 턱 밑의 수염이 무척 긴 것이 인상적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61㎝ · 너비 167㎝ · 두께 94㎝, 비신 높이 176㎝ · 너비 91㎝ · 두께 24㎝, 이수 높이 65㎝ · 너비 106㎝ · 두께 36㎝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4. 金尙憲 墓 및 墓碑



사진4-1 김상헌 묘



사진4-2 김상헌 묘비(비좌는 안상문과 복련문으로 화려하지만 옥개석은 팔작지붕으로 단순하다)

□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김상헌(1570~1652)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安東이며, 자는 叔度, 號는 淸陰 · 石室山人이다. 돈녕부 도정을 지낸 克孝의 아들이며, 우의정 尙容의 동생이다. 3세때 큰아버진인 현감 大孝에게 입양되었다. 1590년(선조 23) 진사가 되고 1596년 임란 중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다. 관직 재

임 중 李彦迪과 李滉 배척에 앞장 선 鄭仁弘을 탄핵하였다가 광주부사로 좌천되기도 하였으며,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이조참의로 발탁되자 공신세력의 保合爲主 政治에 반대하여 是非와 善惡의 엄격한 구별을 주장함으로써 서인 청서파의 영수가 되었다. 1632년 왕의 생부를 원종으로 추존하려는 데 반대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 1635년 대사헌으로 재기용되자 군비의 확보와 북방군사시설의 확충을 주장하였고,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서 주화론을 배척하고 주전론을 펴다가 인조가 항복하자 안동으로 은퇴하였다. 1639년 淸이 明을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淸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나 귀국하였다. 1645년 특별히 좌의정에 제수되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효종이 즉위하여 북벌을 추진할 때 그 이념적 상징으로 대로라고 존경을 받았다. 165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661년(현종 2) 孝宗의 廟庭에 배향되었다. 남양주 석실서원, 개성 숭양서원 등 14개 서원 및 사당에 제향되었으며, 시문과 저서로 『淸陰全集』 40권이 전한다. 시호는 文正이다.

묘는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안동김씨 문중 묘역에 위치하여 南西向하고 있다. 높이 170㎝, 직경 400㎝의 원형봉분을 중심으로 그 앞에 墓表가 있다. 비는 복연을 조각하고 사방에 안상문을 조각한 장방형의 비좌와 비신 및 구름 문양에 해와 달을 새겨 넣은 冠石을 갖추고 있다. 비신은 약간 앞으로 쓰러져 있으며 前面에 2열로 "有明朝鮮文正公淸陰金先生尙憲之墓"라 써 있다. 건립연대는 비 前面 우측에 작게 "崇禎紀元後42年己酉4月日"로 음각된 연기로 보아 1669년(현종 12)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2㎝ · 너비 90㎝ · 두께 57㎝, 비신 높이 105㎝ · 너비 55㎝ · 두께 13.5㎝, 관석 높이 40㎝ · 너비 59.5㎝ · 두께 18.5㎝이다. 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계체석과 사각형의 화려하게 장식한 높이 47㎝의 향로석이 있다. 망주석은 없으며, 문인석은 옷주름을 비교적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크기는 左가 175㎝, 右는 188.5㎝이다.

墓碑는 봉분 앞 좌측에 위치하며 東南向하고 있다. 사방에 蓮花文을 장식한 장방형 비좌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을 단순하게 간략화시킨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 前面의 비제는 "有明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諡文正公行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淸陰金先生墓銘後序"이다. 後面은 큰 글자로 6열에 걸쳐 비문을 새겼는데, 그 중 좌측 1열의 내용은 "有明朝鮮文正公淸陰金先生墓銘"이다. 비문은 前面을 후손 金壽增이 써서 비를 세우고, 後面은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 經筵事世子傅 宋時烈이 述하고, 正憲大夫 議政府左參贊兼 世子貳師 成均館 祭酒 宋俊吉이 書를 했다. 앞면에는 김수증 특유의 예서체로 적혀 있는데, 서체는 비교적 큰 예서이다. 해서로 시작하여 예서의 파임으로 끝내는 법은 그의 다른 예서체와 비슷하나 위로 삐치는 파임이 다른 글씨처럼 날카롭지 않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기교를 억제한 가운데 그의 개성을 나타내었다. 건립연대는 1671년(현종 12)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59㎝ · 너비 133㎝ · 두께 80㎝, 비신 높이 159.5㎝ · 너비 73㎝ · 두께 16㎝, 이수 높이 61㎝ · 너비 106㎝ · 두께 65㎝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 비　　고 : 기념물 제100호

□ 참고문헌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3, 199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I』, 1998.

5. 金光燦 墓 및 墓碣



사진5 김광찬 묘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광찬(1597~1668)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思晦, 호는 雲水居士, 본관은 안동이며 부사 尙寬의 둘째 아들이다. 宗序를 중요시하는 할아버지 克孝의 뜻에 따라 작은 아버지인 文正公 상헌에게 出系하였다. 1668년 아들 수홍과 수항이 모두 중직에 오르자 특별히 嘉善大夫에 가자되고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성품은 깨끗하고 공손하였으며,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양부 상헌이 淸에 끌려가자 호곡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묘는 덕소리 석실마을 안동김씨 문중 묘역에서 상헌과 극효의 묘 중간 아래에 위치하여 南向하고 있다. 바로 정면에는 김극효의 묘갈과 신도비가 있다. 본래 이 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1998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계체석 · 상석 · 4각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고, 봉분 좌측에 墓表가 있다. 묘표는 상부에 복연을 장식하고 사방에 안상문을 장식한 장방형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지만 단순한 형태의 옥개석으로 되어 있다. 비신의 前面에는 3열로 "有明朝鮮贈領議政行同知中樞府事金公光燦之墓 贈貞敬夫人延安金氏祔"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43㎝ · 너비 101㎝ · 두께 65㎝, 비신 높이 138㎝ · 너비 61㎝ · 두께 26㎝, 옥개석 높이 34㎝ · 너비 93.5㎝ · 두께 53㎝이다.

墓碣은 묘역입구에 東南向하여 김극효의 신도비와 5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다. 민무늬 비좌와 백색 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前後 2면에 걸쳐 "贈議政府領議政金公墓碣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觀象監事行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公墓碣銘 并序"이다. 비문은 宋時烈이 글을 짓고, 金壽增이 書와 篆을 하였으며, 건립연대는 崇禎紀元戊辰後57年甲子4月(1684년)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32.5㎝ · 너비 95㎝ · 두께 61.5㎝, 비신 높이 137.5㎝ · 너비 61㎝ · 두께 24.5㎝, 옥개석 높이 67㎝ · 너비 101㎝ · 두께 35.5㎝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6. 金尙容 墓 및 神道碑



사진6-1 김상용 묘(원형의 봉분은 하단에 12지를 양각한 호석을 새로 마련하여 놓았다)



사진6-2 김상용 신도비



사진6-3 김상용 신도비 이수(前面:쌍룡이 구름 속에서 입을 벌린 채 발가락이 4개씩인 앞발을 들어 여의주를 움켜잡고 다투는 모습)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6(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상용(1561~1637)은 朝鮮中期의 문신으로 자는 境擇, 號는 仙源 · 風溪, 본관은 안동이다. 극효의 아들이며, 領議政을 지낸 金尙憲의 형이다. 1582년(선조 15) 진사가 되고 159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다. 임진왜란시 강화 선원촌으로 피난했다가 양호체찰사 정철의 종사관이 되어 왜군토벌과 명군 접대에 공을 세워 1598년 승지에 발탁되고, 그 뒤 왕의 측근에서 전란중의 여러 사무를 보필하면서 성절사로 명에 다녀왔다. 丙子胡亂 때 묘사주를 받들고 빈궁 원손을 수행하여 강화도에 피난하였다가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1638년(인조 16년) 정문이 내려졌고 1757년(인조 33년)에 불천지전이 내려졌으며 이듬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양주 석실서원을 비롯해 강화 충렬사, 상주의 서산서원, 안변의 옥동서원, 정주의 봉호서원 등 여러 書院에 除享되었다. 문집으로 『仙源遺稿』 7권이 전하며, 시호는 文忠이다.

묘는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입구 좌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東南向하여 있다. 원형의 봉분은 근래에 백색 대리석에 12지를 양각한 높이 73㎝의 호석을 마련하여 놓았다. 규모는 높이 150㎝, 직경 550㎝이다. 封墳 앞에는 墓表가 세워져 있는데, 전후 5엽, 좌우 1엽씩 총 12엽의 복연을 장식하고 사방에 안상문을 새긴 장방형 비좌와 비신 및 구름무늬에 앞과 뒤에 해와 달을 새겨 넣은 冠石形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2열로 "忠臣議政府右議政金公尙容之墓 貞敬夫人安東權氏祔左"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0㎝ · 너비 94㎝ · 두께 62㎝, 비신 높이 100㎝ · 너비 54㎝ · 두께 13㎝, 이수 높이 39㎝ · 너비 48㎝ · 두께 20㎝이다. 묘비 앞에는 상석 · 사각형의 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神道碑는 묘역 입구 우측에 南西向하여 정면에 김상용 선생 정문인 충효문을 바라보고 있다. 비는 비좌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는데, 비좌는 상부에 전후 5엽, 좌우 1엽씩 총 12엽의 대형 복판복련 및 사방에 안상문과 파도문을 장식하였다. 비신은 前後 2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後 상단 2면에 걸쳐 篆書로 "忠臣議政府右議政仙源先生金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忠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經筵事監春秋館事仙源先生金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아우인 崇政大夫 行吏曹判書 金尙憲이 撰하고, 후손 嘉義大夫 司憲府 大司憲

金光鉉이 篆額을, 門人 通訓大夫 柳時定이 書를 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647년(인조 25)이다. 이수는 前後 2면에 걸쳐 쌍룡이 각각 구름 속에서 몸을 'ㄹ' 자로 틀어 마주보면서 발가락이 4개씩인 앞발을 들어 여의주를 움켜잡고 다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조각하였다. 前面의 두 용은 입을 벌리고 있으나, 後面의 두 용은 입을 다물고 있어 조각상의 차이가 있다. 몸에 비늘의 표현과 턱수염 및 길다랗게 늘어뜨린 뿔, 벌린 입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 놓고 혀를 널름거리는 조각표현은 당대 최고의 장인이 조각한 듯 매우 우수하다.

규모는 비좌 높이 70㎝ · 너비 182㎝ · 두께 100㎝, 비신 높이 220㎝ · 너비 89㎝ · 두께 23㎝, 이수 높이 70㎝ · 너비 108㎝ · 두께 36㎝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기념물 제99호

□참고문헌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3, 199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6(지도1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김상용 충효문은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의 묘역 입구에 東向하여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충효문은 근래에 새로 세운 것으로 기둥이나 현판 등은 옛 것을 그대로 쓴 듯하다. 사우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형태로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중간에 붉은 글씨로 현판을 세운 대신에 벽에 현판을 세웠다. 현판 중앙에는 "忠臣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行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 領經筵事監春秋館事 諡文忠公金尙容之門"이라 써 있고, 좌측면에는 "孝孫 童子壽全之門"이라 써 있다. 정문의 글씨는 김응현 선생이 썼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7. 金尙容 忠孝門



사진7 김상용 충효문

8. 金壽增 墓



사진8 김수증 묘표(옥개석이 평평한 평옥개석형이다)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6(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수증(1624~1701)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延之, 호는 谷雲, 본관은 안동, 할아버지는 상헌, 父는 광찬, 영의정 수흥과 수항이 동생이다. 1650년(효종 1)에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고, 1652년에는 익위사 세마가 되었다. 형조정랑 · 공조정랑을 거쳐 각사의 정을 두루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송시열과 동생 수항이 죽고, 이듬해 동생 수흥도 유배지에서 사망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화음동에 들어가 정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694년 갑술옥사 후 다시 관직에 임명되어 한성부좌윤 · 공조참판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퇴한 뒤 세상을 피해 화악산 골짜기로 들어가 은둔하였다. 춘천의 春睡影堂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谷雲集』이 있다.

묘는 덕소리 석실마을 끝 소로변의 나지막한 구릉에 東向하여 광환 묘 아래에 정부인 창녕조씨와의 쌍분으로 되어 있다. 봉분 앞에는 墓表 · 혼유석 · 상석 · 계체석 · 직사각향로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특히 상석 前面에는 묘표 前面에 쓰여진 내용과 같은 비문이 음각되어 있으며, 크기는 높이 34㎝ · 너비 156㎝ · 두께 95㎝이다.

墓表는 봉분 중앙에 위치하여 민무늬의 장방형 비좌와 비신 및 평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有明朝鮮工曹參判谷雲先生金壽增之墓 贈貞夫人昌寧曺氏祔"라 써 있다. 비문은 金昌翕이 썼으며, 건립연대는 1710년(숙종 36)이다. 옥개석은 상부가 평평한 평옥개석으로 단순미를 느끼게 해 준다.

크기는 비좌 높이 30㎝ · 너비 91㎝ · 두께 60㎝, 비신 높이 129㎝ · 너비 54.5㎝ · 두께 23㎝, 옥개석 높이 18㎝ · 너비 86㎝ · 두께 54㎝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9. 金昌協 墓



사진9 김창협 묘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창협(1651~1708)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자는 仲和, 호는 農巖 · 三洲, 본관은 안동이다. 좌의정 상헌의 증손자이며, 父는 영의정 수항, 母는 安定羅氏 星斗의 딸이다. 영의정을 지낸 창집의 아우이며, 李端相의 사위이다. 특히 문장에 능하며 글씨도 잘 써서 文貞公李端相碑 · 監司李萬雄碑 등이 있다. 숙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 영암의 녹동서원에 제향되었다. 諡號는 文簡이다.

묘는 석실서원 묘정비 바로 좌측구릉에 연안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앞에는 상석 · 무늬없는 사각향로석 · 계체석 · 석주 하단부에 복연 및 상단부에 앙화를 조각한 높이 170㎝의 망주석이 있다. 봉분 좌측에는 묘비가 있는데, 민무늬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김창흡이 글씨를 썼으며, 건립연대는 1711년(숙종 37)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43㎝ · 너비 104㎝ · 두께 73㎝, 비신 높이 130㎝ · 너비 56㎝ · 두께 29㎝,옥개석 높이 30㎝ · 너비 104㎝ · 두께 73㎝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10. 松柏當 遺虛碑



사진10 송백당 유허비 · 취석 · 석실서원 묘정비(왼쪽부터)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송백당유허비는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에 위치하여 취석비 · 석실서원묘정비 등 다른 2기의 비와 東向하여 南北으로 나란히 서 있는데, 가장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비는 본래 현재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관리상의 편리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이 비는 김상헌의 8대손인 金汶根이 폐허가 된 지 40여 년이 된 송백당(청음 김상헌선생이 살았던 집)을 중건하려하자 여러 사람들이 집은 廢興이 무상하니 견고한 비를 세워 영구히 전하자고 하였다는 건립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가로 111㎝, 세로 70㎝인 지대석 위에 비좌,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납작한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만 있으며, 前面에 "松柏當遺虛碑"라고 써 있고, 후면에 세워진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 비문은 8대손 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 영은부원군 金汶根이 찬하고, 8대손 崇祿大夫 行吏曹判書 金輔根이 글을 썼으며, 건립연대는 1861년(철종 12)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36㎝ · 너비 78㎝ · 두께 53㎝, 비신 높이 126㎝ · 너비 48㎝ · 두께 18㎝, 옥개석 높이 36㎝ · 너비 74㎝ · 두께 30㎝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11. 醉石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사진1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취석비는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의 송백당유허비와 석실서원묘정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1668년(현종 9년)에 세워진 것으로 남양주 지역에 있는 비로는 유일하게 宋時烈이 찬하고 쓴 글씨이다.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남양주지역에 많은 신도비와 묘갈 등에 글을 찬하기는 하였으나 글씨 자체가 있는 것은 취석비가 유일하다. 우암 송시열이 취석이라는 글짜를 서준 연유는 도연명의 고사에서 본따 남긴 것이다. 중국의 『廬山記』에 "도연명이 거처하던 율리에 큰 돌이 있는데, 연명은 술에 취하면 항상 그 돌에 올라가 잠을 잤다. 이로 인해 醉石이라 이름 붙였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암이 취석이라는 도연명의 고사를 인용하여 써 준 것은 문정공 김상헌이 심양에 볼모로 붙잡혔을 때 중국인 孟英光이 그의 의로운 행동을 흠모해 채국도를 조냈으며 이를 도연명의 진영과 함께 도산정사에 안치해 두었다. 여기에 도산정사가 위치한 곳의 지명은 "石室"이다.

취석비의 앞면에는 자경 30㎝의 "醉石"이란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전액으로 陶山精舍記가 있어 이 글을 쓴 내력을 적어 놓고 있다. 전반부는 도산정사기로 전체 14행(1행에 30자)으로 되어 있다. 후반부는 附書陶山精舍記後로서 1672년 김수증이 짓고 글씨를 쓴 것으로 좌측 하단에는 확인 미상(谷雲 : 김수증 印으로 생각됨)의 낙관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도산정사기는 마모가 심하여 보이지 않는다. 비는 민무

늬 대석에 비신은 직사각형으로 양 귀를 말각하였다.

도산정사는 석실마을에 있던 김상헌의 묘 아래 있었던 精舍로, 이 정사는 1668년 김수증 등이 그의 부친인 金光燦을 위해 세운 것이다. 이 정사가 언제 훼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송시열이 도연명의 고사를 본따 "취석"이란 글씨를 김수증 등에게 준 것이다. 이 글씨는 우암의 글씨와 비석의 뒷면에 기록자의 낙관이 있다는 데에 희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40㎝ · 너비 112㎝ · 두께 70㎝, 비신 높이 99㎝ · 너비 90㎝ · 두께 14㎝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12. 石室書院 廟庭碑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사진1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석실서원 묘정비는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에 있다. 병자호란 때 청에 대항하여 싸우기를 주장한 청음 金尙憲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후학들이 세운 것이다. 석실서원은 수석동에 있는 서원으로 안동김씨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곳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서 훼철되었다. 이후 수석동에 있던 묘정비 등 석물을 현재의 자리에 옮겨놓았던 것이다. 본래 묘정비가 있었던 곳은 수석동 조말생 사당 앞이다. 글의 내용은 청음 선생이 병자호란 때 오랑캐에 대항한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는 내용이다.

이 비는 1672년(현종 13) 세워진 것으로 가로 159㎝, 세로 131㎝의 지대석 위에 비좌 상부에 복연 및 사면에 안상문과 파도문을 조각하였고, 비신과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에는 "石室書院廟庭之碑"라 써 있고 그 아래에 비문을 세우게 된 내력을 적고 있다. 이 비문은 송시열이 찬문을 짓고, 김수증이 비문의 글씨를 썼다. 김수증은 김상헌의 손자이고, "유강신도비"의 전을 쓴 金光炫의 조카이며, 金壽恒의 형이다. 그는 독특한 예서체로 일가를 이루었다. 그의 예서에는 김광현의 예서처럼 別字와 벽자가 많다. 조심스럽게 일정한 굵기의 해서체 기필로 시작하여 파임을 45° 각도 위로 날카롭게 뻗는 수필에서 그의 특징을 살렸다. 묘정비는 대석에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으로 이루어졌다.

크기는 비좌 높이 61㎝ · 너비 108㎝ · 두께 71㎝, 비신 높이 135㎝ · 너비 64㎝ · 두께 28.5㎝, 옥개석 높이 35㎝ · 너비 101㎝ · 두께 64㎝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서일대학 강경향토문화연구소 · 남양주문화원, 『석실서원-지표 및 문헌조사-』 남양주향토문화총서 4, 1998.

13. 陶山石室閭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이 입석은 덕소리 석실마을에 있다. 원래는 도산석실 입구에 있었던 것으로 출입처의 기능을 하였다. 도산정사는 청음 김상헌의 嗣孫인 김수증이 그 아버지인 김광찬을 추모하여 지은 齋舍와 居所의 기능을 지닌 집으로 청음이 기거하였던 석실정사와 함께 석실 안동김씨 집성촌의 기원이 되는 건물이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도산석실려와 고송오류문은 정사의 출입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명문의 내용은 도연명의 고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도산석실려"는 丙舍의 옥호로 문집에는 陶山精舍 또는 陶山齋舍로 병용되고 있다. 두 입석의 명문 중 陶山이나 五柳는 모두 도연명



사진13 도산석실려

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도산석실려는 근처 밭에서 옮겨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현재의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도산석실려는 가로 67㎝, 세로 52㎝의 대석에 사각기둥(石柱) 모양의 비신으로 되어 있고, 비의 前面에 "陶山石室閭"라 써 있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27㎝ · 너비 24.5㎝ · 두께 17㎝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서일대학 강경향토문화연구소 · 남양주문화원, 『석실서원-지표 및 문헌조사-』 남양주향토문화총서 4, 1998.

14. 孤松五柳門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이 고송오류문은 덕소리 석실마을에 있다. 그동안 분실되었던 것을 1999년 1월에 찾아낸 것이다. 고송오류문은 도산정사의 입구에 세워져 있었던 2기 중 1기로 중간부분이 부러진 상태이다. 비의 앞면에는 "孤松五柳門"이라 써 있다. 입석은 石柱 형태로 대석은 찾지 못하였다. 서각은 김수증이 하였다.

크기는 높이 127㎝ · 너비 24.5㎝ · 두께 17㎝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서일대학 강경향토문화연구소 · 남양주문화원, 『석실서원-지표 및 문헌조사-』 남양주향토문화총서 4, 1998.

15. 陶山精舍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5(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묘

□내 용

도산정사는 와부읍 덕소 5리 안동김씨 분산이 소재한 청음 김상헌의 묘소 아래에 있었던 정사이다. 이 정사는 1668년(현종 9)에 金壽增 · 金壽興 · 金壽恒 등이 그의 부친인 金光燦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이 정사가 언제 훼철되었는지는 알수 없다. 우암선생의 「도산정사시」에 의하면 "도산"이라는 이름은 이곳의 지명을 본따 지은 것이며, 陶淵明의 「採菊圖」와 영정, 주자의 5언 절구시, 김상헌의 영정 등이 모셔졌다고 한다. 우암이 「도산정사기」를 지어준 이유는 안동김씨 문중과

각별한 관계 때문이다. 지금은 입구에 세워져있던 취석비와 陶山石室閭와 孤松五柳門의 비가 남아 있을 뿐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16. 李孟賢 墓



지도16 이맹현 묘 위치도(성동 070)



사진16 이맹현 문인석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45-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맹현(1436~1487)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載寧, 자는 師聖, 호는 觀齋이다. 호조참판 介智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晉州河氏로 敬履의 딸이다. 그는 1456년(세조 2)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성균관 재생으로 있을 때부터 經學에 명성이 높았다. 1459년(세조 5) 왕이 경회루에서 연회를 할 때 특별히 그를 불러 『易學啓蒙』을 강론하게 하였는데, 세조가 크게 칭찬하고 즉석에서 관직을 제수케 하였다. 1460년 7월에는 春塘臺試 明經科에 장원급제하였다. 이후 그는 어전에서 『易經』 등의 경서를 강의하는 일이 많았고, 오랫 동안 經筵官 혹은 書筵官으로 활약하였다. 익년 5월 형조좌랑, 성균관주부를 거쳐, 1466(세조 12)년에는 修撰郎官으로 『東國通鑑』을 편수하는 데 참여하였다. 또 『經國大典』 刑典을 편찬하는데도 참여하였다. 그러면서 왕족들의 교육기관인 宗學의 導善(교사)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그 뒤 1472년(성종 3) 사헌부장령, 이조정랑, 예문관응교 등을 지내면서 경연시독관 · 시강관 등을 겸하였다. 다음해 7월에는 量田과 조세부과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德宗의 추숭에 반대론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또 호남에 살던 왕족의 딸인 權德榮의 처와 노예 天禮의 간통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남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는 1475년(성종 6) 경회루를 중수하자는 논의가 있자,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토목공사를 일체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慶尙道災傷敬差官이 되어 여러 읍의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量案이 부실하고 結數에 착오가 많음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1477년(성종 8) 당상관에 승진하여 형조참의와 예조참의를 역임하면서 국가와 왕실의 전례 문제와 여진족의 정벌에 대한 정책 논의에 참여하였다. 후에 홍문관부제학, 이조참판, 나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뒤에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저술로는 遺詩 4수가 전한다.

묘역은 와부읍 덕소리 金大山 중턱에 위치하며, 1489년(성종 18)에 조성되었다. 묘소는 부인 坡坪 尹氏와의 쌍분으로 규모는 각각 높이 210㎝, 둘레 165㎝이다. 묘 앞은 10개의 長臺石을 횡으로 쌓아 段을 만들었다. 봉분앞에는 각각 墓表가 있다. 우측 정부인 윤씨 묘앞 묘표는 고려양식의 연화형(38㎝×18㎝×80㎝)으로 연봉부분이 마모되었으며, 前面에는 "貞夫人尹氏墓"라 써 있다. 뒷면에는 글씨가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좌측은 고려양식의 연화형(44×22×110㎝)으로 前面에는 "有明朝鮮國通政大夫守 黃海道觀察使李孟賢之墓"라 써 있다. 뒷면에는 글씨가 있다. 비문은 허돌이 찬하고, 후손 李玄德이 썼으며, 건립연대는 1488년(성종 19)이다. 봉분 중간에는 새로 만든 묘표가 있으며, 양쪽 상석과 향로석은 새로 만든 것이다. 향로석 앞 좌우의 문인석(150㎝)은 단순하면서도 복두의 머리 길이가 60㎝로 신체의 1/3을 차지하는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기념물 제114호

□참고문헌

『세조실록』·『성종실록』·『국조문과방목』
『國譯觀齋先生實紀』, 1984.
중추원, 『조선인명사서』, 1937.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 1991.

17. 臺山齋



사진17 대산재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지도1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대산재는 와부읍 도곡리에 있으며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載寧, 자는 師聖, 호는 觀齋인 이맹현(1436~1487)의 제각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18. 金世敏 墓



사진18 김세민 묘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39-6(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세민(1402~1486)은 조선 초기 문신이자 정종의 부마로 자는 伯恭, 시호는 良平, 본관은 경주이다. 개성유수 休謙의 아들로 정종의 2녀 숙신옹주를 아내로 삼았고, 그로 인하여 1418년(태종 18)에 부지돈녕부사가 되어 내외직을 역임하고 판돈녕부사에 이르렀다.

묘는 와부읍 덕소리 도로변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西向하여 숙신옹주와의 쌍분이다. 봉분 앞에는 一石의 비신과 花冠石을 갖춘 墓表가 있다. 그러나 상단의 연봉 부분은 마모되어 없다. 비신에는 "知敦寧府事諡良平公金世敏之墓 叔愼翁主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신 높이 73.5cm · 너비 39.5cm · 두께 19cm, 화관석 높이 33cm · 너비 46.5cm · 두께 21cm이다.

그 좌우에 상석이 있고, 그 앞에 계체석을 놓았다. 그 앞쪽에는 본래 장군석이 있었으나 1998년 도난당하고 없다. 그 앞의 문인석은 단순하지만 높이 206cm로 장대한 느낌을 준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19. 金謙 墓



사진19 김겸 묘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산39-6(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겸(1377~1425)은 조선 초기 문신으로 자는 益甫, 시호는 平厚, 본관은 경주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형조전서, 한성부윤,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돈녕으로 경기감사, 개성유수 등을 지냈다. 증직으로 숭정대부 의정부우찬성을 제수받았다.

묘는 와부읍 덕소리에 김세민 묘 좌측에 위치하여 정숙부인 서흥김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앞에는 一石의 비신과 화관석을 갖춘 고려식 묘표가 있는데, 비신에는 "贈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平厚公金謙 貞淑夫人瑞興金氏"이라 써 있다.

크기는 비신 높이 76cm · 너비 42.5cm · 두께 17cm, 화관석 높이 25cm · 너비 53.5cm · 두께 21cm이다. 봉분 앞에는 상석 · 계체석 · 원형의 향로석 · 통비형의 높이 129cm인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그 앞 묘역 앞에는 문인석과 같은 동자석이 있는데 김겸 묘 바로 앞에 있는 동자석은 높이 105cm의 작은 키에 좌측은 칼을 바로 잡은 반면에 우측은 비스듬이 잡고 있는 형태이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동자석(좌 101cm, 우 88cm)의 머리가 전체의 1/2을 차지하는 이상한 형태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20. 南楊州 德沼里 느티나무



지도20 남양주 덕소리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69)



사진20 남양주 덕소리 느티나무

□소재지 : 와부읍 덕소리 424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소쩍새가 새끼를 쳐서 나가는 이 나무는 덕소초등학교 뒷편에 있는 덕소 2리 새루마을로 들어오면 마을 중심의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길가에 서있다. 원래 덕소 7리에서 지내던 마을의 제사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낼 수 없게 된 후 이 느티나무로 옮겨 매년 음력 10월에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위하는 나무로 특히 여름철에 이용이 많다.

가지와 잎이 사방으로 고루 발달하여 원정형의 수관을 이루고 있으며 수관이 넓게 퍼져있고 가지가 바닥으로 쳐져 있어 좁은 도로를 그늘로 가득 채우고 있다.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네를 매어탔었다고 하는 마을의 정자목이며 수세가 양호하고 하부에 평상과 의자 등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는 쉼터로 와부읍의 사계부락 노인복지회관 앞에 자리잡고 있다.

수령 300년, 수고 15m, 흉고둘레 3.6m, 수관폭 18m.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남양주-32(1982. 10. 15)

21. 朴元宗 墓 및 神道碑



지도21 박원종 묘 위치도(성동 070)



사진21-1 박원종 묘(中宗反正의 1등공신 박원종의 묘이다)



사진 21-3 박원종 신도비 이수(前面:龍의 몸통이 무척 굵다)



사진21-2 박원종 신도비(비신과 이수가 一石이다)



사진 21-4 박원종 문인석(墓主의 武臣을 상징하듯 장대하며 갓끈과 길게 늘어뜨린 소매가 특징)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산3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박원종(1467~1510)은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順天, 자는 伯胤, 시호는 武烈이다. 적기좌리공신 判中樞府事 仲善의 아들이다. 1506년 이조참판 성희안 등과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을 옹립하였다. 이에 靖國功臣 1등으로 우의정이 되고, 平原府院君으로 進奉되었다. 좌의정, 영의정을 거쳐 平城府院君에 봉해지고 중종의 廟庭에 배향되었다.

묘는 와부읍 도곡리 안골마을 입구의 도로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南東向하여 있다. 원형봉분 앞의 墓表는 화강암 재질의 비좌와 대리석 재질의 비신 월두형으로 되어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전면 상단에 篆書로 "有明朝鮮國"이라 횡서했고, 그 밑에 5열로 "秉忠舊義決策翊運靖國推誠保 社祐世定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平城府院君 贈諡忠烈朴公元宗之墓"라 새겨져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8㎝ · 너비 98㎝ · 두께 62㎝, 비신 높이 131㎝ · 너비(上) 52㎝ · 너비(下) 48㎝이다. 상석은 화강암제로 높이 20㎝인 4개의 고석에는 앞면에 열쇠고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다. 향로석은 8각형으

로 높이 81㎝ · 너비 45㎝의 대형이며 상석 앞의 약간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모양이 수려하나 검게 탈색되어 있다. 망주석 역시 8각으로 높이 81㎝ · 너비 45㎝의 굵고 우람한 느낌이 들며 하단 16엽의 복련사이마다 작은 간엽을 끼워넣었고, 상단은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장명등은 높이 220㎝로 화강암 재질이며, 하단은 복련 모양이고 중간은 4각형에 仰花를 새겨 넣었으며 윗부분은 팔작지붕형태이다. 문인석은 높이 248㎝의 대형으로 육중한 감마저 들며 생전에 묘주의 무인다운 무골을 나타내는 듯하다. 얼굴에 갓끈의 흔적이 뚜렷하고 소매에 길게 늘어뜨린 관복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神道碑는 총높이 325㎝로 묘역입구에 위치하여 南西向하고 있다. 백색화강암 재질의 장방형 비좌와 백색대리석으로 一石인 비신과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전후 7엽, 좌우 2엽씩 총 18엽의 복련문을 상부에 조각하였다.

비신은 前面에만 비문이 있으며, 碑題는 "有明朝鮮國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推誠保社佑世定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春秋館弘文館藝文館觀象監事平城府院君贈諡忠烈朴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資憲大夫 禮曹判書 弘文館 大提學을 지낸 申用漑가 撰과 書를 한 것인데 마모가 심하며, 건립연대는 1511년(중종 6)이다.

비신 前面에 길다란 결이 다수 있고, 우측 중앙으로 직경 8㎝의 탄흔 2개소와 측면으로 결락이 있다. 이수는 발가락이 4개씩인 두 마리 용이 전후 2면에 결쳐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몸을 'ㄹ' 자로 튼 두 마리 용이 서로 마주보면서 앞 발을 들어 여의주를 움켜잡고 다투는 모습이다. 좌측의 용은 입을 다물고 있는 반면, 우측의 용은 입을 벌리고 있으며, 후면도 마찬가지이나 한쪽은 얼굴 부분이 아깝게도 파손되어 있다. 남양주 지역의 다른 신도비 이수와 비교하여 몸통이 무척 굵은 편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29㎝ · 너비 134㎝ · 두께 77㎝, 비신 높이 206㎝ · 너비 93㎝ · 두께 26㎝, 이수 높이 85㎝ · 너비 105㎝ · 두께 36㎝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향토유적 제6호

□참고문헌

경기도, 『향토유적총람』, 1987.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3, 1997.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22. 世德祠



사진22 세덕사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819-1(지도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묘

□내　용

세덕사는 朴元宗을 모시는 사당으로 박원종 묘역에서 마을로 향하는 길을 따라 50m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형태이나 많이 퇴락한 상태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23. 陶山齋



사진23 도산재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819-2(지도21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도산재는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위치하며 바로 뒤에는 세덕사가 있다. 평면형태는 일반 가정집 형태의 'ㄴ' 자 집으로 가운데 현판이 달려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24. 朴雲 墓



사진24-1 박운 묘표(前面 : 직경 21㎝의 해를 상징하는 원 속에 三足烏를 조각하였다)



사진24-2 박운 묘표(後面 : 직경 21㎝의 달을 상징하는 원 속에 토끼가 방아 찧는 모양을 조각하였다)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산31(지도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박운(1493~1562)은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순천, 자는 慶淑, 호는 龍巖 · 雲巖이며, 원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계비 정경부인 창녕성씨로 첨지 準의 딸이다. 아버지 충렬공의 靖國原從勳에 참여하여 음직으로 大護軍에 제수되었다, 박원종이 적자가 없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운은 당시 호화로운 생활로 조정에 공변될 정도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묘는 박원종의 묘 아래에 위치하여 南東向하고 있으며, 貞夫人 平山申氏와의 쌍분이다. 묘는 후면에 흙으로 둔덕을 쌓아 활개를 대신하고 있다. 墓表는 비좌와 一石의 대리석재질 비신 및 冠石형태이다. 비신은 前面에만 비문이 있으며 마모가 심하여 비문이 뚜렷하지 않다. 관석 부분에는 진건면 용정리의 변안열 묘표와 유사하게 日月圖가 새겨져 있는데 앞부분은 구름무늬와 해를 상징하는 직경 21㎝의 원 속에 三足烏를 조각하였고, 뒷부분은 구름무늬와 달을 상징하는 직경 21㎝의 원 속에 토끼가 방아찧는 모양을 조각하였다.

크기는 비좌 높이 36㎝ · 너비 92㎝ · 두께 49㎝, 비신 높이 110㎝ · 너비 52㎝ · 두께 19㎝, 관석 높이 49㎝ · 너비 61㎝ · 두께 25㎝이다.

묘표 앞에 있는 화강암으로 만든 상석은 받침대가 없으며, 4각 향로석 · 망주석 · 높이 198㎝의 대형 문인석이 있다. 비신과 장명등은 도난당하였다. 묘표는 우측 문인석 근처에 새로 만들었는데,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관석형태를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有明朝鮮國"이라 했고 그 밑에 3열로 "嘉善大夫大護軍參靖國原從勳 順天朴公諱雲之墓 配貞夫人平山申氏祔"라고 하였고 뒷면에는 행장을 적었다.

크기는 비좌 높이 74㎝ · 너비 28㎝ · 두께 106㎝, 비신 높이 33㎝ · 너비 180㎝ · 두께 61㎝, 옥개석 높이 53㎝ · 너비 78㎝ · 두께 77㎝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사진25-1 박중선 묘



사진25-2 박중선 신도비(雲紋이 화려한 方形의 冠石이 특이하다)

25. 朴仲善 墓 및 神道碑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산31(지도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박중선(1435~1481)은 조선 중기 무관으로 본관은 順天, 자는 子淑, 시호는 昭襄이다. 知敦寧府副事 朴去疏의 아들이며, 어머니 沈氏는 곧 昭憲王后의 아우이다. 박중선은 처음 忠順衛에 속했다가 副護軍 겸 宣傳官에 이르고, 1460년(세조 6) 武科 1등으로 급제 訓鍊觀副使를 제수받고 知使, 禮賓少尹, 知通禮門副事, 判軍器監事, 知兵曹事 등을 역임하였다. 李施愛의 반란을 정벌한 공으로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의 號를 내리면서 判書에 승진되고 平陽君에 봉해졌다. 이어 平安道節度使, 兵曹判書를 역임하고, 睿宗이 南怡 옥사 후 推忠靖難翊戴功臣의 호를 내리면서, 崇政大夫를 더하였다. 이후 純誠明亮佐理功臣의 호를 내렸다. 京畿觀察使, 吏曹判書, 判敦寧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와부읍 도곡리 안골마을 입구의 도로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여 부인묘와 앞뒤로 나란히 있다. 봉분 앞에는 높이 21㎝인 6개의 고석을 놓고 그 위에 두 개의 상석을 붙여 놓았다. 고석에는 4면에 문고리모양을 양각하였다. 그 앞에 계체석 · 향로석을 놓았다. 향로석은 전체적으로 모양이 화려하고 조각기법이 뛰어났다. 전체를 3단으로 나누어 각층 8면에 꽃무늬를 조각하였고, 그 위에 안상문을 조각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그 앞 좌우에는 망주석 · 문인석이 있다. 망주석은 높이 232㎝로 팔각 받침대에 안상문을 각각 조각하고 석주 기둥에는 작은 다람쥐를 조각하고, 그 위에 안상문과 구름 문양을 각각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전체적으로 8각 기둥에 보주를 올려 크고 장대한 느낌

을 준다. 문인석은 높이 240㎝로 머리길이가 68㎝로 신체의 1/4을 차지하고 크고 장대하며 조각 기법이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다만 우측의 문인석은 오른쪽 볼에 총상을 입고 있다.

神道碑는 묘역 좌측에 西向하여 장방형의 비좌와 비신 및 구름 문양을 앞뒤로 새긴 冠石을 갖추고 있다. 비좌에는 전후 9엽, 좌우 3엽씩 총 24엽의 대형 단판 복련을 장식하고 前後 4엽, 左右 2엽씩의 안상문을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平陽君朴公碑銘"이라 횡서했다. 碑題는 "有明朝鮮國精忠出氣布義敵愾保社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判敦寧府事平陽君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謚昭襄朴公神道碑銘"이다. 비문은 折衝將軍 行武衛大護軍 任士洪이 撰·書·篆額을 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490년(성종 21)이다. 비신에는 종과 엇비슷하게 다수의 결과 마모가 있는 상태이다. 옥개석은 雲文이 화려한 冠石으로 方形의 특이한 형태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57㎝·너비 167㎝·두께 107㎝, 비신 높이 193㎝·너비 95㎝·두께 32㎝, 이수 높이 80㎝·너비 103㎝·두께 40㎝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南楊州文化院·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26. 朴可興 墓



사진26 박가흥 묘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산31(지도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박가흥(생몰년 미상)은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천이고, 父는 문하시중을 지낸 平原府院君 天祥이며, 부인은 도첨의찬성사 정을보의 딸이다. 시호는 靖厚이다. 우왕 때 밀직부사를 지냈으나 1388년(우왕 14) 李仁任이 숙청당하여 경산부에 유배되자 그에 연루되어 순천으로 귀양갔다. 1390년(공양왕 2)에는 소위 윤이·이초의 무고에서 비롯된 이초의 옥사에 연루된 김종연을 숨겨주는 등 이성계 제거에 협력하다가 붙잡혀 유배당하였다. 전 해에 이성계 일파에 의하여 공양왕이 즉위하자 明에 고려의 윤이와 이초가 공양왕이 종실이 아니라 이성계의 姻親이며, 공양왕과 이성계가 장차 군사를 일으켜 명을 공격할 것이라고 무고하고, 이어 이를 반대하던 이색·조민수·이림·변안렬·권중화 등 고려의 재상 19인이 살해 또는 유배될 것이라 하면서 이를 토벌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사실이 당시 사신으로 명에 가 있던 왕방과 조반이 돌아와 보고함으로써 고려에 알려지자, 대간들은 이 무고에 연루된 사람들을 국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윤이와 이초의 개인적인 책동으로 결론지어짐으로

써 사건이 일단 종결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무고에 연루되었던 김종연이 도망하여 무고에 실제로 관계하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를 빚었고, 이를 계기로 사건이 확대되어 대대적인 옥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개국 후 벼슬이 檢校議政府事右議政에 이르렀고 平陽君에 봉해졌다.

묘는 도곡리 안골의 박중선 묘역 제일 위에 위치하여 南向하고 있다. 묘역은 흙으로 활개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 아래에 다시 돌로 곡장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에 봉분을 'ㅁ'자 형태로 만들었는데, 높이 34㎝의 호석을 둘렀다. 규모는 높이 130㎝, 동서직경 340㎝, 남북직경 430㎝이다. 봉분 앞에는 2기의 묘비가 있는데 우측은 새것으로 비좌의 비신이 월두형이다. 비에는 "正憲大夫議政府右議政諡靖厚順天朴公可興之墓"라 써 있다. 그 옆에는 고려식 墓表가 있는데 비신 상부의 花冠石형 연봉장식은 마모되어 없는 상태이다.

크기는 비신 높이 87㎝ · 너비 38㎝ · 두께 20㎝, 화관석 높이 25㎝ · 너비 46㎝ · 두께 28㎝이다.

묘표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계체석이 있다. 장대석 양쪽끝에는 높이 114㎝의 자연석을 세워놓았다. 상석 앞에는 민무늬의 4각향로석 · 문인석이 있는데, 문인석은 높이 137㎝로 머리길이가 48㎝이다. 좌측 문인석에는 얼굴에 탄흔으로 마모된 흔적이 있다. 그 가운데의 장명등은 화창 위의 상륜부가 없는 상태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27. 박원종 정자터



지도27 박원종 정자터 위치도(성동 080)



사진27 박원종 정자터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570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정 · 각(정자)

□내 용

박원종 정자터는 와부읍 도곡리 어룡마을 코뚜레식당 앞 개천변으로 여겨진다. 과거 이 식당터가 弓터로 불려졌고 입지상 정자가 있을 만한 곳이다. 과거 식당 건물 증축시 다수의 청기와편과 석재들이 노출되었었다고 한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28. 南楊州 陶谷里 遺物散布地



사진28-1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전경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산32-4(지도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1) 위치 및 현황

이곳은 덕소중학교에서 북동쪽으로 도로를 따라 약 1㎞ 정도 가면 어룡저수지로 가는 세 갈래길이 나오고 좌측에는 해발 65.7m의 저평한 능선사면에 접하게 된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200m 지점은 박원태 종가의 선산으로 조선초기에서 조선시대 말까지의 무덤과 석물들이 밀집해 있다.

산포지는 바로 삼거리 좌측구릉의 능선상에 있다. 해발 40m 지점부터는 묘역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 아래 구릉 말단부는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경작지의 주변에서 16세기경의 조선시대 백자편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주변에는 말무덤이라고 전해오는 언덕도 있고 무덤의 석축으로 보이는 할석열도 일부 노출되어 있다.

이곳은 도요지로 알려져 있지만, 조사결과 도요지일 경우 수습되어야 할 갑발이나 요벽, 또는 미완의 자기편 등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도요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유적이나 고분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 유적은 1996년 주민의 신고에 의해 이화여대박물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조사결과 현상보존되어야 할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1] 그 결과 이 유적은 현상보존을 위해 현재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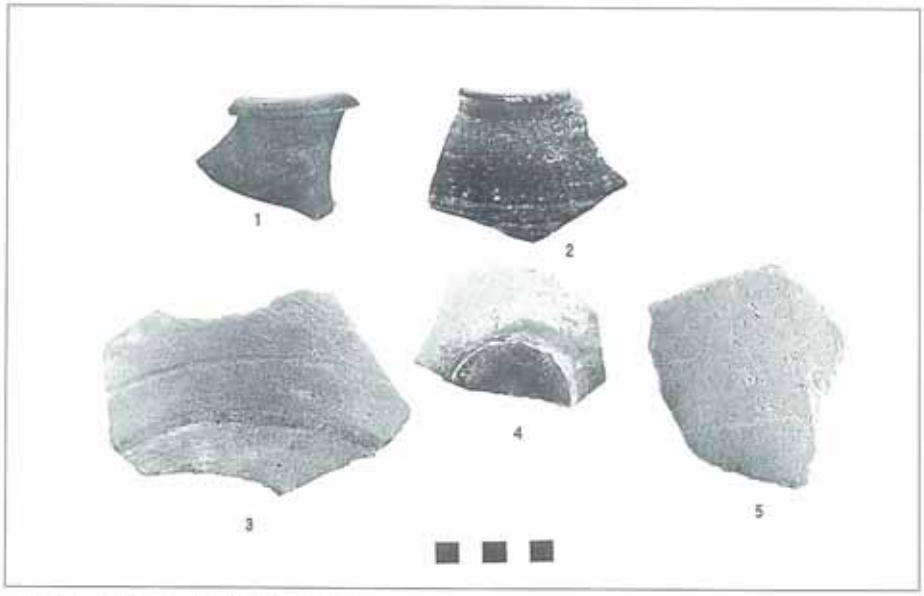


사진28-2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도곡리 지표조사약보고문서(이화여대박물관, 1996년 12월 30일)

설중인 도로를 우회시킨 상태이다.

현재 지표상에서 자기와 옹기 등의 파편이 상대적인 분포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유적의 정확한 성격확인을 위한 정밀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채집유물

① 단경호 구연부편(사진28-2-1, 도면28-1)

회흑색 경질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형의 동체부에서 연결된 경부가 짧게 외반하여 구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복원구경 13.5cm, 두께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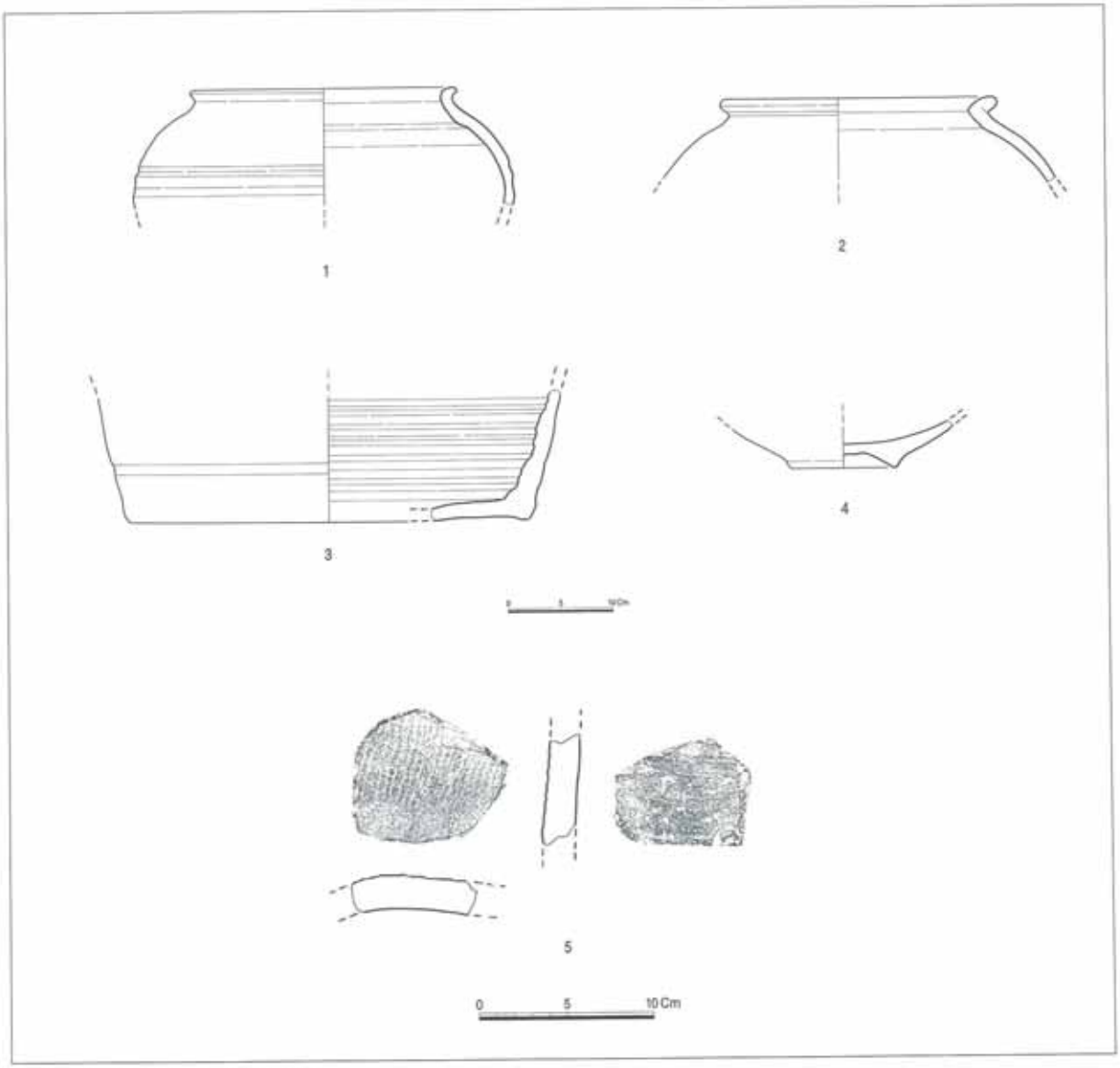
② 단경호 구연부편(사진28-2-2, 도면28-2)

회흑색 경질의 단경호 구연부편이다. 구형의 동체부에서 연결된 경부가 짧게 외반하여 구연을 이루고 구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복원구경 13cm, 두께 0.6cm.

③ 호형토기 저부편(사진28-2-3, 도면28-3)

회청색 경질의 호형토기 저부편이다. 저부는 비교적 크고 중간부분에서 약간 안쪽으로 내만하였으며, 동체



도면28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부는 바닥에서 약 75°를 이루며 연결되고 있다. 표면에는 부분적으로 한줄의 침선문이 돌아가고 있으며 내면에는 성형과정에서 생긴 굴곡이 조밀하게 생성되어 있다.

추정저경 19㎝, 기벽의 두께 1㎝.

④ 백자저부편(사진28-2-4, 도면28-4)

황백색의 백자접시편이다. 굽은 V자 형태를 이루고 안쪽으로 내만하고 있으며, 모래받침을 하였다. 시유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저경 5㎝.

⑤ 어골문암키와편(사진28-2-5, 도면28-5)

회흑색 연질의 어골문암키와편이다. 표면에는 마모되어 희미하지만 종주 어골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안쪽에도 역시 마멸되기는 했지만 포흔이 남아 있다. 태토에는 사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두께 2㎝.

□ 지도번호 : 덕소 205-2

29. 興完君 李晟應 墓



지도29 흥완군 이정응 묘 위치도(성동 070)



사진29 흥완군 이정응 묘

□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산97-1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한말의 정치가이자 왕족인 흥완군 이정응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형이다.

묘는 와부읍 도곡리 자운마을 소로변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西向하여 증정경부인 대구서씨, 정경부인 순천박씨와의 합장묘이다. 묘는 봉분을 새로 올려 조산을

만들고, 그 위에 안장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고, 4개의 차양석 외 봉분 앞에 혼유석 · 상석 · 직사각 향로석 · 망주석 · 장명등의 석물이 있다. 장명등은 높이 215㎝로 하단에 난초를 사방으로 조각하였는데 중간에는 안상문을, 그리고 그 위에는 국화문을 조각하였다. 옥개석은 팔작지붕 형태이다. 봉분 좌측에 묘갈이 있는데 민무늬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전면에는 "大韓 興完君 贈領議政諡文簡完山李氏公之墓 贈貞敬夫人大邱徐氏祔右 貞敬夫人順天朴氏祔右"라 써 있다. 비문은 李載完이 쓰고, 申應朝가 찬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949년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44㎝ · 너비 97㎝ · 두께 62㎝, 비신 높이 27㎝ · 너비 131㎝ · 두께 52.5㎝, 옥개석 높이 40㎝ · 너비 96㎝ · 두께 66㎝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0. 白鳥 李海善 墓 및 追慕碑



사진30 백조 이해선 추모비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산97-1(지도29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백조 이해선(1905~1983)은 근대 사진가로서 호는 白鳥, 본관은 完山이다. 1930년 일본동경예술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대한사진예술가협회를 창립하였다. 1971년 한국사진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1972년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대한사진사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1974년 고희기념사진 작품집 및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1978년 현대사진 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1986년 이해선 사진작품집 『한국의 고궁』을 문공부에서 발간하였다. 1964년부터 1983년까지 국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대한사진예술가협회 명예회장을 역임하였다.

묘는 도곡리 자운마을의 소로와 인접한 구릉 말단에 南西向하여 있다. 바로 위에는 흥원군 이정응의 묘가 있다. 묘역은 단출하여 상석 · 망주석 · 향로석만을 갖추고 있다. 묘역에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와 대한사진예술가협회에서 1988년 10월 30일 세운 추모비가 있다. 비에는 "사진인 白鳥 李海善追慕碑 1905~1983 대한민국 사진예술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사단의 거대한 동량이 되신 선생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사진인의 뜻을 모아 이 추모비를 세웁니다. 1988년 10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사진예술가협회"라 써 있다. 추모비 오른쪽에는 얼굴 동판이 있는데, 이것은 李善鍾의 작품이며, 뒷편의 약력은 李元善이 찬하고 썼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1. 信嬪辛氏 墓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산13(지도1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신빈신씨는 太宗의 후궁으로, 誠寧君 李裎과 溫寧君 李禋이 그의 소생이며, 王女로는 鈴平尉 尹季童에



사진31 신빈신씨 묘(태종의 후궁 신빈신씨의 묘)

게 下嫁한 貞信翁主, 漢原君 趙璿에게 하가한 貞靜翁主, 行判書 日城君 鄭孝全에게 하가한 淑貞翁主, 坡城尉 尹愚에게 하가한 淑寧翁主, 佐翼功臣 坡平君 尹巖에게 하가한 淑慶翁主, 좌익공신 花川君 權弼에게 하가한 淑謹翁主가 있다.

묘는 도곡리 도심리마을 입구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여 있다. 봉분은 높이 48㎝의 호석을 8각형으로 두른 특이한 형태이다. 봉분 앞에는 고려양식의 묘표가 있는데 비좌 · 비신과 상부가 一石인 연화형으로 크기는 높이 133㎝ · 너비 52㎝ · 두께 19.5㎝이다. 비 前面에는 "信寧宮主辛氏之墓"라 써 있다. 묘표는 후면에 正○○年辛酉 3월의 건립연기로 보아, 1441년(정종 23)에 세워진 것이다. 묘표 앞에는 상석 · 장대석 · 문인석 · 장명등의 석물이 있다. 문인석은 높이 162㎝로 마모가 심하며 머리는 길이 68㎝로 신체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장명등은 높이 149㎝로 문양이 없이 단순하지만 정교한 형태이다. 지붕은 민무늬 사모지붕형태이며, 하대석 중간의 각 면에 "信 · 寧 · 宮 · 主"라 새겨져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2. 李仁敎 孝子旌門



사진32 이인교 효자정문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964-2(지도1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충효비
□내 용

이인교 효자정문은 도곡리 도심리 마을 내의 도곡 1리 안골로 넘어가는 소로변에 南向하여 있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비각내에는 1986년에 세운 비가 있는데 비좌에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형이다. 비 前面에는 "孝子李仁敎之碑"라 써 있고 좌측과 뒷면에는 정문을 내리게 된 배경을 적고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15㎝ · 너비 100㎝ · 두께 68㎝, 비신 높이 149㎝ · 너비 55㎝ · 두께 24㎝, 옥개석 높이 47㎝ · 너비 84㎝ · 두께 46㎝이다.

비각 뒷면 중앙에는 붉은색 현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孝子贈童蒙敎官朝奉大夫李仁敎之門 上之二十八年 辛卯三月日 追旌"라 써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정문은 1891년(고종 28)에 내려진 것을 알 수 있다.

비문에 의하면 진사 이인교(1835~1890)는 천성이 어질고 효심이 지극하여 어버이를 지성으로 봉양하였다. 부친의 병이 위독하자 대변을 맛보며 4년 동안 밥을 손수 떠 먹였다고 한다. 임종하려 하자 하늘에 기도하고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회생케 하였지만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친상을 당하여 예로써 장사 후 묘 옆에 여막을 짓고 3년간 하루같이 애통해하며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 소문이 조정에 들리니 1891년에 예조에서 陶心洞에 효자정문을 내렸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정문이 소실되어 그 자리에 한칸을 모방하여 세웠다가 1997년에 다시 정자각을 세웠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33. 反共鬪士 裵順童 忠魂碑



사진33 반공투사 배순동 충혼비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978(지도16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념비

□내 용

반공투사 배순동 충혼비는 도곡리 덕소중학교 좌측 고개길에 西向하여 있다. 높이 117㎝의 방형 백색화강암 기단위에 높이 16㎝ · 너비 106㎝ · 두께 74㎝의 비좌를 마련하고, 그 위에 높이 241㎝ · 너비 61㎝ · 두께 36㎝의 직방형 백색대리석 비신이 세워져 있다. 기단석의 前面에는 60×60㎝의 얇은 화강암 판석에 배순동의 약력이 음각되어 있다.

이 비는 한국전쟁 때 직후 배순동 등 16명이 반공결사대를 조직하여 예봉산과 갑산을 무대로 유격전을 전개하였으며 죽검으로 무장, 도곡리에 잠복한 인민군 패잔병 6명을 전멸시키고 소총 6정과 수류탄 4발을 노획하였으며 이때의 노획 무기로 덕소 일대의 잔비소탕전을 펼쳐 300여 명을 소탕한 것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것이다.

백색화강암 기단 前面의 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930년 12월 25일 양주군 와부읍 도곡리 59번지에서 출생. 1950년 6 · 25당시 적치하에서 비밀결사(반공결사대)에 가담, 무장괴뢰군이 향토를 침범하게 되자 空手로서 적과 대결 6명을 섬멸하고 무기(소련제 장총 4정, 수류탄 4발)을 탈취하여 유격전을 전개하는 등 노획무기만도 60여 정에 달하며 동년 9월 28일 수복 후 잔비소탕과 치안확보에 공헌한 바 지대하며 동년 12월 勇躍學徒兵으로 출정하여 최전선인 金化地區 격능선전투에서 22세를 일기로 조국과 겨레를 위하여 젊음을 장열히 바친 반공투사임으로 이 忠魂碑는 양주군수 許燮을 비롯한 많은 관 · 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碑이다.

1975년 10월 16일 그 멸공호국의 얼을 기리기 위해 한국반공연맹 와부면 지도위원회 건립

後面에는 "재건립기념 97년 10월 16일"이라 새겨져 있다. 비신 前面에는 세로로 "反共鬪士裵順童忠魂碑"라 새겨져 있고, 後面에는 2열로 "당시 소속 육군보병 제2사단 32연대장 원호처장 예비역 육군중장 柳根昌"이라 새겨져 있다.

현재도 매년 10월 16일 비가 건립된 날을 기념해 배순동 위령제가 거행되고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4. 李世白 墓 및 神道碑



지도34 이세백 묘 위치도(성동 070)



사진34-1 이세백 묘



사진34-2 이세백 신도비



사진34-3 이세백 신도비의 옥개석(처마 밑 서까래의 표현이 매우 우수하다)

□소재지 : 와부읍 도곡리 산7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세백(1635~1703)은 조선 후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龍仁, 자는 仲庚, 호는 雩沙 · 北溪, 목사 挺岳의 아들이며, 母는 안동김씨로 光燦의 딸이다. 淸陰 金尙憲이 외증조이다. 1657년(효종 8)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同春堂 宋浚吉의 가르침을 받았다. 1666년(현종 7) 의금부도사를 거쳐서 홍천현감으로 재직 중 1675년(숙종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81년(숙종 7)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홍문관교리, 이조좌랑, 사헌부집의 등의 청요직을 거쳐 승정원동부승지에 올랐다. 이 동안 활발한 언론활동을 하였고, 경연관으로 참가하여 숙종의 학문을 지도하였다. 또 충청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백성의 어려움과 관리의 폐단을 보고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1684년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는데 선정을 베풀어 李元翼의 사당에 함께 제향되었다. 그 뒤 守禦使와 도승지, 공조참판, 사간원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도승지로 있으면서 宋時烈의 유배에 반대하다가 파직당하였다. 1694(숙종 20)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도승지로 복관되어 선혜청당상, 한성부판윤을 거쳐 이듬해 예조판서가 되고, 冬至正使로 淸에 다녀왔다. 1696년 호조판서를 거쳐 1697년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특히 지방관의 인사를 엄격히 하여 관료들의 기강을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1698년(숙종 24) 우의정에 승진하였고, 1700년에는 좌의정이 되어 世子傅를 겸하였으며 仁顯王后의 국상을 총괄하였다. 아들 宜顯과 연달아 정승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禮學에 밝아 국가의 중요 예론에 깊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노론의 중심 인물로서 소론 · 남인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집으로 『우사집』이 전한다. 시호는 忠正이다.

묘는 와부읍 도곡리 어룡마을의 논 한가운데에 正西向하여 있는데 정경부인 영일정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규모는 높이 200㎝, 직경 950㎝의 큰 규모로 웅장한 느낌을 준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2개의 고석을 받친 상석 · 계체석 · 직사각 향로석 · 안상문과 앙화를 장식한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상석 前面에는 "○○李相國夫人鄭氏墓 公葬右在 夫人祔右"라 써 있다. 상석과 향로석 우측 모퉁이는 파손되어 있다.

墓碣은 봉분 좌측에 北向하여 봉분을 바라보고 있으며, 민무늬 비좌와 비신 및 평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상부를 말각하였으며, 비신은 백색대리석으로 표면이 반들반들하다. 前後 2면에 비문이 있는데, 前面에 3열로 "有明朝鮮國左議政 贈諡忠正李公世白之墓 貞敬夫人迎日鄭氏祔右"라 써 있다. 비문은 이의현이 찬하고 중국 안진경의 글씨를 집자한 것으로, 건립연대는 1731년(영조 7)이다. 前面 좌측 상부 측면과 후면에 심한 탄흔자국이 있다. 옥개석은 상부가 평평한 평옥개석형이며, 처마면이 '一' 자로 두툼하다. 흑적색으로 탈색 및 심한 탄흔의 상처를 입고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41㎝ · 너비 107㎝ · 두께 70㎝, 비신 높이 160㎝ · 너비 67.5㎝ · 두께 24㎝, 옥개석 높이 37㎝ · 너비 100㎝ · 두께 62㎝이다.

神道碑는 묘와 남북으로 130m의 거리를 두고 北向하여 과수원내에 있다.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백색화강암 상부에 전후 6엽, 좌우 2엽씩 총 16엽의 복판복련 및 각 면에 1엽씩의 조각이 우수하고 화려한 안상문을 새겨놓았다. 아울러 비좌 상부에는 1992년 후손들이 비를 복원 · 중수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아 보기 안좋다. 비신은 백색대리석으로 표면이 반들반들하며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4면에 비문이 있으며, 4면에 걸쳐 상단에 篆書로 "左議政諡忠正李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使監春秋館事世子傅贈諡忠正李公神道碑銘"이다. 비문은 資憲大夫 漢城府 判尹 李緯가 찬하고, 通訓大夫 行弘文館 副應敎 洪鳳祚가 쓰고, 崇祿大夫 行戶曹判書 兪拓基가 전을 하였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224㎝ · 너비 84㎝ · 두께 44㎝이다. 옥개석은 백색화강암으로 처마면이 두툼하며 거의 '一' 자에 가까우나 끝을 약간 반전시키고 있다. 처마 및 서까래의 표현이 매우 우수하며 돌이끼가 있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35. 南楊州 八堂里 山神閣

□ 소재지 : 와부읍 팔당리 산147-2
□ 시 대 : 현대
□ 종 류 : 기타목조물
□ 내 용

(1) 조사지 개관

구리시 토평에서 한강변을 따라 양평으로 이어지는 국도 6호선(4차선)을 따라가다 보면 도로 왼쪽으로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지인 덕소가 나온다. 여기서 양평방향으로 약 10㎞ 정도 가다 보면 팔당댐 바로 직전 도로 왼쪽 예봉산 아래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지도35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 위치도(양수 081)



사진35-1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



사진35-2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 뒤 神木에 매달아 놓은 현납속

마을이 팔당 2리 상팔당마을이다.

상팔당마을은 원래 광주군 동부면 지역으로서 한강가에 있으면서 넓은 나루가 있어서 바다나루, 바다이, 바대이, 바당이 또는 팔당이라 하였다.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면 통폐합에 따라 팔당리라 하여 양주군 와부면(읍)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95년 1월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시 관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2]

이와 같이 상팔당마을은 한강상류 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강가 마을로, 옛날에는 강가·둠이란 뜻의 '바댕이'라고 부르다가, 일제시대 때부터 '팔당'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즉 옛날에 상팔당마을에는 8개의 절이 있었고, 마을 앞에는 양쪽으로 팔자(八字) 형태의 버드나무 숲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내에 절이 이렇게 많다 보니 하루 종일 스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성황을 이루던 절들이 빈대 때문에 없어졌다고 한다.

마을 뒤로는 예봉산이 둘러쳐져 있는데 주말에는 서울을 비롯한 인근지역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예봉산 꼭대기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박아 놓은 쇠말뚝이 박혀 있다고 한다.

팔당 2리는 구성말(1반)·양지말(2반)·됫말(3반)·물개(4반)·조개울(5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씨 구성을 보면 원래 상팔당마을에는 조씨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대개 양평으로 이사를 하였고, 지금은 해주오씨가 총 80호 중 40여 호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박씨와 김씨 등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는 가구당 평균 5명 정도로 총 4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이들의 생업은 주로 농업(약 70%)이지만, 서울과 인근지역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예전에는 뒷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나물을 뜯

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상), 1985, 336쪽.

어 배를 이용해 뚝섬이나 마포까지 내다 팔아 생활하였고, 근처의 강가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돛단배가 있어 서울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서울에서 상팔당마을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데에는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화 · 도시화되고 팔당댐이 막히면서부터 수상교통은 단절되었고 대신 육상교통과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편리한 편이다. 서울 경동시장 및 덕소, 도곡, 금곡 등으로 오가는 버스가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중앙선이 지나고 있다. 중앙선의 한 간이역으로 팔당역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 4회 기차가 정차한다. 요즘에는 농사가 적고 특수작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어려운 형편인데다 이들의 주생활권이 서울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마을 내에 교회나 절이 없어서 적극적인 종교생활은 하지 않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교육도 팔당 1 · 2리 사람들은 팔당초등학교에 다녔으나 지금은 덕소초등학교와 덕소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생활용품의 조달은 대개 5일장을 이용하였다. 5일장은 강건너 하남시에 있던 신장장(3일, 8일)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장을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겨울에는 얼음판 위를 걸어서 다녔다. 그러나 근래부터는 서울의 경동시장과 구리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2) 위치와 형태

산치성을 드리는 곳은 마을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진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예전에는 산신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약 20여 년 전 비바람 등을 피하기 위해 산신각을 짓고 그곳에서 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당집에는 "산신각"이란 현판을 달아 놓았다.

산신각은 정면으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앞으로는 국도 6번 도로와 중앙선이 지나고 있다. 마을 뒷산의 중턱 평퍼짐한 곳에 산신각이 위치해 있는데 주변에는 노송과 참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 있다. 산신각 뒤편에는 노송이 있고 그 나무밑 부분에 한지를 왼새끼로 묶어 놓았다. 이는 제를 지낸 후에 현납속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산신각 건물은 벽돌에 시멘트 칠을 한 후 흰색 페인트를 칠했으며, 문은 양쪽 미닫이문으로 송판으로 만들었고 문 위쪽에 "山神閣"이란 현판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현판은 가로 100cm, 세로 24cm, 두께 2.5cm의 크기로 흰색의 페인트로 바탕을 칠한 후 검은색의 붓글씨를 써넣었다. 산신각의 지붕은 슬레이트를 올렸다. 산신각은 크게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은 방의 형태이고 다른 한쪽은 부엌의 기능을 갖고 있다. 부엌은 지붕만 있을 뿐 벽면은 트여 있으며 솥(노구메 짓는 솥)을 걸 수 있도록 벽돌을 쌓아 놓았다. 산신각 내부에는 돗자리와 나무로 된 검은 칠의 젯상이 있는데, 젯상의 크기는 가로 121cm, 세로 78cm, 높이 48cm이다.

산신각 바닥은 시멘트 칠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가로 30cm, 가로 47cm, 세로 30cm 크기의 창문이 있다. 1971년 음력 1월 4일 산신각을 세웠다는 명문이 내부 바닥에 새겨져 있다. 산신각 주변에는 전기시설을 설비해 놓았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상팔당 마을의 '산치성'은 1년에 2회 치러진다. 음력 2월초와 9월초로 날을 잡아 지낸다. 제당은 마을로부터 북쪽으로 강과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산신각은 마을 뒤편 굴바위이라는 곳에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산신당이 있는 곳을 '도당터'라고 부른다. 이곳에 예전에는 당나무인 소나무가 있었으나 枯死하였다. 도당터 아래에는 샘이 하나 있다. 도당터 근처에서는 나무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 마을의 산치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지 마을이 예봉산이라고 하는 큰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산을 정성껏 위해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아주 오래전부터 산치성을 드리고 있다. 따라서 이 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무사를 기원하기 위

해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이러한 산신 덕분인지는 몰라도 한국전쟁 당시 마을 사람들이 군대에 갔다가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4) 관련의례

'산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제를 주관하는 제관을 선출하게 되는데, 생기복덕을 보아 제 지내기 10여 일 전에 2명을 선정한다. 깨끗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한 집에서 부부로 2명을 선출하여 제를 지낸다. 제관을 '화주'라 부르는데, 음식을 장만하고 제를 주관하게 된다. 산치성을 드릴 때에는 화주 2명만 산에 가서 제를 지내나, 다른 제사에는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산에 올라간다. 일단 화주로 선정되면 당일부터 대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황토는 3무더기씩 대문 양쪽에 6무더기를 놓는다. 금줄이 쳐지면 동네 사람들도 출입을 금하고 화주 자신도 바깥출입을 하지 않으며 욕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으며, 부부관계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동네 전체가 비린 것을 먹지 않는다. 심지어는 날을 정한 이후에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금기사항이 많이 완화되었다.

제비는 이장이 총괄하여 그 해에 필요한 경비를 집집마다 거출하는데, 1998년의 경우 1만원씩을 걷어 80여 만원으로 제의 경비를 충당하였다. 제를 지내고 남은 경비는 마을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총무가 관리한다. 미리 마을기금으로 제물을 준비한 다음, 파시제를 지내고 마을 회관에 모여 경비를 걸립한다.

제기는 마을회관에 보관하며 제물은 총무가 마을 사람들과 같이 서울에 가서 구입하여 화주에게 주면 화주가 집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밤 · 대추 · 사과 · 배 · 곶감 · 산자 · 약과 등 과실종류 7가지와 3탕 · 식혜 · 산적 · 백설기와 송편(쌀 고봉 1말을 가지고 백설기와 송편을 만듦) · 북어 2마리 · 노구메 2그릇(할아버지, 할머니)과 당일날 산에서 담근 조라술 등을 올린다. 보통 기제사 때 올리는 제물이 모두 올라간다. 제물 중 송편은 아침에 올리고 밤에는 노구메와 백설기를 올린다.

제의 순서를 살펴보면, 제 당일날 낮에 화주집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 중 노구메는 산에서 짓고 나머지 제물들은 집에서 준비한다. 제물이 준비되면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신각으로 올라간다. 제물을 진설할 때에는 노구메와 송편의 경우에만 2그릇씩 올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한 접시씩만 차려 놓는다. 제의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즉 저녁에 지내는 본제사와 아침에 지내는 파제사로 구분되는데, 그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잔에 술을 따른다. 이어 절을 2번 하고 소지를 올린 다음 다시 절을 2번 한다. 그런 다음 제물을 그대로 놓고 산에서 내려온다. 축문은 예전에는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없어진 이후로 축문을 읽지 않는다. 소지는 화주소지를 올린 후 대동소지를 올리는데, 대동소지를 올릴 때 축문 대신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 여러 개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밤 12시경에 하산한다. 이때 음복은 하지 않는다. 산에서 내려오면 이어 화주집에서 송편을 빚는데, 송편은 화주 두 사람이 빚기 때문에 밤을 새워 만들어야 한다. 이때는 화주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참석할 수가 없다. 송편이 만들어지면 돼지(돗이라고 함)를 잡는다. 돼지는 마을사람들에 의해 마을회관에서 잡는데, 반드시 150근 정도의 검은 돼지를 잡아야만 한다. 저녁 제사에는 돼지를 올리지 않고 아침 제사에만 돼지를 사용한다. 돼지는 내장을 빼서 순대를 만들고 피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돼지와 순대를 살짝 익힌다. 다리는 지고 올라가기 쉽게 두 쪽을 내어 산에 올라가서 실물과 같이 맞춰 놓는다. 예전에는 자르지 않고 올라갔다고 한다.

이어 파제사를 지낸다. 아침 9시경 송편과 돼지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 지난밤에 차려 놓았던 제물을 새로운 제물로 교체한다. 파제사에는 백설기와 노구메 대신 송편을 올리고 돼지도 짝을 맞추어 진설하는데 내장 속에 순대도 끼어 넣는다. 파제사 때에도 제를 지내는 순서는 본제사와 같으나 이때에는 아이들도 떡을 얻어먹기 위해 같이 올라간다. 낮 12시경이면 모든 제사가 끝나고 제물을 가지고 회관에 내려와 음식을 나

누어 먹는데, 돼지는 머리만 끓여 먹고 살코기는 집집마다 나누어준다. 이 때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풍물을 치며 하루를 즐긴다. 화주에게는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매년 20여 만원의 수고비를 준다. 제의가 끝나면 마을 대동회의를 개최하여 결산을 본다. 한편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되면 산제에 참석하지 않는다.

상팔당마을의 경우 산제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산제에 참석하는데 교인들도 걸립에는 참여한다. 특히 산제에 대한 젊은층들의 관심은 매우 대단하다고 한다.

(5) 유적의 향후조치

상팔당마을은 예봉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주말이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산과 강을 배경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마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심 인근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면서 강촌마을이다. 특히 마을 뒷산에는 오랜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모셔오고 있는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배경들은 한국 농촌 마을을 조사 · 연구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들로 이러한 우리의 전통문화가 전승될 수 있도록 행정적 · 학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1985.

36. 南楊州 八堂里 오종섭家 터주가리



지도36 남양주 팔당리 오종섭家 터주가리 위치도(성동 090)



사진36 남양주 팔당리 오종섭家 터주가리

□소재지 : 와부읍 팔당리 258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1) 조사지 개관

구리시 토평에서 한강변을 따라 양평으로 이어지는 국도 6호선(4차선)을 따라가다 보면 도로 왼쪽으로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지인 덕소가 나온다. 여기서 양평방향으로 약 10㎞ 정도 가다 보면 팔당댐 바로 직전 도

로 왼쪽 예봉산 아래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을이 팔당 2리 상팔당마을이다. 마을 뒤 예봉산 아래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위하는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마을 앞으로는 중앙선이 지나고 있으며 마을 입구 중앙선 아래쪽에 양평으로 가는 구 도로가 나 있는데, 이 도로변에 "호수정"이란 음식점이 있다. 바로 이 음식점 뒤켵 장독대에 터주가리가 모셔져 있다.[3]

(2) 위치와 형태

· 크 기

터주가리 : 높이 95㎝, 밑둘레 155㎝

· 수 량 : 터주가리 2기

· 명 칭

– 제의명칭 : '가을고사'

– 신앙대상물의 명칭 : '터주'

· 재 질 : '짚', '벽돌'

· 위 치

중앙선 팔당역에서 양평으로 가는 구도로를 따라 덕소 방향으로 가다 보면 팔당 2리 상팔당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여기서 다시 구도로를 따라 약 100여 미터만 가면 도로 우측에 호수정이란 음식점이 있는 있는데 바로 이곳이 터주가리를 모시고 있는 오종섭(59세)씨 댁이다. 정면에서 보아 집 오른쪽 뒤편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바로 그 앞에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대 오른쪽 한 모퉁이에 터주가리 2기가 모셔져 있다.

· 외 형

오종섭家의 터주가리는 일반적인 터주가리 형태와는 달리 그 외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터주가리는 항아리에 짚 주저리를 틀어 놓은 형태가 일반적이나 오종섭家의 경우에는 벽돌을 쌓은 다음 그 위에 솔가지를 얹어 놓고, 한지를 직사각형으로 접어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그 위에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 놓았다. 이러한 형태의 터주가리 2기가 장독대 옆에 나란히 놓여 있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터주를 모시고 있는 오종섭씨의 경우 언제부터 터주를 모시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대대로 모셔오고 있다. 단지 터주를 항아리에다 모시지 않고 벽돌을 쌓은 다음, 짚 주저리만을 틀어 놓기 때문에 벼를 넣어 두지도 않는다. 다만 해마다 가을 추수 후 제일 먼저 가을고사를 지낼 때 터주를 위해 고사를 지내고 터주가리만 새로 만들어 놓는다.

(4) 관련의례

상팔당마을 오종섭家의 경우에도 뒤켵 장독대 위에다 터주를 모시고 있다. 수대에 걸쳐 터주를 모시고 있는 김식순家의 경우 집 옆 장독대에 터주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터주가 잘 보인다.

터주가리는 가을추수 무렵인 음력 10월에 모신다. 가을추수가 끝난 후 일진을 보아 좋은 날로 날을 잡아 모시게 되는데 이를 통틀어 가을고사라고 부른다. 이때 터주뿐만 아니라 가을떡을 하여 성주와 조왕, 터주, 업, 문간신 등 집안에 있는 여러 신들을 모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가 있는 신앙 대상물은 터주뿐이다. 나머지는 그 위치에다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기만 한다.

집에서 지내는 가을 고사는 대개 부녀자들이 주축이 된다. 제물로는 팥시루떡 1말 정도, 북어 1마리, 淸水, 돼지머리 1개, 막걸리 등이 준비된다. 준비된 제물을 터주 앞에 놓고 안주인이 비손하면서 집안의 안녕을 빈다. 이렇게 하여 고사가 끝나면 고사떡을 이웃집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한편 짚 주저리는 남자들의 몫이다. 짚 주저리를 만들 때에는 깨끗한 햇짚으로 추려서 정성껏 만든다.

(5) 유적의 향후조치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오종섭씨 댁 터주가리의 경우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 전통문화를 일반인에게 알린다는 취지에서만 보더라도 그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 음식점을 찾는 많

3) 조사지 개관은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편을 참조할 것.

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옛날부터 우리 가정에서 터를 지키는 하나의 신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지금까지 모셔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산교육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37. 美 第25師團 漢江渡河 記念碑



사진37 미 제25사단 한강도하 기념비

□소재지 : 와부읍 팔당리 347-2(지도36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념비

□내 용

미 제25사단 한강 도하기념비는 와부읍 팔당리의 지금은 폐교된 팔당초등학교내에 도로와 인접하여 北向하고 있다.

이 비는 1951년 3월 7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된 수도 서울의 재탈환시 미 제25사단이 제일 먼저 한강도하작전을 감행하여 서울 재탈환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기념으로 작전 당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추모하고 반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986년 3월 7일 당시 한강도하 지점인 팔당초등학교내에 이 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3단의 정방형 백색화강암 기단위에 높이 62㎝, 너비 122㎝, 두께 15㎝인 오석 중간에 미 제25사단의 마크가 있고 左側에 國文, 右側에 英文으로 5~6행에 걸쳐 다음과 같은 간략한 비문이 새겨져 있다.

한국전쟁 당시
1951년 3월 7일
미 제25사단의
한강 도하작전
상륙지점

POINT OF THE
HAN RIVER CROSS
BY 25TH US DIV.
7 MARCH 1951
DURING
THE KOREAN WAR

□지도번호 : 덕소 205-2

38. 南楊州 月文里 산제당

□소재지 : 와부읍 월문리 산32-1

□시 대 :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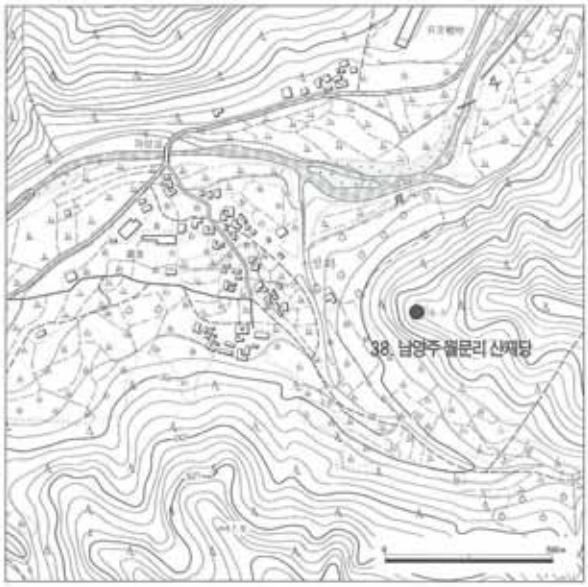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1) 조사지 개관

월문마을은 덕소와 마석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간마을이다. 마을 앞에는 '갑산'이 위치해 있으며 예전에는 이 마을을 "말등배"라고 불렀다. 이 마을에는 말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서 말이 쉬어갔다고 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문마을은 원래 양주군 와공면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 · 면 통폐합에 따라 문곡리와 월곡리, 하도면의 배기리와 동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월곡



지도38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 위치도(양수 051)



사진38-1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



사진38-2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터에 있는 산제바위



사진38-3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의 제물로 바칠 쇠고기를 걸어두는 제물 가름대

과 문곡의 이름을 따서 월문리라 하여 와부면(읍)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95년 1월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시 관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4]

월문 4리는 웅달말(말등배 · 1반)과 조촌말(조씨가 많아 그렇게 불렀다고 함 · 2반), 그리고 주막거리(중촌 · 3반)로 나누어져 있다. 마을의 가구수를 살펴보면 1반인 웅달말에 32호, 2반인 조촌말에 23호, 3반인 중촌에 15호 등 총 70호가 거주하고 있다. 성씨로는 김해 김씨(15호)가 주류를 이루며 이씨(9호), 조씨(7호), 박씨(6집), 신씨(3호), 유씨(3호)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의 종교는 대부분 불교로 2리에 있는 묘적사(조계종)와 덕암사, 6리에 있는 신흥사 등의 절에 다니고 있다. 중촌마을에는 월문교회(장로교)가 있어 4가구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를 지낼 때 참석하지 않는다.

대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은 편이다. 논과 밭의 비율이 비슷하며 밭에는 콩이나 깨, 고추,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 최근에는 축산농가가 증가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

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1985, 335쪽.

재 옹달말에는 약 250두 정도의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젖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다. 대개 젖을 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소를 많이 키울 때는 약 90% 이상의 축산농가들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약 40% 정도만이 소를 키우고 있다.

마을사람들의 주생활권은 서울이지만 주변의 덕소(4㎞)나 마석(6㎞) 등지에서 장을 보기도 한다. 4일과 9일에 열리는 덕소장은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성대하게 열렸으나 현재는 장이 서지 않으며, 3일과 8일에 열리는 마석장에서 주로 생필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마을아이들은 월문초등학교와 덕소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2) 위치와 형태

'산치성터'라고 부르는 제당은 마을로부터 동쪽에 있는 갑산 줄기 제일 아랫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당이 있는 곳을 '산제당'이라고 한다. 마을회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즉 마을 뒤쪽에 사슴농장이 있고, 이곳에서 왼쪽으로 산길을 따라 약 200m 정도 올라가면 산등성이가 있으며, 산등성 입구에 제당이 위치하고 있다. 제당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산제를 지내는 6개의 조그만 산제 바위가 있고, 그 앞에는 제사상으로 사용하는 넓은 돌이 놓여 있다. 그 오른쪽에 약 2m의 거리를 두고 밤나무와 굴참나무가 있는데, 제물로 바칠 소고기를 걸어둘 수 있도록 두 나무에 쇠파이프를 매달아 놓았다. 이곳에서 오른쪽 약간 아래쪽에 산제당이 있다. 산제당 건물은 약 6~7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그 크기가 약 2평 반(1칸 짜리) 정도이다. 시멘트 블록에 골쓰레트 지붕을 하고 있다. 내부는 온돌로 되어 있으며 바깥쪽(마을 방향)에 한데솥이 걸려 있다. 그 반대편에는 굴뚝이 있다. 문은 쇠문으로 문 위에 살창이 되어 있다. 건물의 크기는 앞면 414㎝, 옆면 311㎝의 장방형 건물이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산제당' 혹은 '산치성터'에서 이 마을의 산제는 음력 9월 9일 밤 12시에 지낸다. 이전에는 나무움막집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엉을 해 일었으나 이엉을 해 얹는 것이 귀찮아서 새로 당집을 지었다고 한다. 당집은 마을사람들이 공동 부역으로 지었다. 산제당 안에는 제기만 보관한다.

(4) 관련의례

산제는 마을의 안녕과 산을 위할 목적으로 지낸다. 산제는 산제추진회의 회장과 총무가 주축이 되어 산제를 지내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지낸다. 제사비용도 산제를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서 각 반장들을 통해 걷는다. 산제추진회의 회장과 총무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책을 내놓으면 새로 선출한다. 제사비용은 보름전 쯤에 회장과 총무가 의논하여 액수를 정해 반장에게 통보하면 반장이 거출하여 총무에게 준다. 1998년의 경우 총 70여 호 중 50~55가구 정도가 참여하여 5만원씩을 거출하였다. 따라서 총거출액은 약 200만원 정도로 이 돈을 가지고 산제경비에 충당하였다. 회장과 총무도 산제비용을 내야한다. 제의가 끝난 다음에는 제사비용을 결산하는데 비용이 남을 경우에는 은행에 예치했다가 다음해에 사용한다.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관을 선출해야 한다. 돈을 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 지내기 5일 전에 생기복덕을 보아 의논해서 선출하되, 집안에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보통 예전의 경우 주로 제관을 60대 이상된 사람으로 뽑았으나 지금은 50대에서도 선출한다. 제관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일이 생기면 제관을 새로 선출한다. 초상 등 부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들만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산제를 지낼 때에는 제관 일행은 물론이거니와 마을사람들도 부정이 없으면 같이 따라가 밤샘을 해준다. 제관은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제를 지낸다.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직접 제사를 지내는 시주 1명과 보조해 주는 화주 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등 제의 일체를 담당한다. 대신 이들은 제사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여자들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직접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제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황소 1마리를 잡는 일

로, 정성껏 치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소를 잡아 제를 지내고 있다. 따라서 제사 경비 중 85~90%가 소값으로 지불된다. 소는 약 450kg 정도의 황소 한우를 선택하는데, 소는 마을사람들이 산에서 직접 잡는다. 우선 소가죽을 벗겨낸 다음 6각을 떠서 당집 주변에 있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장대를 매어 걸어놓고 제를 지낸다. 제를 지낸 다음에는 소고기를 똑같이 나눈다. 이외에도 제물로 산적, 배, 사과, 감, 통북어, 백설기, 노구메, 조라술 등이 차려진다. 산적은 잡은 소에서 마련하고, 과일은 배 · 사과 · 감 등을 준비하며, 통북어 1마리, 백설기 1시루(예전엔 2말씩이었으나 현재는 1말로 함), 노구메 12그릇(쌀 1되), 그리고 산에 가서 3일전에 쌀과 누룩으로만 담아 당집 바깥에 갔다 놓았던 조라술(예전에는 조라술 항아리에 주절이를 틀어 놓았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등이 마련된다. 이러한 제물은 촛불 2개와 함께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제를 지낸다. 한편 제물을 구입할 때에는 가격을 깎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야 한다.

제를 지내기 전 시주와 화주집에 금줄을 친다. 옛날에는 대문 양쪽에 3무더기씩 황토를 뿌렸으나, 지금은 뿌리지 않고 금줄만 친다. 제관 일행은 제의기간 동안 많은 금기가 뒤따른다. 비린 것을 먹어서도 안되고, 짐승을 잡지도 못하며, 피를 보아서도 안되고, 메뚜기 하나라도 잡으면 안된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동침을 금했으며, 제의기간 동안 밖으로 나갔다가도 미리에 집으로 돌아와야 하였다.

제 지내기 이틀전에 소를 사 두었다가 전날인 음력 8일날 소를 실어와 당일날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소를 잡는다. 소를 잡기 전에 제당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산제당에는 시주와 화주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 시간차를 두고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올라간다. 소를 잡은 다음 그 고기는 산제당 옆 나무 사이에 매달아 놓은 쇠파이프에 걸어 놓고 9일 밤 자시(밤 11시~새벽 1시)를 기해 제를 지낸다. 산제는 우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축원을 담은 문구(○○○대주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되게 해달라)를 읊조린다. 그런 다음 술을 따르고 재배(시주와 화주만)한 후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먼저 산신소지 → 대동소지 → 개인별 소지 순으로 올리는데 개인별 소지는 시주가 1반에서부터 순서를 정해서 올려준다.

제를 지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산제가 끝나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소지가 끝나면 간단하게 음복을 한 다음, 제물을 조금씩 떼어 고스레를 한다. 이 때 산에서 제물로 잡은 소 선지국을 끓여 먹는다. 그런 다음 소고기를 집집마다 똑같이 분배하여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다. 한편 예전에는(제보자인 이장이 어릴적만 하더라도)축문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축문을 잃어버려 축문을 읽지 않는다. 제의가 다 끝나면 동이 틀무렵(4~5시경)에 산에서 내려온다.

한편 전해 내려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마을사람들의 산제에 대한 믿음은 대단하였다.

- 예전에 백정이 제물로 쓸 소를 잡았다. 그런데 집에 갈 때 술 한잔을 마실 요량으로 제물로 쓸 고기를 몰래 조금 떼어 가지고 내려오다가 벌을 받아 나무꼬챙이에 발이 찔렸다고 한다. 바로 그것을 빼어 냈지만 결국 병이 나서 죽었다.
- 산제를 지내고 난 후 산제에 사용하였던 땔나무를 집에 가지고 가서 땠다. 그 이후 그 사람은 똥을 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 치성을 드렸더니 나았다.
- 산지당 근처에서는 나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근접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월문마을의 산제당은 몇백년간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낼 것이라고 한다. 수십 해 전에 산제당 옆에 있는 돌을 누군가 깨뜨려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해를 입을까 우려하여 외지인들에 산제당을 잘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또한 실지로 산제당 근처에 가는 것도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5) 유적의 향후조치

월문마을의 산제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를 지내는 산제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마을주민들의 산제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민속문화재로 전승될 수 있도록 행정적 · 학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1985.



지도39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위치도(양수 051)

39. 妙寂寺 8角7層石塔

□소재지 : 와부읍 월문리 222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석탑

□내 용

이 탑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팔각다층석탑이다. 강원도 오대산의 月精寺 팔각 구층 석탑과 양식적으로 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원래는 9층이나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기초가 되는 지대석은 2장의 큰 돌로 만들었으며, 팔각형으로 되어있다. 지대석 위에는 역시 팔각형으로 된 대석을 놓아서 기단부와 지대석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석의 측면 각면에는 각각 方框 2개씩을 둘렀으며 그 안에 안상문을 시문하였다.

기단은 아래에서부터 하층기단 중대석 그리고 상층기단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하층기단의 경우 안상문 위에 방광을 시문하고 그 윗편에 覆蓮을 두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대석의 경우도 역시 면석에 방광과 함께 안상을 음각하였다. 상층기단은 아래에 仰蓮을 두른 위에 역시 방곽 안의 안상을 각 면에 2개씩 시문하였다.

팔각의 탑신에는 각 면의 모서리마다 隅柱가 표현되어 목조건축의 기둥을 모각하였다. 옥개석은 하나의 돌로 만들었는데, 옥개받침은 3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밀하게 목조건축의 柱頭까지 모각하여 세밀한 조상예를 보이고 있다. 옥개석의 추녀는 각 모서리가 위로 치켜올려져 있고 끝에는 風鐸을 달았던 작은 구멍도 보인다. 각 층의 옥개석 윗면에는 그 위층 탑신을 받는 2단의 괴임이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은 탑신부는 전체적으로 1층에서 5층까지는 옥개석과 탑신이 별도의 돌로 되어 있으나 6층과 7층은 하나의 돌로 합하여 만들



사진39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었다.

상륜부는 半球形으로 그 둘레에 삼각형 모양의 기하학적 무늬가 연속되도록 조각하였으며 꼭대기에는 꽃무늬를 돋을새김으로 장식하였다.

한편 이 탑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3층과 4층 사이의 체감율이 극히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본래 7층탑이 아니라 9층탑 혹은 11층이나 13층탑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체감율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11층탑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한 절의 동쪽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활터에 산재한 탑재를 보면 이러한 추측이 용인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탑은 전체적으로 세장한 형태의 8각다층석탑이며 표면에 여러 문양을 새겨 넣어 장식적인 효과를 준 독특한 형태이다. 또한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의 양식적 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인근의 수종사 팔각 오층석탑과 규모의 차이가 있을뿐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아마 비슷한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비　　고 : 경기도 향토유적 제1호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40. 妙寂寺 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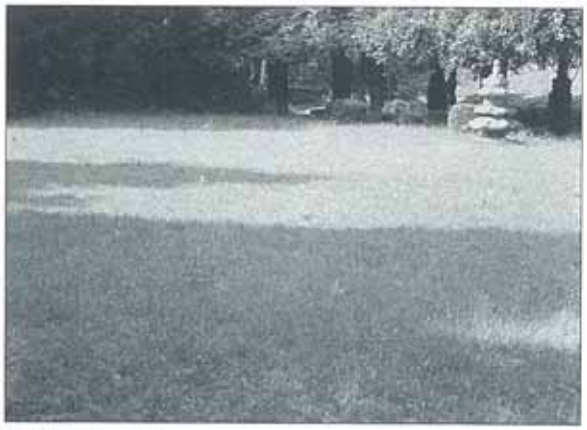


사진40 묘적사 활터

□소재지 : 와부읍 월문리 222(지도39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현재 절의 동쪽으로 약 30여 미터쯤에 있는 평탄한 대지를 가리킨다. 대략 건물로 따지면 약 10여 칸 정도의 크기이다. 절에서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곳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등 國亂이 겹치던 시기에 스님들이 軍功을 세움에 따라 南北漢繕營이 설치된 때가 있었는데 그 때 묘적사 스님들이 이곳에서 무예를 익혀 武科에 응시하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간혹이기는 하나 화살촉 등의 武具類가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41. 南楊州 月文里 菩提樹



사진41 남양주 월문리 보리수

□소재지 : 와부읍 월문리 산222(지도39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보리수라 하면 크게 흔히 우리 산야에서 볼 수 있는 보리수과의 낙엽활엽관목인 보리수와 뽕나무과의 상록교목인 인도 보리수, 또 피나무과에 딸린 낙엽활엽교목인 보리수(염주나무)로 분류된다. 이 보호수는 이 중 목재의 질이 좋아 사찰부근에 많이 심고 있는 피나무과의 보리수인데 잎의 모양이 심장형이고 초여름에 담황색의 향기로운 다섯잎 꽃이 잎겨드랑이에서 모여 피며 열매로 염주를 만들기도 해서 염주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라 문무왕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妙寂寺는 임진왜란시 僧軍을 훈련시키고 무사를 승려로 가장시켜 무예를 가르친 도량이었는데 다듬지 않은 원목으로 건물의 기둥을 세운 독특한 구조의 유서깊은 고찰이다.

사찰의 상징수로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시작되는 곳에 서있는 이 보리수는 누가 심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으로 스님들이 공을 세우자 스님들에게도 과거를 볼 수 있게 하던 시기에 묘적사 스님들이 무예를 연마하기 위해 심지 않았나 추측된다. 이 나무에서 열린 보리수 열매로 염주를 만들어 불공을 드리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여 신도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따서 염주를 만들어 불공을 드렸다 한다.

수령 300년, 수고 20m, 흉고둘레 1.5m, 수관폭 15m.

□지도번호 : 양수 206-1
□비 고 : 경기-남양주-36(1982. 10. 15)

42. 南楊州 月文里 향나무



지도42 남양주 월문리 향나무 위치도(성동 070)

□소재지 : 와부읍 월문리 산323-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와부읍 월문 1리 이곡마을, 전주이씨 단성공파의 묘소가 모셔진 종중산 입구에 서있는 이 향나무의 휘감아가며 뻗은 주간에는 담쟁이가 타고 올라가고 있고 주간높이 3.5m 부위에 동공이 생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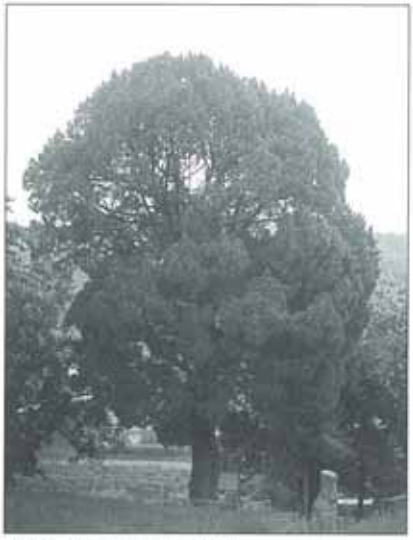


사진42 남양주 월문리 향나무

주간 뒷편에 제사에 필요한 향을 채취한 흔적인 깊이 25㎝, 폭 40㎝, 길이 약 2.3m 에 이르는 패인 자국이 있는데 상처가 있음에도 잎과 가지의 발달이 양호하며 가지발달이 적은 인접한 밤나무와의 상충부분을 제외하곤 사방으로 가지와 잎이 고루 퍼져 전체모습은 타원형이다.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위에 서서 이곡마을을 지켜주는 이 나무를 만나려면 월문 1리 이곡저수지에서 약 100m 정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수령 220년, 수고 12m, 흉고둘레 2.5m, 수관폭 9m.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남양주-37(1982. 10. 15)

43. 金尙寯 墓 및 神道碑



사진43-1 김상준 묘



사진43-2 김상준 신도비



사진43-3 김상준 신도비의 龜趺이 새겨진 贔屭

□소재지 : 와부읍 율석리 산45(지도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상준(1561~163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安東, 자는 汝秀, 호는 休菴이다. 父는 軍器寺正 元孝이며, 母는 李承說의 딸이다. 1582년(선조 15) 진사가 되고 1590년 弱冠의 나이에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때 文衡을 맡고 있던 栗谷 李珥가 극구 칭찬함으로 해서 명성이 더욱 높았다. 이후 병조좌랑, 해주목사, 죽주부사를 거쳐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광해군이 즉위하고 廢母論이 일어났을 때 조정논의로 가부를 결정하려는 회의에 병을 핑계로 참석치 않아 광해군의 미움을 받아 11년간이나 관직에 나가지 못했으며, 1623년 인조반정 후에는 논의에 참석하여 반대하지 않았다는 죄로 吉州로 귀양갔고, 1627년 牙山으로 옮겨졌다가 1635년 방면되었다.

묘역은 율석리 도로변에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西向하여 있다. 봉분앞에는 상석 · 계체석을 놓았으며, 향로석과 墓表는 보이지 않는다. 『안동김씨 대동보』에 의하면 묘표를 김상헌이 찬하고 아들 光煜이 전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현재 보이지는 않는다. 그 앞으로 좌우에 앙화와 안상문을 조각한 높이 168㎝의 망주석과 크고 통통하면서도 조각이 섬세한 높이 195㎝의 문인석이 있다. 문인석은 金冠朝服形으로 머리부분이 58㎝, 어깨 좌우 폭은 57㎝로 사각형의 화강석을 부분적으로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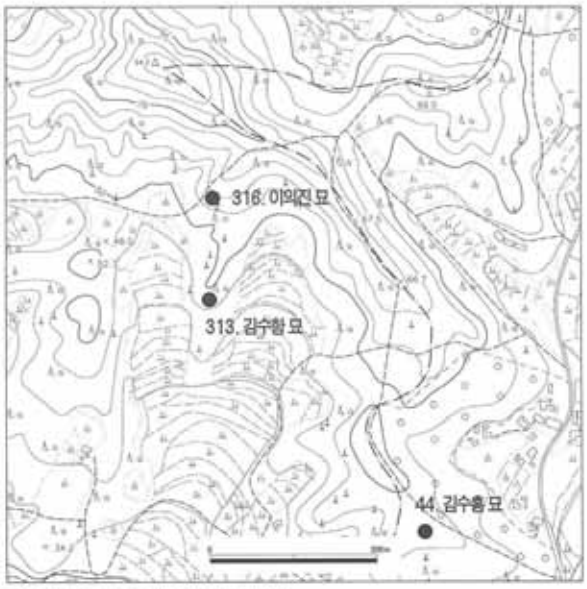
神道碑는 묘역 입구 좌측에 北向하여 비좌와 비신 및 冠石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상부에 복련 및 사방에 파도문을 조각하였다. 대리석의 비신은 前面 상단에 篆書로 "刑曹參判金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刑曹參判休菴金公神道碑銘并序"이다. 비문은 資憲大夫 吏曹判書 李明漢이 찬하고, 通訓大夫原任 刑曹正朗 柳時定이 썼으며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이광한이 전액했다. 冠石은 前後2면이 雲鶴紋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구름 속에서 직경 16㎝의 해와 달을 상징하는 원을 앞뒤로 조각하고 그 사이에 학을 前後로 2개씩, 左右에 1개씩 조각하였다. 조각 기법이 특히 뛰어나며 문양도 정교한 편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52㎝ · 너비 140㎝ · 두께 79㎝, 비신 높이 133㎝ · 너비 69㎝ · 두께 23.5㎝, 관석 높이 51㎝ · 너비 83㎝ · 두께 30㎝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44. 金壽興 墓



지도44 김수흥 묘 위치도(성동 059)

□소재지 : 와부읍 율석리 831-7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수흥(1626~169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起之, 호는 退憂堂 · 東郭散人, 본관은 안동이며, 우의정 상헌의 손자이고 생부는 동지중추부사 광찬, 양부



사진44 김수흥 묘

는 동부승지 광혁, 양모는 광산김씨로 동지중추부사 存敬의 딸, 영의정 수항의 형이다. 1648년(인조 26) 사마시를 거쳐 1655년(효종 6)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듬해 문과중시에 역시 병과로 급제한 뒤 부교리 · 대사간 · 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1666년(현종 7)에 호조판서, 1673년에 판의금부사가 되고 이듬해 영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자의대비의 복제문제로 남인에게 몰려 부처될 뻔하였고, 그해 8월 현종이 돌아가자 양사의 탄핵으로 춘천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와 양주로 물러가 살았다.

1680년(숙종 6) 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영중추부사에 이어 다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1689년 己巳換局으로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장기에 유배되어 이듬해 배소에서 돌아갔다. 그는 송시열을 마음의 스승으로 존경하여 그의 뜻에 따랐고, 『朱子大全』 · 『語類』 등을 탐독하였다. 역대의 왕에게 時弊疏를 올려 백성의 편에서 정치하기를 힘쓰도록 하고 정치의 혁신을 여러 번 건의했다. 저서로는 『退憂堂集』 5冊이 전해지고 있다. 시호는 文翼이다.

묘는 와부읍 율석리 김상관의 묘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여 있으며 남원윤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앞에는 墓表 · 혼유석 · 상석 · 계체석 · 민무늬의 사각 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망주석은 높이 171㎝로 앙화와 안상문을 화려하게 조각하였으며, 균형미가 있고 조각수법이 뛰어나다. 문인석은 높이 183㎝로 金冠朝服形이며 머리부분이 55㎝이다. 단순하면서도 조복의 세련된 선처리가 돋보이며 균형미가 있다. 앞 뒤에 구름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墓表는 전후 5엽, 좌우 1엽의 복련과 파도문을 사방에 조각한 장방형 비좌에 화강암으로 만든 비신 및 팔작지붕형의 단순한 형태를 이룬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형이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有明朝鮮國議政府領議政退憂堂金公壽興之墓 貞敬夫人南原尹氏祔左"라 써 있다. 비문은 김창협이 썼으며, 건립연대는 崇禎後丙戌 9月, 즉 1646년(인조 24)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40㎝ · 너비 96㎝ · 두께 62㎝, 비신 높이 144㎝ · 너비 57㎝ · 두께 23㎝, 옥개석 높이 32㎝ · 너비 104.5㎝ · 두께 66㎝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45. 金洪福 墓 및 墓碣



지도45 김홍복 묘 위치도(성동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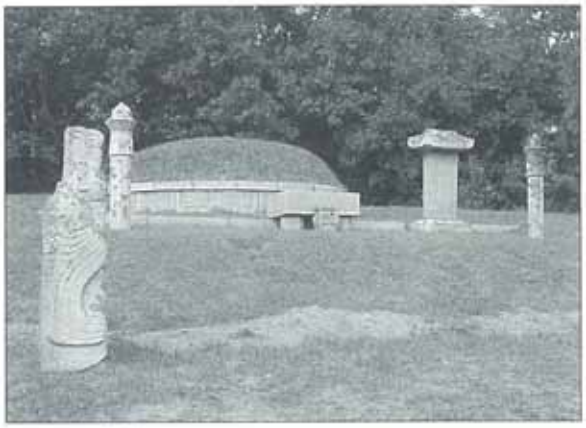


사진45-1 김홍복 묘



사진45-2 김홍복 묘갈(육중한 비좌와 두터운 비신을 갖추고 있으나 옥개석이 상대적으로 작다)

□소재지 : 와부읍 율석리 산193-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홍복(1649~169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子懷, 호는 東園, 본관은 金海이다. 父는 헌납 德承이다. 1682년(숙종 8)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685년에 奉敎가 되었고, 이듬해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해 정언이 되었고, 이듬해 지평으로 승진하였으며 都堂錄에 올랐다. 1688년에는 告訃使의 서장관으로 淸에 다녀왔다. 1694년 황해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며, 이어서 승지 · 예조참의 · 여주목사 ·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詩文集으로 『東園遺稿』가 전하는데, 7권 2책으로 筆寫本이다.

墓는 율석 1리와 2리간 도로변에 西向하여 있으며 정부인 고령신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의 하단에는 백색화강암에 난초 · 국화 · 대나무 등의 문양을 양각한 높이 66㎝의 호석을 새로 둘렀고, 그 앞에 장대석 · 상석 · 복연을 장식한 4각향로석이 있다. 봉분 우측에는 1716년(숙종 42)에 세운 墓表가 西向하여 있는데, 총 높이 169㎝로 민무늬 비좌에 비신,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비문은 崔奎瑞가 전하고 李德成이 썼다. 비 前面에는 3열로 "朝鮮國司諫院大司諫知製敎金公洪福之墓 贈貞夫人高靈申氏祔左"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9㎝ · 너비 97㎝ · 두께 68㎝, 비신 높이 130㎝ · 너비 61㎝ · 두께 22㎝, 옥개석 높이 39㎝ · 너비 105㎝ · 두께 65㎝이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앙화와 안상문을 장식한 높이 192㎝의 8각망주석이 있는데 균형미가 있다. 그 아래

흙으로 언덕 모양을 한 약간 아랫부분에 金冠朝服形의 문인석이 있는데, 관복의 화려함에 비해 눈매가 매서운 느낌을 주며, 높이 198㎝로 머리부분이 58㎝이다.

墓碣은 신도비의 규모 및 양식과 비슷하며 묘역 아래부분 좌측에 西北向하여 있다. 총높이 251㎝로 큰 장방형 민무늬 비좌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4면 상단에 篆書로 "司諫院大司諫知제敎金公墓碣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朝鮮國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知製敎金公墓碣銘 并序"이다. 비문은 영의정 崔錫鼎이 篆·書·篆을 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716년(숙종 42)이다. 최석정은 최명길의 손자이고 남구만, 박세채의 문인이다. 문장과 글씨에 모두 뛰어났는데, 이 비문의 찬문과 글씨를 함께 쓴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는 육서체에 두루 능하였는데, 특히 안진경의 「마고선단기」의 書風으로 중후한 글씨를 썼다. 이 비문을 글자체가 크고 시원하게 배치하였다. 전액의 글씨는 허목의 영향이 뚜렷하다. 획의 아랫부분을 거칠게 절을 주고 끝에서 약간 가늘게 빠졌다. 묘갈은 전체적으로 육중한 비좌의 규모에 비해 비신의 크기가 작으나 상대적으로 두께가 61㎝로 두꺼워 안정적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80㎝·너비 152㎝·두께 119㎝, 비신 높이 178㎝·너비 72㎝·두께 61㎝, 옥개석 높이 50㎝·너비 133㎝·두께 124㎝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南楊州文化院·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I』, 1998.

46. 南楊州 栗石里 느티나무



사진46 남양주 율석리 느티나무

□소재지 : 와부읍 율석리 519(지도4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와부읍 율석 2리 안골부락(목동마을)안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가에 서 있는 이 느티나무의 전체 모습은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퍼지고 수관이 넓게 형성되었으나 한쪽이 더 풍성한 약간 불균형적인 우산형의 모습으로 내부가지의 수세가 약해 내부가 빈 듯한 외형이다. 수세는 수피가 벗겨져 드러난 주간의 변재부와 일부 가지가 심하게 말라 약한 상태인데 최근에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의 그늘 이용이 많았으나 지금은 수목하부에 건축자재가 잔뜩 쌓여있고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이 많아 주민들의 쉼터로의 이용은 거의 없다.

수령 300년, 수고 12m, 흉고둘레 3.6m, 수관폭 17m.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남양주-33(1982. 10. 15)

47. 南楊州 栗石里 향나무1



사진47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

□소재지 : 와부읍 율석리 485(지도4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와부읍 율석 2리 큰골마을(대동)로 들어오면 오래된 향나무가 무리져 심겨있는 개인주택의 정원에 경기-남양주-35호 향나무와 사이좋게 서 있는 이 보호수를 만날 수 있다. 양호한 수세의 주간 후면에는 향불을 피우기 위해 심재를 채취한 흔적이 남아있고 내부 가지가 주간을 휘감듯 뻗어 올라가고 있으며 수관의 상단부는 완만한 곡선형으로 전체 모습은 강건한 기상의 원추형이다.

부드러운 인엽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잎은 가지에 촘촘히 달렸고 흑갈색인 수피는 세로방향으로 얇게 벗겨지며 갈라지고 있다.

수령 310년, 수고 15m, 흉고둘레 1.6m, 수관폭 6m.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남양주-34(1982. 10. 15)

48. 南楊州 栗石里 향나무2

□소재지 : 와부읍 율석리 485(지도45, 사진4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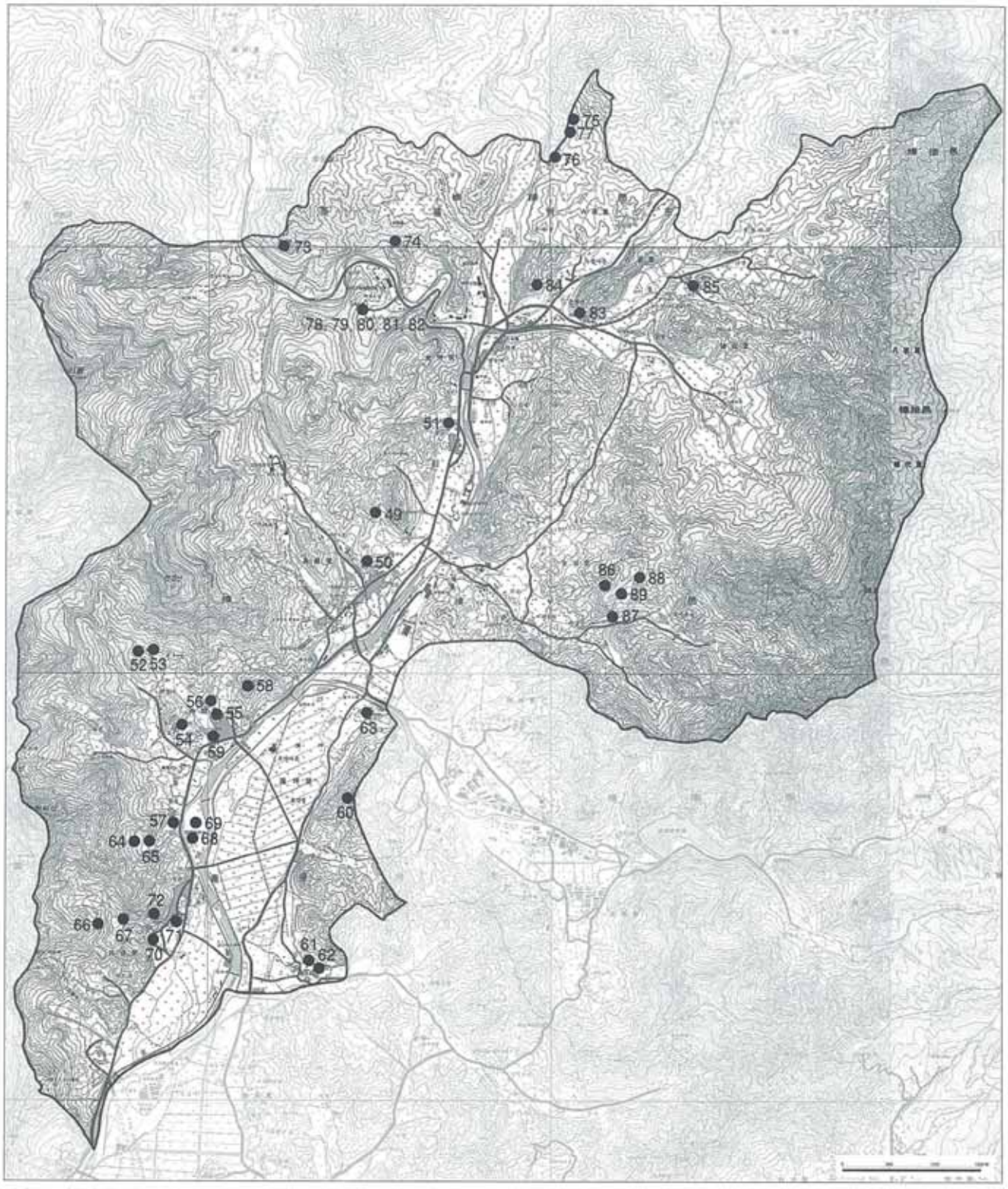
율석 2리 대동마을의 보호수인 이 향나무는 경기-남양주-34호 향나무와 함께 개인주택의 정원에 자리잡고 있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진한 녹색의 부드러운 인엽이 가지에 치밀하게 달려있고 곧게 뻗은 주간의 수피는 짙은 흑갈색으로 세로로 갈라져 벗겨지고 있으며 전체 모습은 정연한 원추형을 유지하고 있다.

주변에 비슷한 크기와 수령의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심겨진 향나무중 수세가 가장 양호하며 내부가지가 위로 곧게 뻗어 강건하고 웅장한 기상이다.

수령 310년, 수고 18m, 흉고둘레 1.7m, 수관폭 10m.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남양주-35(1982. 10. 15)

榛接邑



진접읍 문화유적 분포현황

49. 寧嬪金氏 墓



지도49 영빈김씨 묘 위치도(성동 018)



사진49-1 영빈김씨 묘(숙종의 후궁 영빈김씨)



사진49-2 영빈김씨 묘의 문인석(金冠朝服形의 문인석)

□소재지 : 진접읍 장현리 산175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능 · 원

□내 용

영빈(1669~1735)은 조선왕조 제19대 肅宗의 後宮인 寧嬪 安東金氏이다. 영빈은 文正公 金尙憲의 玄孫女이며, 成川府使 金昌國의 딸이다. 1669년(현종 10)에 태어나 숙종이 후사가 없어 仁顯王后의 추천으로 後宮이 되었으나, 張嬉嬪의 모략으로 인현왕후가 廢位되어 庶人으로 궁에서 쫓겨날 때 함께 號를 깎이고 본가로 돌아왔으며, 英祖 11년(1735)에 별세하였다. 후에 인현왕후가 복위함에 따라 같이 복위되었다. 숙종의 禮待가 다른 嬪御와는 달랐으므로 임금도 또한 그를 예로써 높이었다. 영빈 김씨가 돌아가자, 영조는, "선대 왕조의 후궁은 다만 이 한 사람만 남았었다. 일찍이 仁顯聖母와 더불어 기사년의 환란을 만났었다가, 갑술년 성모께서 復位되었을 때에 그도 또한 復爵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에 항상 어머니라고 일컬었는데 지금 그 상을 당한 소식을 들으니 슬픈 감회를 억누르지 못하겠다."라고 애석해 하였다.

묘는 진접읍 장현리 궁안골 해발 100m내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여 석주 형태로 기둥을 장식하여 화려한 곡장내에 있다. 원형의 봉분은 높이 210cm, 동서 직경 580cm로서 하단에는 높이 10cm의 호석을 둘렀다. 봉분 앞에는 묘비 · 계체석 · 혼유석 · 상석 · 민무늬의 4각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 장명등의 석물이 있다. 상석은 鬼面을 사방에 새긴 고석 4개가 받치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49cm · 너비 176cm · 두께 112cm이다. 문인석은 18세기 중엽의 전형적인 양식인 金冠朝服形이며 높이 173cm, 머리부분이 60cm로 작고 통통하며 얼굴의 눈은 감고 있고 갓끈의 흔적이 있다. 장명등은

높이 210㎝로 받침대 형상위에 불로초를 사방에 새겼으며, 그 위에 4개소의 사각 화창을 만들었다. 상륜부는 팔작지붕형으로 옥개석 일부는 훼손되어 깨어졌다.

墓碑는 민무늬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2열로 "有明朝鮮國 寧嬪安東金氏之墓"라 써 있다. 비문은 李宜顯이 찬하고 썼으며, 건립연대는 1737년(영조 13)이다. 옥개석은 처마면의 두께 11㎝로 거의 '一' 자이며, 처마 밑의 서까래 표현 등이 우수하다.

크기는 비좌 높이 49㎝ · 너비 108㎝ · 두께 71㎝, 비신 높이 143㎝ · 너비 58㎝ · 두께 23㎝, 옥개석 높이 40㎝ · 너비 96㎝ · 두께 64㎝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사적 제367호(91.10.25)

50. 외솔 崔鉉培 墓



사진50 외솔 최현배 묘

□소재지 : 진접읍 장현리 산175(지도49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墓

□내　용

최현배(1894~1970)는 국어학자, 교육자, 독립운동가로, 호는 외솔, 경상남도 울산 출신이다. 1910년 상경, 1915년 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1925년 경도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1926년 4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하였으나, 1938년 9월 흥업구락부사건으로 파면당하였다. 1941년 5월 연희전문 도서관직원으로 복직되지만 그해 10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사임, 1945년 광복까지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문교부 편수국장을 역임하였으며, 1954년 연희대학교 교수로 취임, 문과대학장과 부총장을 역임하고, 1961년 정년퇴임후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1954년 학술원회원으로 1955년 연희대학교에서 국어학 발전의 공로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1948년 한글학회 이사장에 취임 20년간 한글학회를 이끌었다. 국어학 연구, 국어정책의 수립, 교육학의 연구와 국어운동의 추진에 전념하여 그와 관련된 저서 20책과 논문 100편이 있다. 주시경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말본』, 『한글갈』 등은 주시경 이래의 문법연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20세기 전반기의 문법연구를 집대성하였다. 『한글갈』은 한글 연구의 체계화를 추구한 업적이다. 국어정화를 주장하면서 일본어의 잔재를 몰아내는 등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묘는 장현리 궁안골과 인접하여 아파트 단지 뒤편에 조성되어 南向하고 있다. 높이 190㎝인 원형의 봉분 뒤로는 크게 2단의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 하단에는 높이 60㎝의 호석을 둘렀고, 그 앞에 상석 · 장대석 · 향로석 등의 석물을 놓았다. 그 앞에 단을 만들고 비를 세웠으며, 그 아래에는 아들 행촌 최영해의 무덤이 있다.

紀念碑는 1970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워진 것으로 사각형의 비좌위에 다시 사각 대석을 놓고 그 위에 烏石재질의 사각 기둥 형태의 비를 세운 것이다. 비의 前面에는 종으로 "외솔내외의 무덤"이라 하고 뒷면에는 추모글이 있다. 이 글씨는 백낙준이 짓고, 배길기가 쓰고, 성명호가 새긴 것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45㎝ · 너비 264㎝ · 두께 207㎝,

대석 높이 58㎝ · 너비 170㎝ · 두께 130㎝, 오석비 높이 288㎝ · 너비 106㎝ · 두께 71㎝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51. 南楊州 長峴里 3 · 1運動 記念碑



지도51 남양주 장현리 3 · 1운동 기념비 위치도(성동 008)



사진51 남양주 장현리 3 · 1운동 기념비

□소재지 : 진접읍 장현리 20

□시 대 : 현대

□종 류 : 기념비

□내 용

3·1운동 기념비는 진접읍 장현리 47번국도 도로변의 검문소와 인접한 곳에 南向하여 있다. 2단의 장방형 백색화강암 기단석위에 팬촉 형태의 총 높이 341㎝의 비이다. 前面에는 높이 200㎝, 너비 29㎝의 오석에 종으로 "3·1운동기념비"라 새겼다. 後面에는 높이 140㎝, 너비 120㎝의 오석에 당시 봉선사 승려인 김성암과 접동리의 이재일 · 최대봉 · 박석몽 · 유희상 등에 의해 주도된 이 지역의 2차에 걸친 3 · 1만세운동의 의의를 기록하였으며 1999년 5월 20일 남양주시장 김영희에 의해 건립되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52. 順康園



지도52 순강원 위치도(성동 017)



사진52-1 인빈김씨 묘(선조의 후궁 인빈김씨의 묘이다)



사진52-2 인빈김씨 묘 상석 고석의 귀면

□소재지 : 진접읍 내각리 150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순강원은 조선 제14대 宣祖(1568~1608)의 후궁 仁嬪金氏(1555~1613)의 묘이다. 인빈 김씨는 본관이 수성이며, 洑仕 金漢祐의 딸로서 인조의 아버지인 元宗(추존)을 낳았으며 1616년(광해군 5)에 59세로 승하하였다. 인빈 김씨의 신도비에 쓰여진 내용에 의하면 김씨는 어릴적부터 영리하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몸가짐이 操身하고 궁중 잔일에 부지런하였다. 명종의 후궁인 淑儀 李氏가 궁중에 데려가 길렀는데, 명종비인 仁順王后가 보고 기특하게 여겨 선조대왕의 후궁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때 나이가 겨우 14살이었다. 내직을 받은 이후에는 윗사람을 공경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너그러움을 펴서 조신한 몸가짐을 보였다. 특히 궁중의 잔일에는 게을리하지 않아 주위에서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한다. 1573년(선조 6) 淑媛에 봉해지고, 이후 작품이 점점 높아져서 貴人에까지 올랐다.

1606년(선조 39)에는 작위를 더하여 仁嬪에 봉해졌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3년이 지난 뒤 궁궐에서 나왔다. 이후 사제에 기거하면서도 화려한 치장을 하지 않았고, 시종을 부르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천성이 온화하고 부덕을 갖추었음인지 선조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은혜를 입었다. 스스로 겸양하여 자신을 낮추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사에 어김이 없었다. 또한 평생에 말을 빨리 하거나 안색을 붉히는 일도 없었고, 하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싫은 소리를 하거나 꾸짖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귀천에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였다. 광해군의 무도함에 선조의 측근들이 모두 두려워 하였으나, 빈이 있는 곳에는 광해군도 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1633년(인조 11) 인조가 "내가 군왕이 된지 12년이 지났으나 인빈의 묘에 신도비를 세워 그 공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비록 늦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좋은 돌로 비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명으로 건립이 추진되어 3년후인 1636년에 세워졌다. 영조 31년(1755)에 인빈의 위패를 원종의 潛邸인 松峴宮에 봉안하고 궁호를 儲敬宮이라 고쳤으나, 純宗 2년(1908)에 서울 宮井洞 소재 七宮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그의 졸기에는 "빈은 義安君 · 信城君 · 元宗大王 · 義昌君 등 네 군과 다섯 翁主를 낳았는데, 술수가 있어 미봉을 잘하였다. 그 아우인 金公亮이 천한 관리로서 李山海 부자와 서로 결탁하였는데, 이산해가 드디어 유언비어로서 궁궐과 내통하여 대신을 참소해 떠나게 하였다. 이때부터 빈이 정사에 간여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이산해도 역시 士論에 버림을 받았다. 왕의 어머니인 恭嬪이 본래 인빈과 틈이 있었는데, 공빈이 産病으로 죽자 인빈이 그 대신이 되었다. 왕의 형제에 대한 총애는 드디어 줄어들었

고 산해가 대신을 참소한 것은 이 기회를 틈탄 것이었다. 왕의 형제가 이 때문에 인빈을 매우 원망했으며, 인빈의 집안 사람들도 역시 인빈을 위해 그를 위태롭게 여겼다. 왕이 동궁에 있을 때 자주 선조의 뜻을 잃자, 대비 이하 여러 후궁들이 동궁을 대할 때 불경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빈만은 유독 동궁을 후하게 섬겨서 바라는 바를 모두 은밀히 상에게 아뢰어 이루어 주었다. 유영경이 정인홍을 공격할 때 선조가 한창 동궁에게 노여움을 가졌으나, 빈이 변명을 하여 풀어졌다. 왕이 즉위한 뒤 임해군의 옥사가 일어나자 빈이 궁중에서 힘을 썼기 때문에, 원종대왕과 의창군이 모두 定社功臣에 참여할 수 있었다. 왕이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庶母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니, 그 의리를 감히 잊지 못한다." 하였다. 이 때문에 빈이 죽을 때까지 원종대왕 형제들이 모두 탈이 없었다."라고 하였다.[5]

묘는 正南向하여 곡장내에 있다. 봉분 하단에는 높이 40㎝의 호석을 둘렀으며, 봉분 주위에는 화강암의 莎苔와 羊石이 있다. 봉분 앞에는 墓表 · 상석 · 향로석 · 동자석 · 망주석 · 혼유석 2매 · 문인석 · 석등 · 馬石 등 다수의 석물을 배치하고 있다. 墓表는 장방형의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 前面에는 "有明朝鮮國仁嬪金氏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0㎝ · 너비 107㎝ · 두께 67㎝, 비신높이 140㎝ · 너비 65㎝ · 두께 18㎝, 옥개석 높이 33㎝ · 너비 107㎝ · 두께 70㎝이다. 상석은 4면에 鬼面이 양각된 고석이 받치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34㎝ · 너비 186㎝ · 두께 120㎝이다. 향로석은 대리석 재질로 6각 기둥 모양에 구름무늬모양을 조각하였다. 문인석 앞의 馬石 우측의 경우 입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없다.

묘의 앞쪽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정자각이 있으며, 그 우측에는 팔작지붕형태의 능표각이 있다. 능표는 1771년(영조 47)에 건립된 것으로 장방형의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능표의 前面은 篆書로 "有明朝鮮國 敬惠仁嬪順康園"이라 새겨져 있고, 後面은 楷書로

嬪姓金氏貫隋城本末事實具載 神道碑今弗架疊小子嗣服三十一年乙亥仲春歷拜嬪墓是年季夏三日奉 神位安于松峴 章廟故宮定 謚敬惠 宮號儲慶 園號順康象設丁閣若禮擧行而飮涕親寫 園表前後面嗚呼小子從今以後少伸追 先報本之忱云爾
皇明崇禎紀元後三乙亥初秋立

이라 새겨져 있다. 그리고 신도비를 보호하는 비각과 재실터 · 정자각 등이 있다. 묘 좌측에는 인빈 김씨의 둘째 아들 신성군의 묘와 신도비가 원내에 있다.

神道碑는 화강암제의 거대한 귀부와 대리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신의 前面에는 篆書로 "有明朝鮮國敬惠仁嬪順康園"이라 쓰여져 있으며 張維(효종의 장인 신풍부원군)가 撰을 하고 義昌君 珖(인빈 김씨의 4남)이 書를, 申翊聖(신흠의 자로 선조의 딸 정숙옹주의 부마)이 篆書를 하였다. 글씨체는 부드러운 감을 지닌 해서체이다. 이수는 두 마리 龍이 몸을 'ㄹ' 자로 꼬고 운문속에 머리와 앞발을 치켜들어 여의주를 움켜잡고 다투는 형상인데, 하나는 입을 벌렸고 하나는 다문 상태이다.

크기는 귀부 높이 97㎝ · 너비 255㎝ · 두께 324㎝, 비신 높이 282㎝ · 너비 100㎝ · 두께 33.5㎝, 이수 높이 80㎝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 비　　고 : 사적 제356호

□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5) 『광해군일기』 권71, 광해군 5년 10월 계축.

53. 義昌君 李珖 墓 및 神道碑



사진53-1 의창군 이광 묘



사진53-2 의창군 이광 신도비(귀부와 비신 및 반월형의 이수를 갖추고 있다)



사진53-3 의창군 이광 묘 상석 고석의 鬼面(상석 고석은 눈을 부릅뜨고 코를 벌름거리며 날카로운 괴수를 드러낸 채 무섭게 표현되었다)

□소재지 : 진접읍 내각리 150(지도5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광(1589~1645)은 본관은 全州, 자는 藏中이며, 호는 杞泉이다. 宣祖와 金漢祐의 딸인 仁嬪 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선조의 여덟 번째 서자로서 의창군에 봉해졌다. 壬辰倭亂 때 창졸간에 임금이 서쪽으로 피난갈 때 나이가 어려 일행을 따르지 못하고 유모가 데리고 鼠山谷에 숨어들었는데 민가의 주인이 그 용모를 기이하게 여기고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곤 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1618년(광해군 10년)에 모반죄로 주살된 許筠의 사건에 연루되어 勳爵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가 1623년 仁祖反正으로 인하여 풀려나 인조의 총애를 받았다. 글씨에 능했고, 시호는 敬憲이다. 사망한 연월일은 알 수 없으나 사후 생모가 묻힌 순강원에 안장되었다.

묘는 진접읍 내각리 순강원내 인빈김씨 묘역 좌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양천군부인 허씨와의 합장묘로 正南向하고 있다. 화강암 기단에 적벽돌로 담장을 올리고 한옥기와를 얹은 곡장 내에 안치되어 있다. 봉분은 동서직경 620㎝, 높이 180㎝의 규모이며, 화강암 9매로 만든 높이 40㎝ · 길이 220㎝의 호석으로 둘러쌓여 있다. 봉분 앞으로는 墓表 · 상석 · 6각향로석 · 8각망주석 · 동자석 · 문인석 · 혼유석 · 장명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墓表는 봉분 중앙에 위치하여 화강암의 비좌와 월두형의 거대한 백색대리석 비신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안상문과 상부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복련문이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는데 전면 좌측에는 "朝鮮國王子義昌君 贈諡敬憲公珖之墓"라고 하였고, 우측에는 "陽川君夫人許氏祔左"라고 하였는데, 현재 '君'과 '義' 자에 직경 10㎝의 큰 탄흔이 2개소 있다. 후면에는 "乙酉 12月 15日立"의 건립연기가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5㎝ · 너비 108㎝ · 두께 70㎝, 비신 높이 157㎝ · 너비 上71㎝ · 下67㎝ · 두께 20㎝이다. 상석은 4면에 鬼面이 양각된 2개의 원형 고석이

받치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33㎝ · 너비 154㎝ · 두께 67㎝이다. 혼유석은 망주석과 문인석 사이에 위치하여 좌측은 2매, 우측은 1매가 있고, 그 가운데에 높이 192㎝의 장명등이 있는데, 사각형의 받침대에 중간에 복련 모양이 새겨져 있다. 그 앞 좌우에는 높이 200㎝의 문인석이 있다. 특히 우측의 동자석은 머리 윗부분이 약간 파손되어 있으며, 좌측 문인석의 머리부분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神道碑는 묘의 아래에 南向하여 귀부와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귀부는 거북이 모양으로 큰 콧구멍과 눈 및 '一' 자로 다문 입은 송곳니를 포함한 윗 이빨을 드러내 놓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面에 있으며, 상부에 篆書로 전후 2면에 걸쳐 "義昌君贈諡敬憲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朝鮮國 王子義昌君諡敬憲公神道碑銘 并序 夙義敬戒曰敬 博聞多能曰憲"이다. 비문의 撰者는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兼領 經筵事監 春秋館事 世子傅 李景奭이며, 書者는 自獻大夫 刑曹判書兼 五衛都摠府都摠管 吳竣이며, 篆者는 嘉善大夫行 龍 衛大護軍兼 同知義禁府事 藝文館提學 金光煜이다. 이수는 검게 산화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발톱이 3개인 두 용이 입을 벌리고 앞발을 치켜들어 여의주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며, 후면의 용은 입을 다물고 있다. 전체적으로 몸의 비늘 표현 등이 사실적으로 우수하게 조각되었다.

귀부 높이 70㎝ · 너비 140㎝ · 두께 220㎝, 비신 높이 178㎝ · 너비 72㎝ · 두께 21㎝, 이수 높이 55㎝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54. 豊壤宮址(舊闕地)



지도54 풍양궁지 위치도(상동 017)



사진54-1 풍양궁지

□소재지 : 진접읍 내각리 723-2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궁

□내 용

豊壤宮은 조선의 태조 李成桂가 함흥에서 환궁하면서 잠시 머물기 위해 지어진 이궁이다. 현재 그 터가 진접읍 내각리의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온 주택가에 남아 있어 "大小人員皆下馬"라고 陰刻한 下馬碑(高 98㎝, 幅 54㎝, 厚 14㎝, 字徑 12㎝)와 팔작지붕에 正面



사진54-2 풍양궁지 궁궐유지비

2間, 側面 1間 규모의 碑閣이 위치한다. 비각은 花崗岩의 柱礎石 위에 건축하였는 데 본래의 건물은 6·25때 파괴되어, 그 후 전주이씨 종중에서 양주교육감 이승용씨 추진으로 재건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朝鮮 太祖 李成桂가 定宗에게 王位를 전하고 上王이 되어 함경도 咸興에 가 있다가 太宗이 還都할 때 이곳 內閣里에 行在所를 짓고 영영 漢陽으로 歸還치 않으려고 함에, 太宗은 百官을 거느리고 이곳까지 朝賀를 드리려 오게 되어 지명도 대궐터로 불리게 되었으며, 지금은 舊闕地로 부른다.

현재의 碑閣은 당시 太祖가 起居하던 곳으로서 후대에 이르러 大小 遺址碑를 세우고 舊基임을 표시한 것이다. 이 碑閣 안에는 2기의 碑가 보존되어 있는 데 각기 다음과 같은 碑文이 새겨져 있다.

- 큰 石碑
  表面 "太祖高皇帝所御舊闕遺址"
  裏面 "光武年乙巳秋拜敬書 令內部竪石"
- 작은 石碑
  表面 "太祖大王在上 王時舊闕遺址 皇命崇禎紀元後三乙亥 仲春書停于此拜手敬 書敬畿營竪石"

여기서 "光武年乙巳"는 1905년이고 "崇禎紀元後三乙亥"는 第21代 英祖 31年(1755)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작은 石碑를 세우고 150年이 지난 뒤 高宗皇帝 때에 다시 큰 石碑를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치에 대해 『東國輿地勝覽』에는 풍양현의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 풍양현은 원래 고구려의 骨衣奴縣이었고, 신라가 점령하여 惡壤으로 고쳐 한양군의 속현으로 만들었으며, 고려조에 들어서는 豊壤이라 불렀다. 1018년(현종 9) 楊洲에 속했다가 뒤에 포천으로 이속되었고,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1419년(세종 1)에 다시 양주로 귀속되었다. 풍양군의 옛 건물은 찾아볼 수 없으며, 궁터의 위치 또한 확실하지 않다. 다만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현 내각리 구궐지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접면 내각리 부근일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의 '內閣里 舊闕地'가 바로 풍양궁이 있었던 자리인 듯하다. 내각리 내동마을은 풍양궁 대궐이 임진왜란때 왜병에 의하여 불타버린 뒤에 비로소 민가가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하여 수백년 후인 지금도 '새말'이라고 부른다. 1932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5만분의 1 지도에는 碑閣里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 지금의 洞明 내각리는 內閣 부락과 碑閣里를 합해 근래에 새로 된 里明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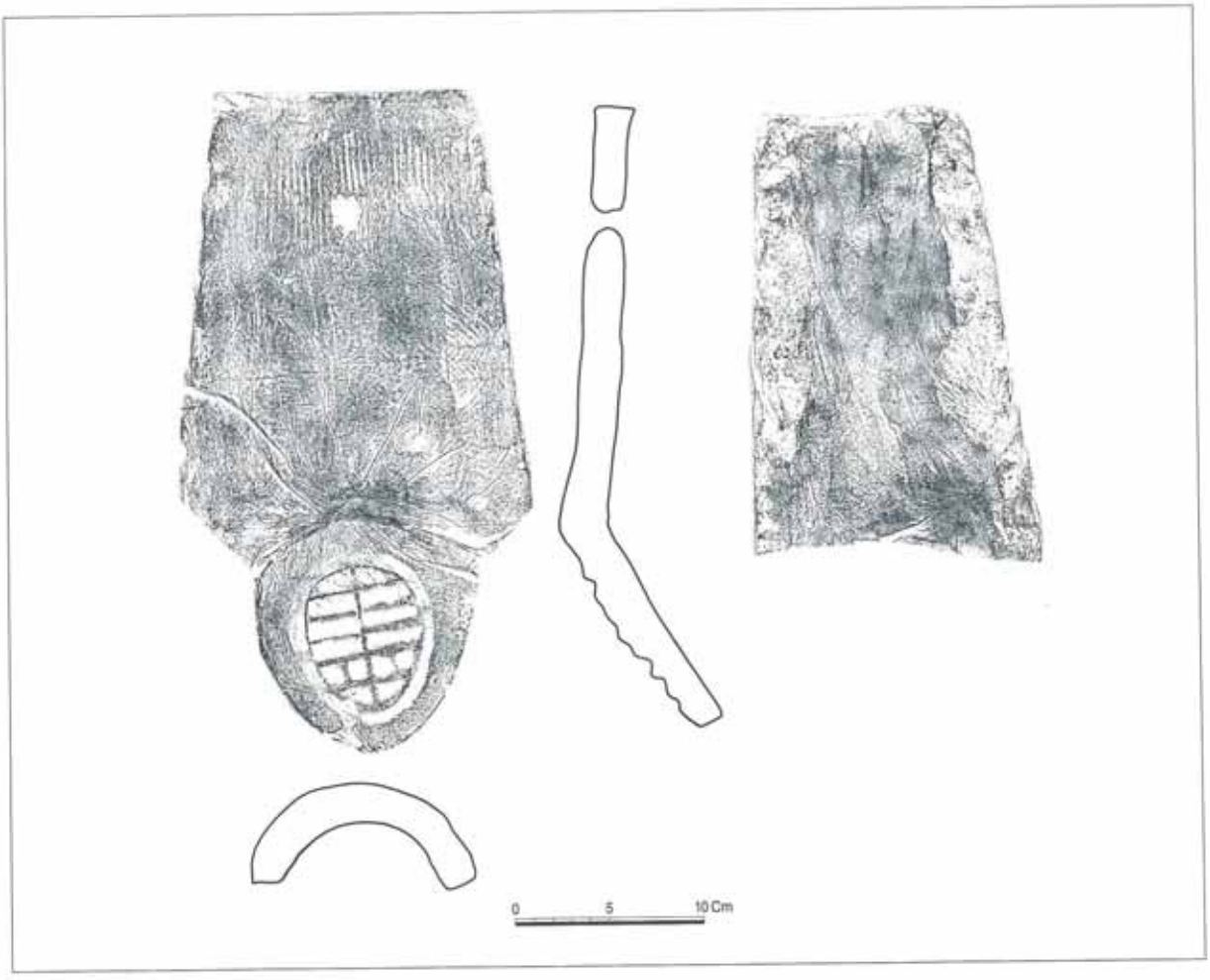
占筆齋 金宗直 先生이 閏8月에 왕을 모시고 광릉의 풍양궁을 지나면서 읊은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밤중에 왕이 행차하시니
이슬이 촉촉이 나리는구나
조각달은 달리는 길을 훤히 비추니
기이한 향기 차에 풍기도다
바람은 군사에 모자 스치고
진흙물은 따르는 신하의 옷깃에 튀네
벌써 풍양궁에 다다렀으나
시간은 아직도 초저녁이라

□ 지도번호 : 양지 205-4
□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사진54-3 풍양궁지 출토 수키와(앞 · 뒷면)



도면54 풍양궁지 출토 수키와

55. 完原君 李惟命 墓



사진55 완원군 이유명 묘

□소재지 : 진접읍 내각리 산8-9(지도5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유명(1767~1817)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全州, 자는 穉順이며, 호는 東圃이다. 宣祖의 4子인 信城君 우의 후손으로, 공조좌랑 琰의 아들이다. 門蔭으로 元陵參奉이 되었고, 1801년(순조 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를 거쳐 그 이듬해 전적이 되었다. 1812년에 대기근이 연속되고 또한 洪景來의 난이 일어나자, 平安道監賑史로서 백성들의 구호와 관군의 군량미 조달을 감독하는 한편, 반란이 진압된 뒤에는 按覈使를 겸하여 민심수습에 전력하였다. 그 뒤 嘉善大夫에 승계되어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었으며, 뒤이어 完原君을 습봉하고 병조 · 예조참판이 되었는데, 특히 병조참판으로 있을 때는 군비를 확충하고 군기를 확립하여 국내외의 도전에 대응하려고 노력하였다.

묘는 진접읍 내각리 내동마을의 나지막한 구릉에 東南向하여 있으며 정부인 광산김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110㎝, 직경 620㎝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4각향로석 · 8각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墓碑는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有明朝鮮國禮曹參判完原君李公惟命之墓 貞夫人光山金氏祔左"라 쓰여 있다. 비문은 通訓大夫行 司憲府執義 首陽 吳熙常이 찬하고, 嘉善大夫 吏曹參判 達城 徐能輔가 글을 썼다.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 14 庚辰(1640년)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51㎝ · 너비 98㎝ · 두께 96㎝, 비신 높이 148.5㎝ · 너비 50㎝ · 두께 50㎝, 옥개석 높이 90㎝ · 너비 92㎝ · 두께 92㎝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1994.

56. 咸陵君 李穆 墓



사진56 함릉군 이직 묘

□소재지 : 진접읍 내각리 산8-9(지도5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직 묘는 완원군 이유명 묘 위에 東南向하며 현부인 양주최씨 및 고령박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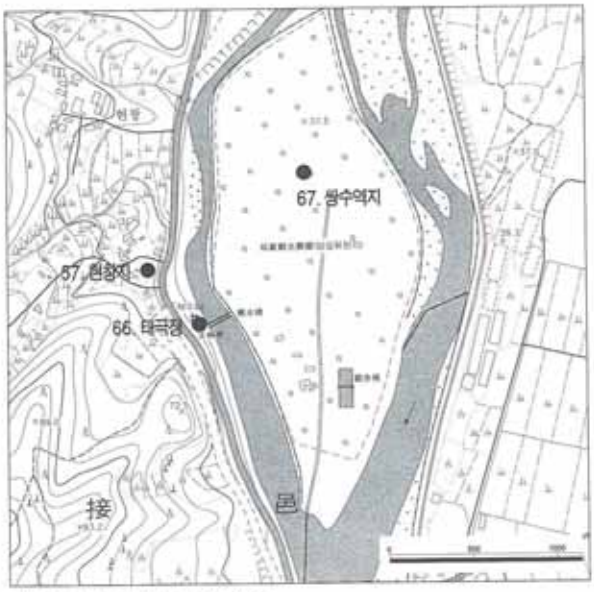
분은 높이 170㎝, 직경 720㎝이다. 봉분 앞에는 상석 · 6각 향로석 · 동자석 · 8각망주석 · 문인석 등 다수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동자석은 금관조복형으로 높이 96㎝이며 머리부분이 29㎝이다. 문인석도 동자석과 마찬가지로 금관조복형이며 높이 180㎝로 머리부분이 65㎝이다. 전후로 구름문양 및 턱 밑에 턱수염의 표현을 하였다.

墓表는 봉분 우측에 東南向하여 비좌와 비신 월두형으로, 검게 탈색되어 있는 비신에 비문은 前後 2면에 있다. 비신 前面에 3열로 "縣夫人楊州崔氏祔左 承憲大夫咸陵君之墓 縣夫人高靈朴氏氏祔右"라 쓰여 있다. 비문은 후손 埃이 쓰고, 女壻 安東 權指가 서하였다.

크기는 비좌 높이 38㎝ · 너비 112㎝ · 두께 77㎝, 비신 높이 155㎝ · 너비(上) 64㎝ · 너비(下) 60㎝ · 두께 25.5㎝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57. 縣倉址



지도57 현창지 위치도(성동 027)



사진57 현창지

□소재지 : 진접읍 내각리 48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현창지는 진접읍 내각리 현창마을 밤섬유원지내의 태극정과 인접한 도로변에 그 유지가 있다. 조선시대에 양주의 환곡을 보관하던 창고인데, 수년 전까지는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철거되고 민가가 들어서 있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양주의 환곡은 각 창고에 있는 것을 모두 합하여 2,7155석 7두 7승 6홉 8작이었으며, 연말부터 창고를 열어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대여하다가 가을부터 겨울 창고를 봉하는 때까지는 대여했던 곡식을 거두어 들이되 매년마다 농사의 풍흉에 따라 규정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였다.[6]

이 현창의 위치에 대해 『여지도서』의 기록에는 이 현창이 접동면에 있었고, 座起廠이 4칸, 창고가 20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양주 지역은 많은 능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전세를 비롯하여 환곡도 감면 또는 탕감받는 경우가 많았다. 영조 원년에는 양주목사 洪重疇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능침을 봉안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래된 환곡의 탕감을 요청하여 허락받고 있다.[7] 영조 7년에는 목사 洪德望이 양주는 민호가 1만여 호인데 환곡은 단지 租 7천여 석이 있을

6) 『여지도서』 경기도 양주.

뿐 쌀은 1석도 없다며 경리청의 1천 6백석과 어영청의 6백석, 금위영의 保米 1백여 석을 옮겨다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8] 이와같은 환곡부족 현상은 수령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과 아전들에 의한 逋欠 등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 참고문헌

『여지도서』·『비변사등록』



사진58-3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조라술 터주가리

58. 南楊州 內閣里 山神堂



사진58-1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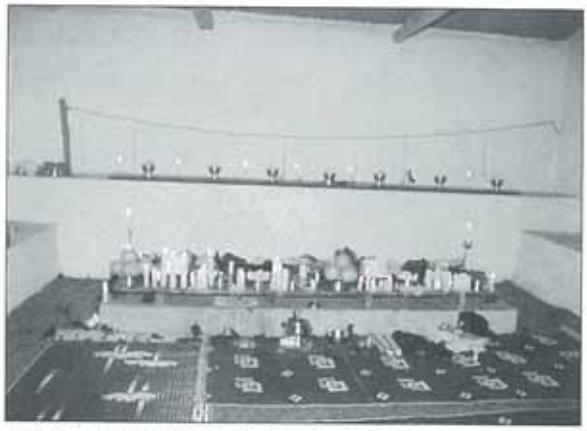


사진58-4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제물을 차려놓은 모습



사진58-2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상량문과 성주



사진58-5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에 칼이 꽂힌 채 제물로 바쳐진 쇠머리

7) 『비변사등록』 78책, 영조 원년 9월 9일.

8) 『비변사등록』 90책, 영조 7년 9월 30일.


사진58-6 술잔 따르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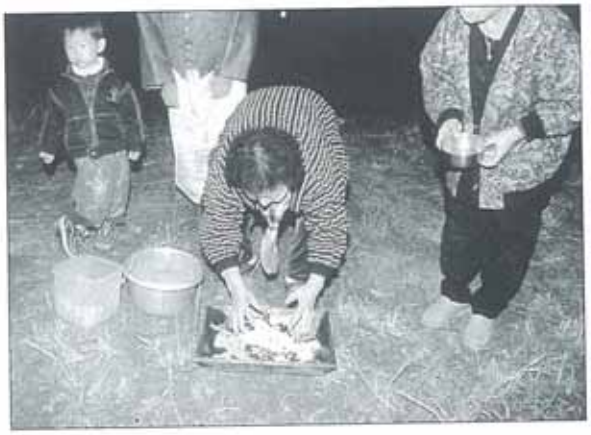

사진58-9 뒷전풀이 하는 모습


사진58-7 절을 하는 모습


사진58-10 산제사 후 하산 하는 모습


사진58-8 소지 올리는 모습

□소재지 : 진접읍 내각리 산24(지도54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1) 조사지 개관

퇴계원에서 47번 국도를 타고 일동 방면으로 가다보면 진접읍 소재지인 장현리 바로 직전에 도로 좌측으로 206번 지방도로가 나 있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상가와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조사마을인 내각리이다.

내각리는 원래 양주군 정동면 지역으로서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 · 면 통폐합에 따라 현창리, 비각리, 봉현리, 내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조선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올 때 풍양궁에서 머무르는데, 내각이 맞이하러 와 있었으므로 내각리라 하여 진접면(읍)에 편입시켰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95년 1월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시 관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3]

내각리는 1리를 중심으로 총 4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내동마을로 불리는 1리가 예전부터 가장 큰 마을이었다. 내동마을은 점차 도시화되어 가는 마을로, 약 5년 전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상가도 밀집되어 있어 외형상으로 볼 때 농촌지역이라기보다는 도시라고 보아야 할만큼 급속히 변모해 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 비해 가구수도 많고 이 지역의 주민들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내동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토박이들은 총 138가구로 이들이 마을 뒤에 있는 산제당에서 산치성을 드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훨씬 많다. 한편 내동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는 4가구의 경우에도 산제에 참여하고 있다.

내동마을 사람들의 생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토박이들은 논농사를 짓고 있으나 근래 외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논농사보다는 밭에서 포도 · 배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하우스에서 시금치 · 파 등을 재배하여 서울 등지로 출하하고 있다. 즉 이들은 대부분 땅을 임대해서 특수작물을 재배해 서울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 생활권은 서울이다.

내동에는 밀양박씨와 이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250여 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 관공서는 없으나 몇 개의 교회가 들어서 있으며 내각 3리에 절이 하나 있다. 그리고 내각 2리에 풍양초등학교와 장현에 봉현중 · 고등학교가 있다. 시장은 읍사무소 근처에 있는 장현장(2일, 7일)을 이용하고 기타 서울에 있는 청량리 등지에서 생필품을 구입한다.

(2) 위치와 형태

내동 마을의 산신당은 마을 바로 뒤편에 있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뒤편으로 나있는 조그만 길을 따라 약 10분 정도 올라가면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 이곳에 산제당이 자리잡고 있다. 산제당 주변에는 제를 지낼 때 사용한 흔적이 있는 약간의 쓰레기와 한켠에는 모닥불을 놓았던 흔적이 있는 탄 나무와 재가 있다. 산제당 오른쪽에는 솥을 걸 수 있는 아궁이 장치가 2개 설치되어 있다.

산제당의 형태는 옆으로 긴 직사각형의 골 쓰레트 지붕에 블록을 이용한 집으로, 앞면 525㎝, 옆면 427㎝ 크기의 큰 건물이다. 산제당 대들보에는 "一九七七年 丁巳 陰 二月 二十二日 立柱 上樑"이란 상량문이 있고, 상량문 첫머리 부분에는 한지에 실타래로 성주를 모셔 놓았다. 그리고 산제당 오른쪽 뒤편으로는 조라술을 담그기 위해 짚주저리를 만들어 놓은 조라 터주가리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산제당 안에는 시멘트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판 2개를 놓은 다음 그 위 30㎝ 정도 위에 왼 새끼로 금줄을 쳐 놓았는데, 금줄에는 한지 7장을 끼워 놓았다. 단 아래에는 제당 상단 중앙에 역시 시멘트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판 2개를 연결하여 만든 굽이 있는 젯상을 올려놓았다. 그 밖에 산제당 안에는 솥 2개와 돗자리, 물통 15개가 보관되어 있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내동마을의 산제당은 상량문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1977년 음력 2월 22일에 건립되었다. 산제사를 언제부터 지내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산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내동마을의 산제사는 2월초와 10월초 두 차례에 걸쳐 지낸다. 먼저 2월 제사의 경우 2월 초하룻날 날을 받아 부정이 없는 날로 지내는데, 대개 2월 3일 안으로 날을 받는다. 10월 제사 역시 10월 초하룻날 날을 받아 10월 3일 안으로 지내되, 이때도 부정이 없는 날을 잡아 제를 지낸다. 2월 제사와 10월 제사 모두 제를 지내는 진행방식이 같다. 그리고 2월 제사를 주관했던 제관이 10월 제사도 주관한다. 제를 주관하는 사람을 "영좌"라고 부른다. 2월에 선출된 영좌가 그 후 부정이 생기면 교체하지만 특별한 부정이 없으면 10월에도 제를 주관하게 된다. 마을사람들이 위하는 신은 산신으로

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341쪽, 1985.

산제사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를 지내게 되었다.

(4) 관련의례

내동마을의 산제사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교인들은 참여하지 않고 원래부터 거주하던 토박이들만이 제의에 참여한다. 모두 138세대가 산제사에 참여하는데 노인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매우 적극적이다. 산제사를 지내는 138가구 중 제사를 주관하는 '영좌' 1명과 '소임' 4명을 제외한 133가구가 정성을 다해 걸립에 참여한다. 경비는 1월 말경에 가구마다 약 8,000원씩을 모아 제를 지내는데,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에 필요한 경비는 옛날부터 걸립을 통해 충당해 왔다. 비록 대표를 선출하여 산제사를 지내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정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를 주관하는 영좌와 일꾼인 소임은 음력 1월 15일에 마을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두 모여 선출하는데 생기복덕을 보아 선출한다. 영좌는 대개 60세 이상으로 하고 소임은 40세 이상만 되어도 가능하다.

2월 1일과 10월 1일에는 영좌의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흙을 대문 안쪽에 1무더기씩 뿌려 놓는다. 소임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로 만일 영좌의 집에 부정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선출하여 제를 지내고 초상 또는 출산 등이 있으면 제를 연기한다. 즉 산부정은 1주일, 죽은 부정은 다음달로 연기한다. 그리하여 영좌로 선출되면 제일을 잡은 후부터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야 하는 등 부정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소임의 역할을 살펴보면 소임 중 1명은 축문을 독축하는 일을 담당하고, 소임 2명은 서울 경동시장에 가서 제물을 구입한다.

제물로는 소족 2개와 소머리, 간 · 허파 · 콩팥 등 소내장, 통북어 4마리, 포 16개, 팥시루떡, 백설기, 메 2그릇, 밤, 대추, 산자, 문어, 홍합, 해삼, 전병, 절편, 배, 곶감(10월에는 감), 조라술(감주) 등이 준비된다. 제물내역을 1998년 실제로 내동 마을에서 지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트리오 2개 5,700원, 물엿 1병 1,900원, 간장 1병 3,300원, 커피 3통 4,800원, 참기름 1병 4,500원, 수세미 3개 2,550원, 마늘 2,000원, 소주 1박스 22,500원, 막걸리 15병 21,000원, 초 1,500원, 소족발 2개 60,000원, 소머리 1개 80,000원, 소내장 1식 70,000원, 목저 1식 5,000원, 종이컵 1식 1,000원, 식용유 2,900원, 부탄가스 4개 2,400원, 골드 1짝 22,500원, 고기 7근 45,500원, 음료수 8병 6,400원, 고무장갑 5켤레 6,000원, 두부 1판 8,000원, 계란 3개 300원, 김 20톳 20,000원, 콩나물 3,000원, 장갑 2,500원, 쌀값 180,000원, 좁쌀 3되 10,000원, 막걸리 2병, 소주 1병 3,500원, 파 2단 2,000원, 콩 4되 10,000원, 기름 4홉 10,000원, 담배 24,000원, 봉지 2봉 2,000원, 막걸리 13병 18,200원, 다시마 3,300원, 잡비 7,000원, 배 10개 22,000원, 감 15개 15,000원, 통북어 10개 18,000원, 대초 2갑 1,800원, 대추 1되 7,000원, 산자 30입 4,500원, 생밤 2되 8,000원, 해삼 2봉 8,000원, 홍합 반근 5,000원, 사고지 4권 12,000원, 치자 20개 2,000원, 소금 2되 2,000원, 밀가루 2,000원, 통후추 2,000원, 문어 2마리 30,000원, 포 16마리 36,800원, 통북어 4마리 8,000원, 향 1갑 500원, 소독저 1단 10,000원, 로맥스 2단 50,000원, 전기 테이프 4개 2,000원, 전구 10개 5,000원, 키소켓 6개 6,000원, 장갑 1타스 2,500원, 석쇠 1개 2,000원, R키소켓 3개 3,600원, 전구 3개 1,500원, 시루떡 4말 72,000원, 절편 2말 30,000원, 엿기름 1,500원, 팥 44,000원, 두부콩 3,500원, 백설기 2,000원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1998년 봄치성(3월 2일)과 가을치성에 대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봄치성의 경우 1997년 이월금이 228,822원이며, 여기에 총 136가구 중 제관 일행을 제외한 131가구에서 8,000원씩을 거출한 결과 총 금액이 1,048,000원으로 이월금과 거출금을 합한 총액은 1,276,822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봄치성을 드리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1,139,860원으로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제하고 나면 136,962원이 남았다.

다음으로 가을치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봄치성에서 이월된 이월금 136,962원에다 총 127가구에서 8,000원씩을 거출한 총 금액 1,016,000원을 합하면 1,152,962원이다. 여기서 가을치성을 드리기 위해 지출한 금액 1,104,550원을 제하면 51,550원이 남았다.

한편 조라술은 산제날을 받으면 당일날 저녁 몸단장을 한 다음 산에 가서 산제당 옆에 터주가리 형태로 해 놓는다. 즉 단지에 조라술을 담근 다음 산에 가지고 올라가 짚으로 밑을 둥그렇게 깔고 단지를 놓은 다음 한지로 1차 뚜껑을 하고 이어 단지 뚜껑을 덮은 다음 짚주저리를 씌운다. 보다 상세하게 조라 터주가리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지에 조라술을 담근다. 그런 다음 한지로 단지 입구를 봉하고 뚜껑을 덮는다. 그런 다음 현장으로 가서 바닥에 짚으로 또아리를 틀어 놓고 그 위에 조라 단지를 놓는다. 이어 창호지를 접어 단지에 왼새끼 2줄로 동여맨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 놓는다. 주저리 위에는 역시 한지로 길다랗게 길지를 만들어 묶어 놓는다.

다음으로 제의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제 당일날 아침 8시경에 제물을 지게에 지고(지금은 경운기로 운반한다)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이때 부정이 없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올라가서 제당 주변을 청소하고 떡(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감)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준비한다. 산제당이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를 받아 산제당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제기는 영좌 집에 보관하는 놋그릇을 사용한다.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물을 준비하면서 진설을 하고 진설이 끝나면 영좌가 잔을 붓고 절을 두 번 한다.

제물 진설시 소머리는 큰 고무그릇에 담은 다음 머리 정수리 부분에 부엌칼을 꽂아 단 아래 바닥에 놓는다. 영좌가 미리 간단하게 제를 지내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제를 지낸다. 여자도 부정만 없으면 제의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점심, 저녁을 산에서 다 해먹는다. 그러나 산제에 사용할 노구메는 쌀밥으로 영좌의 집에서 지어간다.

그런 다음 저녁 10시경에 낮에 차려놓은 제물을 가지고 산제사를 지낸다. 먼저 잔을 붓고 절을 한 다음 독축을 하고 또다시 절을 한 후에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영좌 소지→소임 소지→마을 사람들의 세대주별 소지 순으로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조라술도 나누어 먹는다. 조라술은 좋은 술이라 하여 서로 덕담을 나누며 조금씩 나누어 먹는다. 그런 다음 좁쌀로 밥을 하고 무나물을 만들어 뒤범이를 만든 다음 산제당 주변에 뿌리면서 푸념을 한다. 이 마을에 사는 할머니나 아주머니(예전엔 무당)가 술과 함께 뿌린다. 그리고 음복을 한다. 음복을 한 다음 "뒷전"을 하는데 뒷전은 객귀를 물리치는 일을 말한다. 부엌칼로 뒷전을 할 때는 마당에서 남쪽을 향해 칼을 던져서 칼날이 남쪽으로 향해야 좋다고 하는데, 칼이 제대로 꽂히지 않으면 제대로 꽂힐 때까지 계속하여 던진다. 이때 북어도 함께 던진다. 뒷전풀이가 끝나고 하산 하는 시간은 약 12시경으로 다시 영좌집에 와서 술을 한 잔씩 한 다음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결산은 제의가 끝난 다음날 영좌집에 모여 하는데, 이때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내동 마을 산제사 祝文

維歲次 戊寅 十月 庚午 朔 初 二日 辛未
南楊州市 棲接邑 內閣 一里 元內洞人民等 敢昭告于
山神之前曰 崇高維嶽 峻極于天 上有明神 陟降帝前
庇我佑我 於千百年 如阜如川 父母壽康 官居頲頲
稼盈 稟念 降福洋洋 鷄豚牛洋 禾稼菽麥 子孫昌盛
際會一堂 維虎維龍 鵷鷺騶馬 佑我民人 弗三弗二
實興三物 無慾不遂 無災湲福 逐災興祥 老少同志
贊我皇極 無願不成 何日敢忘 春秋報賽 楊于帝庭
一同萬口 永念厚德 萬人一成 鑑潔酒牲 伏惟尊神
春顧諧饮嘗 尙 饗

한편 예전에 내동마을의 경우 매년 가을치성 때 산제당에서 도당굿을 하였다고 한다. 도당굿과 함께 산제당 마당에서는 난장이 열렸는데, 이때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굿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한다. 도당굿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산제사가 끝난 다음에 치러지는데, 대개 아침 8시경에 굿이 시작되어 그 다음날 새벽 4시경에 굿이 끝난다. 12거리를 모두 하는데, 이때 만신 3~4명과 3현 6각의 악사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무당은 대개 서울지역에서 초청하였는데, 별호가 돼지무당이란 만신이 주로 굿을 담당하였다. 제물은 마을에서 모두 준비해 준다. 무당에게는 '복돈'이라 하여 수고료를 주었다. 굿을 할 때에는 장작을 가늘게 쪼갠 다음 칡으로 동여매서 만든 '횃대'를 집집마다 만들어 불을 밝혔다. 마을에서 무당들에게 주는 수고료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쌀 등을 걷어서 무당에게 주었는데, 이때 악사는 무당들이 몫을 나누어주었다.

무당들이 산제당에서 굿을 한 다음에는 영좌집에 내려와서도 굿을 하였다. 이러한 도당굿은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크게 치러졌다고 하는데, 6 · 25 전쟁 이후부터 도당굿이 중단되었다.

(5) 유적의 향후조치

산제사의 규모에 있어서 다른 마을에 비해 매우 성대함을 알 수 있다. 산제사와 함께 예전에는 도당굿이 치러졌고, 아울러 난장이 서기도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지역 축제로써 그 기능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아파트촌이 들어서 있는 마을이지만 지금까지 130여 가구라는 큰 집단이 제의에 참여하고 있고, 도당굿은 비록 사라졌지만 그 흔적인 뒷전풀이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전승력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물의 종류에 있어서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들을 보다 더 심도있게 조사 · 연구함으로써 지역축제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술적 ·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1985.

59. 南楊州 內閣里 느티나무



사진59 남양주 내각리 느티나무

□소재지 : 진접읍 내각리 285(지도5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47번 국도를 타고 퇴계원에서 포천 방향으로 가다가 내각 1리의 내동마을을 찾아 들어오면 마을 입구에서 담장사이에 꼭 끼인 채 힘겹게 서 있는 이 나무를 만날 수 있다. 6 · 25사변때 폭격을 맞아 가지가 부러져서 주민들이 인분으로 상처난 자리를 치료해 살려놓았다고 하며 나무에 해를 입히면 좋지않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불룩한 옹이가 발생한 주간은 도로쪽으로 30°정도 기울었으며 전체 모습은 주간높이 3m 부위에서부터 측지가 발생하여 고루 뻗은 원정형의 모습으로 유난히 무성한 가지와 잎이 만드는 풍성하고 시원한 그늘은 맞은편 가옥까지 이어져 오가는 이의 지친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나무의 원활한 생육에 불리한 하부의 콘크리트 포장과 인접 담장은 제거하여 긴 세월 내동마을의 정자목으로 사랑받아온 이 느티나무가 앞으로도 웅장한 자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수령 350년, 수고 21m, 흉고둘레 5.4m, 수관폭 18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12(1982. 10. 15)

60. 大伊山烽燧

□소 재 지 : 진접읍 연평리 산32-1

□시　　대 : 고려시대

□종　　류 : 烽燧

□봉수노선 : 제1거 내지봉수 직봉

□봉수별칭 : 汗伊山烽燧

□내　　용

대이산봉수는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와 양지리 경계상의 해발 173.5m인 산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일직선상에 퇴뫼산(363.7m) · 국사봉(331m) · 수락산(637.7m) 등이 시야를 가로막고 나란히 마주 대하고 있으나, 남북으로는 엇비슷하게 흐르는 왕숙천을 따라 비옥한 충적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이 봉수가 북쪽의 포천 잉읍점봉수로부터 신호를 받아 남서쪽의 가구산(아차산)봉수로 신호를 보내는데 있어 서쪽보다는 남북이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응봉수노선의 거리를 볼 때 이 봉수는 남쪽의 가구산봉수와는 13㎞, 북쪽의 잉읍점봉수와는 13.5㎞의 거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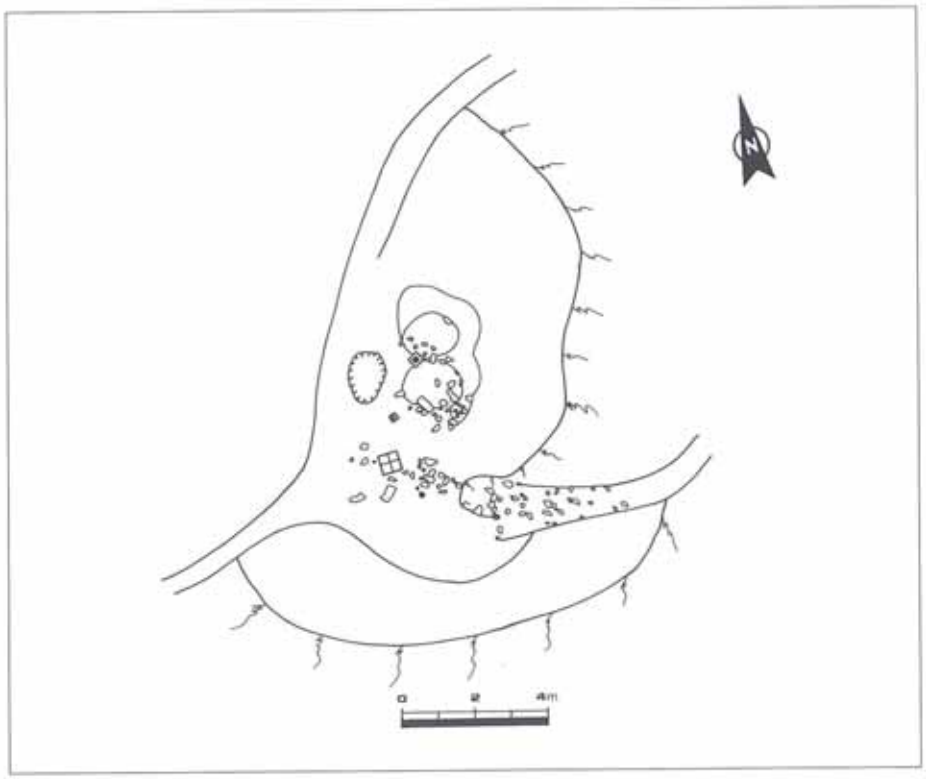
이 봉수는 조선초기 『世宗實錄』의 地理志에서부터 조선후기의 각종 읍지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봉수이다. 『세종실록』의 지리지(1454년)에는 京畿楊州都護府에 소재하는 2개소의 봉수 중 1개소로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60 대이산봉수 위치도(성동 028)


사진60-1 대이산봉수 내부(경기지역 대부분의 봉수처럼 대이산봉수도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사진60-2 대이산봉수 내부에 설치된 삼각점



도면60 대이산봉수 평면도

烽火二處 大伊山 在府東南 北准抱川仍邑岾 南准加仇山

이라 하여 부의 동남쪽에 소재하며 북쪽으로 포천 잉읍점, 남쪽으로 가구산에 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기록이 작성된 조선초기에는 행정구역상으로 양주도호부에 속하였으며, 설치시기는 고려초기에 설치되어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운영되었던 봉수로 여겨진다.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서는 峨嵯山烽燧 다음으로

大伊山烽燧 在州東六十里 北應抱川縣仍邑岾 南應峨嵯山

이라 하여 위치의 구체적인 기록(주의 동쪽 60리 지점)과 대응봉수명의 변화(南准 加仇山 → 峨嵯山) 등을 알 수 있다. 이후 발간된 『東國輿地志』(1656년)의 기록내용도 위와 같으나 다만 남쪽으로 응하던 대응봉수인 아차산의 한자음이 峨 → 峩로 변하고 있다. 『輿地圖書』(1760년)에서는

汗伊山烽燧 在乾川面自州東距五十里 北應抱川廣山烽二十里相準 南應峨嵯山烽三十里傳準 有監官一人 軍二十五名 保人五十名 軍笠 等物

이라 하여 봉수명의 변화(大伊山烽燧 → 汗伊山烽燧) 및 위치의 변화(주의 동쪽 60리 → 양주목 건천면 소재, 주의 동쪽 50리), 대응봉수의 변화 및 거리표시(北의 抱川縣 仍邑岾 → 抱川 廣山烽 20里, 南의 峨嵯山과 30里), 복무인원의 명기 및 장비 등을 알 수 있다. 이후 발간된 『京畿誌』에서는

大伊山烽燧 俗稱汗伊山 在州東乾川面五十里 北應抱川廣山烽 西應峨嵯烽 有監官一人 軍二十五名 保五

十名

이라 하여 大伊山烽燧를 달리 汗伊山이라고도 칭하였으며 대응봉수 노선은 변함이 없으나 다만 종래 남쪽으로 아차산봉과 응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서의 아차봉과 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輿圖備志』(1849~ 1864년)에서는 한이산 봉수라는 이름으로 동쪽 60리 지점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나, 『大東地志』(1862년)에서는 동남쪽 55리 지점에 위치한다고 하여 5리의 차이가 있다. 『京畿邑誌』(1871년)에서는 앞서 발간된 『京畿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이상을 통해 다음의 세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대이산봉수의 설치시기는 『世宗實錄』의 地理志에 봉화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초기 봉수제의 성립과 더불어 설치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대이산봉수는 18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종래의 大伊山烽燧에서 汗伊山烽燧로의 명칭변경이 있었다. 셋째로 대이산봉수는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응하는 봉수노선의 변화가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이 봉수는 봉수대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뚜렷한 유구가 없어 봉수로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 장타원형의 석축으로 전체둘레 45.3m, 장축 10.28m, 단축 5.4m이다. 봉수 내부에는 삼각점이 3개 있으며, 3면으로 등산로가 있다. 상부에는 깃발이 세워져 있으며 한 곳에는 돌무더기를 모아 조그만 탑을 만들어 놓았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 『新增東國輿地勝覽』 · 『東國輿地志』 · 『輿地圖書』 · 『京畿誌』 · 『輿圖備志』 · 『大東地志』 · 『京畿邑誌』

61. 南楊州 蓮坪里 은행나무1



지도61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1 위치도(성동 029)



사진61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1

□소재지 : 진접읍 연평리 산44

□시 대 : 고려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근원부 30㎝에서부터 크게 세 줄기로 나뉘어 곧게 뻗은 이 나무는 진접읍 연평 2리의 기와집이 많아 이름 붙혀졌다는 와촌(瓦村)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전해

오는 얘기로는 임진왜란때 한양을 점령한 왜군이 북상 도중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곡창지대인 연평 들녘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살구와 은행의 노란색이 비슷하므로 왜군들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 촌로가 조선 살구라고 속여 왜병들이 은행의 과육을 먹게 하여 은행옴을 진영전체로 퍼지게 하였고 속은 것을 안 왜병들이 화풀이로 나무에 불을 질러 소사케 하였는데 그 후 뿌리 부분에서 새순이 솟아 이처럼 세 줄기의 직립형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암나무로 한 해 평균 3~4말 정도를 수확하는데 열매의 굵기가 작아 생산성은 없으며 주간과 근원부에서 새 잎과 가지가 나오고 있고 직립한 줄기 사이는 가지 발달이 거의 없다. 당당하고 웅장한 모습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의로운 나무로 마을 뒷편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서 있다.

수령 650년, 수고 22m, 흉고둘레 8.0m, 수관폭 12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9(1982. 10. 15)

62. 南楊州 蓮坪里 은행나무2



사진62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2

□소재지 : 진접읍 연평리 408(지도6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연평 2리 와촌마을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이 보호수는 현소유자인 전주이씨 선조가 심었다는 마을의 정자목이다. 나무 주위로 간단한 체육시설이 설치된 넓은 공터는 원래 목장이었던 자리를 마을의 공동쉼터로 만든 것이라는데 논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밭농사로 대부분 바뀌면서 그늘에서 한가로이 쉴 틈이 없어 이전만큼 이용이 많지 않다고 한다.

주간높이 1.5m 부위에서부터 발생한 측지들이 사방으로 고루 발달한 씩씩하고 강건한 기상으로 전체 모습은 활짝 펴진 부채모양이다. 암나무로 전에는 한해에 한 가마에서 두 가마 정도의 은행이 열렸으나 5년 전부터 다섯 가마에서 여섯 가마까지 양이 늘어 열매의 무게에 눌린 가지가 부러지기도 한다는 생산성이 높은 나무이다.

수령 250년, 수고 20m, 흉고둘레 4.5m, 수관폭 20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13(1982. 10. 15)

63. 南楊州 蓮坪里 상수리나무

□소재지 : 진접읍 연평리 160(지도6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예전에 마을 앞에 있었던 큰 보의 이름이 중보여서 중포(중보개)라 불리게 되었다는 중포마을 입구의 도로변에 서 있는 이 상수리나무는 끝가지가 고사되었지만 수세가 양호하다.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힘든 농사



지도6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위치도(성동 018)


사진6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일 틈새 마을사람들이 시원한 그늘을 찾아 모여들었던 정자목으로 전체 모습은 주간높이 1.5m 부위에서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 뻗은 줄기의 잎과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달한 타원형이다.

세로로 깊게 파인 껍질은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연륜을 보여주며 수목 아래에서 올려다 보았을 때 내부가 빈 듯하나 멀리서 보이는 외형은 풍성하다. 옆에 통행차량에 의해 가지가 부러져 고사상태에 이른 향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던 수호목으로 아마도 상수리나무는 오랜 세월 향나무의 든든한 친구였을 것이다.

진접읍을 흘러내리는 왕숙천을 따라 올라오다 연평1리 중포마을로 들어오면 마을회관앞 도로 교차지점에 서있는 이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수령 200년, 수고 20m, 흉고둘레 3.5m, 수관폭 13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14(1982. 10. 15)

64. 洪柱國 墓 및 墓碣



지도64 홍주국 묘 위치도(성동 027)

□소재지 : 진접읍 내곡리 산7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홍주국(1623~1680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豐山, 자는 國卿, 호는 泛翁 · 竹里이다. 父는 禮曹參判 洪霙, 母는 左議政 李廷龜의 딸이며, 洪萬選 · 洪萬迪의 父이다. 鄭弘溟의 문인으로, 1648년(인조

오는 얘기로는 임진왜란때 한양을 점령한 왜군이 북상 도중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곡창지대인 연평 들녘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살구와 은행의 노란색이 비슷하므로 왜군들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 촌로가 조선 살구라고 속여 왜병들이 은행의 과육을 먹게 하여 은행옴을 진영전체로 퍼지게 하였고 속은 것을 안 왜병들이 화풀이로 나무에 불을 질러 소사케 하였는데 그 후 뿌리 부분에서 새순이 솟아 이처럼 세 줄기의 직립형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암나무로 한 해 평균 3~4말 정도를 수확하는데 열매의 굵기가 작아 생산성은 없으며 주간과 근원부에서 새 잎과 가지가 나오고 있고 직립한 줄기 사이는 가지 발달이 거의 없다. 당당하고 웅장한 모습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의로운 나무로 마을 뒷편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서 있다.

수령 650년, 수고 22m, 흉고둘레 8.0m, 수관폭 12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9(1982. 10. 15)

62. 南楊州 蓮坪里 은행나무2



사진62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2

□소재지 : 진접읍 연평리 408(지도6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연평 2리 와촌마을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이 보호수는 현소유자인 전주이씨 선조가 심었다는 마을의 정자목이다. 나무 주위로 간단한 체육시설이 설치된 넓은 공터는 원래 목장이었던 자리를 마을의 공동쉼터로 만든 것이라는데 논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밭농사로 대부분 바뀌면서 그늘에서 한가로이 쉴 틈이 없어 이전만큼 이용이 많지 않다고 한다.

주간높이 1.5m 부위에서부터 발생한 측지들이 사방으로 고루 발달한 씩씩하고 강건한 기상으로 전체 모습은 활짝 펴진 부채모양이다. 암나무로 전에는 한해에 한 가마에서 두 가마 정도의 은행이 열렸으나 5년 전부터 다섯 가마에서 여섯 가마까지 양이 늘어 열매의 무게에 눌린 가지가 부러지기도 한다는 생산성이 높은 나무이다.

수령 250년, 수고 20m, 흉고둘레 4.5m, 수관폭 20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13(1982. 10. 15)

63. 南楊州 蓮坪里 상수리나무

□소재지 : 진접읍 연평리 160(지도6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예전에 마을 앞에 있었던 큰 보의 이름이 중보여서 중포(중보개)라 불리게 되었다는 중포마을 입구의 도로변에 서 있는 이 상수리나무는 끝가지가 고사되었지만 수세가 양호하다.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힘든 농사



지도6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위치도(성동 018)



사진6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일 틈새 마을사람들이 시원한 그늘을 찾아 모여들었던 정자목으로 전체 모습은 주간높이 1.5m 부위에서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 뻗은 줄기의 잎과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달한 타원형이다.

세로로 깊게 파인 껍질은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연륜을 보여주며 수목 아래에서 올려다 보았을 때 내부가 빈 듯하나 멀리서 보이는 외형은 풍성하다. 옆에 통행차량에 의해 가지가 부러져 고사상태에 이른 향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던 수호목으로 아마도 상수리나무는 오랜 세월 향나무의 든든한 친구였을 것이다.

진접읍을 흘러내리는 왕숙천을 따라 올라오다 연평1리 중포마을로 들어오면 마을회관앞 도로 교차지점에 서있는 이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수령 200년, 수고 20m, 흉고둘레 3.5m, 수관폭 13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14(1982. 10. 15)

64. 洪柱國 墓 및 墓碣



지도64 홍주국 묘 위치도(성동 027)

□소재지 : 진접읍 내곡리 산7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홍주국(1623~1680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豐山, 자는 國卿, 호는 泛翁 · 竹里이다. 父는 禮曹參判 洪霙, 母는 左議政 李廷龜의 딸이며, 洪萬選 · 洪萬迪의 父이다. 鄭弘溟의 문인으로, 1648년(인조


사진64 홍주국 묘

26) 진사시에 합격하고 1662년(현종 3) 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主書 · 持平을 거쳐 1671년 副應敎가 되고 이어 世子侍講院의 벼슬을 지냈다. 그후 掌令으로 있을 때 임금이 溫泉에 행차하려 하자 중국의 예를 들어 행차를 중지하도록 간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674년(숙종 즉위) 禮曹參議가 되었으나 제2차 服喪問題가 일어나자 大功制를 주장하여 南人들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가 1680년 庚申大黜斥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다시 기용되어 安岳縣監이 되었다.

묘역은 진접읍 내곡리 현창마을 뒷산 풍산홍씨 묘역의 제일 위에 東向하여 숙부인 덕수이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4각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과 墓表를 갖추고 있다. 망주석은 높이 152㎝로 앙화와 안상문을 조각하였으며, 문인석은 높이 170㎝로 머리부분이 62㎝인 전형적인 17세기 양식으로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이 길쭉한 형태이다. 墓表는 봉분 좌측에 위치하여 비좌와 비신 월두형이다. 비좌는 4면에 파도문과 상부에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단판복련을 조각하였다. 비신은 검게 탈색이 되어 있는데, 비신의 前面에 3열로 "朝鮮禮曹參議知製敎洪公柱國之墓 淑夫人德水李氏祔"라 써 있다. 전체적으로 비신의 규모에 비해 비좌가 넓은 편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30㎝ · 너비 130㎝ · 두께 70㎝, 비신 높이 140㎝ · 너비(上) 56㎝ · 너비(下) 54㎝ · 두께 29㎝이다.

墓碣은 묘역 아래에 北向하여 민무늬 비좌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4면 상단에 篆書로 "禮曹參議知製敎洪公墓碣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通政大夫禮曹參議知製敎洪公墓碣銘 并序"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송시열이 찬하고, 輔國崇祿大夫行 判敦寧府事 李井英이 쓰고,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김수항이 전액하였다.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 19年丙子 11月 20日 개장後 6年壬子 8月 즉 1732년(영조 8)에 세워진 것이다. 묘갈은 전체적으로 비신이 넓고 두툼하며, 옥개석은 비신 규모에 비해 넓고 지붕이 얕으며 '一' 자인 처마면은 두께 16㎝로 두툼하다.

크기는 비좌 높이 33㎝ · 너비 154㎝ · 두께 96㎝, 비신 높이 187㎝ · 너비 92㎝ · 두께 44㎝, 옥개석 높이 60㎝ · 너비 111㎝ · 두께 53㎝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65. 洪萬迪 墓 및 墓碣


사진65 홍만적 묘갈(비좌와 옥개석은 최근에 보수했다)

□소재지 : 진접읍 내곡리 산71(지도6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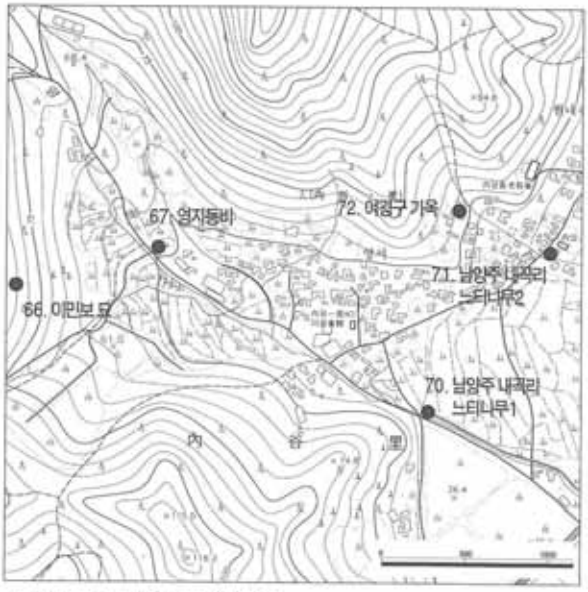
홍만적(생몰년 미상)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豐山, 자는 士吉, 호는 臨湖, 父는 洪柱國이며, 實學者로 유명한 洪萬選이 그의 아우이다. 그의 집안은 당대의 명문가로서 증조와 조부 양대가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숙종 때 進士試에 합격하고 1705년(숙종 31) 佐郎으로서 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07년 正言 · 文學을 거쳐 持平이 된 뒤 다시 文學이 되었다. 이듬해 다시 지평 · 정언을 거쳐, 이어 부제학 趙泰耆의 추천으로 弘文錄에 들었다. 저서로는 『臨湖遺稿』가 있다.

묘역은 진접읍 내곡리 현창마을 뒷산 풍산홍씨 묘역 내의 父 홍주국 묘역 아래에 東向하여 있으며 정부인 경주이씨와의 합장묘인데 근래에 새로 조성한 것이다. 원형의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과 새로 만든 묘표가 있다. 문인석은 높이 170㎝의 金冠朝服形이며 머리부분이 65㎝로 길쭉한 편이며 얼굴의 눈은 감고 있다. 유난히 입이 작고 입술을 두툼하게 표현하였다. 17세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墓碣은 묘역 좌측(북쪽)에 위치하여 東向하고 있으며, 근래에 새로 비좌와 옥개석을 만들어 올렸다. 황색을 띠고 있는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후 2면에 걸쳐 상단에 篆書로 "司憲府持平洪公墓碣"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洪公墓碣銘 并序"이다. 비문은 甥姪 嘉善大夫 漢城府右尹 李秉淵이 序하고, 輔國崇祿大夫兼吏曹判書 尹淳이 銘하고, 아들 通政大夫 洪重一이 書하였으며, 재종증손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洪鳳漢이 刻하였다. 비문은 부분적 마모가 심하여 확인이 곤란하고, 모서리 부분에 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99㎝ · 너비 76㎝ · 두께 38.5㎝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66. 李敏輔 墓 및 墓碣



지도66 이민보 묘 위치도(성동 027)


사진66 이민보 묘

□소재지 : 진접읍 내곡리 산49-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민보(1720~1799)는 조선 중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延安, 자는 伯訥, 호는 豐墅 · 常窩, 부제학 端相의 증손이며, 이조참판 喜朝의 손자이다. 대사간 亮臣의 아들로 당숙인 군수 崇臣에게 입후하였다. 이조판서 始源과 肇源의 아버지이다. 진사시에 합격한 후 문음으로 세자익위사의 東宮僚屬에 임명되었고, 장악원정을 거쳐, 1788년(정조 12) 왕의 특명으로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1790년 호조참판에 제수되었고, 1791년 공조판서로 승진하여 장악원 제조를 겸임하였다. 이때 『龍飛御天歌』 · 『樂學軌範』 등의 종묘 樂章을 분류,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1791년 照訖講 시관으로 임명된 尹永僖가 부정에 개입되었다는 혐의로 의금부에 하옥되었을 때, 의금부당상으로서 치죄를 잘못한 과실로 파주목사로 좌천되었다가 이듬해 형조판서로 기용되었다. 오위도총관을 거쳐 1795년(정조 19) 정1품인 輔國崇祿大夫에 올랐다. 蔭官으로서 보국숭록대부에 오른 것은 조선초의 黃喜의 아들 守身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그 뒤 명예직으로 판돈녕부사 · 판중추부사의 자리에 있었다. 저서로는 『豐墅集』 18권과 노론의 시각에서 당쟁을 논한 『忠逆辨』이 있다. 시호는 孝貞이다.

묘역은 진접읍 내곡리 영서마을 뒷편의 나지막한 구릉으로 가파른 경사면 위에 東向하여 있으며 정경부인 달성 서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계체석 · 4각향로석 · 8각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상석은 4방에 고리모양이 양각된 고석 위에 놓여 있으며, 크기는 높이 46㎝ · 너비 139㎝ · 두께 87㎝이다.

墓碣은 봉분 우측(남쪽)에 위치하여 北向하고 있다. 민무늬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朝鮮行判敦寧府事兼刑曹判書李公敏輔之墓貞敬夫人達城徐氏祔左"라 써 있다. 비문은 아들 嘉善大夫 京畿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 李始源이 記하고, 嘉善大夫 前任 兵曹參判 李肇源이 書하였으며, 건립연대는 閼逢 5年癸亥(1803년, 1863년, 1923년) 4월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42㎝ · 너비 100㎝ · 두께 70㎝, 비신 높이 147㎝ · 너비 57㎝ · 두께 27㎝, 옥개석 높이 45㎝ · 너비 102㎝ · 두께 73㎝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사진67 영지동비

67. 靈芝洞碑

□ 소재지 : 진접읍 내곡리 308(지도66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비
□ 내　용

영지동비는 진접읍 내곡리 영서골 소로변 높이 230㎝, 두께 150㎝ 가량의 화강암 바위 위에 가로 38㎝, 세로 18㎝의 직방형 홈을 파고 北向하여 꽂아져 있다. 약간 앞으로 숙여져 있는 상태이며 "영지동"이라는 해서체의 글자가 세겨져 있다. 洞名을 알리는 표석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68. 太極亭



사진68 태극정(조선 현종대의 문신인 李端相이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다)

□소재지 : 진접읍 내곡리 474(지도5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정자
□내 용

태극정은 진접읍 내곡리를 지나는 47번 도로상에 인접하여 밤섬유원지 내에 위치하는데, 조선 현종대의 문신인 李端相(1628~1669)이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 연구에 힘쓰던 곳이다. 이단상은 조선 중기 문인이자 학자로 자는 幼能, 호는 靜觀齋 · 西湖로 본관은 延安, 月沙 李廷龜의 손자이자 李明漢의 아들이다.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남양주 수석동의 석실서원에 제향되었다.

현재 태극정은 유원지 내의 출렁다리를 건너 강쪽을 바라보며 북동향하고 있다. 원래의 태극정은 소실되어 없어지고 원 위치에서 4m 아래에 정면 2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1972년 새로 중건한 것이다. 128㎝×148㎝×152㎝의 축대를 기반으로 39㎝×171㎝×38㎝의 긴 장초석 위에 빨간색으로 단장을 하여 놓았는데, 소나무 판자 현판에는 파란색의 "太極亭"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또 우측에는 1972년 壬子 6月 9日의 건립연기 및 松岩 호가 작게 새겨져 있다.

아울러 정자 뒤로는 작은 우물이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69. 雙樹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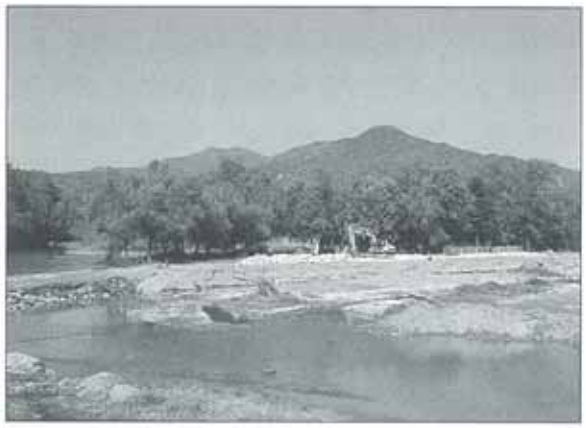


사진69 쌍수역

□소재지 : 진접읍 내곡리 473(지도5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쌍수역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東國輿地志』의 郵驛條에는 쌍수역은 풍양현의 남쪽 2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주군읍지』에는 "주 동쪽 별비곡면에 있으며 40리 거리이다. 관북통로이다. 말 8필이 있다. 평구역에 속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여지도서』에는 "별비곡면에 있으며 동으로 40리 거리이다. 관북국간로이며 평구역에 속하였다. 말 8필에 吏奴가 48명이 있었으며, 婢는 3명이 있었다"고 하였다. 현재 역의 위치는 내곡리 역말근처로 추정된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동국여지지』·『양주군읍지』·『여지도서』

70. 南楊州 內谷里 느티나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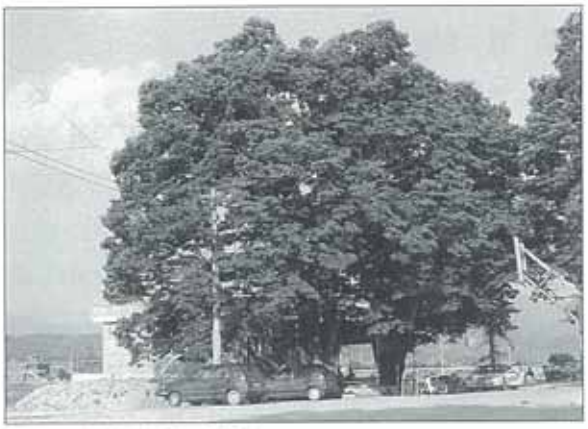


사진70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1

□소재지 : 진접읍 내곡리 132-10(지도6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내곡 1리 영서마을의 두 그루 느티나무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은 복개가 되었지만 전에는 평화로운 농촌정경 속의 한 장면처럼 커다란 느티나무와 개울이 흘러 1960년대 영화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았던 곳이라고 한다. 이 나무들은 화재로 소실되기 전까지 「벙어리 삼룡이」, 「상록수」 등의 영화촬영을 기념하기 위한 가건물이 세워져있던 맞은편 느티나무와 함께 마을사람들의 자랑거리인 보호수이다.

우측의 나무는 주간높이 1m 부위에 15㎝×5㎝, 깊이 7㎝의 동공이 발생되어 있고 굵게 세 갈래로 갈라져 사방으로 고루 퍼진 원정형의 모습이며, 흉고둘레 3.7m에 달하는 좌측의 나무는 주간높이 1.5m부위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수형이 형성되어 있다.

나무에 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가 전해내려오며 그네를 매어 탔던 마을의 정자목으로 두 나무가 함께 이루는 모습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수관이 형성되어 상층된 내부가지는 발달이 거의 없으나 반대방향으로의 가지와 잎의 발달이 많아 전체 모습은 풍성하고 넉넉하다.

47번 국도를 타고 포천방향으로 진행하다 내곡 1리 영서마을을 찾아 들어오면 마을 입구 경로당 앞에 하부에 넓직한 평상이 설치되어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두 그루의 느티나무를 볼 수 있다.

수령 220년, (大)수고 20m, 흉고둘레 3.9m, 수관폭 12m, (小)수고 20m, 흉고둘레 3.7m, 수관폭 14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15(1982. 10. 15)

71. 南楊州 內谷里 느티나무2



사진71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2

□소재지 : 진접읍 내곡리 363-25(지도6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47번 국도가 멀리 내려다보이는 마을 입구 언덕위에 서 있는 이 느티나무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작지만 수관이 잘 발달된 또 한 그루의 느티나무와 함께 터널을 이루고 있다. 휘어져 올라간 주간은 높이 2m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으며 이 중 도로쪽으로의 줄기는 끝부분이 마르고 내부가지가 적으나 전체적으로 잎과 가지가 고루 발달된 풍성한 원정형의 모습이다.

전에는 나무에 그네를 매어타기도 했으며 하부에 정

자와 의자가 갖추어진 원내곡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오가는 이들의 이용이 잦은 정자목이다. 이 나무를 만나려면 47번 국도를 타고 퇴계원에서 포천방향으로 진행하다 밤섬유원지에 이르기 전 내곡4리 원내곡마을로 들어오면 된다.

수령 220년, 수고 11m, 흉고둘레 4.0m, 수관폭 10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16(1982. 10. 15)

72. 呂卿九家屋



사진72 여경구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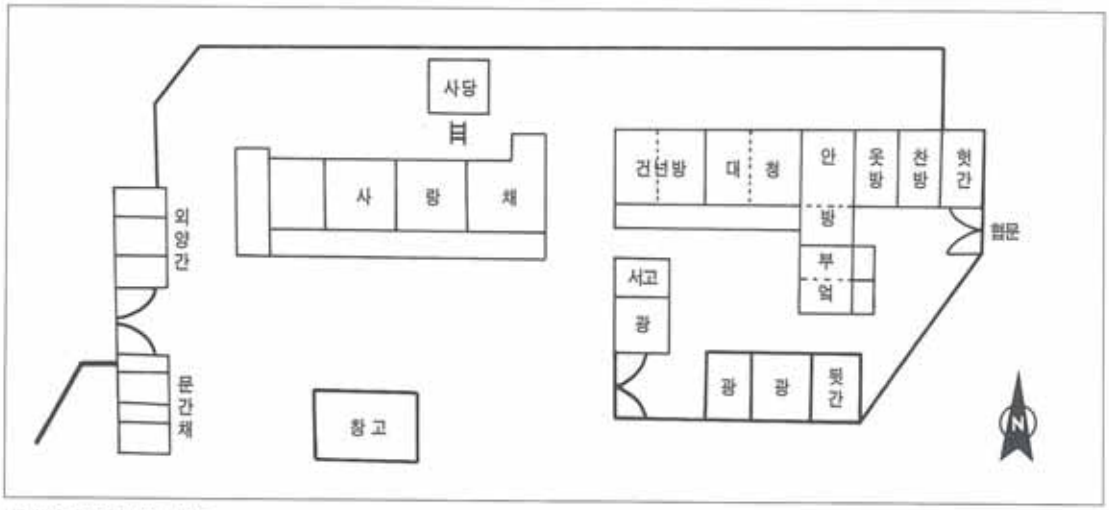
□소재지 : 진접읍 내곡리 286(지도6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古家

□내　용

여경구 가옥은 이 집의 소유자인 여경구씨의 장인 이덕승씨의 8대조가 약 250년 전에 지었다고 전하는데, 대략 18세기의 기법과 형상인 것으로 조사 · 보고되고 있다. 집의 평면은 '日' 자형으로 西南向하여 배치되어 있다. 동남쪽에 안채를 놓고, 그 옆 서북쪽에 사랑채를 두었으며, 다시 서북쪽에 문간채를 두어 가옥의 측면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건물이 연결되지 않고 각각 떨어져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안채 건물은 자연석으로 기단을 높이 쌓은 위에 T자형 평면으로 안방과 대청 및 건넌방, 부엌, 곁방 등을 배치하였는데, 그 맞은편 서남쪽에는 S자형 평면의 곳간과 중문간이 있어 결국 안채의 구역은 ㄷ자형 배치를 이루었다. 사랑채는 일자집의 본채건물과 서남쪽에 ㄴ자형 평면의 대문간 및 헛간채를 두어 역시 ㄷ자형 배치를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사랑마당 남쪽 모퉁이에 중문간을 두어 출입을 하고, 또 사랑건물 바로 옆에 협문을 두어 안채로 통하게 했다. 자연석을 평평히 놓아 짠 건물의 가구는 비교적 소박한 홑처마 남도리집으로 꾸며졌다. 안채와 사랑채는 5량집으로 올리고 사당은 옆에 툇간을 둔 1고주 4량으



도면72 여경구가옥 평면도

로 꾸몄으며, 특히 측면의 火防場은 자연석과 기와를 이용하여 아름답게 쌓았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 향토문화총서 3, 1997.



사진73-2 광릉 무인석

73. 光陵



지도73 광릉 위치도(포천 098)



사진73-1 광릉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산100-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광릉은 제7대 世祖와 貞熹王后 尹氏의 능이다. 세조는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의 둘째 아들로 太宗 17年(1417)에 출생하여 晋平大君으로 封하여 졌고, 이후 咸平 · 晋陽 · 首陽大君 등으로 改封되었다. 문종 昇遐 후 어린 端宗이 卽位하자 그 補佐勢力인 金宗瑞, 皇甫仁 등을 죽이고 왕위경쟁자가 될 듯한 安平大君을 江華로 流配시킨 다음 領議政府事經筵書雲觀事 겸 兵曹判書로 軍國의 大權을 장악한 뒤 1455년 마침내 유약한 단종을 逼迫하여 禪位의 敎書를 내리게 하여 王位에 올랐다.

세조는 在位기간 동안 군제 정비로 국방의 강화와 書籍纂刊, 토지제도 및 관제 개혁 등 볼만한 治績이 많았으나 晩年에는 王位簒奪에 대한 깊은 苦惱로 佛門에 歸依함이 두터웠다. 왕은 왕위 14년 9月 病勢가 악화되자 睿宗에게 傳位하고 春秋 52세로 승하하였다.

王妃 貞熹王后 坡平尹氏는 坡平府院君 尹璡의 딸로 太宗 18年(1418) 洪川에서 출생하였다. 世宗 6年 嘉禮하여 樂浪俯大夫人에 봉하였다가 세조의 즉위와

더불어 왕비에 册封(1455)되어 1457년에 존호를 慈聖이라 하였다. 예종이 14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조선왕조에서는 처음으로 垂簾聽政을 하였으며 예종이 즉위한지 1년 2개월만에 죽자 세조의 맏아들 덕종(예종의 형)의 차남 者乙山君 成宗을 그날로 즉위시켰으며 이후에도 繼續하여서 7년 동안이나 攝政을 하였다. 成宗 14년(1483) 溫陽行宮에서 春秋 66세로 승하하였다. 소생으로 德宗, 睿宗, 懿淑公主를 낳았다.

세조의 능인 광릉은 조선시대 왕릉제도를 검소하게 바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능이다. 광릉 입구에서 능으로 들어서면 활엽수가 뻗어 있고, 홍살문을 지나면 묘도를 따라 정자각이 나오는데 정자각을 중심으로 왼쪽이 세조, 오른쪽이 정희왕후의 능이다. 정자각 우측에는 능표각이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을 동원이강이라 하며 세조의 능이 처음이다.

세조 명으로 "원과 능의 석실은 유해무익하니 석실과 沙臺石(屛石)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봉분에 병풍석을 없애고 석실을 회다짐으로 바꾸어 검약의 미덕을 보였다. 병풍석의 생략으로 신라시대 이래로 쓰여진 12지신상을 난간의 동자석주에 새겨넣었다. 이러한 착상으로 광릉에는 그림을 조각해 넣었지만 이후 조선 말기까지 문자로 12지를 표시하였으며 나중에는 24방위도 난간에 새겨 넣었다. 또 석실을 회다짐으로 하는 능제도를 바꿔 묘역조성 인부가 6천명에서 3천명으로 줄었고 석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되었다.

능 배치도 同原異岡의 새로운 형식을 취했는데 이는 두 언덕의 묘를 하나의 丁字閣으로 하는 것으로 후세의 능제에 영향을 미쳤다. 그전까지는 왕과 왕비릉을 나란히 두고자 할 때 高麗玄正陵式의 雙陵이나 世宗의 英陵式의 合葬形式을 취하였었다. 세종의 英陵이 國初 陵制를 총정리한 것이라 한다면 광릉은 국초 왕릉제의 일대개혁을 이룬 점에서 조선 왕릉제도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광릉은 곡장 대신 아담한 담을 둘렀으며, 능 앞의 석물은 이전의 능제와 비슷하다. 능에는 호석 없이 난간석주만을 둘렀으며 그 주위에 호석과 양석이 각 2쌍씩 놓여 있고, 봉분 앞에는 4개의 받침돌 위에 상석을 놓았다. 그 좌우로 망주석이 있으며, 상석 앞에 장대석이 있다. 상석 앞의 장명등은 장중한 느낌을 준다. 특히 8각석 등의 우주를 보면 보리수 열매같이 둥글둥굴한 조각을 염주 꿰듯이 이어 올려놓아 장식성이 한층 돋보인다. 높은 기단에 앙련조각과 당초문으로 화사석을 장식하고 그 위쪽으로 화창을 내었다. 상륜부는 처마에 귀꽃 등으로 장식하고, 노반과 보주로 상륜부를 장식했으며 조각이 깔끔하다. 장명등 좌우에는 문인석이 있고 그 앞에는 말석이 있다. 그 아래로 장대석을 놓고 무인석과 말석을 놓았다. 정희왕후의 능도 석물의 배치나 규모는 세조릉과 비슷하다.

또한 광릉은 신도비가 없이 능표만 존재하는데, 광릉표는 1755년(영조 31)에 세워졌으며, 장방형 대석과 병풍형 개석을 갖추고 있으며 비신은 鳥石으로 만들어졌다. 높이 148㎝, 폭 65㎝, 넓이 31.5㎝이다. 전면에는 "朝鮮國 世祖大王光陵 貞熹王后祔左岡"이라 하였다. 음기는 해서체로 세조의 시호가 기록되어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사적 제197호(1970.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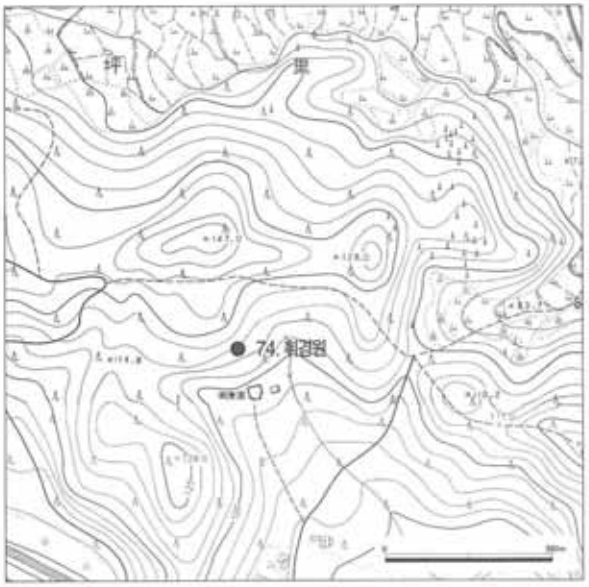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한국문원, 『왕릉』, 1995.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74. 徽慶園



지도74 휘경원 위치도(포천 098)



사진74-1 휘경원 정자각



사진74-2 휘경원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267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휘경원은 조선 제22대 정조(1777~1820)의 後宮이며, 純祖의 생모인 顯穆綏嬪朴氏의 墓이다. 수빈 박씨(1770~1822)는 1770년(영조 46) 판돈녕부사 朴準源의 셋째딸로 정조 11년 후궁 간택에 수위로 뽑혀 그해 3월 입궁하였다. 박씨는 純祖와 淑善翁主를 낳고 綏嬪에 봉해졌고, 嘉順宮에 거처하였으며 행실이 좋고 예절에 밝아 칭송을 받았다. 순조는 1790년(정조 14) 6월 昌慶宮 集福憲에서 태어나 정조 24년(1880년) 1월 세자로 책봉되었고 이해 6월 정조가 승하하자 7월에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수빈은 순조 22년(1822) 12월 창덕궁 寶瘤堂에서 별세하였다. 시호는 顯穆이다. 묘소의 이름을 徽慶이라 정한 후 양주 拜峰山(지금의 동대문구 휘경동)에 장사를 지냈다. 1855년(철종 6) 인릉의 천장지를 구하면서 휘경원도 옮기기로 하여 진접읍 내각리 順康園 뒤로 옮겼다가 1863년(철종 14) 다시 현재의 위치(부평리)로 이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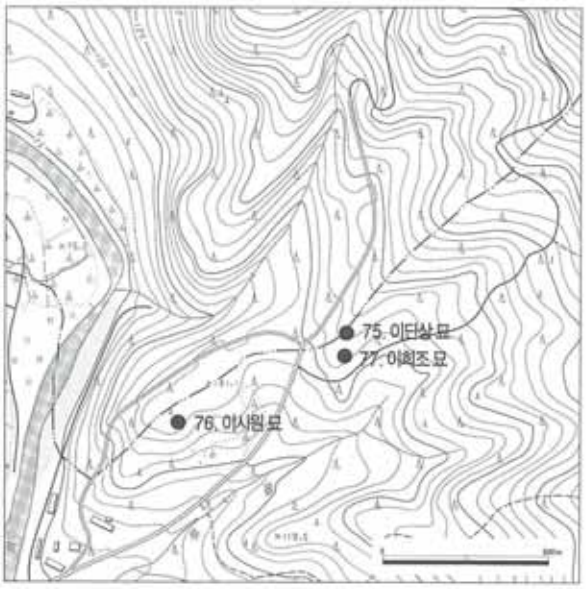
묘역의 봉분 뒤에는 곡장을 두르고 그 안에 봉분과 석물을 배치하였다. 봉분은 높이 44㎝인 24개의 호석을 원형으로 두르고 호석 밑에 받침대 모양으로 판을 놓았다. 봉분은 부분적으로 수축한 흔적이 많다. 봉분 뒤쪽 좌우의 虎石은 세밀하게 만들었으며, 그 앞 좌 · 우에 羊石은 균형미가 있다. 봉분 앞에는 귀면을 새긴 4개의 고석 위에 상석을 놓았다. 그 좌우에 있는 높이 185㎝의 망주석은 팔각 받침대에 복련을 장식하고 그 하단에 안상문을 하단에는 민무늬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만든 받침대에 상단부는 앙화를 조각하고 그 아래에 안상문을 조각하였다. 그 앞에 장대석을 놓았는데 그 앞 좌우의 문인석은 균형미가 있고 얼굴선을 상세히 하였으며 균형미가 있다. 그 앞 좌우에 있는 馬石은 목이 상대적으로 길다란 느낌을 준다. 그 중간에 장명등이 있는데, 4각 모양의 민무늬 받침대 모양을 조각하고, 그 위에 중간에 국화문양을 사방에 장식하였으

며, 그 위에 화창과 팔작지붕 형태을 이중으로 장식한 화려한 모양의 장명등이 있다.

묘역 아래에는 홍살문을 중심으로 묘도가 있고, 그 좌우의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1칸 형태이다. 다만 좌측의 것은 돌이 훼손되어 일부만 만아 있다. 그 앞 정면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정자각이 있는데 맞배지붕 형태로 우측 계단에 태극문양을 조각하고 그 좌우 옆면에 파도 문양의 구름을 조각하였다. 정자각 위 좌측에는 어수정이 있고, 우측에는 혼유석이 있다. 정자각을 우측에는 능표각이 있는데 능표는 민무늬 장방형 대석에 대리석으로 만든 비신과 옥개석 팔작지붕형태이다. 비에는 "有明朝鮮國顯穆綏嬪徽慶園"이라 써 있다.

□지도번호 : 송우 221-2
□비　　고 : 사적 제360호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지도75 이단상 묘 위치도(포천 099)


사진75 이단상 묘(조선후기의 대학자로 그의 문하에서 金昌協 · 金昌翕 · 林泳 등의 대학자가 배출되었다)

75. 李端相 墓 및 神道碑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산1-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단상(1628~1669)은 조선 후기의 학자 · 문관으로 본관은 延安, 자는 幼能, 호는 靜觀齋 혹은 西湖로 좌의정 月沙 李廷龜의 손자이며 대제학 明漢의 아들이다. 1648년(인조 26) 진사시에 장원, 다음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세자시강원 설서, 예문관대교 · 봉교, 홍문관부수찬 · 교리 등의 청요직을 역임하였고, 여러 차례 知製敎를 겸하였다. 1655년(효종 6) 賜暇讀書를 한 뒤 대간에 들어가 正論을 밝혔으며, 전라도 지방에 어사로 나가 민정을 두루 살펴 기근이 심한 고을을 구제하게 하였다. 효종의 사후 정국이 변하자 두문불출하고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잠시 청풍부사를 지냈다. 후에 홍문관응교를 거쳐 인천부사가 되었다. 1664년(현종 5) 사헌부집의가 되어 立志와 勸學에 관한 다섯 가지 조목을 상소하고 스스로 관직을 떠났다. 洪命夏, 宋浚吉, 趙復陽 등의 명사들이 학문과 덕행을 인정, 經筵官에 추천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사양하고 양주 東岡으로 은퇴하였다. 그 뒤 승지와 병조참지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669년 부제학으로 서연관을 겸하였으나 곧 사양하고 물러나 그해에 돌아갔

다. 1680년(숙종 6) 閔鼎重의 건의로 이조참판 겸 경연 · 홍문관 · 예문관 提學에 추증되었고, 후에 다시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문하에서 아들인 喜朝와 金昌協, 金昌翕, 林泳 등의 대학자가 배출되었다. 양주의 石室書院, 인천의 鶴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大學集覽」, 「四禮備要」, 「聖賢通紀」, 「靜觀齋集」 등이 있다. 시호는 文貞이다.

묘는 포천군과 남양주시의 경계지점인 진접읍 부평리 마명마을 뒷산 골프장내에 南西向하여 있으며 정부인 전의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계체석 · 직사각향로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墓碑는 봉분 우측에 東南向하여 묘를 바라보고 있는데, 장방형 비좌에 비신은 월두형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4열로 "有明朝鮮 弘文館副提學贈吏曹參判靜觀齋李先生端相之墓 貞夫人全義李氏祔左"라 써 있다. 비문은 經筵事 송시열이 찬하고, 嘉善大夫 平安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 柳尙運이 글을 썼으며, 건립연대는 1682년(숙종 8)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37㎝ · 너비 102㎝ · 두께 79㎝, 비신 높이 136㎝ · 너비 62㎝ · 두께 24㎝이다.

神道碑는 연안이씨 묘역 제일 아래에 北向하여 있는데, 비는 이단상의 묘를 옮겨오면서 같이 옮겨온 것으로 원래의 위치는 아니다. 자연석의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단순한 형태의 팔작지붕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장대석 돌을 장방형으로 다듬은 것으로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지혜가 엿보인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전후 2면에 걸쳐 상부에 篆書로 "副提學贈吏曹參判靜觀齋李先生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館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靜觀齋李先生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송시열이 찬하고, 門人 通政大夫 弘文館 副提學 김창협이 글을 썼고, 顯祿大夫 郎原君兼 五衛都摠府摠管 이전이 전을 하였다. 그리고 본래의 비문에 추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신도비를 세운 10年後인 庚寅年, 즉 1710년(숙종 36)에 본래의 자리에서 용인 文秀山 三登公 묘 앞으로 이장한 내력을 적고 있다. 아쉽게도 비신 前面에 직경 6㎝의 탄흔이 4개소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33㎝ · 너비 136㎝ · 두께 88㎝, 비신 높이 198㎝ · 너비 94㎝ · 두께 24㎝, 옥개석 높이 46㎝ · 너비 129㎝ · 두께 73㎝이다.

□ 지도번호 : 송우 221-2

76. 李始源 墓 및 墓碣



사진76-1 이시원 묘



사진76-2 이시원 묘 망주석(간주석에 문고리 문양을 양각한 특이한 양식이다)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산1-1(지도7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묘는 이단상 묘역에서 골프장을 따라 약간 좌측 아래에 있는 산 중턱에 南向하여 있으며 정부인 청풍 김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계체석, 백색 대리석 재질의 4각상석을 놓았는데 커다란 받침돌 위의 뒤쪽은 장대석을 받침대로 앞쪽은 고리 문양을 새긴 고석을 양쪽으로 놓고 그 위에 상석을 놓았다. 그 앞에 민무늬의 사각 향로석과 좌우에 높이 165㎝인 망주석이 있는데 간주석에 청솔모나 다람쥐 대신 열쇠고리 모양의 문양이 양각되어 있다. 그 앞 좌우에는 다른 일반 묘역에는 없는 羊石이 있다.

墓碣은 봉분 우측(서쪽)에 南向하여 민무늬 장방형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화려한 모양의 팔작지붕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朝鮮 吏曹判書兼藝文館提學奎章閣直提學 李公始源之墓 貞夫人淸風金氏祔左"라 써 있다. 비문은 재종숙 正憲大夫 吏曹判書兼 成均館祭酒 李直輔가 찬하고, 동생 嘉善大夫 吏曹參判兼 同知經筵春秋館事 李筆源이 글씨를 썼다. 비신 前面의 하단 우측 측면으로는 탄혼으로 직경 50㎝의 큰 파손자국이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50㎝ · 너비 110㎝ · 두께 78㎝, 비신 높이 151㎝ · 너비 58㎝ · 두께 28㎝, 옥개석 높이 43㎝ · 너비 106㎝ · 두께 77㎝이다.
□지도번호 : 송우 221-2

77. 李喜朝 墓



사진77 이희조 묘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산1-1(지도7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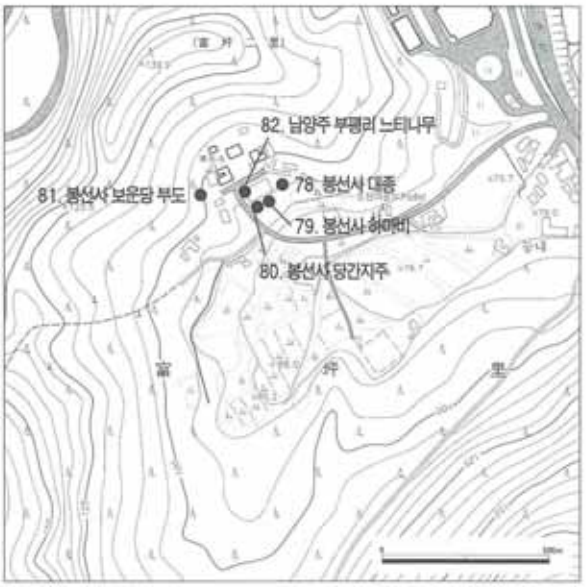
이희조(1655~1724)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同甫, 호는 芝村 · 良菴, 본관은 연안이다. 부제학 端相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全義李氏로 우의정 行遠의 딸이다. 일찍이 벼슬을 단념하고 宋時烈의 문인이 되어 학문에 전력하였다. 현종대에 영의정 許積이 권세를 잡고 宋浚吉을 배척하는 소를 올렸을 때 조정에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金壽恒에게 글을 올려 논박하자 김수항도 탄복하였다. 1675년(숙종 1) 남인들의 탄핵으로 송시열이 귀양을 간 뒤에는 양주의 芝洞에 은거하며 「大歸說」을 지었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정권을 잡자, 遺逸(재야학자)로 천거되어 健元陵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 다시 천거되어 典設司 別檢, 의금부도사, 공조좌랑을 지내고 진천현감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1689년(숙종 15) 己巳換局으로 남인 정권이 들어서고 송시열이 사사되자 벼슬에서 은퇴하였다가, 1694년(숙종 20) 甲戌獄事 후에 다시 기용되어 인천현감, 東宮書筵官,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하고 천안군수로 나가 치적을 올렸다. 그 뒤 掌樂院正을 거쳐 해주목사로 부

임하자 石潭에 栗谷 李珥의 유적을 찾아 搖琴亭을 세웠다. 또 夷齋廟에 송시열의 글씨로 편액을 달고 記文을 지어 걸었고,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의 사당을 세워 민심을 격려하였다. 1717년(숙종 43) 사헌부대사헌, 이듬해 이조참판, 세자찬선, 성균관 祭酒를 지내고 1719년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그러나 1721년(경종 1) 辛壬士禍로 영의정 金昌集 등 노론 4대신이 유배당할 때 영암으로 유배되었고, 철산으로 배소를 옮기는 도중에 죽었다. 1725년(영조 1) 노론이 다시 집권하자 신원되어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인천의 鶴山書院과 평강의 山仰齋影堂에 봉향되었다. 저서로는 『芝村集』 32권이 있다. 시호는 文簡이다.

묘는 진접읍 부평리 마명마을 매람산의 동생 이하조 묘 아래에 南西向하여 있는데 부인 안동김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앞에 혼유석 · 계체석 · 고석 두 개가 받치고 있는 상석 · 사각향로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봉분 우측에는 민무늬 비좌에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춘 墓碑가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朝鮮 贈左贊成文簡公芝村李先生喜朝之墓 夫人安東金氏祔左"라 써 있다. 비문은 中直大夫 司憲府執義 世子書筵官을 지낸 金元行이 찬하고 通訓大夫行 工曹正郎 光山 金相肅이 글을 썼다 크기는 비좌 높이 43cm · 너비 112cm · 두께 78cm, 비신 높이 141cm · 너비 62cm · 두께 32cm, 옥개석 높이 45cm · 너비 103cm · 두께 74cm이다.

□ 지도번호 : 송우 221-2

78. 奉先寺 大鐘



지도78 봉선사 대종 위치도(성동 008)



사진78 봉선사 대종

□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255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

□ 내 용

봉선사 대종은 임진왜란 이전의 작품으론 몇 안되는 조선 전기 대표적인 銅鐘의 하나로서, 1469년(예종 1)에 왕실의 명령에 따라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봉선

사의 창건시 주조되었다. 종의 형태는 상부에 音管(音筒)이 없는 雙龍으로 용뉴를 나타내고, 鐘肩에는 複瓣의 연화를 돌렸다. 그 바로 밑으로 도드라진 2가닥의 옆띠를 돌려서 종신과 뚜렷이 구분하였다.

종신의 중앙에는 굵고 가는 3가닥의 옆띠를 돌려 상하로 구분하였다. 상부에는 유곽과 보살상을 교대로 배치하였는데 4개의 유곽은 종견에서 분리되어 당초문으로 장식되었고, 그 안에 蓮華로 된 華座乳(유두) 9개씩을 각각 갖추고 있다.

이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圓形頭光을 갖추고 양손을 마주 잡은 보살입상 4구가 돋을새김으로 양각되어 있다.

또한 유곽 밑과 중앙의 옆띠 사이 공간에는 梵字가 4자씩 새겨져 있고, 보살상의 위아래 네 귀퉁이에도 같은 형식의 범자가 새겨져 있다. 鐘口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는 파도무늬로 장식된 아래띠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옆띠를 돌렸다.

그리고 이 옆띠와 중앙의 3가닥 옆띠 사이에는 당대에 시문서화의 4대가로 불리던 姜希孟(1424~ 1483)이 짓고 명필 鄭蘭宗(1433~1489)이 글씨를 쓴 장문의 명문이 "奉先寺鐘銘并書"제하에 새겨져 있어, 그 문장의 아름다움과 글씨의 유려함이 극치를 이룬다. 이 명문에서는 鑄鐘의 이유와 畵員, 鑄成匠, 彫刻匠, 注匠, 刻字木手, 爐冶匠, 水鐵匠 그리고 使令 등의 인명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 대대적인 주종공사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종의 형태는 종구가 넓어지고 종신의 橫帶, 조각수법 등에서 고려양식을 탈피하고 조선시대 범종 양식의 선례가 되는 작품으로 주목되어 왔다. 그래서 조선전기 동종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동종이며, 양식의 형식 규명에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대종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보물 제397호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건국대학교 · 남양주시 · 봉선사, 『봉선사 경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79. 奉先寺 下馬碑



사진79 봉선사 하마비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225(지도7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이 하마비는 원래 사찰 경내로 들어오는 입구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존재조차 몰랐었다. 1998년 건국대학교의 봉선사 경내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시 주차장 정비사업을 하다가 사찰입구 주차장 초입의 땅속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하마비는 2단으로 깨어진 채 출토되었는데 비신에 "大小人員皆下馬"의 비문 및 하단 馬字 부분이 2등분되어 있었다. 이 하마비의 석재는 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나 제작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크기는 높이 85㎝ · 너비 35㎝ · 두께 19㎝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건국대학교 · 남양주시 · 봉선사, 『봉선사 경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80. 奉先寺 幢竿支柱



사진80 봉선사 당간지주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225(지도7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당간지주

□내 용

당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거의 방치상태에 있었다.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당간지주는 지주 2개가 독립된 돌로 이루어지고 모두 기단에 올려져 있어서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나, 이 당간지주는 크기도 작을뿐더러 1매의 대석을 이용하여 한쪽을 깎아내어 양쪽 기둥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의 당간지주는 두 기둥사이가 완전히 뚫려 있는 것에 반하여 한쪽 면만을 깎아 냄으로써 'ㄇ'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쪽 면은 막혀있다.

기단부는 현재 일부분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데, 노출된 부분의 높이는 30㎝이다. 기둥의 높이 148㎝ · 너비 34㎝이며, 기둥과 기둥사이는 40㎝ · 전체넓이는 108㎝이다. 가로의 길이는 101㎝ · 세로는 104㎝이며, 기둥을 두기 위하여 파들어간 부분은 68㎝이다. 干口는 없고 干孔이 각 기둥에 上下로 2개씩 있다. 간공의 지름은 13㎝이고, 간공과 간공사이는 40㎝이다.

주차장 공사때 발견된 때문인지, 현재 당간지주의 표면에는 기중기에 의해 손상된 부분이 다소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건국대학교 · 남양주시 · 봉선사, 『봉선사 경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81. 奉先寺 報雲堂浮屠



사진81 봉선사 보운당부도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225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부도

□내 용

부도는 사찰의 경내 입구 진입로에 있는 큰 주차장의 길 건너편 약 5m 지점의 나지막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방형의 지대석 위에 기단부를 두고 위에 탑신을 올리고 그 위에 옥개석을 덮었으며, 최상부에 상륜을 얹었다.

지대석은 직사각형의 평평한 장대석 3매를 가지런히 놓았고 그 위에 기단을 올렸다. 기단부는 원형의 중대석과 상층기단이 있다. 중대석에는 "報雲堂壬午四年初四月"이라는 명문이 있어, 이 부도의 주인과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중대석 위에 얹혀진 원판형의 상층기단은 탑신을 받고 있는데, 측면에 仰蓮이 간략하게 선각되어 있다.

탑신부는 원구형으로 아무런 조식이 없고, 상하를 약간 평평하게 하여 각기 옥개석과 상층기단에 고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복원시의 미숙인지 현재 부도는 탑신이 중앙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어 불안한 감도 없지 않다.

옥개석은 8각형을 이루고 있다. 우동마루는 돌출된 형태를 띠면서 완만한 경사를 취하고 있으며, 처마의 합각지점에는 약간의 반전을 표현하고 있다.

상륜부는 역시 아무런 장식적 효과가 없고 보주형의 상륜이 올려져 있을 뿐이다.

이 부도는 원구형의 탑신을 갖고 있어서 남양주지역 부도의 유형이 갖는 탑신의 유형을 잘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연대는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다만 銘文으로 추측하자면, 1469년 500년만에 중창된 봉선사의 연혁을 두고 볼 때 壬午年인 1522년 이후의 것으로 생각될 따름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건국대학교 · 남양주시 · 봉선사, 『봉선사 경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82. 南楊州 富坪里 느티나무



사진82 남양주 부평리 느티나무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255(지도7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이 나무는 969년 고려 광종 20년에 창건되었고 보물 제397호 大鐘이 봉안되어 있는 奉先寺의 淸風樓 전면 경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심은 이는 알 수 없으나 사찰을 찾는 많은 이의 시선을 받고 있는 노목으로 주간높이 4m 부위에서 굵게 두 갈래로 나뉜 줄기는 잔뜩 휘어진 채 올라가고 있다. 전체모습은 마름모 형태에 가까우며 수피가 심하게 벗겨진 주간에는 이끼가 끼어있고 돌기가 발생되어 있으며 가지와 잎의 발달이 적고 수관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47번 국도를 타고 포천방향으로 진행하다 광릉수목원 방향으로 좌회전해 봉선사에 들르면 경읽는 소리에 묻힌 채 고적한 사찰의 향기를 맡고 있는 이 느티나무를 만날 수 있다.

수령 490년, 수고 20m, 흉고둘레 4.8m, 수관폭 15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11(1982. 10. 15)

83. 任中善 墓 및 墓碣



지도83 임중선 묘 위치도(성동 009)



사진83 임중선 묘

□소재지 : 진접읍 팔야리 산88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임중선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豊山이다. 고조의 휘는 澍로 어사대부이며, 증조의 휘는 字順으로 民部典書이다. 조부의 휘는 瑨으로 圓融府左司尹이며, 父는 휘가 山寶 한성부윤이고, 母는 綾城 구씨인데 대제학 文貞公 褘의 따님이다. 이조판서로 관직에 있을 때 청렴하여 영의정 河演이 높이 평가하였다.

묘는 진접읍 팔야리 끝잿말 모선재 뒷산에 西向하여 있다. 봉분 뒤에 활개를 갖추고 있고, 그 앞에 사각형의 봉분을 만들었는데, 하단에 높이 21㎝의 호석을 특이하게 앞뒤로만 놓았다. 봉분의 크기는 높이 220㎝, 前後 직경 560㎝, 左右직경 590㎝이다. 앞에는 혼유석 · 계체석과 열쇠문양을 양각한 고석 2개를 받침대로 상석 및 사각 향로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문인석은 높이 138㎝로 幞頭이며 일자형의 통비형태로 마모가 심하다. 2단의 계체석간 430㎝의 간격을 두고 있다.

墓碣은 향로석 우측(북쪽)에 南向하여 민무늬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 · 後 · 左 3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贈自憲大夫吏曹判書行 判撫山縣事任公中善之墓 贈貞夫人淸州韓氏祔左"라 써 있다. 비문은 후손 任柄宰가 찬하고, 승록대부 전판돈령원사 해평 尹用求가 썼으며, 건립연대는 1860년(철종 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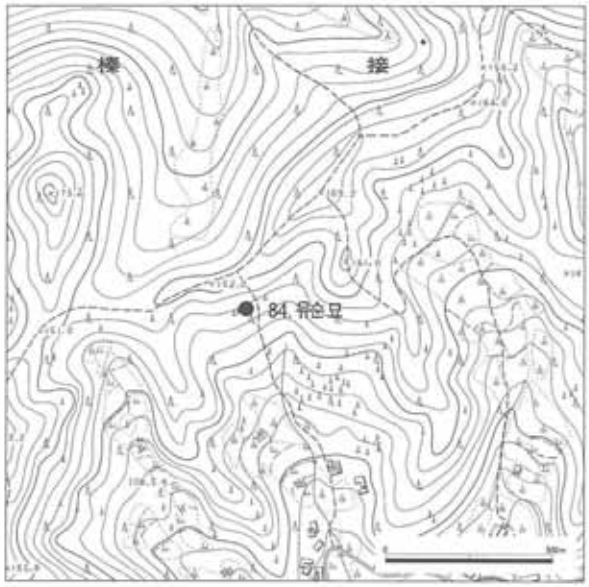
규모는 비좌 높이 48㎝ · 너비 95㎝ · 두께 73㎝, 비신 높이 123㎝ · 너비 50.5㎝ · 두께 21㎝, 옥개석 높이 44㎝ · 너비 87㎝ · 두께 63㎝, 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84. 柳洵 墓 및 墓碣

□소재지 : 진접읍 팔야리 산110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유순(1441~1517)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文化, 자는 希明, 호는 老圃堂로 세자익위사 洗馬 思恭의 아들이다. 母는 洪尙直의 딸이다. 19세에 사마시(생원)에 장원하고, 이어서 1461년(세조 7) 별시문과에 급제, 홍문관부제학으로서 경연 侍講官으로 활약하였다.



지도84 유순 묘 위치도(포천 099)



사진84-1 유순 묘



사진84-2 유순 묘갈



사진84-3 유순 묘의 동자석

1484년(성종 15) 공조참판을 거쳐 사헌부대사헌, 형조참판이 되었다. 1487년 千秋使로 明에 다녀온 뒤 동지중추부사 · 형조참판 · 공조참판 · 병조참판을 두루 역임하고, 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그 뒤 개성유수를 거쳐 공조판서에 승진하였다. 성종의 사후 山陵都監提調로서 왕릉 축조를 감독하였고, 연산군 초 형조판서로 전임하여 知春秋館事 · 同知經筵事를 겸임하였다. 이후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1502년에는 시문에 능한 10인에 선발되어 詩首相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하였다. 연산군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자 관직을 사직하려 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고, 우의정 · 좌의정을 거쳐 1505년(연산군 11년) 65세의 나이에 영의정에 올랐다. 그 이듬해에 朴元宗 · 成希顔 · 柳順汀 등이 中宗反正을 단행하자, 그는 수상으로서 靖國功臣 2등에 녹훈되고 文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후 대간으로부터 연산군대의 寵臣이었다는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1514년(중종 9)에 다시금 영의정을 제수받아 국정을 총괄하다가 3년 뒤 77세로 돌아갔다. 字學에 매우 정밀하고 의학 · 지리학에도 조예가 있었다. 시호는 文僖이다.

묘는 진접읍 팔야리 독점말에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여 정경부인 장씨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은 근래에 새로 조성하였으나 석물은 옛날 그대로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고, 그 앞에 상석 · 계체석 · 6각향로석 · 동자석 · 8각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童子石은 높이 120㎝로 두 손바닥을 모아 무언가를 바치려는 모습인데 중간에 지름 7㎜의 작은 구멍이 뚫려있다. 망주석은 높이 195㎝로 우람한 느낌마저 드는데 4각대석에 안상문과 복련을 장식하고 석주에는 꽃모양과 앙화를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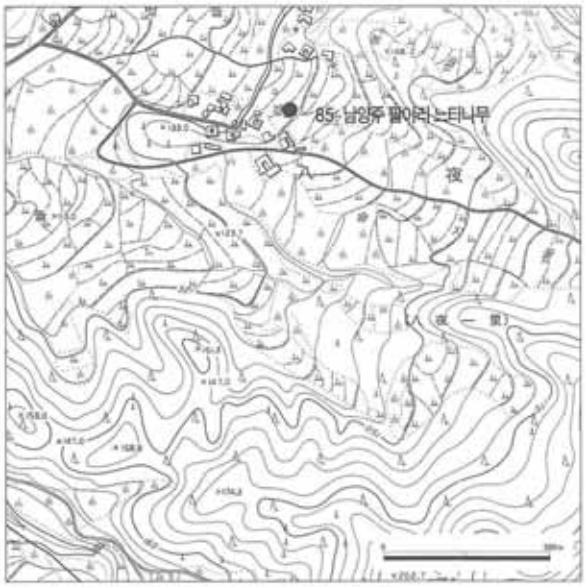
墓碣은 봉분 좌측(동쪽)에 西向하고 있는데, 총 길이는 193㎝로 검게 탈색이 되어 있으며, 안상문과 단판복련을 장식한 장방형 비좌에 화강암의 비신 및 이수형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 · 後 · 左 3면에 있으며, 후면 상단에는 篆書로 "文僖公墓碑碣名"이라 횡서했으며, 前面에는 4열로 "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文城府院君 贈諡文僖公柳洵墓 貞敬夫人張氏"라 써 있다. 아울러 비의 좌측 측면에는 "無屯山八夜子坐午向"이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晋川君 姜渾이 찬한 것이며,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이수는 앞뒤로 구름속에 각각 발가락이 4개인 雙龍이 여의주를 움켜잡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 前面의 左龍은 입을 벌린 반면 右龍은 입을 다물고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46㎝ · 너비 115㎝ · 두께 60㎝, 비신 높이 140㎝ · 너비 70㎝ · 두께 17.5㎝이다.

□지도번호 : 송우 221-2

□참고문헌

포천군지편찬위원회, 『포천군지』하, 1997.



지도85 남양주 팔야리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10)



사진85 남양주 팔야리 느티나무

85. 南楊州 八夜里 느티나무

□소재지 : 진접읍 팔야리 160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47번 국도를 타고 구리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여 진벌 제1교를 지나 팔야리로 약 2.3㎞ 진입하면 검단마을에 이르게 된다. 검단마을을 지키고 있는 웅장한 자태의 이 느티나무는 나지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평화로운 정경의 마을 뒷편, 습기많은 밭가운데 서 있다.

울퉁불퉁한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역동감있는 주간에는 직경 95㎝, 깊이 1m 정도의 커다란 동공이 생겨 있어 치료가 필요하며 주간높이 2m 부위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줄기는 사방으로 잎과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원정형의 넉넉하고 풍성한 수관을 형성하고 있다. 고사된 굵은 가지와 그네가 매달려 있는, 여름철 시원

한 그늘을 찾는 마을사람들의 휴식처로 무성하고 울창한 잎을 자랑하며 서있다.

수령 350년, 수고 23m, 흉고둘레 4.7m, 수관폭 26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10(1982. 10. 15)

86. 韓尙敬 墓



지도86 한상경 묘 위치도(성동 019)



사진86 한상경 묘

□소재지 : 진접읍 금곡리 산125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한상경(1360~1423)는 고려말 조선초의 문관으로 개국공신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淸州, 자는 叔敬·敬仲, 호는 信齋로 고려 호부상서 公義의 손자로 判厚德府事 脩의 아들이다. 母는 안동권씨로 吉昌君 權適의 딸이다. 고려조에 司膳署令에 임명되고 文科에 제3인으로 뽑혀 禮義佐郎에 임명되었으며 右正言, 田理正郎, 藝文應敎, 工部摠郎, 宗簿令, 密直司右副代言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李成桂를 왕으로 추대하는 모의에 가담하고, 옥새를 받들어 이성계에게 바쳤다. 그 공으로 개국공신 3등에 녹훈되고 西原君에 봉해졌다. 조선개국시에 翊戴開國功臣이란 칭호를 받았다. 이후 中樞院都承旨, 推忠翊戴開國功臣, 簽書中樞院事, 都評議司使, 충청도 도관찰사가 되고, 西原君에 책봉되었다. 또 경기좌도관찰사, 參知議政府事, 豊海道·江原道觀察使, 공조판서, 知議政府事, 사헌부大司憲, 호조판서, 參贊議政府事,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西原府院君, 議政府 右議政과 영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文簡이며, 子는 韓惠이다.

묘는 진접읍 금곡 3리 범밭골과 가마솥골로 둘러 쌓인 나지막한 구릉에 부인 오씨의 묘와 南西向하여 앞뒤로 나란히 있고, 바로 앞에는 양원자동차학원이 있다. 원형의 봉분은 높이 170㎝로, 하단에 높이 60㎝의 호석을 최근에 다시 만들었다. 봉분 앞의 상석은 흑적색으로 탈색이 되어 있는데, 높이 25㎝·너비 135㎝·두께 75㎝이다. 墓表는 봉분 좌측에 위치하여 받침대에 비신 연화형으로, 상부의 연봉 부분이 없어지고 글씨가 마모가 되어 판독하기 힘들다.

비신의 비문은 전후 2면비로, 크기는 비좌 높이 11㎝·너비 81㎝·두께 46㎝, 비신 높이 100㎝·너비 58㎝·두께 14㎝, 이수 높이 31㎝·너비 73㎝·두께 16㎝이다. 상석 앞 좌·우에는 높이 165㎝인 幞頭의 문인석이 있으며, 그 가운데의 장명등은 사각 모양의

대석을 하고 'ㅁ' 자형의 화창을 전후로 두 개 만들었으며 그위에 팔작지붕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다. 팔작지붕은 새로 조성한 것이다. 사당 앞에 새로 묘정비와 신도비를 세웠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87. 韓尙敬祠堂



사진87 한상경 사당

□소재지 : 진접읍 금곡리 789(지도8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당

□내 용

조선초의 개국공신인 한상경을 모신 사당으로 금곡 3리 마을내에 있다.

한상경(1360~1423)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관으로 개국공신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淸州, 자는 叔敬 · 敬仲, 호는 信齋로 고려 호부상서 公義의 손자이자 判厚德府事 脩의 아들이다. 母는 안동권씨로 吉昌君 權適의 딸이다. 그는 李成桂를 왕으로 추대하는 모의에 가담하고, 옥새를 받들어 이성계에게 바쳤다. 그 공으로 개국공신 3등에 녹훈되고 西原君에 봉해졌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형태로 사당 안에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6호인 신제 한상경 영정의 모사품이 걸려 있다. 한상경 영정은 1998년에 지정된 것으로 현재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사당 앞에는 새로 묘정비와 신도비를 세웠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88. 韓惠 墓



사진88 한혜 묘 봉분 후면(길다란 용미를 갖추고 있다)

□소재지 : 진접읍 금곡리 산125(지도8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한혜(1403~1431)는 조선 초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淸州이며 호는 松齋이다. 개국공신 西原府院君 영의정 韓尙敬의 아들이며 이조판서 韓繼禧의 父이다. 1423년 父 한상경의 사후, 부친의 공신 봉작을 승습하여 淸山君에 봉해졌다.

묘는 금곡리 가마솥골의 청주한씨 묘역이 있는 나지막한 구릉 중턱에 南西向하여 있으며 貞敬夫人 星州李氏와의 합장묘이다. 전체적으로 고려식 묘역제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봉분은 높이 280㎝의 대형으로 5매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길이 710㎝의 호석을 앞에 놓았다. 전체적인 모습은 직사각형을 띠나, 봉분 뒤로 올챙이 꼬리를 연상하는 길다란 용미를 두었다.

봉분 앞에는 높이 20㎝ · 너비 135㎝ · 두께 85㎝의 상석이 높이 78㎝ · 길이 1,060㎝의 2단장대석 위에 얹혀져 있고, 향로석은 장대석 밑에 있다. 봉분 좌우의 문인석은 높이 154㎝로 얼굴부분이 50㎝인 길쭉한 계란형이다.

한혜 묘의 바로 밑에는 정경부인 창녕성씨의 묘가 있는데, 봉분은 한혜 묘와 같이 앞에만 호석을 놓고 봉분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이다. 봉분 앞에는 상석 · 장대석 · 문인석 · 향로석이 있다. 한혜 묘와 부인 창녕성씨 묘역 사이의 좌측에 있는 묘표는 상부 연봉을 갖춘 고깔형의 고려식 형태로 총높이 175㎝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모되었다. 前面에 2열로 "嘉善大夫咸吉道觀察使韓公之墓 貞夫人成氏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6㎝ · 너비 94㎝ · 두께 56㎝, 비신 높이 109㎝ · 너비 61㎝ · 두께 14㎝, 이수 높이 50㎝ · 너비 79㎝ · 두께 18㎝이다. 아울러 묘역 좌측 아래편에 새로 만든 묘표석이 있는데, 비 前面에 "贈領議政西原府院君行嘉善大夫咸吉道觀察使兼咸興府尹韓公之墓 贈貞敬夫人星州李氏祔 贈貞敬夫人昌寧成氏下兆"라 써 있다. 신도비는 사당 앞에 새로 세웠다.

부인 창녕성씨 묘 아래에는 높이 120㎝ · 직경 380㎝의 부장품을 묻은 부장묘가 하나 더 있는 것이 특징이다. 봉분은 부인 묘 아래에 장대석을 놓고 그 아래에 조성하였는데 위의 묘와 같이 앞에만 호석을 놓았다. 아직 그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89. 韓繼純 墓 및 墓碣



사진89 한계순 묘갈(상부 연봉장식의 화관석이 특이하다)

□소재지 : 진접읍 금곡리 산125(지도8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한계순(1431~1486)은 조선 초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淸州, 자는 粹翁, 시호는 襄平이다. 개국공신 尙敬의 손자이며 함길도관찰출척사 惠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成達生의 딸이다. 예종대에 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데 공을 세워 輸忠保社炳幾靖難翊戴功臣 1등에 책록되고 淸平君에 봉하여졌다.

묘는 한상경 묘에서 동쪽으로 100m의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정경부인 안동 권씨와의 쌍분으로 南西向하여 앞뒤로 나란히 있다. 봉분 앞에는 1486년(성종 17)에 세운 묘표가 있는데, 고려 양식으로 총높이 115㎝이다. 비좌에 비신 및 연화문을 새긴 이수형이다. 크기는 비신 높이 74㎝ · 너비 48㎝ · 두께 21㎝, 이수 높이 41㎝ · 너비 59㎝ · 두께 25㎝이다. 그 앞에 상석 · 문인석 · 장명등의 석물이 있다. 이중 문인석은 높이 200㎝로 幞頭의 머리 부분이 68㎝이며, 유난히 큰 눈이 특징이다. 장명등은 높이 190㎝로 간주석의 사방에 화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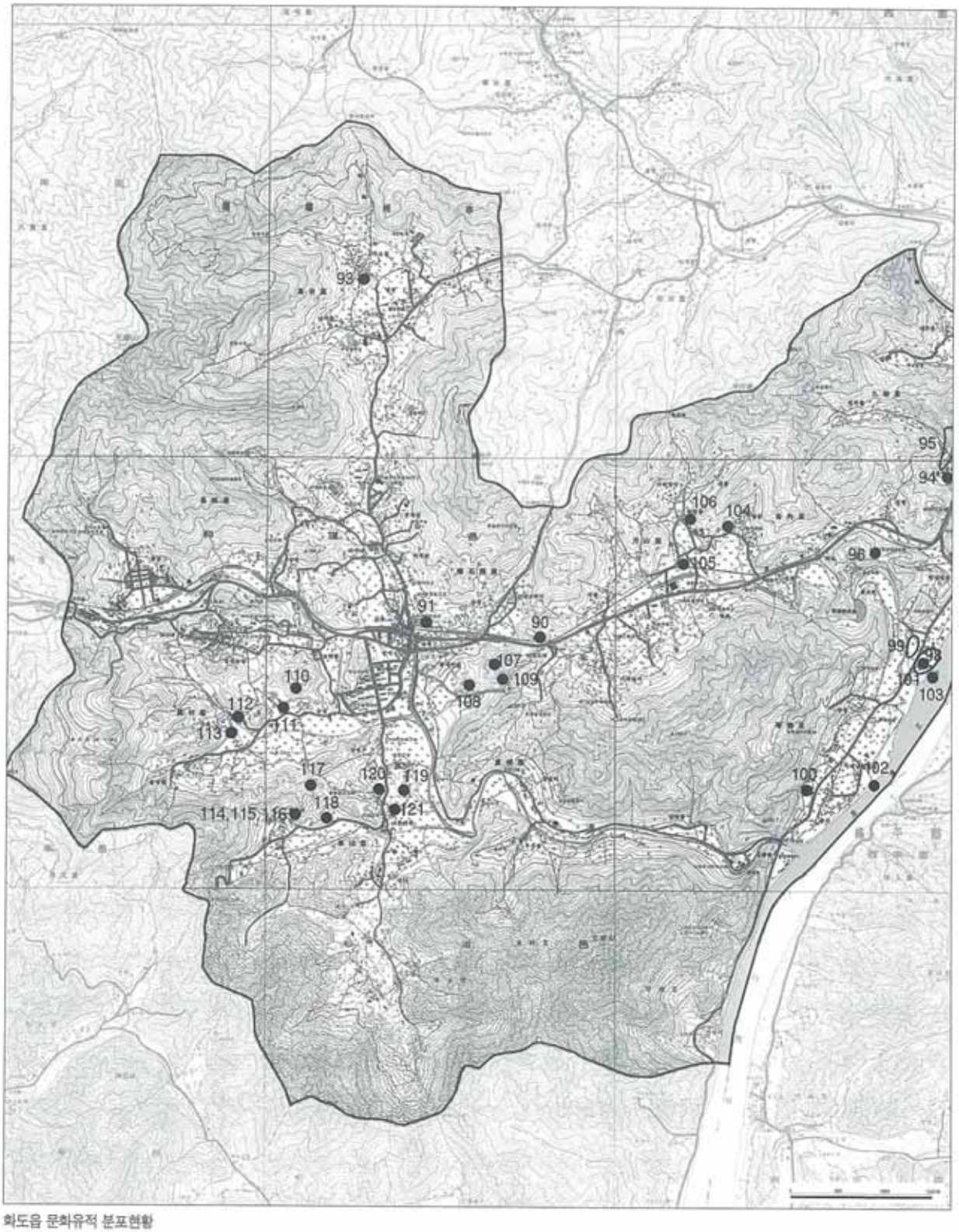
석을 두었다. 부인 안동권씨 묘는 계순 묘에서 2단의 계체석간 550㎝의 거리를 두고 아래에 있다. 안동권씨 묘의 묘표는 1485년에 세워졌으며, 크기는 계순의 것과 동일하다.

墓碣은 묘역 아래 입구에 西北向하여 있으며 총높이 230㎝로 전후 5엽, 좌우 1엽씩 총 12엽의 복련을 새긴 비좌와 화강암제의 비신에 상부 연화문형의 花冠石형인데, 상부의 연봉장식이 수려하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 상단에 篆書로 "韓襄平公墓碣銘"이라 횡서했다. 비문의 글씨는 마모가 많은 편이며, 건립연대는 成化(1465~1487)의 연호로 보아 계순의 사후 바로 한 것으로 보인다. 비문은 참판 金紐가 찬하였다. 묘갈의 양식상 상부 연봉장식의 화관형태로 특이하며 검게 산화되어 있어 고풍스럽다.

크기는 비좌 높이 35㎝ · 너비 140㎝ · 두께 75㎝, 비신 높이 167㎝ · 너비 78.5㎝ · 두께 24㎝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和道邑



화도읍 문화유적 분포현황

90. 和道面民 獨立記念碑



지도90 화도면민 독립기념비 위치도(양수 043)

□소재지 : 화도읍 마석우리 산9-1
□시 대 : 현대
□종 류 : 기념비
□내 용

독립기념비는 화도읍 마석우리 도로변에 인접하여 기단높이 60㎝, 비 높이 230㎝의 규모이다.

이 비는 1919년 3월 16일 이 지역 주민 이달용 외 10인이 모의 봉기모사 중 적발피검되고, 동년 3월 18일 밤 답내리, 월산리 주민궐기 피검인사 석방요구 독립만세 행진 중 손복산, 이달용, 신용희 등 5명이 순국하고 5명 중상 및 3월 19일 김필규, 이승보, 강선원 등 8인 피검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5일 당시 남양주군수 이성환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비신의 前面에는 오석에 "독립기념비"라 새겨져 있으며, 비문의 말미에 "당시 독립운동에 앞장 섰던 화도면민들의 귀한 피와 목숨에 삼가 머리를 숙이고 그 영전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그 위대하신 애국정신을 후세에 기리 전하고자 군민의 뜻을 모아 이곳에 추념비를 세우다"라고 되어 있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91. 殉國先烈追念碑



지도91 순국선열추념비 위치도(양수 043)



사진91 순국선열추념비

□소재지 : 화도읍 마석우리 292-17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순국선열추념비는 화도읍 마석우리 읍사무소내에 위치하여 기단높이 60㎝, 비신높이 230㎝의 규모이다.

이 비는 1919년 3월 16일 이 지역 주민 이달용 외 10인이 모의 봉기모사 중 적발피검되고, 동년 3월 18일 밤 답내리, 월산리 주민궐기 피검인사 석방요구 독립만세 행진 중 손복산, 이달용, 신용희 등 5명이 순국하고 5명 중상 및 3월 19일 김필규, 이승보, 강선원 등 8인 피검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5일 당시 남양주군수 이성환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비신의 前面에는 篆書體로 "순국선열추념비"라 새겨져 있으며, 후면에 당시의 상황과 비를 세우게 된 동기 등이 새겨져 있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92. 墨峴里院址

□소재지 : 화도읍 묵현리 367-5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원터)

□내 용

묵현리원지는 화도읍 묵현리에 있었던 옛 원터이다. 이곳은 강원도 춘천방면에서 한양으로 가는 無人之境의 대로변이었다. 이곳은 원을 두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100여 년 전에 폐지되어 지금은 흔적도 없고 지명만이 원터로 남아 있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93. 南楊州 嘉谷里 느티나무



지도93 남양주 가곡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23)



사진93 남양주 가곡리 느티나무

□소재지 : 화도읍 가곡리 257-3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천마산이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가곡리 가오실마을의 이 은행나무는 조선조 성종의 손자인 여성군이 별내면 중리에서 이곳으로 이사해서 엉켜있던 다래와 칡

넝쿨을 제거하던 중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 토담집이 허물어진 흔적이 함께 나와 그 후 여성군은 크게 자랄 나무라 하여 소중히 여겼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나무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갹출을 해서 음력 9월 9일 무당을 아홉명 불러놓고 동네굿을 3년에 한번씩 하며 위하는 노거수로 주간높이 3.5m 부위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줄기는 사방으로 잎과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전체 모습은 펼쳐진 부채모양이다. 넓은 수관을 형성하고 있고 하부에 평상이 놓여 있어 마을사람들의 이용이 잦은 암나무로 열매가 많이 열릴 때는 다섯가마, 적은 해에는 네 가마를 거두어들인다고 한다.

362번 지방도를 타고 화도에서 수동방면으로 진행하다 가곡초등학교 조금 못 미쳐 좌측에 있는 가오실 마을로 들어오면 높고 커다란 수관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자태의 이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수령 550년, 수고 20m, 흉고둘레 7.0m, 수관폭 31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21(1982. 10. 15)

94. 沙器幕나루터



지도94 사기막나루터 위치도(양수 036)



사진94 사기막나루터

□소재지 : 화도읍 구암리 585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나루터)

□내　용

사기막나루터는 화도읍 구암리 북한강변에 있는 나루터이다. 과거 가평군 외서면의 사기막마을과 왕래하던 수상교통로로서 현재는 구암수상스키장이 위치하고 있다.

□지도번호 : 청평 206-4

95. 南楊州 九岩里 遺物散布地



사진95-1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전경

□소재지 : 화도읍 구암리 173-2, 3번지 일원
(지도94 참조)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1) 위치와 현상

구암리의 북한강변 강안사구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산포지의 북쪽으로는 가평군과의 경계가 되는 구운천이, 동편으로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강안충적지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이며 서편으로 인접하여 바로 경사가 급한 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래의 퇴적지는 상당히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팔당댐의 건설과 철도의 가설 등으로 인해 퇴적지의 상당부가 유실되어 현재는 폭이 좁다.

강변퇴적지 중 비교적 지대가 높은 곳에서 유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채집된 유물은 모두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이다. 이곳에서 채집되는 무문토기편에는 태토에 운모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 일대에서 지형의 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밀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채집유물

① 무문토기 저부편(사진95-2-1, 도면95-1)

편평한 바닥을 가진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동체는 축약 없이 이어지며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으로 매끈하다. 색조는 암갈색이고 태토는 점토에 다량의 세석립과 운모를 섞어 썼다.

추정 저경 8㎝, 기벽두께 0.7㎝, 바닥두께 1.3㎝이다.

② 무문토기 동체편(사진95-2-2, 도면95-2)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내면에 횡방향으로 목리조정 흔적이 남아 있으며 색조는 암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점토와 약간의 굵은 석립, 다량의 굵은 석립과 운모를 섞어 썼다.

기벽두께 0.6㎝이다.

③ 무문토기 동체편(사진95-2-3, 도면95-3)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외면은 잘 정면되어 매끈하나 내면은 표면박리가 심해 다소 거칠다. 색조는 암갈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점토에 세석립과 운모를 약간 섞어 썼다.

기벽두께 0.6㎝이다.

④ 무문토기 동체편(사진95-2-4, 도면95-4)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색조는 암갈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사질점토에 다량의 세석립과 운모를 섞어 썼다.

기벽두께 0.9㎝이다.

⑤ 지석편(사진95-2-5, 도면95-5)

등면과 측면에 마연면이 남아 있는 지석편이다. 등면은 중심부를 향해 약간 기울어져 있고 모서리는 둥글게 갈려 있다.

길이 5.9㎝, 폭 4.6㎝, 두께 1.2㎝이다.

□지도번호 : 청평 2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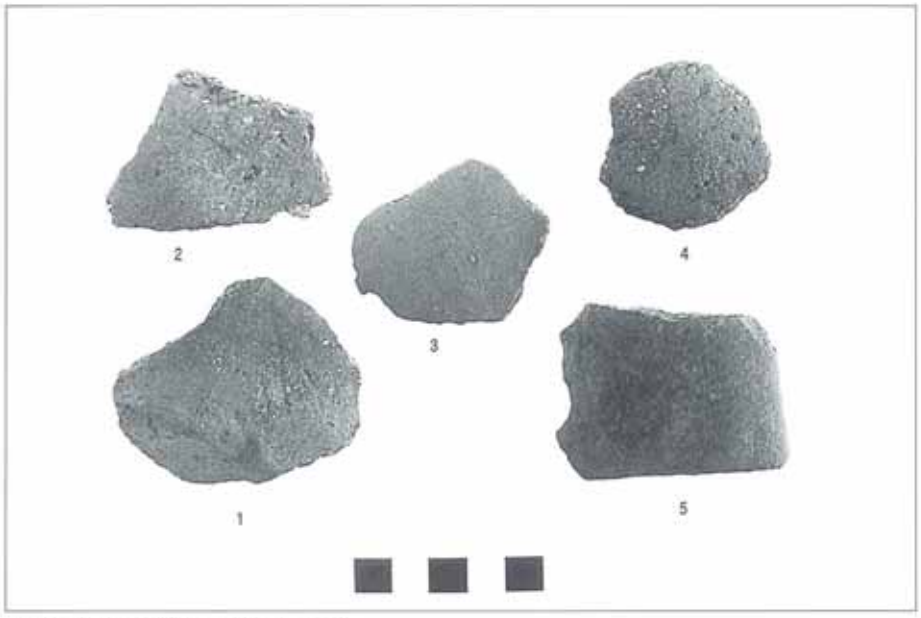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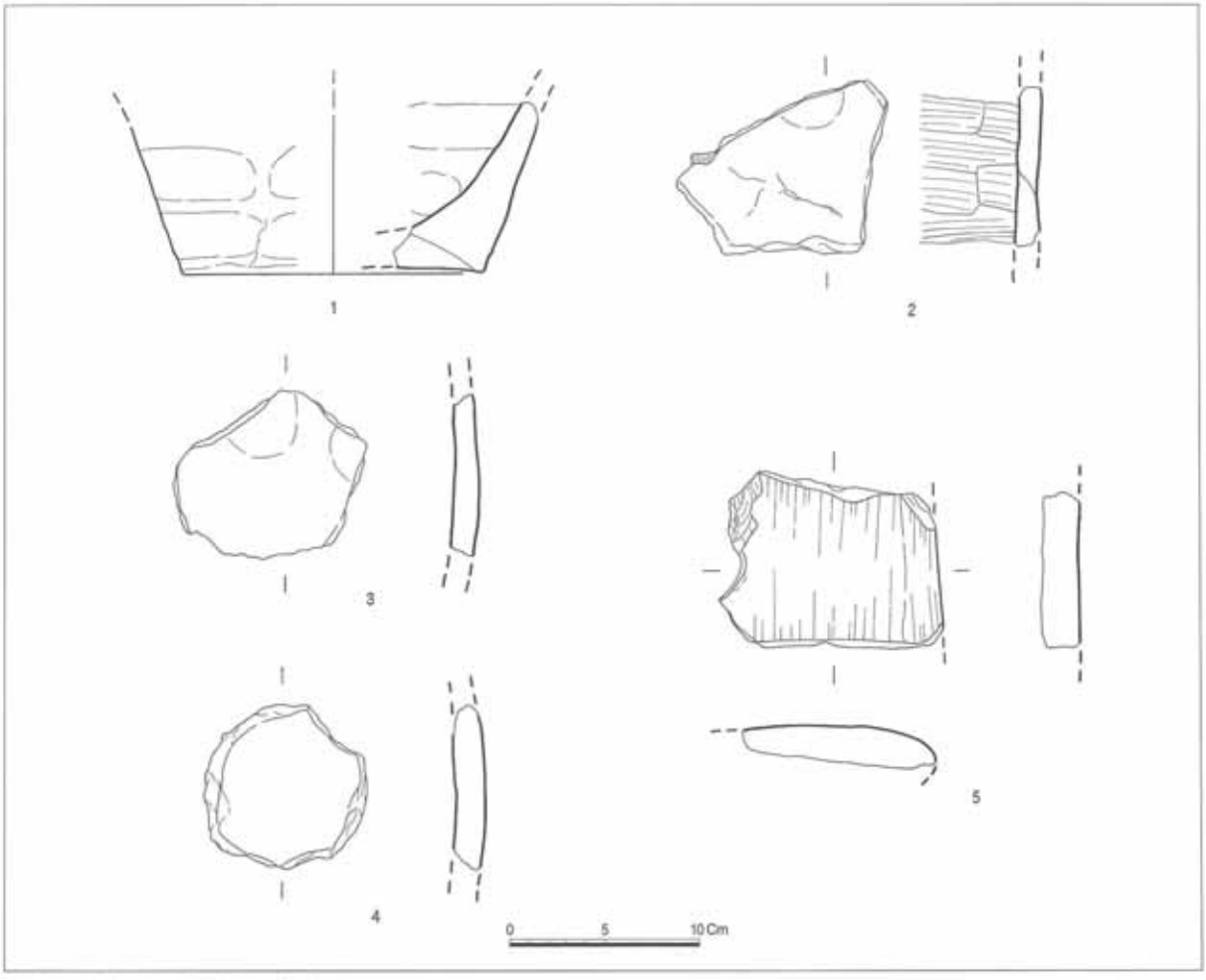


사진95-2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도면95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96. 仁村 金性洙 墓



지도96 인촌 김성수 묘 위치도(양수 035)



사진96 인촌 김성수 묘

□소재지 : 화도읍 구암리 산102-3
□시　대 : 현대
□종　류 : 墓
□내　용

김성수(1891~1955)는 교육가 · 언론인 · 정치가로 본관은 울산, 호는 仁村으로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다. 호남의 거부 暻中의 4자로 3세때 큰 아버지 棋中의 양자가 되어 13세에 高光錫과 혼인하였다. 1908년 군산의 금호학교를 다녔으며, 그해 10월 신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송진우와 함께 동경으로 건너가 세이소쿠영어학교와 긴조중학교를 거쳐, 1910년 와세다대학에 입학하여 1914년 정경학부를 졸업하였다. 1915년 4월 중앙학교를 인수하여 1917년 3월 교장이 되었으며, 1917년 경성직뉴주식회사를 맡아 경영하였다. 1920년 4월 동아일보사를 창립하였으며, 1929년 중앙학원을 설립하였다. 1932년 보성전문학교를 맡아 경영하면서 교장이 되었고, 1945년 10월 미군정청 고문회의 의장에 취임하고, 1946년 1월 동아일보 사장에 다시 취임하고, 같은 달에 송진우와 함께 한국민주당의 수석총무(당수)가 되었다. 그해 8월 고려대학교를 창립하였다. 1949년 2월 민주국민당이 창립되면서 최고위원을 지내고, 1951년 5월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이 되었다가 그해 5월에 물러났다. 1955년 2월 18일 사망했다.

묘는 화도읍 구암리의 금남저수지를 바라보는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여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묘역은 2단의 활개를 갖추고 그 안에 2단으로 구분하였다. 봉분은 하단에 높이 64㎝의 호석을 두르고 그 앞에 혼유석 · 상석 · 직사각 향로석 · 화분석을 놓고 그 앞에 "김바오로"라 써 있다. 향로석 앞으로 대리석을 깔고 좌우로 구분하여 좌측에 화분대를 놓았다. 향로석 앞 좌우로는 망주석과 그 가운데 장명등이 있는데, 사각형의 받침대에는 안상문을 장식한 자리에 십자가를 사방에 둘렀다. 그 위에 각각 무궁화, 산수화(달과 해)와 태극문양을 장식하였다.

紀念碑는 묘역 입구에 있는데, 총 길이 266㎝로, 장방형의 비좌 위에 다시 민무늬대석을 만들고 그 앞에 상석을 놓고, 대석 위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비신과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 형태이다. 비의 전면에는 "仁村金性洙先生之墓"라 써 있고, 인촌 김성수 선생기념회에서 만든 비문이 있다. 이 비는 1965년 2월에 세워진 것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28㎝ · 너비 185㎝ · 두께 154㎝, 대석 높이 50㎝ · 너비 122㎝ · 두께 90㎝, 비신 높이 198㎝ · 너비 75㎝ · 두께 45㎝이다.

神道碑는 묘역 바로 좌측에 있는데, 총 길이는 382

㎝로, 커다란 사각받침대 위에 호랑이 2마리가 있고, 그 위에 대리석으로 만든 비신과 이수에는 무궁화장식에 가운데는 태극문양을 새겼다. 前面에는 "仁村金性洙先生之墓"라 써 있다. 後面에는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주식회사 경방 등 5개 유관기관에서 1991년 3월 27일 공동으로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1965년 2월 18일 글을 쓴 것이다. 이 비는 고려대학교내에 있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사진97 이춘원 신도비(비신이 유난히 희다)

97. 李春元 墓 및 神道碑



지도97 이춘원 묘 위치도(양수 054)

□소재지 : 화도읍 금남리 산56-9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춘원(1571~163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咸平, 초명은 信元, 자는 元吉, 호는 九畹이다.

咸城君 從生의 5세손이며 瑒의 아들로 어머니는 具瀚로의 딸이다. 일찍이 남양의 洪至誠에게 글을 배웠고, 뒤에 영의정 朴淳이 벼슬을 그만두고 永平에 은거할 때 그를 찾아가 배워 학문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20세때(1590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96년(선조 2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 권지부정자에 등용되고 이듬해인 1597년에는 광양현감으로 남원을 포위한 왜군과 싸웠다.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1613년(광해군 5) 승정원 좌승지에 이르렀다. 그 때 폐모론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여 항의하다가 파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승지로 복직되었고, 병조참의로 있을 때 嘉善大夫로 승진되었다. 1617년(광해군 9)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는데, 이이첨을 비롯한 권신들이 인목대비의 존호와 모든 예우를 폐하려고 하자 이에 극력 반대하다 파직당했다. 1620년 지돈녕부사가 되어 明의 사신을 안주까지 나가서 맞이하였는데 갑자기 중풍에 걸려 사직하고 돌아왔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 한직을 맡겨 요양하게 하려 하였으나 사퇴하였다.

묘역은 화도읍 금남 2리 백월마을 45번 국도변에 인접한 함평이씨 묘역 제일 위에 東向하여 정부인 해평윤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하단에 새로 호석을 두르고, 그 앞에 혼유석 · 상석과 연이어 계체석을 놓았다. 계체석 앞에는

앙화를 장식한 4각향로석이 있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8각받침대 위에 앙화와 안상문을 새긴 높이 178㎝의 망주석이 있으며, 그 앞 좌우에는 금관조복형의 꽃과 구름문양을 장식한 문인석이 있다. 높이 183㎝로서 머리부분이 67㎝이다. 봉분 좌측에는 장방형 비좌에 월두형 비신의 墓表가 있다. 비에는 4열로 "有明朝鮮國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兼 巡察使李公春元之墓 貞夫人海平尹氏之墓"라 써 있다. 건립연대는 "崇禎7年甲戌 9月後葬癸巳 10月"의 연기로 보아 1634년(인조 12)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17㎝ · 너비 90㎝ · 두께 60㎝, 비신 높이 163.5㎝ · 너비 67㎝ · 두께 17㎝이다.

神道碑는 45번 국도변에 인접한 함평이씨 묘역 입구에 위치하여 東南向하고 있으며, 총 길이 266㎝로 사각으로 기단석을 놓고 그 위에 파도문과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단판복련을 사방에 새긴 장방형의 비좌에 흰빛이 나는 화강암으로 만든 비신과 이수형이다. 이수에는 쌍용이 前後로 조각되어 있으며, 이수의 왼쪽 부분은 마모된 상태이다. 비에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師李公神道碑銘 并序"라 써 있다. 비문은 崇政大夫行 吏曹判書 김상헌이 찬하고, 外甥 通訓大夫行 工曹正郎 尹舜擧가 書하였다. 비문의 서체는 둔탁한 行書體인데, 판독이 가능할 만큼 보존이 잘되어 있으며 건립연대는 1636년(인조 14)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62㎝ · 너비 132㎝ · 두께 80㎝, 비신 높이 144㎝ · 너비 73㎝ · 두께 25㎝, 이수 높이 60㎝ · 너비 88㎝ · 두께 40㎝이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98. 南楊州 琴南里 遺物散布地1



지도98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위치도(양수 045)



사진98-1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소재지 : 화도읍 금남리 181-1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1) 위치와 현상

금남리의 북한강변 강안 퇴적지 일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월산천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부분부터 '리버그린 호텔'이 위치한 지점 일대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은혜의 집'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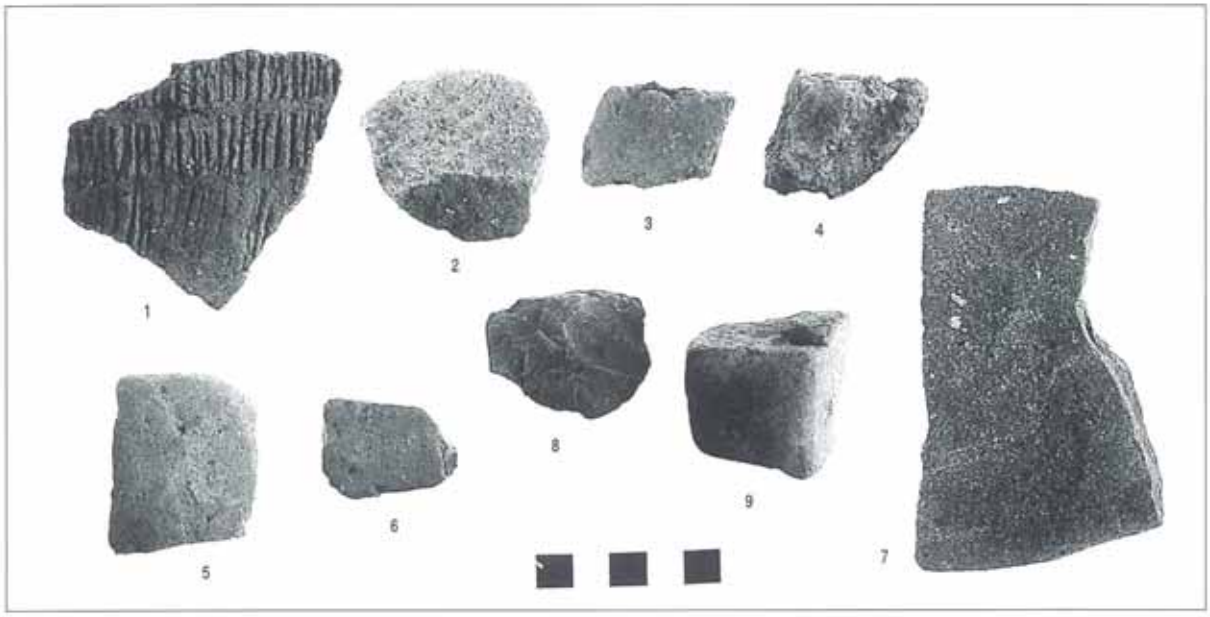


사진98-2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청소년수양관 일대에서 유물이 집중적으로 채집되고 있다.

이 일대는 팔당댐 수몰지구에 대한 구제발굴 당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5기의 지석묘가 조사된 이후 최근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고려대학교의 발굴조사 결과 지석묘의 대부분은 위치가 이동되어 원형이 파괴된 것들로 알려졌다. 다만 지석묘 주변에서 약간의 석기와 초기철기시대의 토기편들만 채집되었다. 서울대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는 약간의 무문토기편과 초기철기시대 토기편 그리고 소량의 석기류가 채집되었다. 그러나 이들 유물의 채집상태로는 구체적인 문화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대략적인 유적 형성범위만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그러한 한계는 극복하기 어려웠다. 다만 채집된 유물중 상당수가 초기철기시대의 승문토기계열의 연질토기편이 우세하다는 점과 약간의 박편류 등을 토대로 볼 때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부존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러나 유물 채집상태가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사시대의 유적이 부존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향후 이 일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현 지형을 변경하는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사전에 정밀한 문화재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채집유물

① 회색 경질토기(사진98-2-1, 도면98-1)

기형 불명의 회색경질토기 동체편이다. 외면에 종방향으로 승문을 시문한 후 다시 물손을 시도하여 문양이 약간 뭉개져 있다. 시문 이후 다시 1.7㎝간격으로 횡침선을 돌렸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회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점토에 세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 0.6~0.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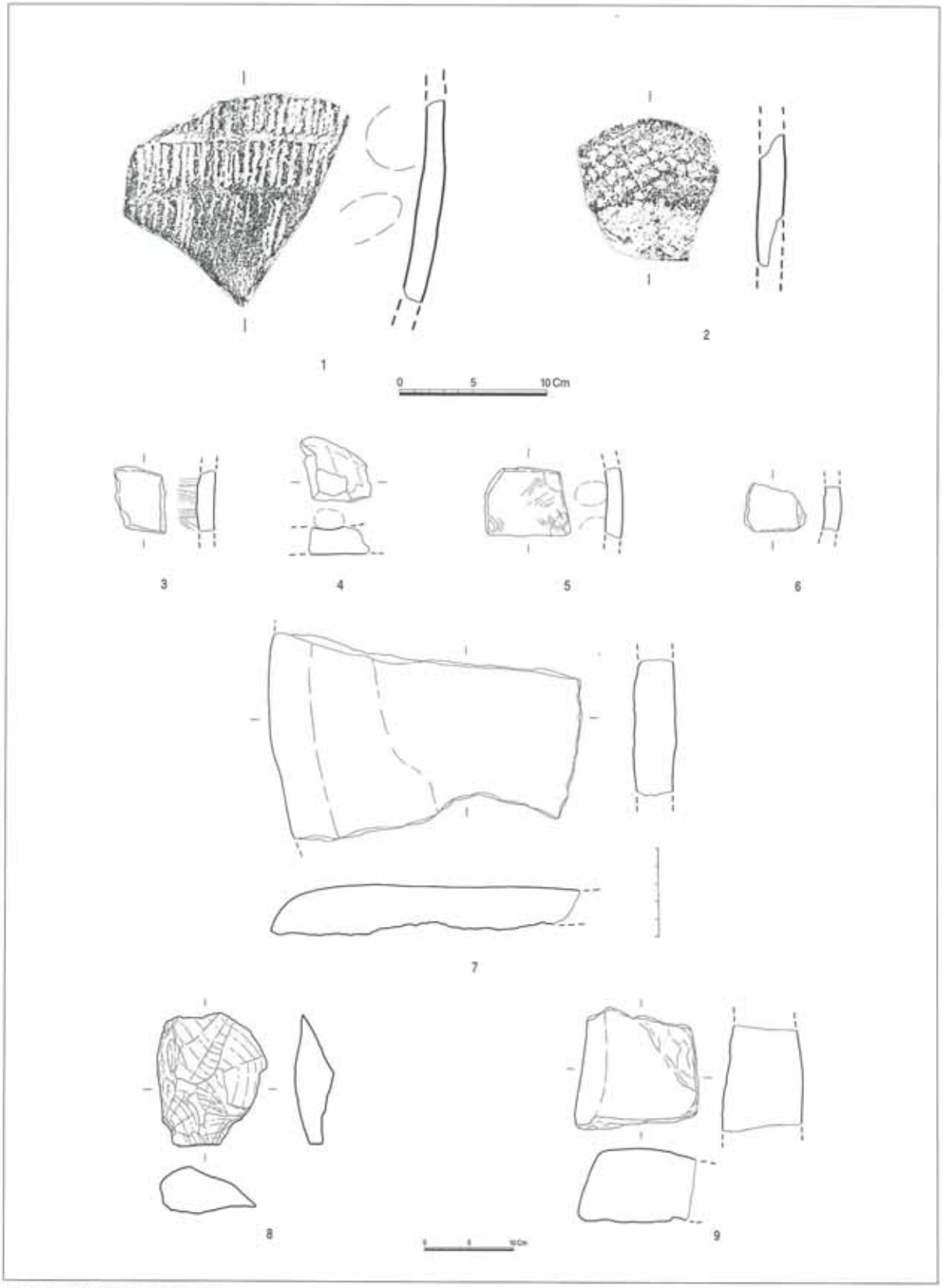
② 황갈색 연질토기(사진98-2-2, 도면98-2)

기형 불명의 연질토기 동체편이다. 외면에 사격자타날이 베풀어져 있다. 외면은 황갈색, 내면은 회갈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점토에 세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 0.9㎝이다.

③ 무문토기 동체편(사진98-2-3, 도면98-3)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외면은 매끈하고 내면에는 주로 횡방향으로 가해진 목리조정 흔적이 남아 있다. 색조는 적갈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점토에 세석립과 극소량의 굵은 석립을 섞어 썼다. 비교적 단단



도면98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하게 소성되어 있다.

기벽두께 1.0㎝이다.

④ 무문토기 저부편(사진98-2-4, 사진98-4)

평바닥의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내면에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색조는 황갈색을 띠고 있고 속심은 검다. 태토는 점토에 석립을 약간 섞어 썼으며 비교적 단단하게 소성되어 있다.

바닥두께 1.6㎝이다.

⑤ 회색 연질토기(사진98-2-5, 사진98-5)

기형 불명의 회색 연질토기 동체편이다. 내면에 손누름자국이 약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점토에 다량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 0.9㎝이다.

⑥ 무문토기 동체편(사진98-2-6, 도면98-6)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색조는 적갈색을 띠고 있고 태토에는 점토에 약간의 석립이 섞여 있다.

기벽두께 0.9㎝이다.

⑦ 갈판(사진98-2-7, 도면98-7)

강돌을 얇게 떼어내 사용한 갈판의 가운데 부분이다. 중심부를 향해 약간 오목하게 갈려 있고 밑면은 깨진 면으로 남아 있다.

길이 17.8㎝, 폭 11.5㎝, 두께 3.1㎝이다.

⑧ 석기 반제품(사진98-2-8, 도면98-8)

니암 계열의 조직이 고운 강돌을 타격하여 성형을 시도한 석기 반제품이다. 등면에 수차례의 박리과정에서 생긴 박리흔이 남아 있고 배면에는 일격에 모암에서 떨어져 나온 방사상의 박리흔이 잘 남아 있다. 측면에는 이 박편을 떼어내기 위해 십여 차례 이상 지각타격을 시도한 타격흔이 남아 있다. 현재는 원래 제작하고자 의도하였던 석기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길이 7.6㎝, 폭 6.2㎝, 두께 2.5㎝이다.

⑨ 숫돌(사진98-2-9, 도면98-9)

측면과 등면에 마연면이 남아 있는 숫돌편이다. 등면은 매끈한 상태이다 다소 불룩한 상태로 마연되었고 측면은 중심부를 향해 약간 오목하게 마연되었다.

길이 6.6㎝, 폭 7.3㎝, 두께 4.7㎝이다.

□ 지도번호 : 마석206-3

□ 참고문헌

최몽룡 외, 『北漢江流域의 先史文化-北漢江流域 地表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 1998.

99. 南楊州 琴南里 遺物散布地2



사진99-1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 소재지 : 화도읍 금남리 209-5(지도98 참조)

□ 시 대 : 청동기시대

□ 종 류 : 유물산포지

□ 내 용

(1) 위치와 현황

금남리 유물산포지1과 45번 지방도를 경계로 북쪽편 일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즉, 월산천의 동편 퇴적지 일대로 최근 서울대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금남리Ⅱ지점으로 명명된 지역이다. 서울대 박물관의 조사 당시 상당히 높은 밀도로 유물이 채집되었다고 전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별다른 유물을 채집하지 못했다. 이는 조사 시점이 작물이 재배되는 때라는 이유도 있지만 서울대 박물관의 조사 이후 월산천변의 강안 제방공사로 인해 상당수의 유적이 파괴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변에 양호한 유적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지역에서의 토사채취, 건물의 신축 등과 같은 형질변경 행위시 반드시 사전에 문화재조사가 성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채집유물

①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사진99-2-1, 도면99-1)

소형의 호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고 목과 어깨 접합부에 횡으로 침선이 돌려져 있다. 내외면에 회전 물손질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추정구경 8.8㎝, 기벽두께 0.4㎝이다.

② 황갈색 연질토기 동체편(사진99-2-2, 도면99-2)

기형 불명의 황갈색 연질토기 동체편이다. 내외면 모두 매끈하게 정면되어 있으며 외면에 부분적으로 얇게 슬립처리된 흔적이 엿보인다. 태토는 점토에 세석립을 약간 섞어 썼다.

기벽두께 0.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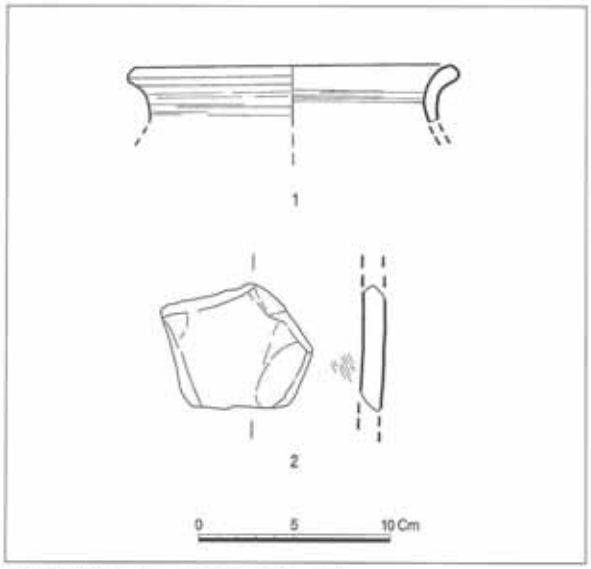
□지도번호 : 마석206-3

□참고문헌

최몽룡 외, 『北漢江流域의 先史文化-北漢江流域 地表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 1998.



사진99-2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도면99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100. 南楊州 琴南里 느티나무1



지도100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1 위치도(양수 045)

□소재지 : 화도읍 금남리 511-7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화도읍 금남 2리의 당산목인 이 느티나무는 45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시대의 조류에 밀려 이젠 나무에 제사를 올리고 있지 않으



사진100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1

나 여전히 마을사람들은 나무의 상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면보다 약 1.8m 가량 낮게 조성된 보호수 주변의 콘크리트 포장의 영향으로 수세가 약해져 나무 반쪽이 잎과 가지의 발달이 거의 없이 마르고 있다.

주간에 있는 커다란 동공안에 나무를 치료하기 전에 사람이 기거하면서 화재가 나 중심의 주된 줄기가 없어진 상태로 전체 모습은 주간높이 1.5m 부위에서 다섯 갈래로 펼쳐진 부채모양이며 내부에 설치된 당김줄이 나무의 모습을 고정하고 있다. 주간에 크고작은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수세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령 600년, 수고 14m, 흉고둘레 7.7m, 수관폭 17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22(1982. 10. 15)

101. 南楊州 琴南里 느티나무2



사진101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2

□소재지 : 화도읍 금남리 207-1(지도9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남양주와 양평, 가평이 갈라지는 북한강변에 위치한 화도읍 금남 3리에 자리잡고 있는 이 나무는 옛날 어느 뱃사공이 강원도 화천에서 실어와 자기 집앞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전체 모습은 주간높이 1.8m 부위에서 세 갈래로 갈라져 사방으로 퍼진 구형으로 무성하게 달린 잎이 풍성하고 넉넉한 수관을 형성하여 소나기에도 나무 아래에 서면 옷깃하나 젖지 않는다.

45번 국도를 타고 조안면에서 가평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금남 3리 금대마을로 들어오면 음식점에 둘러싸여 북한강을 내려다 보고 서있는 이 나무를 만날 수 있는데 나무에 인접해서 인근 가옥의 담이 설치되어 있고 나무 전면에는 강변으로 연결되는 차도가 지나고 있어 불리한 생육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세는 강건하다.

수령 400년, 수고 20m, 흉고둘레 6.8m, 수관폭 23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23(1982. 10. 15)

102. 琴南里 내미연 나루터



사진102 금남리 내미연 나루터

□소재지 : 화도읍 금남리(지도10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나루터)
□내 용

내미연 나루터는 현재 금남리 도로변의 뉴월드호텔 및 아가페산장 맞은편의 금남교회와 인접한 강변에 터가 있다. 과거 화도읍 금남리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를 연결하던 나루로 1960년 중반까지 배가 다녔으나 현재는 뱃길이 끊긴 상태이다. 큰물이 날 적마다 금남리를 휩쓸듯이 내 밀어 '내미련' 이란 지명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현지 조사시 다행히 과거 뱃사공이었던 금남리 거주 김현석(51세)씨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나루터 맞은편에서 강을 건너고자 하는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 '배근(건)너' 하고 외치면 수시로 다녔다고 한다. 배삯은 마을 사람들에 한해 안받고 외인들은 10원이든 30원이든 형편 닿는대로 받았다고 한다. 대신 마을 주민들은 여름에 보리, 가을에 나락 등의 곡식을 현물로 받았다고 한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103. 琴南里 나루터



사진103 금남리 나루터

□소재지 : 화도읍 금남리(지도9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나루터)
□내 용

금남리 나루터는 현재 금남 3리 '하버클럽 파라' 팻말이 보이는 도로변의 강변에 그 터가 남아 있다. 현재까지도 화도읍 금남리와 양평을 연결하는 나루로 이용되고 있으며 5개소의 수상스키 및 모터보트 선착장이 위치하고 있다. '청수호' 동력선 1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운임은 왕복 1,600원이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104. 南楊州 畓內里 느티나무



지도104 남양주 답내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34)



사진104 남양주 답내리 느티나무

□소재지 : 화도읍 답내리 439(지도10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46번 국도를 타고 화도에서 가평 방향으로 가다가 답내 2리의 답내초등학교를 찾아 들어오면 옛부터 논이 많은 마을이라 하여 '논골'이라 이름 붙여진 답동마을 한가운데 늠름하게 서서 앞에 펼쳐진 논과 밭을 굽어보고 있는 이 나무를 만난다.

한여름 농사일에 지친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시원한 그늘을 주는 고마운 정자목으로 이 나무의 상태를 보고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하는데 이른 봄에 나뭇잎이 일제히 피면 풍년이 들고 군데군데 적게 나오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나무에 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해가 미친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와 마을사람들이 위하는 나무로 주간높이 4.5m 부위에서 두 갈래의 줄기로 갈라져 잎이 무성하며 전체 모습은 논으로 쳐진 가지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원정형의 모습이다. 길게 뻗은 주간의 끝에는 꿀벌들이 자리잡고 부지런히 꿀을 모으고 있으며 6.2m에 달하는 가슴높이 부분의 주간에는 울퉁불퉁한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수령 500년, 수고 15m, 흉고둘레 6.2m, 수관폭 20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24(1982. 10. 15)

105. 南楊州 月山里 3 · 1運動記念碑



사진105 남양주 월산리 3 · 1운동기념비

□소재지 : 화도읍 월산리 490(지도104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념비
□내　용

3 · 1운동기념비는 화도읍 월산리 월산교회내에 위치하여 기단높이 60㎝, 비신 높이 230㎝의 규모이다.

이 비는 1919년 3월 16일 이 지역 주민 이달용 외 10인이 모의 봉기모사 중 적발피검되고, 동년 3월 18일 밤 답내리, 월산리 주민궐기 피검인사 석방요구 독립만세 행진 중 손복산, 이달용, 신용희 등 5명이 순국하고 5명 중상 및 3월 19일 김필규, 이승보, 강선원 등 8인 피검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5일 당시 남양주군수 이성환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넓적한 자연석 비신의 前面에는 종으로 "3 · 1운동기념비"라 새겨져 있으며, 후면에 당시의 상황과 비를 세우게 된 동기 등이 별도의 오석에 새겨져 있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106. 南楊州 月山里 느티나무



지도106 남양주 월산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34)

□소재지 : 화도읍 월산리 458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 유적(노거수)



사진106 남양주 월산리 느티나무

□내　용

월산 1리 등정골에 12대째 살고 있는 남평문씨의 집터였던 자리에 서있는 이 느티나무는 주간이 곧게 올라가다 높이 2m 부위에서부터 갈라져 가지와 잎이 사방으로 뻗은 원정형의 모습이다.

현 관리자인 문재훈씨의 10대 선조인 문씨가 장사아들을 낳았는데 그 당시 장사는 역적이 된다하여 측지 밑을 인두로 지져 사망케 하자 인근 달기산의 용마 세 마리가 구슬프게 울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며 문장사가 어려서 올라가 놀던 나무가 바로 이 느티나무라고 한다.

내부가지가 휘어지듯 서로 엇갈려 올라가고 일부 가지는 부러진 채 매달려 있으나 나무를 건드리면 좋지 않다 하여 손대지 않고 있다. 가옥의 뒷편, 작은 언덕이 시작되는 비탈면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있는 이 나무를 만나려면 경춘선 마석역을 지나 월산리와 답내리의 경계에 위치한 등정골마을을 찾아 들어오면 된다.

수령 450년, 수고 20m, 흉고둘레 5.5m, 수관폭 22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26(1982. 10)

107. 興園



사진107-1 국태공원소 원표


사진107-2 흥원


사진107-3 흥선대원군 신도비

□소재지 : 화도읍 창현리 산22-2(지도9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흥원은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 李昰應(1820~1898)의 묘이다. 자는 時伯, 호는 石坡이며 1843년(헌종 9)에 흥선군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獻懿이다. 철종(조선 25대)이 후사 없이 昇遐하자 神貞王后 趙氏(철종의 母)에 의해 흥선군의 둘째 아들(고종)이 왕위(1863년)에 오르자 대원군에 진봉되면서 국정을 관여하였다. 그는 국내외로 복잡다난하던 시기에 과감한 국정개혁에 착수하였다.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외척 세도를 일소하였으며 서원을 철폐하여 당쟁의 폐를 없애는데 노력하였다. 『大典會通』 등 법전을 완비하여 중앙집권적 정치기강을 확립하였다. 備邊司를 폐지하여 議政府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한편 三軍府를 두어 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시켰다. 세제를 개혁하여 국고를 충실히 하였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景福宮을 중건하였다. 한편으로는 천주교를 탄압하였고, 서양세력의 침략에 대비하여 서양의 통상 요청을 거부하고 1866년에 丙寅洋擾, 1871년에 辛未洋擾 시에 각각 江華島로 쳐들어 온 프랑스와 미군 군대를 격퇴시켰고, 일본의 국교교섭 요구도 거부하는 강력한 대외정책을 폈다. 그러나 집권 10년만에 明星皇后와의 알력으로 1873년에 은퇴하였다. 1882년 壬午軍亂이 일어나자 다시 집권하였으나 淸에 강제납치되어 天津에 4년간 갇혀 있기도 하였다.

묘는 금곡동과 금남리간 46번 국도의 마석 4거리에서 南向하여 흐르는 磨石隅川의 오른쪽으로 약 500m 거리인 해발 약 150m 가량의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에 올라가는 입구의 좌측에 표지석이 있는데, 사각의 민무늬 비좌에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형이다. 앞면에는 篆書로 "興園"이라 써 있고, 뒷면에는 현손 李淶이 쓴 천장과정을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대원군의 묘는 원래 1898년 윤3

월 20일 고양군 공덕리에 있었던 것을 1906년 12월에 파주군 운천면 대덕리로 이장하였으며, 1966년 4월 28일에 양주군 화도면 창현리(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로 옮겨왔다.

표지석의 크기는 비좌 높이 12㎝ · 너비 77㎝ · 두께 51㎝, 비신 높이 150㎝ · 너비 52.5㎝ · 두께 24.5㎝, 옥개석 높이 47㎝ · 너비 86㎝ · 두께 57.5㎝이다.

능제는 조선 능원제에 따른 듯하나 간략하며, 莎城과 曲墻으로 둘러져 있다. 봉분에 오르는 입구에는 隸書로 "國太公園所"라 쓰여진 園標가 있는데, 민무늬의 장방형 비좌에 각 호패형 비신으로 되어 있다. 이 비는 1905년(광무 9)에 세운 것으로 전면 우측 하단에 작게 "意美謹書"라 써 있는 것으로 보아 李意美가 쓴 것이다. 올라가는 계단에는 태극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원표의 크기는 비좌 높이 25㎝ · 너비 93㎝ · 두께 63㎝, 비신 높이 150㎝ · 너비 60㎝ · 두께 33㎝이다.

묘는 붉은 벽돌담장에 한옥기와를 올린 곡장내에 西向하여 높이 40㎝, 길이 162㎝인 12매의 호석을 두른 높이 240㎝, 직경 580㎝의 원형봉분이다. 봉분 좌우에는 石羊을 한 쌍 배치하였고, 그 앞에는 고석의 4면에 귀면을 새긴 상석과 장대석 및 망주석 · 문인석을 각 한 쌍씩 배치하였다. 망주석은 복련을 조각하고 각 면에 꽃 모양을 장식한 8각받침대에 앙화와 간주석에 청솔모를 조각하였다. 문인석은 받침대를 복련으로 조각하였으며, 사실적인 조각 기법이 뛰어나며 옷의 선처리도 이전의 문인석과는 달리 옷고름이 보이는 등 사실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좌측 문인석은 얼굴부위가 박리되어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이다. 그 중간에는 조선시대에 1품 재상의 묘에만 세울 수 있도록 한 높이 205㎝의 장명등이 있는데 받침대 4면에 꽃을 새기고 그 위에 안상문, 꽃문양을 조각하고, 화창 위에는 팔작지붕을 이중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위에 보주를 올렸다. 그 앞 양쪽에는 馬石이 있으며 중간에 난초 그림이 새겨져 있다.

神道碑는 묘역에서 약 25m 전방에 北向하여 귀부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에는 全面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 상단에 "大韓獻懿大院王興園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문은 종1품 규장각 대제학 金鶴鎭이 찬하고 전자를 썼으며, 李載克이 비문을 썼다. 건립연대는 융희 21년(1927)이며, 前面에 탄흔 5개소 및 좌측면에 직경 10㎝ 이상의 큰 탄흔이 10여개 소 있다.

크기는 귀부 높이 87㎝ · 너비 250㎝ · 두께 158㎝, 비신 높이 225㎝ · 너비 69㎝ · 두께 44.5㎝, 옥개석 높이 57㎝이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기념물 제48호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108. 永宣君 李埈鎔 墓 및 神道碑



사진108 영선군 이준용 신도비

□소재지 : 화도읍 창현리 산22-2(지도9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준용(1870~1917)은 조선의 왕족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景極, 호는 石庭 · 松亭, 흥선대원군의 적손으로 완흥군 이재면의 아들이며, 고종의 조카이다. 1884년 갑신정변때 洗馬가 되었다. 1886년 문과에 급제하한 뒤 홍문관 대사성 · 직제학, 예문관검열, 형조참의, 성균관대사성,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886년 한 · 러 밀약사건을 계기로, 淸 袁世凱가 대원군과 협력하여 고종을 폐위시키고 이준용을 국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으나 李鴻章의 제지로 좌절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청 · 일전쟁을 계기로 민씨 척족세력이 타도되고 대원군은 한때 그를 국왕으로 추대하려고 기도하였으나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의 제지로 실패하였다. 그 뒤 갑오개혁 중 내무협판 겸 親軍統衛使, 내무대신서리 등으로 임명되어 인사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으나 군국기무처의 반발로 내무협판직을 사임하였다. 이후 미국인 법률고문인 그레이트하우스(Greathouse C.) 및 르장드르(LeGendre C.W.)와 접촉하여 반일친위대의 편성을 도모하는 한편, 대원군의 후원하에 밀사를 지방으로 파견하여 호남지방의 유생과 동학농민군, 그리고 평양에 주둔한 淸군대와 내통하여 일본군을 축출하고 서울의 친일정권을 전복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각되고, 새로 부임한 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의 압력으로 대원군이 정계에서 은퇴함과 주일특명전권공사로 내정되었으나, 공사직을 맡지 않고 있다가 1895년 5월에 이르러 군국기무처의원 金鶴羽 암살사건에 연루되고, 또 朴泳孝 · 徐光範 등 친일파 내각대신의 암살을 음모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혀 특별재판소에서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얼마후 특사로 석방되었다. 1896년 을미사변 직후 일본에 유학하였다. 출국한 뒤 귀국이 허락되지 않자, 일본에 체류하다가 1897년 일본을 떠나 유럽 각지를 시찰하였고, 1899년 이후에는 다시 일본에 돌아와 지바현(千葉縣)에서 거처하였다. 1907년 고종을 대신하여 순종이 즉위하자 귀국하였다. 1908년 義陽君 李載覺이 총재로 있는 商工勤務社의 총고문을 지냈다. 1910년 망국 후 李埈公의 칭호를 받고, 보국숭록대부에 오른 후 육군참장이 되었다.

묘는 흥선대원군 묘역에서 좌측으로 100m 가량 아래에 西向하여 있다. 봉분은 남북 직경 560㎝ · 높이 180㎝로 높이 26㎝의 호석을 두른 원형분묘이며 곡장내에 안치되어 있다. 좌우에는 앉아 있는 석호와 중간에 난초 조각이 있는 양석이 한 쌍씩 있다. 봉분 앞에는 고석의 4면에 귀면을 조각한 상석 · 계체석이 있고, 그 앞 좌우에는 망주석과 문인석이 한 쌍씩 있다. 망주석은 8각 받침대에 안상문과 운문을 새겼으며, 상단에는 앙화를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문인석은 홍릉의 문인석과 비슷한 양식이며 금관조복형으로 근대적 조각기법이다. 그 가운데에 있는 장명등은 높이 245㎝로 4각 받침대에 사방에 난초 등의 그림을 조각하고 그 위에 4면에 꽃을 조각하고, 상단부는 이중의 팔작지붕형으로 4면 중앙에 왕실문양의 꽃문양을 장식하였다. 그 위에 보주를 올렸다. 문인석 뒷편의 馬石에는 중간에 난초 그림을 조각하였다.

神道碑는 묘역에서 약 30m 아래에 南向하여 있다. 백색화강암의 받침대(174㎝×136㎝×16㎝)위에 장방형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사면에 연화문을 장식하고 복연장식을 이전의 대석 윗면에만 하던 것에서 3/4지점까지 내려 새긴 것이 특징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右 2면에 비문이 있는데 비신의 상단에는 前後右 3면에 걸쳐 篆書로 "上輔國崇祿大夫永宣君李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上輔國崇祿大夫永宣君神道碑銘并序"이다. 비문은 輔國崇祿大夫 前中樞院議長 김윤식이 찬하고 海平君 尹用求가 썼으며 金聲根이 전을 하였다. 건립연대는 乙未 5月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77㎝ · 너비 107㎝ · 두께 142㎝, 비신 높이 208㎝ · 너비 79㎝ · 두께 51㎝, 옥개석의 높이는 67㎝이다.

□ 지도번호 : 마석 206-3

109. 李載冕 墓 및 神道碑



사진109 이재면 신도비

□ 소재지 : 화도읍 창현리 산22-2(지도91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이재면(1845~1912)은 조선 말기의 정치가로 자는 武卿이고 호는 又石인데 뒤에 熹로 개명하였다. 흥선대원군과 여흥 민씨 사이의 장남으로 고종의 형이며, 永宣君 埈鎔의 父가 된다. 1863년(철종 14) 司勇의 직을 맡았다가 이듬해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규장각시교 · 예문관겸열 · 승정원주서 등을 거쳐 1865년(고종 2) 동부승지 · 대사성 · 이조참의 · 부제학 등을 지냈다. 1866년 도승지, 이듬해에 직제학, 이조참판으로 승진하고, 1878년 지경연사에 올랐으며 이듬해 종1품에 특서되었다. 1880년 병조판서, 이듬해에 금위대장, 이어서 판돈녕부사사대교린당상에 올라 이조판서 · 예조판서를 지냈다. 1882년 6월 임오군란 때 武衛大將으로 사태수습에 힘썼고, 호조판서 · 선혜청당상 · 지삼군부사 · 훈련대장을 겸하였다. 그해 12월에 청나라에 감금되어 있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방문하였다. 이후 약 10년간 운현궁에 칩거하였다. 1894년 6월 흥선대원군이 집정하자 통리기무아문의 同文司堂上經理事가 되었다가 제1차 김홍집 내각때 보국 숭록대부로서 궁내부대신이 되었다. 1900년 完興君에 책봉된 뒤 1907년 大勳李花章 · 瑞星章을 받았다. 10월 육군부장이 되었다.11월 보빙대사로 일본에 다녀왔고, 1909년 大勳金尺大綬章을 받았으며, 1910년 興親王에 봉해졌다.

묘는 흥선대원군 묘역과 인접하여 있다. 봉분 주위에는 곡장을 두르고, 좌우에는 석호와 중간에 난초 조각이 있는 양석이 있다. 봉분에는 높이 37㎝의 호석을 둘렀고, 그 앞에는 4면에 귀면을 조각한 4개의 받침돌(34㎝)에 상석(186㎝×124㎝×47㎝)을 놓았다. 그 앞에 장대석을 놓았다. 상석 앞 좌우에는 8각받침대에 꽃문양과 복련을 장식하고, 상단에는 앙화를 조각한 높이 273㎝의 망주석이 있다. 그 앞에는 금관조복형의 문인석이 있는데, 조각은 사실적이며, 그 가운데에 높이 273의 장명등의 장명등은 4각받침대에 사방에 난초 등의 그림을 조각하고 그 위에 안상문, 그 위에 4면에 꽃을 조각하고, 상단부는 이중의 팔작지붕형 옥개석과 보주를 장식하였다. 문인석 앞 좌우에는 말석에는 중간에 난초 그림을 조각하였다.

神道碑는 묘역에서 약 25m 전방에 있는데, 귀부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형이다. 비신의 前面에는 "興親王神道碑銘"이라 써 있다. 비문은 김윤식이 찬하고 윤용구가 썼으며, 金聲根이 전액을 하였다. 아울러 경학원대제학 鄭萬朝가 추기를 썼으며, 건립연대는 1932년이다.

규모는 귀부 높이 82㎝ · 너비 230㎝ · 두께 145㎝이고, 비신 높이 212㎝ · 너비 71㎝ · 두께 43.5㎝이며, 옥개석의 높이는 62㎝이다.

신도비 앞에는 비각으로 보이는 흔적만 남은 곳이 있는데 뒷면에는 돌을 쌓았으며, 그 앞에 가로 11m 세로 10m로 집터로 보이는 곳이 있다. 전면 우측에는 계단이 있고, 그 뒤에 다시 단을 만들었다. 앞에 받침돌 3개 중간에 3개가 보인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110. 義安君 李城 墓



지도110 의안군 이성 묘 위치도(양수 042)

□소재지 : 화도읍 녹촌리 산14-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의안군 이성(1577~1588)은 선조의 제3남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증직하여 시호를 懿懷라 하였다. 특명으로 능원대군으로 하여금 후사로 삼게 하였다. 묘역은 본래 진접읍 宮洞에 있었으나, 1985년 11월 11일 녹촌리 능원대군 뒷편 산으로 옮겼다. 비는 敬惠裕仁仁嬪金氏로 金漢祐의 딸이다. 본적은 수원이고 母는 전주이씨 충의위 李孝性의 딸이다.

묘는 화도읍 녹촌리 능원대군 사당에서 500m 뒤에 있다. 원래는 진접읍에 있었으나 1997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계체석 · 상석 · 팔각형의 향로석이 있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얼굴 모양이 선비형인 높이 197㎝의 문인석이 있다. 봉분 좌측에 있는 墓表는 복련을 조각하고 사방에 구름 문양을 새긴 비좌와 비신 월두형으로 앞에 글씨는 義安君이란 글씨만 보이고 뒤의 글씨는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다.

크기는 비좌 높이 35㎝ · 너비 117㎝ · 두께 70㎝이고, 비신 높이 154㎝ · 너비 69㎝ · 두께 20㎝이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111. 陵原大君 李補 墓 및 神道碑



사진111-1 능원대군 이보 묘



사진111-2 능원대군 이보 신도비

□소재지 : 화도읍 녹촌리 192(지도11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능원대군 이보(1592~1656)는 본관은 全州, 시호는 貞孝이다. 조선 宣祖의 아들인 정원군(추존 元宗)과 仁獻王后 具氏의 둘째 아들이다. 11세 때에 선조의 왕자 義安君 李珹에게 出後하여 綾原君에 봉해졌고 1631년(인조 9년)에 大君에 進封되었다. 丙子胡亂시 왕을 모시고 南漢山城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강개하여 말하기를, "군신 부자가 응당 각기 忠義를 다하여 종묘사직을 위해 城을 등지고 결사하여야 할 것이다."하니 듣는 사람들이 늠연하였다. 공은 병자년 이후 일체 조정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문자에는 그대로 明연호를 쓰고 오랑캐 淸 조정에 대항하여 태산북두처럼 절의를 지켰다. 효종 초에 종실로서 궁궐에 나아가 추종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공이 箚子를 올려 죄를 줄 것을 청하면서, "법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親貴한 자로부터 엄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병자년 이후 淸 사신이 왕래할 때에도 비록 비복일지라도 엿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가에서도 무릇 誥命에 또한 僞號를 쓰지 않았다. 무릇 聲色과 貨利에는 일체 경영하지 않았다.

묘는 화도읍 녹촌리 궁말의 능원대군 사당 좌측 능선에 위치하여 문화부부인 유씨와의 합장묘이며 그아래 김씨의 묘가 있다. 묘역은 봉분을 높인 듯 전체가 작은 동산 모양을 이루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들었다. 묘역은 곡장을 두르고 그 안에 높이 36㎝인 8개의 호석을 둘러 봉분을 만들었다. 봉분 앞에 있는 묘표는 민무늬 장방형 비좌(130㎝×82㎝×50㎝)와 월두형 비신(79.5㎝×33㎝×171㎝)이 상대적은 크게 보인다. 비에는 가로로 "有明朝鮮國"이라 써고 그 아래로 "王子綾原大君兼 五衛都摠府都總管 贈諡貞孝公俌之墓 文化府夫人柳氏祔左"라 써 있다. 비신은 대석은 중간석(130㎝×24㎝×36.5㎝)과 붙어 있는 형태다.

묘비 앞에는 장대석과 4개의 사각형 고석(37㎝)위에 상석(189㎝×118㎝×49.5㎝)이 있다. 상석 앞에는 사각형의 향로석(44㎝×35㎝×43㎝)과 좌우에 동자석(106㎝)이 있는데 조각이 우수하고 화려하며 머리 부분은 상석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돌려 장명등쪽으로 보는 것이 특징이다. 동자석 좌우에는 민무늬의 사각형 망주석과 문인석(188㎝)이 있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으로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있고 웅장하며 음양각의 조화를 이룬다. 향로석 앞 정면에는 장명등(182㎝)이 있는데, 받침대 위에 사각형의 좌대에 복련을 조각하고 그 중간에 약간 작은 사각 좌대를 만들어 여기에는 안상문을 조각하였다. 그 위에 다시 이 좌대와 같은 크기의 좌대에 구름문을 새겨 있으며 그 위에 화창을 만들었다. 화창위의 옥개석은 팔작지붕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고 조각이 우수하다.

부인 김씨 묘는 능원대군 바로 그 아래 연이어 있다. 묘역은 능원대군 묘역에서 장대석을 만들고 그 아래 봉분을 마련하였다. 봉분 앞에 있는 묘비는 복련을 장식하고 구름무늬를 사방에 조각한 비좌에 월두형 비신이 있는 비에는 "金氏之墓"라고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5㎝ · 너비 132㎝ · 두께 74.5㎝이고, 비신 높이 142㎝ · 너비 67.5㎝ · 두께 18.56㎝이다. 묘표 앞에는 장대석 · 상석이 있다. 전체적으로 돌이 좋은 것을 사용하였으며 마모가 되지 않아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神道碑는 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는데, 총 높이 283㎝로 넓고 커다란 龜趺와 비신 및 조각이 매우 정교하며 화려하게 조각된 이수를 갖추고 있다. 귀부는 특히 거북꼬리가 틀어 올려져 생긴 홈에 고여진 물이 극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있는 것이 기이해 선생의 은덕을 기리는 듯 하다. 비신은 前面에 "有明朝鮮國王子綾原大君兼五衛都摠管贈諡貞孝公神道碑銘 并序"라고 쓰여 있다. 비문은 좌의정 宋時烈이 짓고, 이조판서 趙相愚가 글씨를 썼으며, 李涵이 篆을, 崔錫鼎이 跋文을 맡았다. 조상우의 글씨는 송설체를 근간으로 하여 단아하고 짜임새 있는 서풍을 구사하였다. 중간중간 적절하게 속도감 있는 글씨를 가미하여 변화를 꾀하였

다. 파임이 조맹부 글씨에 비하여 경직된 느낌이 든다. 이함은 능원대군의 아들로서 靈恩君을 제수받았다. 이 비는 소전체로 약간의 직선적인 꺾임이 특징이며, 字經 2~2.5㎝이다. 건립연대는 말미의 "大明崇禎戊辰後丁亥十月 內需司奉命立"으로 보아 1647년(인조 25)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수는 정면에 쌍룡의 용트림이 새겨졌는데 앞에는 입을 벌리고 있고 뒤의 것은 다물고 있다.

규모는 귀부길이 410㎝ · 폭 260㎝ · 높이 82㎝ · 머리높이 88㎝, 비높이 193㎝ · 너비 110㎝ · 두께 3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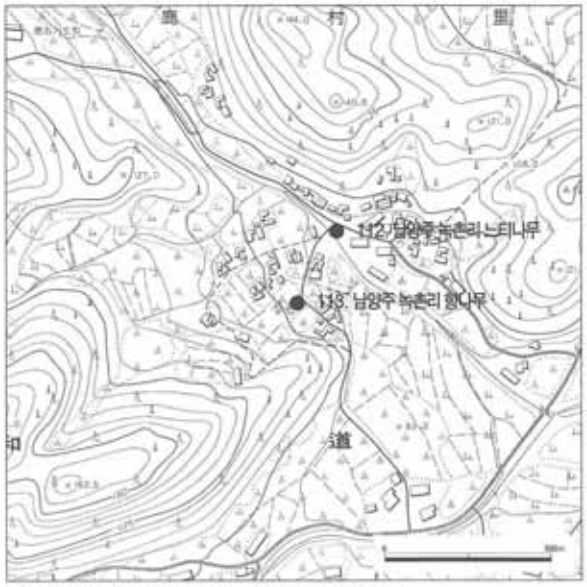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향토유적 제3호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지도112 남양주 녹촌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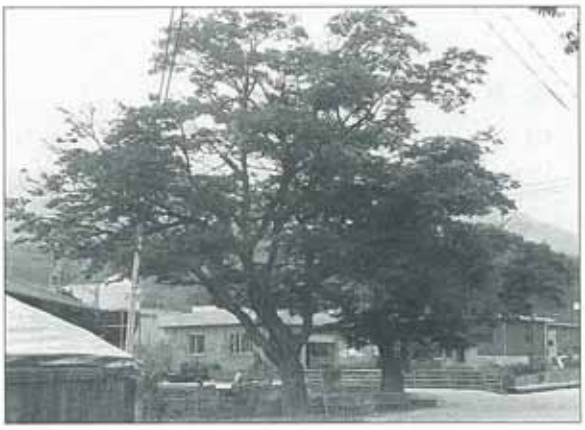


사진112 남양주 녹촌리 느티나무

112. 南楊州 鹿村里 느티나무

□소재지 : 화도읍 녹촌리 327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46번 국도를 타고 춘천 방향으로 가다가 덕소－마석간 지방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덕소 방향의 녹촌리로 들어와 상촌마을을 찾으면 마을회관 맞은편 개울가 공터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를 만날 수 있다. 회관앞에서 보았을 때 우측의 나무는 옆으로 길게 누운 형상으로 주간에 돌기가 형성되어 주간높이 2.3m 부위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으며 끝가지 일부가 고사된 채 매달려 있다. 좌측의 느티나무는 주간높이 2.5m 부위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 뻗었으며 개울쪽으로 기운 모습이나 수세가 양호하고 잎과 가지가 사방으로 발달한 원정형의 모습이다. 두 나무는 서로 약 3m의 간격을 두고 서 있는데 나무사이의 공간에는 연자방아, 댓돌 등의자 등이 놓여있어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동네 사람들과 신나는 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쉼터이며 놀이공간이다. 예전에는 그네를 매어타기도 했던 마을의 정자목으로 마을사람들의 일상에 묻혀있는 행복한 나무이다.

수령 350년, 수고 15m, 흉고둘레(右) 3.8m, (左) 2.9m, 수관폭(右) 11m, (左) 12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27(1982. 10. 15)

113. 南楊州 鹿村里 향나무



사진113 남양주 녹촌리 향나무

□소재지 : 화도읍 녹촌리 334(지도11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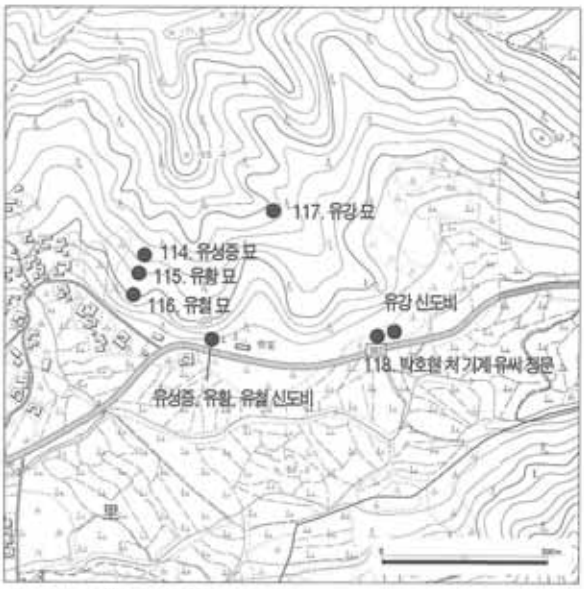
녹촌리 상촌마을의 보호수인 네 그루의 향나무가 서 있는 자리는 원래 넓은 기와집 사랑채 바깥마당이었는데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가옥이 무너지고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다. 도로쪽의 가장 큰 향나무는 하부에서부터 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뻗었으며 인접 향나무와 맞물리는 쪽의 가지발달이 적으나 전체 모습은 정연한 우산형이다. 단풍나무 등과 어울려 서있는 안쪽의 향나무들은 타원형 또는 원추형의 모습으로 서로 의지하여 길게 늘어선 형상으로 상촌마을 역사를 지키려는 듯 당당하게 서있다.

회관 맞은편에 서있는 느티나무(경기-남양주-27) 뒷편 개울을 건너 마을안으로 들어오면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서있는 향나무를 볼 수 있다.

수령 100년, 수고 12~13m, 흉고둘레 0.7~1.0m, 수관폭 9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28(1982. 10. 15)

114. 兪省曾 墓 및 神道碑



지도114 유성증 묘 위치도(양수 042)



사진114-1 유성증 묘

□소재지 : 화도읍 차산리 산67-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유성증(1576~1649)은 조선 중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杞溪, 자는 子修, 호는 愚谷 혹은 拗谷이며 선무랑 大儀의 아들이다. 母는 李承緖의 딸이다.

묘는 차산리 원차산 마을의 도로변에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유성증 · 유황 · 유철의 묘 3기가 南向하여


사진114-2 유성증 신도비

나란히 있는데 그중 제일 상부에 자리잡고 있다. 묘는 貞敬夫人 綾州具氏와의 합장묘로 동서직경 460㎝, 높이 150㎝의 원형분묘이며 봉분 하단에는 높이 30㎝ · 길이 225㎝인 7매의 호석을 둘렀다. 합장묘의 뒷편에는 貞敬夫人 全州李氏의 묘가 있다. 봉분 앞에는 상석 · 직사각형의 향로석 · 계체석과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을 각 한 쌍씩 배치하였다.

墓碣은 봉분의 우측에 西向하여 복련의 무늬를 새긴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에는 4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에 4열로 "有明朝鮮江原道觀察使贈左贊成俞公省曾之墓 贈貞敬夫人綾州具氏祔 貞敬夫人全州李氏墓在亞少北"이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鄭皓가 짓고 김수증이 글을 썼으며, 글씨는 한석봉의 글씨를 集字한 것이다. 건립연대는 1707년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66㎝ · 너비 103㎝ · 두께 32㎝, 비신 높이 160㎝ · 너비 61㎝ · 두께 25㎝, 옥개석 높이 25㎝ · 너비 110㎝ · 두께 80㎝이다.

神道碑는 원차산마을 도로변에 南向하여 있는 크고 작은 4기의 비 중에서 좌편에 있는 비로 규모가 가장 작다. 총 높이 273㎝로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前後 2면, 左右 1면에 안상문과 상부에 前後 5엽, 左右 1엽씩의 복련문이 있다. 백색대리석의 비신에는 前後 2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 상단에 篆書로 "贈左贊成俞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朝鮮國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情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俞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原任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李景奭이 찬하고, 通情大夫 前 兵曹參議 知制敎인 아들 俞棨 서하고, 原任 自獻大夫 刑曹判書 兼 知義禁府 春秋館事 金光煜이 전하였다. 건립연대는 1652년(효종 3)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56㎝ · 너비 133㎝ · 두께 73㎝, 비신 높이 181㎝ · 너비 79㎝ · 두께 25㎝, 옥개석 높이 36㎝ · 너비 109㎝ · 두께 67㎝이다.

□ 지도번호 : 마석 206-3

115. 兪棨 墓 및 神道碑



사진115-1 유황 묘



사진115-2 유황 신도비

□소재지 : 화도읍 차산리 산67-1(지도11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유황(1599~1655)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杞溪, 자는 叔典, 호는 鳳洲이다. 관찰사 省曾의 아들로 李廷龜의 문인이다.

묘는 유성증 묘 바로 아래에 南向하여 있으며 정경부인 송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근래에 마련한 상석과 향로석이 있는데, 상석의 前面에는 篆書體로 左에서 右로 "之配柳氏墓在案山(小字) 觀察使俞公墓(大字) 繼配宋氏　在左(小字)"라 하였다. 이외의 석물로는 장대석과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을 각각 한 쌍씩 배치하였다.

유황의 묘에는 특이하게도 墓碣이 상석 좌우에 각각 1기씩 있는데, 右측의 묘갈은 장방형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有明朝鮮國全羅道觀察使 贈吏曹判書鳳州俞公棨之墓"이라 새겨져 있다. 건립연대는 1709년(숙종 35)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33㎝ · 너비 103㎝ · 두께 70㎝, 비신 높이 117㎝ · 너비 53㎝ · 두께 24.5㎝, 옥개석 높이 35㎝ · 너비 90㎝ · 두께 62㎝이다.

左측의 묘갈은 장방형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에는 前面에 3열로 "贈貞敬夫人 宋氏祔 觀察使在 贈左贊成諡忠簡俞公棨墓"이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송시열이 찬하고 權尙夏가 서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645년(인조 23)이다. 비신에는 전후 우측 측면 중앙으로 직경 40㎝의 큰 탄흔이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0㎝ · 너비 100㎝ · 두께 68㎝, 비신 높이 118㎝ · 너비 53㎝ · 두께 23㎝, 옥개석 높이 35㎝ · 너비 93㎝ · 두께 64㎝이다.

神道碑는 원차산마을 도로변에 南向하여 있는 4기의 비 중에서 유성증 신도비 옆에 있는 비로 규모가 가장 크다. 총높이 400㎝로 민무늬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화강암재질로 상부를 말각하였으며 표면이 일부 박리된 상태로 흑적색을 띠고 있다. 비신은 오석으로 4면에 비문이 있으며, 비신 상단에는 4면에 걸쳐 篆書로 "觀察使贈左贊成○忠簡俞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通憲大夫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諡忠簡俞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宋時烈이 찬문을 짓고, 宋浚吉이 비문의 글씨를 쓰고, 金壽恒이 전액을 썼다. 송준길의 비문은 왕희지체를 기본으로 글씨의 굵은 획을 가미하여 보다

중후한 맛을 내었다. 그는 송시열과 더불어 兩宋體로 불리면서 17세기 후반의 서단을 주도하였다. 이 비 역시 가는 획에 직선과 곡선을 조화시키면서 곧은 필세를 강조하였다. 건립연대는 1672년이다. 옥개석은 면석이 얇아 날렵한 느낌이며 양 끝을 뾰족하게 치켜 세웠다.

규모는 비좌 높이 95㎝ · 너비 200㎝ · 두께 143㎝, 비신 높이 230㎝ · 너비 104㎝ · 두께 47.5㎝, 옥개석 높이 75㎝ · 너비 190㎝ · 두께 124㎝이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사진116-1 유철 묘

116. 兪撤 墓 및 神道碑

□소재지 : 화도읍 차산리 산67-1(지도11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유철(1606~167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杞溪이며 자는 方叔, 자산군수 泳의 증손이며 관찰사 省曾의 아들로 참봉 구준의 외손이다.

1627년(인조 5)에 생원시에 오르고 1633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임명되었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司諫院에 재직 중 친청파로서 명나라 대신에 청에 사대의 예를 갖추자고 건의 시행케 되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당시 淸에 끌려가 살해된 오달제, 윤집, 홍익한 등 三學士의 유족에게 恩典을 베풀게 하였다. 1652년(효종 3) 사은부사로 다녀와서 이듬해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으며, 1655년 대사간으로 재직시 인평대군에게 칭신한 승지 유도삼의 파직을 주장하다가 효종의 노여움을 사서 진도로 유배되었다. 얼마 후 여러 대신들의 무마로 방환되고 현종 초에 복관되어 대사헌에 이르렀다. 이후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유철 묘는 유황 묘 아래에 南向하고 있다. 묘는 가운



사진116-2 유철 신도비



사진116-3 유철 신도비 이수

데 윗부분이 유철의 묘이며, 약간 아래 좌측에 貞夫人 淸州 韓氏의 묘 및 우측 아래에 貞夫人 豊川 任氏의 묘가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묘역이 '∴' 형태를 띠고 있다. 봉분 앞에는 墓碣 · 상석 · 6각형의 향로석 · 장대석 ·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등 다수의 석물과, 동자석 앞 좌우에는 특이하게도 다른 묘역에는 없는 詩碑가 각각 1기씩 있다.

墓碣은 봉분 앞 중앙에 위치하여 복련을 장식한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에는 前面에 4열로 "有明朝鮮國司憲府大司憲俞公撤之墓 貞夫人淸州韓氏祔 貞夫人豊川任氏祔"라 크게 음각되어 있다. 비문은 김창협이 짓고, 俞初煥이 글을 썼다. 여기에 추가로 俞致益이 글을 지었으며 건립연대는 1700년(숙종 26)이다. 옥개석은 처마 면석이 거의 '一'이며 우측이 일부 파손 및 상부에 이무기를 左右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크기는 비좌 높이 37㎝ · 너비 98㎝ · 두께 66㎝, 비신 높이 110㎝ · 너비 52.5㎝ · 두께 25.5㎝, 옥개석 높이 34㎝ · 너비 109㎝ · 두께 76㎝이다.

俞檄 詩碑는 봉분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1기씩 위치하는데, 시비는 총 높이 180㎝로 민무늬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4모지붕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왼쪽은 해서체로 된 贈別詩碑이고 오른쪽은 전서체로 된 挽詩碑이다. 이 비는 인조 · 효종 · 현종 · 숙종 상반기에 걸쳐 활동한 역사적 명사 16명이 유철선생 생전에 준 증별시를 숙종 하반기에 활동한 명사 16명이 글씨를 써서 1734년(영조 10)에 세운 것이다. 각 시비에는 각 면에 두 명씩 시를 찬하고 두 명씩 글을 썼다. 그리하여 총 32명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조선 후기 기호사림의 거두들로서 이 당시 시문학과 글씨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비문 중 일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酒泉贈別詩
浮世倀倀少友朋 與君爲別別愁增
早聞北斗眞喉舌 晩識南州是股肱
孝理固應重寵渥 宦情初不在寮讌
亦知危亂須良吏, 莫以鹿材笑薛能

세상살이 갈팡질팡 사귄 친구 적은데
그대마저 작별하자니 시름이 더하는구나
초년에는 북두같은 참다운 후설(승정원관리)을 들었더니
만년에는 남주에서 바로 고굉(왕이 신임하는 신하)의 재목임을 알았고
효리하는 치하에서는 은총을 입어 마땅하건만
벼슬하는 심정은 애시당초 건등(벼슬길)에 있지 않았다오
위난에는 역시 양리(훌륭한 선비)가 있어야 하거늘
서투른 재기라고 설능(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맹상군)을 비웃지는 말아주구려

(7언시, 撰 湖洲 蔡裕後, 書 副提學 李綽)

이 비를 당초 세우려고 계획한 사람은 유철 선생의 둘째아들 俞命健으로 평소에 시를 모아 두었다가 이후에 세운 것이다. 유명건 선생은 1712년(숙종 38) 유철 선생의 신도비를 세운 이후 아들인 俞最基와 조카 俞拓基, 종형제 등에게 명하여 평소에 유철과 친분이 있던 분의 자손과 유철 선생 자손들과 연고가 있는 분들의 글씨를 받아 두게 하였다. 그리하여 유명건 선생 사후인 1734년(영조 10)에 유최기와 유척기 등이 시비를 세운 것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91㎝ · 너비 25㎝ · 두께 91㎝이고, 비신 높이 34㎝ · 너비 122㎝ · 두께 33.5㎝이다. 옥개석은 높이 86㎝ · 너비 57㎝ · 두께 86㎝이다.

神道碑는 원차산마을 도로변에 南向하여 있는 4기의 비 중 유황의 신도비 옆에 위치하고 있다. 총 높이 334㎝로 비좌와 비신 및 한 쌍의 이무기를 특이하고도 우수하게 조각한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백색화강암으로 상부를 말각하였다. 비신은 前後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상부에는 전서로 전후 2면에 걸쳐 "朝鮮國司憲府大司憲俞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兼同知成均館事俞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송시열이 찬하고 김수증이 서하고 김수항이 전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712년(숙종 38)이다. 이수는 이무기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으며 이수의 용트림을 관통하여 입체적으로 조각한 것이 매우 특이한 양식이다. 또한 이수부의 하부에도 직방형의 비신곽 및 운문의 화려한 조각을 하여 놓았다.

규모는 비좌 높이 81㎝ · 너비 157㎝ · 두께 95㎝, 비신 높이 196㎝ · 너비 83㎝ · 두께 34㎝, 옥개석 높이 57㎝ · 너비 146㎝ · 두께 100㎝이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참고문헌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I』, 1998.

117. 兪絳 墓 및 神道碑



사진117 유강 묘

□소재지 : 화도읍 차산리 산116(지도11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유강(1510~1570)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杞城, 자가 絳之, 시호는 肅敏이다. 예조판서를 지낸 汝霖의 아들로 도승지,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차산리 원차산마을 기계유씨 문중묘역의 제일 좌측에 南向하여 있다. 동서 직경 610㎝, 높이 180㎝의 원형분묘로서 하단에는 19매의 호석을 두르고 있다. 정부인 전주이씨 및 정부인 의령남씨와의 합장묘로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幞頭의 문인석은 좌측은 전체에 흑색 돌이끼가 있으며, 우측의 문인석은 녹색의 돌이끼가 있어 대조를 보인다.

墓表는 봉분 중앙에 위치하여 비좌와 비신 월두형으로 비신은 검게 산화 및 비문의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모되어 있으며, 건립연대는 1572년(선조 5)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24㎝ · 너비 106㎝ · 두께 52㎝, 비신 높이 136.5㎝ · 너비(上) 59㎝ · 너비(下) 60㎝, 두께 17㎝이다.

神道碑는 묘 아래 길 옆에 南向하여 비각내에 보존되어 있다. 총 높이 260㎝로 비좌와 비신 및 용문양의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문은 李廷龜가 찬하고, 兪棨이 쓰고, 金光炫이 전한 것을 증손 兪省曾이 1639년(인조 17)에 세웠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78㎝ · 너비 84㎝ · 폭 30.5㎝이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118. 朴好賢 妻 杞溪兪氏 旌門



사진118 박호현 처 기계유씨 정문

□소재지 : 화도읍 차산리 산27(지도11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충효비(정문)
□내 용

박호현 처 기계유씨 정문은 화도읍 차산리 원차산마을 기계유씨 묘역의 아래 길가에 南向하여 유강신도비와 인접하여 비각내에 있다.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형태로 단출하게 되어 있다. 정문안에는 가운데 붉은 현판에 정려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孝女 通訓大夫 贈司僕寺正 朴好賢妻 贈淑人杞溪兪氏之門"이라 써 있으며 "崇禎後 3己卯 11日 命旌"하여 이때 정려가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119. 柳洙 墓 및 神道碑



지도119 유수 묘 위치도(양수 043)



사진119 유수 신도비

□소재지 : 화도읍 차산리 산42-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유수(1415~1481)는 조선 전기의 무관으로 본관은 文化, 자는 魯澤, 호는 葆川. 지중추부사 殷之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1435년(세종 17) 世子翊衛司 左

侍直이 되고, 뒤에 금군인 內禁衛에 소속되었다. 1453년(단종 1) 首陽大君이 단종의 보호세력인 皇甫仁 · 金宗瑞 등 원로대신을 살해, 제거한 癸酉靖難 때 韓明澮의 추천으로 거사 행동책으로 기용되어 협력한 공으로 靖難功臣 2등이 되고 文城君에 봉하여졌다. 1455년(세조 1) 僉知中樞院事가 되고, 얼마 뒤에 호조참의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에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457년 仁順府尹이 되고 호조 · 공조 · 형조의 참판을 거쳐 이듬해 성절사 겸 천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59년 동지중추원사와 전라도도절제사를 역임하고, 1461년 좌참찬이 되었다. 이듬해 함길도도순찰사가 되었고, 1469년(예종 1) 다시 문성군에 봉해졌다. 1471년(성종 2) 성종의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佐理功臣 4등이 되었다. 학식도 없고 책략도 없었으나, 무술로 세조의 계유정난에 가담하여 현달한 대표적인 세조 공신이다. 시호는 安襄이다.

묘는 화도읍 차산리 이순지 묘역 길거너편 산에 위치하여 부인과의 쌍분이다. 쌍분으로 된 묘역 앞에는 고려식 연화형의 묘표(45㎝×16㎝×115㎝)가 있는데, 비가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다. 묘표 앞에는 새로 만든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망주석과 높이 180㎝인 원래의 문인석이 있는데, 조선 초기의 양식으로 마모가 심하다. 그 중간에는 일자형의 민무늬로 된 장명등이 있는데, 조선 초기의 것으로 하단은 일자형의 사각형 위에 맞배지붕 형태의 옥개석으로 되어 있다.

神道碑는 묘역 입구 우측에 있다. 사각형의 비좌는 복련으로 장식되어 있고 비신은 새로 만든 것인데 옥개석은 연화형으로 용이 양각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신 前面 상단에는 篆書로 "安襄公碑銘"이라 횡서했고, 비제는 "安襄公洙神道碑銘 并序"이다. 본래의 비문은 1487년(성종 18)에 세워진 것으로 도승지 任仕洪이 찬하였던 것을 1985년에 柳光烈이 書하였다.

규모는 비좌 높이 42㎝ · 너비 100㎝ · 두께 55㎝, 옥개석 높이46㎝ · 너비69㎝ · 두께19㎝이다.

□ 지도번호 : 마석 206-3

120. 李純之 墓



사진120 이순지 묘

□ 소재지 : 화도읍 차산리 산5(지도119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이순지(1406~1465)는 조선초기의 천문학자로 자는 誠甫, 본관은 陽城으로 병조판서 李孟常의 아들이며 시호는 靖平이다. 1427년(세종 9) 親試文科에 급제, 세종의 명으로 曆法을 연구해 관의대의 관측책임을 맡아서 그림자를 관측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담 · 김조 · 이천 · 장영실 등과 협조하여 자격루 및 玉漏의 儀象을 교정하였고 簡儀圭表, 大平縣珠, 仰釜日晷, 自擊漏 등을 제작, 설치하였다. 왕명에 따라 역법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1465년(세조 11) 판중추원사와 行上護軍 등의 벼슬을 하다 그해 사망했다. 성격이 치밀하여 算學, 天文, 陰陽, 風水 등 여러 방면에 능통했다. 김담과 함께 『七政算外篇』을 저술하였고 그 외 『天文類抄』, 『文食推步假令』, 『選擇要略』, 『諸家歷象集』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묘는 마석우리와 차산리간 362번 도로변의 나지막한 구릉(노루모재) 우측에 南向하여 울타리를 둘러 보호시설을 하여 놓았으며, 앞에는 광암저수지(낚시터)가 있다. 묘역의 입구에는 백색화강암의 귀부와 오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근래에 건립한 신도비가 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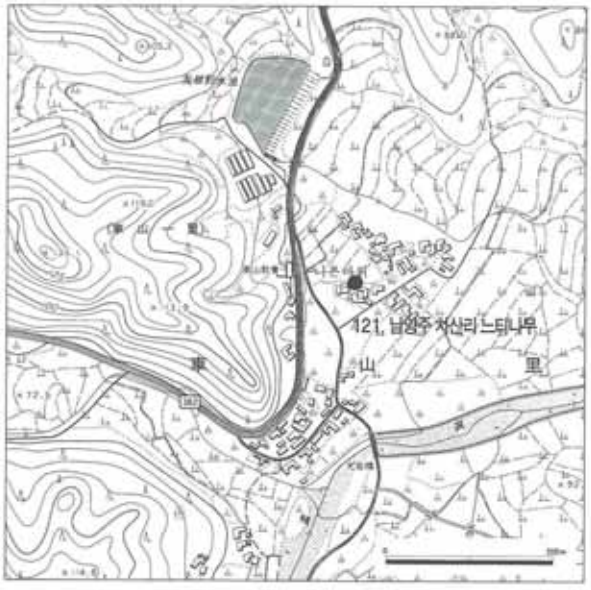
向하고 있다.

원형봉분은 높이 1.8m, 동서직경 8.8m, 둘레 15m로 부인과의 合葬墓이다. 봉분 앞에 墓碑와 床石이 각 2기씩 세워져 있는데, 비는 상부 연봉이 장식된 화관형으로 5백여 년의 풍상을 겪어 부식되고 단출한 모습이며 높이 117㎝ · 너비 44㎝ · 두께 24㎝이다. 前面에는 각각 "判中樞靖平李純之之墓", "貞夫人寧越辛氏之墓"라 쓰여져 있다. 고려시대 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묘비에서 약 5m 전방에 명문이 없는 장방형의 기둥이 좌우에 세워져 있는데 상단에 약간 몰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4호

121. 南楊州 車山里 느티나무



지도121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43)

□소재지 : 화도읍 차산리 156-17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사진121-1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1



사진121-2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2

□내　용

보호수 뒷편으로 커다란 바위가 있어 광암마을로 불리는 차산 1리 광암마을 한가운데 나란히 서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 사이로 지금은 복개되었지만 작은 도랑이 흘러 도랑을 경계로 나무의 뿌리가 각기 반대방향으로 뻗었다고 한다.

크기가 큰 도로쪽의 느티나무는 누운 듯 뒤로 젖혀져 주간높이 2m 부위에서 굵게 두 갈래로 갈라졌으며 도로쪽으로는 가지의 발달이 거의 없어 전체 모습은 불균형적이다. 작은 좌측의 나무는 주간높이 2.5m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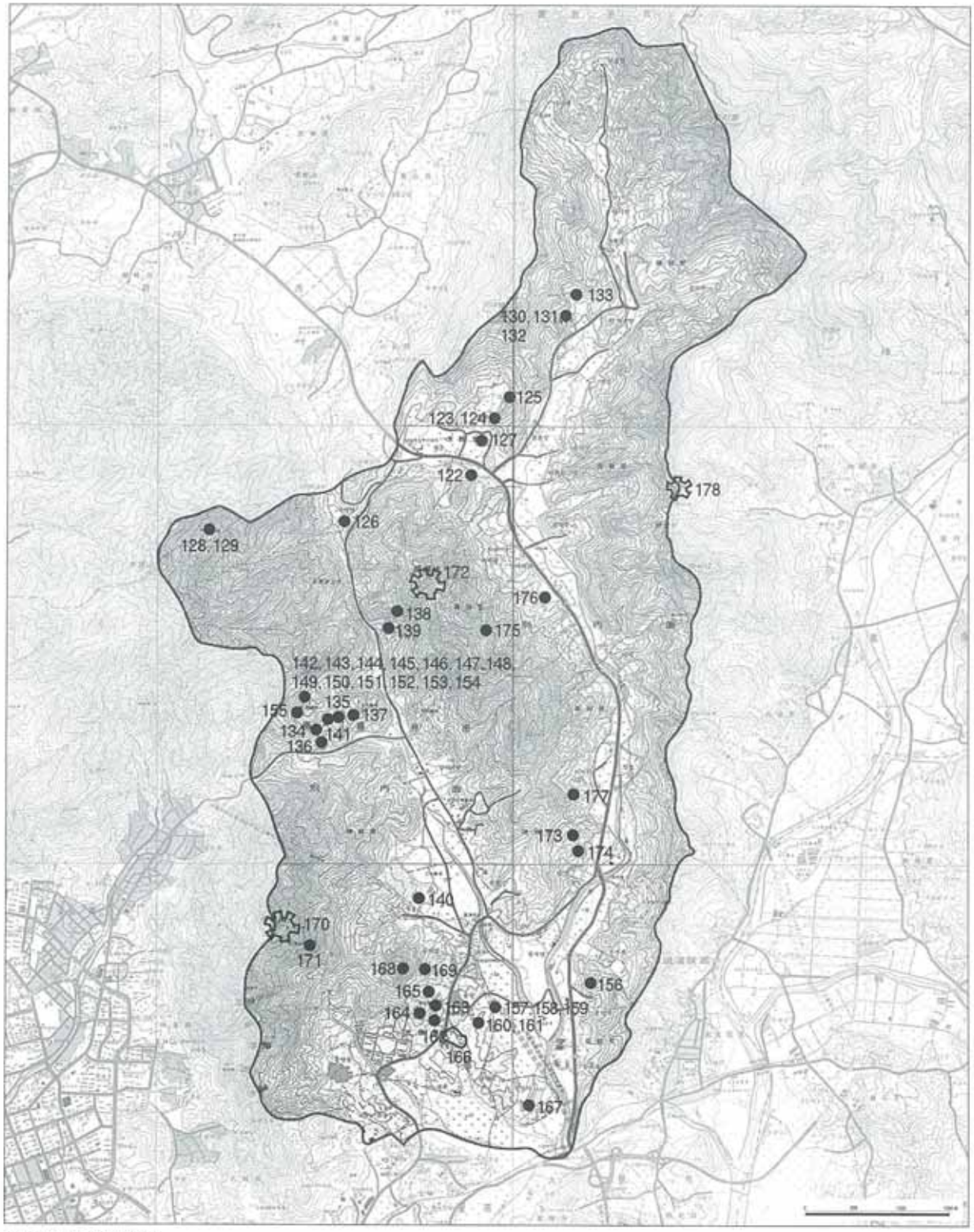
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으며 사방으로 잎과 가지가 고루 퍼진 정연한 원정형의 모습으로 수령은 도로쪽의 큰 나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전에는 그네를 매어 타고 시원하고 넉넉한 그늘아래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즐기던 마을의 공동쉼터로 올빼미와 뱀이 많이 살았으며 나무의 가지가 부러져 땅에 떨어져도 땔감으로 쓰지 않고 나무에 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고 있는 정자목이다.

수령 450년, 수고(大) 8m, 흉고 둘레 5.5m, 수관 폭 12m, 수고(小) 12m, 흉고둘레 2.2m, 수관폭 13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25(1982. 10. 15)

別內面



별내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122. 南銑 墓 및 神道碑



지도122 남선 묘 위치도(성동 015)



사진122 남선 묘

□소재지 : 별내면 청학리 산78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남선(1582~1654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擇地, 호는 晦谷 · 大夢, 본관은 宜寧,시호는 貞敏이다. 茂朱縣監 復始와 좌의정 김명원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1606년(선조 39)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光海君의 어지러운 정치가 계속되자 벼슬에 뜻을 잃고 관직을 단념했다. 그러나 1629년(인조 7) 別試文科 丙科로 급제하여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으며 1632년 해주목사로 승진하였다. 이후 여러 요직을 거쳤는데 1649년 효종 즉위시 경기도관찰사 ·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1650년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다. 1652년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형조 · 예조판서를 지내고 1654년 세자우빈객 · 의정부우참찬이 되었다.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외직을 많이 역임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善政을 베풀어 頌德碑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묘는 별내면 청학리 43번 도로변의 나지막한 구릉에 北東向하여 있는데 정부인 도씨와의 합장묘이다. 바로 위에는 南孝義의 묘가 있고, 아래에는 南鎰의 묘가 있다. 봉분앞에는 묘표 · 상석 · 4각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墓表는 비좌와 비신이 월두형으로 비신 前面에 3열로 "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世子右賓客南公銑之墓 貞夫人○都氏之墓"라 써 있다. 문인석은 金冠朝服形으로 높이 172㎝이며 머리부분이 60㎝이다.

神道碑는 묘역 입구의 근래 세운 신도비 좌측에 비신과 팔작지붕 옥개석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禮曹參判南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현재 남아 있는 비신의 크기는 너비 89㎝ · 두께 30㎝이며, 비의 비문은 金堉이 지었다고 한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비 고 : 향토유적 제7호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3, 1997.

123. 南秉哲 墓 및 神道碑



사진123-1 남병철 묘



사진123-2 남병철 신도비

□소재지 : 별내면 청학리 산27-2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남병철(1817~1863)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천문학자 · 수학자이다. 본관은 宜寧이며, 자는 宇明 · 元明, 호는 圭齋 · 絳雪, 시호는 文貞이다. 판관 久淳의 아들로 철종의 장인인 金汶根의 외질인 秉吉의 형이다. 1837년(헌종 3) 庭試文科에 급제한 뒤, 永恩府院君 金汶根의 外姪로서 안동김씨 세도정치 때 중용되었다. 1856년(철종 7) 예조판서, 뒤에 이조판서 겸 대제학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조선 후기의 과학 ·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과학자의 한 사람이자, 수학과 천문학에 뛰어나 水輪 · 地球儀 · 四時儀 등을 제작하였다. 글씨를 잘 써 이천시 부발면 가좌리 김조순 신도비의 글씨와 전을 맡았다. 저서로는 『圭齋集』, 『推步續解』, 『의기집설』, 『海鏡細草解』 등이 있다.

묘는 별내면 청학리 주공아파트 308동 및 신설학교 맞은편의 나지막한 구릉에 있는 의령남씨 묘역의 제일 아래에 西向하여 있다. 현재 주변이 아파트 건설 등과 같은 택지조성공사로 인해 어수선하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과 문고리 모양이 4방에 양각된 두 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는 상석 · 4각향로석 · 장명등 · 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 중 장명등은 사각형의 받침에 팔작지붕 형태로 원형의 화창석이 4개소 있다. 봉분 좌측의 墓碑는 민무늬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2열로 "崇祿大夫行吏曹判書大提學 贈諡文貞圭齋南公炳哲之墓"라고 썼다. 비문은 內弟 輔國崇祿大夫行 判中樞府事 金炳冀가 찬하고, 資憲大夫行 龍驤衛 大護軍 申錫禧가 썼으며, 건립연대는 1864년(고종 1)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55㎝ · 너비 90㎝ · 두께 76㎝, 비신 높이 144㎝ · 너비 51㎝ · 두께 29.5㎝, 옥개석 높이 48㎝ · 너비 94㎝ · 두께 72㎝이다.

神道碑는 의령남씨 묘역 입구 길 옆에 南龍翼神道碑 · 南公墓碣 등 3기의 비가 西向하여 나란히 있는데, 그 중 왼편에 위치한 가장 큰 비가 남병철의 신도비이다. 총 높이 325㎝로 민무늬 비좌에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전후 2면에 걸쳐 "吏曹判書大提學諡文貞圭齋南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朝鮮國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奎章閣提學日講官贈諡文貞圭齋南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

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趙斗淳이 짓고, 嘉善大夫 吏曹參判 李興敏이 쓰고, 舍弟 資憲大夫 南秉吉이 전을 하였다. 건립연대는 1864년(고종 1)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68㎝ · 너비 125㎝ · 두께 93㎝, 비신 높이 193㎝ · 너비 73㎝ · 두께 36㎝, 옥개석 높이 64㎝ · 너비 129㎝ · 두께 96㎝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124. 南相吉 墓



사진124 남상길 묘

□소재지 : 별내면 청학리 산27-2(지도12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남상길(1820~1869)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천문학자이다. 본관은 宜寧이며, 초명은 秉吉, 자는 子裳, 호는 六一齋 · 晩香齋, 판관 久淳의 아들로 대제학 병철의 弟이다. 1850년(철종 1) 增廣文科에 丙科로 급제한 이후 修撰 · 황해도관찰사 · 이조참판 · 형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1862년(철종 13) 左參贊에 이르렀다. 1861년(철종 12)에 편집 · 간행된 『星鏡』 2卷 2冊은 중국과 서양 천문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曆法에 대해서도 정통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曆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정리하여 『時憲紀要』 2卷 2冊을 저술하였다. 저술로는 『時憲紀要』, 『星鏡』, 『晩香齋詩抄』, 『推步捷例』, 『算學正義』, 『春秋日食攷』, 『太陽更漏表』, 『中星新表』 등이 있다.

묘는 청학리 동학골 병철 묘역 우측 위에 南西向하여 용미와 활개를 갖추고 단출하게 있다. 원형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잇으며, 앞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망주석 · 계체석 등의 석물이 있다. 이 중 상석은 문고리 문양이 양각된 두 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前面에 左에서 右로 2행에 걸쳐 "崇祿大夫行吏曹判書贈諡文靖南公相吉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높이 36㎝ · 너비 116㎝ · 두께 79㎝이다. 망주석은 민무늬의 8각으로 높이 157㎝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125. 南龍翼 墓 및 神道碑



사진125 남용익 묘

□소재지 : 별내면 청학리 산27-2(지도12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남용익(1628~?)은 조선 중기의 문신 · 학자로 본관은 宜寧이며, 자는 雲卿, 호는 壺谷이다. 부사 得名의 아들이며, 1646년(인조24) 진사가 되고 1648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시강원설서 · 성균관전적과 삼사를 거쳐, 병조좌랑 · 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고, 잠시 경사도사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삼사로 돌아왔다. 1655년(효종 6)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關白의 願堂에 절하기를 거절하여 음식 공급이 중지되고,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았다. 이듬해 돌아와 湖堂에 뽑혀 들어갔고 문신중시에 장원, 당상관으로 진급하여 형조 · 예조참의, 승지를 역임하고 양주목사로 나갔다. 현종 때는 대사간 · 대사성을 거쳐 공조참판을 빼고는 전 참판을 지냈으며, 잠시 외직으로 경상 · 경기감사로 나갔다가 형조판서에 올랐다. 1680년(숙종 6)부터 좌참찬 · 예문관제학을 역임하고, 1689년 昭儀張氏가 왕자를 낳아 숙종이 그를 원자로 삼으려 하자, 여기에 극언으로 반대하다가 명천으로 유배되어 3년 뒤 그곳에서 사망했다. 저서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 인조대까지의 명인 497인의 시를 모아 엮은 『箕雅』, 『扶桑錄』, 그리고 자신의 시문집인 『壺谷集』을 남겼다. 諡號는 文憲이다.

묘는 청학리 동학골 의령남씨 묘역의 제일 위에 위치하여 南西向하고 있다. 원형 봉분앞의 墓表는 비좌에 비신이 월두형으로 높이 170㎝의 길쭉한 비신이 이채롭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나 마모로 인해 비문을 알아보기 어렵다. 크기는 비좌 높이 25㎝ · 너비 90㎝ · 두께 50㎝, 비신 높이 170㎝ · 너비(上) 67㎝ · 너비(下) 60㎝ · 두께 20㎝이다. 비 앞에는 상석 · 계체석 · 4각향로석 · 동자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는데, 우측의 망주석은 상당 부분이 마모되었다. 망주석 앞 좌우에 있는 문인석은 金冠朝服形이며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의 윤곽이 뚜렷하다. 좌측의 문인석이 온전한 반면, 우측의 문인석은 머리부분이 파손되어 없다.

神道碑는 묘역의 입구에 있는 3기의 비 중 중간에 위치하여 西向하고 있다. 좌측의 남병철 신도비와 형태가 같으나 규모가 약간 작다. 총 높이 271㎝로, 민무늬로 된 비좌에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전면 상단에 篆書로 전후 2면에 걸쳐 "吏曹判書大提學諡文憲南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兼判義禁府事吏曹判書弘文館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贈諡文憲壺谷南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資憲大夫 議政府 左參贊 李縡가 짓고, 玄孫 嘉義大夫 禮曹參判 公轍이 쓰고, 外 5代孫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李秉模가 썼으며, 건립연대는 1804년(순조 4)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58㎝ · 너비 114㎝ · 두께 83㎝, 비신 높이 157㎝ · 너비 66㎝ · 두께 35㎝, 옥개석 높이 56㎝ · 너비 114㎝ · 두께 81㎝이다.

□참고문헌 :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26. 李弘述 神道碑



지도126 이홍술 신도비 위치도(성동 025)



사진126-1 이홍술 신도비

□소재지 : 별내면 청학리 산90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신도비
□내 용

이홍술(1647~1722)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士善, 본관은 全州, 시호는 忠定이다. 그의 졸기에 그를 평가하기를, "이홍술은 침착하고 굳세어 騎射에 능



사진126-2 이홍술 신도비 비좌(비좌의 당초문양이 매우 화려하다)

했으므로, 젊어서 武科에 급제하였다. 肅宗朝에 평안도 절도사가 되어서는 명망이 무신 가운데 으뜸이었다. 숙종 42년에 훈련대장에 승진되고 형조판서를 지냈다. 숙종이 昇遐하자 禁兵을 거느리고 宮城을 호위하였는데, 行陣을 엄중히 하여 출입자를 譏察하였다. 비록 首輔인 金昌集의 명령도 받지 않았으므로, 宮門이 肅然하여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景宗이 즉위하여서는 大臣과 함께 儲嗣를 세울 것을 청하여 임금이 허락하였으므로, 드디어 英宗을 册立하여 王世弟로 삼았다. 그런데 金一鏡이 은밀히 宦官 朴尙儉과 결탁하여 矯旨로 宣傳官을 발견하여 이홍술의 兵符를 빼앗았다. 처음에 이홍술이 포도대장을 겸직하고 있을 적에 妖人 陸玄이 무리를 모아 도적질을 하였으므로 체포하여 杖殺하였는데, 김일경이 "육현은 평소 김창집의 문하에서 노닐었으므로, 그들의 은밀한 일을 알게 되자, 김창집이 그를 미워한 끝에 몰래 이홍술을 시켜 때려 죽임으로써 그 입을 봉하려 했던 것이다."고 하면서 이홍술을 下獄시키고 고문을 가하여 힐문했으나, 이홍술이 辭氣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므로, 獄卒들도 警服하였다. 徐德修는 고문을 받다가 죽었으므로 獄吏가 結案에다 대신 押署하였다. 또 이홍술을 협박하니, 이홍술이 꾸짖어 말하기를, "죽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가 어떻게 거짓 승복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끝내 승복하지 않은 채 옥중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이 76세였다. 英宗 원년에 이홍술의 관작을 회복시

켜 주었다."라고 하였다.[10] 묘역은 신도비에서 약 20m 위에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神道碑는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의 마당바위유원지 대하휴게소 앞 포장도로변에 南向하여 있다. 전체 높이 349㎝로 백색화강암의 비좌 사면에는 각 1엽씩의 크고 화려한 안상문을 조각하였고, 상부에는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복판복련을 조각하였다. 비신은 백색 대리석이며, 前·後·右 3면에 비문이 있다. 상단에 篆書로 3면에 걸쳐 "刑曹判書贈左贊成諡忠定李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으며, 비제는"有明朝鮮正憲大夫刑曹判書兼知訓練院事五衛都摠府都摠管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訓練院事五衛都摠府都摠管世子貳師贈諡忠定李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李宜顯이 짓고, 輔國崇祿大夫 領敦寧府事 金祖淳이 쓰고, 玄孫 御營大將 嘉善大夫 工曹參判 李溍이 전을 했다. 아울러 비문 끝에 간략하게 비를 세우게 된 내력과 자신의 가계를 적은 글을 덧붙였다. 書體는 정밀하게 규격을 갖추고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 楷書體이며, 건립연대는 1814년(순조 14)이다. 옥개석은 팔작지붕 형태로 기와골이 완연한 지붕형태를 하고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72㎝·너비 147㎝·두께 95㎝, 비신 높이 221㎝·너비 88㎝·두께 40㎝, 옥개석 높이 56㎝·너비 146㎝·두께 91㎝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127. 南楊州 靑鶴里 은행나무



사진127 남양주 청학리 은행나무

□소재지 : 별내면 청학리 204(지도12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남양주시 청학지구 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이 은행나무는 높은 수고를 자랑하며 웅장하게 서 있다. 암나무로 수세가 약해 고사된 채 매달려 있는 가지가 눈에 많이 띄며, 군데군데 동공이 발생되어 있는 주간은 높이 3.5m 부위에서 줄기가 갈라지기 시작하여 내부가지가 휘어서 아래로 향해 있고 전체 모습은 원추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47번 국도를 따라 포천 방향으로 가다가 43번 국도와 만나는 지점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입해 청학리를 찾아 들어오면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채 웅장한 외형을 자랑하며 서있는 이 은행나무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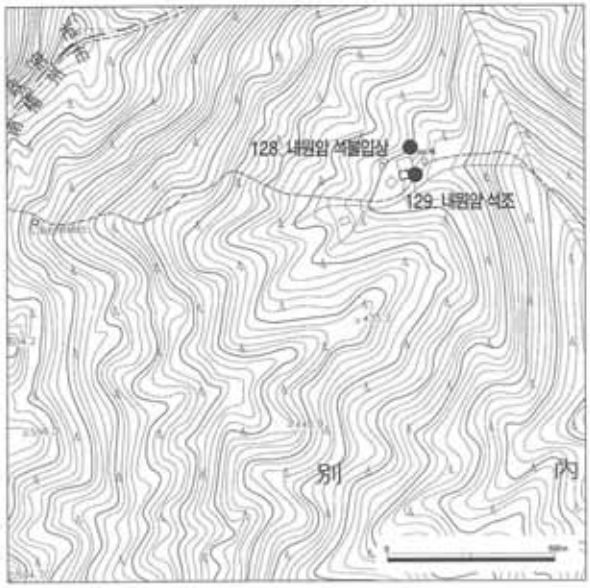
수령 480년, 수고 25m, 흉고둘레 6.0m, 수관폭 16m.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비 고 : 경기-남양주-31(1982. 10. 15)

10) 『경종수정실록』권3, 경종 2년 5월 신묘.

128. 內院庵 石佛立像



지도128 내원암 석불입상 위치도(성동 024)



사진128 내원암 석불입상

□소재지 : 별내면 청학리 578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石佛

□크 기 : 總高 280㎝(佛身高:226㎝)

□내 용

현재 절의 뒤쪽 400m 쯤에 있는 석불입상은 원래 대웅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최근 지금 위치의 절벽 아래에 축대와 단을 조성하여 석불입상을 봉안하였다.

전체 높이가 280㎝나 되는 석재를 다듬어 맨 위쪽은 뾰족하게 해서 앞쪽으로 구부러진 형상으로 光背를 다듬고 頭光과 身光을 돋을새김으로 표현하였다.

불상의 형태는 광배에 高浮彫로 조각되었는데, 佛頭의 경우 육계가 크게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불두 높이의 1/4 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균형잡힌 비례는 아니다. 귀의 모양도 32相 80種號를 잘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과장되게 길어 보여 거의 어깨에까지 이른다. 팔의 경우도 지나치게 크게 표현되었고 손의 모양을 나타내는 手印도 비례에 어울리지 않게 크게 묘사되었다. 불신을 덮고 있는 가사는 U자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가사의 주름 표현이 팔과 몸의 구분을 무시한 채 하나의 주름으로 조식되어 도식적인 평행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 결과 몸과 팔이 가사의 주름으로는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어서 도식화되고 간략화된 석불입상의 조상 예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두발의 표현도 네모나고 간단하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가사가 중첩되는 부분이 목 바로 아래에 V자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전체적으로 불상 자체의 비례가 어긋나고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아주 간단한 도상을 이루고 있다.

이 석불입상의 제작시기는 대체로 조선초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불상의 양식이 대체로 도식화되었던 점도 있지만, 불상 아래쪽 건물 터에서 조선초의 기와와 토기, 백자편 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경기도, 『京畿道佛蹟資料集』, 1999.

129. 內院庵 石槽



사진129 내원암 석조

□소재지 : 별내면 청학리 578(지도12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石槽
□내 용

절의 경내 동쪽에 석탑부재와 함께 놓여 있다. 석조의 규모는 넓이가 186㎝나 되는 비교적 큰 편이다. 그렇지만 화강암으로 되어있는 석재의 질은 오래된 탓에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며 치석상태 또한 정교하지 않다. 전체적인 형태는 석조의 규모와 달리 단출하고 조잡한 편이다.

크기는 높이 55㎝, 가로 186㎝, 세로 88㎝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130. 李袞 墓



지도130 이곤 묘 위치도(성동 016)



사진130 이곤 묘

□소재지 : 별내면 용암리 산70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내 용

이곤 묘는 용암리 도감마을 보덕사 좌측 경주이씨 묘역의 가장 아래에 東向하여 있다. 봉분은 높이 79㎝의 호석이 前面만 있으며, 앞으로 나와 상석 주위를 막아서는 형상이다. 그 앞에 본래 것은 두께가 얇은 상석이 있고, 그 위에 새로 오석재질의 상석을 얹어 놓았

다. 상석과 호석 중간에는 가로 318㎝, 세로 142㎝의 공간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묘역의 형태는 다른 곳에 없는 특이한 것이다. 그 앞에 계체석 · 상석 · 문인석이 있으며, 문인석 앞에 새로 만든 망주석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봉분 좌측에는 1932년에 새운 墓碑가 있는데,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비문은 外孫 通政大夫 前 秘書院承 沈周澤이 찬하고, 崇祿大夫 前判敦寧府事 海平君 尹用求가 썼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131. 李種仁 墓



사진131 이종인 묘

□소재지 : 별내면 용암리 산70(지도13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종인(생몰년 미상)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父는 이조참판을 지낸 李蟠이다. 1429년(세종 11)에 정5품 호조좌랑을 지냈고, 1437년 경력으로 있을 때는 철원에서 임금을 알현하기도 하였다. 1440년엔 정2품 의금부지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이청 묘 바로 위에 東向하며 정경부인 交河 盧氏와의 쌍분이다. 봉분은 前後 355㎝, 左右 485㎝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주위에 호석을 둘렀다. 다른 지역의 것이 앞면과 좌우 측면만 호석을 둘렀다면 여기는 후면까지 두른 것이 특징이다. 앞면에 3매, 측면에 4매, 후면에 3매씩 양쪽 모두에 있다. 봉분 가운데 받침대에 비신만 있는 묘표가 있다. 墓表는 비신 월두형의 등근형으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양귀가 더 쳐져 있으며 공모양을 닮았다. 비신 전면에는 2열로 "議政府左贊成慶州李公種仁之墓 貞敬夫人交河盧氏"라 써 있다. 묘앞에는 장대석 · 새로 만든 상석 · 향로석 등의 석물이 있다. 향로석 좌측에 상석, 우측에 상석이 있다. 상석은 땅에 붙어있는 모양의 얇은 형이며, 좌측 상석앞에 원통형의 받침대없이 표시만 있는 향로석이 있다. 그 앞 좌우에 각각 2기씩 4기의 문인석이 있는데 幞頭로 마모가 심하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132. 李蟠 墓

□소재지 : 별내면 용암리 산70(지도13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반(생몰년 미상)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慶州이다. 1390년(공양왕 2)에 우헌납을 거쳐 형조정랑을 지냈다. 그 해 간관으로 鄭夢周를 도와주는 한편, 彝初의 일당을 탄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관 鄭寓 · 崔云嗣 · 權壎 등과 함께 관직에서 물러났다. 1410년(태종 1)에 사간원의 장령을 지냈고, 1424년(세종 6)에는 우사간을 거쳐 原州목사를 지냈다. 1429년에는 세자빈 金氏의 폐출사건에 말려 관직에서 물러났다. 묘비 기록에는 이조참판을 역임한 것으로 전한다.

묘는 이종인 묘역 바로 위에 東向하여 근래에 새로 조성된 것이다. 봉분은 새로 높이 54㎝의 호석을 둘렀

고, 봉분 앞의 墓表는 비신이 월두형으로 마모가 심하다. 비신에는 2열로 "嘉善大夫吏曹參判慶州李公礎之墓 貞夫人全州崔氏合葬"이라 새로 써 놓았다. 크기는 비신 높이 111㎝ · 너비 43㎝ · 두께 14㎝이다. 봉분 우측에는 새로 만든 묘비 · 장대석 · 상석 · 향로석이 있으며, 향로석 좌우 앞에는 각각 2기씩 4기의 幞頭形 문인석이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133. 松隱 鄭忠煥 墓



사진133 송은 정충환 묘

□소재지 : 별내면 용암리 산26-1(지도13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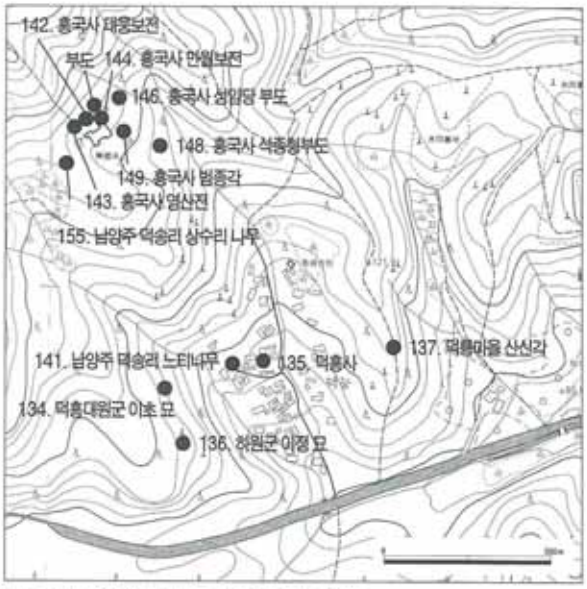
□내 용

정충환(1888~1962)은 한말의 의병으로 호는 松隱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최남선의 형제들과 동문수학하고 을사조약 당시 80여 명 동지를 규합하여 倡義軍을 일으켰다. 1908년 음력 5월경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양주 · 포천 등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일본군에 피체되었다. 1909년 2월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경성공소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심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 복역하였다. 옥고를 치른 후 신문관, 광문관, 시대일보 등의 지면을 폭 넓게 활용하여 논설활동을 하였다.

묘는 별내면 용암리 도감촌의 보현사 뒷편에 새로 조성하였다. 南向하고 있는 원형의 봉분은 새로 마련한 곡장내에 있으며, 봉분 하단에는 높이 58㎝의 호석을 원형으로 둘렀다. 봉분 앞에는 상석 · 장대석 · 4각 향로석 · 장명등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墓表는 향로석 좌측에 위치하여 4각받침대 위에 장방형의 백색 화강암 비좌를 이중으로 놓고 그 위에 오석의 비신과 중앙에 태극문이 있는 화관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 前面에는 종 1열로 "愛國志士松隱鄭忠煥之墓"라 써 있다. 이 비는 1988년에 새워진 것으로 徐鏡普가 찬하고, 李東圭가 글씨를 썼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134. 德興大院君 李岮 墓 및 神道碑



지도134 덕흥대원군 이초 묘 위치도(성동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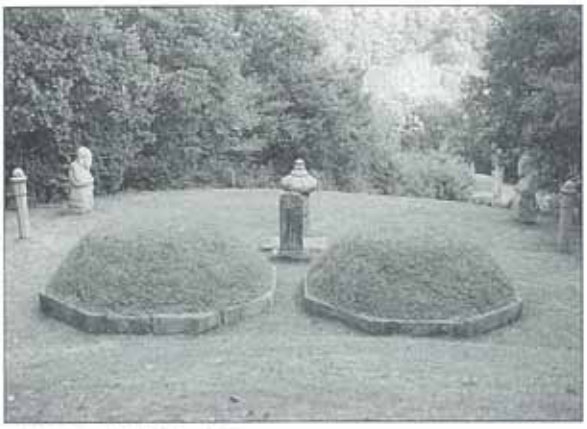

사진134-1 덕흥대원군 이초 묘


사진134-2 덕흥대원군 이초 신도비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산5-1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德興大院君 이초는 中宗의 제7남으로 본관은 全州, 자는 景仰이며 昌嬪 安山安氏 소생이다. 9세에 德興君에 책봉되고, 1567년 셋째 아들 河城君 鈞(宣祖)이 즉위하자 1569년(선조 2)에 大院君으로 추존되었다. 여기서 大院君 제도가 시작되었다. 덕흥대원군은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천성이 英明 · 多才하여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으며 남다른 叡智와 경륜을 펼쳤다.

대원군 배위 하동부부인 정씨는 영의정 文成府院君 鄭麟趾의 손녀이며, 그의 아들 영의정 孝簡公 鄭世虎의 딸로 아들 선조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도 이분의 역량으로 풀이된다. 1567년 4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해 8월 9일 대원군 곁에 예장되었다. 그로부터 묘 아래에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고, 선조의 특명으로 家廟를 세워 대원군 양위를 不遷之位로 永年奉祀케 하였다. 선조는 1568년(선조 1)에 그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근에 있던 수락산에 원당을 짓고, 興德寺(現 흥국사)라는 편액을 하사하여 이곳에서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묘는 별내면 덕송리의 흥국사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東南向하여 있으며 하동부대부인 정씨와의 쌍분이다. 莎城으로 둘러져 있는 봉분의 규모는 높이 170m, 직경 520㎝로서, 봉분의 하단에는 높이 40㎝, 길이 180㎝인 8각형의 護石을 둘렀다. 봉분의 중앙에 있는 墓表는 구름 무늬와 복련을 조각한 비좌와 비신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前面에 2열로 "德興大院君墓 河東府大夫人鄭氏之墓"라 썼다.

크기는 비좌 높이 29㎝ · 너비 93㎝ · 두께 58㎝, 비신 높이 140㎝ · 너비 54㎝ · 두께 17.5㎝이다. 묘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장대석 · 6각향로석과 8각형의 받침대에 8각석주형의 망주석이 있는데 좌측 망주석의 다람쥐 조각은 파손되었다. 그 앞 좌우에는 높이 212㎝의 武人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통한 형상으로 크기가 장대하고 웅장한 느낌을 준다. 머리에 투구 비슷한 것을 쓰고 있는 형상으로 그 모양이 특이하다. 무인석 중간에는 높이 224㎝의 8각형 장명등이 있는데, 하대석은 8각형의 각 면마다 안상과 방광 복련을 조각하고, 중대석에 안상문 및 상대석에 안상문과 앙화를 조각 하였다. 그위에 4각의 화창을 4개 마련하였다.

神道碑는 묘소 전방 약 30m 지점에 北向하여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귀부와 황색을 띠는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의 규모는 총 높이 446㎝로 거대한 편이며, 비신의 비문

은 前面에만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德興大院君神道碑 并銘"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洪暹이 撰하고, 奉憲大夫 礪城尉 宋寅이 書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573년(선조 6)년이다. 송인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서 山陵의 誌로부터 궁정의 편액, 사대부의 비갈에 이르기까지 많은 글과 글씨를 남겼다. 그의 글씨는 조맹부 글씨에 비하여 구성이 짜임새 있고 안정감이 있으나, 획이 약간 굵고 부드러워 힘찬 맛이 부족하다. 옥개석은 흑적색으로 탈색되어 있다.

규모는 귀부 높이 180㎝ · 너비 254㎝, 비신 높이 196㎝ · 너비 79㎝ · 두께 28㎝, 옥개석 높이 70㎝ · 너비 142㎝ · 두께 83㎝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비　　고 : 기념물 제55호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 향토문화총서 3, 199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135. 德興祠



사진135 덕흥사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9(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묘

□내　용

덕흥사는 별내면 덕송리 덕릉마을에 위치하여 덕흥대원군의 위패와 母堂인 昌嬪 安氏, 그리고 河原君 등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아들인 선조가 왕위에 오르자 덕흥군을 대원군에 추증하였다. 그리고 1568년(선조 1)에 그의 생부인 덕흥대군의 명복을 빌기위해, 인근에 있던 수락사에 원당을 짓고 興德寺(현 흥국사의 옛이름)라는 편액을 하사하여 이곳에서 이 분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사당은 南向하여 솟을대문에 담장을 두르고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ㄱ' 자 집으로 "德興祠"라는 현판이 있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36. 河原君 李鋥 墓 및 神道碑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산5(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하원군 이정(1545~1597)은 본관은 全州, 中宗의 아들인 덕흥대원군과 정세호의 딸인 하원부대부인 정씨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났으며, 1558년(명종 13)에 河原正에 제수되었다가, 1561년(명종 16) 河原君에 봉해졌다. 선조 정유년에 내전이 수안군으로 파천할 때에 司饔提調로서 따라갔으며, 이 해 10월 3일 그곳에서 졸하여 같은 해 12월 29일 양주 남면 수락산 기슭 선영 곁에 장사지냈다.

묘는 별내면 덕송리 선산에 남양군부인 홍씨와의 쌍분으로 父인 덕흥대원군 묘의 바로 아래에 東向하여 있다. 원형의 봉분 크기는 남북직경 500㎝, 높이 180


사진136-1 하원군 이정 묘


사진136-2 하원군 이정 신도비

cm이며, 봉분 하단은 높이 55cm의 호석을 원형으로 둘렀다. 봉분 앞에는 墓表가 있는데, 비는 장방형 비좌와 비신 월두형으로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다. 前面에 2열로 "顯祿大夫河原君之墓 南陽君夫人洪氏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0cm · 너비 95cm · 두께 55cm, 비신 높이 128cm · 너비 55cm · 두께 18cm이다.

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4각향로석 · 계체석과, 석주 상단부에 앙화를 새긴 망주석 및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이 중 幞頭의 문인석은 높이 198cm로 머리부분이 64cm이며 3등신의 신체비율이다. 굳게 다문 입과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며, 얼굴에 비해 쓰고 있는 복두의 관이 길고 크다.

神道碑는 묘역 우측 아래에 南西向하여 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민무늬 비좌에 황색을 띠는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河原君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顯祿大夫河原君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弘文館 大提學 李好閔이 짓고, 資憲大夫 兵曹判書 盧稷이 쓰고, 承文院 正字 吳靖이 전액을 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604년(선조 37)이다. 옥개석은 처마면이 '一' 자로 끝을 약간 치켜들고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76cm · 너비 158cm · 두께 100, 비신 높이 127cm · 너비 77cm · 두께 31cm, 옥개석 높이 56cm · 너비 149cm · 두께 48cm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137. 남양주 덕릉마을 山神閣


사진137 남양주 덕릉마을 산신각(근래에 단청보수를 하여 옛 멋을 잃었다)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산5-126(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 목조물

□내 용

덕릉마을 산신각은 별내면 덕송리 덕송마을 덕흥사 우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西向하여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에 방풍판을 갖추고 있다.

산신각은 약 300여 평 대지에 3.1m×4.1m 크기의 기단 위에 1칸 크기의 기와집이 있는 형태인데 앞부분은 비워두고 뒷부분에 방을 꾸민 前堂後室形이다.

현재도 매년 음력 1월과 10월에 마을에서 소머리를 제물로 하여 산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최근에 보수를 하여 화려하기는 하나 예전의 고풍스러운 맛은 없는 편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비　　고 : 민속자료 제9호(1996. 12. 24.)

□참고문헌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도지정편, 1998.

138. 順嬪金氏 墓



지도138 순빈김씨 묘 위치도(성동 025)



사진138 순빈김씨 묘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산1-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선조의 후궁인 순빈 김씨 묘는 별내면 덕송리 순화궁 고개 군부대내 순화군 묘역 위에 南向하여 있다. 봉분에는 높이 40㎝의 호석을 둘렀으며, 그 앞에 복련과 안상문을 사방에 조각한 묘표의 비좌가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45㎝ · 너비 110㎝ · 두께 68㎝이다. 묘표의 비좌 앞에 혼유석을 놓고 그 앞에 장대석을 놓았다. 그 앞에는 2개의 민무늬 원형 고석위에 상석을 놓았고, 그 앞에 4각향로석이 있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안상문과 앙화, 청솔모를 조각한 균형잡힌 망주석이 있다. 높이는 182㎝이다. 그 앞 좌우에는 金冠朝服形의 높이 193㎝인 크고 장대한 문인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고, 머리부분이 64㎝로 신체의 1/3을 차지한다. 얼굴은 눈을 감고 눈꼬리를 치켜들고 있으며 갓끈 흔적이 있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39. 順和君 이보 墓



사진139 순화군 이보 묘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산1-1(지도13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순화군 이보는 왕자로서 본관은 全州, 宣祖와 順嬪 金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順和君에 봉해졌다. 황혁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묘는 별내면 덕송리 순화궁 고개 군부대내에 南西向하여 순빈김씨 묘역 아래에 위치한다. 원형의 봉분은 쌍분으로 하단에 높이 26㎝의 호석을 둘렀으며, 아래에 민무늬 비좌에 비신 월두형의 墓表가 있다. 비신의 비문은 마모가 심하며, 가운데에 직경 9㎝의 큰 탄흔이 2개소 있다. 비신의 前面에 "○○○和○○之墓"라는 글씨만 보이고 표면의 결락 및 마모로 인해 알아보기 힘들다. 뒷면의 글씨는 "再壬寅"이라는 글씨만 보이고 마모되어 알아보기 힘들다.

크기는 비좌 높이 28㎝ · 너비 98㎝ · 두께 68㎝, 비신 높이 164㎝ · 너비 60㎝ · 두께 22㎝이다. 묘표 앞에는 상석 · 향로석과 안상문과 앙화를 조각한 높이 175㎝의 망주석 및 금관조복형의 앞부분에 구름문양이 있는 문인석 높이 190㎝의 문인석이 있다. 머리부분이 58㎝로 신체의 1/3 정도를 차지하며 크고 장대한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 폐묘상태이며 잔디가 없고 석물은 전체적으로 화려하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40. 安弘亮 墓



지도140 안홍량 묘 위치도(성동 035)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산49-4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안홍량(1590~1616)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夢孚, 호는 醉峰이며 본관은 竹山이고 府使 石泉의 아들이다. 1606년(선조 39) 사마시에 합격하고 1612년(광해군 4) 문과에 급제하여 한원으로부터 시작하여 三司를 역임하였다. 문장에 능하였고 通政大夫 도승지에 증직되었다.

묘는 별내면 덕송리 과수원 내에 東向하여 숙부인 전주 이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용미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앞에 비신이 없는 복련과 파도문을 장식한 장방형 비좌의 墓表가 있다. 그 앞에는



사진140 안홍량 문인석(金冠朝服形으로 조선초기 문인석에 비해 소매의 길이가 짧은 17세기 초기의 양식이다)

혼유석 · 계체석 · 상석 · 6각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망주석은 높이 197㎝로 앙화와 안상문을 조각하였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이며 높이 206㎝로 머리부분이 56㎝이다.

墓碣은 봉분 우측에 위치하여 백색화강암의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 前面에 2열로 "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竹山安公之墓 配淑夫人全州李氏祔左"라 하였으며, 後面에 "醉峰安公墓碣銘 并序"라 써 있다. 비문은 金誠鎭이 찬하였으며, 건립연대는 癸未10월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14㎝ · 너비 72㎝ · 두께 46㎝, 비신 높이 131㎝ · 너비 41㎝ · 두께 17㎝, 옥개석 높이 35㎝ · 너비 72㎝ · 두께 48㎝이다.

□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41. 南楊州 德松里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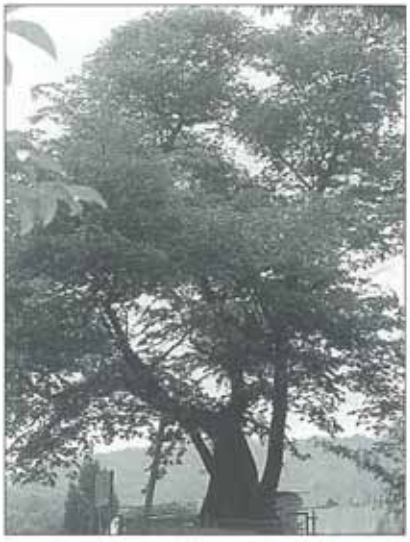


사진141 남양주 덕송리 느티나무

□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9(지도134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 내 용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55호인 덕흥대원군 사당이 위치한 별내면 덕송 2리 덕릉마을을 찾아 들어오면 수락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을 끼고 서있는 이 느티나무를 볼 수 있다. 중심 줄기가 수년 전 벼락을 맞아 없어지는 바람에 전체모습은 도로쪽으로 기운 형상이며 주간높이 1m 부위에서 네 갈래로 갈라져 뻗은 줄기의 수세가 약해 잎과 가지의 발달이 적고 고사가지가 많아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내부가 빈 듯하다.

마을 뒷편, 산자락 끝에 자리하고 있어 마을사람들의 이용은 많지 않으나 하부에 놓여있는 커다란 댓돌이 지나가는 이의 지친 걸음을 멈추게 하는, 계곡의 물소리와 산새소리에 묻혀 한가로운 정경을 보여주고 있는 덕송마을의 오랜 정자목이다.

수령 500년, 수고 13m, 흉고둘레 5.6m, 수관폭 14m.

□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 비 고 : 경기-남양주-29(1982. 10. 15)

142. 興國寺 大雄寶殿



사진142 흥국사 대웅보전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찰
□내　용

흥국사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건물로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이 대웅전의 정확한 初創연대는 알 수 없으나 1793년(정조 17)에 중수가 있었고, 1818년(순조 18) 큰 화재를 입어 소실되었다가 그 3년 뒤인 1821년에 중건되었고, 1917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지붕의 용마루는 아래로 늘어져 있고 양끝에 용두를 두고 있으며, 추녀마루에는 사원건축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갖가지 雜像을 각 5개씩 두고 있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공포의 형식은 외1출목 내2출목의 다포인데, 형태가 翼栱집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나 柱枓가 있는 점과 평방과 창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서 다포계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포계 건물의 특징인 무거운 지붕의 무게를 극복하기 위해 활주를 대었다.

공포는 조선 후기의 장식적인 조각수법을 잘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정면 가운데 공포의 최상면과 귀공포에 龍頭를 조각한 것이나, 각 공포에 연봉을 둔 것, 뒤편의 공포에는 각각 鳳頭를 조각하였던 것 그리고 추녀 끝 椽木의 뺄목에는 瓦質의 魚頭形 토수를 덧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정면을 향한 평방의 뺄목에도 여의주을 물고 있는 용두가 조각되기도 하였다.

기단은 영산전에서 연장되도록 직사각형의 돌을 잘 다듬어 4단의 석축을 축조하였으며, 그 위에 바로 건물의 기단을 두었고, 중앙과 양쪽 끝 모두 3곳에 계단을 내렸다. 양쪽 끝의 계단은 아무런 장식이 없이 직사각형의 석재를 층단을 이루도록 쌓았으나, 중앙의 계단에서는 太極과 무지개 형태의 난간 2개를 이어 붙여 장식을 더하였다.

한편 이 대웅전이나 약사전 만월보전 등에서 보면 처마의 우동마루 위에 잡상을 두거나, 처마 끝 연목의 뺄목에 토수를 덧대어 마무리한 것 등은 모두 사찰건축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궁실건축에서 자주 보이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보아 흥국사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웅보전의 내부에는 목조석가삼존불좌상 및 감로왕도 지장탱화 칠성탱화 현왕탱화 신중탱화와 괘불이 보관되어 있다. 또 대웅보전 뒤쪽에는 편액이 여럿 있는데, 「興國寺法堂丹靑記文」(1824), 「大雄殿重修及彩畵記」(1888), 「대웅전단청기」(1976), 「개금불사기」(1977) 등이 그것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비　　고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6호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 문화유적』 남양주 향토문화총서 3, 199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143. 興國寺 靈山殿



사진143 흥국사 영산전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찰
□내 용

흥국사 영산전은 대웅보전의 왼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웅보전보다는 작은 건물이지만 정면 3칸 측면 2칸의 비교적 짜임새 있는 건물이다. 건축양식은 대웅보전과 같이 다포계 건물인 것 같다. 그러나 각 공포에 주두가 없는 점이나 평방이 없는 점은 다포계 건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가구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포에 하나의 출목수가 보이고, 외목도리를 이용하여 처마를 길게 연장시킨 점은 익공집에서는 볼 수 없는 가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 다포계라고도 익공계라고도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주심포 사이에 공간포를 두고 있는 점과 출목이 표현되고 있다는 점의 비중이 강하여 다포계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영산전의 공포도 대웅보전의 공포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의 장식적 수법이 잘 나타나 있다. 각 기둥 위의 공포와 귀공포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두가 조각되어 있는 점이나, 각 공포의 쇠서 위에 연봉을 장식한 점 그리고 처마의 끝 연목의 뺄목에 와제 어두형 토수가 덧대어 있는 점 등은 모두 장식적 요소가 많이 첨가된 공포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 건물의 지붕 용마루에 용두가 장식되어 있는 것이나, 반전되는 추녀의 마루에 잡상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대웅보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사원건축에서는 특이한 것이다. 기단은 대웅보전과 연장되는 정돌정열 쌓기의 석축 위에 1단의 기단을 두고 있다.

내부에는 석가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및 영산회상도, 신중탱화, 나한도 4폭이 있다. 이 가운데 16나한상이 비교적 오랜 것이고 불화들은 전부 1892년(고종 29)에 봉안되었다. 그리고 내부의 천장은 '井' 자형이 반복된 이른바 우물천정이며, 奏樂飛天圖가 그려져 있다. 또 외부의 隅柱에 홍선대원군의 필치로 된 주련이 걸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144. 興國寺 滿月寶殿



사진144 흥국사 만월보전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찰

□내 용

만월보전은 시왕전 뒤쪽에 석축을 쌓아 한 단 높인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로서, 6각형의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1818년의 큰 화재 때 양로실과 함께 화재를 면했으므로 늦어도 1793년(정조 17) 또는 그 이전의 건물로 볼 수 있다. 6각형 각 변의 길이가 2.3m에 지나지 않는 규모가 작은 건물이지만 사찰 건물로는 유례가 드문 6각형을 하고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지붕은 6모 지붕으로 합각지점에는 절병통이 있고, 각 추녀마루에는 2개에서 4개씩의 잡상들이 늘어서 있다. 또한 무거운 지붕을 6각형의 초석 위에 세워진 활주로 떠받치고 있다.

공포는 외2출목의 다포집으로 늘씬한 쇠서를 불쑥 내둘렀으며, 각 추녀의 끝에는 연목의 뺄목에 대웅보전이나 영산전과 같이 瓦製 어두형 토수로 마무리하였다.

한편 경남 합천 해인사에는 이와 유사한 건물이 있는데, 대적광전을 바라보고 왼편으로 명부전이 있고 그 바로 옆에 三聖閣이 있다. 이 해인사 삼성각도 마찬가지로 6각형의 형태를 띠고 지붕도 6모 지붕을 하고 있어서 흥국사 만월보전과 형태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내부의 불단에는 1861년(철종 12)에 해당되는 연호와 시주 명단이 붉은 글씨로 쓰여 있다. 그리고 불단위에 석조 약사불좌상을 봉안하고 있으며, 약사후불탱화와 팔상도 8폭이 있다. 그 밖의 왕실 시주자 명단이 적힌 「爲祝懸板文」과 일반 시주질이 건물 외부에 돌아가며 걸려 있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145. 興國寺 十王殿



사진145 흥국사 시왕전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찰

□내 용

대웅전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공포는 주심포계 익공집이고 겹처마를 하고 있다. 1821년 중건 때의 건물로 추측된다.

시왕전은 주심포계 건물의 전형처럼 평방이 없고 기둥의 바로 위에 공포가 위치하나, 주두가 없고 출목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처마를 길게 빼는 외목도리가 없고 주심도리에 겹처마를 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익공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지붕은 용마루의 처짐이 덜하고, 風板 위의 박공널의 合角 지점에 철제 보호구인 지네철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다만 풍판의 설치로 인하여 목조가구의 세부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내부에는 지장삼존을 비롯해 시왕상, 인왕상, 판관녹사 등의 상과 불화로는 지장탱화, 시왕도 10폭이 있다. 또 그 밖에 가마와 위패, 업경대 幡 등도 있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146. 興國寺 聖任堂浮屠



사진146 흥국사 성임당부도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浮屠
□내 용

사역의 북쪽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낮은 등성이로 오르는 길 오른편 사각으로 구획된 곳에 부도가 위치해 있다. 부도의 탑신에 "聖任堂竺尊之塔"이라는 명문이 있으나 성임당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어, 부도의 주인과 제작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부도는 4각의 지대석 위에 8각형의 기단으로부터 기단부 탑신부 옥개석 상륜부로 이어진다. 기단부는 다시 상대와 중대, 하대로 나누어지며 모두 하나의 돌로 이루어졌다. 하대는 8각의 기단 위에 복련을 시문하였고, 중대의 8면에는 각각 안상을 조식하였다. 그리고 상대의 아래쪽은 앙련으로 받치고 그 위에 方框을 한 면에 2개씩 모두 16개 시문하고 안에 안상을 두었다.

탑신은 원구형의 비교적 큰 편으로 명문이 있어 부도의 주인을 나타내고 있다. 옥개석은 8각형의 8모집 모양으로 기와무늬는 생략되었으며, 두툼한 우동마루는 급경사를 이루며 내려와 추녀 끝에서 귀꽃과 함께 반전을 이룬다. 그러나 옥개석은 전반적으로 둔탁하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상륜부는 하나의 돌로 조각되었고, 복발의 아래위로 톱니바퀴 모양의 花紋을 둔 점이 특이하며 아마 寶輪이 아닐까 한다. 상륜의 최상부에는 원추형의 寶珠를 표현하였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47. 興國寺 滿月寶殿 뒷편 浮屠



사진147 흥국사 만월보전 뒷편 부도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浮屠
□내 용

만월보전의 뒤쪽 석축 위에 위치하는데, 올라가는 길은 丹靈閣을 끼고 왼쪽에 있다. 부도는 크기가 상당히 작고 형식도 매우 특이한 편이다. 우선 기단은 8각형으로 옥개석처럼 8모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사다리꼴 모양이다. 그 위에 원구형의

탑신을 두었으며, 높이가 고작 28㎝ 정도로 아주 작은 편이다.

옥개석은 기단의 8각형과는 다르게 4각형을 이룬다. 우동마루의 경사도 거의 없는 수평에 가깝게 뻗어 있고 끝에는 귀꽃을 표현하여 추녀의 반전을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상륜부는 복발과 보륜이 표현되고 가장 위쪽에 원추형의 보주가 있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48. 興國寺 石鐘形浮屠



사진148 흥국사 석종형부도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浮屠
□내 용

일주문을 들어와 경내로 돌아 들어가는 길옆에 근래에 만들어진 신도공덕비와 함께 위치하는데, 원래의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자연석의 지대석 위에 8각의 평면적 기단을 놓고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듯한 석종형의 탑신을 두었다. 옥개석은 8각형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우동마루의 표현은 극단적으로 강조되었고 약간의 반전이 보인다. 상륜은 옥개석과 같은 돌로 되었으며 복발과 원추형의 보주만이 표현되었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49. 興國寺 梵鐘閣 내 法鼓 · 木魚



사진149 흥국사 범종각 내 법고 · 목어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大房의 동편에 최근에 건립한 범종각 내에 위치한다. 범종각에는 梵鐘과 雲板, 法鼓 그리고 木魚 등 四物이 있는데 범종과 운판의 최근의 것이고, 목어와 법고만이 이곳의 불상 · 불화와 같은 시대인 1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법고는 흔히 종각에 매어 달고 朝夕禮佛時에 범종과 같이 사용하는데, 이 법고는 지름이 110㎝로 제법 큰 편이며, 가운데에 태극문을 시문하였다. 법고 아래의 옛날에 사용되었던 법고받침 또한 꽤 오래되 보일 정도로 고풍스럽다.

목어는 통나무의 외형을 물고기 모양으로 조각하여 아래의 복부를 파서 공간을 내어 그곳을 채를 가지고

치도록 되어 있다. 이 목어는 머리 부분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배 부분의 두드리는 곳은 많은 의식에 사용되었는지 꽤 손상되어 있다. 그리고 두 눈은 크게 부라리고 있어서 잠들지 않고 정진하는 목어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150. 興國寺 石槽



사진150 흥국사 석조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石槽

□내 용

석조는 영산전을 받치는 석축의 왼쪽 앞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의 水源이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석조의 왼쪽에 우물이 있어 아마도 근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석조는 화강암으로 비교적 작게 만들어졌는데, 석질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정면의 상면 중앙에는 폭 약 5㎝ 정도의 홈이 있어서 출수구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수도꼭지는 목장승의 주둥이를 통해서 나와 물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전반적인 형상이 간략화 축소화되어 단출하고 소박한 형태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51. 興國寺 木造釋迦三尊佛坐像



사진151 흥국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木佛)

□내 용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은 대웅전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다. 석가여래와 文殊·普賢菩薩을 나무로 다듬고 도금한 것으로, 역시 나무로 된 광배와 썩 어울려 자못 화려한 느낌을 준다. 불상의 양식은 석가불의 경우, 상호가 단정하고 계주는 이마와 머리 위의 두 곳에 있는 이중계주를 하고 있다. 또 목 아래는 형식적인 三道가 있고 옷주름도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단정히 처리되었다. 수인은 항마촉지인과 설법인을 겸하고 있으며, 주존불과 협시불이 다같이 단정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같은 양식은 조선 후기의 단아한 조각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작품이다. 또 양 옆의 협시보살 역시 전체적으로 석가불과 비슷한 양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삼존불 뒤에 각각 하나씩 있는 목조광배는 삼존상을 더욱 장엄하게 장식하고 있어 주목된다. 광배는 唐草文, 蓮花文, 火焰文이 투각되었고 또 이 무늬들 사이사이에 자그마한 化佛들이 자리잡고 있다. 전체에 도금되어 있어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152. 興國寺 石造藥師如來坐像



사진152 흥국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石佛

□내 용

만월보전내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의 표면에는 하얗게 분칠이 되어 있어 얼굴 표정을 분명히 살피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두 손은 발 위에 모아 藥壺를 잡고 있어서 약사여래임을 표현하고 있다. 총 높이는 120㎝인데 몸 전체 크기에 비해 얼굴이 차지하는 몫이 크며, 무릎은 다소 약해 보인다. 조선 후기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153. 興國寺 塑造十六羅漢像



사진153 흥국사 소조16나한상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 유적

□내 용

영산전에 16나한도와 함께 봉안되어 있다. 높이가 약 40㎝ 내외로 나한상으로서는 작은 편에 속하지만 형태가 완전하고 기법도 뛰어난 조선 말기의 나한상으로서는 우수한 예라 할 수 있다.

불단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1 · 3 · 5 · 7 · 9 · 11 · 13 · 15위의 나한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2 · 4 · 6 · 8 · 10 · 12 · 14 · 16위의 나한이 배치되었다. 각 나한상은 모두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經冊을 보거나, 호랑이를 희롱하거나, 합장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표정도 미소를 머금고 있어 친근감을 준다. 얼

굴의 주름진 모습, 앙상한 가슴의 표현, 그리고 옷주름의 굴곡진 모습 등 표정이 다양하고 입체감이 풍부하여 각각의 조형성이 매우 뛰어나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154.興國寺 木造十王像



사진154 흥국사 목조시왕상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33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十王殿에 목조지장보살상 등과 함께 봉안되어 있는데, 모두 의자에 앉아있는 좌상이고 재질은 나무이다. 시왕 뒤에 봉안된 十王圖(1744년)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왕전에 봉안되어 있는 시왕상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① 奏廣大王 ② 初江大王 ③ 宋帝大王 ④ 五官大王 ⑤ 閻魔大王 ⑥ 變成大王 ⑦ 泰山府君 ⑧ 平等大王 ⑨ 都市大王 ⑩ 五道轉輪大王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155. 南楊州 德松里 상수리나무



사진155 남양주 덕송리 상수리나무

□소재지 : 별내면 덕송리 산51(지도13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신라 제26대 진평왕 21년(599년) 세속오계로 잘 알려진 圓光法師가 창건한 신라 고찰인 興國寺 경내에 있는 이 나무는 水落山 끝자락의 작은 언덕 위, 산책로변에 서 있다. 지나온 세월의 연륜을 보여주는 세로로 깊이 패인 수피의 주간에는 크고 작은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책로쪽으로의 잎과 가지가 무성한 데 비해 인접한 나무들과 상충되는 부분에는 고사가지가 많고 잎과 가지의 발달이 적다. 바닥에는 겨울철 다람쥐

와 청솔모의 귀한 식량이 되는 상수리와 벗겨진 수피가 가득 흩어져 있고 노출된 뿌리가 넓게 뻗어나와 있다. 큰 키의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이 나무를 보려면 별내면 덕송2리의 덕릉마을을 지나 홍국사로 들어오면 된다.

수령 400년, 수고 22m, 흉고둘레 3.6m, 수관폭 10m.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비　　고 : 경기-남양주-30(1982. 10. 15)



사진156-1 한효원 묘

156. 韓效元 墓 및 神道碑



지도156 한효원 묘 위치도(성동 036)



사진156-2 한효원 신도비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11-1(지도15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한효원(1468~1534)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淸州, 자는 元之, 호는 梧溪이다. 내자사정 長孫의 손이자, 司導寺正 曾의 자이다. 1489년(성종 20) 司馬試에 합격 및 1501년(연산군 1)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 承文院副正字가 되었다. 1512년 咸鏡道賑恤敬差官으로 飢民 구제에 공이 있어 狐裘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후 여러 요직을 거쳐 1531년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좌찬성, 우의정 등을 역임하고 1533년 좌의정, 이듬해 영의정에 올라 世子師를 겸했다. 시호는 章成이다.

묘역은 43번 국도변에 인접한 화접 1리 평양굴마을 내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西向해 있으며 貞敬夫人 尙州 金氏와의 쌍분이다. 원형의 봉분은 용미를 갖추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160㎝, 직경 470㎝이다. 봉분 앞에는 1977년 세운 묘비가 있는데, 비신 前面에 3열로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韓公效元之墓 配貞敬夫人尙州金氏祔墓"라 써 있다. 그 앞에 혼유석 · 상석 · 4각향로석 · 8각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 중 문인석은 높이 174㎝, 幞頭의 머리 부분이 49㎝로 눈을 감고 있으며 코를 크게 표현하였다. 2단의 계체석간 간격은 310㎝이다.

묘는 태릉에 안장되어 있다가 이장하여 온 관계로 할아버지 長孫의 묘 위에 위치하게 된 逆葬이다.

神道碑는 43번 국도변에 인접하여 마을입구에 팔작지붕의 정면 1칸, 측면 1칸의 비각내에 北向하고 있다. 총 높이 303㎝의 아담한 크기로 복련문과 안상문이 조각된 장방형 비좌와 황색을 띠는 대리석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前面 상단에 篆書로 "梧溪韓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碑題는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贈諡章成韓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禮曹判書 洪暹이 찬하고, 宋寅이 글을 썼다. 건립연대는 1564년(현종 5)으로 공의 死後 즉시 건립되지 못하고 30년이 지나서야 건립되었다. 이수는 前面에 발가락이 3개인 쌍룡이 몸을 'ㄹ'자로 꼬고 머리를 바짝 치켜들어 여의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훌륭하게 조각하였는데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반면, 後面에는 우측의 용만 입을 벌리고 좌측의 용은 입을 다문 채 역시 여의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62㎝ · 너비 141㎝ · 두께 74㎝, 비신 높이 163㎝ · 너비 92㎝ · 두께 28㎝, 이수 높이 78㎝ · 너비 104㎝ · 두께 35㎝ 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下, 1991.

157. 南乙蕃 墓



지도157 남을번 묘 위치도(성동 036)



사진157 남을번 묘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282-1(지도15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남을번(1320~1395)은 조선개국 공신으로 본관은 의령, 시호는 敬烈이다. 父는 영광군수를 지낸 南天老, 母는 함양박씨이며, 개국 공신 남재의 父이다. 벼슬은 고려에서 밀직부사를 지내고 조선 건국 후에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개국공신이 된 아들 在 · 誾의 공

으로 검교시중이 되었다. 후에 翊戴輔祚贊化功臣으로 특진으로 國崇祿大夫門下侍中을 지내고 宜寧府院君을 제수받았다. 부인은 계림최씨이다.

묘역은 화접리 마을 내의 나지막한 구릉 상부에 東南向하여 있는데, 여기에는 子 南在 및 愼人宜寧南氏 등 3기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남을번의 묘는 부인 계림최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과 묘역은 1997년 새로 조성된 것으로 본래는 둥근 봉분 앞에 새로 묘비와 상석 및 향로석을 놓고 본래 것인 문인석만 있었으나, 새로 조성하면서 직사각형의 평평한 틀 위에 봉분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호석을 前左右 3면에 갖추었다. 틀의 크기는 前 870㎝, 左右 980㎝이며, 봉분 크기는 前 580㎝, 左右 840㎝, 높이 220㎝이다. 봉분 앞에는 새로 묘비를 만들었는데 비에는 2열로 "宜寧府院君敬烈南公乙蕃之墓 夫人鷄林崔氏祔"라 써 있다. 그 앞에 혼유석과 두 개의 고석 위에 상석을 놓고, 향로석 · 계체석 · 망주석 · 장명등의 석물을 새로 갖추었다. 봉분 좌측에는 본래의 것으로 보이는 묘비의 비좌가 있는데 크기는 높이 16㎝ · 너비 77㎝ · 두께 50㎝이다. 계체석 아래에 幞頭의 길쭉한 문인석이 있는데 높이는 145㎝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158. 南在 墓 및 神道碑



사진158-1 남재 묘



사진158-2 남재 신도비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282-1(지도15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남재(1351~1419)는 조선 개국 공신으로 본관은 宜寧, 초명은 謙, 자는 敬之, 호는 龜亭, 검교시중 乙蕃의 아들이며 誾의 형, 시호는 忠景이다. 어려서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奴 1인과 한 필의 말밖에 없었다. 유학을 공부하여 당시 經濟之才를 지녔다는 소리를 들었다. 進士試를 거쳐 1371년(공민왕 20)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이후 이성계의 세력에 가담하여 고려 조정의 신진사류로서 구세력과 대립하였다.

조선이 개국되자 개국공신 1등에 녹훈되고 宜城君에 봉해졌다. 이후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됨과 동시에 府院君에 봉해지고, 1416년(태종 16)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경제에 밝고 문장이 뛰어났으며 算術에 능통하여 당시 사람들이 "南算"이라 불렀다. 태조의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龜亭遺稿』가 있다.

묘는 별내면 화접리 注乙谷 의령남씨 묘역의 父인 남을번 묘 아래에 東南向하여 있다. 본래의 묘역에는 둥근 봉분 앞에 새로 만든 묘비와 상석, 본래의 것으로 보이는 문인석이 있었으나, 1997년에 새로 봉분을 개장하면서 직사각으로 봉분을 만들고 호석을 前左右 3면에 갖추었다. 봉분의 크기는 前 660㎝, 左右 760㎝, 높이 260㎝이다. 봉분 앞의 새로 만든 묘비에는 2열로 "朝鮮開國功臣議政府領議政忠景公南公在墓"라 써 있다. 그 앞에는 혼유석 · 계체석 · 상석 · 향로석 · 망주석 · 장명등 ·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봉분 좌측에 본래의 것으로 보이는 묘비가 있는데, 복련과 안상문을 새긴 비좌와 월두형 비신이 있다. 비 前面에는 종으로 "開國功臣領議政忠景南公在墓"라 써 있으며, 後面에는 墓碣이 있었으나 오래 되어 光武 2년(1898) 3월 돌을 깎아 새로 세운 사실을 15대손 군수 啓迷, 16대손 전 군수 起元이 그 사실을 밝힌다는 내용의 비문이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0㎝ · 너비 79㎝ · 두께 46㎝, 비신 높이 88㎝ · 너비 36㎝ · 두께 14㎝이다.

神道碑는 남재 묘역 입구의 사당인 忠景祠옆에 東南向하여 정면 3칸, 측면 1칸의 防風板을 갖춘 맞배지붕 비각내에 안치되어 있다. 총 높이 369㎝로 민무늬 장방형의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형의 옥개석을 갖추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전후 2면 상단에 篆書로 "開國功臣領議政宜寧府院君忠景南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碑題는 "有明朝鮮國純忠奮義同德開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春秋館書雲觀事修文殿大提學世子師宜寧府院君贈諡忠景南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10대손 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 南九萬이 지어놓은 것을 15대손 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 南公轍이 글씨를 썼으며, 15대손 資憲大夫 議政府 左參贊 南履翼이 篆을 했다. 말미에 "崇禎紀元後四壬辰五月"이라 적혀있어 1892년(고종 29)에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신도비는 본래 묘소 입구의 사당 좌측 뒷편에 있던 것을 1997년 묘를 정비하면서 사당 우측 묘역 바로 앞에 비각을 만들고 그곳으로 옮겼다. 그 옆에는 새로 만든 신도비가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88㎝ · 너비 135㎝ · 두께 87㎝, 비신 높이 223㎝ · 너비 80㎝ · 두께 33㎝, 옥개석 높이 58㎝ · 너비 130㎝ · 두께 82㎝ 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비　　고 : 향토유적 제5호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3, 1997.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I』, 1998.

159. 忠景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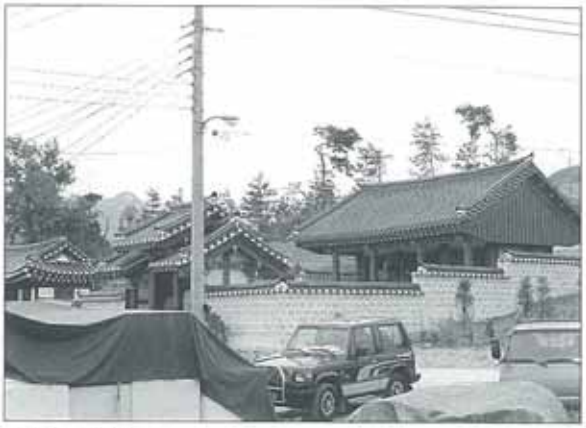


사진159 충경사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282-2(지도15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묘
□내 용

사당은 별내면 화접리 注乙谷에 있으며, 조선 개국공신 남재를 모신 사당이다. 南在(1351~1419)는 조선 개국 공신으로 본관은 宜寧, 초명은 謙, 자는 敬之, 호는 龜亭, 검교시중 乙蕃의 아들이며 誾의 형, 시호는 忠景이다. 이성계의 세력에 가담하여 고려 조정의 신진사류로서 구세력과 대립하였다. 조선이 개국되자 개국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벼슬은 경기도관찰사, 대사헌,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이 뛰어나고 算術에 능통하여 당시 사람들이 "南算"이라 불렀다. 태조의 문묘에 배향되었고, 저서로 『龜亭遺稿』가 있다.

사당은 현재 신도비와 더불어 남양주시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재 묘소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 향토문화총서 3, 1997.

160. 南致勗 墓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30-3(지도15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남치욱 묘는 남구 묘에서 서쪽으로 50m의 거리에 東南向하고 있으며, 바로 아래에는 남언순의 묘가 위치한다. 정부인 진주유씨와의 합장묘로 높이 160㎝인 원형의 봉분은 하단에 높이 17㎝의 호석을 둘렀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장대석 · 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사진160-1 남치욱 문인석(金冠朝服形으로 망토같은 것을 걸치고 있는듯한 모습이며, 눈을 감고 있다)



사진160-2 남치욱 묘표의 비문(領議政 南九萬의 서체이다)

墓表는 봉분 우측에 위치하는데 백색대리석제의 비신이 월두형이다. 4면에 비문이 있으며, 비신 前面에 4열로 "贈嘉善大夫兵曹參判行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南公諱致勗之墓 貞夫人晉州柳氏祔左"라 써 있다. 비문은 議政府 領議政 南九萬이 쓴 것으로 좌측 측면에 표기되어 있다. 석물 중 6각형의 향로석은 문양이 화려하며, 망주석은 앙화를 조각하였고 균형미가 있으며, 높이는 170㎝이다. 문인석은 金冠朝服形으로 망토같은 것을 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며 눈을 감고 있다.

높이는 190㎝이며 머리 부분이 60㎝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61. 南彦純 墓



사진161 남언순 묘표의 비문(領議政 南九萬의 서체이다)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30-3(지도15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남언순(1522~1578)은 조선 중기의 武臣으로 본관은 宜寧이다. 자는 誠甫이고, 父는 부사를 지낸 南致 이다. 瑞蔥臺에서 실시한 정시무과에 1등으로 합격하여 宣傳官이 되었고, 都摠府都事를 거쳐 兎山縣監·尙州判官·海州判官·梁山郡守·端川郡守·慶源府使·加里浦僉使 등의 外職을 지내고, 발탁되어 서울로 올라와 承旨·兵曹參議에 이르렀고, 咸鏡南道兵馬節度使를 지냈다. 어려서부터 학문과 무예에 뛰어났고 특히 활쏘기와 글씨에 능했다. 성품이 매우 준엄하고 강직하여 승지로 있을 때에는 乙巳僞動의 삭탈을 청함이 매우 준엄하여 動籍에 오른 動臣들이 두려워하였다. 또 집안에서도 자제들의 교육에 엄하였고 예의를 강조하였다.

묘역은 치욱 묘 바로 아래에 東南向하고 있는데 정부인 죽산박씨와의 합장묘이다. 높이 180㎝인 원형의 봉분은 하단에 높이 28㎝의 호석을 원형으로 둘렀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상석·계체석·6각향로석·향로석·망주석·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墓表는 봉분 우측에 위치하는데 백색대리석재의 비신 월두형이다. 4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에 3열로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南公諱彦純之墓 貞夫人竹山朴氏祔左"라 써 있다. 비문은 議政府 領議政 남구만이 쓴 것으로 좌측 측면에 표기되어 있다. 석물 중 문인석은 父 남치욱 묘의 문인석과 비교하여 조각수법이 떨어진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62. 金光瑞 墓



지도162 김광서 묘 위치도(성동 035)



사진162 김광서 묘표(비신에 방광을 만들고, 상부 연봉장식이 있는 花冠형태의 고려식 묘표이다)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56-1(지도15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광서(1519~1590)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江陵이며, 자는 祥白이다. 監正 渾의 長子로 성품이 淸直英明하며 침착 · 성실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업에 정진하여 軍資監 副奉事로 출사하여 奉事와 直長을 지내고 主簿(從六品)를 역임한 후 귀향하여 治家以正과 敎子以義로 여생을 보내다가 향년 72세로 졸하였다. 그는 그의 둘째아들 基命이 兵使를 하여 관례에 따라 吏曹參判(正三品)으로 증직되었다. 配는 안동권씨 佐郎 矩의 딸이다. 후손이 양주를 중심으로 대대로 살아 좌찬성 양주파가 되었다.

묘는 별내면 화접 2리 화접초등학교 김연 묘역 우측에 東向하고 있는데 정경부인 안동권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용미와 활개를 갖추고 있고, 봉분 앞에는 고려식 묘표가 있는데 받침대는 흙에 묻혀 있고, 비신과 花冠石을 갖추고 있다. 비신 중간에 가로 36㎝, 세로 73㎝, 깊이 2㎝의 방광을 만들고 여기에 4열로 "贈吏曹判書兼 判義禁府事 行兵曹司導寺主簿 江陵金公光瑞之墓 貞敬夫人安東權氏之墓"라 썼다. 크기는 비신 높이 72㎝ · 너비 52㎝ · 두께 22㎝, 화관석 높이 55㎝ · 너비 78㎝ · 두께 27㎝이다.

묘비 앞에는 상석 · 장대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문인석은 높이 200㎝로 다른 묘역과 같이 키에 비하여 좌우 폭이 넓어 장대한 감을 준다. 복두의 머리는 68㎝로 3등신의 신체비율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63. 金基命 墓



사진163 김기명 묘(봉분하단에 호석 8매를 원형으로 둘렀다)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56-1(지도16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기명(1561~1620)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江陵이며, 자는 季秀이다. 父는 主簿 光瑞이며, 母는 안동권씨로 좌랑 矩의 딸이다. 형은 錫命으로 현감을 지냈다. 1591년(선조 24)에 무과에 급제하여 南海府使를 거쳐 1597년에는 총재부원수로 재배되고 이어 1600년에는 숭의대부 판의금좌찬성에 올랐으나, 1618년(광해군 10)에 삭탈관직되고 영종도에 유배되었다. 1620년 4월 8일 유배지에서 돌아간 후 다시 이장되었으며 1624년(인조 2)에 복관되었다.

묘는 별내면 화접 2리 화접초등학교 김광서 묘역 우측편에 東向하고 있는데 정경부인 옥천유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높이 54㎝의 호석 8매를 원형으로 둘렀고, 봉분 앞에는 새로 세운 묘비가 있다. 비에는 4열로 "贈左贊成兼義禁府事行 全羅兵馬都元帥江陵金公基命之墓 貞敬夫人沃川劉氏祔左"라 써 있다. 묘비 앞에는 장대석 · 상석 · 4각향로석과 석주의 상단부에 앙화를 화려하게 조각한 망주석 및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문인석은 金冠朝服形의 높이 184㎝로 다른 것과 같이 좌우 폭을 크게 하여 중후한 느낌을 주고 머리 부분이 62㎝로 3등신의 신체비율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64. 金由岳 墓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56-1(지도16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유악(생몰년 미상)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江陵이며, 자는 安仁이다. 父는 司正 龜石이며, 母는 陽城 李氏로 判院事 純之의 딸이다. 漢城判官을 지냈으며 僉樞에 추증되었다. 配는 하동정씨로 父는 領相 하동부원군 문충공 學易齋 麟趾이다. 后配는 순흥안씨로 父는 護軍 掄이다.

묘는 별내면 화접 2리 화접초등학교 뒷편 김기명 묘의 바로 뒤에 東向해 있으며 정부인 순흥안씨 및 하동정씨의 묘와 '…' 형태로 나란히 있다. 중앙 유악의 봉분 앞에는 통비 형태의 고려식 묘표가 있는데 받침대에 비신 및 花冠石을 갖추고 있다. 비신에는 중간에 가로 33㎝, 세로 72㎝의 방광을 만들고 4열로 "贈同知中樞府事兼 五衛都摠府副總管行 漢城府判官 江陵金公由岳之墓"라 써 있다. 뒤의 비문은 마모되어 파악할 수 없다. 크기는 비신 높이 75㎝ · 너비 49㎝ · 두께 22㎝, 화관석 높이 38㎝ · 너비 68㎝ · 두께 35㎝이며, 묘표 앞에 상석이 위치하고 있다. 2단의 계체석을 마련하였으며, 그 간격은 270㎝이다.

우측의 정부인 순흥안씨 묘역은 봉분 앞에 유악 묘와 비슷한 형태의 비좌와 비신 및 花冠石을 갖춘 고려식 통비형 묘표가 있다. 비신에는 중간에 가로 16㎝, 세로 74㎝의 방광을 만들고 "貞夫人順興安氏之墓"라 써 있다. 후면의 비문은 마모되어 파악할 수 없다. 크기는 비좌 높이 14㎝ · 너비 60㎝ · 두께 18㎝, 비신 높이 72㎝ · 너비 50㎝ · 두께 17㎝, 화관석 높이 46㎝ · 너비 68㎝ · 두께 18㎝이며, 묘표 앞에 상석이 위치하고 있다.

좌측의 정부인 하동정씨 묘역은 봉분 앞에 비좌와 비신 및 花冠石을 갖춘 고려 양식의 통비형 묘비가 있다. 비신에는 중간에 가로 15㎝, 세로 68㎝의 방광을 만들고 "貞夫人河東鄭氏之墓"라 써 있다. 후면의 비문은 마모되어 파악할 수 없다.

크기는 비신 높이 70㎝ · 너비 50㎝ · 두께 20㎝, 화관석 높이 45㎝ · 너비 60㎝ · 두께 26㎝이며, 묘표 앞에 상석이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석 밑에 계체석을 놓았고 그 밑에 석주의 상단부에 앙화를 조각한 높이 188㎝의 망주석이 있다. 망주석 밑에 다시 계체석을 놓고 그 아래에 높이 210㎝의 문인석이 있다. 문인석은 키가 상대적으로 크고 좌우 폭을 크게 하여 상대적으로 중후한 감을 주고 있다. 문인석의 머리 부분은 신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65. 金渾 墓



사진165 김혼 묘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56-1(지도16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혼(149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江陵이며, 자는 渾之, 호는 蒜川이다. 贈僉知事 由岳의 長子로 성품이 강직하고 총명 · 고매하였으며, 말없이 실천하여 성실하며 어렸을 때부터 정암 趙光祖에게 師事하고 회재 李彦迪과 추강 南孝溫과 더불어 도의와 교분이 두터웠고 경서에도 밝아 행실이 수려하며 인품과 덕망이 높았으며 기묘사화로 충신과 양민이 참화를 당하므로 출사의 뜻을 버리고 蒜川으로 은거하여 두문불출하면서 독서에 탐닉하다가 중종조에 중용되어 典設司率(守 正四品官)를 거쳐 濟用監正(正三品 堂下官)을 지냈다. 현손 起宗이 戶曹判書(二品官)로 있어 관례에 따라 左承旨로 증직되었다. 配는 파평윤씨 영의정 파원부원군 尹汝弼의 딸이다.

김혼 묘는 별내면 화접 2리 화접초등학교 뒷편의 김유악 묘 우측에 北東向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복련을 조각하고 안상문을 새긴 비좌와 비신 및 花冠石형의 고려식 통비형 묘표가 있다. 비신 중간에 가로 34㎝, 세로 78㎝, 깊이 1㎝의 방광을 만들고 그 안에 글씨를 쓴 것으로 보이나 마모되어 알아 볼 수 없다. 크기는 비좌 높이 18㎝ · 너비 77㎝ · 두께 53㎝, 비신 높이 80㎝ · 너비 47㎝ · 두께 18㎝, 화관석 높이 44㎝ · 너비 60㎝ · 두께 20㎝이다.

묘표 앞에 상석 · 계체석 · 망주석 · 계체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을 배치하여 2단의 계체석 시설을 하였으며, 문인석은 강릉김씨 다른 묘역의 문인석과 달리 중후한 느낌이 없으며 가늘고 길다란 느낌을 준다. 높이는 194㎝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66. 延州玄氏 墓域



지도166 연주현씨 묘역 위치도(성동 045)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34-1(지도15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연주현씨 묘역은 별내면 화접 3리 샛말마을회관 우측의 도로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약 20여 기 이상의 묘가 밀집되어 있다. 이들 연주현씨 가문은 조선 중 · 후기에 있어 중인역관으로 활동했으며, 묘역은 이



사진166 연주현씨 묘역(조선 중후기에 중인역관 가문으로 활동했던 연주현씨 묘역이다)

시대 중인집안의 연구에 중요하다. 아울러 묘역의 석물은 19세기 중·후기에 同一人에 의해 건립된 듯 양식이 같다. 특히 봉분 앞의 墓表는 모두 비신 月頭形이며, 문인석이 소형인 공통점이 있다. 또한 상석의 前面에 墓主와 부인의 합장여부를 새겨놓았다.

이들 연주현씨 묘역의 주요 인물에 대한 약력과 석물의 특징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연주현씨 묘역 일람표

姓 名	官 職	石 物	墓表樣式	合葬
玄壽謙 (1513~1581)	贈通政大夫 掌藝院判決事行 禦侮將軍副司直	혼유석·상석·향로석· 망주석·문인석	비좌·비신월두형	祔
玄 武 (1538~1617)	嘉善大夫行 龍驤衛副司果	혼유석·상석·향로석	비좌·비신월두형	兩位
玄仁祥 (1563~1628)	贈資憲大夫漢城府判尹行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혼유석·상석·향로석· 문인석	비좌·비신월두형	祔
玄 珝 (1597~1658)	折衝將軍行龍 衛副護軍	상석·향로석·동자석	비좌·비신월두형	祔
玄德宇 (1617~1680)	嘉善大夫行龍 衛副護軍	상석·향로석·동자석	비좌·비신월두형	祔
玄 珏 (1640~1687)	贈通政大夫工曹參議行 副司	혼유석·상석·향로석· 동자석	비좌·비신월두형	祔
玄尙夏 (1667~1718)	贈工曹參判兼副摠管行包伊浦萬戶	혼유석·상석·향로석· 망주석	비좌·비신월두형	祔右
玄 (?)	贈工曹參判兼副摠管行 禦侮將軍副司正	혼유석·상석·향로석· 문인석	비좌·비신월두형	祔左
玄 龍 (?)	贈嘉善大夫工曹參判行 通政大夫	혼유석·상석·향로석· 동자석	비좌·비신월두형	祔左
玄哲祥 (?)	通政	혼유석·상석·향로석· 문인석	비좌·비신월두형	祔左
玄漢一 (?)	有明朝鮮國 川寧後人資憲大夫 龍祔衛副護軍	혼유석·상석·향로석· 동자석	비좌·비신월두형	祔左 祔右
玄德潤 (?)	嘉善大夫行 龍驤衛副護軍	혼유석·상석·향로석· 문인석	비좌·비신월두형	祔左

167. 金孝元 墓 및 墓碣



지도167 김효원 묘 위치도(성동 046)



사진167-1 김효원 묘



사진167-2 김효원 묘갈



사진167-3 김효원 묘의 문인석(선산김씨 묘역에서만 조영되는 특이한 양식이다)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24-4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효원(1532~1590)은 본관은 善山,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자는 仁伯, 호는 省庵이며 縣監을 지낸 金弘遇의 아들이다. 曹植 · 李滉의 문인으로 1564년(명종 19년)에 進士가 되고, 이듬해 謁聖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兵曹佐郎, 司諫院正言, 司憲府持平 등을 지냈다. 1573년(선조 6년)에 賜暇讀書하고, 그 이듬해 다시 지평이 되었다. 앞서 1572년(선조 5년)에 吳健이 그를 吏曹銓郎으로 추천하였으나, 당시 吏曹參議로 있던 沈義謙이, 김효원이 권신 尹元衡의 門客이었다고 반대하여 거부당하였는데, 그 뒤 1574년(선조 7년)에 趙廷機의 추천으로 이조정랑이 되었다. 이때 1575년(선조 8년)에 심의겸의 동생인 沈忠謙이 이조정랑으로 추천되자, 심충겸이 명종의 비인 仁順王后의 동생임을

들어 정랑의 관직은 척신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李潑을 추천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더욱 심의겸과 반목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士林派가 東·西人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당시 김효원의 집이 서울 동쪽 駱山 밑 동대문 근방(지금의 충신동)에, 심의겸의 집이 서울 貞陵(지금의 貞洞)에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東人, 심의겸 일파를 西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동인은 주로 신진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李滉의 嶺南學派와도 관계가 있었다. 이들의 대립이 심하여지자 右議政 盧守愼과 副提學 李珥가 士林의 분쟁을 우려하여 이를 완화시키고자 김효원과 심의겸을 外職으로 내보내도록 상소하기도 하였다. 그뒤 김효원은 慶興·富寧·三陟府使 등을 지냈고, 이후 司諫의 물망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중앙의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고 계속 지방에 머물렀다. 붕당 간의 쟁의가 심화되면서 安岳郡守로 자청해 나갔고, 당쟁에 책임을 느끼고 時事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일이 없었다. 뒤에 永興府使로 승진하여 재직 중에 돌아갔다. 死後 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삼척의 景行書員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省庵集』이 있다.

묘는 별내면 화접리 선산 김씨 묘역의 제일 아래에 北東向하여, 정경부인 초계정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민무늬 장방형 비좌와 비신 월두형의 墓表가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府使贈參判省菴金先生孝元之墓 貞敬夫人草溪鄭氏祔"라 써 있다. 비신 뒤에는 마모되어 보이지 않으며, 비신 前面 우측 상부 측면에 직경 22㎝의 큰 파손 흔적이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13㎝·너비 86㎝·두께 52㎝, 비신 높이 121㎝·너비(上) 50㎝·너비(下) 48㎝·두께 18㎝이다.

묘표 앞에는 혼유석·상석·계체석·사각향로석·망주석·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이 중 망주석은 높이 192㎝로 8각 받침대에 앙화를 조각하였으며, 크고 웅장한 느낌을 준다. 문인석은 높이 174㎝로 흉대가 없으며 머리는 동자석 모양으로 꼭지모양이 특이하다.

墓碣은 선산김씨 묘역의 김효원 묘 아래 길가에 東北向하여 있다. 전체높이 334㎝로 형태 및 규모가 神道碑와 유사하며, 민무늬 백색화강암 비좌와 백색대리석 비신 및 팔작지붕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상단 前面에 篆書로 "金先生省庵墓碣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通政大夫永興大都護府使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藝文館提學世子左賓客省庵金先生墓碣銘 并序"이다. 비문은 표면의 결락이 심하여 撰者는 뚜렷이 알 수 없고, 書者는 集 資憲大夫 戶曹判書兼 弘文館 提學 金世濂이며, 篆者는 集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 眉叟 許穆이다. 건립연대는 1743년(영조 19)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66㎝·너비 144㎝·두께 80㎝, 비신 높이 214㎝·너비 84㎝·두께 25㎝, 옥개석 높이 54㎝·너비 134㎝·두께 75㎝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 1994.

168. 尹天儕 墓 및 神道碑

□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58-1임/377-3
(지도162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윤천뢰(1617~1695)는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坡坪, 자는 代餘, 부윤 진경의 자이다. 1643년(인조 21) 무과에 급제하여 宣傳官이 되었다. 1654년(효종 5) 治馬別將으로서 군사를 사열할 때 부하들이 왕 앞에서 禁衛營의 군사와 함부로 싸워 그 책임을 지고 투옥되었다. 뒤에 용서되어 1657년(효종 8) 충청도병마절도


사진168-1 윤천뢰 묘(봉분 하단의 정면 호석에 '乙'자를 새겨놓았다)


사진168-2 윤천뢰 신도비

사에 오르고 1662년(현종 3) 御營中軍을 거쳤다. 이듬해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를 시작으로 여러 요직을 거치고 1680년(숙종 6) 同知中樞府事로서 大興山城을 증축하였다. 다시 都正이 되어 江華島墩臺의 공사를 총감독한 공으로 뒤에 加資되었다.

묘는 별내면 화접리 파평윤씨 선산에서 좌측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구릉 안쪽에 東向하고 있다. 정부인 초계정씨와의 합장분인 원형의 봉분은 하단에 높이 60㎝, 길이 220㎝의 호석 8매를 둘렀으며, 봉분의 크기는 높이 150㎝, 남북직경 570㎝이다. 봉분 정면 호석에 '乙'자를 새겨 논 것이 특이하다. 봉분의 앞으로는 墓表 · 혼유석 · 상석 · 편6각향로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墓表는 비좌와 비신 월두형으로 비좌에는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복련 및 4면에 전후 2엽, 좌우 1엽씩의 안상문을 새겼다. 비신은 백색대리석 재질로 前後 2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에 3열로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知訓練院事五衛都摠府都摠管尹公衛天賚之墓 配貞夫人草溪鄭氏祔左"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9㎝ · 너비 97㎝ · 두께 62㎝, 비신 높이 121㎝ · 너비上 52㎝ · 下 50㎝ · 두께 23㎝이다.

神道碑는 화접초교 北쪽으로 약 200m 거리의 도로변에 인접하여 東南向하여 있다. 총 높이 300㎝로 장방형의 백색화강암 비좌와 백색대리석 비신 및 순백색의 백색화강암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 상단에 篆書로 "知中樞府事尹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知訓練院事五衛都摠府都摠管尹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南九萬이 찬하고, 嘉義大夫 京畿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 趙相愚가 글씨를 썼으며 通政大夫 承政院右承旨 洪受疇가 전했다. 비문을 쓴 조상우의 書體는 명쾌한 느낌이 드는 行書體이다. 좌측면에 직경 6㎝의 탄흔 및 상부에 일부 표면의 결락이 있다. 옥개석은 처마면이 '一'자로 끝을 약간 반전시켰다. 전체적으로 비는 오랜 세월을 거쳤는데도 보존상태가 좋아 대부분 글씨를 판독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53㎝ · 너비 158㎝ · 두께 103㎝, 비신 높이 194㎝ · 너비 88㎝ · 두께 35㎝, 옥개석 높이 53㎝ · 너비 149㎝ · 두께 93㎝이다.

□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169. 尹之淸 墓 및 墓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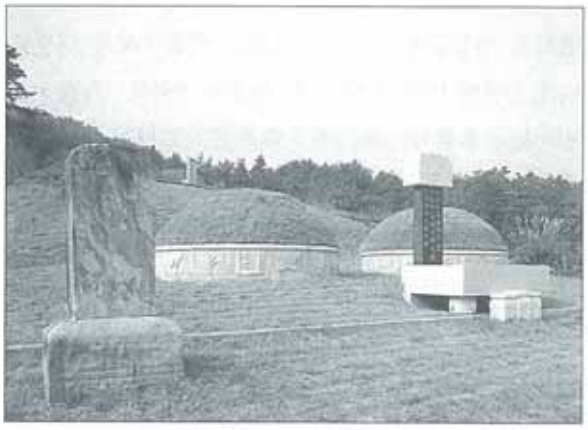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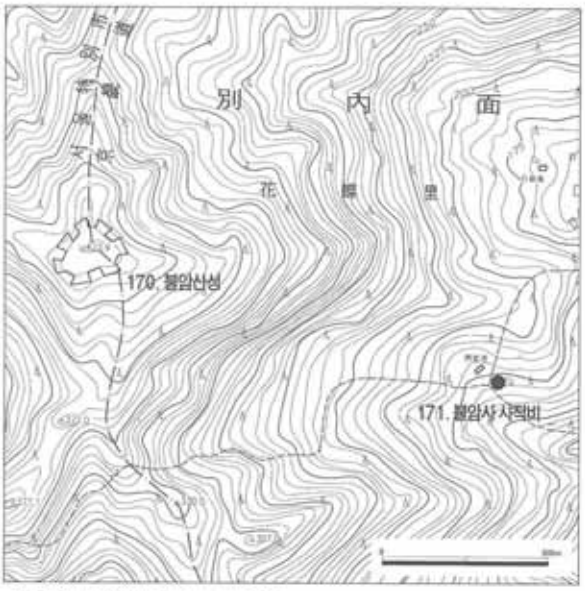
사진169 윤지청 묘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58-1(지도16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묘는 별내면 화접리 파평윤씨 선산에 위치하여 東南向하고 있다. 화접초교 北쪽으로 약 200m 거리의 도로변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묘역은 멀리서도 쉽게 확인이 된다. 淑人 安東權氏와의 쌍분으로 봉분의 앞에 고석 2개가 받치고 있는 상석 · 장명등 · 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봉분 좌측에는 새로 세운 묘갈 및 우측 계체석 아래에 원래의 墓碣과 墓表石 2기가 앞뒤로 나란히 세워져 있다.

墓碣은 비좌와 비신 월두형으로 비신은 마모가 있으며 前面에만 비문이 있다. 상부에 篆書로 "○○尹公墓碣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朝鮮國通德郎守掌樂院僉正兼內乘尹公墓碣銘 并序"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56cm · 너비 89cm · 두께 57cm, 비신 높이 129cm · 너비 上 60cm · 下 56cm · 두께 22.5cm이다. 墓表는 묘갈보다 약간 상부에 위치하여 비좌와 비신 및 상부에 운문 및 초승달을 상징하는 冠石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2열로 "通德郎守掌樂院僉正兼內乘尹公之墓 淑人安東權氏之墓"라 쓰여 있다. 비신은 파손된 것을 철쇄로 고정하고 접합한 흔적이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15cm · 너비 82cm · 두께 46cm, 비신 높이 96cm · 너비 49cm · 두께 14cm, 관석 높이 39cm · 너비 59cm · 두께 21cm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170. 佛岩山城



지도170 불암산성 위치도(성동 034)



사진170-1 불암산성 동벽(석축이 잘 남아 있다)



사진170-2 불암산성 남벽(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이다)



사진170-3 불암산성 정상부(직경 8m 정도의 호가 파여있다)



사진170-4 불암산성내의 석축유구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97

□시 대 : 삼국시대

□종 류 : 성(산성)

□내 용

(1) 역사 및 유래

불암산은 중랑천 일대에 형성된 넓은 평야의 동쪽에 있다. 서쪽으로는 북한산과 대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수락산에 연결되는 험준한 암산이다. 불암산은 능선을 중심으로 동쪽은 양주군 별내면, 서쪽은 중랑구 중계동에 속해 있으며, 최고봉은 해발 510m 정도이다. 이 최고봉의 남쪽 1㎞ 지점인 해발 420.3m 봉의 정상부에 산성이 축성되어 있다. 이 봉우리는 동서양측이 험난하여 완경사를 이루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산성으로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지형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서쪽으로 북한산 일대와 남쪽으로 아차산 중랑천 일대가 잘 조망되며 한강일대도 일부 조망된다. 그렇지만 북쪽은 불암산 정상부에 가려 시계가 막혀있다.

불암산성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바가 거의 없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주조에 "검암산고루는 산의 서쪽 봉우리 두 곳에 있으며, 선조 임진년에 의병장 高彦伯이 쌓은 것이다."[11]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검암산고루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同書의 산천조에 보면 불암산은 주 남쪽 40리 지점에 있으며, 儉巖山은 주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다. 양주군의 위치가 현재 불곡산 남쪽의 주내리 일대였음을 고려하면, 검암산은 현재 불곡산의 위쪽 수락산의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 『동여도』나 『대동여지도』를 보면 수락산 남쪽에 검암산이 있고, 검암산의 남쪽에 불암사가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불암사는 현재 불암산 정상부와 제2봉의 중간지점에 있음을 감안하면, 검암산은 불암산에서 북쪽으로 4㎞ 전후한 지점에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수락산 남쪽 2㎞ 지점에 있는 해발 640m 봉이 된다. 따라서 검암산 고루는 이

1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1권, 楊州牧, 성지조.

봉우리의 서쪽 능선상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지명총람』에서는 검암산을 구리읍 갈매리와 인창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높이 177m 이며 동구릉의 주산이 된다고 하였으나,[12] 이것은 기록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서 보루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록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암산성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는 1916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古蹟調査報告』이다. 이 보고서에는 불암산성을 산성 혹은 봉수지로서 둘레는 약 300보 정도이며, 축조시기와 사용기간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13]

(2) 구조 및 현황

테뫼식의 석축산성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과 남양주시 화접면의 경계지점에 있는 불암산의 남쪽 제2봉인 해발 420.3m 봉의 정상부에 있다. 이곳은 중랑구 일대가 잘 조망되는 곳으로 평탄한 정상부의 자연지형을 따라 석축을 쌓았는데 평면 형태는 부등변의 5각형이나 4각형에 가깝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221m이다.[14]

성벽의 석축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이나 남쪽과 동쪽의 일부 성벽은 면석이 남아 있다. 남쪽의 성벽은 7단의 석축에 높이 120㎝ 정도가 남아 있으며 동쪽은 폭 15m 정도에 높이는 1.5m 정도가 남아 있다. 성벽은 바른층 쌓기를 하였는데 현재 7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퇴물림쌓기는 하지 않았으며, 약간의 쐐기돌이 사용되고 있다. 성돌은 대부분 화강암이며, 할석을 장방향으로 다듬어 쌓았는데 성돌의 크기는 대략 60㎝×18㎝, 45㎝×15㎝, 55㎝×16㎝, 43㎝×15㎝, 52㎝×15㎝, 46㎝×18㎝ 등으로 성돌의 높이가 20㎝를 넘지 않고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무너진 성돌 중 뒷채움돌의 크기를 살펴보면 대략 '폭 · 높이 · 길이'가 48㎝×18㎝×50㎝, 20㎝×15㎝×56㎝, 21㎝×15㎝×66㎝, 32㎝×18㎝×60㎝, 28㎝×16㎝×62㎝로 폭이나 높이에 비해 길이를 길게 하여 상호 물리도록 함으로써 성벽이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문지로 추정되는 곳은 성벽이 남쪽 능선과 만나는 지점의 현재 등산로가 형성된 부분으로 생각된다. 정상부에서 북동쪽의 아랫단, 성벽 안쪽에는 직경 230㎝ 정도의 석축구조물이 있는데 크기 50~70㎝ 할석이 원형을 이루며 쌓여 있다. 형태상으로는 우물과 같지만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성 내부에는 남북 28m, 동서 26.5m로 전체 둘레가 78m에 달하는 하단보다 약 3m 정도 높은 지점이 있다. 이곳에는 북쪽으로 치우쳐 직경 8m 내외에 둘레 26.8m인 원형의 구덩이가 있다. 구덩이의 현재 깊이는 약 40~80㎝ 정도이다. 이 함몰부는 아마도 집수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부의 남쪽은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정상부의 평탄한 곳과 경사면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무문토기류와 고구려토기, 신라토기가 함께 발견되고 있음이 주목된다.[15] 기와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무문토기는 저부편으로 전체적인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점토에 굵은 석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또한 많지 않은 토기편 중에는 고구려토기편이라고 할 수 있는 황갈색 토기편이 몇 점 있으며, 신라토기임이 분명한 토기편도 발견되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토기의 특징을 지니는 토기편도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채집유물

① 경질토기편(사진170-5-1, 도면170-1)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표면에는 크기 0.3㎝ 정도의 격자문이 조밀하게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두드리면 쇳소리가 날 정도로 소성상태가 양호하다. 두께 0.5㎝이다.

② 경질토기편(사진170-5-2, 도면170-2)

황갈색을 띠고 있지만 소성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1985. 323쪽.
13) 朝鮮總督府, 『朝鮮古蹟調査報告』(大正五年度), 1916. 21~21쪽.
14) 불암산성은 크기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산성이라기보다는 보루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명칭일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조사가 된 유적으로서 관행상 불암산성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기존의 명칭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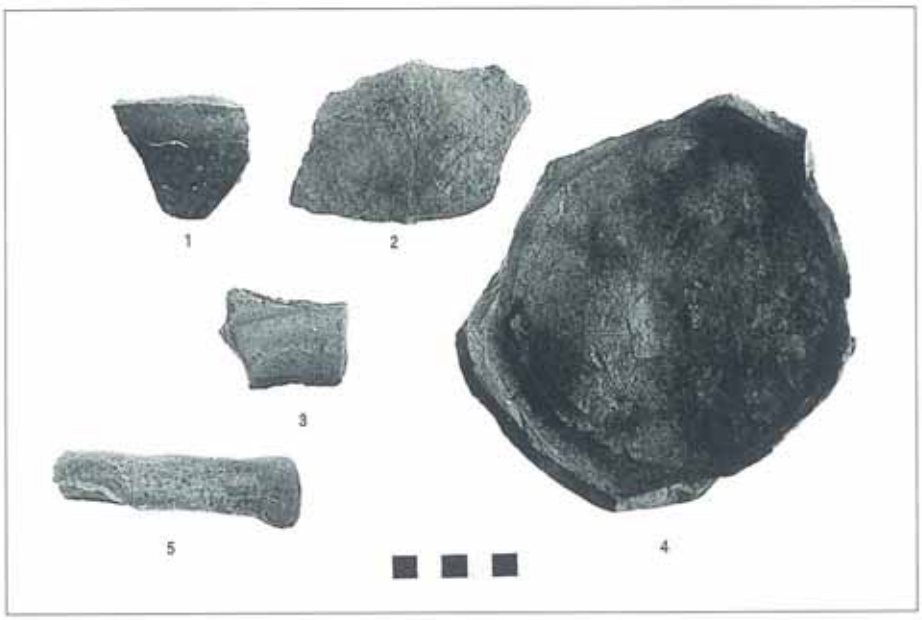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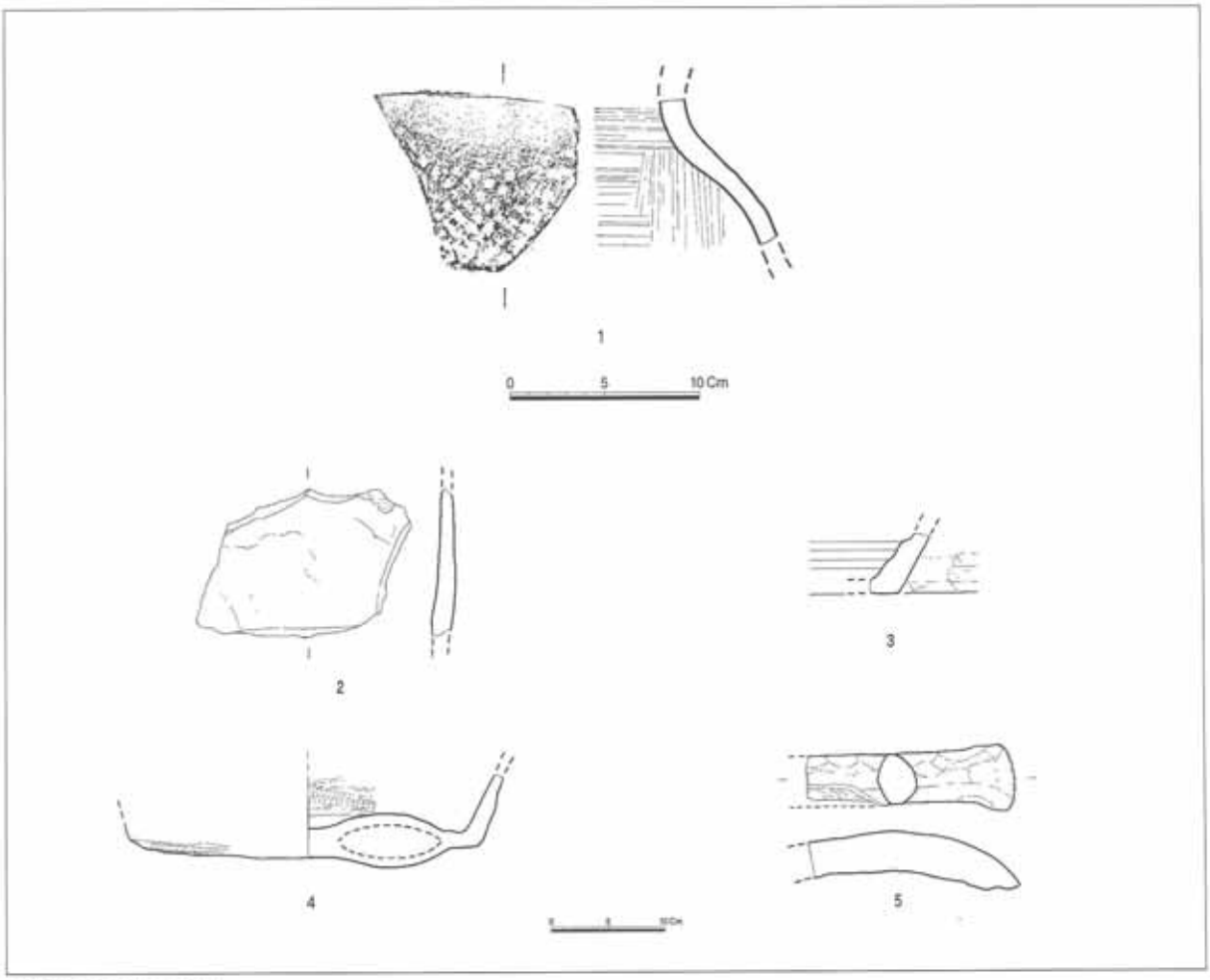


사진170-5 불암산성 출토유물



도면170 불암산성 출토유물

표면과 내면의 일부가 박락된 상태이지만 희미하게 선조문이 타날된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0.8㎝이다.

③ 연질토기 저부편(사진170-5-3, 도면170-3)

회색 연질토기편으로 표면은 소문이며, 안쪽에는 성형과정에서 생성된 횡방향의 굴곡이 특징적이다. 두께 1.1㎝이다.

④ 경질토기 저부편(사진170-5-4, 도면170-4)

회청색 경질의 호형토기 저부편이다 저부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평저의 바닥에서 약 70° 정도의 경사를 이루며 동체부가 연결되고 있다. 성형은 바닥을 우선 만들고 동체부를 부착해 올라갔으며, 소성상태가 불량해 바닥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기형이 약간 이지러진 상태이다. 두께는 1㎝이다.

⑤ 토기 손잡이편(사진170-5-5, 도면170-5)

회백색 연질토기 손잡이편이다. 대상파수 손잡이로 중간부분의 횡단면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단면을 보면 점토판을 말아서 둥글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부의 단면직경은 2㎝이다.

□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朝鮮古蹟調査報告』, 1916.

구리시, 『九里市誌』, 1996.

171. 佛岩寺 事蹟碑



사진171 불암사 사적비

□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797(지도170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념비

□ 크 기 : 總高 305㎝(碑身 210㎝)

□ 내 용

불암사 사적비는 최근에 건립된 제월루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건립연대는 1731년(영조 7년)으로 절의 내력을 살피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비좌는 지대석을 겸하도록 반쯤은 땅에 묻혀 있는데, 직육면체의 형태를 띠며 마모가 심한 탓인지 문양을 살필 수 없다. 비신은 상태가 썩 좋지 않으며 碑面에 이물질이 묻어있기도 하다. 옥개석은 화강암제로 보편적이고 단순한 형태인 팔작지붕의 모양을 하고 있다.

비문은 李德壽(1673~1744)가 지었고, 篆額은 曺命敎(1687~1753)가 썼는데 그는 전라남도 고흥 楞伽寺 사적비의 글씨도 썼던 사람이다.

한편 이 불암사 사적비의 건립연대에 대해서 이 비

15) 심광주, 『九里市誌』上, 387~389쪽, 1996.

를 소개한 여러 글에는 한결같이 1629년(仁祖 7)으로 잘못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아마 비문 끝 부분에 "崇禎紀元後再辛亥年"이라는 글을 잘못 해석해서 숭정 2년 곧 1629년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숭정 2년이라는 것은 비문의 撰者와 篆書者의 생몰연대와도 맞지 않는다.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은 숭정 이후 두번째 되는 신해년에 세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 해는 1731년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사진172-1 국사봉보루 북쪽 성벽



사진172-2 국사봉보루 남쪽 성벽



사진172-3 국사봉보루 정상부(아래쪽의 지표에서 토제마가 출토되었다)

172. 國賜峰堡壘

□소재지 : 별내면 광전리 산92(지도138 참조)

□시　대 : 삼국시대

□종　류 : 성(보루)

□내　용

(1) 역사 및 유래

아차산이 있는 한강일대에서 의정부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차산 서쪽의 중랑천을 따라 올라가다가 3번 국도를 따라 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아차산 동쪽의 왕숙천을 따라 올라가다가 퇴계원에서 43번 국토를 타고가는 방법이다. 이것은 수락산에서 불암산과 아차산으로 길게 남북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인해 형성된 동서루트로서 일찍부터 도로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국사봉 보루는 바로 수락산 동쪽루트의 길목을 장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의정부에서 남동쪽으로 평야지대를 지나면 깃대봉과 수락산을 연결하는 숫돌고개를 넘게 된다. 숫돌고개를 넘으면 도로는 해발 331m인 국사봉을 피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게 되며 국사봉 정상부에 있는 보루는 이 양 도로를 瞰制하기 좋은 위치이다. 이곳에서는 북서쪽으로 34번 국도의 북쪽에 있는 부용산(210m) 보루도 잘 조망되며, 43번 국도의 동편에 있는 광전리산성과는 직선거리 3㎞ 정도여서 북쪽으로부터

의 적을 방어하기에 탁월한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국사봉 보루는 지금까지 전혀 조사된 바 없으며 문헌기록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2) 구조 및 현황

국사봉은 수락산의 동쪽 지봉으로서 북쪽으로 해발 331m봉을 주봉으로 하여 남쪽으로 310m봉과, 311.8m봉, 195m봉의 4개의 봉우리를 이루며 마치 독립봉 처럼 솟아있다. 정상부는 현재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다.

보루는 장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약 40° 정도 편동하고 있으며 장축의 길이는 40m, 단축의 폭은 17m이고, 전체 둘레는 103m 정도이다. 동벽은 높이 10m 정도로 노출된 암벽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쪽 부분과 남동쪽에 석축성벽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서쪽 부분에 노출된 성벽은 높이 약 50㎝이고, 길이 약 5m 정도이며, 35㎝×18㎝, 46㎝×15㎝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축성렬이 정연하지 못하다. 남동쪽에 남아 있는 성벽은 현재 4단 정도의 面石이 노출되어 있다. 현재 노출되어 있는 성벽 부분은 폭 420㎝, 높이 60㎝ 정도이다. 이곳의 면석은 60㎝×15㎝, 52㎝×15㎝, 70㎝×10㎝, 34㎝×12㎝, 65㎝×18㎝ 등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화강암을 주로 하는 성돌은 한쪽 면만 약간 다듬어서 사용하였다. 축성방법은 바른층 쌓기를 하였으며, 위의 성돌과 아래성돌이 1/3정도 물리도록 쌓았다.

현재 정상부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평탄하게 삭토되어 기반암과 마사토층이 노출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부식토층에서 유물이 간혹 발견된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단경호와 타날문토기, 평저호 등 신라계의 토기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43번 국도의 건너편에 있는 퇴뫼산성과 함께 신라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보루에서는 토제마편들이 여러 점 발견되었다. 이처럼 토제마나 철제마가 발견되는 것은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례행위가 이루어지는 산 정상부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토제마가 출토된 대표적인 유적지로서는 하남의 이성산성과, 목천의 위례성 등이 있다.

(3) 채집유물

① 단경호 구연부편(사진172-4-1, 도면172-1)

회청색 경질의 단경호 구연부편이다. 동체부의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최대경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깨부분이 없이 바로 곡선을 이루며 경부로 연결되고 있다. 경부는 짧게 직게 외반하여 구연을 이루고, 구단부는 약간 위로 솟아오르며 납작하게 처리되었다. 복원구경 10㎝, 경부직경 8㎝, 기벽의 두께 0.4㎝이다.

② 경질토기편(사진172-4-2, 도면172-2)

회청색 경질토기 동부편이다. 표면에는 선조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으며 안쪽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두께은 0.4㎝이다.

③ 토기저부편(사진172-4-3, 도면172-3)

암갈색의 경질토기 저부편이다. 평저의 바닥에서 축약됨이 없이 동체부로 연결되는데 접합 후 외면을 예세로 깎아내어 각이 진 것처럼 보인다. 표면과 안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단경호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벽의 두께는 0.6㎝이다.

④ 토제마편(사진172-5, 도면172-4)

정상부의 바닥에 노출되어 있었다. 모두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으로 적갈색을 띠는 것과 회청색을 띠는 것이 있으며, 전체 조각수는 10여 점 정도이지만 최소개체수는 3개체 정도이다. 그 중 회청색을 띠고 있는 것들은 소성상태가 양호해 매우 단단하여 인위적으로 이렇게 부러뜨린 것으로 보이는데 목부분에 표현된 갈기와 아가리부분에서 목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고삐의 흔적을 감안할 때 모두 말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

발견된 토제마의 제작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갈색을 띠고 있는 것은 몸통부가 얇게 표현되었고 재갈과 고삐, 눈과 갈기가 표현되어 있으며, 회청색을 띠고 있는 것들은 몸통부의 단면이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통통하게 만들었으며 등부분에는 안장을 만들어서 붙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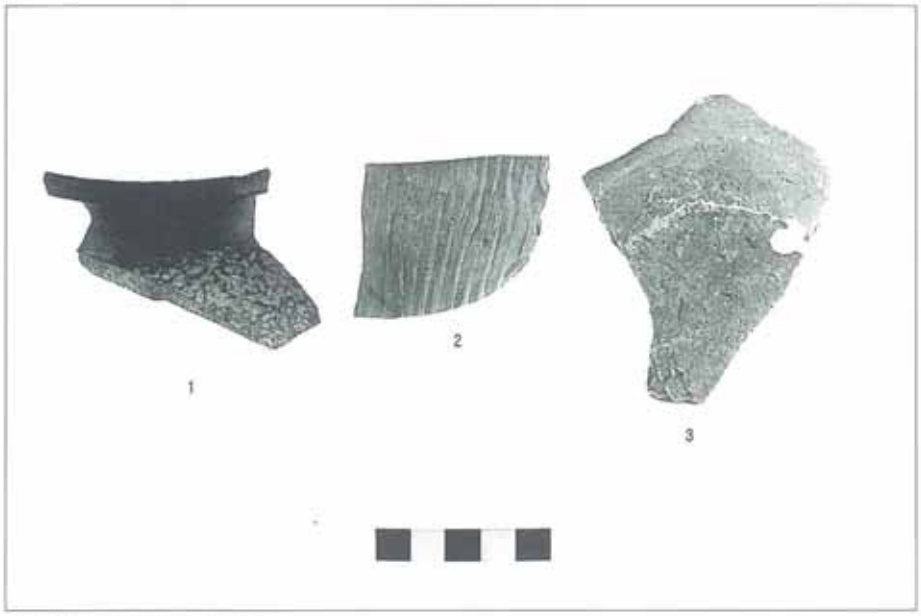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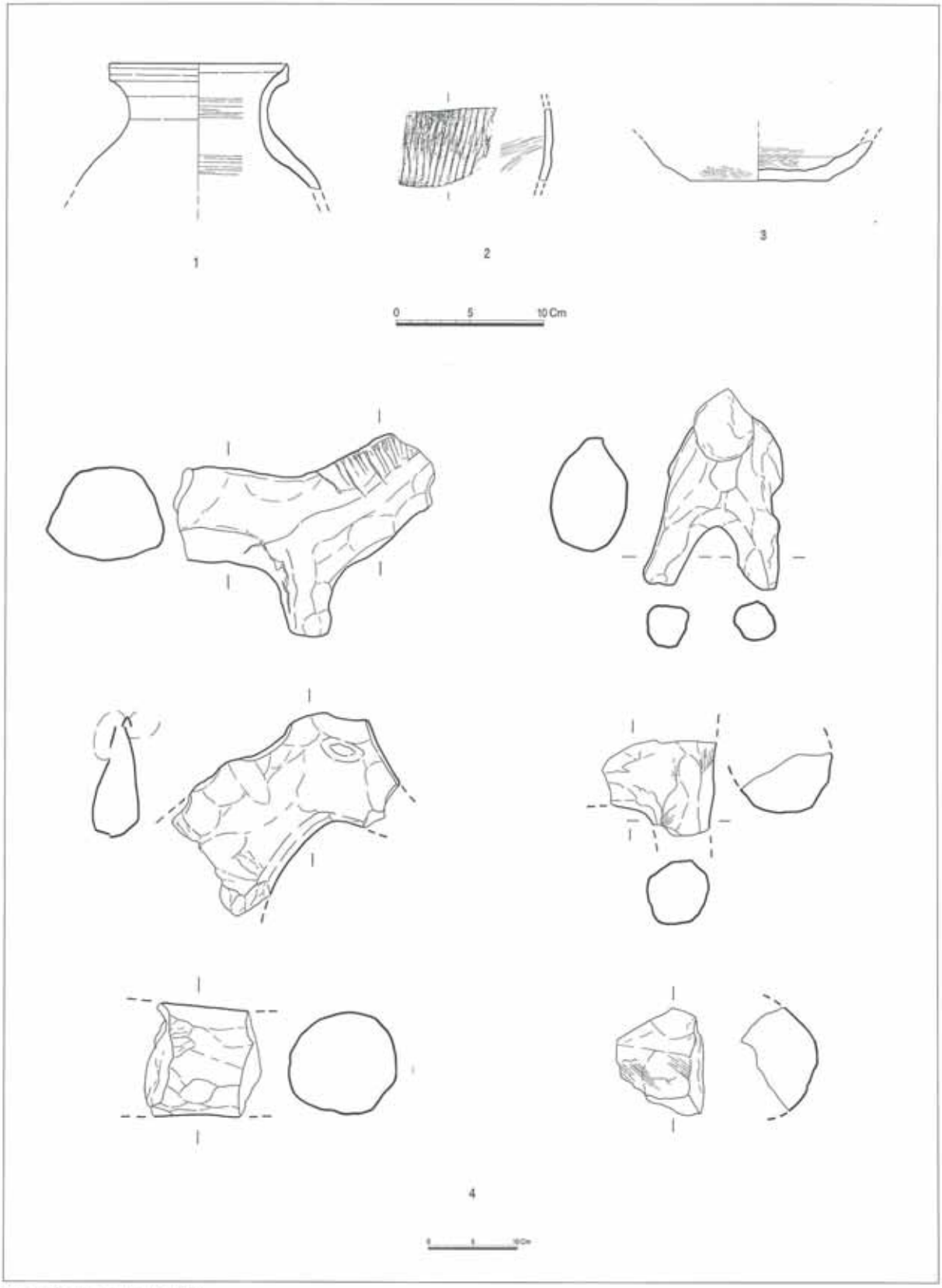
사진172-4 국사봉보루 출토유물



사진172-5 국사봉보루 출토토제마

나간 상태이다. 이 토제마들은 이곳이 국사봉이라 불리어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무속의 제례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도번호 : 의정부 205-3



도면172 국사봉보루 출토토제마

173. 甄城君 李惇 墓



지도173 견성군 이돈 묘 위치도(성동 036)



사진173-1 견성군 이돈 묘



사진173-2 견성군 이돈 문인석

□소재지 : 별내면 광전리 산153-5(지도173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견성군(1482~1507)은 성종의 제7남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謹之, 시호는 景愍이다. 벼슬은 현록대부를 받았고, 중종대 袞貞의 무고로 杆城으로 귀양갔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묘는 별내면 광전리 구리 · 퇴계원과 서울 · 태릉으로 갈리는 43번 국도 증말 3거리 우측의 주을곡 중촌 과수원 내에 東南向하여 있다. 원형의 봉분은 용미와 나지막한 활개를 갖추고 있다. 봉분 앞에는 비신이 없이 墓表의 비좌만 있으며, 그 앞에 흑적색으로 탈색된 상석 · 계체석 · 4각향로석 · 동자석(左 63㎝ · 右 83㎝)등의 석물이 있는데, 동자석 우측의 것은 머리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향로석 앞 좌우에 있는 문인석은 左측이 높이 174㎝에 비해 幞頭의 머리부분 55㎝로 작은 편이며 갓끈의 표현이 되어 있으며, 현재 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우측은 높이 188㎝로 머리부분 60㎝이며 역시 갓끈의 표현이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174. 宣城君 李欽 墓 및 墓碣



사진174 선성군 이흠 묘

□소재지 : 별내면 광전리 산153-5(지도173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선성군 흠(1522~1562)은 종친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仲敬이다. 父는 完山君 壽誠이다. 태어나면서 副正을 제수받고 이후 정의대부를 받았다.

묘역은 견성군 이돈 묘 아래에 東南向하여 부인 광산현부인 김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용미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 앞에는 상석 · 계체석 · 4각향로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幞頭의 문인석은 크기가 장대하고 조각이 우수한 것 외에 얼굴이 유난히 둥글다. 얼굴의 눈은 감고 있으며 돌이끼가 있다.

墓碣은 봉분 앞 중앙에 위치하여 복련과 안상문을 조각한 장방형의 비좌에 백색대리석 재질의 비신은 월두형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2열로 "正義大夫宣城君之墓 光山縣夫人金氏之墓"라 썼고 後面에 "有明朝鮮國宗室正義大夫宣城君墓碣銘并序"라 써 있다. 비문은 資憲大夫 兵曹判書를 지낸 金貴榮이 짓고, 秉節校尉 閔起貞이 썼으며, 건립연대는 1581년(선조 14)이다. 비신 월두형의 묘갈은 흔히 묘표로 오인하기 쉬운데 묘갈이라 명기되어 있어 유례가 드문 예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27㎝ · 너비 90㎝ · 두께 55㎝, 비신 높이 135㎝ · 너비 50㎝ · 두께 20㎝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175. 寶城君 李容 墓 및 神道碑



지도175 보성군 이용 묘 위치도(성동 025)



사진175 보성군 이용 묘(2단의 토축화개를 갖추어 묘역이 유난히 웅장하다)

□소재지 : 별내면 광전리 산 104-2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보성군 이용은 조선 초기의 왕족으로 태종의 손자이며, 孝寧大君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관례에 따라 寶城君에 봉해졌다. 처음에는 昭德으로 종1품이었는데 후에 顯祿으로 승계하여 정1품이 되었다.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경사를 두루 섭렵하는 등 학문을 깊이 닦았다. 또한 조용하고 온순하며 검소한 천성을 지녀 자신을 낮추어 추호도 자랑하려는 기색이 없는 겸양지덕을 겸비하였다. 평상시에는 화려한 것을 싫어했으며, 가산을 늘리려 하지 않고 담박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 여덟 왕조를 섬기는 동안 뚜렷한 관직에 오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오복을 갖추었음인지 내내 지위와 계급이 높았고, 내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유언으로 시호를 받지 말라고 하여 묘에는 "朝鮮國王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陜川 李氏와 결혼하여 7남 6녀를 두었는데, 그 중 栗元君와 春陽君은 문과에 급제하였다. 손자 朱溪君이 文敬이라는 시호를 받는 등 현달한 후손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翼賓 · 章五 · 得濟 · 鐵求 · 景純 · 鳳儀 등은 양주목사를 지냈고, 5세에 걸쳐 6명의 장군이 배출되었다. 1499년(연산군 5)에 세상을 떠나 衿川郡 博達山에 장사를 지냈다가, 뒤에 부인과 합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였다.

묘는 별내면 광전리 주을곡 43번 국도변의 寶淸齋 및 신도비에서 윗쪽으로 200m 위에 北東向하고 있는데 합천이씨와의 쌍분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 좌우에 墓表가 있는데, 우측의 것은 본래 보성군 묘표로 민무늬 비좌에 비신이 월두형이다. 비신 前面에는 "有明朝鮮 王孫顯祿大夫 寶城君容之墓"라 하였다. 건립연대는 1712년(숙종 38)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30㎝ · 너비 108㎝ · 두께 68㎝, 비신 높이 142㎝ · 너비 59㎝ · 두께 26㎝로 좌측의 비보다 웅장한 느낌을 준다. 좌측에 묘표는 보성군 부인 합천 이씨의 것으로 민무늬 비좌에 비신이 월두형이다. 비신 前面에는 "朝鮮 王孫寶城君容配靑風郡夫人陜川李氏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8㎝ · 너비 94㎝ · 두께 59㎝, 비신 높이 127㎝ · 너비 52.5㎝ · 두께 19㎝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계체석 · 4각향로석 · 문인석 등의 석물과 그 앞 좌우에 새로 만든 망주석과 중간에 장명등을 세웠다. 특히 幞頭의 문인석은 마모가 심하다.

神道碑는 43번 국도변에 인접한 寶淸齋 건물 우측에 北東向하여 있다. 총 높이 339㎝로서 민무늬 비좌에 백색대리석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面에 있으며, 4면에 걸쳐 상단에 篆書로 "朝鮮王子顯錄大夫寶城君神道碑名"이라 횡서했다. 비문은 前經學院副提學 安寅植이 짓고, 前昌德宮奉常寺典祀官 李丙熙가 글씨를 쓰고 전액을 했으며, 건립연대는 1963년이다. 옥개석은 처마면이 거의 '一' 자에 가깝다.

규모는 비좌 높이 44㎝ · 너비 172㎝ · 두께 98㎝, 비신 높이 229㎝ · 너비 96㎝ · 두께 35㎝, 옥개석 높이 66㎝ · 너비 150㎝ · 두께 90㎝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176. 寶淸齋



사진176 보청재

□소재지 : 별내면 광전리 234-2(지도17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목조물(재실)
□내 용

보청재는 43번 국도변 좌측에 北東向하고 있다. 재실은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문은 솟을대문에 백색벽돌로 담장을 둘렀고, 현판에 "注乙門"이라 하였다. 담장내에는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형의 보청재가 있다. 현판 글씨는 당대 최고의 서예가인 김응현이 썼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지도177 변사겸 묘 위치도(성동 036)



사진177-1 변사겸 묘(중종반정의 공신인 변사겸의 묘이다)

177. 邊士謙 墓

□소재지 : 별내면 광전리 산141-2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변사겸은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호는 撫松堂, 父는 증호조참판 변환이고 母는 旌善 全氏로 현감 由義의 딸이다. 숙부 邊脩와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공신



사진177-2 변사겸 묘갈

4등에 책록되고 原陽君에 봉해졌다. 벼슬은 호조판서에 증직되고 시호를 襄胡라 하였다.

묘역은 별내면 광전리 광암마을 뒷산 원주변씨 묘역 제일 윗쪽에 東向하며 정부인 연안이씨와의 쌍분이다. 원형의 봉분은 용미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 앞에는 비신이 없는 묘표의 비좌 및 상석 · 계체석 · 망주석 · 장명등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장명등은 사각형의 받침대에 사모지붕형이며, 높이는 168㎝이다. 金冠朝服形의 문인석은 높이 198㎝로 변씨 집안의 무골을 상징하는 듯 크고 장대하나 흑적색으로 탈색과 마모가 심하다.

墓碣은 묘의 우측 앞에 北向하고 있다. 총 높이 232㎝로서 민무늬의 비좌와 비신 및 상부 반월형태의 花冠石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마모가 심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반월형의 화관석은 구름 무늬를 새겨 놓고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18㎝ · 너비 97㎝ · 두께 51㎝, 비신 높이 151㎝ · 너비 75㎝ · 두께 19㎝, 화관석 높이 63㎝ · 너비 99㎝ · 두께 30㎝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지도178 퇴뫼산성 위치도(성동026)


사진178-1 퇴뫼산성 성내부 전경

178. 퇴뫼山城

□소재지 : 별내면 광전리 산28-1
□시　대 : 삼국시대
□종　류 : 성(산성)
□내　용

(1) 역사 및 유래

퇴뫼산(368.7m)은 북쪽으로 용암산(476.9m)과 수리봉(536.8m)을 연결하는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내려 퇴계원에까지 이르며, 동서방향의 교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치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별내에서 의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광릉쪽으로 우회하거나 퇴계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진178-2 퇴뫼산성 북쪽 성벽



사진178-3 퇴뫼산성 북쪽의 치(기단부의 면석이 잘 남아 있다)

안되었다. 또한 용암산의 북쪽에는 천보산맥이 길게 가로막고 있어 3번 국도쪽으로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퇴뫼산성은 의정부에서 퇴계원으로 연결되는 43번 국도와 퇴계원에서 광릉 방면으로 연결되는 37번 국도 양쪽을 모두 瞰制할 수 있는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43번 국도의 서쪽에는 국사봉 보루가 위치해 있어 협공이 가능하며, 회암령이나 백석이고개 등으로 천보산맥을 넘어 내려오는 적들은 일차적으로 포천의 길목을 차단하는 고모루성의 보조적인 방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민들은 퇴뫼산을 옛성산 또는 이성산이라고도 하는데 고구려의 을지문덕장군이 쌓았다고 하는 말이 전한다. 그외에 퇴뫼산과 관련한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내에 석광(石壙)이 있는데 이 석광에 산소를 쓰면 석달 열흘 동안 가뭄이 계속되며 그 후에 천재가 태어나는데 그는 장차 왕이 된다는 것이다. 일찌기 무학대사가 이 석광의 자리를 잡아 놓았는데 지금은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

퇴뫼산에 관한 기록으로는 『동국여지지』 고적조에 보면 풍양폐현의 뒷산에 고성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1916년 간행된 『조선고적조사보고서』에는 이 성을 퇴계원북산성이라 이름붙였으며, 춘천가도에서도 바라다 보인다고 하였으나 직접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1942년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둘레 약 300칸(540m)이며, 외측사면의 높이는 약 1칸이며 자연석으로 쌓았다고 하였다.[16]

(2) 구조 및 현황

퇴뫼산성은 해발 370.2m인 퇴뫼산의 정상부와 남쪽의 363.6m봉을 연결하며 서쪽으로 산록을 감싸안으며 구축한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남서쪽을 장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둘레는 625m이다. 성벽은 전체적으로 훼손되어 면석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북서쪽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북벽은 북서쪽의 해발 350m 지점에서 시작되어 능선에 접한 외곽을 따라 축성하여 해발 370.2m봉을 지나 363.6m으로 연결되며 성 안쪽에는 곳곳에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5m 정도이며, 폭은 3m 정도이다. 성벽의 안쪽에는 능선상에 조성된 평탄지가 있고 많은 양의 와편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벽의 길이는 199m이다.

동벽은 퇴뫼산의 해발 363.6m봉을 감싸 안으며 남북향으로 약 30° 편동하며 능선을 따라 내려가고 있다. 성벽은 대략 70~80°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성벽의 안쪽에는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벽의 전체길이는 126m 정도이다.

남벽은 능선을 따라 내려온 성벽이 해발 340m 지점에서 서북쪽으로 회절하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약 60° 편서한 방향으로 대략 등고선을 따라 가며 축조되어 있어 고저차가 거의 없다. 성벽의 안쪽에는 폭 8m 정도의 회곽도가 조성되어 있으며, 곳곳에 30평 정도의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은 성내에서 가장

16)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朝鮮總督府.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총람』(上卷), p.166.
漢陽大學校, 1986, 『京畿道百濟文化遺蹟』, 漢陽大博物館叢書 3集, pp.16-18.

저지에 해당하고 현재에도 음습하고 넝쿨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는 저수지 등의 집수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지형을 따라 부분적으로 회절하며 자연스럽게 곡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발 350m 지점에서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산사면을 타고 올라가 북벽과 만나고 있다. 서벽의 전체길이는 300m 정도이다.

성벽중 치가 1개소 있다. 북서쪽의 능선 모서리 부분의 암반 위에 성의 기단석축부가 폭 3.5m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곳은 4각형의 치가 있던 곳으로 치의 규모는 대략 돌출부의 폭이 8m, 길이가 4m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성벽기단부를 구축한 성돌은 사각추형으로 잘 치석된 것으로 성돌의 크기는 50㎝×33㎝, 40㎝×34㎝, 51㎝×28㎝, 46㎝×32㎝이며, 현대 2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아랫단과 윗단은 10㎝정도 들여쌓기를 하였다. 치부분의 축성상태를 고려할 때 이것은 삼국시대에 시축된 것이라기보다는 후대에 개축된 부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내의 문지는 동문지와 서문지 두 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문지는 정상부에서 약 60m 정도 내려온 지점이며 이곳에 개구부가 있다. 서문지는 능선에서 동벽에서 서북쪽으로 50m 지점에 있으며 역시 개구부가 있다.

성내에는 정상부의 능선을 따라가며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평탄지가 몇 군데 있고, 남쪽사면의 완경사지에도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많은 양의 토기편과 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산성내에서는 많은 양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토기편은 대체로 장경호와 단경호, 그리고 각병, 주름무늬병 등이 있는데 특히 주름무늬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와는 선조문이 약 90% 정도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승문과 격자문도 발견된다. 이러한 유물출토 상황은 한강 유역의 아차산성이나 호암산성에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이들보다는 약간 시기적으로 늦다고 볼 때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를 중심연대로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도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퇴뫼산성은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성내에 많은 유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감안할 때 삼국시대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성격파악을 위한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채집유물

① 장경호 구연부편(사진178-4-1, 도면178-1-1)

회청색 경질의 장경호 구연부편이다. 직립하는 경부에서 거의 수평을 이루며 외반하다가 구단부에 이르러 돌대를 이루며 직립하여 이중구연을 이루고 끝부분이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경부에는 횡방향으로 구획하는 침선문이 돌아가고 그 사이에는 단선 파상문이 음각되어 있다. 복원구경 13㎝ 경부직경 10㎝, 기벽의 두께 0.7㎝이다.

② 단경호 구연부편(사진178-4-2, 도면178-1-2)

황갈색 연질의 단경호 구연부편이다. 동부에서 거의 구형에 가깝게 만곡하면서 경부에 이르러 외반하여 구단부는 V자형으로 가운데 부분이 솟하오르게 처리하였다. 태토에는 크기 2㎜ 정도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표면과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복원구경 12 ㎝,두께 0.6㎝이다.

③ 완형토기 구연부편(사진178-4-3, 도면178-1-3)

적갈색 연질의 완형토기 구연부편이다. 반구형의 동체부에서 약간 축약되며 경부를 이루고 짧게 외반하여 구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태토에는 운모를 포함한 미세한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복원구경 12㎝, 기벽의 두께는 0.4㎝이다.

④ 덧주름무늬병 구연부편

(사진178-4-4, 도면178-1-4)

회청색 경질의 덧주름무늬 소병의 구연부편이다. 경부와 동부의 일부만 남아있으며 표면에는 대략 2㎝ 간격으로 폭 0.3m 높이 0.2m 정도의 덧줄을 종방향으로 붙여놓았으며 표면에는 두텁게 자연유가 흘러있으나, 산화되어 황백색을 띠고 있다. 견부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있으며, 견부에서 거의 수평에 가깝게 급격히

줄어들어 경부를 이루고 있다.

경부 직경 4.8㎝, 동최대경 14㎝, 기벽의 두께 0.5㎝이다.

⑤ 덧주름무늬병 동부편(사진178-4-5, 도면178-1-5)

회청색 경질의 덧주름무늬 소병의 동부편이 2점이 있다. 한점은 표면에는 대략 1㎝ 간격으로 덧줄이 부착되어 있으며,다른 한점은 덧주름 무늬 사이에 길이 1.8㎝, 폭0.7㎝ 정도의 정교하게 나뭇잎의 잎맥을 새긴 시문구로 3개가 1조를 이루도록 찍어 놓았다.

두께 0.7㎝, 0.5㎝이다.

⑥ 토기저부편(사진178-4-6, 도면178-1-6)

회청색 경질의 호형토기 저부편이다. 평저의 바닥과 동부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성상태가 불량하여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바닥에서 동부의 결합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않아 접합흔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기벽의 안쪽에는 횡방향으로 조밀하게 굴곡이 형성되어 있다.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다.

추정저경은 9㎝이다.

⑦ 선조문수키와편(사진178-5-1, 도면178-2-7)

회청색 경질의 선조문 수키와편이다. 등에는 선조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포흔이 잘 남아 있는데 종방향으로 마포를 결합한 흔적이 관측된다. 측면에는 와도를 한번에 관통시켜 그어 매끈하게 정면하였으며, 절단부의 안쪽에는 와통에 부착된 돌대에 의한 기와분할 흔이 남아 있다.

두께는 1.5㎝이다.

⑧ 선조문수키와편(사진178-5-2, 도면178-2-8)

회갈색 경질의 선조문 수키와편이다. 등에는 선조문이 종방향에 거의 평행하게 밀집타날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포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측면에는 와도를 한번에 관통시켜 그어 매끈하게 정면이 되어 있으며 측면의 안쪽에는 분할돌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와의 내면에 찍혀있는 상태로 볼 때 분할돌대는 와통에 직경0.2㎝ 정도 굵기의 노끈 2줄을 종방향으로 연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와의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다.

두께는 1.4㎝이다.

⑨ 선조문 암키와편(사진178-5-3, 도면178-2-9)

적갈색 연질의 선조문 암키와편이다. 표면에는 거의 종방향으로 선조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비교적 조밀한 포흔이 찍혀 있고, 점토판의 결합부분이 관측된다. 측면은 역시 와도를 관통시켜 그어 깨끗하게 정면된 상태이며 측면 절단부에 접하여 와 분할선이 남아 있다. 와의 분할선은 직경 0.3㎝ 정도의 노끈 두줄을 종방향으로 연결하였는데 노끈 두줄의 사이가 약간 벌어진 상태이다.

두께는 2㎝이다.

⑩ 격자문암키와편(사진178-5-4, 도면178-3-10)

회백색 연질의 격자문 암키와편이다. 표면에는 1㎝ 정도 크기의 격자문이 중복되어 타날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포흔이 있다. 와의 선단부는 와도로 매끈하게 정면되었다.

두께는 1.5㎝이다.

⑪ 승문암키와편(사진178-5-5, 도면178-3-11)

회백색 연질의 승문암키와편이다. 표면에는 방향을 달리하며 직경 0.2㎝ 정도의 가는 노끈을 감은 고판으로 타날한 승문이 찍혀 있으며, 안쪽에는 비교적 조밀한 포흔이 있다.

두께는 1.6㎝이다.

⑫ 선조문암키와편(사진178-5-6, 도면178-3-12)

암갈색 경질의 선조문암키와편이다. 표면에는 길이 5㎝, 폭5㎝ 정도의 단판고판에 의한 선조문이 종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타날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올이 성긴 포흔이 있으며, 선단부쪽에는 폭 1㎝ 깊이 0.5m 정도의 홈이 파여 있는데 이것은 와통에 이러한 형태의 돌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측면은 와도로 한번에 관통시켜 그어서 잘라 절단부가 깨끗하며, 잘린 면의 안쪽에는 분할돌대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와의 모서리 부분은 마치 귀접이를 한 것처럼 세모꼴로 잘려져 있다.

두께는 1.9㎝이다.

⑬ 선조문암키와편(사진178-5-7, 도면178-3-13)

황갈색 연질의 선조문 암키와편이다. 표면에는 조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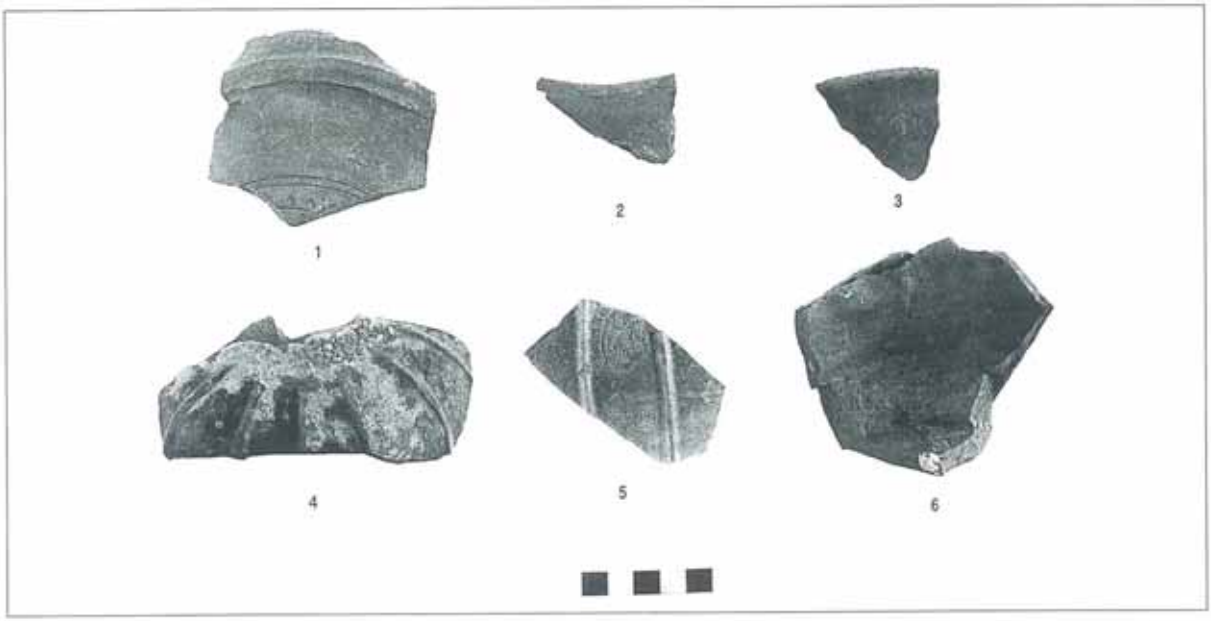


사진178-4 퇴뫼산성 출토유물

한 선조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올이 조밀한 포흔이 찍혀 있다. 남아 있는 상태를 볼 때 와통을 감았던 마포의 길이가 짧아 하단부까지 미치지 못하여 하단부의 약 1㎝ 정도는 와통의 표면상태가 그대로 찍혀 있다. 측면은 역시 와도를 관통시켜 그어 절단면이 매끈하게 정면되어 있으며, 분할돌대의 흔적은 관측되지 않는다.

두께는 2.2㎝이다.

⑭ 선조문수키와편(사진178-5-8, 도면178-3-14)

회백색 연질의 선조문수키와편이다. 등에는 횡방향으로 V자 형태가 찍히도록 새긴 중판고판에 의한 선조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포흔과 찰과흔이 있다. 태토에는 0.1㎝ 내외의 사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두께는 1.5㎝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朝鮮總督府, 1942.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卷), p.166, 1977.

漢陽大學校, 『京畿道百濟文化遺蹟』, 漢陽大博物館叢書 3集, pp.16-18,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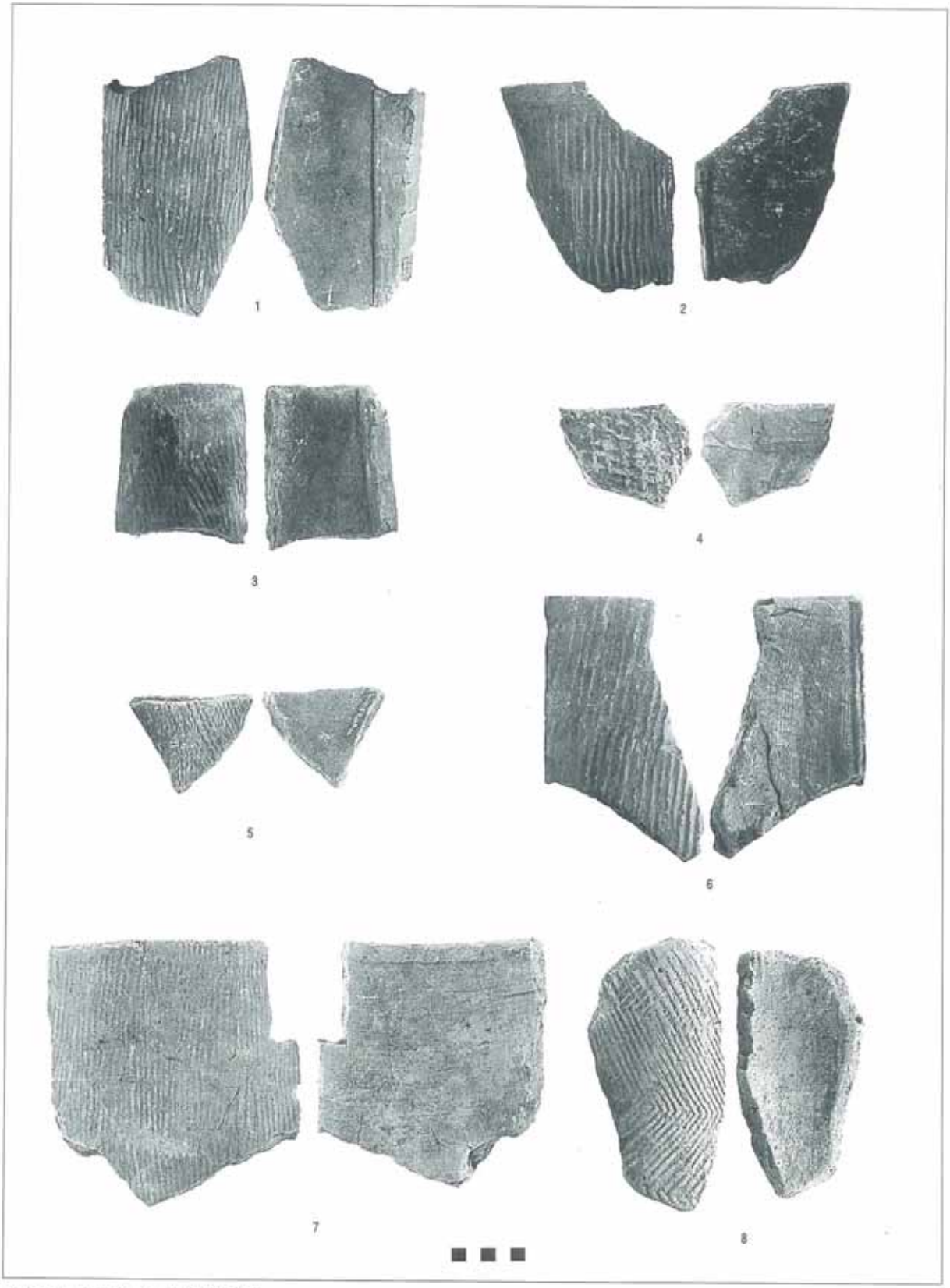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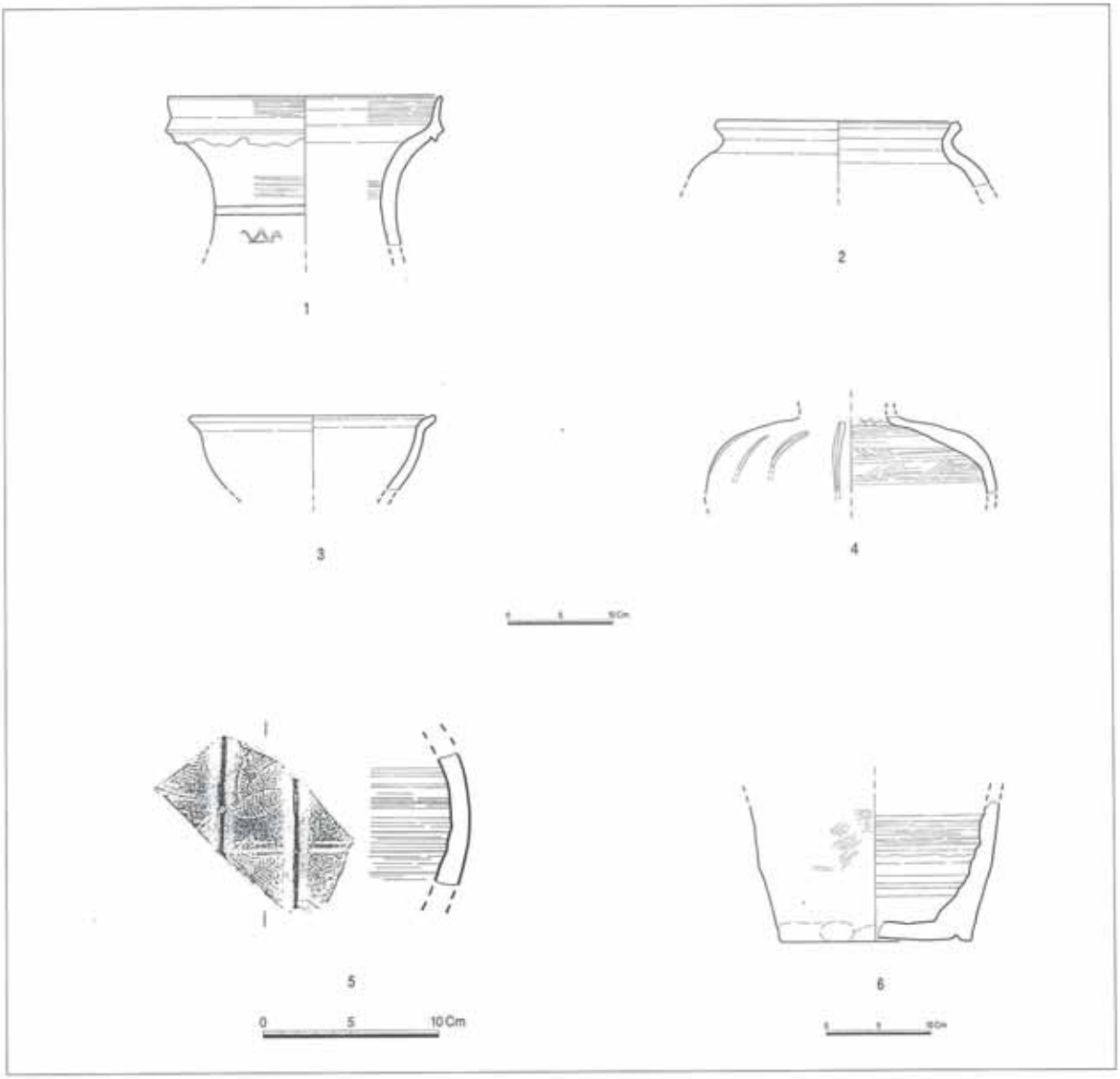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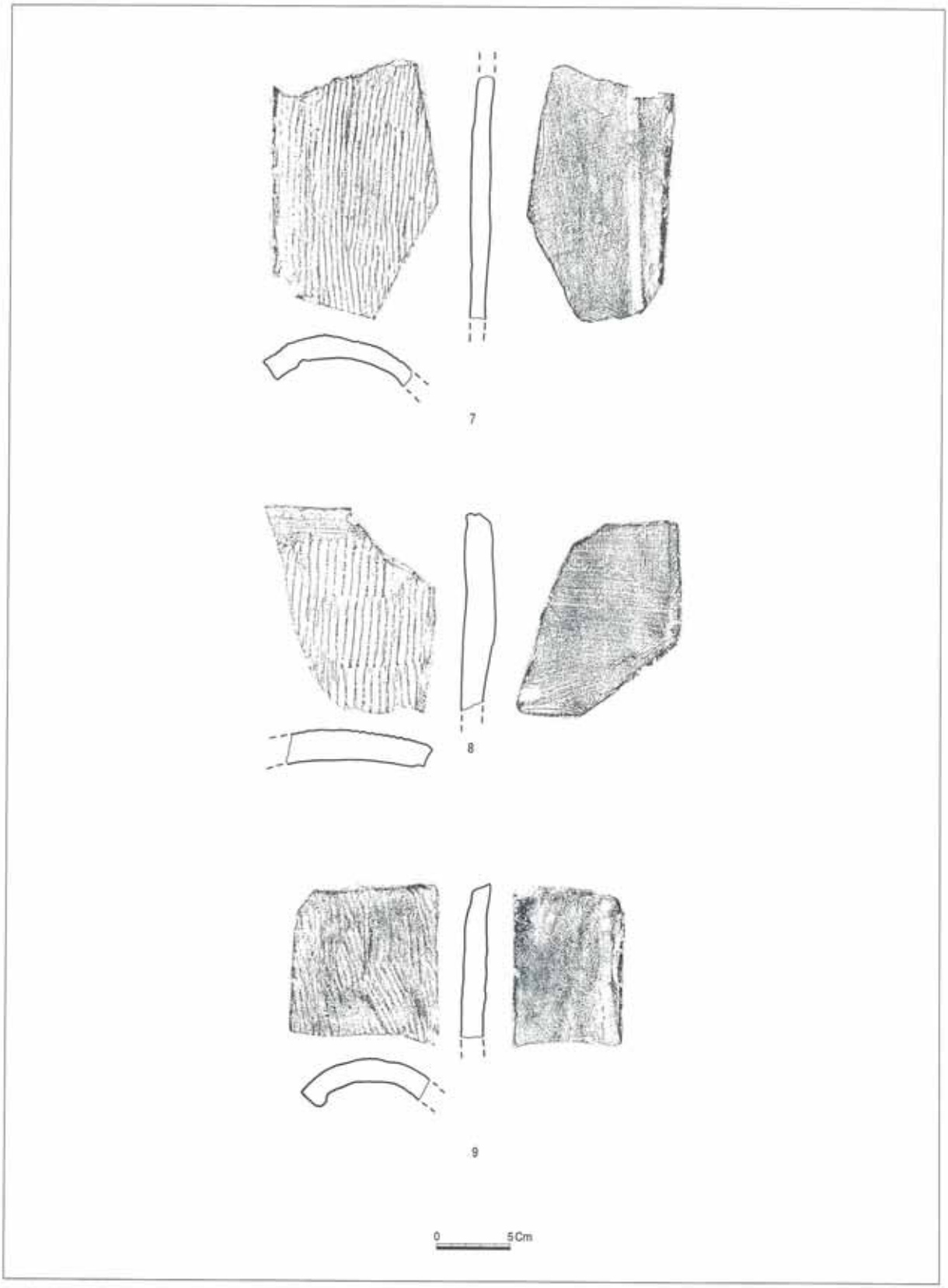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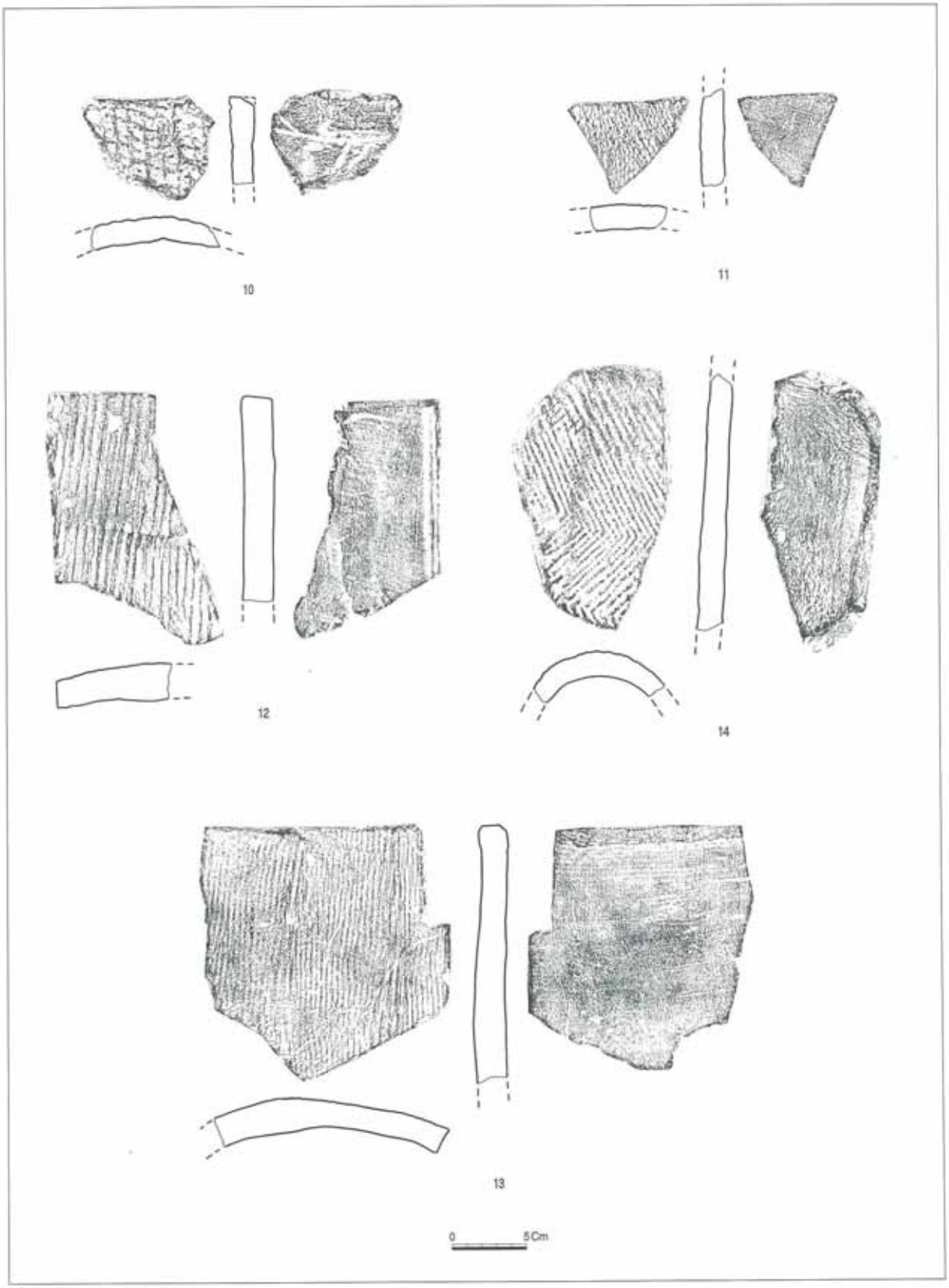
사진178-5 퇴뫼산성 출토기와편(앞 · 뒷면)



도면178-1 퇴뫼산성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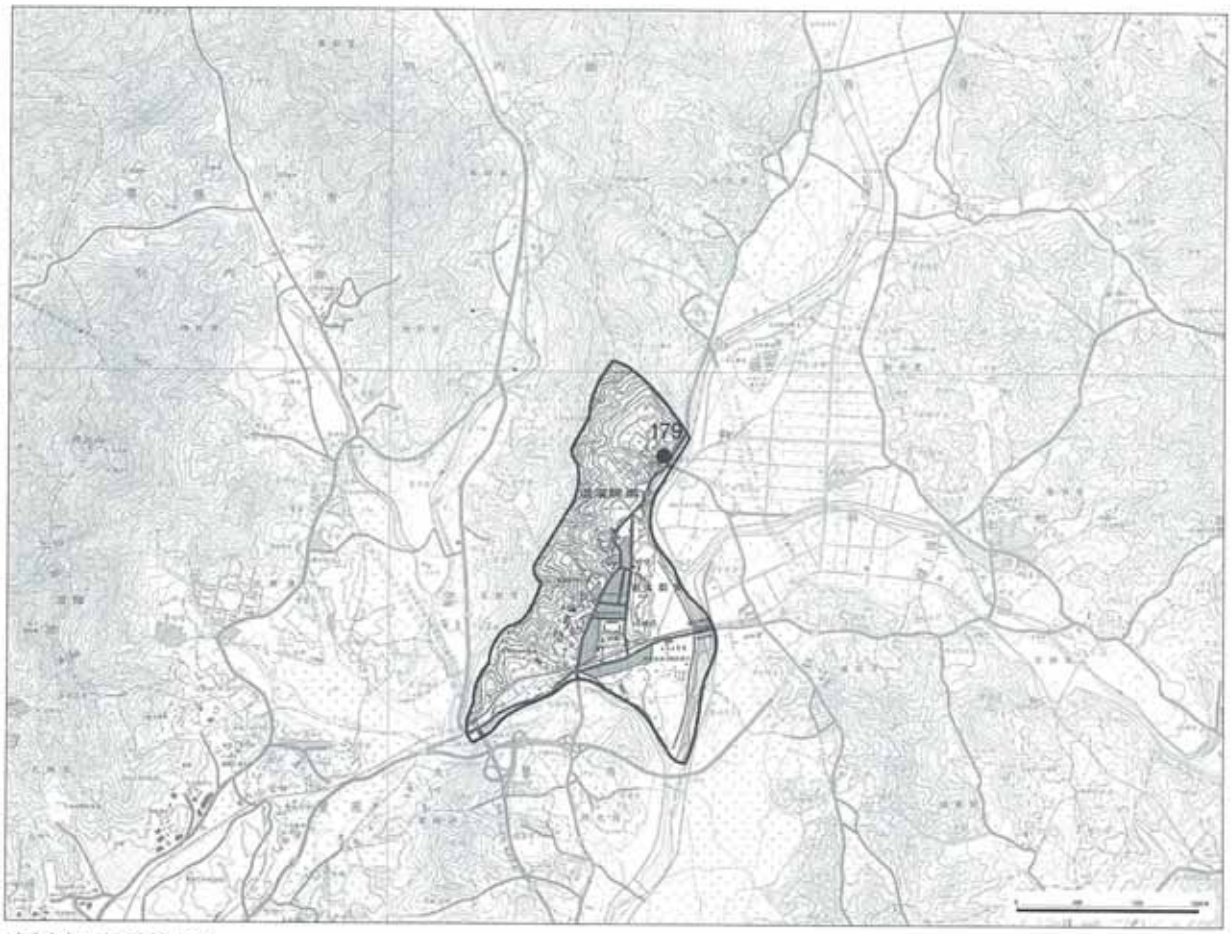


도면178-2 퇴뫼산성 출토유물



도면178-3 퇴뫼산성 출토유물

退溪院面



퇴계원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179. 南楊州 退溪院里 느티나무



지도179 남양주 퇴계원리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37)



사진179 남양주 퇴계원리 느티나무

□소재지 : 퇴계원면 퇴계원리 6-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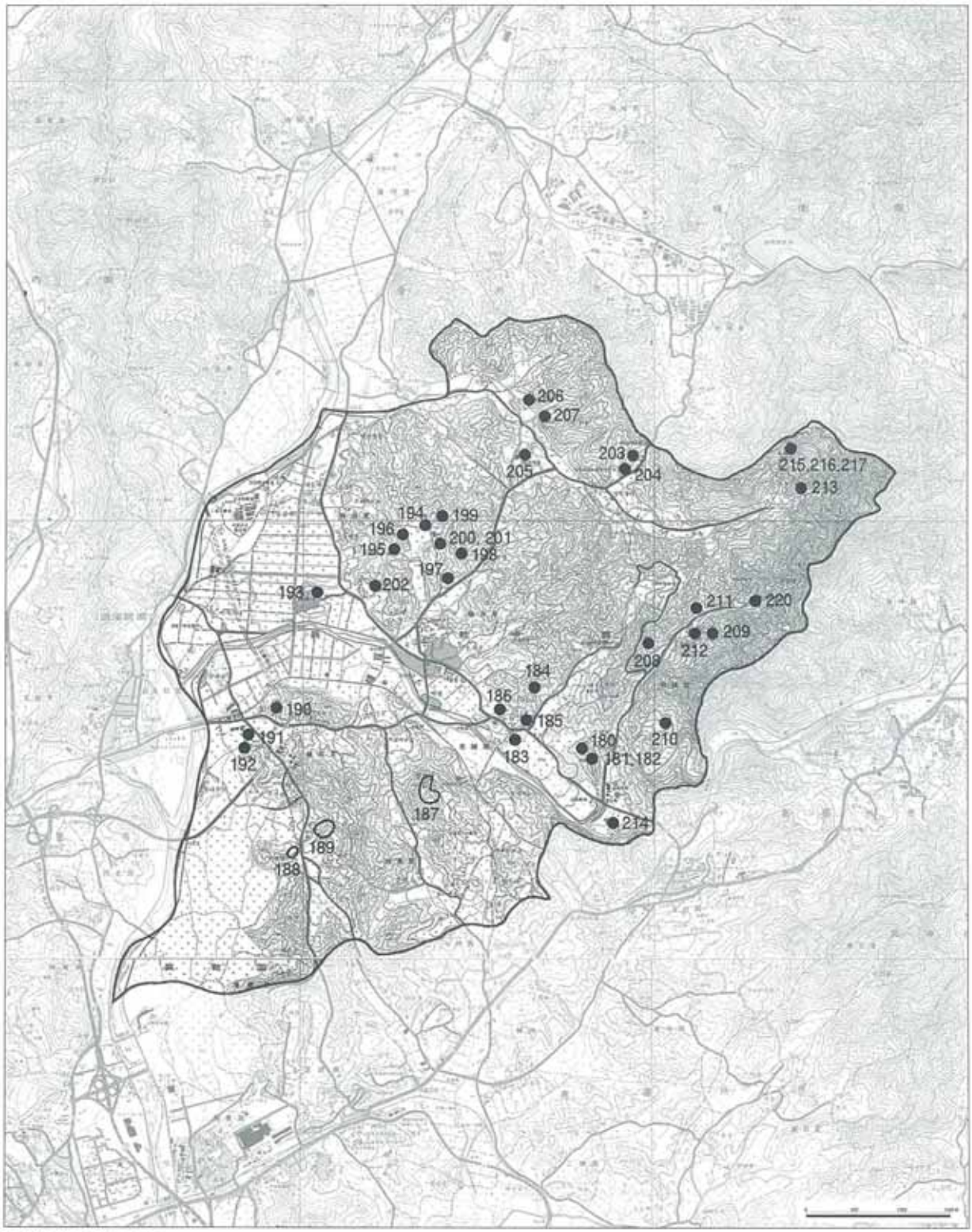
조선중엽 퇴계 이황이 한양을 다녀오다 쉬었던 곳이 퇴계원이고 정확히 한양에서 백리되는 곳을 백리 백리 하다 뱅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뱅이마을의 정자목인 이 느티나무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뱅이삼거리에 서있다.

주간높이 2m 부위에서 굵게 두 갈래로 갈라져 올라간 줄기가 다시 2m 부위에서 서로 만나 붙은 형상으로 도로가 생기기 전 수목의 자리가 가옥의 마당이어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놓인 평상에 누워 창문너머로 TV를 보곤 했다고 한다. 도로쪽으로의 줄기하나는 썩어서 베어내 전체 모습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상단이 꺼진 원정형의 모습이며 일부 끝가지가 고사된 수세가 약한 상태이다.

수령 400년, 수고 9m, 흉고둘레 2.4m, 수관폭 7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41(1982. 10. 15)

眞乾面



진건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180. 思陵



지도180 사릉 위치도(성동 048)



사진180-1 사릉(단종비 정순왕후 송씨의 능이다)



사진180-2 사릉

□소재지 : 진건면 사릉리 산65-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사릉은 조선왕조 제6대 端宗妃 定順王后 宋氏의 능이다. 왕후는 端宗 2年 正月 15세에 王妃로 册封되었으나, 이듬해 首陽大君이 왕위를 찬탈한 후 단종을 上王으로 모시면서 懿德大妃로 봉해졌다. 1456년 6월 상왕복위사건이 일어나 성삼문 · 박팽년 등 집현전 학자출신과 성승 · 유응부 등 무신들이 사형당하고 이듬해 端宗도 魯山君으로 降奉되면서 영월로 유배될 때, 왕후도 夫人으로 강봉되었다. 生父 宋玹壽는 逆謀罪로 地方官妃로 永屬케 되었다.

이후 왕후는 성 안에 살지 않고 동문 밖에서 寧越의 단종이 묻힌 莊陵을 바라보기를 所願하여 數間草室을 지어 거처하면서 소복과 素饌으로 평생을 마쳤다. 왕후는 後嗣가 없어 端宗의 누나 敬惠公主 鄭氏家 묘역에 묻혔다가, 1698년(숙종 24) 단종의 복위와 함께 鄭氏家에서 位牌도 모시게 하였다. 중종 16년(1521) 왕후가 82세의 일기로 승하하자 중종이 大君夫人의 禮로 葬禮케 하였고 이후 숙종 24년 端宗復位와 더불어 定順王后로 追上하여 宗廟에 모셔졌고 墓를 높여 思陵이라 하였다.

사릉은 능내의 나지막한 구릉에 곡장을 갖추어 南西向하여 있고 우측 구릉에는 해주정씨의 묘역이 다수 안장되어 있다. 石物制度는 대군부인의 예로 장사지냈기 때문에 莊陵과 같이 병풍석 · 欄干石 · 武人石이 생략된 봉분 앞에 상석 · 장명등이 놓여 있고, 망주석 · 문인석 · 석마를 한쌍씩 배치하여 숙종대의 양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후에 능으로 추봉되었기에 사악한 것을 피한다는 뜻의 석양과 동물의 왕인 석호가 각 한쌍씩만 봉분 주위에 배치되어 있다. 석물 중 상석은 백색화강암의 초대형으로 4개의 고석에는 鬼面이 양각되어 있다. 크기는 높이 38㎝ · 너비 254㎝ · 두께 168㎝이다. 문인석은 높이 164㎝의 아담한 크기로 머리부분이 60㎝이며, 석마와 마찬가지로 돌이끼가 심

하게 끼어 있다. 4각의 장명등은 높이 210㎝로 간주석에 화창이 4개 있으며 사모지붕 중앙에 원통보주 장식을 하였다. 현재 능 주위가 송림에 둘러져 있는 단아한 모습이며 규모는 146,529㎡(약 44,325평)이다.[17]

능표비는 능 입구 좌측에 西向하여 정면 1칸, 측면 1칸의 비각내에 있다. 능표비의 前面에는 篆書로 "朝鮮國 定順王后思陵"이라 하였고, 後面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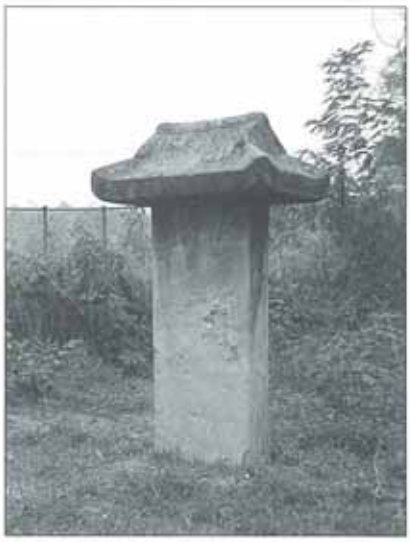
懿德端良齋敬定順王后宋氏 端宗大王妃正統五年庚申誕生景奉五年甲戌册封王妃乙亥尊爲懿德王大妃天順元年丁丑降爲夫人正德十六年辛巳六月四日昇遐葬于楊州南群場里癸坐之原壽八十二 肅宗戊寅復位上謚崇禎紀元後一百四十四年辛卯十月 日立

이라 하였다. 건립연대는 영조 47년(1771)이며, 크기는 높이 512㎝ · 폭 62.5㎝ · 넓이 35㎝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사적 제209호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한국문원, 『왕릉』, 1995.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사진181-1 정효준 묘


사진181-2 정효준 신도비(옥개석의 규모에 비해 비신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181. 鄭孝俊 墓 및 神道碑

□소재지 : 진건면 사릉리 산65-1 · 10(지도18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정효준(1577~166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海州, 자는 孝于, 호는 樂晩, 시호는 齊順이다. 돈녕부 판관 欽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詩名이 높았으나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여 늦게서야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613년 대북파에 의하여 인목대비의 폐모론이 대두되었을 때 이에 반대하다가 유배당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효릉참봉, 자여도찰방, 돈녕부도정 등을 지냈고, 1656년 80세로 海豊君에 봉해지면서 동지돈녕부사가 되었다.

묘는 사릉 내 해평부원군 정미수 묘 좌측 약간 윗쪽에 위치하여 西向하고 있으며, 貞夫人 全義 李氏와의 합장묘이다. 1980년 3월 개사하여 잘 정비되어 있고,

17) 남양주문화원에서는 사릉에 있는 소나무 2그루를 1983년 4월 5일 영월 단종제 행사에 참석하여 단종이 묻힌 장능에 옮겨심어 두 분의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봉분은 높이 54㎝의 호석을 원형으로 둘렀는데, 호석 앞에는 무궁화 문양을 새겨 넣었다. 묘 앞에 있는 묘비의 비좌는 복련의 장식에 구름무늬를 사방에 조각하였고, 월두형의 비신은 검게 탈색된 채 조금 마모되어 있다.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3열로 "資憲大夫知敦寧府使海豊君鄭公孝俊之墓 貞夫人全義李氏祔左"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4㎝ · 너비 103㎝ · 두께 65㎝, 비신 높이 129㎝ · 너비上 59㎝ · 下 56㎝ · 두께 19㎝이다. 비 앞에는 혼유석 · 장대석 · 상석 · 6각형의 복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향로석과, 우측에 새로 만든 사각형 향로석이 있다. 상석은 2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으며, 향로석 좌우에는 꽃무늬를 장식한 높이 187㎝의 망주석이 있다. 그 앞의 문인석은 높이 201㎝로 균형이 있고 조각이 우수한 편인데, 幞頭의 머리부분이 70㎝이며, 양 눈은 눈꼬리를 치켜뜬 채 뜨고 있다. 또 요대 부분 뒤쪽에는 꽃무늬를 장식하였다.

神道碑는 사릉내 묘역과는 동떨어진 곳에 南西向하여 해평부원군 정미수의 신도비 바로 옆에 있다. 총 높이 239㎝로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전후면 상단에 篆書로 "知敦寧府使海豊君鄭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朝鮮國資憲大夫知敦寧府使海豊君鄭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崇祿大夫 判中樞府事兼 藝文館提學 姜栢年이 짓고, 嘉善大夫 禮曹參判兼 五衛都摠府副摠官 吳深이 쓰고, 輔國崇祿大夫行 判敦寧府事 李正英이 전액을 하였다. 건립연대는 1678년(숙종 4)년이다. 비문을 전액한 이정영은 小篆의 玉筋篆으로 唐 李陽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도비의 전서는 조선시대 비갈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것으로 남양주에 남아있는 금석문에서는 김상용부터 김광현, 이정영, 김수증, 김수항에게로 그 전통이 이어졌다. 비문의 내용은 집안내력, 벼슬이 늦은 이유, 인목대비 폐모론의 반대, 자식에 대한 이야기 등이 실려있다. 비신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군데군데 탄흔 자국이 있다. 옥개석은 처마면석 두께 13㎝로 두툼하며 거의 '一' 자에 가까우나 끝을 약간 치켜들어 반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신에 비해 옥개석이 너무 커 균형이 안맞는다.

규모는 비신 높이 185㎝ · 너비 84.5㎝ · 두께 25㎝, 옥개석 높이 54㎝ · 너비 145㎝ · 두께 87㎝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 참고문헌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I』, 1998.

182. 鄭眉壽 墓 및 神道碑



사진182-1 정미수 묘



사진182-2 정미수 신도비(左龍이 입을 다문 반면, 右龍은 입을 벌리고 있어 조각상의 차이가 있다)



사진182-3 정미수 묘표

□소재지 : 진건면 사릉리 산65-1 · 10(지도18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정미수(1456~1512)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海州, 자는 耆叟, 호는 愚齋, 시호는 昭平이다. 父는 悰이고 母는 문종의 따님인 敬惠公主이다. 성종의 총애를 입어 돈녕부직장, 형조정랑, 인천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인천부사 시절에 성품이 화평하고 조용하여 정사가 공평하였다. 이후 도승지, 공조참판을 역임하였고, 연산군때 판의금부사로서 옥사를 치룰 때는 눈물을 흘려 불쌍한 사람을 많이 살렸다.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해평부원군이 되었다.

묘는 사능의 약간 아래 좌측에 위치하여 西向하고 있으며, 貞敬夫人 全義 李氏와의 합장묘이다. 1980년 3월 개사하여 잘 정비되어 있다. 봉분 하단에는 높이 50㎝ · 너비 60㎝의 호석을 원형으로 둘렀으며 각 면에는 무궁화 문양이 있다. 봉분 앞의 묘표는 전후 6엽, 좌우 2엽의 복련을 장식하고 사방에 꽃문양을 새긴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춘 형태이다. 비신의 前面에는 4열로 "秉忠奮義靖國功臣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判義禁府事海平府院君諡昭平鄭公之墓 貞敬夫人全義李氏之墓"라 써 있다. 이수의 龍문양은 발가락이 4개인 용이 여의주를 가운데에 두고 용머리가 비 중앙에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23㎝ · 너비 82㎝ · 두께 50㎝, 비신 높이 83.5㎝ · 너비 45㎝ · 두께 15㎝, 이수 높이 35㎝ · 너비 56㎝ · 두께 20㎝이다. 묘 앞에는 혼유석 · 장대석 · 상석 · 6각형의 향로석이 있고, 좌측에 6각형이나 약간 작은 향로석이 있고, 향로석 좌우에 높이 190㎝의 망주석과 문인석이 있다. 특히 문인석은 해주정씨 묘역중에서 높이 216㎝로 가장 크며 눈을 뜨고 있다. 향로석 앞에는 높이 178㎝의 장명등이 있는데, 사각형의 받침대에 팔작지붕형 모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 중간에 사각형의 화창을 4개 표시하였으며, 화창 밑으로 구름문양의 꽃무늬를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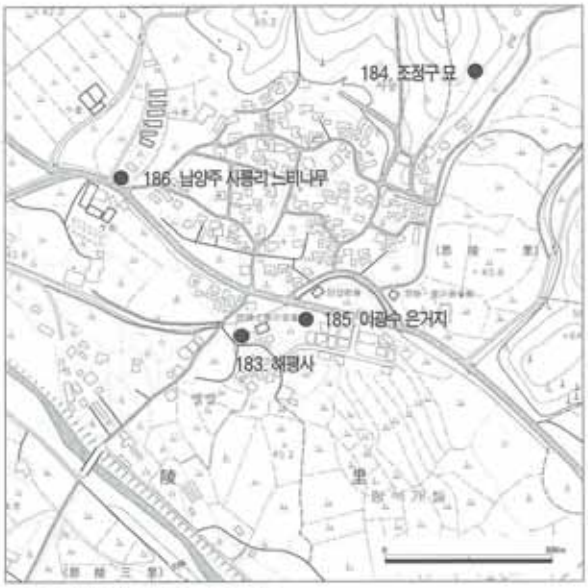
神道碑는 총 높이 223㎝로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춘 통비형태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前面 상단에 篆書로 "昭平鄭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秉忠奮義靖國功臣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右贊成兼領經筵事判義禁府事海平府院君贈諡昭平鄭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표면 결락으로 알아보기 힘드나 秉忠奮義靖國功臣 崇祿大夫 漢城府判尹 晋川君 姜渾이 짓고, 禮曹正郎 兼承文院敎理 金希壽가 글을 썼다. 내용은 공의 집안내력과 관직 관계, 법 조문 해석시의 공정성 등을 담고 있다. 건립연대는 1513년(중종 8)이다. 이수는 발톱이 4개인 두 마리 용이 몸을 'ㄹ'자로 꼬고 서로 앞발을 치켜들어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前面의 이수 조각은 左龍이 입을 다문 반면, 右龍은 입을 벌리고 있어 조각상의 차이가 있다.

규모는 비신 높이 153㎝ · 너비 88㎝ · 두께 24.5㎝, 이수 높이 66㎝ · 너비 97㎝ · 두께 34㎝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183. 海平祠



지도183 해평사 위치도(성동 048)



사진183 해평사

□소재지 : 진건면 사릉리 149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묘
□내 용

해평사는 鄭眉壽와 鄭孝俊을 모신 사당이다. 진건면 사릉리 해주정씨 대종가에 있는 것으로 매년 음력 4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정미수(1456~1512)는 조선 중종 때의 공신으로 자는 耆叟, 호는 愚齋이며 본관은 海州이고 형조판서 悰의 아들이다. 문종의 사위로 수양대군이 즉위하자 양근으로 量移되었다. 1476년(성종 7) 中部參奉, 이듬해엔 宣傳官을 지내고 1504년(연산군 10) 參贊 겸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1506년 右贊成으로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靖國功臣 3등에 海平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이듬해 朴耕의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으나 곧 방면되었다. 문장에 능했으며 시호는 昭平이다.

鄭孝俊(1577~166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孝于, 호는 樂晩이며 본관은 海州이고 敦寧府判官 欽의 아들이다. 인조반정 후에 인종의 묘소인 효릉참봉을 거쳐 1634년(인조 12) 왕실의 제사용 가축을 기르는 관청인 典牲暑奉事가 되고 뒤에 自如道察訪을 거쳐 1652년(효종 3) 돈녕부도정에 올랐다. 1656년 海豊君에 봉해졌으며 동지돈녕부사가 되었다. 그 후 아들 5형제가 십 년 사이에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등용되었으므로 좌의정 김수항의 주청으로 1663년(현종 4) 판돈녕부사에 승진되었다. 시호는 齊順이다.

사당은 종가 바로 옆에 南向하여 맞배지붕의 솟을대문에 적벽돌 담장을 둘렀는데, 녹유기와를 올렸다. 그 안에 정면 3칸, 측면 1칸반의 팔작지붕 사당인데 역시 녹유기와를 올렸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184. 趙鼎九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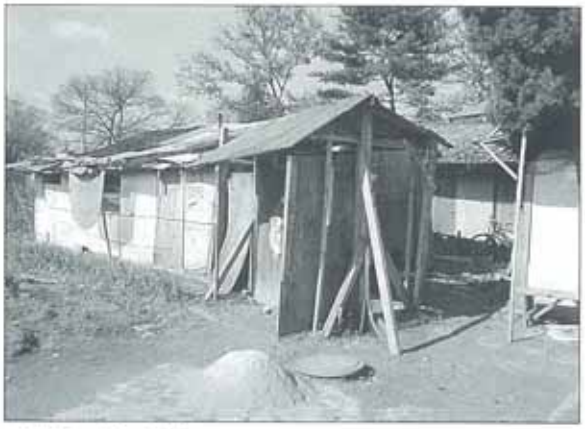
사진184 조정구 묘

□소재지 : 진건면 사릉리 산47(지도183 참조)
□시 대 : 근대
□종 류 : 墓
□내 용

조정구(1862~1926)는 조선말기에서 대한제국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豊壤, 초명은 晳九, 자는 米卿, 호는 月坡居士이다. 판서 鳳夏의 손자로, 진사 東奭의 아들이며 興宣大院君의 둘째 사위이다. 母는 達城 徐氏로 공조참판 書淳의 딸이다. 그는 풍양조씨 세도가문 출신으로 1880년(고종 17)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정원동부승지, 홍문관부제학,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규장각직제학, 예조참판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896년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된 뒤 궁내부협판, 署理大臣事務 등 주로 궁내부의 요직을 지내며 왕실의 의례를 담당하였다. 그밖에 平式院總裁, 의정부찬정, 판돈녕부사, 耆老所 秘書長 등도 역임하였다. 한일합방 후 전의정부찬정이라는 명의로 일본정부가 주는 恩賜金 및 남작의 칭호를 거절하고 合邦詔書와 告諭文을 찢었다. 합방에 항의하여 두 차례나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가족들이 구원하여 실패에 그쳤다. 그 뒤 양주 思陵里에서 미망인이라 자처하고 은둔하였다. 1917년 스스로 월파거사라 칭하며 금강산 般若菴에 은거 중 1919년 고종이 붕어하자 상경, 因山을 치르고 중국 河南省으로 망명하였다. 7년 동안의 유랑 도중 둘째아들 南益의 사망소식을 듣고 귀국, 奉先寺에 기거하다가 사망했다.

묘는 사릉 1리 석화촌이라는 음식점 내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고 있으며 정경부인 완산이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하단에 높이 50㎝ · 너비 74㎝의 호석 13매를 두르고, 각 면마다 무궁화 모양을 장식하였다. 그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장대석 · 4각향로석 등의 석물이 있다. 묘비는 봉분 좌측에 위치하여 민무늬 비좌에 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형이다. 비에는 2열로 "菊農 豊壤趙公鼎九之墓 贈貞敬夫人完山李氏祔左"라 써 있다. 이 비는 1984년 5월 세워진 것으로 외손 국회의원 李鍾贊이 짓고, 趙守鎬가 썼다. 크기는 비좌 높이 26㎝ · 너비 104㎝ · 두께 76㎝, 비신 높이 174㎝ · 너비 67㎝ · 두께 36.5㎝, 옥개석 높이 24㎝ · 너비 117㎝ · 두께 77.5㎝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185. 李光洙 隱居址


사진185 이광수 은거지

□소재지 : 진건면 사릉리 520-2(지도183 참조)
□시 대 : 근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이광수 은거지는 진건면 사릉리에 위치하여 춘원 이광수가 1944년부터 잠시 머물렀다는 곳으로 여기에서 춘원은 『돌배개』라는 책을 출판하였으며, 봉선사 조실로 있던 8촌 형 李耘虛의 도움으로 봉선사에 머물기도 하였으며, 광동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186. 南楊州 思陵里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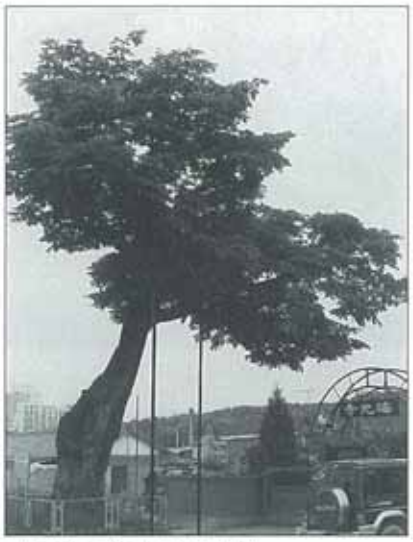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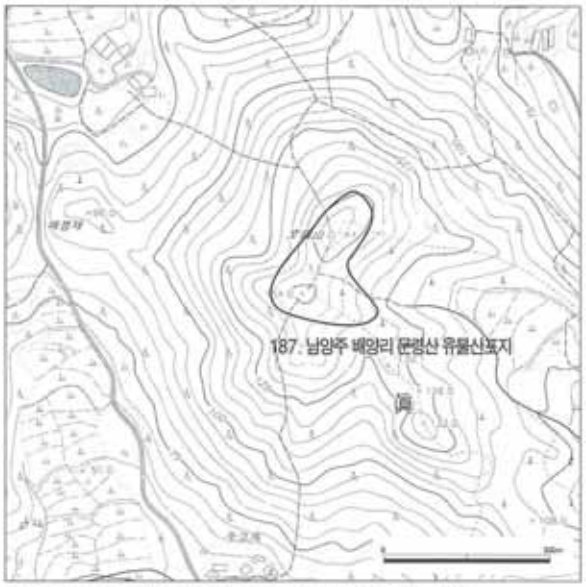
사진186 남양주 사릉리 느티나무

□소재지 : 진건면 사릉리 250(지도183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사릉마을에서는 도로변에 위치한 이 나무에 매년 한식이 되면 개를 잡아 무사고를 기원하는 노우제를 지내고 있다. 지금은 도로로 변했지만 원래 주위가 논과 밭이었고 주변으로 축동(울타리용) 전나무가 많았는데 진건면에서 가장 먼저 전기를 끌어들이는 비용을 전나무를 팔아 충당하면서 위치상 떨어져 있던 이 느티나무만 남았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나무의 줄기가 잘려나가 한방향의 줄기만 남아 있어 전체모습은 한쪽으로 치우쳐 기운 형상으로 주간높이 6m 부위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잎과 가지가 발달하였다. 단오절에 그네를 매어타기도 했고 주위가 도로로 변하기 전에는 마을사람들의 공동쉼터였다고 하는 이 느티나무를 만나려면 사적 제209호로 지정된 조선조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의 묘소인 思陵으로 유명한 사릉마을을 찾아오면 된다.

수령 300년, 수고 12m, 흉고둘레 4.3m, 수관폭 7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47(1982. 10. 15)

187. 南楊州 培養里 文靈山 遺物散布地



지도187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위치도(성동 048)

□소재지 : 진건면 배양리 산73-8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1) 위치와 현황

배양리 배양저수리를 지나 약 100m 가량 올라가면 공동묘지에 이른다. 이 공동묘지 사이의 길을 따라 해발 156m의 문령상 정성부에 이르면 약간 편평한 대지가 나타난다. 유적은 이 산정부의 남사면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 산포범위는 좁으나 입지 상태로 보아 문령산 정상부의 편평한 대지 전체에 유적이 부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공동묘지의 확장이 이루어지면 유적 파괴가 우



사진187-1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원경



사진187-2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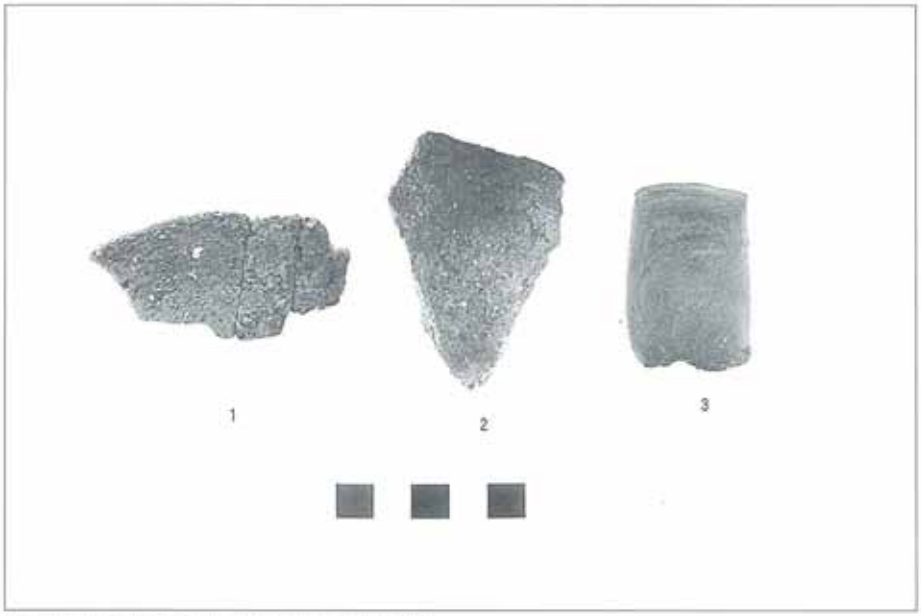


사진187-3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려되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망된다.

(2) 채집유물

① 두형토기 구연부편(사진187-3-1, 도면187-1)

나팔형태의 두형토기 구연부편이다. 색조는 암갈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점토에 다량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 0.5㎝이다.

② 무문토기 동체편(사진187-3-2, 도면187-2)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외면은 암갈색, 내면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질 점토에 약간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비교적 단단하게 소성되어 있으며 내면에 물손질에 의한 정면 흔적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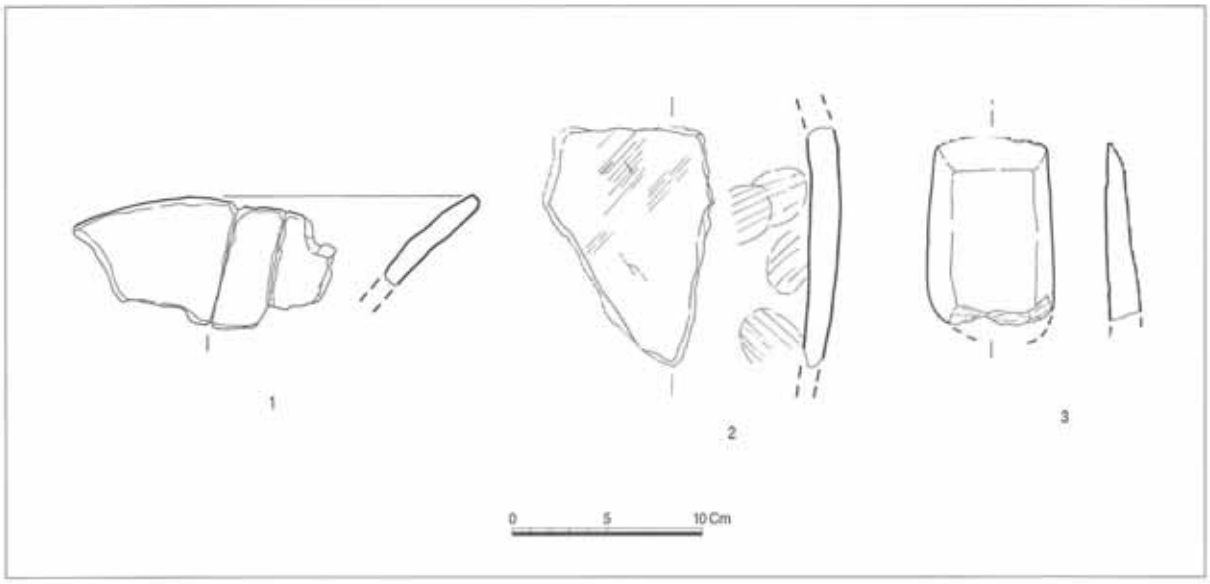
기벽두께 0.8㎝이다.

③ 마제석착(사진187-3-3, 도면187-3)

횡방향으로 결이 나 있는 강돌을 결을 따라 얇게 떼어내어 전면적으로 마연을 시도한 소형의 석착이다. 날은 한쪽에서 갈려 있으며 밑면은 약간 들려 갈렸다. 등 부분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길이 4.6㎝, 폭 3.3㎝, 두께 0.9㎝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도면187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188. 南楊州 眞官里 遺物散布地1



지도188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위치도(성동 047)

□소재지 : 진건면 진관리 302-3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사진188-1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원경



사진188-2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전경

□내 용

(1) 위치와 현황

391번 지방도에서 진관리 진관주유소 서편의 해발 60m가량 되는 야트막한 구릉 정상부일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산포지가 형성되어 있는 구릉은 왕숙천을 향하여 길게 뻗어나와 있는데 도로로 절개되어 있을 따름이지 원래는 동편의 문령산까지 이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릉의 남쪽편에는 아랫말이라 불리는 마을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채집된 유물은 약간의 무문토기편과 홈돌로 추정되는 석기 1점이다. 유물의 상태로 보아 유적의 상당 부분은 경작으로 인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유적이 부존한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향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다.

(2) 채집유물

① 무문토기 저부편(사진188-3-2, 도면188-2)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색조는 황갈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점토에 다량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편이 작아 저경의 측정은 불가능하다. 바닥두께 0.6cm이다.

② 무문토기 동체편(사진188-3-1, 도면188-1)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색조는 황갈색을 띠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검게 그을린 부분이 관찰된다. 태토는 점토에 다량의 세석립과 약간의 석영질의 굵은 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 0.7cm이다.

③ 홈돌(사진188-3-3, 도면188-3)

납작한 반월형태의 강돌 상면을 사용한 홈돌이다. 등면 한쪽에 직경 약 3cm 가량의 홈이 패여 있다. 길이 13.5cm, 폭 7.5cm, 두께 3.0cm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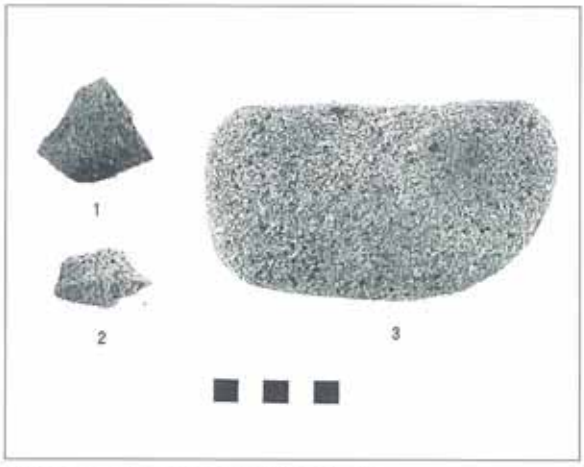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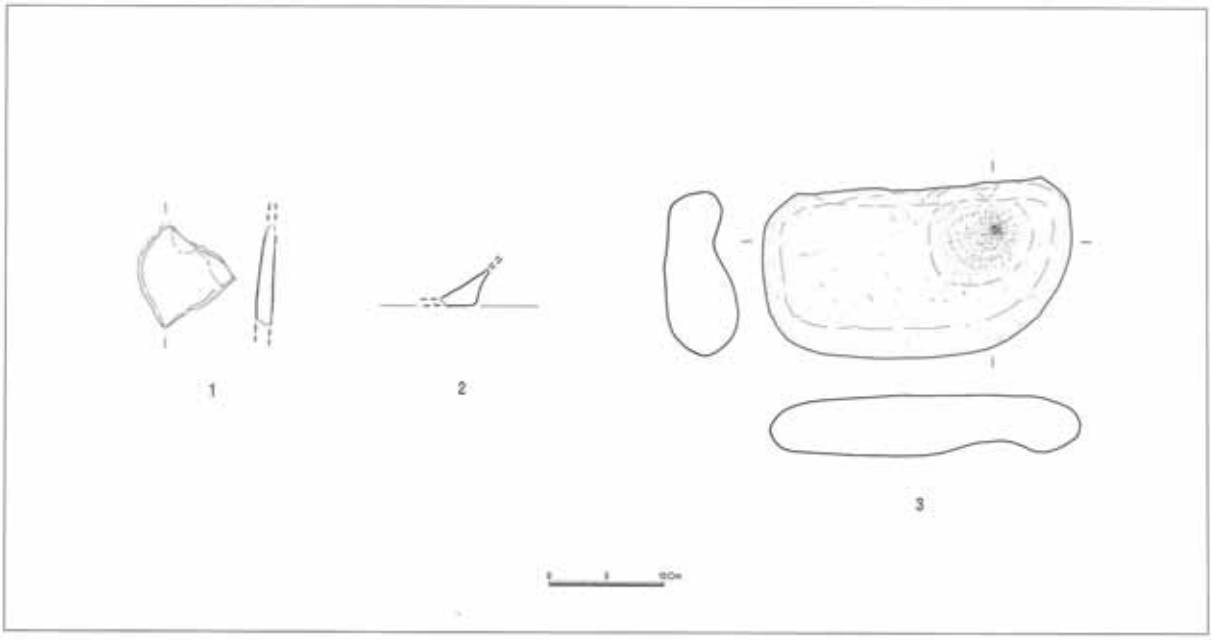


사진188-3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도면188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189. 南楊州 眞官里 遺物散布地2



사진189-1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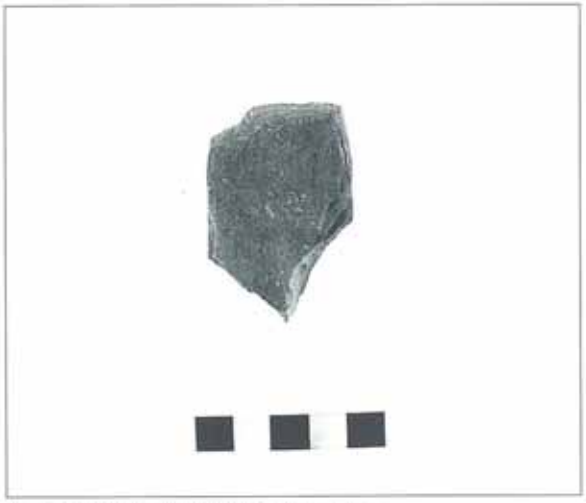


사진189-2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소재지 : 진건면 진관리 산118-1(지도188 참조)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1) 위치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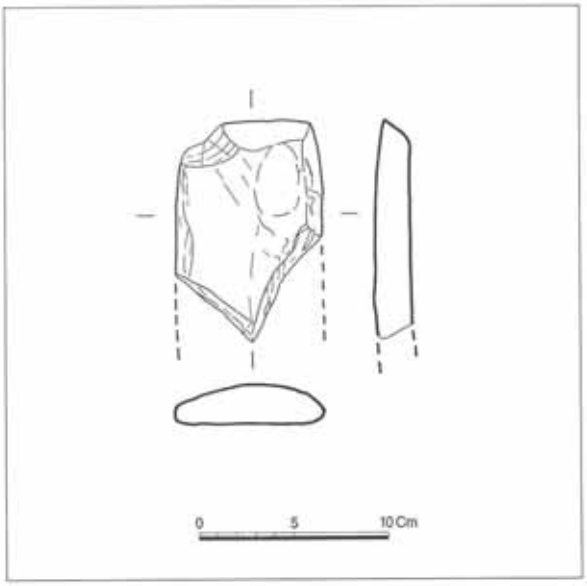
진관리 유물산포지1과 동일한 능선상에 위치하는데 지금은 도로로 인해 분리되어 있으나 원래는 동일유적 형성범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채집된 유물은 반파상태의 마제석착 1점이다. 진관리 유물산포지1과 마찬가지로 유적 부존의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적절한 보존대책이 요구된다.

(2) 채집유물

① 마제석착(사진189-2, 도면189)

사암제 마제석착이다. 1/2가량 결실된 상태이며 날은 한쪽면을 갈아 만들어 졌고 배면에서는 약간 들려서 갈려있다. 측면에 최초의 성형시 타격에 의해 형성된 박리흔이 관찰되고 있다. 등면은 깨진 면 상태로 남아 있으나 배면과 측면은 마연되어 있다. 현재길이 5.7㎝, 폭 3.9㎝, 두께 1.1㎝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도면189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190. 忠穆祠



지도190 충목사 위치도(성동 047)



사진190 충목사

□소재지 : 진건면 진관리 산53
□시 대 : 현대
□종 류 : 사묘
□내 용

충목사는 세조 때 사육신의 한 사람인 兪應孚의 사당으로 진건면 진관리에 위치하여 南西向하고 있다.

유응부(?~1456)는 단종을 위하여 死節한 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본관은 川寧, 자는 信之, 호는 碧梁이다. 그는 키가 남보다 크고 얼굴 모양은 엄숙하였으며, 씩씩하고 용감하여 활을 잘 쏘니 세종과 문종이 모두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일찍이 무과에 올랐으며, 1455년 세조 즉위 후 이듬해 성삼문 · 박팽년 등과 단종복위를 도모하여 거사하고자 하였으나 동모자 중의 한 사람인 김질의 배반으로 실패하였다. 사후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忠穆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방풍판을 갖추고 있으며, 1998년 5월 건립되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7, 1994.

191. 孝簡祠



지도191 효간사 위치도(성동 047)

□소재지 : 진건면 진관리 414-3
□시 대 : 현대
□종 류 : 사묘
□내 용



사진191 효간사

효간사는 鄭世虎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진건면 진관리에 위치하여 南西向하고 있다.

정세호(1486~1563)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河東, 자는 子仁, 호는 西溪이다. 鄭麟趾의 손자로, 호군 尙祖의 아들이자 선조의 외할아버지이다. 1519년(중종 1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1559년 지중추부사에 오르고 守陵의 공로가 있다 하여 숭정대부에 陞資되었다.

사당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방풍판을 갖추고 있다. 주위에는 솟을대문에 시멘트블록의 담장을 두르고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 1994.

192. 南楊州 眞官里 느티나무

□소재지 : 진건면 진관리 568(지도19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이 보호수는 마을의 성황당을 없앤 뒤로 성황신이 이 느티나무로 옮겨왔으므로 나무를 위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진관마을의 정자목으로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흉고둘레 5.6m의 큰 나무는 주간높이 1m 부위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주로 상단에서 잎과 가지가 발달하여 수관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끝가지가 고사된 채 매달려있는 약한 수세이다.



사진192 남양주 진관리 느티나무

도로쪽의 나무는 흉고둘레 2.7m에 이르며 주간높이 2m 부위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뻗었는데 두 나무 사이의 내부쪽은 가지의 발달이 거의 없고 주로 도로쪽으로의 가지가 발달되어 있어 수고에 비해 수관폭이 작다. 나무 앞에는 돌말뚝이 박혀있는데 이는 일제시대에 민족의 정기를 죽인다고 일본인이 박았다는 설이 있으며 하동정씨 집성촌인 진관 2리 진관마을로 들어오면 마을안쪽, 너른 밭을 굽어보며 도로변에 서서 새참먹는 농부들의 시원한 쉼터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수령 410년, (大) 수고 15m, 흉고둘레 5.6m, 수관폭 18m, (小) 수고 14m, 흉고둘레 2.7m, 수관폭 12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48(1982. 10. 15)

193. 南楊州 新月里 느티나무



지도193 남양주 신월리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37)



사진193 남양주 신월리 느티나무

□소재지 : 진건면 신월리 496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이 보호수가 위치한 달음마을은 3대, 4대 이상의 가족이 한집에 모여살고 있는 집이 많아 고유의 전통을 간직하고 전 마을주민이 한 집안과 같이 결속되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은 경로효친 시범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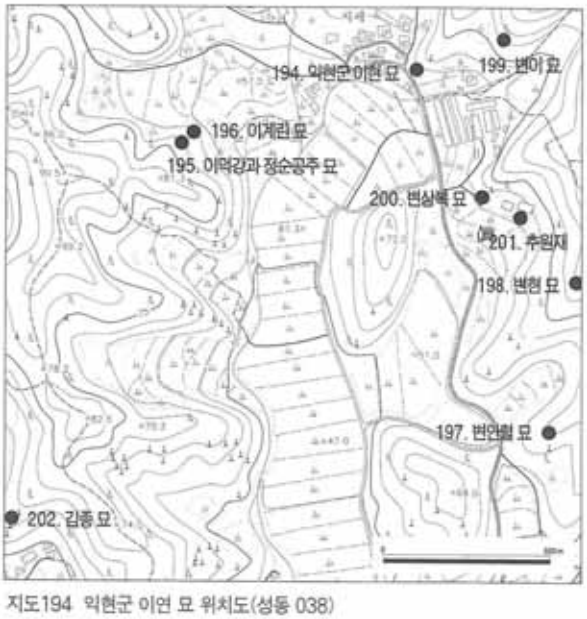
높은 언덕위에 자리잡고 있어 마을 어느 곳에서나 잘 보이는 이 느티나무는 커다란 버섯 모양으로 뿌리가 마을을 향해 고루 뻗어있어 그 정기를 받아 주민들이 풍족하고 화목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주간높이 2.5m 부위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줄기는 잎과 가지가 무성하게 발달하여 넓고 풍성한 수관을 형성하고 있고 역동감있는 주간의 수피는 거칠게 벗겨지고 있다.

해마다 음력 9월말에 주민들이 모여 황소를 잡아 그 해의 풍년과 마을의 평안,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치성을 드리고 있으며, 시원한 그늘로 온 마을사람들이 즐겨찾는 사랑방이 되고 있는 마을의 수호목이다. 커다란 수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느티나무는 진건천을 지나 신월 1리 달음부락 중심에 있는 언덕위에 서 있다.

수령 380년, 수고 15m, 흉고둘레 4.5m, 수관폭 16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46(1982. 10. 15)

194. 翼峴君 李璉 墓



지도194 익현군 이연 묘 위치도(성동 038)


사진194-1 익현군 이연 묘(세종의 일곱째 서자)


사진194-2 익현군 이연 문인석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637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익현군(1431~1463)은 조선 초기의 종실로 자는 光之, 이름은 璉이다. 세종의 일곱째 서자로, 母는 愼嬪金氏이다. 1437년 익현군에 봉하여졌다. 성격이 윗사람의 뜻을 잘 맞추어 수양대군의 癸酉靖難을 도왔고, 1455년(단종 3) 세조가 즉위하자, 左翼功臣 1등에 책정되었다. 형 桂陽君 瑆와 더불어 간사한 사람들과 어울려 술꾼이 되어 밤에는 여염집에서 娼妓를 불러 술을 자주 마시다가 술병을 얻어 죽었다. 세조는 "이것이 모두 계양군의 허물이다."라고 하면서 슬퍼하였다. 시호는 忠成이다.

묘는 지세마을 양계장 부근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여 변이 묘와 동서로 100m의 거리를 두고 가까이 있다. 동서직경 700㎝, 높이 200㎝의 대형 원형봉분은 중앙에 비신 월두형의 작은 묘표석과 상석 · 2단의 계체석 · 문인석 등의 석물만 갖추고 있어 왕손의 무덤치고는 단출한 느낌이다.

봉분앞의 墓表는 비좌와 비신을 갖추고 있으며,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일부밖에 판독이 안된다. 크기는 비좌 높이 10㎝ · 너비 104㎝ · 두께 62㎝, 비신 높이 123㎝ · 너비 59㎝ · 두께 18㎝이다. 상석은 고석 없이 상부의 계체석 위에 얹혀져 있다. 하단 계체석과의 간격은 470㎝이다. 문인석은 높이 236㎝, 幞頭의 머리부분 64㎝의 대형으로 큰 봉분에 걸맞는 위용을 하고 있다. 큰 눈과 코에 비해 '一' 자로 다문 입이 작아 대조를 보인다. 또한 두 손으로 마주 잡은 笏이 문인석의 규모에 비해 작으며, 소매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8, 1994.

195. 李德剛과 貞順公主 墓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산209-2(지도19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덕강과 정순공주의 묘역은 진건면 용정리 지세마을 좌측 언덕위에 東向하여 있으며 부부합장묘이다. 바로 아래에 이계린의 묘가 있고, 그 우측 언덕에 이숙의 묘가 있다.



사진195 이덕강과 정순공주 묘

묘역은 전형적인 고려양식으로 봉분은 前面과 左右面에 걸쳐 높이 64㎝의 호석을 둘러 묘의 형태가 方形을 하고 있다. 봉분의 크기는 前面 직경 510㎝, 左右 직경 510㎝로서 정방형에 가까우며, 높이 260㎝이다. 봉분앞의 묘표는 받침대에 비신 및 화관형의 고려양식으로 비신에는 "○○公李德剛貞順公主合葬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신 높이 69㎝ · 너비 49㎝ · 두께 18㎝, 이수 높이 32㎝ · 너비 57㎝ · 두께 26㎝이다. 묘비 앞에는 두 개의 상석(左 170㎝×115㎝×32㎝, 右 169㎝×113㎝×30㎝)과, 그 앞 좌우에 높이 170㎝의 문인석 한 쌍이 있다. 문인석은 머리부분이 54㎝로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상석 좌측에는 墓碣로 보이는 비석이 있는데 장방형 비좌에 비신 및 화관형의 전형적인 고려양식의 비이다. 이 묘갈은 표면의 결락과 마모가 심하여 비문을 판독하기 어렵다. 검게 탈색이 되어 있으며, 뒤로 기울어져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14㎝ · 너비 127㎝ · 두께 58㎝, 비신 높이 115㎝ · 너비 78㎝ · 두께 11㎝, 이수 높이 43㎝ · 너비 81㎝ · 두께 15㎝이다. 혼유석은 이계린 묘 중간 좌측 중간에 있다.

전체적으로 묘역의 모든 석물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인지 흑적색으로 탈색 및 돌이끼가 있는 상태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196. 李季疄 墓



사진196 이계린 묘

□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산209-2(지도194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이계린(1401~1455)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子耕, 본관은 한산이다. 牧隱 李穡의 손자로, 지중추원사 種善의 아들이며 영중추부사 季甸의 형이다. 母는 安東 權氏로 鈞의 딸이다. 태종의 장녀 貞順公主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1416년(태종 16) 16세의 나이로 敦寧府判官을 제수받았으나, 태종은 그가 젊어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 그는 오랫동안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1436년(세종 18)에 이르러 세종의 특명으로 동부승지에 발탁되어 여러 요직을 거쳤는데, 1447년(세종 29) 황해도관찰사로 임명되어서는 각 고을의 사정을 살펴보고 계속된 가뭄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처참한 것을 보았다. 그는 백성들 중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人肉을 먹는 사례가 있다는 풍문을 조정에 보고하였다가 물의를 일으켜 파직되기도 하였다. 1449년 별시위절제사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개성유수, 1451년(문종 1) 지중추부사, 1453년(단종 1) 형조판서가 되었다. 이어 1454년 호조판서로 임명되었다가 세조의 왕위찬탈에 협력한 아우 계전과 함께 佐翼功臣 2등에 녹훈되고 韓山君에 봉해졌다. 1455년에는 좌찬

성을 역임했다. 시호는 恭武이다.

묘는 진건면 용정리 이덕강 묘역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東向하고 있으며, 정경부인 청주 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이덕강의 묘역과 유사한 형태로 前面과 左右 중간 240㎝ 지점까지 높이 49㎝의 호석을 둘러 묘의 형태가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봉분의 크기는 前面 직경 520㎝, 左右직경 700㎝로 직방형이며, 높이 230㎝이다. 특이하게도 봉분 前面의 호석에 95㎝ 간격으로 6개의 기둥 표시를 양각하였다. 상석은 이전의 것에 새로 상석을 만들어 올렸고, 향로석도 새것이다. 향로석 좌우에 높이 194㎝의 문인석이 있는데, 머리에 쓰고 있는 幞頭의 관모는 높이가 낮아 납작하며, 笏을 잡고 있는 두 손의 표현과 길게 늘어뜨린 소매의 표현은 익현군 이연의 문인석과 비슷하다. 墓碑는 우측 문인석 옆에 위치하여 東向하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中樞院事封韓山君諡恭武韓山李公季麟之墓 配貞敬夫人淸州李氏祔左"라 써 있다. 건립연대는 1976년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사진197-2 변안렬 묘표(前面 : 직경 33㎝의 달을 상징하는 반원 속에 토끼가 방아 찧는 모습을 조각하였다)



사진197-3 변안렬 묘표(後面 : 직경 33㎝의 태양을 상징하는 원 속에 三足烏가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을 조각하였다)

197. 邊安烈 墓 및 墓表



사진197-1 변안렬 묘

□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산197(지도194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변안렬(1334~1390)은 고려 말의 무신으로 자는 忠可, 호는 大隱, 본관은 原州이며, 父는 曾判三司事 諒이다. 원래 변씨는 黃州를 본관으로 하고 있었는데, 안렬의 할아버지 順이 1268년 元에 들어가 瀋陽侯에 봉해졌고, 父 諒이 이것을 이어 받았다. 중국 심양 출신으로 병난으로 심양에 가 있던 공민왕을 따라 고려에 들어와 본관을 원주로 하사받았다. 이로써 안렬은 원주 변씨의 시조가 되었다.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을 토벌하여 2등공신이 되고, 이후 개성을 수복하여 1

등공신이 되었다. 1389년(창왕 1) 대호군 김저 등이 이성계 제거와 우왕 복귀를 모의한 일에 연루되어 우현보, 이색 등과 한양으로 유배되었다가 처형되었다. 김천택의 『청구영언』 言樂에 전해오는 「不屈歌」가 그의 詩歌로 밝혀져 그의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엿볼 수 있다.

묘는 진건면 용정리 지세마을 입구의 소로변 나지막한 구릉에 西向하여 2단의 토축활개내에 진한부인 원주원씨 묘와의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높이 170㎝의 원형 봉분은 하단에 높이 62㎝의 호석을 새로 둘렀고, 상석 · 향로석 · 羊石 · 장명등 · 차양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원래의 석물인 높이 139㎝의 망주석은 마모가 심하다. 묘 좌측으로 新 · 舊 墓碑가 2기 있는데, 원래의 묘비는 민무늬 비좌와 화강암제의 비신 월두형으로 마모가 심하며, 비신에는 "原川府院君邊公之墓"라 써 있다. 아울러 묘역 하단 좌우에 높이 148㎝의 망주석이 있다. 이전의 묘역에는 문인석 등 석물이 있었으나, 새로 묘역을 조성하면서 그 자리에 묻었다고 한다.

墓表石은 묘에서 약 50m 아래에 西北向하여 있다. 후손들이 한때 잃어버린 묘를 찾고 그 기쁨을 나눔과 동시에 다시는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71년(선조 4)에 세운 것으로, 규모는 총 높이 256㎝이다. 최근에 정면 1칸, 측면 1칸의 防風板을 갖춘 맞배지붕 비각을 건립하여 보존하고 있다. 원 묘표의 비좌에는 문양을 새긴 듯하나 보이지 않으며 비신과 冠石을 갖추고 있다. 비신은 前面 상단에 篆書로 "原川府院君邊公墓表"라 횡서했으며, 비제는 "高麗國推忠亮節宣威翊贊補助功臣辟上三韓三重大匡領三司事原川府院君邊公墓表"이다. 비문은 6대 외손 通政大夫守 黃海道觀察使 朴承任이 짓고, 7대 외손 奉憲大夫 礪城君 宋寅이 썼다. 특히 관석에는 雲紋日月圖가 새겨져 있는데, 앞에는 직경 33㎝의 달을 상징하는 반원속에 토끼가 방아 찧는 모습을, 뒷면에는 해 속에 三足烏가 나는 모습을 잘 조각하였다.

규모는 비좌 높이 64㎝ · 너비 139㎝ · 두께 73㎝, 비신 높이 190㎝ · 너비 87㎝ · 두께 19.5㎝, 관석 높이 66㎝ · 너비 93㎝ · 두께 26㎝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金石大觀』제3집, 1988.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I 』, 1998.

198. 邊顯 墓



사진198 변현 묘

□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702(지도194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변현(생몰년 미상)은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원주이며, 원천부원군 安烈의 장남이다. 벼슬은 判奉常寺事에 이르렀다. 1402년(태종 2)에는 趙思義의 모반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遐方으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묘는 안렬 묘역 좌측의 소로변에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西向하고 있으며, 旌善 全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다른 곳에 비해 호석이 없이 봉분 앞에 장대석을 만들었고, 상석 · 직사각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이 중 망주석은 민무늬로 높이 175㎝이며, 문인석 역시 높이 175㎝로 고려양식의 통자형이다. 머리부분이 56㎝로 길쭉하며, 유난히 눈을 크게 조각하였다. 우측의 문인석은 녹색으로 돌이끼가 있다. 봉분 우측에는 1978년에 세운 묘비가 있다. 4면비로 前面에 2열로 "通訓大夫判奉常寺事原州邊公顯之墓"라 써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199. 邊灝 墓



사진199 변이 묘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산200(지도19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변이(1360 ~ 1439)는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 자는 灝之, 본관은 원주이며, 원천부원군 안렬의 둘째 아들이다. 1411년(태종 11) 上護軍으로서 原從功臣 1등에 채록되고, 원주목사와 강계부윤을 역임하였다. 1420년(세종 2)에 全羅道 兵馬水軍都節制使가 되었으며, 1422년에 忠淸道 水軍都按撫處置使로 전보되었다. 이후 中軍摠制가 되었고, 賀正副使로 明에 다녀온 후 進賀使 權希達의 죄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첩을 회수당하고 부처되었다가 이듬해 직첩을 되돌려 받고 左軍摠制에 전보되었다.

묘는 용정리 지세마을 세종의 아들 익현군 묘 우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西向하여 있는데 정부인 慶州 李氏 및 東城 李氏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하단부에 높이 43㎝의 호석을 둘렀으며, 높이 140㎝로 납작한 모양이다. 봉분 우측에 비좌 없이 받침대에 비신 월두형의 묘비가 있다. 비신에는 "嘉靖大夫左軍都摠制府摠制之墓"라 써 있으며, 크기는 높이 19㎝ · 너비 95㎝ · 두께 46㎝이다. 아울러 좌측에는 새로 만든 묘비가 있다. 봉분 앞에는 새로 장대석을 만들었고, 원래의 석물인 상석 · 향로석 · 문인석과, 근래에 새로 만든 망주석이 있다. 문인석은 높이 164㎝로 머리부분이 54㎝이며, 얼굴은 계란형으로 갸름하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인지 흑적색으로 탈색이 심하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00. 邊尙服 墓



사진200 변상복 묘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산198(지도19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변상복(?~1455) 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호는 松軒, 본관은 原州이다. 원천부원군 安烈의 손자, 세종 때의 도총제 灝의 아들로 근의 동생이다. 駙馬(덕천군주의 남편)로서 原川尉에 봉해졌다. 1452년(단종 즉위년) 첨지중추원사를 역임하였고, 1455년(세조 원년) 강릉부사로 재임 중 사망했다.

묘는 원주변씨 재실 좌측의 나지막한 언덕에 南西向하고 있으며 德川翁主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은 고려식의 방형분으로 봉분 하단에는 높이 43㎝의 길고 짧은 호석 3매씩을 이용하여 전 · 좌 · 우 3면에 대었다. 크기는 前面 직경 420㎝, 左右 직경 420㎝, 높이 170㎝이다. 봉분의 우측에 있는 고려식 墓表는 비신과 一石의 통비형태로 花冠石 상부의 연봉장식이 수려하다. 크기는 비좌 높이 14㎝ · 너비 48㎝ · 두께 28㎝, 비신 높이 79㎝ · 너비 39㎝ · 두께 15㎝, 화관석 높이 42㎝ · 너비 47㎝ · 두께 23㎝이다. 오른쪽의 새로 만든 墓碑는 4면비로, 前面에 3열로 "通政大夫江陵大都護府使 元川尉邊公尙服之墓 配德川翁主全州李氏祔左"라 써 있다. 그 앞에 새로 만든 상석 · 향로석 · 장대석과 원래의 석물인 높이 114㎝의 장명등이 있는데 사각형의 받침대에 사모지붕형의 석등으로 화창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장명등 좌우의 문인석은 높이 157㎝의 통자형으로 하단은 굴곡이 없이 형태만 갖춘 형태이다. 蠟頭의 머리에 큰 눈과 코가 특징으로 흑적색으로 탈색되어 있다. 망주석은 문인석 앞 좌우에 세워놓았는데, 최근에 세운 것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01. 追遠齋



사진201 추원재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700(지도194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추원재는 원주변씨의 재실로 진건면 용정리 지세마을 내에 南向하고 있으며, 재실 동남쪽의 나지막한 구릉으로는 원주변씨 선조들의 묘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겹처마 건물로 한옥기와를 얹었으며, 솟을삼문과 화강암에 한옥기와를 얹은 담장을 갖추고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02. 金綜 墓



사진202 김종 묘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산47(지도19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종 묘는 진건면 용정리 곰실마을내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西向하며 정부인 전주이씨 및 경주이씨의 묘 3기가 '…' 형태로 나란히 있다. 이 중 김종의 묘는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중앙에 비신 월두형의 墓表와 상석 · 계체석 · 4각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幞頭의 문인석은 높이 175㎝로 머리 부분이 55㎝이다.

墓表는 비좌와 비신 월두형으로 비좌는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단판복련을 새겼다. 비신은 前面에만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 4열로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通政大夫行司憲府監察金綜之墓左中 贈貞夫人全州李氏在左 贈貞夫人慶州李氏在右"라 쓰여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0m · 너비 96㎝ · 두께 55㎝, 비신 높이 139m · 너비上 60㎝ · 下 55㎝ · 두께 17㎝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03. 崔淸 墓 및 神道碑



지도 203 최청 묘 위치도(성동 028)



사진203-1 최청 묘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산83 · 528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최청(1351~1414)은 고려말의 문신이자 충신으로 본관은 慶州, 자는 直哉, 호는 觀稼亭 · 松蔭居士로 고려말 判奉常寺事 子雲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자질이 특출하였고, 益齋 李齊賢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이제현이 "후일 반드시 대학자가 될 것이다"고 예언하



사진203-2 최청 신도비

였다. 1360년(공민왕 9) 문과에 급제하여 普文閣 학사가 되었다. 이듬해 10월 홍건적이 개성에 침입하여 위태롭게 되자, 공민왕은 수도를 버리고 안동으로 피난하였는데 그도 왕을 호종하였다. 난이 평정되고 다음해 개성으로 환도하자 그는 왕을 보필한 공으로 中書門下省 政堂文學 侍郎에 올랐다. 1365년 中書侍郎에 임명되었는데, 당시의 권력자 辛頓이 전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하였다. 이때 신돈의 폐해를 지적한 탄핵상소를 올려 미움을 받았고, 공민왕의 냉대로 신주 감목관으로 좌천되었으나 임지에서 선정을 베풀었다. 신돈이 실각하여 귀양간 후인 1375년 僉議中贊에 임명되어 개성으로 들어왔다. 1378년(우왕 4) 南路宣諭使로 나갔고, 1384년 司僕寺正으로 明에 파견되었다가 홍무제로부터 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1384년 檢校政丞에 임명되었으나 조정의 혼란에 실망하여 모든 벼슬을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이후 여러 賢人들과 함께 杜門洞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산야에 멀리 숨어 맹세코 세상에 나가지 않고 나무나 하고 밭을 갈면 아는 자 그 누구이겠는가!" 하였다. 양주의 豊壤에서 여생을 보냈다. 1394년(태조 3) 태조 이성계가 좌찬성에 임명하여 불렀으나 거절하고 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다. 태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은거하고 있는 산을 御來山으로 봉하고 정자에 觀稼亭이란 편액을 내렸다. 그는 이를 보고 탄식하면서 "산의 이름에 임금이 왔다고 하였으니, 내가 어찌 이곳에 거처하겠는가!" 하고 趙狷과 함께 松山으로 옮겨가 살았다. 송악을 잊지 못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松蔭居士라고 칭하였다. 임종을 맞아 자손들에게 "내 비석에는 반드시 고려의 관직을 써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후 改竭시에 잘못하여 조선 태조가 내린 관직인 좌찬성을 적어 넣었더니 갑자기 천둥이 일고 벼락이 떨어져 비석이 산산조각 났더라고 전한다.

묘역은 진건면 용정리 웃독정에 위치하여 최근에 3단으로 새로 조성하였다. 봉분에는 호석을 두르고, 봉분 앞에는 상석 · 묘표 · 향로석 · 문인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을 새로 갖추었다.

神道碑는 묘역의 입구 소로변에 최청의 사당인 慕松齋와 인접하여 南向하고 있다. 총 높이 269㎝로 장방형의 비좌에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형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4면에 걸쳐 상단에 篆書로 "高麗檢校政丞觀稼亭崔先生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高麗檢校政丞觀稼亭崔先生神道碑銘 并序 이다. 비문은 嘉善大夫行 江原道觀察使 權益相이 비문을 짓고 후손인 免熙가 글을 쓰고 전을 했다. 옥개석은 마모가 별로 없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규모는 비신 높이 177㎝ · 너비 62㎝ · 두께 32㎝, 옥개석 높이 54㎝ · 너비 108㎝ · 두께 75㎝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204. 慕松齋



사진204 모송재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550대(지도 203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재실)
□내　용

모송재는 고려말의 충신 최청(1351~1414)을 모신 사당이다. 진건면 용정리 독정요곡 최청 묘역 입구에 南向하고 있으며 바로 좌측에는 신도비가 있다. 모송재 입구는 솟을대문을 3단으로 하여 가운데 "節義門"이라는 현판이 있다. 재는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지붕에는 녹유기와를 얹었으며 가운데 "慕松齋"라는 현판이 있다. 모송재에는 「모송재기」의 단기 4293년 연기로 보아 1960년에 세운 것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05. 洪翼漢元配 綾城具氏 墓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산22-4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홍익한의 처 능성구씨 묘는 진건면 용정리와 송능리를 지나는 국도에서 용정리 하독정 마을내로 들어오는 소로변 우측 목장 입구에 北向하여 있다. 홍익한은 淸에 대항한 三學士 중의 한분이다. 능성구씨는 호조정랑을 지낸 坤源의 딸로 묘역은 관리가 되지 않지만 석물은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준다. 봉분 앞에는 墓表 · 혼유석 · 상석 · 4각향로석 등의 석물과 향로석 앞 좌우에 높이 95㎝인 작지만 金冠朝服形의 수려한 모습의 동자석이 있다.

墓表는 봉분 중앙에 위치하여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단판복련과 안상문을 장식한 비좌 및 순백색 화강암의 비신 월두형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



지도205 홍익한원배 능성구씨 묘 위치도(성동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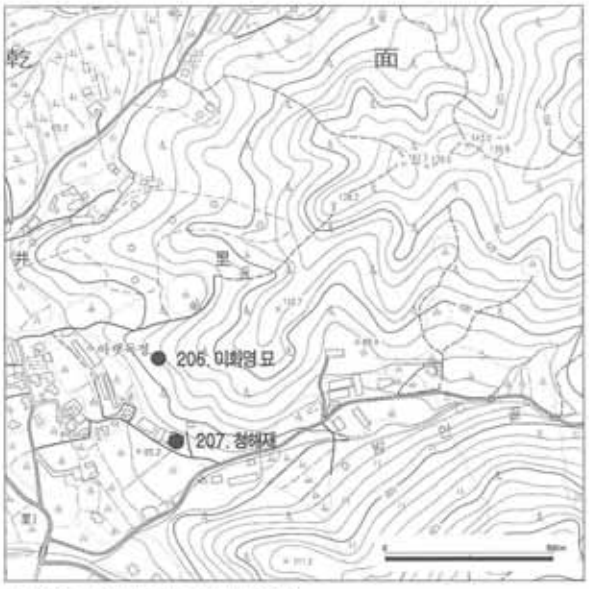


사진205 홍익한원배 능성구씨 묘

으며, 前面에 1열로 "贈淑夫人綾城具氏之墓"라 새겨져 있다. 묘표 뒤에 "有明朝鮮國 司憲府掌令南陽洪氏洪翼漢元配 曰綾城具氏戶曹正郎坤源之女…"라 써 있는 것으로 보아 홍익한의 처임을 알 수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6㎝ · 너비 95㎝ · 두께 62㎝, 비신 높이 108㎝ · 너비上 53㎝ · 下 51㎝ · 두께 17㎝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06. 李和英 墓



지도206 이화영 묘 위치도(성동 039)



사진206 이화영 묘(조선개국공신 이지란의 아들)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산16(지도20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화영(?~1424)은 고려말~조선초기의 여진족 출신 무관, 본관은 靑海이며 여진족 金牌千戶 阿羅不花의 손자이고, 조선 개국일등공신 靑海君 襄烈公 之蘭의 아들이다. 부인은 原從功臣 판사 童安老의 딸이다. 그는 개국원종공신 첨절제사 和尙의 아우로서 그 집안은 조선 건국의 군사적 기반을 제공한 東北面 여진 세력의 주축이었다. 1388년(우왕 14) 요동 원정군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여 군사정변을 일으키자 우왕을 시종하였으나, 成州에 있던 이성계의 아들 芳果 · 芳雨 및 자신의 형 화상 등과 함께 탈출하여 반군에 합세하였다. 1392년 태조가 즉위하자 동북면 유력자들이 대거 공신에 책봉되었는데, 이때 그도 사복시정에서 상장군에 올라 개국원종공신에 책봉되었으며, 1395년(태조 4) 공신전 15결과 특전이 명문화된 錄券을 받았다. 1398년에는 保功大將軍에 제수되었다. 1402년(태종 2) 父 이지란이 죽자 侍墓를 하기 위해 북청에 기거하던 중, 이성계를 재옹립하려는 趙思義 등 동북면 군민들의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서울로 탈출하여 태종에게 귀부하였다. 이 때문에 난을 초기에 종식시킬 수 있어 1403년 壬午功臣 2등의 예에 준하는 賜田 40결을 하사받았다. 1406년 都摠制, 3년 후 知議政府事를 거쳐 1415년 참찬, 1423년 判左軍都摠制가 되고 判右軍府事에 이르렀다. 시호는 武厚이다.

묘는 진건면 용정리 하독정 靑海齋 재실 뒤의 청해이씨 선산 상부에 西向하여 있는데 정숙부인 동성동씨와의 합장묘이다. 직방형의 봉분은 토축으로 쌓은 2단의 활개내에 있고, 봉분하단에는 높이 36㎝의 호석을 前 · 左 · 右 3면에 둘렀다. 봉분의 크기는 前面직경 350㎝, 左右 직경 470㎝, 높이 150㎝이다. 봉분 앞에는 고려양식의 묘표석 2기가 있는데, 우측의 비는 받침대가 하나인 상부 화관형으로 연봉이 파손되어 없으며, 비문은 뚜렷하지 않다. 좌측의 비 역시 화관형으로

비문은 뚜렷하지 않다. 묘표 앞에는 유례가 없는 특이한 형태의 '一' 자형 난간석이 있다. 높이 24㎝ · 길이 170㎝ 크기인 3개의 8각석주를 '一' 자형으로 봉분과 나란히 놓았는데, 총 길이는 545㎝이다. 그 앞에 계체석 · 상석 · 중간석 · 향로석 · 장명등과 幞頭의 문인석이 각 2개씩 있다. 장명등은 일자형으로 하대석은 '口' 자 형태의 모양을 이중으로 한 모양을 사방에 새기고, 상륜부는 사모지형 형태이며, 보주는 마모되어 없어진 것을 최근에 백색화강암으로 다시 보수하였다. 묘역은 전형적인 고려양식으로 고려말 조선초기 석물양식의 변화과정을 참고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07. 靑海齋



사진207 청해재

□소재지 : 진건면 용정리 130-1(지도206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재실)
□내 용

청해재는 진건면 용정리 하독정에 위치하며 조선 개국공신 李之蘭의 영정을 봉안한 재실이다. 李之蘭(1331~1402)은 조선 초기 무신으로 원래 여진족으로 만주에 거주하다가 고려에 귀화하여 이성계를 도와 의형제를 맺고 조선 개국을 도와 일등공신이 되었다. 본명은 쿠룬투란티무루(古倫豆蘭帖木兒)인데 생략하여 통두란(冬豆蘭)이라 하였고 고려에 귀화하여 본관은 靑海(지금의 북청)로 하고 이름을 이지란으로 賜姓名을 사용 청해이씨의 시조가 되었다.[18] 建州討伐에 공이 있어 明에서 靑海伯에 봉해졌으며 왕자의 난에도 공이 있어 定社功臣과 佐命功臣이 되었다. 왜구 토벌에도 공이 있었으며, 1393년(태조 2)에는 경상도절제사가 되었다. 사후 襄烈이란 시호가 내려졌고, 태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청해재는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오래 전부터 북청의 청해사와 이곳 용정리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 1976년 11월 1일 마모되고 황폐한 것을 2층 적벽돌 양옥집으로 개축하여 "靑海齋"란 현판을 걸어 놓고 있으며, 현재 옆으로 솟을삼문에 팔작지붕 건물의 재실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08. 光海君 墓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산59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조선 제15대 임금인 광해군(光海君, 1608~1623 재위)과 王妃 柳氏의 墓이다. 광해군은 宣祖의 둘째 아들로 후궁 恭嬪金氏의 소생이며 판윤 柳自新의 딸과 결혼했다. 본래 선조는 적자가 없어 세자책봉을 미루고 있었으나 춘추가 40을 넘기자 마냥 미룰 수 없고 임진왜란으로 북으로 피신하면서 평양성에 머무를 때 대

18) 청해이씨 종친회에 따르면 청해백 이지란의 본관이 청해라고 한 것은 남송시대 악비장군(岳飛將軍) 신국무목광(信國武穆王)의 7세손으로 악비장군의 본거지인 중국 청해성의 지명을 따서 청해라고 본관을 삼았다고 한다.



지도208 광해군 묘 위치도(성동 039)



사진208 광해군 묘

신들의 주청을 받아들여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본래는 14명의 아들 중에서 공빈 김씨의 첫째이며 서출 중에서 장남인 임해군이 세자가 되어야 했지만 그는 성질이 난폭해 군왕의 기질이 없다 하여 둘째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후에 인목황후가 계비가 되고 영창대군이 태어나 선조는 이미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을 폐하고 적자인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고까지 했으나 선조가 급사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광해군은 1608년 2월 34세로 왕위에 올라 在位 中에 明·後金의 건국과 日本의 재침의욕 등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明에는 겉으로는 협력하는 체하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고, 後金에는 명의 강요 때문에 출병했다며 그들과 우호를 다지겠다는 양면계책을 쓰는 등 등거리 실리적 外交를 폈다.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대포를 주조하는 등 국방을 강화하였고, 왕권강화와 민생안정책을 펴 당쟁종식과 정치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1608년 선혜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며 1611년에 양전을 실시 국가재원 확보와 함께 전화로 손실된 경희궁, 인경궁 등을 중건하였다. 또한 서적간행에 박차를 가하는 등 문화면에서도 훌륭한 치적을 많이 남겼다. 이때 『신증동국여지승람』, 『용비어천가』, 『동국신속삼강행실』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조보감』을 재편찬하여 정사운영의 방향을 확립했다. 또 임란으로 소실된 네 곳의 사고를 대신해 적산산성에 史庫를 설치했다. 한편 이 시대에는 허균의 『홍길동전』, 허준의 『동의보감』이 나와 문학과 의학부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광해군은 재위 15년(1623)에 왕권강화를 위한 과정에서 동복형인 임해군과 영창대군 등을 역모로 몰아 죽이는 등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등 패륜행위를 일삼아 반정의 명분을 제공하여 이귀, 김자점, 김류, 이괄 등 서인세력들에 의한 仁祖反正으로 廢位되었다.

그는 폐위된 후 江華를 거쳐 濟州道에서 流配生活을 하다가 인조 19년 (1641) 춘추 67세로 逝去하였는데 초연한 자세로 유배생활을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을 어머니 묘 발치에 묻어달라고 했다"해서 조정은 그를 공빈 김씨가 묻힌 成墓 아래쪽 오른편에 장사지냈다. 부인 류씨는 인조반정으로 폐출되어 인조 원년(1623년) 유배지인 강화에서 서거하였다.

묘역은 진건면 송릉리의 벧엘사슴농장과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여 있는데 문성군부인 유씨와의 쌍분이다. 묘는 곡장내의 좌측(서쪽)이 광해군, 왼쪽(동쪽)이 문성군부인 유씨의 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높이 170㎝ · 동서직경 460㎝로서 단출한 느낌을 주는

데, 이는 대군의 禮葬에 준하였기 때문에 봉분 주위에 석물은 없다. 봉분 앞의 묘표는 장방형의 비좌와 비신과 一石인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상부에 單板腹燃을 전후 5엽, 좌우 1엽씩 장식하고, 4면에는 전후 2엽, 좌우 1엽씩의 안상문을 조각하였으며, 흑적색으로 탈색이 심하다. 비신은 이수와 一石으로 비문은 전후 2면에 있다. 비의 전면에는 "光海君之墓"라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행적을 적어 놓았다. 前面에 탄흔 3개소가 있으며 검게 탈색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수는 구름무늬에 日月圖가 새겨진 월두형으로 직경 17㎝의 해를 상징하는 원형문은 구름에 가려져 있지 않다. 크기는 비좌 높이 30㎝ · 너비 100㎝ · 두께 64㎝, 비신 높이 116㎝ · 너비 62㎝ · 두께 19㎝, 이수 높이 45㎝ · 너비 70㎝ · 두께 24㎝이다. 묘표 앞에는 상석 · 장대석 · 4각향로석 · 8각망주석 · 문인석이 있고, 중앙에 사각형의 받침대에 팔작지붕 형태인 높이 230㎝의 장명등이 있다. 우측 망주석은 상부 연봉의 윗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문인석은 金冠朝服형으로 마모가 심한 편이며, 높이 164㎝로 머리부분이 50㎝이다. 장명등은 8각 형태의 화창석 4개소와 중간에 꽃무늬가 있다.

우측 문성군부인 유씨 묘표의 장방형 비좌는 화강암으로 무늬가 없으며, 비신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수부분에 雲紋에 日月圖의 月頭形이고, 구름의 모양은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 모양이다. 뒷부분은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 묘표의 전면에는 "文城君夫人柳氏之墓"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天啓三年癸亥閏十月二十九日禮葬"의 건립연기로 보아 1623년(인조 즉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뒷부분에 행적이 새겨져 있는데 마모가 심하여 알아보기 힘들고 글씨체로 보아 뒤에 누군가가 다시 새겨 넣어 것으로 보이고 글씨체로 조잡하다. 크기는 비좌 높이 24㎝ · 너비 85㎝ · 두께 64㎝, 비신 높이 164㎝ · 너비 57㎝ · 두께 18㎝이다. 묘표앞에는 상석 · 장대석 · 향로석등의 석물이 있다.

광해군과 문성군부인 유씨의 묘표석 음기는 다음과 같다.

光海君墓碣陰記

辛巳七月初一日病卒於濟州 命輟朝三日 進素膳五日 特遣禮曹堂上郎廳及中使護喪以來又令各道監司陪行檢節祭奠禮曹請以 王子君例一等禮葬 上特賜長生殿棺一部改棺易斂遣承旨致祭 特命隧葬以女子奉祀給其田宅臧獲十月初四日葬於楊州赤城洞夫人墓右亥坐巳向之原禮官中使京畿監司終始護喪返魂於長興洞私第朝夕朔望及四名日四仲朔祭奠官給其需

夫人墓表石陰記

天啓三年癸亥十月初八日病卒於江華 命輟朝三日進素膳五日禮曹堂上郎廳內官及京畿監司終始護喪 斂殯諸具該曹一一下送 上遣中使致祭 特命遂葬閏十月二十九日葬於楊州赤城洞亥坐巳向原禮曹請以王子例一等禮葬定軍守護王子墓步數外加給三百步返魂於長興洞舊第定內官宮人奉朝夕朔望及四名日四仲朔祭奠官備祭需

□ 지도번호 : 양지 205-4
□ 비　　고 : 사적 제363호(1991.10.25)
□ 참고문헌

경기도, 『京畿金石大觀』제5집, 1992.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한국문원, 『왕릉』, 1995.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209. 成墓



사진209-1 성묘(선조의 후궁인 공빈김씨의 묘)



사진209-2 성묘 문인석



사진209-3 성묘 무인석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산55(지도 20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성묘는 朝鮮朝 제14대 宣祖의 後宮인 恭嬪 金氏의 墓이다. 恭嬪金氏(?~1577)의 본관은 金海이며 僉正 벼슬을 지낸 金希哲의 딸이며, 宣祖의 후궁으로서 臨海君 李珒(초명 李鎭國)과 조선 15대 임금인 光海君 李琿을 낳았다. 선조의 총애를 입어 후궁들이 감히 사랑에 끼어들지 못하였으며 산후에 병이 위독해지자 임금에게 상신하기를, "궁중에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어 나의 신발을 가져다가 내가 병들기를 저주하였는데도 상께서 조사하여 밝히지 않았으니 오늘 죽더라도 이는 상께서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감히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하니 선조가 심히 애도하고 宮人을 만날 적에 사납게 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광해군 때에는 임금의 私親으로서 추존하여 慈淑端仁恭聖王后로 삼고 殿號를 奉慈, 陵號를 成陵이라 하였으나 광해군이 폐위되자 다시 공빈으로 폐해지고 묘소의 석물도 예제에 어긋난다하여 허물었다. 조선 중기의 무신인 懿憲公 金禮直이 그의 아우이다.

묘역은 진건면 송능리 조맹 묘 바로 위에 위치하여 西向하고 있다. 묘역은 단출하지만 화려하게 석물을 장식하고 있다. 봉분 하단에는 높이 54㎝인 8매의 호석을 둘렀고, 그 주위에 12개의 기둥으로 난간석을 둘렀다. 특히 난간석은 좌우에 조각을 한 받침대를 놓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받침대를 놓고 그 중간에 문양을 조각하여 화려함을 더 하였다. 봉분 주위에는 양쪽으로 海苔와 羊石을 각각 2개씩 장식해 놓았다. 해태는 앉은 모양이 통통하고 해학적인 모습이며, 양석은 조각이 우수하고 중간 부분에 남초 그림을 장식하여 단

조로움을 없앴다. 봉분 앞의 상석은 높이 48㎝의 고석 4면에 鬼面을 양각하였다. 상석 좌우의 망주석은 높이 178㎝로 8각의 받침대에 2중으로 층을 만들고 그 층마다 문양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하였고, 위의 석주부분에는 앙화를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게 한다. 그리고 봉분 주위에 곡장을 둘렀는데, 담장 부분에 원통형 돌을 박아 넣어 모습을 화려하게 하였다.

상석 앞에는 장대석으로 층을 만들고 그 밑에 문인석 · 말석 · 장명등을 배치하고, 다시 장대석으로 층을 만들고 그 밑에 무인석 · 말석을 배치한 형태이다. 먼저 文人石은 높이 246㎝로 문양이 선명하고 조각이 우수하며 형체가 뚜렷하다. 머리부분이 90㎝이며, 수염을 길게 어깨까지 조각하여 근엄한 모습을 더 하였다. 특히 요대에는 꽃모양을 장식하여 화려하게 보이게 하였다. 馬石은 문인석 바로 앞에 있으며 말총 부분이 선명하고 중간에 난초를 조각하여 단조로움을 없앴다. 장명등은 높이 237㎝로 주위의 석물 중에 가장 화려한 것이다. 사각의 받침대 위에 팔각형을 3중으로 장식하고 그 사이에 구름 문양과 복련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보이게 하였고, 그 중간에 작은 사각의 화창을 만들었다. 사각의 화창 위에 얹은 높이 101㎝의 옥개석은 팔각지붕 형태로 중간에 구름 문양을 조각하였다.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武人石은 높이 249㎝의 장대한 모습으로 무장의 갑옷문양이 화려하고 칼은 빼어 앞에 잡고 있는 형상이다. 머리부분이 문인석과 마찬가지로 90㎝이며, 얼굴 모습이 위엄이 있는 형상이면서 해학적인 인상을 준다. 무인석 아래 있는 말석 역시 말총 자국이 선명하고 중간부분에 난초 문양을 조각하였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사적 제365호

□참고문헌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210. 安嬪李氏 墓



지도210 안빈이씨 묘 위치도(성동 049)



사진210-1 안빈이씨 묘(효종의 후궁인 안빈이씨)



사진210-2 안빈이씨 묘 묘표의 비문(1694년 남편인 朴泰成이 지은 것이다)



사진210-3 안빈이씨 묘 동자석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산66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안빈이씨(1623~1693)는 孝宗의 후궁으로, 淑寧翁主의 생모이다. 숙녕옹주는 錦平尉 朴弼成에게 하가하였다. 숙종이 安嬪으로 進號하였다. 안빈 경주이씨의 父는 증직으로 공조참의를 제수받은 李應憲이고, 母는 숙부인 任實 李氏이다. 병자호란 후 1637년(인조 15) 鳳林大君이 瀋陽에 人質로 갈 때 같이 갔다가 1645년(인조 23)에 귀국하였으며, 淑寧翁主를 낳았다.

묘역은 송능리 적성골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여 화강석 기단에 와적담장 및 한옥기와를 올린 곡장내에 있다. 원형의 봉분은 높이 170㎝, 동서직경 420㎝로서 호석이 없는 대신 용미를 갖추고 있다. 봉분 앞의 墓表는 비좌와 비신 월두형으로 비좌 상부에는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화려한 복판복련문과 4면에 전후 2엽, 좌우 1엽씩의 안상문을 새겨놓았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전면에 1열로 "朝鮮國安嬪慶州李氏之墓"라 써 있고, 후면에는 "朝鮮國安嬪慶州李氏墓表"비제하에 "皇明崇禎甲申後五十一年甲戌三月淸明日女壻○○大夫錦平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朴弼成 謹識"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건립연대는 1694년(숙종 20)이며, 사위인 박필성이 글씨를 썼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0㎝ · 너비 109㎝ · 두께 68㎝, 비신 높이 132㎝ · 너비上 62㎝ · 下 59㎝ · 두께 22㎝이다.

봉분은 병풍석이 생략돼 왕족에 비하여 초라한 모습이다. 묘비 앞에는 장대석이 있고, 계체석을 받침대로 하여 상석이 2개의 고석 위에 놓여 있다. 그 앞에 하단에 복련을 장식하고 상단에 꽃문양을 장식한 직사각 향로석과 좌우에 앙화를 장식한 높이 22㎝의 4각 받침대에 머리에 면류관을 쓴 높이 98㎝의 동자석이 있는데, 조각기법이 우수하다. 눈을 감고 있는 머리부분의 길이는 22㎝이다. 동자석 좌우에는 8각받침대에 청솔모와 안상문 및 앙화를 장식한 높이 169㎝의 망주석이 있다. 망주석 앞 좌우의 문인석은 金冠朝服形으로 높이 167㎝이며, 머리부분이 58㎝로 신체의 1/3를 차지하고 앞뒤에 꽃 그림이 있다. 그 가운데에 높이 210m인 4각장명등이 있다. 장명등은 앙화를 조각한 받침대 모양 위에 사면에 꽃 그림을 이중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前後로 4각화창을 만들었다. 그 위에 상륜부는 팔작지붕형으로 놓고 보주는 단순히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으로 균형미가 있으며 모양이 우수하다.

전체적으로 묘역은 작지만 다수의 석물을 조밀하게 배치하였으며, 장명등을 제외한 모든 석물에 돌이끼가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사적 제366호
□참고문헌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211.臨海君 李珒 墓



사진211 임해군 이진 묘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산56(지도20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임해군 이진(1574~1609)은 본관은 全州, 초명은 李鎭國이며,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의 서장자이며, 어머니는 恭嬪 金氏로서 사도시 첨정을 지낸 金希哲의 딸이다. 첫째 왕자였으나 성질이 난폭하여 세자의 자리를 광해군에게 빼앗겼다. 1585년(선조 18) 참의 許銘의 딸과 혼인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시 順和君과 함께 함경도로 의병을 모집하러 갔으나 왜장 加藤清正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수차례 협상 끝에 석방되어 돌아왔다. 이후 성질이 더욱 난폭해져 행패가 심하였다. 1603년 司饔院都提調가 되었고, 1608년 선조가 홍서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明에서 장자인 그의 동향을 심사하러 오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강화의 교동으로 옮겨져 이듬해 사사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물러나자 그의 관작이 회복되었다. 시호는 貞愍이다.

묘역은 송능리 적성골 시냇가 사슴농장과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南西向하고 있으며, 활개를 갖춘 원형봉분 하단에는 높이 50㎝ · 너비 144㎝인 호석 10매를 둘렀다. 그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장대석 · 6각향로석 등의 석물이 있다. 상석 옆 좌우에는 각 1개씩의 향로석이 더 있다. 상석 좌우에는 석주 상단부에 앙화를 새긴 높이 164㎝의 망주석이 있고, 그 아래 장대석 밑에 문인석이 있다. 문인석은 높이 176㎝로 머리부분이 58㎝이며, 균형미가 있고 조각이 우수한 편이나 좌측의 문인석은 두 손으로 마주잡은 홀의 상부가 일부 깨져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12. 趙孟 墓 및 神道碑



사진212-1 조맹 묘(豐壤趙氏의 시조이다)



사진212-2 조맹 신도비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산55(지도20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조맹(생몰년 미상)은 고려초기의 문관이며 豊壤趙氏의 시조로서 초명은 嚴이다. 신라말기에 벼슬을 단념하고 초야에 묻혀 살았으나, 王建이 고려를 건국하자 관직에 나아가 孟이란 이름을 하사받았다. 여러 번 공을 세워 開國壁上功臣이 되었고, 관직이 門下侍中 平章事에 이르렀다. 조선후기 광해군의 생모 恭嬪의 묘를 成陵으로 승격하여 단장하면서 이장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가까스로 봉분을 깎아 없애는 선에서 그쳤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다시 봉분을 쌓고 비를 세웠다.

묘역은 진건면 송능리의 성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西向하고 있다.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은 최근에 높이 104cm의 호석을 둘렀고, 그 위에 70cm 가량 봉분을 얹었다. 특히 호석의 각 면에는 경주 신라왕릉에서나 볼 수 있는 12지신상 조각을 양각하였다. 봉분 앞에는 묘비 · 상석 · 장대석 · 향로석 등의 석물을 새로 만들어 놓았다. 봉분 중앙의 새로 만든 묘표는 前面에 2열로 "高麗開國功臣門下侍中趙孟之墓"라 써 있다. 아울러 봉분 좌우측에는 비가 하나씩 위치하여 南北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좌측(남쪽)의 비는 사각형의 민무늬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2열로 "高麗開國功臣門下侍中趙孟之墓"라 써 있다. 비문은 後孫 嘉善大夫 吏曹參判 趙復陽이 찬하고, 後孫 進士 趙相愚가 글씨를 썼으며, 건립연대는 1651년(효종 2) 10월이다. 전체적으로 비좌와 옥개석의 규모에 비해 비신이 직방형으로 길쭉하며 전체가 검게 탈색했고 돌이끼가 있다. 아울러 비신 前面 상부와 측면으로 탄흔 자국이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2cm · 너비 85cm · 두께 90cm, 비신 높이 114cm · 너비 41cm · 두께 40cm, 옥개석 높이 34cm · 너비 83cm · 두께 71cm이다.

우측(북쪽)의 비는 민무늬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은 황색을 띠는 백색대리석으로 비문은 前 · 後 · 右 3면에 있으며, 前面 상단에 篆書로 "侍中趙公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高麗國統合三韓壁上開國功臣○國三重大匡門下侍中平章事趙公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문○대제학지성균관사동지경연 ○○이 찬하고, 原任통훈대부행사헌부장령 李紘이 글을 쓰고 崇德大夫 錦陽尉 朴彌가 전하였다. 아울러 後面에 "碑陰"은 후손 가선대부전이조참판겸성균관대사성 翼이 기록하고, 후손 홍문관부교리 오○이 서하였다. 옥개석은 뭉툭하고 투박한 모습이다. 건립연대는 1904년 8월 26일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25cm · 너비 116cm · 두께 72cm, 비신 높이 171cm · 너비 74cm · 두께 23cm, 옥개석 높이 45cm · 너비 122cm · 두께 65cm이다.

神道碑는 조맹 묘역 아래에 위치하여 근래에 새로 세운 "豊壤趙氏始祖侍中公墓域改修紀蹟碑"와 東西로 나란히 하여 南西向하고 있다. 민무늬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의 비문은 본래 1632년에 張維가 찬하고, 李紘이 썼고, 朴彌가 전을 한 것을 1905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趙秉弼이 찬하고, 趙鼎九가 글씨를 쓴 것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 · 後 · 左 3면에 있으며, 前面 상단에 篆書로 "侍中趙公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高麗國統合三韓壁上開國功臣三重大匡門下侍中平章事趙公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外後孫 世子左副賓客 新豊君 張維가 찬하고, 原任通訓大夫行 司憲府장령 李紘이 썼고, 崇德大夫 錦陽尉 朴彌가 전하였다. 아울러 後面에 "碑陰"은 후손 가선대부전이조참판겸성균관대사성 翼이 기록하고, 후손 홍문관부교리 春秋館記注官 오○이 썼다.

규모는 비좌 높이 47cm · 너비 160cm · 두께 94cm, 비신 높이 207m · 너비 84cm · 두께 37cm, 옥개석 높이 66cm · 너비 103cm · 두께 70cm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13. 趙相愚 墓 및 神道碑



지도213 조상우 묘 위치도(성동 039)



사진213 조상우 묘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산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조상우(1640~1718)는 조선후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豊壤, 자는 子直, 호는 東岡로 예조판서 珩의 아들이다. 영의정 李景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657년(효종 8) 사마시에 합격한 뒤 同春堂 宋浚吉의 문인이 되었다. 1672년(현종 13) 세자익위사 洗馬에 임명되고, 이후 司畜署別提, 연천현감으로 나갔다. 1675년(숙종 1) 송준길이 사후 삭탈관작되자 반대하는 소를 올려 南平에 유배당한 뒤 이듬해 풀려났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 후에 서용되어 호조좌랑, 태인현감, 사헌부지평, 병조정랑을 역임하고, 호남에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홍문관부교리가 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 이후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그는 司導寺正, 홍주목사, 성균관사성, 종부시정, 좌통례, 서산군수, 강계부사 등의 한직을 전전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한 뒤 南九萬의 추천으로 특명에 의해 내직에 들어와, 예조참의, 사간원대사간, 승정원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도승지, 호조참판,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다시 부제학이 되자 왕실의 경비절감을 강조하고, 醫官을 보내 민간의 환자를 치료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단종의 복위와 종묘 祔廟에 왕이 친림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파직당하였으나 홍문관의 주청으로 용서받았다. 이어 경기감사에 임명되어 민폐와 변통책을 올렸고, 1700년 이조참판이 되자 서북지방의 인재등용책을 건의하였다. 형조와 예조의 참판을 거쳐 형조판서에 승진하였으며, 후궁 張禧嬪을 사사할 때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 그후 우참찬, 대사헌을 역임하고 지중추부사 겸도총관이 되어 중국에 사신으로 가던 중 예조판서가 되었고, 좌참찬으로 옮겼다. 이후 판의금부사, 병조판서, 판돈녕부사,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승진하였다. 그는 원래 노론 계통의 인물이었으나, 만년에는 남구만 · 최석정 등과 함께 온건한 소론으로 정치활동을 하였다. 오랜 기간 관직에 있으면서 조세제도 · 형사제도 · 예론을 비롯한 국정전반에 걸쳐 정책 건의를 많이 하였다. 글씨를 잘 써서 莊烈王后의 옥책문을 쓰는 데 선발되었고, 忠賢書院의 사적비 등을 남겼다. 남평의 龍岡祠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孝憲이다.

묘역은 진건면 송능리 견성암 아래 산중턱에 南西向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높이 180㎝로 2단의 활개내에 있으며, 하단에는 높이 54㎝의 호석을 새로 두르고, 각 면에는 무궁화 · 난초 등을 조각하였다. 그 앞에 혼유석 · 상석 · 4각향로석 · 8각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

물이 있다. 상석은 좌우 측면 및 前面에 "有明朝鮮國 東岡先生諡孝憲趙公相愚之墓 貞敬夫人全州李氏祔左"라 음각하여 놓았다. 문인석은 높이 178㎝로 金冠朝服形이며, 머리부분이 52㎝이다. 또 봉분의 좌측에는 근래에 세운 묘비가 비좌와 오석의 비신 이수를 갖춘 채 西北向하고 있다.

神道碑는 묘역 아래에 숲속에 있는데 민무늬 장방형 비좌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4면 상단에 篆書로 "有明朝鮮議政府右議政贈諡孝憲趙公神道碑命"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贈諡孝憲趙公神道碑名 并序"이다. 비문은 資憲大夫 吏曹判書 李德壽가 찬하고, 季男 通政大夫行 廣州牧使 趙斗壽가 짓고, 後孫 輸忠○誠奪武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 趙顯命이 전을 하였으며,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再庚申, 즉 1740년(영조 16)이다. 전체적으로 비좌 및 옥개석의 규모에 비해 옥개석의 높이가 낮아 납작한 느낌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39㎝ · 너비 147㎝ · 두께 97㎝, 비신 높이 233m · 너비 85.5㎝ · 두께 37.5㎝, 옥개석 높이 37㎝ · 너비 147㎝ · 두께 96㎝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지도214 남양주 송능리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49)


사진214 남양주 송능리 느티나무

214. 南楊州 松陵里 느티나무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535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금곡에서 사릉방향으로 390번 지방도를 타고 가다 송능교를 건너기 전 좌측에 있는 합다리들에 있는 합다리(합성) 마을로 들어오면 가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도로변에 서있는 이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옛부터 동네 어른들이 나무에 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해가 미치고 잎이 위에서부터 펴내려오면 그 해 풍년이 든다는 얘기가 내려오는 이 나무는 전에는 그네를 매어 타고 놀기도 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낮잠을 자기도 했던 합다리마을의 정자목이다.

주간높이 1.3m 부위에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 올라가는데 도로쪽으로의 가지가 많이 쳐져 전체 모습은 한쪽으로 기운 넓은 원정형이며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였던 주간에 있던 커다란 동공은 지금은 치료가 되어 수세가 회복중이다.

수령 210년, 수고 13m, 흉고둘레 6.5m, 수관폭

19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49(1982. 10. 15)

215. 見聖庵 大雄殿


사진215 견성암 대웅전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3(지도213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사찰
□내　용 :

대웅전은 사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정면 3칸 측면 2칸인 맞배지붕의 목조건물이다. 지붕은 용마루가 일직선으로 용마루 귀쪽의 반전이 없고, 맞배지붕의 특색에 따라 처마끝의 반전도 보이지 않는다. 맞배지붕이 측면에서 만나는 합각지점의 박공널 아래에는 풍판이 있어 전형적인 맞배지붕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공포의 형태는 초익공으로 평방이 없고 창방만 있는 상태에서 각 기둥의 주두에 공포를 구성하였다. 창방 뺄목 아래에는 구름 문양의 보아지가 있어 장식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대웅전의 내부에는 최근에 조성한 삼세불좌상과 함께 아미타후불탱화(1882), 칠성탱화(1882), 영산탱화(1882), 신중탱화(1882), 독성탱화(1882), 지장시왕도(1882), 현왕탱화(1882), 현왕탱화(1882), 약사탱화(1900) 등이 있어 대웅전의 조성연대를 추측할 수 있게 하고, 견성암의 사격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경기도박물관, 『京畿道佛蹟資料集』, 1999.

216. 見聖庵 修養窟


사진216 견성암 수양굴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3(지도213 참조)
□시　대 : 고려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대웅전 오른쪽 뒤에 굴법당이 위치하는데, 일명 수양굴이라고 전한다. 고려초 趙孟이 수양하던 암혈이라 한다.

『見聖庵雨花樓記』에 따르면 "고려초에 侍中이었던 趙孟이 동굴에 은거하면서 東方持世佛인 약사여래의 광명을 친히 보아 높여 원불로 삼고 일어나 신성왕을 보좌하여 개국공신으로 책봉되었으니, 이 때문에 大人

의 덕이 세상에 드러나 훌륭한 임금을 만나 보좌하게 된 근원지가 되었다. 성인을 만났다는 의미의 見聖이라는 명칭은 이에서 나왔으며, 후손이 추모하여 세워 원당을 삼고 약사여래를 공양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굴법당의 연혁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견성암의 창건사정을 전하고 있는 기록이 없고, 또한 절에 창건을 뒷받침할 만한 유물도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의 수양굴에 당시 조맹이 거처하였는지를 밝혀주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 아쉬운 형편이다.

현재 수양굴 안에는 1975년에 만들어진 청동제 조맹 동상(혹 山神像이라고도 함)이 조성되어 안치되어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217. 見聖庵 石造藥師如來坐像



사진217 견성암 석조약사여래좌상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3(지도213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石佛

□크 기 : 高 50㎝

□내 용

현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다. 오른쪽 무릎의 깨어진 곳을 석고로 보수하고 불상 전체에 회칠을 두텁게 입혔으며 존용과 藥盒에 채색을 하여놓았다. 두 손은 신체에 비해 큰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아담하면서도 안정감이 있다. 회칠이 된 현상태로 보이는 옷주름 등의 표현은 조선시대 후기 불상의 양식이지만 존용은 둥글고 원만하여 이목구비의 相好도 단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5, 1995.
경기도박물관, 『京畿道佛蹟資料集』, 1999.

218. 奉印寺 浮圖庵舍利塔



사진218 봉인사 부도암사리탑

□소재지

現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舊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307 봉인사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浮屠

□내 용

봉인사 부도암 사리탑은 1619년(광해군 11)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불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이듬해인 1620년 5월 14일 봉인사에 건립한 것이다. 탑 속의 古記錄과 중수기를 새긴 碑銘에서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756년(영조 32)에 楓巖取愚大師가 금강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탑이 퇴락한 것을 보고 중수할 뜻을 세워 당시 사도세자의 母嬪인 暎嬪 李氏와 和緩翁主 및 궁녀들의 시주를 받아 탑을 보수하였다고 한다. 이때 탑 내부에서 나왔던 古記錄과 새로 지은 중수기를 함께 비석(지금의 중수비)에 새겨 놓았는데, 이때 탑 내부에 봉안된 銀製 사리호 바닥에는 "世子戊戌生 壽福無疆 聖子昌盛 萬曆四十八年 庚申 五月"이라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었서 왕세자의 탄생을 맞이하여 그의 壽福無疆을 기원하는 염원으로 왕실에서 발원하여 조성하고 또한 법당을 지어 이를 수호하고 예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리탑 건립에 대한 또 다른 緣起가 전한다. 광해군이 1610년 2월 29일에 先母 恭嬪 金氏를 왕후로 추존하였다. 그래서 묘소도 陵으로 격상시키고 陵號를 成陵이라 하였으며, 母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원찰로서 부근에 봉인사를 세웠는데, 여기에 석가세존의 사리탑을 봉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봉인사가 20세기 초에 화재로 절 전체가 소실되어 폐사되자, 1907년 寺址에서 사리와 함께 사리탑을 서울 本院寺로 옮겼다가, 1927년 일본으로 반출되어 얼마 전까지 오사카 시립미술관 앞에 보존 전시되었다. 1987년 日本人 岩田仙宗이 舍利塔을 舍利盒重修碑와 함께 기증하여 舍利塔과 舍利莊嚴具는 1987년 7월 29일에 보물 제928호로 지정되어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복원 전시하고 있다. 한편 『奉印寺浮圖庵塔法堂創建丹雘記文』에서 "위로는 우산을 펼치고 아래로는 병풍을 둘러 탑이 그 안에 있는 것 같다. 작은 먼지도 감히 이르지 못하고 원만하고 화락한 기운이 탑을 두르니……"라고 하여, 탑과 비가 사역에 있었을 당시 사리탑과 주변의 풍광이 무척 아름답고 위엄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사리탑은 기단부가 中臺와 下臺가 하나의 돌로 만들었고 상대, 탑신, 옥개석, 상륜부 등 5개의 부분을 塊體石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기본형은 기단과 옥개석 등 대부분은 8각으로 부도탑의 典型인 8角圓堂型이나 탑신만은 원구형으로 되어 있다.

기단부에서 상대와 하대가 마주 보이는 면에는 仰蓮과 伏蓮을 대칭으로 조식하였고, 8각 하대의 각 면에 方框을 시문하여 그 안에 唐草 雲文을 새기고, 상대의 8각 측면에는 상하단에 테두리를 내어 그 안에 당초문을 길게 연결하여 조식하였다.

탑신부는 원구형으로 둘레는 80.2㎝이다. 옥개석이 얹히는 탑신의 상부에는 지름 16.2㎝ 가량의 구멍이 파여 있는데 이 圓孔이 사리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탑신에는 세 마리의 용이 구름 사이에서 꿈틀거리며 瑞氣를 발산하는 雲龍文이 시문되어 있다. 이것은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 부도(1407)의 탑신과 형태와 조각수법이 유사하나 조금 간략화되고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

옥개석은 隅棟 마루가 유난히 돌출되어 뻗어 있지만 처마 끝에 가서 어느 정도의 反轉이 보이기도 하며 그 끝에 귀꽃을 표현하였다. 추녀 즉 처마는 겹처마이나 椽木과 浮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이중서까래의 형태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2단 구획한 것과 활처럼 휘어진 추녀허리 정도만이 확인될 뿐이다.

상륜부의 경우는 하나의 돌로 조각되었는데, 일반적인 부도에서는 흔히 보기 힘들게 세분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하나의 돌로 되었다는 단점 때문에 표현은 단순화되었다. 상륜은 아래서서부터 覆鉢, 寶輪, 寶珠의 순서로 조각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사리탑은 일반적인 부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승려의 부도탑이 아닌 불사리탑으로 건립된 것으로 건립시기와 건립연유 등이 확실하고 또한 완전한 형태를 보유하고 있어서 탑파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 사리탑에서는 총7점의 사리장엄구가 나왔는

데 舍利外盒, 舍利內盒(大 · 中 · 小1 · 小2), 舍利甁, 喉鈴桶이 있고, 사리병과 후령통을 보호하면서도 壽福無疆을 기원하는 실뭉치가 보인다. 사리합은 외합과 내합 5점이 모두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리외합이 가장 바깥에 있고 점차 작은 순서로 사리합이 들어가며 마지막에 실뭉치와 후령통, 사리병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보물 제928호

□참고문헌

문화재관리국, 『文化財大觀』보물편, 1988.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경기도박물관, 『京畿道佛蹟資料集』, 1999.

219. 奉印寺 舍利塔 重修碑



사진219 봉인사 사리탑 중수비

□소재지

現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舊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307 봉인사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1620년(광해군 12)에 봉안된 사리탑을 取愚大師가 중수하면서 건립되어 사리탑의 최초 봉안 연대와는 약 139년의 차이가 있다.

이 중수비도 사리탑과 마찬가지로 1927년에 일본으로 반출되어 오사카 시립미술관에 전시되어있다가, 1987년 사리탑과 사리합이 반환될 때 같이 들어와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앞뜰에 사리탑과 함께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중수비의 구조는 方形의 대좌 위에 다소 빈약한 듯한 碑身을 정방형에 가까운 角柱로 세우고, 간략한 양식의 옥개석형 개석을 얹은 형태로 총 높이 181㎝이다.

비신은 가로 29㎝, 세로 20㎝의 각주형으로 높이는 114㎝이며 석재는 水磨로 다듬고 石理가 뚜렷한 대리석을 사용하였다. 탑의 사면에는 모두 篆書體로 음각되었는데, 전면은 "塔中古文"의 題名으로 사리탑 緣起文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 裏面에는 취우대사가 사리탑을 중수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과 방형대좌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정성을 들인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단순하고 도식적인 형태를 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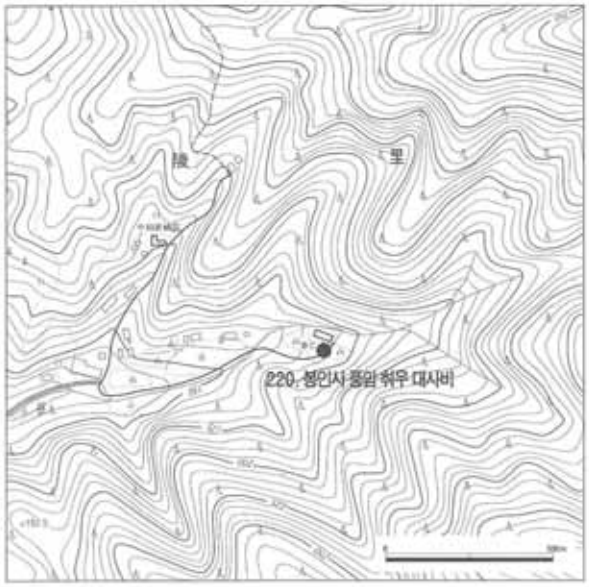
한편 탑중고문과 중수기를 撰 · 書 · 篆한 인물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경기도박물관, 『京畿道佛蹟資料集』, 1999.

□지도번호 : 양지 205-4

220. 奉印寺 楓巖取愚大師碑



지도220 봉인사 풍암취우대사비 위치도(성동 039)



사진220 봉인사 풍암취우대사비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307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

取愚大師는 1695년(숙종 21)에 출생하여 1766년(영조 42) 6월 27일에 入寂하였다. 대사는 15세에 출가하여 晦庵定慧(1685~1741)의 법을 이었기 때문에 芙蓉靈觀(1485~1571)의 6세손으로 생각된다. 금강산에서 경전을 강설하다가 寶蓋山에서 10여 년간 정진한 뒤 봉인사로 와서 主錫하다가, 1757년에 훼손된 사리탑과 전각을 중수하고 중수비를 세웠다. 대사가 1766년에 입적하자 다비에 부쳐 舍利 2과를 얻었는데 이로써 부도를 세워 봉안하고 이듬해인 1767년 7월에 이 탑비를 세웠다. 따라서 원래는 탑비와 가까운 곳에 취우대사 부도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봉인사가 20세기초에 화재로 인해 사역 전체가 소실되었을 때 이 탑비도 땅 속에 묻혔는데, 1979년 9월 옛 사지에 법당을 짓기 위하여 터를 다지던 중 地中에서 발견되어 오늘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비신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중수비와 같이 水磨로 말끔하게 다듬었으며 글자는 篆書體로 음각되었다. 돌에는 자연적인 무늬가 있어 마치 합장한 도인과 금강역사와 같다고 한다. 앞면에는 취우대사 사리탑비의 내용이 적혀져 있고, 뒷면에는 시주자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碑座는 화강암으로 되었으며, 상면에는 복판을 돌리고 사면에 안상을 시문하였다. 옥개석은 팔작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아주 뛰어난 형태는 아니다. 석재는 화강암이다.

이 비는 李惟簡이 撰하여 尹行醇이 書하였고 曺允亨이 篆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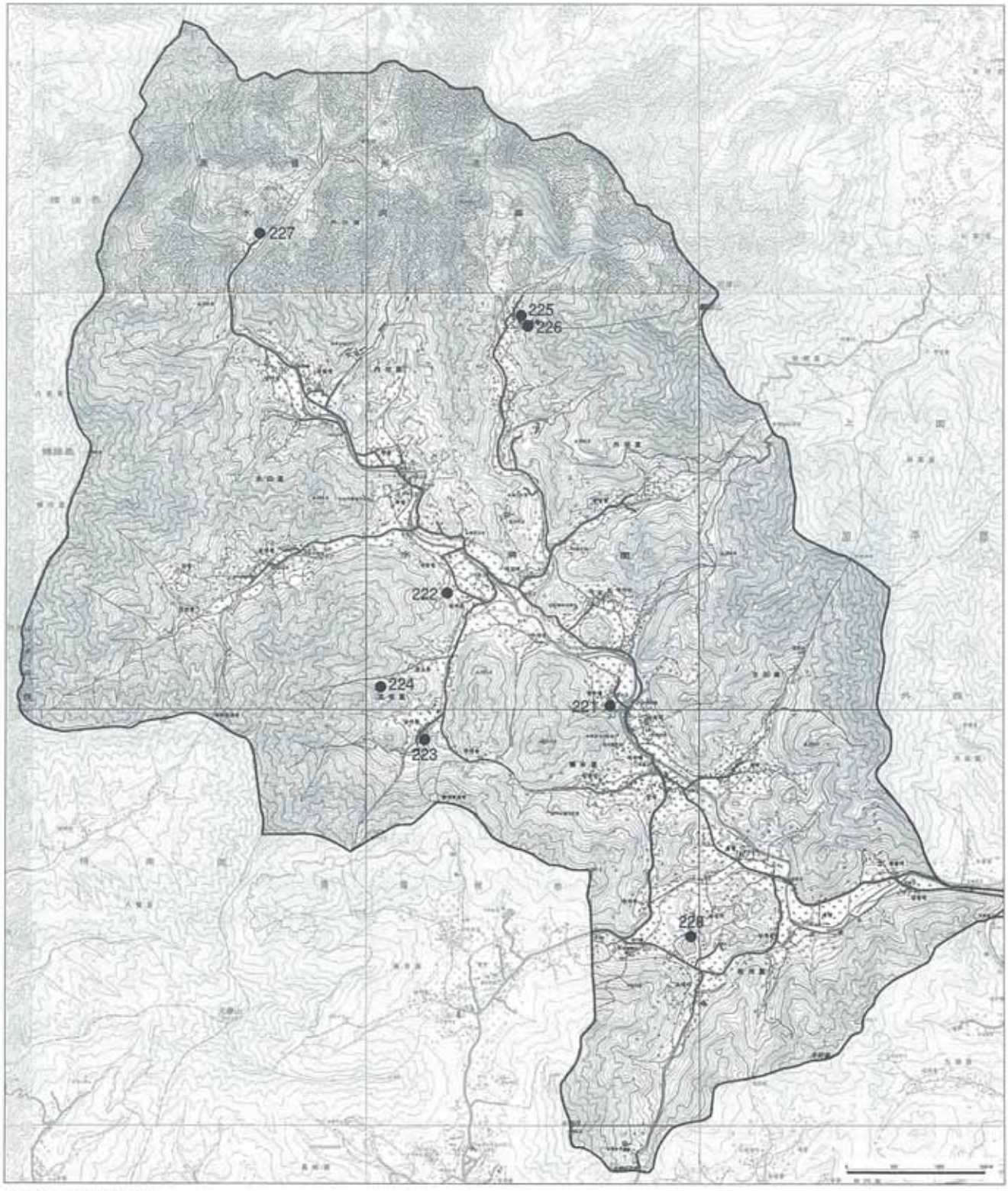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경기도박물관, 『京畿道佛蹟資料集』, 1999.

水洞面



수동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221. 南楊州 雲水里 느티나무



지도221 남양주 운수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13)



사진221 남양주 운수리 느티나무

□소재지 : 수동면 운수리 325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곧게 올라가다 주간높이 5m 부위에서 여러 갈래의 줄기로 갈라져 잎과 가지가 발달한 이 느티나무는 주간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내부줄기가 서로 엉키듯 휘감긴 형태이다.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뻗은 원정형의 모습으로 주간에 있던 동공이 치료된 후 수세가 회복되고 있는데 치료되기 전 의례 동공에선 부엉이가 새끼를 쳐서 나가곤 했다고 한다.

보호수 옆으로 흉고둘레 3.8m에 이르는 느티나무가 한 주 있는데 주간에 커다란 동공이 발생되어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동대문 바깥에서 제일 갑부였다는 원씨 부자의 99칸 한옥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감리교 교육원으로 변한 곳의 운동장 앞에 서있다.

수령 300년, 수고 18m, 흉고둘레 4.2m, 수관폭 15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44(1982. 10. 15)

222. 南楊州 芝屯里 支石墓群



지도222 남양주 지둔리 지석묘군 위치도(양수 013)

□소재지 : 수동면 지둔리 295-1전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선사시대분묘(지석묘)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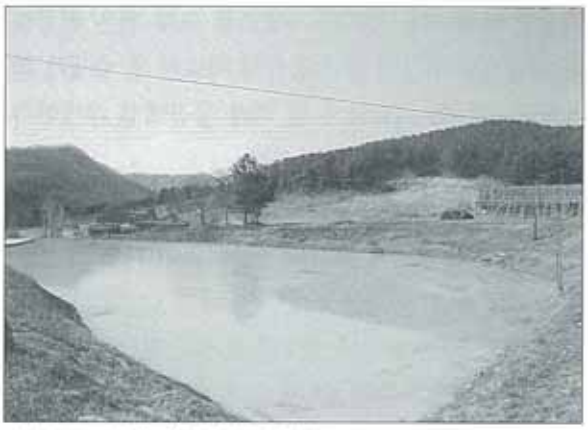

사진222-1 남양주 지둔리 지석묘군 원경


사진222-2 1호 지석묘


사진222-3 2호 지석묘


사진222-4 3호 지석묘

수동면 지둔리 원지둔마을 뒷편 야산 사면에 위치한 지석묘군으로 원지둔 마을에서 새창벌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변의 소규모 저수지 서편에 있다. 지석묘군 전방으로는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수동천이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흐른다. 이 일대에서 약 3기의 지석묘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 2기는 남방식, 1기는 북방식이다. 기술의 편의를 위해 북쪽에서부터 차례로 1,2,3호로 명명하였다.

① 1호 지석묘(사진222-2)

마을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옆에 위치한다. 규모는 장축 300㎝, 단축 170㎝, 높이 75㎝이다. 장축방향은 N-74°-W로 남북방향에 가깝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판석이 개석 하부에 박혀 있다.

② 2호 지석묘(사진222-3)

1호 지석묘에서 남쪽으로 약 50m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규모는 장축 500㎝, 단축 370㎝, 높이 150㎝이다. 장축방향은 N-40°-W로 수동천이 흐르는 방향과 일치한다. 평면형태는 모가 죽은 장방형에 가깝고 재질은 화강편마암이다. 하부구조는 외관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③ 3호 지석묘(사진222-4)

1호 지석묘에서 남쪽으로 약1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지석으로 보이는 2매의 판석이 박혀있고 개석은 이곳에서 약 2m 가량 남쪽으로 떨어져 있다.

개석의 규모는 장축 240㎝, 단축 175㎝, 두께 30㎝이다. 지석은 남동쪽으로 비스듬히 박혀 있는데 길이 110㎝이고 지석사이의 거리는 105㎝이다. 지석의 방향

으로 보아 원래의 장축방향은 N-60°-E로 북동-남서 방향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223. 南楊州 芝屯里 시무나무



지도223 남양주 지둔리 시무나무 위치도(양수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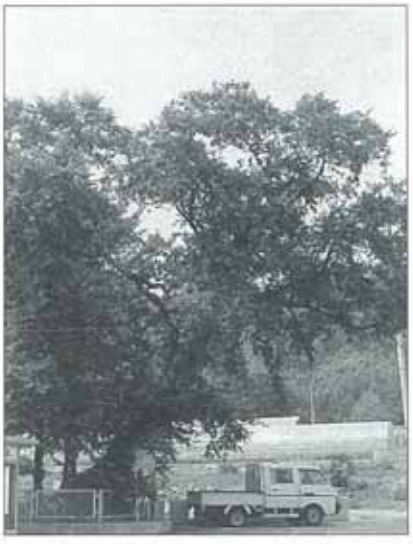


사진223 남양주 지둔리 시무나무

□소재지 : 수동면 지둔리 416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느티나무와 같은 科에 속하는 시무나무는 변종없이 단 한종만 존재하는 희귀한 수종으로 스무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이곳 사람들도 이 나무를 희귀수목이라 하여 귀하게 여겨왔다고 한다. 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자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른 봄 나뭇잎이 고르게 많이 피면 마을에 길조가 든다 하고 적게 피면 흉조가 들 것을 미리 알려주어 조심하도록 한 영험한 나무라 전해진다.

또한 나무속에 굴이 있어 커다란 구렁이가 살았다고 하며, 한국전쟁 당시 나무가 폭격으로 불길에 휩싸였으나 그슬리기만 하고 火死하지 않았다는 지둔리 삼각골의 당산목이다. 나무옆을 흐르는 개울쪽으로 주로 줄기가 뻗어 비스듬히 기운 형상으로 세로로 깊게 갈라지고 이끼가 잔뜩 끼어있는 주간에는 울룩불룩한 돌기가 생겨있다. 나무를 건드리면 좋지않다는 얘기가 전해오는 이 시무나무를 만나려면 362번 지방도를 타고 화도에서 수동방면으로 가다가 삼각골을 찾아 들어오면 된다.

수령 500년, 수고 15m, 흉고둘레 5.4m, 수관폭 16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42(1982. 10. 15)

224.南楊州 芝屯里 소나무

□소재지 : 수동면 지둔리 527-1(지도223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수동면 지둔 2리에 위치한 돌모루마을로 들어와 마



사진224 남양주 지둔리 소나무

을의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천마산쪽으로 500여 미터 올라가면 개울가 산비탈에 열한 그루가 무리지어 서있는 소나무 군락을 만날 수 있다. 고사목과 수세가 약한 나무 등이 섞여있는 노송군락은 기품있게 휘어진 줄기, 지난 연륜을 느끼게 하는 굵고 붉은 색이 선명한 수피, 늘씬한 나무위에 높이 형성된 수관으로 주변의 여러 수종 중 한눈에 들어오는 고고함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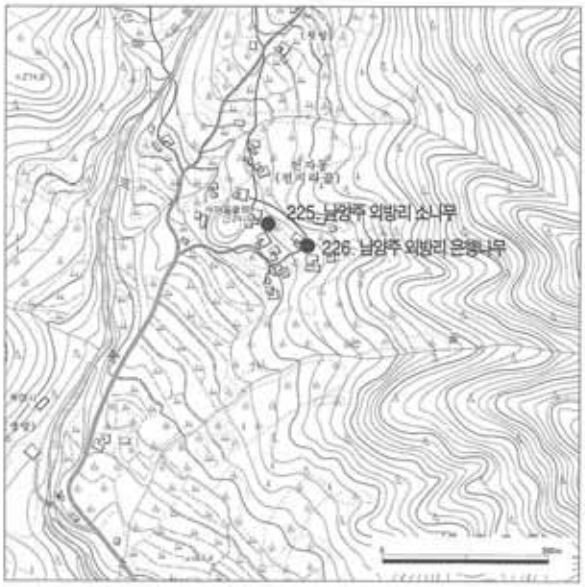
전체 열한 그루 중 다섯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는데 수령은 약 350년으로 추정되며 수피가 들뜨기도 하고 고사가지가 눈에 많이 띄는 전반적으로 수세가 약한 상태이다. 개울을 흐르는 물소리와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묻혀 세상을 잊은 모습으로 서있는 노송들을 보려면 지둔2리 돌모루마을로 들어와 뒷산을 오르면 된다.

수령 350년, 수고 15~16m, 흉고둘레 1.8~2.0m, 수관폭 12~13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45(1982. 10. 15)

225. 南楊州 外坊里 소나무



지도225 남양주 외방리 소나무 위치도(양수 003)



사진225 남양주 외방리 소나무

□소재지 : 수동면 외방리 182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祝靈山 아래 외방리 입구 서낭당터에 서 있는 이 소나무는 특유의 굽은 줄기와 높은 수관으로 고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보호수 옆으로 고사상태에 이른

한 그루의 소나무가 더 있는데 서로 인접한 부분은 상충으로 잎과 가지의 발달이 거의 없으며 뒤로 길게 측지가 발달하여 기운 형상이다.

예로부터 이 일대는 축령산 산신령인 호랑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해를 입히는 호환이 있어 마을주민들은 이 나무 밑에서 호랑이의 호환과 액운을 달래고자 매년 8월 한가위 또는 음력 10월중 길일을 택하여 부정이 없는 정갈한 백돼지를 잡아 제물로 올려 호환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산치성을 올렸다고 한다. 한일합방 후 이곳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산치성을 핑계로 음식 등을 제공하자 일본순사들의 강력한 단속이 시작되었고 그 후 서낭당에 치성을 드리는 마을 전통이 끊겼다고 한다.

원래 주변에 나무가 많았으나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이 불에 타고 그네를 매어 타기도 했던 이 나무만 남았다고 하는 외방리 전자동(전지라골) 마을의 당산목이다.

수령 400년, 수고 14m, 흉고둘레 2.8m, 수관폭 8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43(1982. 10. 15)



사진226 남양주 외방리 은행나무

226. 南楊州 外坊里 은행나무

□소재지 : 수동면 외방리 177(지도22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축령산에서 흘러내리는 외방천을 끼고 한적한 계곡에 서 있는 이 보호수는 사방으로 잎과 가지가 고루 발달한 활짝 펴진 부채모양으로 강건하고 씩씩한 기상을 자랑하고 있다. 숫나무로 근처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겨져있는 전지라골(전자동)마을에 서 있으며 바로 옆에 흉고둘레 2.1m의 은행나무가 있어 두 나무 사이에 넓은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다.

주간높이 3m 부위에서부터 측지가 발생하여 무성하게 잎과 가지가 발달한 전주이씨 선조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전자동마을의 정자목으로 여름철 계곡을 따라 흐르는 시원한 물과 그늘을 즐길 수 있는 민박집 옆에 자리하고 있어 여행객의 객고를 달래주고 있다.

수령 200년, 수고 18m, 흉고둘레 2.5m, 수관폭 17m.

□지도번호 : 마석 206-3

□비　　고 : 경기-남양주-50(1982. 10. 15)

227. 反共犧牲者 合同慰靈碑

□소재지 : 수동면 내방리 251-2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반공희생자 합동위령비는 1983년 11월 18일 남양주군 자유총연맹에서 건립한 것으로, 한국전쟁 때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지리멸렬한 인민군 패잔병의 급습으로 학살된 이 지역 주민 최선화, 이강호, 이대현



지도227 반공희생자 합동위령비 위치도(일동 092)



지도228 이유원 묘 위치도(양수 024)



사진227 반공희생자 합동위령비



사진228-1 이유원 묘

등 다수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립된 것이다.

□지도번호 : 연하 222-1

228. 李裕元 墓

□소재지 : 수동면 송천리 산90-2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사진228-2 이유원 묘 수장비

이유원(1814~1888)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京春이고 호는 橘山, 默農이며 본관은 慶州이다. 이항복의 9세손이며 이조판서 啓朝의 아들이다. 1841년(헌종 7)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예문관검열 · 규장각 대교를 거쳐 184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淸에 다녀왔으며 의주부윤과 함경관찰사를 지냈다. 철종연간의 안동김씨 세도정치 시대에 승진을 계속하여 고종 초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대원군이 집권하자 1865년(고종 2) 수원유수로 좌천되었다. 그해 말 다시 영중추부사로 선임되어 『大典會通』을 편찬하는 총재관이 되었다. 대원군의 집권하에서도 세자(후의 순종) 책봉문제로 하나부사(花房義質)와 결탁하여 駐淸日本公使를 통하여 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민비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사대외교 등 대청관계 때문에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자 영의정이 되었다. 이후 대원군과 반목하였으며 1875년 奏請使의 正使로 청에 가서 李鴻章과 세자 책봉문제를 논의하였다. 1879년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청의 북양대신으로 외교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홍장으로부터 영국 · 프랑스 · 독일 · 미국 등 구미제국과 수호 통상하여 일본의 진출과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라는 권유를 받고 개항을 주장하였다. 1880년 奉朝賀에 임명되었고, 1882년 임오군란 후 일본과 제물포조약이 체결될 때 전권대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林下筆記』, 『嘉梧藁略』, 『橘山文稿』등이 있으며 시호는 文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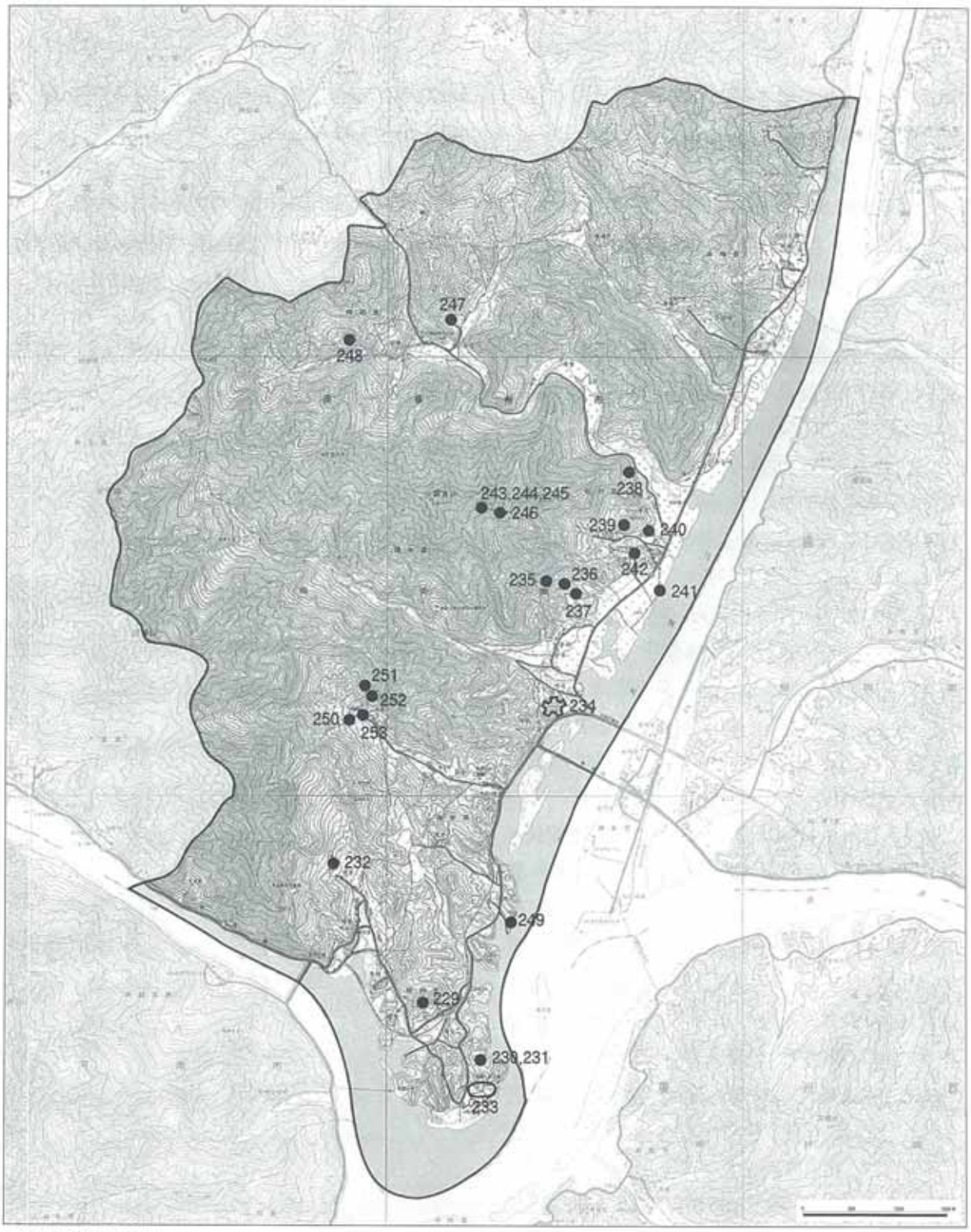
묘역은 수동면 송천리에 부인 동래정씨와 합장묘로 되어 있다. 원형 봉분 앞에는 작은 대리석으로 만든 墓表가 있는데, 일반적인 묘표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 앞에 상석 · 계체석 · 직사각형의 향로석 · 민무늬의 8각망주석 · 장명등의 석물이 있다. 장명등은 높이 156㎝로 특히 문양이 화려한데 하단에 난초문양을 새기고 그 위에 안상문과 화문을 조각했다.

壽藏碑는 봉분 우측에 있는데, 총 높이 188㎝로 민무늬의 장방형 비좌에 대리석의 비신 및 평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5열로 "朝鮮翰林春秋擔文院待制南床典經起居注鳳閣舍人藝文館直學士 奎章閣直學士同國子事都御史壽司愧院提學 賜級八座李橘山裕元壽藏之表 配東萊鄭夫人"이라 하였다. 이 비는 직접 지은 것으로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262年, 즉 1900년 가을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50㎝ · 너비 76㎝ · 두께 63㎝, 비신 높이 110㎝ · 너비 40㎝ · 두께 26.5㎝, 평옥개석 높이 28㎝ · 너비 77㎝ · 두께 64㎝이다.

壽藏碑는 이석규 묘비 바로 옆에 있다. 민무늬의 비좌에 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전면 상단에는 "朝鮮李橘山尙書壽藏碑記"라 하였고, 이 비문에는 4면에 8명이 쓴 글씨가 새겨져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58㎝ · 너비 110㎝ · 두께 79㎝, 비신 높이 156㎝ · 너비 65㎝ · 두께 35㎝이다.

□ 지도번호 : 마석 206-3

鳥安面



조안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229. 韓確 墓 및 神道碑



지도229 한확 묘 위치도(양수 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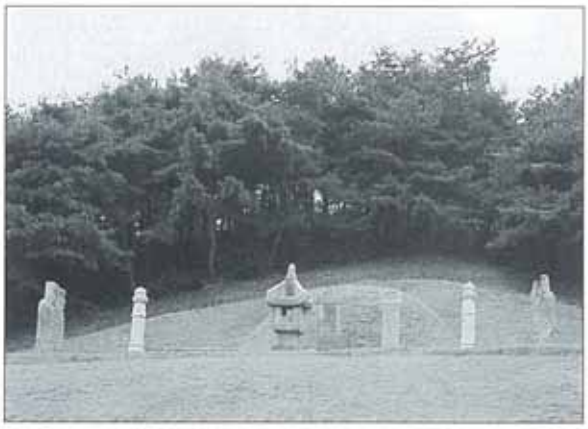


사진229-1 한확 묘

□소재지 : 조안면 능내리 산69-5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한확(1403~1456)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子柔이며, 본관은 淸州, 호는 簡易齋, 시호는 襄節이다. 고려 시중 康의 후손으로 순창군수 영정의 아들이다. 누이가 明 成祖의 後宮이 되니 明에 들어가 벼슬을 지내면서 수 차례 모국과 왕래하면서 國交를 원활히 하였다.



사진229-2 한확 묘 장명등(사모지붕에 방형의 화창은 2개소만 마련하였다)

묘는 조안면 능내리의 능내역과 인접한 도로변에 正南向하고 있다. 동서 직경 750㎝, 높이 240㎝의 원형 봉분은 용미가 없는 대신 활개를 갖추고 있다. 묘 앞에는 2기의 묘비가 있는데, 우측 것은 옛것으로 글씨가 마모되어 있다. 비좌와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대석의 하단은 고려양식의 眼象紋을 장식하였다. 크기는 비좌 높이 44㎝ · 너비 75㎝ · 두께 29㎝, 비신 높이 128㎝ · 너비 65㎝ · 두께 24㎝, 옥개석 높이 29㎝ · 너비 45㎝ · 두께 75㎝이다. 왼쪽의 비는 옛것을 모방하여 새로 만든 것이다. 묘비 앞의 상석과 좌우의 망주석은 새로 만든 것이다. 상석 앞에는 향로석이 있고, 묘 중앙의 장명등은 높이 220㎝의 대형으로 전후 방형화창석과 사모지붕의 웅장한 모습이다. 좌우의 문인석은 높이 201㎝로 머리부분의 幞頭는 납작하며, 큰 눈을 부리하게 뜨고 턱수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우측의 문인석은 신체에 비해 홀을 맞잡은 두 손이 왜소하다. 전체적으로 조선초기의 석물에서 보이는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고 화려하다. 그것은 왕실과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석물을 화려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神道碑는 묘소 입구에 西向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

의 비각내에 보존되어 있다. 총 높이 370㎝로서 장방형의 화강암재 비좌 위에 대리석의 비신과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20㎝×400㎝의 지대석 위에 2중의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 놓았는데 상부에는 覆瓣의 蓮花文을 새겼고, 아랫부분은 2층으로 나누어 각각 眼象文을 새겼다. 비신은 이수와 一石으로 前後 2면에 비문이 있는데, 마모가 심하여 비문이 명확하지 않다. 前面 상부에 篆書로 "襄節韓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碑文은 한확의 막내딸로 德宗의 비가 된 仁粹大妃가 부친의 묘에 비가 없음을 슬퍼하자 1494년(성종 25) 4월 왕이 右參贊 漁世謙에게 명하여 비문을 짓게 하고 한확의 셋째 아들 韓致禮에게 비의 건립을 맡게 하여 이듬해에 세웠다. 글씨는 성종의 사돈 任士洪이 썼는데 서체는 부드러운 송설체이다. 비문에는 그의 누이가 明 成祖의 후궁이 된 뒤 수차 왕래하며 국교를 원활히 했던 그의 행력이 기술되었고, 그의 자녀와 인수대비 소생인 성종 · 월산대군 · 명숙공주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 碑陰에는 번성했던 후손들의 명단이 앞면보다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 이수(126×104×54㎝)는 전 · 후면에 걸쳐 발톱이 4개씩인 쌍용이 雲文속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을 우수하게 조각하였는데 좌측의 용은 입을 열고 혀를 널름거리고 있는 반면, 우측의 용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비　　고 : 유형문화재 제127호

□참고문헌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3, 199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230.丁若鏞 墓



지도230 정약용 묘 위치도(양수 093)



사진230 정약용 묘

□소재지 : 조안면 능내리 산75-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정약용(1762~1836)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初字는 歸農, 자는 美鏞, 호는 俟菴 · 紫霞道人 · 鐵馬山人 · 茶山 등이며, 당호는 與猶이다. 본관은 羅州이며, 父는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이다. 母는 해남윤씨로서 윤두서의 손녀이다. 경기도 광주군 마현리(馬峴里 : 지

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민생을 위한 經世致用의 학문에 뜻을 두고 당시의 새로운 학문인 西學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1792년(정조 16) 홍문관수찬으로 있을 때는 거중기를 제작하여 수원성의 축조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그는 『마과회통』, 『흠흠신서』 30권, 『경세유표』 49권, 『목민심서』 48권 등 500권의 광대한 책을 펴낸 대저술가이자 정치 · 경제 등 제도개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묘는 조안면 능내리에 선생을 모신 유택인 여유당과 함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숙부인 풍산홍씨와의 원형 합장묘로 南向하여 용미를 갖추고 있다. 묘 앞의 비는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모양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에는 2열로 "文度公茶山丁若鏞 淑夫人豊山洪氏 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1.5㎝ · 너비 129㎝ · 두께 90㎝, 비신 높이 179㎝ · 너비 69.5㎝ · 두께 34.2㎝, 옥개석 높이 62㎝ · 너비 119㎝ · 두께 81㎝이다.

묘역에는 새로 담장을 만들어 세우고,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6각향로석이 있으며, 봉분 좌측에는 1974년 건립된 비가 있다. 계체석과 상석 우측에는 제단이 있고, 그 앞에 또 하나의 비와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 옆에는 높이 250㎝, 너비 10㎝의 비석과 상석, 그리고 좌우에 망주석이 배열되어 있다. 묘 앞에는 1959년에 세운 묘비 2기와 자연석에 與猶堂이라 쓴 비 1기가 있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비　　고 : 지방기념물 제7호

□참고문헌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3, 199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231. 與猶堂



사진231 여유당 현판

□소재지 : 조안면 능내리(지도23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목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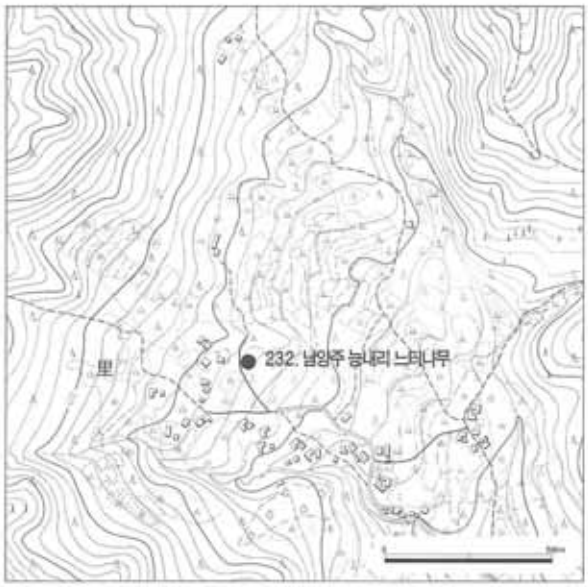
□내　용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初字는 歸農, 자는 美鏞, 호는 俟菴 · 紫霞道人 · 鐵馬山人 · 茶山 등이며, 당호는 與猶이다. 본관은 羅州이며, 아버지는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이다. 어머니는 해남윤씨로서 윤두서의 손녀이다. 경기도 광주군 마현리(現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다.

여유당은 본래 한강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26년 을축년 대홍수로 소실된 것을 현재 위치에 다시 복원한 것이다. 현재는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고 소박한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 다산 생가와는 거리가 있는 느낌이다. 사랑채 앞에 "與猶堂"이라는 현판을 붙여 놓고 있으며,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집으로 보인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232. 南楊州 陵內里 느티나무



지도232 남양주 능내리 느티나무 위치도(양수 082)



사진232 남양주 능내리 느티나무

□소재지 : 조안면 능내리 767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능내 3리 봉안마을내 상봉에 자리잡고 있는 이 느티나무는 수고에 비해 수관이 넓고 풍성하게 형성되어 넉넉한 그늘로 마을 사람들의 고마운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이다. 주간높이 1.2m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는 3개였던 줄기 중 제일 굵은 줄기가 태풍으로 부러졌다고 한다. 부러진 자리에 10㎝×10㎝ 크기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동공이 발생되어 있으며 충해를 입었으나 수세는 양호한 편으로 사방으로 고루 뻗은 잎과 가지로 전체 모습은 원정형이나 동쪽으로 약간 기운 형상이다. 나무에 그네를 매어타고 고사를 지냈었으나 인근 밭에 있던 당집을 없앤 후부터 고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위에 산새소리에 묻힌 채 서 있는 이 나무를 만나려면 6번 국도를 타고 양수리 방향으로 가다가 봉안마을을 찾아 포장도로를 따라 마을 깊숙이 올라가면 된다.

수령 500년, 수고 16m, 흉고둘레 5.0m, 수관폭 25m.

□지도번호 : 양수 206-1
□비　　고 : 경기-남양주-18(1982. 10. 15)

233. 南楊州 陵內里 유물산포지



사진233-1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소재지 : 조안면 능내리(지도230 참조)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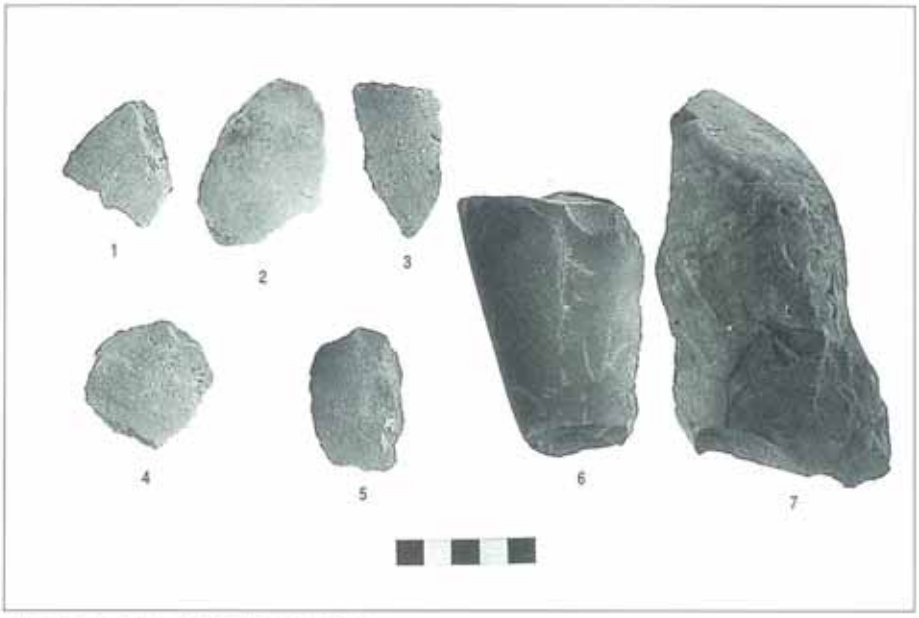


사진233-2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1) 위치와 현황

조안면 능내리 마현마을 일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정약용 선생 묘역 남쪽의 경작지 일대부터 북한강변의 사구지역 전면에 걸쳐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면서 약간 굽어 흐르는 지역의 안쪽으로 퇴적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최근 양평군 양수리 일대에서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 부존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확인된 바 있어 이와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춘 이 곳에서도 대규모 선사유적의 존재가 예견된다.

채집된 유물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과 약간의 석재 등이다. 향후 이 지역 분 아니라 인근의 하안 퇴적지 일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형질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화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채집유물

① 무문토기 동체편(사진233-2-1, 도면233-1)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하단부가 두터워지는 것으로 보아 저부에 가까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외면은 갈색, 내면은 황갈색, 속심은 검은색을 띠고 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정면이 이루어져 기면이 매끈하고 안정되어 있으나 내면은 다소 거칠다. 태토는 점토에 약간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 0.8~1.2㎝이다.

② 무문토기 동체편(사진233-2-2, 도면233-2)

기형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외면은 갈색, 내면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외면은 잘 안정되어 있다. 태토는 점토에 약간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 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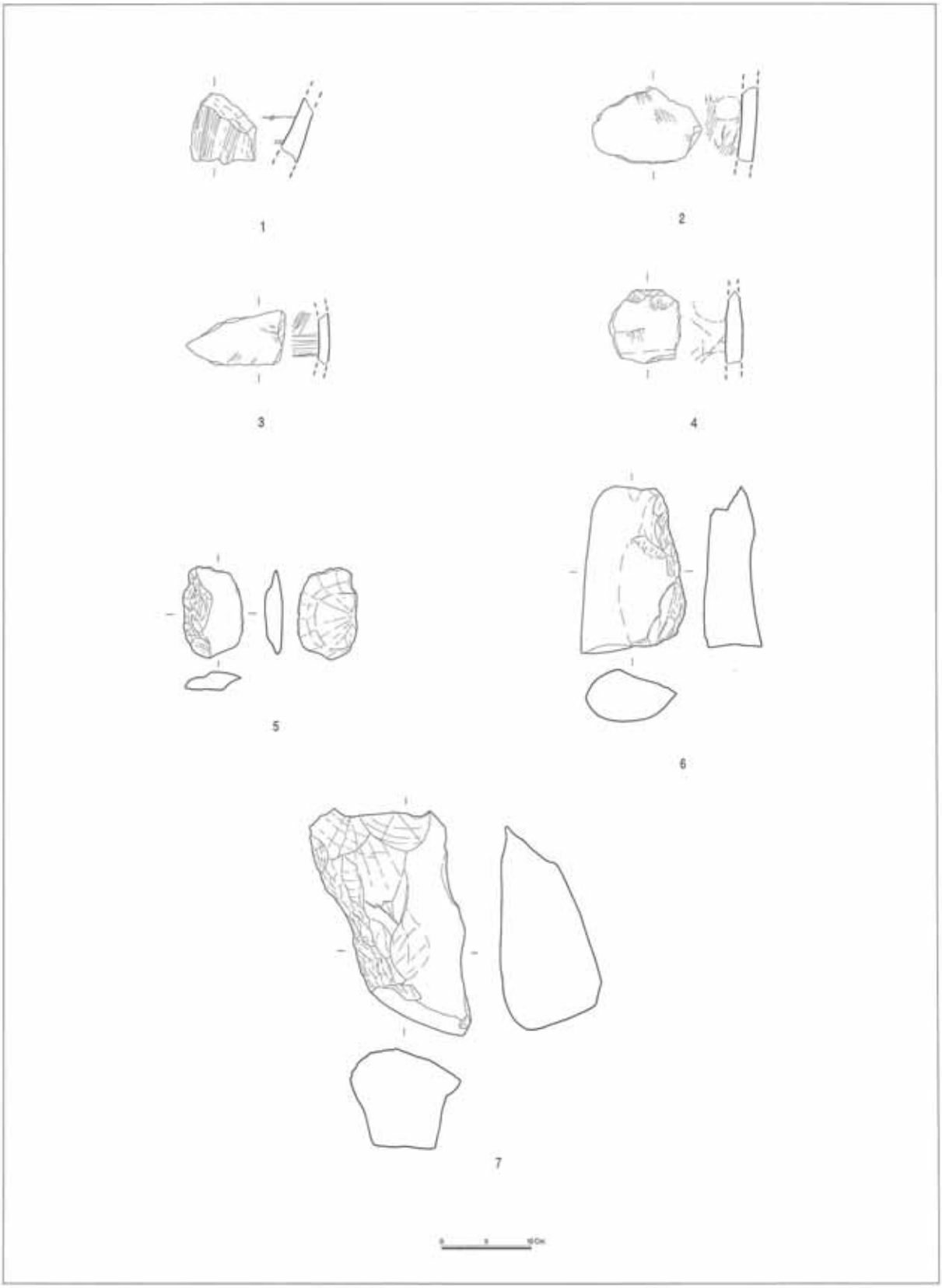
③ 무문토기 동체편(사진233-2-3, 도면233-3)

기형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내면에 주로 횡방향으로 도려진 목리정면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내외면 모두 잘 정면되어 매끈하다. 외면은 황갈색, 내면은 옅은 회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점토에 약간의 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 0.5㎝이다.

④ 무무토기 동체편(사진233-2-4, 도면233-4)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비교적 단단하게 소성되어 있다. 외면은 암갈색, 내면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점토에 약간의 굵은 석립과 세석립을 섞어 썼다.



도면233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기벽두께 0.7㎝이다.

⑤ 박편(사진233-2-5, 도면233-5)

강돌을 다듬어 석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로 보여진다. 등면에 앞서 서너 차례에 걸쳐 떨어져 나간 박리흔이 보이고 배면에는 일격에 몸돌에서 분리될 때 생긴 방사상의 박리흔과 비교적 넓게 자리잡은 타격 혹이 잘 남아 있다.

길이 5.2㎝, 폭 3.3㎝, 두께 1.0㎝이다.

⑥ 석기 반제품(사진233-2-6, 도면233-6)

길쭉하고 매끈한 강돌을 측면에서 직각타격하여 박리를 시도한 석기 반제품이다. 제작하고자 의도하였던 석기가 어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몸돌의 형태로 보아 석부류를 제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성형과정에서 몸체가 반파되자 더 이상의 제작을 포기한 채 폐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측면과 선단부에 타격흔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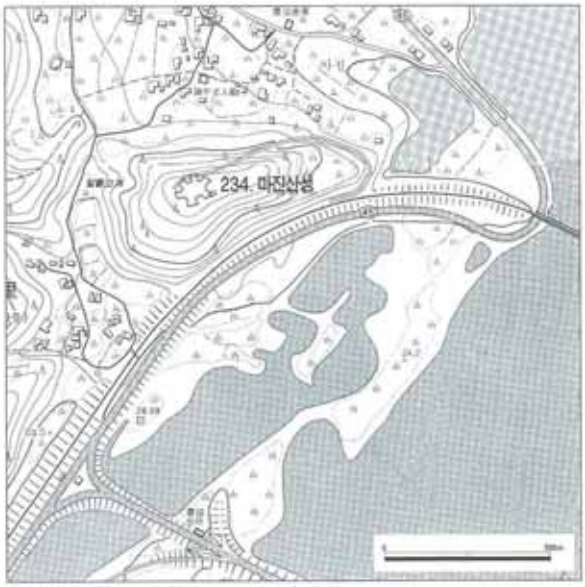
길이 9.2㎝, 폭 6.1㎝, 두께 3.3㎝이다.

⑦ 석핵(사진233-2-7, 도면233-7)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강돌을 타격하여 박편을 얻어내고 다시 수차례의 타격을 통해 성형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석핵이다. 조직이 너무 단단하여 의도한 대로 성형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길이 13.5㎝, 폭 7.5㎝, 두께 5.6㎝이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지도234 마진산성 위치도(양수 073 · 083)



사진234-1 마진산성 원경



사진234-2 마진산성 근경

234. 馬鎭山城

□소재지 : 조안면 진중리 산5-1임 일대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성(보루)

□내 용

(1) 위치 및 현황

마진이란 마촌과 진촌을 합친 마을을 의미하며 진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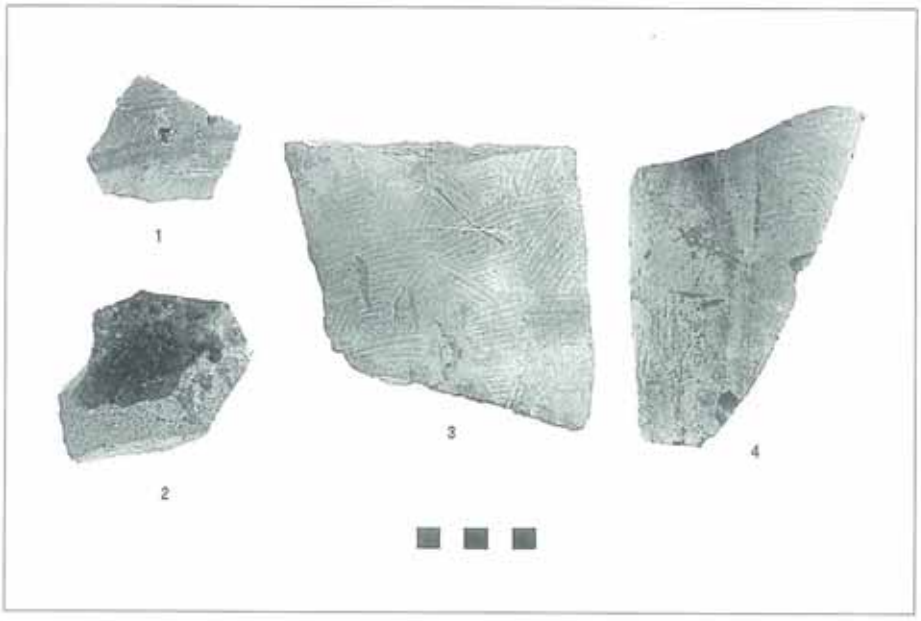


사진234-3 마진산성 출토유물

에는 옛날 진을 쳤다고 하는데 그 진터는 지금 도로변에 접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정상부에는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성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면해 있는 구릉 사면은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밭고랑 사이에서 와편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와편은 대부분 청해파문을 주로 하는 조선시대 기와이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변응성장군의 전적지로 알려져 있다. '마진산성'이라는 이름은 말로 진을 쳤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이곳에 청동으로 만든 말이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변응성 장군의 묘역은 이곳에서 북쪽으로 1.3㎞ 지점에 있으며, 변응성장군과 관련된 지명으로 마진의 남쪽에 마이뜰, 마뜰이 있는데 이것은 임진왜란때 변장군이 군사가 많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적은 수의 말로 계속 돌게끔 해서 군사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장소라고도 전해지는데 말을 풀어놓고 키웠던 들이라서 마이뜰 또는 마뜰이라고 불린다고도 한다. 이 외에도 마진, 진말이 있는데 진말이란 이름은 임진왜란때 변응성 장군이 진을 쳤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채집유물

① 회색토기 저부편(사진234-3-1, 도면234-1)

회백색의 연질토기편으로 평저의 바닥에서 동체부는 약 50°의 완경사를 이루며 부착되어 있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표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표면과 내면은 물손질정면 후 마연하였다.

두께는 0.6㎝이다.

② 흑유토기 저부편(사진234-3-2, 도면234-2)

흑유토기 항아리의 저부편으로 바닥과 동체부의 일부만이 남아 있다. 평저의 바닥에서 동체부는 75°정도의 경사를 이루며 부착되어 있으며 바닥은 안쪽으로 약간 들린 상태이다. 표면에는 흑유가 두텁게 시유되어 있으나 시유상태가 불량하다. 태토에는 사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두께는 0.8㎝이다.

③ 청해파문 암키와편(사진234-3-3, 도면2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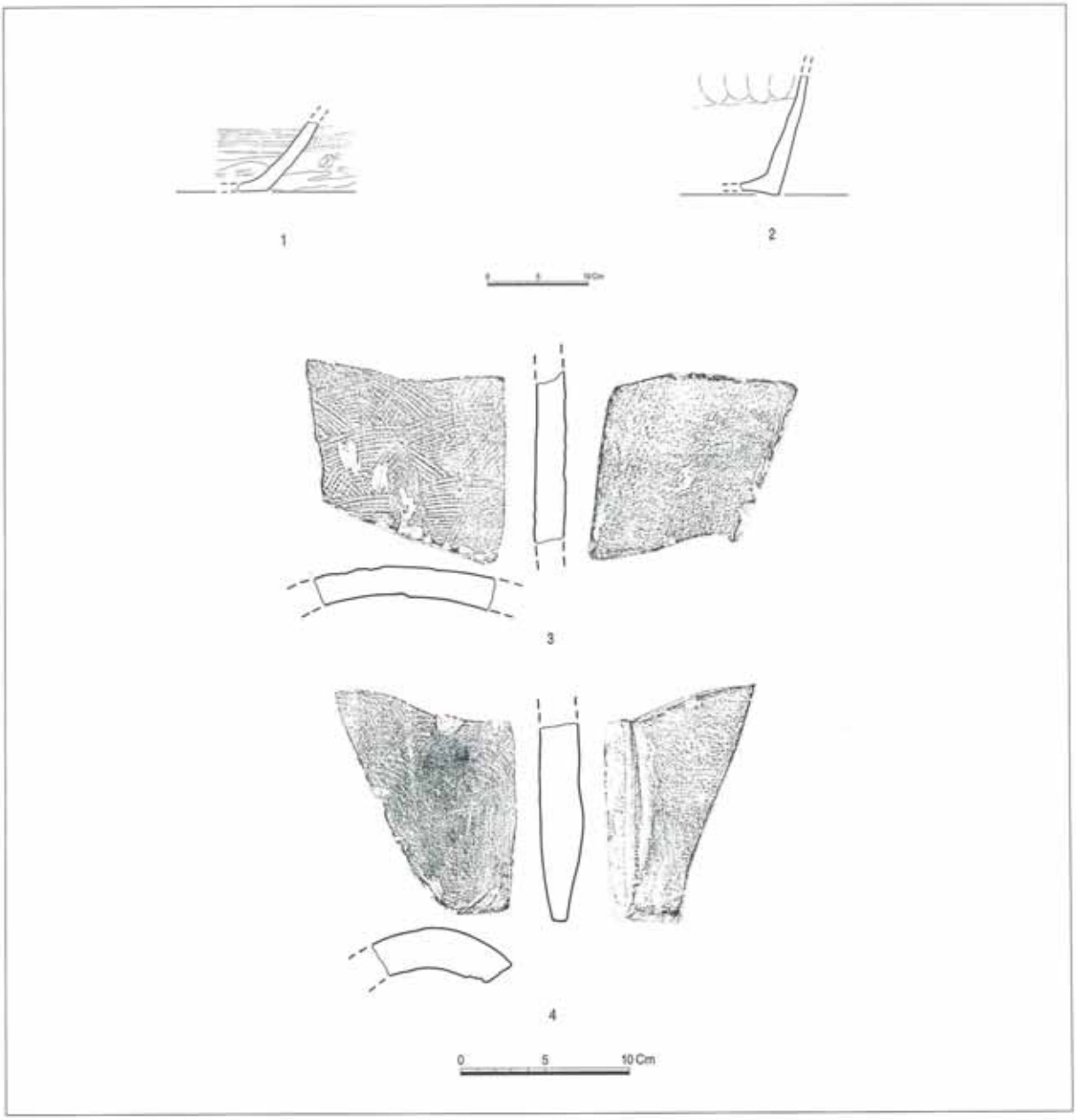
고동색을 띠고 있으며 표면에는 청해파문이 타날되어 있고, 안쪽에는 물손질 정면을 하여 포흔이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약간의 사립이 혼입되어 있으나 곳곳에 있는 균열부의 상태로 보아 점토판의 수비가 불량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께는 1.8㎝이다.

④ 청해파문 수키와편(사진234-3-4, 도면234-4)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으로 등에는 거의 마멸되기는 했지만 청해파문이 타날되어 있다. 측면은 와도릉 나쪽에서 1/3정도 그은 후 잘랐으며, 절단면의 안쪽에는 분할선으로 보이는 홈이 종방향으로 생성되어 있다. 안쪽에는 조밀한 포흔이 찍혀 있으며, 와구부는 빗깎기를 하였다.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으며, 두드리면 쇳소리가 날 정도로 소성상태가 양호하다. 두께는 2㎝이다.

□ 지도번호 : 양수 206-1



도면234 마진산성 출토유물

235. 南楊州 鎭中里 石槨墳



지도235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위치도(성동067)



사진235-1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전경



사진235-2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근경

□소재지 : 조안면 진중리 산1-1임

□시 대 : 삼국시대

□종 류 : 고분

□내 용

(1) 위치와 현황

국도에서 방향으로 가다가 조안보건소를 지나 10m 정도가면 좌측으로 소로가 나오는데 이 소로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포장도로가 끊어지고 개울을 건너는 나무다리가 나온다. 이 나무다리를 건너 능선을 타고 정상부로 올라가다 보면, 변협, 변응성묘소가 나오며 이 묘역을 지나 300m 정도 올가가면 소로의 좌측에 고분의 흔적이 보인다.

이곳은 해발 610m인 운길산의 동남사면으로 정상부에서 급경사를 이루다가 완경사가 시작되 해발 100m 지점이다. 현재 고분의 가운데 부분을 덮었던 뚜껑돌이 도굴로 인하여 열려진 상태이며, 고분내부에는 벽석과 흙이 바닥부분에 쌓여있다.

고분은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남-북쪽에서 60° 편서하고 있다. 벽석은 30~40㎝ 정도의 면을 다듬지 않은 할석을 포개서 쌓아 매우 거칠고 조잡한 느낌을 준다. 특히 모서리부분은 벽석이 맞물리면서 안으로 들어와 말각을 이루고 있으며 바닥부분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약간씩 안으로 좁아들게 쌓은 후 역시 다듬지 않은 할석 5매 정도를 뚜껑돌로 덮어놓았다. 그중 2개의 뚜껑돌은 이동되어 고분의 주변에 굴려져 있다. 바닥에서 천정석까지는 6단 정도가 쌓여 있다.

고분의 규모는 장축 210㎝ 중간부분의 폭 104㎝, 높이는 97㎝ 이며, 벽석의 크기는 대략 60㎝×20㎝, 40㎝×20㎝, 50㎝×40㎝, 40㎝×25㎝ 등으로 일정치 않으며, 천정석은 110㎝×90㎝×25㎝ 정도이다. 고분 주변은 약간의 분구형태로 솟아있으며, 직경은 약 7m 정도이다.

고분의 바닥이나 주변에서 유물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동물의 이빨로 보이는 것만 두 점 수습되었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유물이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사진235-3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주변 출토유물

없지만 고분의 축조방법이 조잡하고, 장축방향이 남-북향에서 많이 이탈해 있는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분의 아래쪽에는 민묘주변에서 고려시대의 토기편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고분의 주변에는 할석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고분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대규모의 고분군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채집유물

석곽분과 주변에서는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능선상의 노출된 지표면에서 회청색 경질토기류와 자기편, 무문토기편이 발견되었다.

① 무문토기편(사진235-3-1, 도면235-1)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평저의 바닥에서 축약되어 굽을 이루고 동체부로 연결되고 있다. 태토는 점토에 1㎜ 내외의 석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② 백자편(사진235-3-2, 도면2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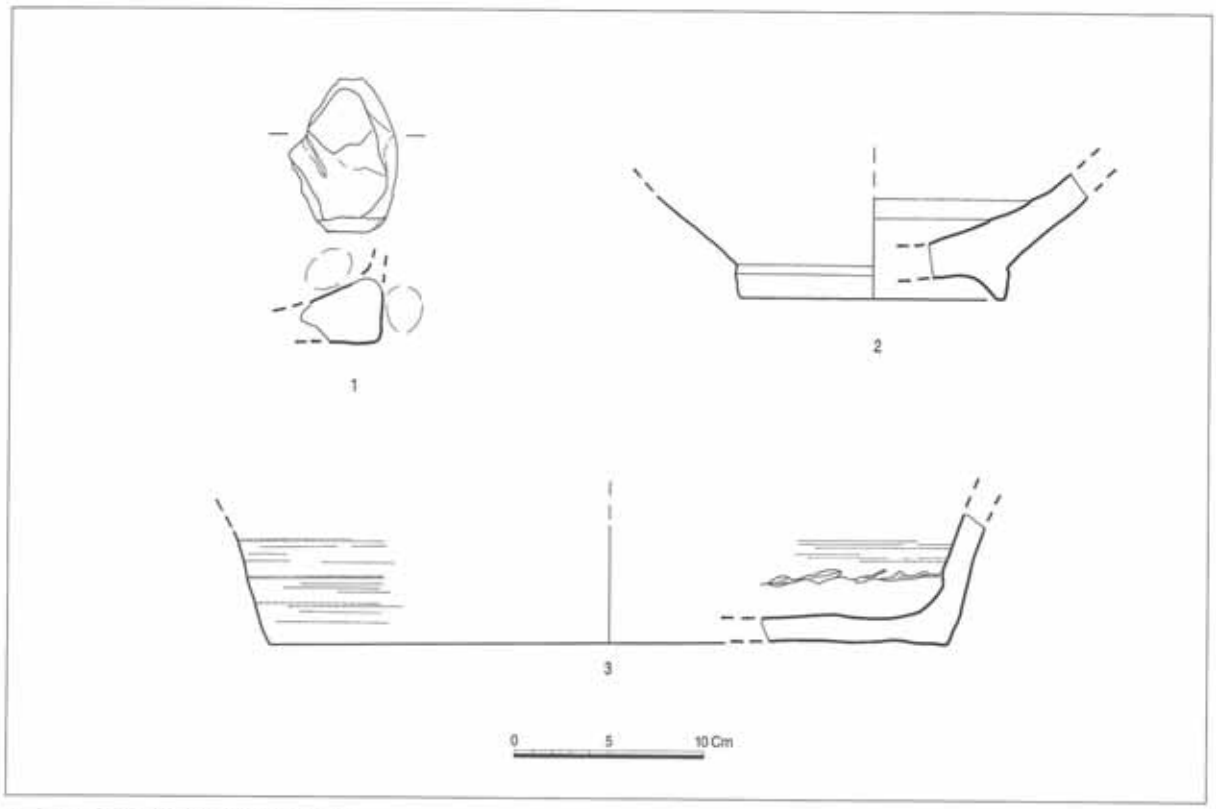
백자접시의 저부편이다. 태토받침을 하였으며 소성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추정저경은 7㎝이고, 두께는 0.9㎝이다.

③ 호형토기 저부편(사진235-3-3, 도면235-3)

회청색 경질의 호형토기 저부편이다. 얇은 평저의 바닥에 동체부는 약 70°의 경사를 이루면 연결되고 있다. 내면에는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화되어 황백색을 띠고 있다.

두께는 0.6㎝이다.

□ 지도번호 : 양수 206-1



도면235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주변 출토유물

236. 邊協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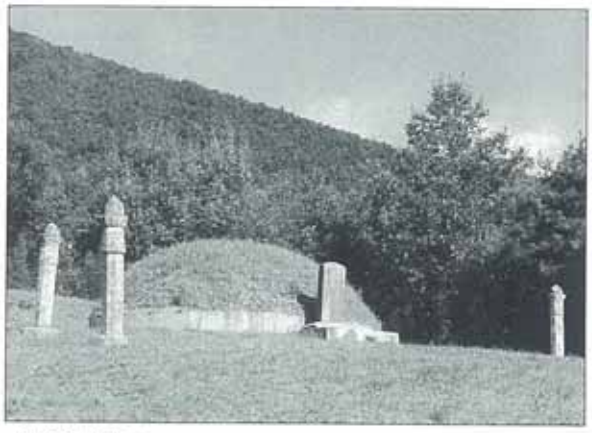


사진236 변협 묘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산26-4(지도23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변협(1528~1590)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和中, 호는 南湖, 본관은 원주이며, 父는 중추부경력 季胤이다. 어려서부터 재주와 용맹이 뛰어났다. 1548년 무과에 3등으로 급제하고 선전관을 거쳐, 1555년(명종 10)에 해남현감이 되었다. 이때 을묘왜변이 일어나 왜선 600여 척이 전라도에 침범하여 병사 元績, 장흥부사 한온을 죽이고 영암군수 이덕견을 생포한 뒤, 연이어 난포 · 마도 · 장흥부병영 · 강진현 · 가리포를 차례로 함락하고 해남으로 침입하려 하자, 섬을 방어하고 왜구를 격퇴한 공으로 장흥부사가 되었다. 또 이때 明

사람으로서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던 자를 잡아서 明에 돌려보내어 명으로부터 은과 비단을 상으로 받았다. 그 뒤 제주목사가 되었는데 1565년 문정왕후가 죽고 보우가 제주도에 귀양오자 조정의 명에 따라 그를 참살하였다. 1587년(선조 20) 전라우방어사가 되어 녹도 · 가리포의 왜구를 격퇴하였으며, 그후 공조판서 겸 도총관과 포도대장을 역임하였다. 일찍이 파주목사로 재직할 때 이이로부터 『周易啓蒙』을 강론받았으며, 천문 · 지리 · 산수에도 정통하였다. 변방 10여 군현을 순시하여 산천도로의 형세를 조사하여 도표로 만들어 적침에 대비하였으며, 천문을 관측하여 변란을 예측하기도 하였는데, 그가 죽은 지 2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왜란 때 신립이 군사를 이끌고 문경새재로 떠날 때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본 선조는 변협을 良將이라 칭찬하며 그가 없음을 아쉬워하였다.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襄靖이다.

묘는 조안면 송촌리의 운길산 변응성 묘 아래에 東南向하여 정면에 北漢江을 굽어보고 있다. 조안에서 마석간 45번 국도변에 있는 조안면보건지소 앞의 수종사입구 버스정류소에서 우측으로 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나즈막한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묘는 정경부인 화순최씨와의 합장묘로 직경 740㎝ · 높이 200㎝이다. 봉분에는 높이 40㎝, 길이 240㎝인 8매의 호석을 높이 14㎝, 길이 190㎝인 받침대 위에 원형으로 둘렀고, 봉분 앞에는 복련문의 비좌에 비신 월두형의 墓表가 있다. 비신 前面에는 6열로 "資憲大夫工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總管知訓練院事贈純忠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原興府院君邊公之墓 貞敬夫人和順崔氏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44㎝ · 너비 85㎝ · 두께 55㎝, 비신 높이 117㎝ · 너비상 50㎝ · 下 48㎝ · 두께 19㎝이다.

묘비 앞에는 계체석 위에 상석이 얹혀져 있고, 6각향로석과 앙화를 조각하고 안상문을 새긴 망주석이 각각 2기씩 있는데, 상단의 망주석 2기는 6각받침대가 있으나, 하단의 망주석 2기는 6각받침대가 없는 대신 간주석에 다람쥐 조각을 양각했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237. 邊應星 墓



사진237 변응성 묘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산26-4(지도23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변응성(1522~?)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원주이며, 父는 공조판서 겸 도총관 協이다. 1579년(선조 12) 무과에 급제하였고, 강계부사를 역임한 끝에 부친의 상을 당하여 물러가 있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주부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起服 중이었지만, 국난을 당하여 부름을 받고 임지인 경주부로 출발하였다. 그가 경주에 도착했을 때 경주는 이미 왜군에게 점령된 뒤여서 부임하지는 못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경상우수사가 되어 좌병사 박진을 따라 경주 읍성 탈환전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탈환전은 조총을 앞세워 파죽지세로 공격해오는 왜군을 맞아 실패하고 말았다. 이듬해 유성룡의 천거로 경기방어사가 되었다. 이천부사가 되어서는 여주목사 원호와 협력하여 남한강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것이 이른바 馬灘전투인데,

이때 그는 민첩한 기만 · 기습작전을 전개하였다. 즉 군사를 실은 병선 위에 천을 덮어 화물선으로 위장한 다음 강변으로 접근하여 화살을 비오듯이 퍼부었던 것이다. 병선을 화물선으로 오인한 왜군은 아무런 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여 수십명의 군사가 죽고 나머지는 황급히 도주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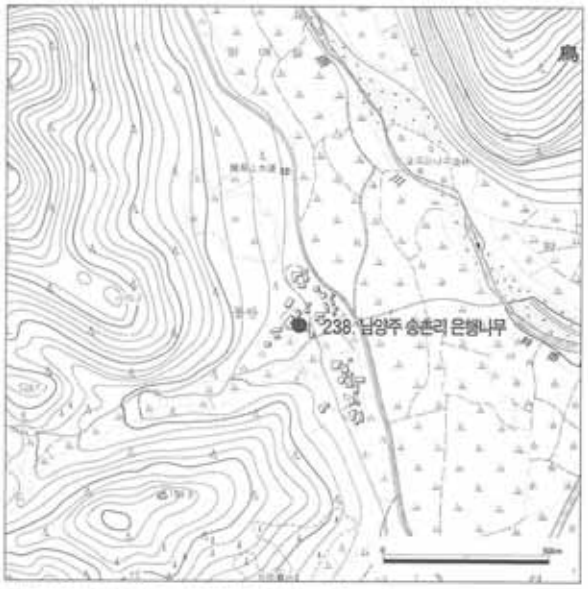
1594년 광주 · 이천 · 양주의 산간에 출몰하는 土賊을 토벌하였으며, 한강상류 용진에 승군을 동원하여 목책을 구축하여 병졸을 훈련하였다. 1596년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용진과 여주 파사성을 수비하였다. 광해군 때에 훈련대장과 판윤에까지 승진하였다. 1612년(광해군 4) 박응서의 옥사에 연루되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襄惠이다.

묘는 조안면 송촌리 운길산 변협의 묘 위에 東南向하여 정면에 北漢江을 굽어보고 있다. 정부인 여산송씨와의 쌍봉으로 '∴' 형태를 하고 있는 묘역의 제일 상부에는 청송심씨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이중 장군의 묘는 묘역 좌측의 호석을 두른 묘로 직경 560cm · 높이 190cm이다. 봉분에는 높이 40cm, 길이 220cm인 8매의 원형호석을 원형 받침대 위에 둘렀다. 그 앞에 복련문 비좌에 비신 월두형의 墓表가 있다. 비신 前面에는 4열로 "效忠奮義翼 社功臣資憲大夫漏川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知訓練院事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邊公之墓 貞夫人礪山宋氏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0cm · 너비 74cm · 두께 45cm, 비신 높이 132cm · 너비 54.5cm · 두께 13cm이다. 그 앞에 계체석 위에 상석이 얹혀져 있고, 검게 돌이끼가 있는 6각 향로석이 있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앙화와 안상문 및 간주석에 석수문양을 양각한 높이 184cm의 망주석이 있다.

□ 지도번호 : 양수 206-1

238. 南楊州 松村里 은행나무



지도238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위치도(양수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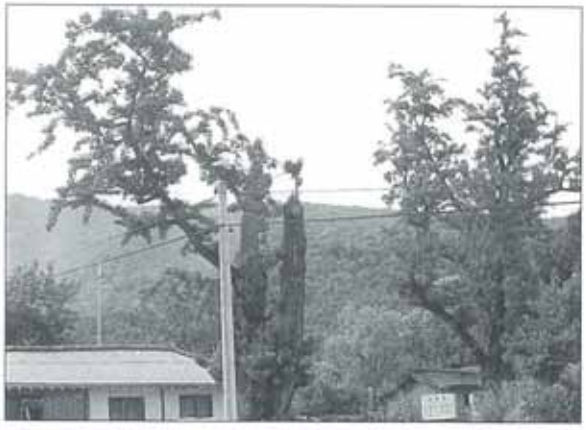


사진 238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635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 내 용

임진왜란의 국난을 수습한 당대의 명재상이며 오성과 한음으로도 유명한 한음 이덕형공의 별서터에 있는 이 은행나무 두 그루는 이덕형공이 광해군 3년(1611) 인목대비의 폐모론에 반대하다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초야에 묻혀 살면서 집 앞에 하마석과 함께 은행

나무 두 그루를 심어놓고 한 그루는 한음이고 또 한 그루는 오성으로 생각하며 다시 만나길 기원했던 나무라고 한다.

송촌2리 연세중학교 뒷편 송송골 마을안으로 들어오면 볼 수 있는 이 은행나무는 두 그루 모두 암나무로 할아버지나무라고 하는 좌측의 나무는 주간높이 2.5m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뻗었는데 대대적인 외과수술로 전체 모습은 다소 기형적이다. 우측의 할머니나무는 주간높이 2.5m 부위에서 부터 측지가 발생하여 사방으로 가지가 발달하였고 한 해 평균 세가마 정도를 수확하여 따로 거둬들이지 않는 할아버지나무에 비해 생산력이 강한 나무이다.

음력 3월과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내며 단오절까지 그네를 매어 탔었던 마을의 정자목으로 8 · 15 해방과 6 · 25사변 등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나무가 울었다는 얘기가 전해내려온다.

수령 350년, (大) 수고 15m, 흉고둘레 5.0m, 수관폭 16m, (小) 수고 10m, 흉고둘레 4.8m, 수관폭 10m.

□지도번호 : 양수 206-1

□비　　고 : 경기-남양주-19(1982. 10. 15)

239. 李德馨 別墅址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775외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이덕형 별서지는 조안면 송촌리에 있는 것으로 임진왜란의 국난을 수습한 당대의 명재상인 한음 이덕형이 1611년(광해군 3) 인목대비의 폐모론에 반대하다 관직을 깎이고 은거하던 곳이다. 한음이 심었다는 나이 400여 년의 은행나무 2그루가 남아 있다. 이 별서에서 국문학의 거봉인 노계 박인로와 한음이 교유하였고 紗提曲을 짓기도 하였다. 이 마을의 뒷산인 雲吉山, 마



지도239 이덕형 별서지 위치도(양수 073)

을앞을 흐르는 용진나루의 정취를 노래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작은 베를 끌어 놓아 바람으로 돛을 삼고, 물결로 노를 삼아 가는데로 던져두니 앞여울로 흘러 내려 얼은 물가에 왔구나. 저녁별이 거의 다 된 때에 강바람이 일부러 불어 돌아가는 배를 보내는 듯 한데, 아득하던 앞산도 문득 뒤에 보인다"(중략) "산방에 가을이 늦었거늘 그윽한 회포를 둘데가 없어 운길산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쉬엄쉬엄 올라가서 마음대로 고닐며 원숭이와 학들을 벗으로 삼아 높은 소나무를 의지하여 사방으로 돌아보니 조물주의 솜씨가 교묘하여 산경치를 꾸몄는가" 하였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240. 觀嘉亭址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779외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정 · 각(정자)
□내　용

관가정지는 조안면 송촌리의 莎提에 있었다는 이단상의 정자터이다. 현재 관가정지로 추정되는 곳은 조안면 송촌리 연세중학교 뒤이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241. 龍津나루터



사진241 용진나루터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216외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나루터)
□내　용

용진나루터는 조안면 송촌리 양평대교 좌우에 있던 나루로 양주(현재 남양주시 조안면)와 양근(양평)을 연결하는 나루이다. 서울에서 경상북부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평구역을 거쳐 용진나루를 건너가 중요한 곳이다. 용진은 조선시대 수군참군이 있었던 장소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내왕하는 배들을 관리감독하던 중요한 곳이다. 연산군대는 용진까지 금표안에 두었다고 한다. 조선후기 용진나루 근처는 경기일원에서 경치좋은 곳으로 유명한데, 특히 수종사에서 본 겨울철 용진을 제일로 친다고 한다. 현재 용진나루 근처에는 '공용진', '용진' 등의 지명이 보이고 있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242. 3·1義擧愛國先烈追念塔



사진242 3·1의거애국선열추념탑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지도239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3 · 1의거애국선열추념탑은 조안면 송촌리 용진교회 내에 있다.

이 탑은 일제치하인 1919년 3 · 1운동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거행하던 중 억울하게 옥고를 치룬 송촌리 이정성 외 16인의 후세들이 애국애족의 정신을 높이 찬양하고자 광복 49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보조 예산 및 자부담(성금)으로 건립하여 후대에 길이 남길 추념탑

으로 1994년 8월 15일 제막되었다.

탑 우측에는 직방형의 오석에 '용진 3 · 1의거 기념비'라는 제하에 당시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거행된 3 · 1의거 거행과정 및 의의와 당시 송촌리 주민들이 보여준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본받아 후손들에게 길이 계승하고자 정성을 모아 기념비와 탑을 세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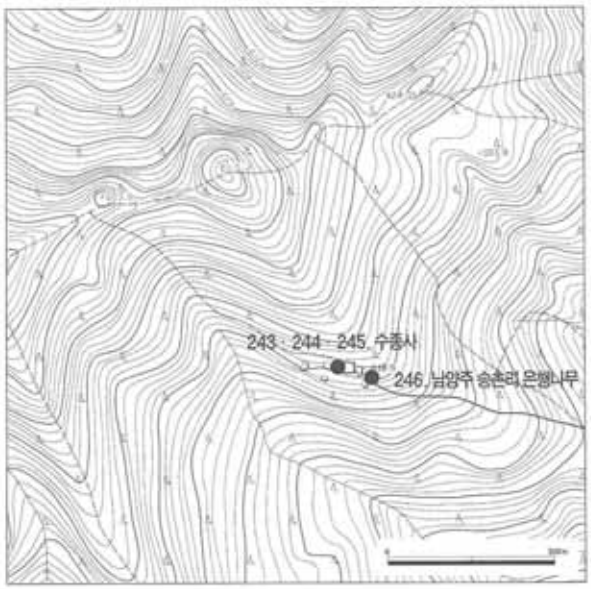
비문의 찬자는 당시 문화재전문위원 운천 이강철이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사진243 수종사 부도

243. 水鍾寺 浮屠



지도243 수종사 부도 위치도(양수 073)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1060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浮屠

□내 용

이 부도는 1493년(세종 21) 太宗太后의 발원에 의해 조성된 貞懿翁主(세종의 2녀)의 부도이다. 원래는 경내 왼쪽 산비탈에 있던 것을 1939년 대웅전과 요사 중간의 공터로 옮기면서 해체 중수하였다. 8각원당형의 기본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전형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며, 하층기단 상층기단 탑신 옥개석 상륜부 순서로 부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기단은 8각형의 상하 2중 기단으로 이루어졌고, 방형의 지대석이 기단을 받치고 있다. 하층기단은 옆면에 각각 연꽃무늬가 조각되었고 상면에는 복련이 시문되었다. 상층기단은 팔각 모서리에 개구리 또는 두꺼비처럼 생긴 동물이 배치되어 흥미롭다. 그리고 각면에 2개의 方框에 雲文을 새겨 놓았다.

탑신은 원형으로 화려한 구름무늬가 장식되었고 그 안에 한 마리의 용이 노는 형태를 조식하여 율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옥개석은 경사가 완만한 우동 마루를 뻗으면서 끝에서 반전을 이루었지만 그외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다. 다만 낙수면에 "太宗太后貞○翁主舍利塔施主○○柳氏錦城大君正統己未年十月日立"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이 부도가 貞懿翁主의 사리를 봉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같은 형태의 조선시대 부도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히는 보물 제97호 충북 중원군 청룡사터의 普覺國師定慧圓融塔이나, 혹은 보물 제388호인 양주 회암사지 부도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대체로 건실한 작풍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39년 해체 수리시 청자유개호 1점, 금동제9층탑 1점, 은제도금

육각감 1점이 나와 현재 보물 제259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되어있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비　　고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 5, 1995.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244. 水鍾寺 8角5層石塔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1060(지도243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石塔

□내　용

팔각오층석탑은 대웅전과 요사채 중간의 공터에 소탑 및 부도 등과 같이 南向하여 북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경내에서 동쪽으로 벗어난 곳에 있었던 것이며, 지금은 '수종사 다보탑'으로 더 유명하다.

탑의 양식을 보면, 지대석 위에 팔각형의 이중 석재를 기단으로 하였다. 그 위에 마치 석등이나 부도에서 볼 수 있는 장고형의 중대석 같은 석재를 별석으로 하고 위에 5층의 팔각 탑신을 올렸다. 이를 대좌형 기단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상륜부가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목조건물을 돌로 표현한 듯한 느낌을 받고 탑 전체의 균형도 흠 잡기 어려울 정도다.

기단부에는 각 면에 方框을 두 개씩 돌리고 그 안에 정제된 안상문양이 조식되었다. 이중의 기단 바로 위에 석등 부도에서 하대석 상면에 사용되는 형식을 한 복련이 있고, 그 위에 竿柱를 두어 상대석을 올렸다. 상대석은 밑에서 앙련이 떠 받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고, 앙련 위에 역시 방광 내 안상을 돌렸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가 초층만이 별석이고 그 이상은 하나의 돌로 조성되어 있다. 탑신의 면석에는 원형 석주형의 隅柱를 표시하였고, 또 각면에 방광을 마련하고 있어서 마치 목조건물을 그대로 模刻한 듯 목조가구의 일면을 잘 엿볼 수 있다. 각 옥개석의 옥개받침은 3단이며, 추녀 끝에는 지금도 철사구멍과 철사가 남아 있어 풍경(혹은 風鐸)을 달았던 자국이 선명하다.

상륜부는 5층 옥개석 위에 노반과 보륜과 보주 등 일부만이 남아 있다.

이 탑은 위치변경 등으로 두 번이나 해체 복원되었는데 그 때마다 불상 등의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즉 1957년 5월의 해체복원 때에는 초층 옥개석과 초층 탑신 그리고 기단 중대석에서 금동불, 보살상 15점, 금동불감 1점, 목조불상 3점 등 도합 19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1493년(성종 24)銘의 복장과 명문을 지닌 금동불좌상과 1628년(인조 6)銘의 금동비로사나불좌상이 포함되어 있어, 이 탑의 창건과 보수 시점을 알 수있게 한다. 불상들은 대체로 서로 비슷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크게 표현되었고, 다소 웅크린 듯한 형태 등에서 조선시대 금동불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70년 5월 23일에 이 탑을 경내로 이건하기 위하여 해체했을 때에도 불상 12구가 발견되었는데, 이때 불상이 안치되었던 3층 옥개석 상면의 圓孔 내에 "弘治六年"(1493년)이라는 墨記가 쓰여졌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 탑은 바로 산너머에 위치한 묘적사 팔각석탑과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상륜부는 거의 같은 모습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팔각형을 띠며 목조건축을 모각한 듯한 형식은 초기 경기 일대에 유행하던 석탑의 형태로 파악되어, 석탑연구의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 이 탑의 앞에는 가로 110㎝, 세로 65㎝ 가량의 석재가 마치 拜禮石 처럼 놓여져 있으나 이 탑과는 본래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비　　고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호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 향토문화총서 3, 1997.
사찰문화연구원 편, 『인천 · 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전통사찰총서5, 1995.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245. 水鍾寺 小塔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1060(지도243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내　용

이 소탑은 현재 대웅전과 요사채 중간의 공터에 팔각오층석탑과 부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기단부와 탑신의 일부 등이 크게 파손된 破塔으로 약간의 보수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원형인지는 알 수 없다.

기단부는 거의 정방형이며, 탑신도 겨우 짜 맞추어 가까스로 얹은 모양이다. 전체적인 모양은 오른쪽의 팔각오층석탑과는 대조적으로 사각형의 삼층석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상륜부의 경우도 탑신에서 연장된 사각의 노반 위에 복발과 보륜이 아주 간략하게 단순화 되어 표현되었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참고문헌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246. 南楊州 松村里 은행나무


사진246-1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1


사진246-2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2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산26-22(지도243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조선조 세조 6년(1460) 세조가 지병으로 오대산으로 요양을 떠났다가 수로로 한강을 건너 한양으로 환궁하던 중 양수리까지 왔을 때 밤이 되어 물위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운길산(雲吉山)에서 종소리가 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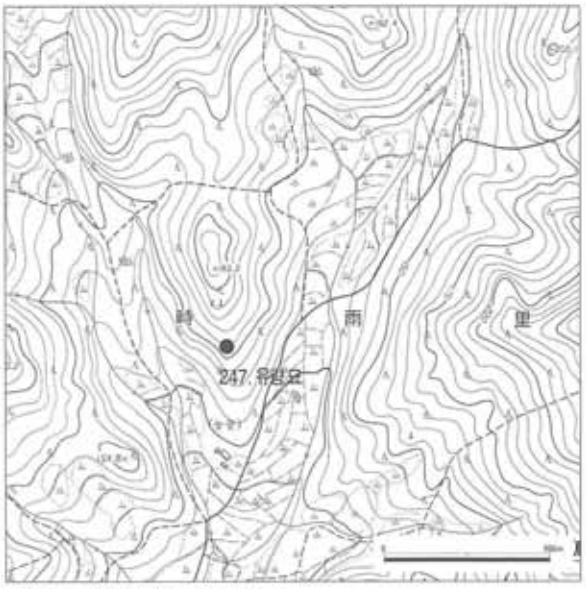
날이 밝자 산을 답사해보니 바윗굴에 18나한상이 열좌되어 있고 바위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감명을 받은 세조가 사찰을 복원케 하고 수종사(水鐘寺)라 이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식재한 나무가 이 은행나무라고 전해지고 있다.

두 그루 모두 암나무로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퍼지고 잎이 무성하며 줄기의 휘어짐이 인상적인 강건하고 웅장한 기상의 나무이다. 규격이 큰 나무는 흉고둘레 6.2m, 수관폭이 26m에 이르는 장엄한 자태로 뿌리가 넓게 노출된 채 퍼져있으며, 이보다 크기가 작은 나무는 흉고둘레 4.5m로 주간높이 5m 부위에서부터 측지가 발생하여 수형이 형성되어 있다. 생육조건이 양호하여 수세 또한 강건한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사이좋게 해발 400m 산중턱의 고적한 절, 수종사에 자리잡고 있다.

수령 500년, (大) 수고 28m, 흉고둘레 6.2m, 수관폭 26m, (小) 수고 25m, 흉고둘레 4.5m, 수관폭 25m.

□지도번호 : 양수 206-1

□비　　고 : 경기-남양주-17(1982. 10. 15)



지도247 유량 묘 위치도(양수 063)



사진247-1 유량 묘

247. 柳亮 墓

□소재지 : 조안면 시우리 산26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유량(1355~1416)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자는 明仲, 본관은 文化, 시호는 文景이다. 벼슬은 고려 말 갑과에 급제한 후, 조선개국시 공을 세워 원종공신에 봉해졌다. 태종 즉위시에 佐命功臣 4등 文城君에 봉해졌고, 그 뒤 예문관 대제학을 거쳐 1413년 부원군에 진봉되었다가 1415년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임하였다. 시호는 忠景이다.



사진247-2 유량 문인석


사진247-3 문충사

묘는 조안면 시우리의 문화유씨 사당 뒤편 나지막한 구릉 중턱에 위치하여 南向하고 있다. 풍수학적으로 左靑龍 · 右白虎의 형국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는 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다. 봉분은 부인인 연안이씨와의 쌍봉으로 右측(西쪽)이 유량의 묘이다. 2기의 묘는 모두 장방형으로 3단의 護石(329㎝×545㎝×76㎝)을 둘렀는데 유량의 묘는 호석 중간 前面에 '右相柳亮之墓'의 명문을, 부인의 묘는 호석 상단에 '延安李氏之墓'의 명문을 각각 새겼다. 봉분의 규모는 높이 160㎝ · 가로 330㎝ · 세로 530㎝인 직사각형이며, 2기의 묘 모두 4각모양의 3단 호석으로 둘려져 있는데 前面 큰 호석에 명문이 쓰여진 것이 특이하며 여말선초의 능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봉분 앞에는 墓碑가 1基씩 있는데, 우측비에는 前後 2면에 비문이 있다. 前面에 2열로 "朝鮮國佐命功臣文城府院君諡忠景公文化柳亮之墓"라 썼으며, 후면은 마모되어 자세하지 않다. 좌측비는 하나로 된 돌을 사용하여 받침대(48㎝×22㎝×28㎝), 월두형 비신(41㎝×14㎝×89㎝)형이다. 前後 2면에 비문이 있는데, 前面에 "貞夫人延安李氏墓"라 써 있고, 후면은 마모되어 자세하지 않다. 材料는 花崗岩이다. 크기는 받침대 높이 28㎝ · 너비 48㎝ · 두께 22㎝, 비신 높이 89㎝ · 너비 41㎝ · 두께 14㎝이다. 묘비 앞에는 새로 만든 床石과 향로석이 놓여져 있다. 봉분 좌측에는 혼유석 2기와 최근에 세운 묘갈이 있다. 상석 아래에는 계체석을 놓고 양쪽 끝에는 돌기둥(29㎝×33㎝×84㎝)을 하나씩 세웠다. 장대석 아래에는 장명등과 문인석(左 175㎝, 右 190㎝)이 있고, 다시 계체석을 놓고 양쪽으로 망주석을 놓았으며 그 아래 다시 장대석을 놓았다. 장명등(119㎝)은 方形의 받침대에 이중으로 하고 그 위에 방형의 화창을 올리고 화창 위에 사모지붕의 옥개석을 올려놓았다. 높이 119㎝의 크기로 전체적으로 받침대에서 위로 갈수록 커지는 형태로 균형미를 준다. 長明燈을 중심으로 좌 · 우에는 통비형으로 조선초기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문인석(左 193, 右 173)이 2기 있는데 전체에 돌이끼가 있으며, 얼굴, 옷주름은 마모되어 윤곽만 알아볼 수 있다. 笏을 맞잡은 두 손이 상대적으로 작은편이다. 또한 幞頭의 관은 높이가 낮다. 그 하단에 있는 망주석은 민무늬로 세운 지가 오랜된 것은 아니다.

神道碑는 묘소 아래의 사당 앞에 南西向하여 백색화강암의 귀부와 오석의 비신 및 백색화강암의 이수를 갖추고 있는데, 1989년 5월에 세운 것이다. 비신은 4면에 비문이 있는데, 前面에 2열로 음각된 비제는 "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忠景公柳亮神道碑"이다. 규모는 비신 높이 220㎝ · 너비 75㎝, 두께 42.5㎝이다.

근처에는 선생의 祠堂인 文忠祠와 永慕露의 祭室이 갖추어져 있다. 사당은 솟을대문 담장을 두르고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인데 풍벽에 한옥지붕으로 단장을 한 것으로 최근에 지은 것이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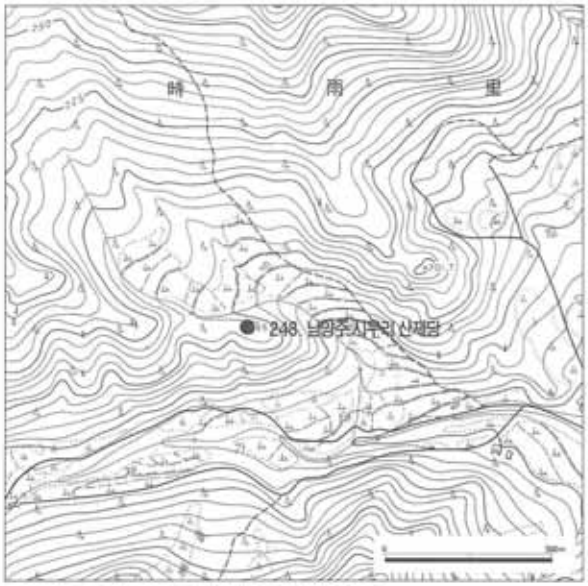
□비　　고 : 지방기념물 제78호

□참고문헌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3, 199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248. 南楊州 時雨里 山祭堂



지도248 남양주 시우리 산제당 위치도(양수 062)



사진248 남양주 시우리 산제당

□소재지 : 조안면 시우리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1) 조사지 개관

時雨里는 '시우터' 라고도 부른다. 양수리에서 가평으로 가는 45번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송촌리가 나오고 송촌리에서 좌측으로 산골짜기 신작로(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약 4㎞ 정도 들어가면 골짜기 사이로 넓은 들이 있다. 이곳에 민가가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조사지인 시우리이다.

시우리는 원래 양주군 하도면 지역으로서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비가 오면 시위가 잘 나므로 시우골 또는 시우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 · 면 통폐합에 따라 시우리라 하여 와부면(읍)에 편입시켰다. 그러다가 1963년 조안 출장소 관할이 되었다가 1980년 4월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95년 1월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시 관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19]

시우터 마을은 약 400여 년 전에 형성된 마을로 원래는 위씨가 제일 먼저 터를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위씨들은 점차 마을을 떠나고 현재는 광주 이씨 · 청풍 한씨 · 정선 정씨 · 밀양 박씨 등이 토박이로 살아오고 있다. 그 중 정선 정씨는 12대째, 밀양 박씨는 13대째 살고 있으며, 원래 터를 잡은 위씨들은 살고 있지 않다.

마을에는 시우보건진료소와 마을회관이 있으며, 40여 년 전에 이 마을에 들어온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시우리 교회가 마을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교인은 약 60여 명으로 송촌리에서도 일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한편 마을로부터 송촌 방향으로 1㎞ 정도 떨어진 곳에는 우럭바위가 있다. 우럭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즉 옛날 옛날에 한 스님이 시우터 마을로 들어오다가 선비고개가 있는 곳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앞뒤가 다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자 그 스님은 우럭바위에서 울다가 도로 갔다고 한다. 그 이후 이 바위를 우럭바위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시우터는 골골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천혜의 피난지라 할 수 있다.

시우터 마을의 총 가구수는 73호이다. 1반과 2반이 통틀어 28호, 3반이 30호, 4반이 15호로 이들 중 전씨

1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337쪽, 1985.

가 8가구로 가장 많다. 35년 전에 세워졌다는 송촌 초등학교 시우분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교되었고, 이 자리에 남양주시 ·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향토사료관이 들어서 있다.

이 마을은 산골짜기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이다. 따라서 생업은 목축업이며 논과 밭의 비율도 비슷하다. 밭에서는 하우스를 이용한 채소를 재배하기도 한다. 이곳 사람들은 마석장(3일, 8일)이나 덕소장(2일, 7일), 또는 양수리장(1일, 6일)과 같은 5일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한다. 교통편은 시우리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것과 시우리에서 덕소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 이를 이용하며 시우리에서는 마을버스도 운행한다.

(2) 위치와 형태

시우리에는 교회와 시우리 향토사료관이 있다. 이곳을 지나 마을회관을 거쳐 서울방면으로 가다보면 마을 끝 부분에 언덕길이 나온다. 여기서 언덕길 오른쪽 논둑사이로 난 조그만 길을 따라 산으로 오르면 두갈래 길이 나오고 이곳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등성이 정상에 산제당이 있다. 즉 마을의 북서쪽 도로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산등성이에 산제당이 위치해 있다. 산제당 뒷편 산꼭대기에는 철탑(고압선)이 있으며, 그 아랫쪽의 평퍼짐한 곳에 산제당이 있다. 마을을 바라다보고 산제당 문이 나 있다. 주변에는 노송과 참나무 몇 그루가 산제당을 에워싸고 있다. 산제당 건물은 최근 새로 지은 것으로, 이전에 있던 산신당을 헐어버린 목재가 주변에 흩어져 있다. 산신당의 건물 형태는 길쭉한 장방형 형태로 시멘트 블록에 쓰레트 지붕이다. 앞문은 없고(트인 채로 있음) 뒤쪽에도 문이 없이 직사각형의 구멍만 뚫려 있다. 산제당의 크기는 앞면 272㎝, 옆면 336㎝, 높이 157㎝이며, 내부에는 가로 242㎝, 세로 101㎝, 높이 19㎝되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산제당의 방향은 남동쪽이며 산신당까지 올라오는 길은 경운기가 다닐 정도로 길이 닦여 있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시우터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8월 1일날 마을 뒷산에 자리하고 있는 산제당에서 산제를 지낸다. 제의 명칭은 「산제」이고, 당집의 명칭은 「산제당」이다. 그리고 산제당이 있는 자리를 「산제당터」라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산신 중에서 男神을 위한다. 제일은 옛날의 경우 음력 8월 1일 밤 10시경에 1차로 지내고 밤 1시경에 2차로 제를 지냈는데, 10시에 지내는 제를 '소제'라 하고, 1시에 지내는 제를 '육제'라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10시에 한번만 지내고 있다. 산제를 지내는 목적은 이 마을이 산골마을이라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고 마을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원한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마을의 산신당은 1997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예전에는 제를 지낼 때 황소를 잡아 지냈다. 하지만 요즘에는 소머리와 4족만으로 제를 지내고 있다.

(4) 관련의례

마을 뒤쪽 산등성이에 위치한 산제당에서 산제를 지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를 잡는 일이다. 소를 잡기 위해서는 소를 사기 위한 기금을 걸립해야 한다. 잘살고 못사는 정도에 따라 푸레(몫)를 정하여 1푸레, 2푸레, 3푸레 등의 등급에 따라 잘사는 사람은 1푸레(왼푸레라고도 함)를, 그렇지 못한 사람은 2푸레, 3푸레를 냈다. 즉 빈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걸립을 하였다. 걸립액수는 그 해의 소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를 잡아 제를 지냈다. 그 후에는 경비상 소를 잡지 못하고 소 대신 소의 머리와 4족으로 제를 지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소를 잡아 제를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사 총 경비가 약 25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따라서 한 가구당 약 5만원씩 걸립을 하였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마을기금으로 지내고 있으며 그 비용도 약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

제를 지내기 전에 제를 주관할 사람 3명을 선출한다. 떡과 과일 · 북어 등을 가지고 가서 제를 지내는 소화주 1명과 소머리 등을 가지고 가서 제를 지내는 육화주 1명, 그리고 축문을 읽는 제관 1명 등이다. 이들은 3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선출한다. 예전에는 제일을 8

월초로 날을 잡아 지냈다. 그리고 부정이 생기면 연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8월 초하루로 정착되었다. 일단 날을 받으면 동물을 죽이지 않으며 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나가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도 밖에 나갈 수 없다. 교인들은 산제사 지내는 날 제에 참석하지도 않고 제음식을 먹지 않는다. 소화주와 육화주, 그리고 제관은 제관으로 임명된 날 황토를 뿌리고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친 다음 솔가지를 걸어 놓는다. 그리고 애를 낳거나 초상이 나면 제를 연기한다.

제물은 소화주가 시장에서 구입해 온다. 그리고 육화주 제물은 이장 등 다른 사람이 사온다. 언젠가 육화주의 제물로 소를 잡지 않고 돼지를 잡아 제를 지냈다가 가축 등이 자꾸 없어져서 소를 잡아 제를 다시 지냈다고 한다.

제물 중 소머리와 소족은 제 당일날 아침 일찍 반드시 한우로 구입하여 육화주가 삶고 다른 제물도 제 당일에 구입한다. 제관들은 동네의 깨끗한 물에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출입을 삼간다. 하물며 떠들어서도 안된다. 제 당일날 소화주와 육화주는 길을 닦으러 가는데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을 시켜 길을 닦게 한다. 산제당에는 금줄을 치지 않는다.

제물로는 소화주 제물과 육화주 제물이 구분되는데 먼저 소화주 제물을 살펴보면 백설기 · 증편 · 진메 2그릇(흰쌀밥) · 오곡밥(양푼 1그릇에 붉은팥, 검정콩, 보리, 수수, 좁쌀을 진메 옆에 따로 놓아 진설하는데 이는 산신령의 말이 먹도록 하기 위해 놓아두는 것이다) · 배와 사과 3개씩 · 밤 · 대추 · 포도 · 다래 · 통북어와 그밖에 약주 · 창호지 5장 · 소지종이 6장 · 지짐두부 1모 · 무우나물 · 숙주나물 · 시금치나물 · 양초 등을 진설한다. 그리고 육화주의 제물로는 우선 제일 중요한 소머리 1개와 소족 4개 그리고 염통(심장)을 놓고 제를 지낸다. 그러나 지금은 염통을 놓지 않는다. 제기는 없으며 한지를 깔고 제물을 놓는데 오곡밥만 양푼에 놓는다.

소화주는 소화주대로 육화주는 육화주대로 각자 제물을 준비한 다음, 밤 10시경에 소화주가 먼저 산에 올라가서 제를 지낸다. 그런 다음 소화주가 신호를 하면 아래에서 기다렸던 육화주가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소화주가 밤 10시에 제를 지냈고 육화주는 새벽 1시에 제를 지냈다. 지금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산에 올라가서 소화주가 제를 지낸 다음, 소리를 지르면 육화주가 그 후에 지낸다. 그리고 예전에는 산에 제관과 소화주와 육화주 3명만이 올라가서 제를 지냈는데 요즘에는 심부름을 할 사람 몇 명이 따라 올라간다.

소화주가 제물을 진설한 다음 술을 따르고 절을 하면 제의가 끝난다. 그런 다음 예전에는 철상을 하고 육화주 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소화주의 제물이 있는 곳에 그대로 육화주의 제물을 올려놓고 제를 지낸다. 소화주의 제가 끝난 후 육화주의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따르고 축문을 읽은 후 절을 한 다음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 소지→소화주 소지→육화주 소지→제관 소지→이장 소지 순으로 올린 후 제관의 주관아래 올리고 싶은 사람들의 소지를 모두 올려준다.

소지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마을로 내려온다. 내려올 때도 소화주는 소화주 대로 육화주는 육화주 대로 따로 따로 각자 내려온다. 제를 지낸 음식도 반으로 나누어 지게에 지고 내려온다. 제를 지낸 그 다음날 대동부역(길 보수)을 하면서 내장 등을 삶아 먹는다. 대동부역하는 날은 육화주 집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예전에는 제를 지낸 다음에 떡과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5) 유적의 향후조치

제의 형태가 독특하다. 오래 전에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산제가 여전히 거의 원형 그대로 지켜지고 있음은 놀랄만하다. 비록 슬레이트에 벽돌건물일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주변지역의 자연경관과 산제당과의 관계를 최대한 살릴 때 하나의 좋은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보다 치밀한 조사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대한 보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1985.

249. 南楊州 鳥安里 도당집



지도249 남양주 조안리 도당집 위치도(양수 083)



사진249-1 남양주 조안리 도당집



사진249-2 남양주 조안리 조라 터주가리

□소재지 : 조안면 조안리 248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1) 조사지 개관

구리시 토평에서 한강변을 따라 양평으로 이어지는 국도 6호선(4차선)을 따라가다 보면 도로 왼쪽으로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지인 덕소가 나온다. 여기서 양평 방향으로 팔당댐을 지나 직진하면 신양수 대교 가기 직전에 다산 정약용 묘가 있고, 조안면 소재지로 나가는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소재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이 조사지인 조안 1리 사안마을이다.

조안리는 원래 양주군 초부면 지역으로서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 · 면 통폐합에 따라 조동리, 고랑리, 사안리, 신촌, 외촌과 마현리, 진촌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조동과 사안의 이름을 따서 조안리라 하여 와부면(읍)에 편입시켰다. 그러다가 1963년 조안 출장소 관할이 되었다가 1980년 4월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95년 1월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시 관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20]

사안 마을 역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조안을 고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다

2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337쪽, 1985.

음과 같다. 처음에는 조안을 '고랭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고안으로 변했고, 다시 沙安(모래가 많다는 의미임)으로 불리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안 1리는 3개반에 총 6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즉 1반에 15가구, 2반에 26가구, 3반에 2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1반은 다산 정약용 묘가 있는 능내리와 접해 있고, 2반은 조안 1리의 중심지역으로 면사무소와 파출소가 있으며, 3반은 약 1㎞ 정도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조안면 사무소는 14년 전에 새로 만들어 졌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와부읍 관할 조안출장소가 있었던 것이다. 조안파출소 역시 18년 전에 처음으로 개소하였다. 이와 같이 조안 1리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와부읍 소재지인 덕소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면소재지라고는 하지만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생필품 구입에 좀 불편한 편이다. 단지 면사무소 앞에 '기와집'이란 유명한 순두부집이 있을 뿐이다.

종교현황을 살펴보면 1반에 약 15년 전쯤 생긴 장로교 계통의 한일교회가 있어 마을 사람 7가구 정도를 비롯하여 능내리와 조안리 일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교회 이외에도 마을 내에는 약 17년 전에 서울 망우리에서 이사하여 이곳에 자리잡은 봉덕암이란 암자가 있다. 대개 서울 등 외지에서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은 5가구 정도가 이 절에 다니고 있다.

생업활동을 살펴보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큰 소득은 없다. 마을내에 있는 대부분의 땅이 '팔당개발' 소유의 땅으로 마을사람들은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팔당개발 본사가 사안 마을의 2반 이장 댁 앞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마을 뒤쪽으로는 중앙선이 지나고 있다. 따라서 육상교통 이외에도 능내리에 있는 능내역을 통해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육상교통편도 편리한 편이다. 마을중앙으로는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국도 6번 도로와 진중에서 금남방면으로 가는 45번 지방도로가 지나고 있다. 그리고 166번 좌석버스는 경동시장을 거쳐 앙수리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1일과 6일에 열리는 양수리장을 이용해 생필품을 구입한다. 그러나 예전에는 주로 배를 이용하여 원목을 싣고 뚝섬이나 마포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을 앞에 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예전에는 주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렸으나 팔당댐이 조성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물고기를 잡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98년도 12월에 부분적으로 마을사람들에게(3가구에게만) 어업허가를 내주었다. 한편 마을 뒤쪽 신양수대교 좌측 검문소 뒤 동산 위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산치성을 드리는 '도당집'이 있어 여기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3일날 저녁에 산치성을 드린다.

(2) 위치와 형태

덕소에서 국도 6번 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신양수대교가 있고, 다리 입구 좌측편에 신양수검문소가 있다. 도당집은 바로 검문소 뒤편 40여 미터 떨어진 나즈막한 동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 즉 예봉산 줄기 마지막 혈에 도당집이 위치하고 있다. 도당집 좌측으로는 양수리 방면에서 한강물이 흘러 내려와 신양수대교를 지나 서쪽(서울방면)으로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는 아름드리 전나무와 떡갈나무, 소나무 등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도당집 앞에는 약 20m×10m 정도의 넓은 공터가 있다. 마을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도당집은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동쪽인 한강을 향하고 있다.

한편 옛날 도당집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도당집 아래 현재 강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 역시 옛날에는 민가가 있었다고 한다. 팔당댐이 생기면서 이곳이 수몰되어 현재는 강이 바다와 같이 넓어졌다고 한다. 현재 팔당에서 조안으로 통하는 구 도로도 예전에는 없었다. 즉 도당집을 중심으로 사방에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마을 중앙에 도당집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당집은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다음 시멘트로 마무리하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였다. 지붕은 쓰레트 지붕이며, 문은 양쪽 여닫이 함석문으로 파란색을

칠하였다. 도당집의 크기는 앞면 375㎝, 옆면 258㎝, 높이 222㎝이고, 문의 크기는 넓이 140㎝, 높이 158㎝이다. 산제당 뒤에는 250㎝ 거리를 두고 조라 터주가리가 있다. 터주가리는 땅을 판 다음 그 속에 짚 주저리를 틀어 세워 놓았다. 즉 지름 60㎝, 깊이 30㎝ 정도 되는 웅덩이를 판 다음, 그 위에 높이 70㎝, 둘레 85㎝ 정도 되는 짚 주저리를 틀어 놓았는데, 이는 조라 단지를 모셔 놓기 위해서이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매년 음력 10월 3일 밤 12시경 도당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산치성 잡숫는다"고 한다. 산치성을 드리는 곳을 '도당집'이라 부르며, 도당집이 있는 곳을 '활터거리'라고 한다. 활터거리는 정월 대보름날 용문산에서 달이 뜨는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대보름날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활터거리로 달구경을 가서 각자의 소원을 빌곤 하였다. 활터거리에는 원래 큰 도토리나무가 있었는데 벼락을 맞아 없어졌다.

도당집은 원래 기와집이었는데,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반 정도가 파손되었다. 그래서 그 후 시멘트 블록으로 현재의 도당집을 새로 지었다. 도당집 안에는 아무 것도 없고, 다만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가 거주한다고 믿고 있다. 산치성은 사안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고 있다.

(4) 관련의례

사안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3일 밤 12시경 검문소 뒷편 활터거리에 있는 도당집에서 산치성을 드린다. 산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제의 비용은 매년 각 호마다 거출하여 충당한다. 마을 기금이 약간 있기는 하나 매년 산치성을 드리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각 가정마다 정성을 담기 위해서 약 3000원 정도씩 거출하여 산치성을 드린다. 하지만 기독교인과 극빈자들은 내지 않는다. 총 비용은 대개 22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산치성을 치르기 위해 거출한 돈이 부족할 때에는 마을기금에서 충당한다.

제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관 1명, 축관 1명, 당주 1명, 하주 1명 등 4명이 제를 주관한다. 제의 주관자들은 9월 말일에 생기복덕을 보아 선출하는데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대개 제관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뽑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체되지 않으나, 하주나 당주, 축관은 별다른 부정이 없더라도 매년 교체한다. 이들 제관 일행들이 제의 당일 날 제물을 준비하고 제를 주관한다. 10월 1일이 되면 제관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대문 양쪽에 1무더기씩 2무더기를 뿌려놓는다. 이는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서이다. 제를 지내기 전 마을에 부정이 발생하면 제의가 한달간 연기된다. 또한 제의 기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만일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3일간 나갈 수 없다.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이장이 걸립을 하여 준비한다. 일반 제물은 이장이 양수리장에서 구입하여 당주집에 갖다 주고, 소머리는 하주집에 갖다 준다. 제물로는 소머리 1개, 밤 · 대추 · 곶감 · 팥시루떡 1말 · 노구메 1그릇 · 조라술(감주) · 통북어 1마리 등이 준비된다. 소머리는 잘생긴 한우 황소로 준비하는데, 하주가 삶아서 진설하고 통북어는 팥시루떡 위에 꽂아 놓는다.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소제사'를 지낸다. 소제사는 저녁 6시경 삼색과일(밤 · 대추 · 곶감)과 포만 진설하고 양쪽에 촛불을 켜 놓은 다음, 도당집에서 동쪽을 향해 제를 지낸다. 이때는 제관과 축관만 올라가서 제를 지낸다. 즉 축관은 서 있고 제관 혼자서만 지낸다. 이때에도 조라술은 올린다. 즉 진설하고 잔을 붓고 재배하면 제사는 끝이 난다.

소제사 후 제관과 축관은 본 제사를 지낼때까지 계속 도당집에 머무르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공터에 장작불을 피운다. 이 장작불에 노구메를 짓고 조라도 드린다. 그런 다음 2~3시간 후에 노구메를 짓는다. 그러면 당주와 하주가 소머리와 기타 제물을 가지고 올라온다. 이어 준비된 제물을 진설한다. 진설이 끝나면 본제사인 '대제사'를 지낸다. 대제사는

진설을 하고 3잔의 잔을 부은 후 독축을 한 뒤 재배를 올린 다음 소지를 올리는 순으로 이어진다. 소지는 대동소지→제관소지→축관소지→당주소지→하주소지→이장소지 순으로 올리는데 예전에는 세대주 소지를 다 올려주었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은 대표소지만 올려준다.

소지가 끝나면 예전에는 도당집에서 징을 쳤는데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음복을 하러 도당집으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소머리, 떡, 막걸리 등을 준비해서 도당집에서 밤새 나누어 먹고 이야기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마을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서 노인들이 계신 집만 떡과 소머리를 조금씩 나누어 드린다. 한편 제의 결산은 매년 1월 25일경에 개최하는 대동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산치성 축문

維歲次 甲子 十月 辛卯 朔 初 三日 癸巳 沙安 住民一同 敢昭告于

山神之靈 崧高禮嶽 峻極于天 盖自肇判 洋洋在上 昭昭在傍

惟次之月 日吉辰良 齊沐祈禱 詢謀同僉 奔走率職 不愆不忘

降之百福 保護生靈 六畜繁殖 五穀豊穰 盜賊遠屛 虎豹甚藏

私鬪不興 水火永殖 風雨調停 吉禽爲饍 旨酒肥牲 虔誠伏祝

神基保佑 格思 尙 饗 壬戌 十月 住民一同

(5) 유적의 향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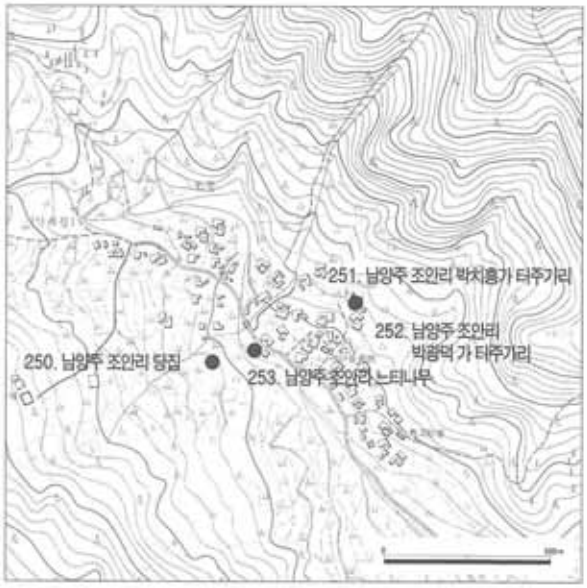
조안 1리 사안 마을의 경우 현재 벽돌에 슬레이트로 지어진 도당집이 전통적인 건축양식에 어긋난다 하여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전통기법에 의해 도당집을 새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로 마을 사람들의 산치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제의 형태에 있어서도 소고사와 대고사로 나누어지는 등 그 전승양상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행정적 · 학술적인 뒷받침을 하여 도당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지도번호 : 양수 206-1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 1985.

250. 南楊州 鳥安里 당집



지도250 남양주 조안리 당집 위치도(082)



사진250 남양주 조안리 당집

□소재지 : 조안면 조안리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1) 조사지 개관

조안면 소재지인 조안 1리에서 구 도로를 따라 양수리 방면으로 약 3㎞ 정도 가면 도로 왼쪽으로 철길이 있고 철길 건너에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을이 조안 2리 조동마을이다. 예봉산 남동쪽 골짜기 아래에 길게 형성된 조동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러한 자연 ·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MBC 농촌드라마인 '전원일기' 촬영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조안리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 조안리에는 숲이 많이 우거졌었다고 한다. 그 때 새가 이 마을에서 편안하게 자고 새재를 넘어갔다는 데서 조안리라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새재 너머는 팔당리를 가리킨다. 즉 마을 뒤로는 '예봉산'이 자리잡고 있는데 새재라 함은 바로 이 예봉산 정상을 가리킨다.

조안리는 원래 양주군 초부면 지역으로서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 · 면 통폐합에 따라 조동리, 고랑리, 사안리, 신촌, 외촌과 마현리, 진촌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조동과 사안의 이름을 따서 조안리라 하여 와부면(읍)에 편입시켰다. 그러다가 1963년 조안출장소 관할이 되었다가 1980년 4월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95년 1월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시 관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21]

조안 2리 조동마을은 총95호로 1반 26가구, 2반 28가구, 3반 20가구, 4반 21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조동마을은 팔당호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이 길게 형성되어 입구부터 1반, 2반, 3반, 4반 순으로 이어진다. 젖소와 한우를 많이 키우는 마을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수작물로는 하우스에 의한 깻잎과 상추농사를 유기농법으로 경작하여 풀무원에 납품하고 있다. 논과 밭의 비율을 보면 논이 밭보다 많다. 즉 논이 7만 3천평, 밭이 5만 6천평, 임야가 약 100만평 정도 된다. 이 중 동유림은 약 4정보로 예전에는 산의 나무를 팔아 제사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한다.

마을 앞으로는 46번 국도와 중앙선이 지나며 조안면 소재지까지는 3㎞정도, 남양주시청까지는 약 27㎞, 서울까지는 약 40㎞로 이 마을사람들의 생활권은 양수리에서 구리시와 서울로 확대되고 있다. 교통편은 서울까지 가는 166번 좌석버스와 8번 시내버스가 있다. 절은 없고 마을 중앙에는 조안교회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마을사람들은 거의 교회에 나가지 않으며 주로 외지에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간혹 외지에서 온 세입자들이나 아이들만 교회에 나간다. 1일과 6일에 열리는 양수리장을 이용하여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고 우시장은 양수리장, 덕소장, 양평장을 주로 이용한다.

(2) 위치와 형태

제를 지내는 당집은 마을 뒤쪽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데, 도로(마을 안길)로부터 100m쯤 떨어진 곳에 벽돌로 쌓은 현대식 당집 건물이 있다. 옛날에는 현재의 위치에 지금 크기 만한 초가집의 당집이 있었으나 10여 년 전에 새로 지었다.

당집의 형태를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1칸 벽돌집으로 지붕은 슬레이트를 올렸다. 앞문은 양쪽 여닫이 함석문으로 색칠을 하지 않았다. 조동마을 역시 벽돌로 지은 현대식 당집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를 가지고 전통적인 기법으로 당집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산제사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지내기 시작하였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매년 음력 9월 1일 밤 12시경에 지낸다(실제적으로는 9월 2일 새벽이 됨). 이 마을은 밀성박씨의 집성촌으로 14대째 살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산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원래 조동마을에서는 화랭이(광대)들을 불러다가 2~3일씩 굿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2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상), 337쪽, 1985.

전쟁 직후 황해도 연안경찰서 경찰관들이 이 마을에 파견나와 도강(한강을 건너는 일) 경비를 섰다고 한다. 이때 마을에서 굿을 하면 이들 경찰관들이 굿을 구경하였는데, 이때 이들의 수가 하도 많아 제사음식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즉 제사경비 때문에 도당굿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매년 음력 9월 1일 산제사만 지내오고 있다.

제사는 예전의 경우 매년 지냈고 도당굿은 2년에 한 번씩 지냈다. 제일에 있어서도 한국전쟁 이전에는 생기복덕을 보아 제관 두 집을 선정하여 대개 음력 9월 상순으로 날을 잡아 지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이후에는 음력 9월 1일로 날을 정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한편 제주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생기복덕을 보아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예봉산 산신을 위하고 있는 조동 마을은 산신제를 지냄으로써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빌며 가내의 평안과 가축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4) 관련의례

산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우선 제를 지낼 화주를 뽑는데, 화주는 당화주 한 집(내외)과 조라화주 한 집(내외), 축관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생기복덕을 보아 음력 8월 15일에 뽑는다. 예전에는 큰무당(화랭이)를 불러다가 3~4일간 '고창굿'이라 하여 큰 굿을 하였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제사비용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경비를 갹출하여 충당한다. 요즘에는 제사 경비 일부를 마을기금에서 보충하여 충당한다. '동유재산관리위원회'라 하여 산제사를 관리하는 모임이 있다. 회장(주로 이장이 맡는다) 1명과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 1명이 있는데,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총무는 65세의 박홍렬씨가 담당하고 있다. 제사에 소요되는 총 경비는 100만원 정도 든다. 예전에 이 마을에는 동유림이 약 9,000평 정도 있어 벌목을 하여 그것을 서울에 내다 판 돈으로 제비를 충당하였으나 탄이 나오면서 나무를 팔지 못하게 되자 현재는 마을기금과 마을사람들의 갹출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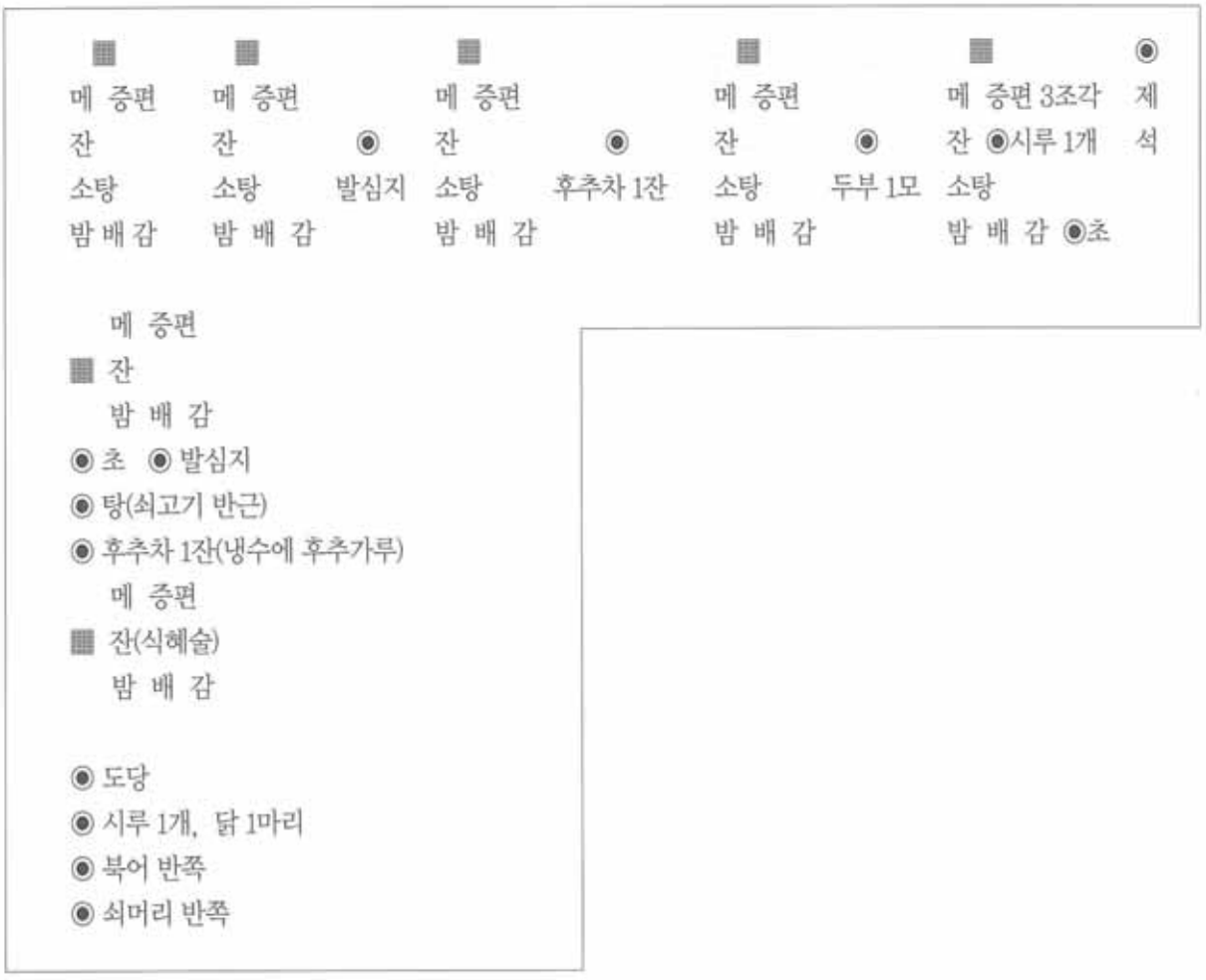
제를 주관하는 화주는 4명으로 두 집의 부부가 담당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각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의 수고비를 준다. 하지만 축관에게는 수고비를 주지 않는다. 수고비를 한국전쟁 이전에는 주지 않았는데 화주는 꺼려야 되는 일도 많고 금기시하는 행동 등이 많은 등 여러 가지 수고를 감안하여 한국전쟁 이후부터 인건비를 주기 시작했다. 당화주는 당집에서 제를 주관하는 일을 담당하며, 조라화주는 마을 동쪽편에 있는 뒷골에서 조라술을 담그는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조라화주가 먼저 1차로 초저녁에 구능에 가서 구능제를 지낸다. 그런 다음 당화주와 조라화주가 당집에서 산제사를 지낸다.

제를 지내기 전 음력 8월 15일 추석날 저녁에 당화주와 조라화주를 선출한다. 이들은 생기복덕을 보아 선출하는데 집안에 젊은 여자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8월 그믐날 당화주와 조라화주의 집에 금줄을 친다. 9월 1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당집을 청소하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비품을 정리한다. 이 마을에는 제물진설도와 축문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가 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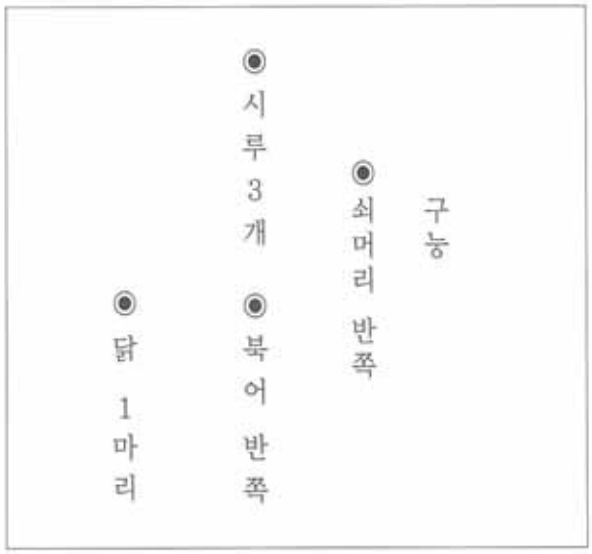
산제당은 15년전에 새로 지은 건물인데 1999년 가을에 절에 있는 산신당처럼 새로 지을 계획이라 한다. 산제당 안에는 터주가리와 시렁 및 제기가 보관되어 있다. 터주가리는 막대로 그 형태만 만들어 놓았다. 또한 조동마을의 경우 산신당내에서 칠성을 모시고 있다. 따라서 제물을 7상을 차리고 메도 7그릇 지어 놓는다. 즉 진설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동마을의 산제사는 매우 풍성하게 제물을 차린다.

산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9월 1일 낮에 당화주와 총무가 양수리에 있는 장에 가서 구입하는데 그 비용은 약 40~50만원 가량 든다. 산제사는 먼저 초저녁에 조라화주가 구능에 가서 조라술을 1잔만 부어 놓고 온다. 예전에는 산제사 지내기 바로 전에 조라화주만 갔으나 지금은 초저녁에 당화주와 축관도 간다. 구능제를 지낸 다음 당화주집으로 가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밤 11시경에 당집으로 간다. 이때의 제물은 쇠머리 1개, 북어 1개, 떡(증편, 백무리), 산닭(암수) 2마리, 7가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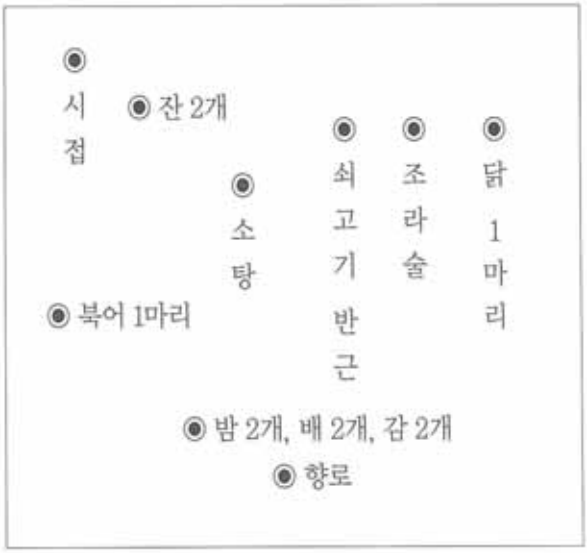
당집 내부 제물진설도



구능제 제물 진설도(1차 산제 지낼 때 : 당집 반대편 터)



후산(後山) 제물 진설도(당집마당)



과일 등을 2개씩, 메도 2그릇을 준비한다. 쇠머리는 삶아 반은 당집 안에 놓고 반은 문밖에 있는 상에 차려 놓는다. 문밖에 놓는 젯상은 잡귀를 달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제물은 집에서 만들어 간다. 제물은 당집에 보관된 제기에 담아 진설한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밤 12시가 되면 제를 지낸다. 제일 먼저 당화주가 잔을 붓는데 그 순서는 도당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후산에 잔을 붓는다. 후산은 객귀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잔을 부은 다음 축관이 독축을 한다. 그리고 독축이 끝나면 제관 일행 모두가 함께 재배를 한다. 재배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동네소지→당화주 소지→조라화주 소지→축관 소지 순으로 올린다. 하지만 개인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모든 제사가 끝나면 새벽 1시경이 된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제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당집으로 와서 불을 피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밤을 샌다. 아침이 되어서야 모든 것을 다 끝낸 후 총무가 결산을 본 다음 해산을 한다. 제물은 제사장에서 다 없애고 내려온다.

조동마을의 산신제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칠성을 모시는 것이 특징이다. 산신이 주신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신이 있어 제상 7개를 차린다. 옛날 고창굿을 할 때에는 놀이와 함께 축제가 열렸다. 이 때는 제를 앞두고 부정이 발생해도 제를 지냈으며 제를 앞두고는 비린 것이나 약을 먹지 못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머리 고기를 조금씩 떼어서 노인집에 돌렸으나 요즘에는 하지 않는다. 근래 들어 예전처럼 굿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경비문제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山致誠祝

維歲次 己卯 初朔 甲子 鳥安二里 居人 等 化主 ○○

○ 敢昭告于

土地之神 禮峯之東 正頂之下 惟我奠安 保護生靈

蕃養畜物 時和歲豊 家給人足 赴擧有金 榜之榮力

耕有積倉 之慶野除 忠害田逐 獸食村無 災異同我太平

齊成伏祝 共貝牲果 今以吉辰 齊沐拜稽 神其佑之

庶幾來格 尙 饗

(5) 유적의 향후조치

조안 2리 조동마을의 경우 현재 벽돌에 슬레이트로 지어진 당집이 전통적인 건축양식에 어긋난다 하여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전통기법에 의해 당집을 새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로 마을 사람들의 산치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제의 형태에 있어서도 구능제, 후산제, 본제사 등으로 나누어지는 등 그 전승양상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행정적 · 학술적인 뒷받침을 하여 당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지도번호 : 양수 206-1

□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 1985.

251. 南楊州 鳥安里 박치흥家 터주가리



사진251 남양주 조안리 박치흥家 터주가리

□소재지 : 조안면 조안리(지도25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1) 조사지 개관

조안면 소재지인 조안 1리에서 구 도로를 따라 양수리 방면으로 약 3㎞ 정도 가면 도로 왼쪽으로 철길이 있고 철길 건너에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을이 조안 2리 조동마을이다. 예봉산 남동쪽 골짜기 아래에 길게 형성된 조동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농촌 마을답게 조동마을의 경우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산제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정에서 대대로 터주나 업가리 등을 모시고 있었다.(남양주 조안리 당집편 참조)

(2) 위치와 형태

• 크 기
– 터주가리 : 높이 48㎝, 밑넓이 58㎝
• 수 량 : 터주가리 1기
• 명 칭
– 제의명칭 : '가을고사'
– 신앙대상물의 명칭 : '터주'
• 재 질 : '짚', '막대기'
• 위 치

마을 회관 옆길을 따라 올라 가면 길 오른쪽으로 박광덕씨 댁이 있고 박광덕씨 댁 뒤뜰 담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길 오른쪽 비탈진 곳에 집 한 채가 있는데, 바로 이 집이 터주가리가 있는 박치흥(83세)씨 댁이다. 정면에서 보아 집 왼쪽(길쪽) 뒤뜰에 우물이 있고 우물 뒤쪽으로는 막돌로 축대를 쌓았으며, 축대 위에 터주가리가 있다. 터주가리 앞 우물 아래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다.

• 외 형

– 터주 : 말뚝을 땅에 박은 후 그 주변에 평평한 막돌을 원형으로 바닥에 쌓은 다음, 그 위에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 놓았다. 따라서 항아리에 곡식을 넣어두지는 않는다. 즉 항아리 없이 만들어 놓은 터주가리 형태로 팔당 2리 오종섭 家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이다. 주저리는 짚으로 이엉을 엮듯이 원뿔 형태로 틀어올린 다음 위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주저리를 만들어 세우는 데에는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언제부터 터주를 모시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모셔오고 있다. 단지 터주는 매년 음력 10월 가을고사를 지낼 때마다 햇짚으로 주저리를 새로 틀어 놓는다. 주저리는 박치흥씨 본인이 직접 만드는데, 터주가리는 반드시 마을에서 공동으로 치르는 산제사보다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산제사를 지내는 날 저녁 산제사가 끝난 후 가을 고사를 지낸다.

(4) 관련의례

조동마을 박치흥 家의 경우 뒤꼍 장독대 위에다 터주를 모시고 있다. 수대에 걸쳐 이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박치흥 家의 경우 집 뒤 장독대 뒤편 우물 위쪽에 약 10m 거리를 두고 구릉 위에 터주가 모셔져 있다. 터주 뒤쪽으로는 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다.

터주가리는 가을추수 무렵인 음력 10월에 모신다. 즉 산제사를 지내는 날 저녁 산제사가 끝나면 가을 고사를 지내면서 터주가리도 위한다. 이를 통틀어 "가을고사 지낸다"고 한다. 이때 터주뿐만 아니라 가을떡을 하여 우물가, 안방, 안마당 등에 제물을 간단하게 차려

놓고 예봉산을 향해 치성을 드린다. 이때 제물로는 팥시루떡과 청수(냉수) 1그릇만이 준비된다. 떡은 보통 요즘에는 1되 정도 준비하는데, 예전에는 더 많은 양의 떡을 하였다고 한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떡을 잘 먹지 않아 1되 정도만 찐다. 제물을 각각 위하는 장소에 갔다 놓은 다음 한참 후에 갔다가 나누어 먹는다. 터주가리는 산제사 당일 날 아침에 만들어 놓는다.

(5) 유적의 향후조치

농촌 드라마 촬영 장소에 있는 박치홍 家의 터주가리는 농촌을 주제로 한 드라마 소재로도 어울리는 민속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집 뒤뜰의 경치와 분위기가 주변 경관과 썩 잘 어울려 우리 아낙네들의 집안을 위하는 마음을 한껏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신앙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보듬어 보자.

□지도번호 : 양수 206-1

252. 南楊州 鳥安里 박광덕家 터주가리



사진252 남양주 조안리 박광덕家 터주가리

□소재지 : 조안면 조안리(지도25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1) 조사지 개관

조안면 소재지인 조안 1리에서 구 도로를 따라 양수리 방면으로 약 3㎞ 정도 가면 도로 왼쪽으로 철길이 있고 철길 건너에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을이 조안 2리 조동마을이다. 예봉산 남동쪽 골짜기 아래에 길게 형성된 조동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농촌 마을답게 조동마을의 경우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산제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정에서 대대로 터주나 업가리 등을 모시고 있었다.(남양주 조안리 당집편 참조)

(2) 위치와 형태

• 크 기

- 터주가리 : 높이 73㎝, 밑둘레 133㎝
- 업 가 리 : 높이 58㎝, 밑지름 86㎝

• 수 량 : 터주가리 1기, 업가리 2기

• 명 칭

- 제의명칭 : '가을고사'
- 신앙대상물의 명칭 : '터주', '업'

• 재 질

– 터주가리 : '짚', '항아리'

– 업 가 리 : '짚', '솔가지'

• 위 치

마을회관 옆길을 따라 올라 가면 길 오른쪽으로 막돌로 쌓은 돌담집이 있는데, 바로 이 집이 터주와 업가리가 있는 박광덕씨 댁이다. 넓은 뒤뜰에 둥그렇게 돌담이 쳐져 있고 뒤뜰 아랫쪽에 장독대가 있다. 장독대 오른쪽에는 안채가 있으며 장독대 뒤쪽에는 업가리가 나란히 2개 있다. 그 뒤로 터주가리 1개가 놓여 있다.

• 외 형

– 터주가리와 업가리 : 높이 73㎝, 밑둘레 133㎝ 크기로 만들어진 터주가리는 그 안에 질그릇으로 된 터주항아리가 놓여 있다. 즉 터주항아리 속에는 벼 2되 정도를 넣은 다음, 그 위에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 놓는데, 짚으로 이엉을 엮듯이 원뿔 형태로 틀어올린 다음 위에서 마무리를 한다. 터주가리는 남자들이 만들어 놓는다. 한편 업가리는 항아리를 넣지 않는다. 즉 말뚝을 박은 다음 짚 주저리를 틀어 놓고, 그 위에 솔가지를 덮어 놓는데, 전체적인 형태가 터주가리보다는 좀 펑퍼짐한 형태를 하고 있다. 즉 주저리를 펑퍼짐하게 틀어 놓은 다음 그 위에 솔가지를 덮어놓았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언제부터 터주와 업가리를 모시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모셔오고 있다. 특히 업가리의 경우에는 2개를 모시고 있는데, 그 중 한 개는 박광덕씨의 어머니인 신인순(82세)씨가 꿈에 선몽하여 업가리 1개를 다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업가리를 2개 모시고 있다. 즉 옛날부터 대대로 모셔오던 것은 인업이었으나, 어머니가 돼지업을 모시기 시작하여 현재는 인업과 돼지업을 둘 다 모시고 있다. 박광덕씨 어머니께서 업을 모시게 된 사정은 이러하다. 옛날 박광덕씨 아버지가(돼지업을 모시게 된 장본인의 남편) 학질을 앓았다고 한다. 학질을 앓게 된 이유인즉 이러하다. 즉 신인순씨가 어느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새끼를 낳은 어미돼지가 새끼돼지들을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였다. 그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이 학질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그 원인을 물어보니 업을 받으면 나을 것이니 업을 받아 모시라고 하였다. 집에 돌아온 그는 당장 돼지업을 모셨다. 그 이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남편의 학질이 나았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줄곧 돼지업도 모시고 있다. 따라서 박광덕씨 댁의 경우 업가리가 두 개이다.

터주와 업가리는 매년 음력 10월 가을고사를 지낼 때마다 햇짚으로 주저리를 새로 틀어 놓는다. 주저리는 박광덕씨 본인이 직접 만드는데, 터주가리와 업가리는 반드시 마을에서 공동으로 치르는 산제사보다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산제사를 지내는 날 저녁 산제사가 끝난 후 가을 고사를 지낸다.

(4) 관련의례

조동마을 박광덕 家의 경우 뒤꼍 장독대 옆에다 터주와 업을 모시고 있다. 수대에 걸쳐 이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박광덕 家의 경우 집 뒤 장독대 뒤편에 터주와 업을 모시고 있다. 터주 뒤쪽으로는 돌담이 쳐져 있다.

터주와 업은 가을추수 무렵인 음력 10월에 모신다. 즉 산제사를 지내는 날 저녁 산제사가 끝나면 가을고사를 지내면서 터주와 업을 위한다. 이를 통틀어 "가을고사 지낸다"고 한다. 이때 터주 및 업뿐만 아니라 가을떡을 하여 성주, 안방, 조왕, 대문간 등에 제물을 간단하게 차려 놓고 예봉산을 향해 치성을 드린다. 이때 제물로는 팥시루떡과 백설기, 청수(냉수) 1그릇만이 준비된다. 팥시루떡은 터주시루라 하여 터주에게 올리고, 백설기는 업시루라 하여 업에게 올린다. 떡은 대개 2되 정도를 찐다. 제물이 준비되면 제물을 각각 위하는 장소에 갔다 놓은 다음 한참 후에 갔다가 나누어 먹는다. 터주가리는 산제사 당일날 낮에 만들어 놓는다. 이러한 제사는 주로 신인순씨 본인이 지금도 직접 관장하고 있다.

한편 예전에는 터주에 들어 있던 벼를 찧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 즉 칠월칠석날이 되면 터주항아리에

들어 있던 묵은 벼를 꺼내어 떡을 해먹었는데, 이때에도 떡을 하면 집안 곳곳에 갖다 놓고 비손한 다음 떡을 먹었다. 이렇게 칠석에 떡을 해먹으면 가을 햇곡식이 나올 때까지 빈항아리로 놔두었다가 가을고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수확한 벼를 넣어 둔다. 터주나 업을 모실 때에는 터주대왕에게 "자손들이 불 일어나듯이 터주대왕께서 잘 돌봐달라"고 비손하면서 위한다. 여기서 업은 재산을 관장하는 신이며, 터주는 터를 관장하는 신으로 '터대감' 또는 '터왕'이라고도 한다.

이사를 갈 때에는 터주나 업을 그대로 놔두고 간다. 또한 터주를 그만 모시고 싶을 때에는 깨끗한 시냇물에 터주를 띄워 보낸다. 터주를 교체할 때에도 터주를 물에 띄워 버리든가 산 밑에서 불을 놓아 태워 버린다.

여기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은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 구체적인 실체는 보통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 지네, 돼지, 인업 등으로 나타난다. 업 역시 장독대 옆이나 광에 업가리를 해 놓고 모신다. 업가리는 터주가리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집안에서 이러한 업의 실체인 구렁이나 족제비 등이 집안 식구들의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집밖으로 나가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업들이 죽어서 대들보 등에 걸려 있으면 그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고 한다.

업을 모실 때에는 한밤중에 개 짖는 소리 등 짐승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만신을 초청하여 모신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장독대에서 대를 내려 대가 좌정을 하면 그대로 업을 갔다 모신다. 그런데 광과 같이 집안에 대가 좌정하면 짚 주저리를 하지 않고 밖에 좌정하면 짚 주저리를 틀어 놓는다고 한다. 업가리에는 쌀을 넣어 둔다. 즉 항아리에 쌀과 돈을 넣고 한지로 고깔을 접어 위에 덮은 다음, 그 위에 항아리 뚜껑을 덮는다. 업가리를 위할 때에는 백설기와 삼색실과, 그리고 냉수를 떠놓고 위한다.

(5) 유적의 향후조치

농촌 드라마 촬영 장소에 있는 박광덕 家의 터주가리와 업가리 역시 농촌을 주제로 한 드라마 소재로도 어울리는 민속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집 뒤뜰의 경치와 분위기가 주변 경관과 썩 잘 어울려 우리 아낙네들의 집안을 위하는 마음을 한껏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신앙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보듬어 보자.

□ 지도번호 : 양수 206-1

253. 南楊州 鳥安里 느티나무



사진253 남양주 조안리 느티나무

□소재지 : 조안면 조안리 937(지도25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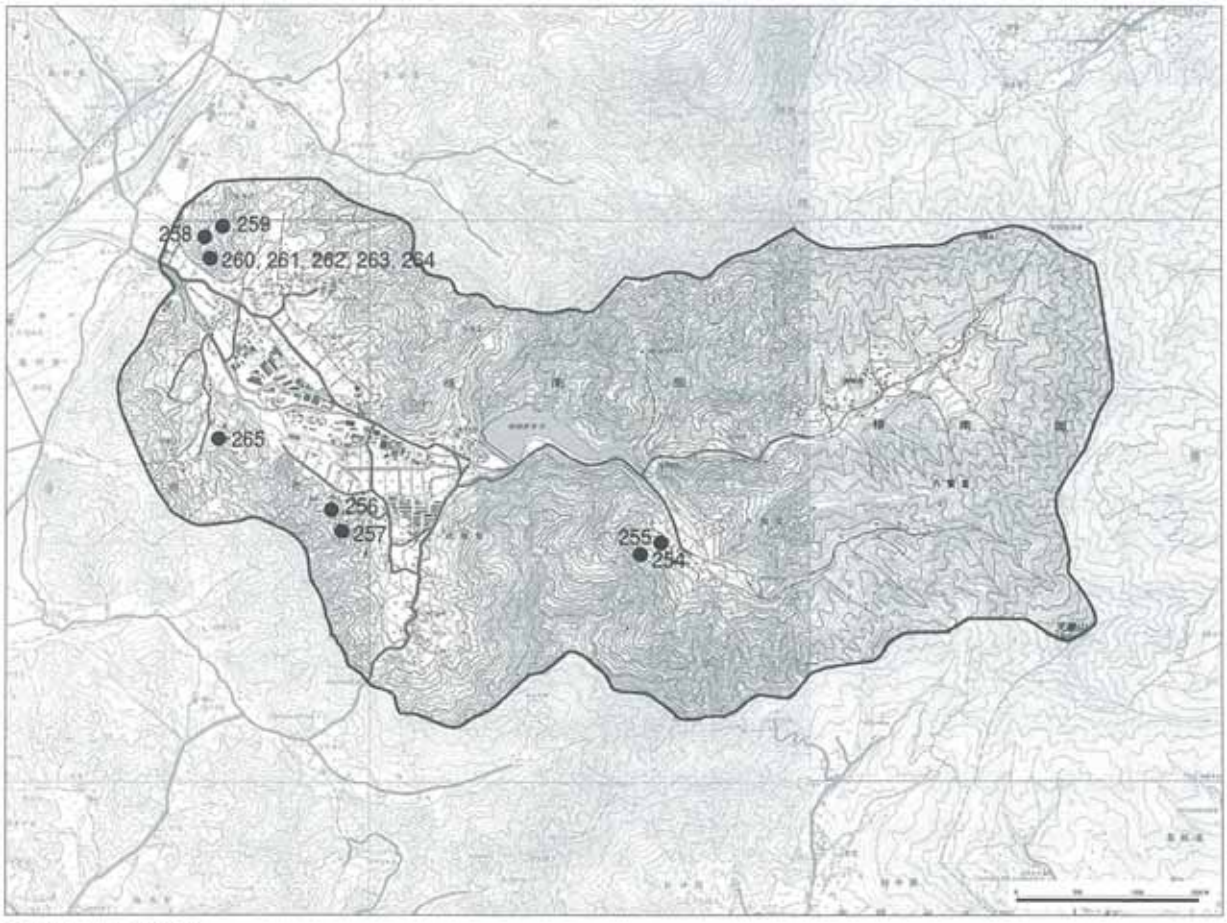
단오절에 그네를 매어 타고 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그늘아래로 빽빽히 모여들던 마을의 정자목인 이 느티나무는 조안2리의 새마을회관을 지나 마을뒷편으로 들어오면 만날 수 있다.

주간하부에 깊이 1.3m의 동공(크기 20㎝×70㎝)이 생겨있고 주간높이 2.7m부위에서 네 갈래로 갈라진 줄기는 잎과 가지가 무성하게 발달하여 크고 풍성한 수관을 형성하고 있다. 노출된 뿌리는 품위있게 근계를 형성하고 있고 수피에는 둥그런 무늬가 그려진 이 나무의 상태로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봄에 잎이 한꺼번에 잘 나오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이 들고 군데군데 나오면 흉년이 든다고 하는 농사의 지표목이다.

수령 190년, 수고 15m, 흉고둘레 4.4m, 수관폭 2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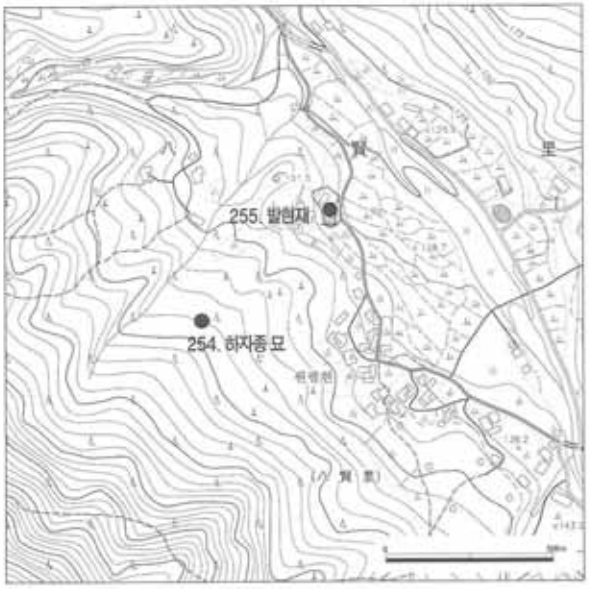
□지도번호 : 양수 206-1
□비　　고 : 경기-남양주-20(1982. 10. 15)

梧南面



오남면 문화유적 분포현황

254. 河自宗 墓 및 墓碣



지도254 하자종 묘 위치도(성동 030)



사진254-1 하자종 묘



사진254-2 하자종 묘갈

□소재지 : 오남면 팔현리 산10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하자종(?~1433)은 조선초기 문관으로 본관은 晉州, 고려조 兵部尙書를 지냈고, 1407년(태종 7) 工曹參議로서 歲貢馬 50필을 압령하여 明에 다녀왔으며, 1412년(태종 12) 洪州牧使가 되었고 1418년(세종 즉위) 恭安府尹이 되었다. 이어 1422년(세종 4) 判淸州牧使를 지냈다.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河廣 · 河銅 · 河演 · 河潔 · 河溥로서, 특히 文孝公 하연은 조선전기의 문신 · 학자로서 유명하다.

묘역은 팔현리 도로변의 제실 뒷편으로 난 산길을 따라 5분 정도 올라가면 나지막한 구릉에 北東向하여 있는데 정경부인 진주정씨와의 쌍분이다. 묘는 정경부인 진주정씨와 좌우로 나란히 있는데 그 중 우측의 묘가 하자종의 묘이다. 방형의 봉분은 우측의 묘가 4방으로 높이 32㎝ · 너비 370㎝ · 두께 510㎝의 호석을 직방형으로 둘렀고, 좌측의 묘는 높이 50㎝ · 너비 380㎝ · 두께 500㎝의 호석을 역시 직방형으로 두르고 있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과 2개의 고석을 받친 상석 · 4각향로석 · 문인석 · 양석 등의 석물이 있다. 특히 상석은 특이하게도 재질이 청색 대리석으로 크기는 높이 33.5㎝ · 너비 122㎝ · 두께 86㎝이다. 문인석은 높이 140㎝로 작으면서도 홀대 부분이 파여져 있다. 묘역은 전체적으로 고려식 묘제의 형태를 따르면서도 석물이 화려한 편이다.

墓碣은 봉분앞에 위치하여 상부를 말각한 민무늬 비좌와 비신 및 맞배지붕 형태의 납작한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전후 2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贈左議政行兵曹判書河自宗墓 貞敬夫人晋州鄭

氏祔左"라 새겨져 있다. 이 비는 1702년(숙종 28)에 세워진 것으로 河始圖가 찬하고, 河涉이 썼다.

규모는 비좌 높이 30㎝ · 너비 107㎝ · 두께 64㎝, 비신 높이 144㎝ · 너비 62.5㎝ · 두께 19.5㎝, 옥개석 높이 27㎝ · 너비 105㎝ · 두께 27㎝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55. 發賢齋



사진255 발현재

□소재지 : 오남면 팔현리 297-1(지도254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재실)

□내 용

발현재는 팔현리 도로변에 東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하자종을 모신 사당으로 근래에 새로 조성되었다. 하자종(?~1433)은 조선초기 문관으로 본관은 晉州, 고려조 兵部尙書를 지냈고, 1407년(태종 7) 工曹參議로서 세공마 50필을 압령하여 明에 다녀왔으며, 1412년(태종 12) 洪州牧使가 되었고 1418년(세종 즉위) 恭安府尹이 되었다. 이어 1422년(세종 4) 判淸州牧使를 지냈다.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河廣 · 河銅 · 河演 · 河潔 · 河溥로서, 특히 文孝公 하연은 조선전기의 문신 · 학자로서 유명하다. 솟을대문에는 "函靖門"이라는 현판이 있고 그 안에 재가 있다. 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그 중간에 발현재라는 현판이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56. 南楊州 梧南里 향나무



지도256 남양주 오남리 향나무 위치도(성동 029)



사진256 남양주 오남리 향나무

□소재지 : 오남면 오남리 66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임진왜란때 왜군이 식재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이 보호수는 오남 2리 장자말의 뒷동산이 시작되는 경사진 곳에 서 있다. 근원부에서부터 굵게 세 갈래로 나뉘어 뻗어 수형이 형성되었으며 가지가 쳐진 채 전체적으로 동북방향으로 50° 정도 기울어져 있고 근원부의 뿌리와 바위가 자연스레 함께 어울어져 있다. 인근 건물의 화재로 인해 도로 쪽 가지와 잎이 그을린 채 매달려 있고 수목 내부도 가지가 고사된 약한 수세이다.

담쟁이 덩굴이 타고 올라가는 주간에는 동공이 발생되어 있어 치료가 필요하며 하부에 바짝 붙어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은 나무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제거해주어야 한다.

수령 500년, 수고 15m, 흉고둘레 5.0m, 수관폭 15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38(1982. 10. 15)

257. 南楊州 梧南里 느티나무



사진257 남양주 오남리 느티나무

□소재지 : 오남면 오남리 650-3(지도25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나무에 손을 대면 안좋다 하여 고사가지조차 삭아 없어질 때까지 치우지 않는 이 느티나무는 오가는 이의 발걸음이 잦은 길가에 위치하고 하부에 평상이 설치되어 있어 마을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장자말의 정자목이다.

전에는 나무에 구렁이가 많이 살아 비가 그친 다음날 인접가옥의 마당으로 구렁이가 툭툭 떨어지곤 했다한다. 주간높이 3.5m 부위에서 굵게 두 갈래로 갈라진 줄기는 잎과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달하여 수관이 넓게 퍼진 원정형의 모습이며 담쟁이가 타고 올라가는 주간에는 커다란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에 나무에 마을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풍성한 수관의 이 나무를 보려면 오남리 진주아파트 뒷편의 장자말로 들어오면 된다.

수령 350년, 수고 13m, 흉고둘레 5.7m, 수관폭 15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39(1982. 10. 15)

258. 沈璿 墓



지도258 심선 묘 위치도(성동 018)



사진258 심선 묘

□소재지 : 오남면 양지리 산2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심선(?~1467)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潤夫, 호는 忘世亭이다. 본관은 靑松으로 고려 말 여러 차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한 공으로 靑城府院君이 된 德符의 증손이다. 1455년(세조 1) 세조의 왕위 찬탈에 관여한 공으로 佐翼原從功臣이 되었으며 내외직을 거쳐 1464년 예조참의·경기도관찰사를 지내고 이듬해 중추원부사로 正朝使가 되어 明에 다녀왔다. 1466년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行副護軍이란 한직에 있었다. 오남면 양지리에 정자를 지어놓고 산수와 음률을 즐겼는데 세상사를 잊었다는 뜻으로 정자 이름을 '忘世亭'이라 하였다. 세조의 왕위 찬탈로 벼슬을 버리고 끝까지 절개를 지킨 元昊·李孟傅 등 생육신들과 겨룰 만큼 고매한 기풍을 지녀 처사를 자처하였다. 후에 동지돈녕부사에 추증되고 단종의 능인 장릉의 朝土壇과 玉果에 있는 龜巖祠에 배향되었다.

묘는 양지리의 심선이 세웠던 정자터인 忘世亭 바로 우측 위의 청송심씨 별도 묘역에 東向하며 정부인 초계 정씨와 앞뒤로 위치하여 부인과의 逆葬이다. 풍수학상으로 '龜穴'이라 하여 거북이가 알을 낳은 건너편을 바라보는 형상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에는 높이 24㎝·너비 153㎝·두께 93㎝의 상석만 있고 중간석과 향로석은 없다. 상석 앞에는 8각받침대 위에 크고 장대한 높이 218㎝의 망주석만 있다. 부인 묘는 심선의 묘 뒤에 위치하여 2개의 고석 위에 높이 30㎝·너비 131㎝·두께 94㎝의 상석만 있고 중간석과 향로석은 없다. 상석 앞 좌우에는 크고 장대한 높이 195㎝의 망주석이 8각기둥 형태로 되어 있다. 중간에 들어간 자국으로 보아 망주석은 도난당한 듯하다.

묘표는 부인과 심선 묘의 중간에 있는데, 장방형의 비좌는 마모가 심하며 비신은 월두형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2열로 "嘉靖大夫京畿觀察使沈公之墓 貞夫人草溪鄭氏之墓"라 써 있다. 이 비는 1563년(명종 18)에 증손 沈光彦이 撰하고 書하였다. 음기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크기는 비좌 높이 40㎝·너비 86㎝·두께 46㎝, 비신 높이 138㎝·너비 55㎝·두께 15.5㎝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59. 忘世亭



사진259 망세정

□소재지 : 오남면 양지리 산2(지도25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정자
□내 용

망세정은 오남면 양지리 양지마을에 있었던 것으로 조선조의 문신 沈璿이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는 것을 보고 세운 정자이다. 지금은 정자의 위치나 흔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양지리 326번지에 公의 옛 집터와 사용하던 우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근처 어디로 생각된다. 현재 심선 묘역 바로 아래 공터로 추정되며 그 앞 논 가운데 공터에 우물자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메워진 상태이다.

심선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자는 潤夫, 호는 망세정, 본관은 청송이며, 靑城伯 德符의 증손이다. 1457년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풍양현 양지리에 피신 은거하여 세상일을 잊고 지낸다는 뜻으로 정자의 편액을 '忘世'라 써 붙이고 세조의 출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輔國崇祿大夫 敦寧府使에 추증되고 莊陵 朝士壇, 玉果 龜岩書院에 제향되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60. 沈安仁 墓



사진260 심안인 묘

□소재지 : 오남면 양지리 산2(지도25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심안인(1441~1488)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聖道이고 본관은 청송이다. 부인은 파평윤씨 泙의 딸이었다. 어려서 등과하여 그 명성이 인근에 빛났으며 여러 관직을 지내면서 그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경상좌병사를 지내면서 명망을 드러내어 그 도의 병마절도사로 특명을 받아 재임 중 격무를 이기지 못하여 병영에서 사망하였다. 묘는 본래 광주군 중대면 장지리(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안장되었으나, 1979년 현 위치인 오남면 양지리로 이장하였다. 사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묘는 양지리 양지편마을 청송심씨 묘역 제일 위에 東向하며 정부인 파평윤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 앞에는 장대석 위에 납작하고 평평한 상석 두 개를 나란히 붙혀 놓았다. 그 앞에 안상문과 앙화를 조각한 높이 147㎝의 망주석 · 문인석이 있다. 문인석은 높이 166㎝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며 머리 부분이 47㎝로서 신체의 1/4을 차지하는 조선초기 양식이다.

봉분 우측에는 묘표가 2개 나란히 있는데, 좌측의

것은 부인 파평윤씨 것으로 총 길이는 106㎝이며, 고려식 화관석형이다. 비신의 비문은 전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 "貞夫人坡平尹氏之墓"라 써 있다. 뒷면에는 "皇明弘治 乙丑 二月"이라 써 있는 것으로 보아 1505년(연산군 11)에 세워진 것이다. 크기는 비신 높이 70㎝ · 너비 48㎝ · 두께 15㎝이다. 우측의 심안인 묘표는 총길이가 114㎝로, 고려식 연화형이다. 비에는 "折衝將軍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라 써 있다. 크기는 비신 높이 76㎝ · 너비 48㎝ · 두께 16㎝이다. 봉분 좌측에는 새로 건립한 묘비가 있는데, 비신의 비문은 전 · 후 · 우 3면에 있으며, 前面에 4열로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管行折衝將軍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靑松沈公安仁之墓 貞夫人坡平尹"라 써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사진261-1 심빈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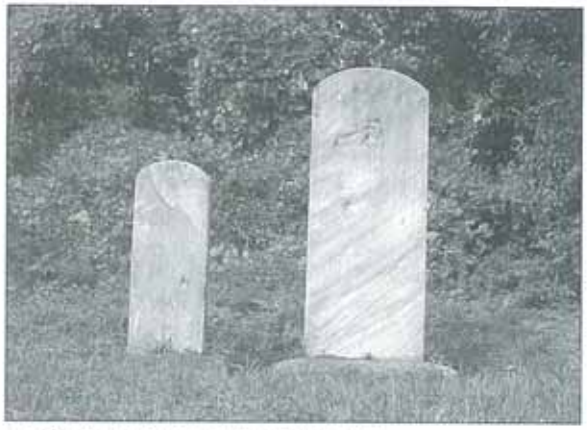


사진261-2 심빈 족장비(좌) 및 심광언 신도비(우)

261. 沈濱 墓 및 族葬碑

□소재지 : 오남면 양지리 산2(지도25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심빈(1455~1502)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磯叟이고 본관은 청송이다. 경상우도병마절도사를 지낸 安仁과 파평윤씨의 2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열심히 하여 진사가 되었고, 음사로 관직에 나아가 顯陵參奉을 지낸 뒤 누차 전직하여 참직이 되었고, 주부 · 감찰 · 판관을 역임하고 掌隷院司議와 軍器寺僉正을 거쳐 안성군수로 부임하였다. 관직에 임하여 청렴하고 성심성의하여 백성을 다스리다가 부임 수개월 만에 관사에서 사망하였다. 부인은 이천 서씨로 대사성을 지낸 岡의 딸이었는데, 가정을 돌보는 일이 의롭고 방정하여 문중사람들의 경모를 받았다. 심빈의 부인 서씨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는 머리도 빗지 않고 영정을 그려 놓고 조석으로 上食과 朔望을 지내고 성묘하면서 애통해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몸이 쇠약해져 남편이 사망한지 4년 만에 절명하였다고 한다.

묘는 양지리 청송심씨 묘역 2단 중간에 위치하며 정부인 이천서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상석(左 : 123㎝×88㎝×13㎝, 右 : 122㎝×89㎝×21㎝)을 두 개 나란히 붙혀 놓았으며, 그 앞에 계체석을 놓았다. 상석 앞에는 옆의 沈淡 묘와 나란히 하여 높이 103㎝의 동자석을 놓았는데, 좌측의 동자석은 꼭지부분이 마모되었다. 그 앞 좌우에는 높이 184㎝의 크고 장대한 문인석이 있다. 봉분 우측에는 묘표가 있는데, 총길이는 98㎝로 안상문과 복련을 사방에 장식한 장방형 비좌에 고려식 화관석형으로 중간부분에 깨어져 다시 붙여놓은 흔적이 있다. 좌측비에는 "贈資憲大夫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政大夫安城郡

守水原鎭管兵馬同僉節制使靑松沈公濱之墓 贈貞夫人伊川徐氏祔"라 써 있다. 건립연대는 1587년이며, 비문은 沈光彦이 찬하고, 鄭宗榮이 書하였다. 크기는 비좌 높이 24㎝ · 너비 85㎝ · 두께 54㎝, 비신 높이 67㎝ · 너비 39㎝ · 두께 14㎝이다.

族葬碑는 묘역입구에 심광언의 신도비 우측에 위치하여 나란히 있다. 장방형의 비좌에 비신 월두형으로 되어 있는데, 비문은 전체가 마모되어 알아보기 힘들다. 가문 자료에 의하면,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沈公族葬碑文"이라 적혀 있다. 비문은 1550년(명종 5)에 아들 심광언이 찬하고, 書하였다. 규모는 비좌 높이 24㎝ · 너비 94㎝ · 두께 60㎝, 비신 높이 147㎝ · 너비 58㎝ · 두께 22㎝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62. 沈光門 墓



사진262 심광문 묘

□소재지 : 오남면 양지리 산2(지도 25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심광문(1476~1529)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靑城伯 沈德符의 6세손이고 안성군수를 지낸 沈濱과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 徐岡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진사시험에 함격하였고, 태학에서 10여 년을 공부하였다. 문음으로 사헌부감찰, 공조좌랑, 龍岡縣令, 長興庫令 등을 거쳐 1524년(중종 19)에는 안악군수에 임명되었다. 그는 명문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언제나 소박한 생활을 하였으며, 성품은 온화하고 순박하며 용모는 단정하고 풍요로와서 붕우들과 담론하기를 좋아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는 청렴결백하여 조금도 사심이 없었고 외직에서는 자상하고 성실하였으며 먼저 교화하고 후에 벌하는 治政으로 옛 循吏의 품격이 있었다.

묘역은 양지리 청송심씨 묘역 3번째단 우측에서 두 번째에 東向해 있는데 숙인 완산이씨와의 합장묘이며, 제일 우측에 심광손과 숙인 능성구씨의 묘가 있다. 봉분 앞에는 상석(左 : 126㎝×79㎝×20㎝, 右 : 122㎝×75㎝×20㎝) 두 개가 나란히 붙혀 있고, 향로석과 그 중간에 墓表가 두 개 있는데, 좌측은 총 길이 161㎝로, 장방형 비좌와 구름문양에 앞뒤로 용문양이 새겨져 있는 비신형이다. 비에는 3열로 "有明朝鮮國禦侮將軍行訓練院僉正沈公之墓 淑人李氏"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2㎝ · 너비 75㎝ · 두께 48㎝, 비신 높이 119㎝ · 너비 48㎝ · 두께 20㎝이다. 그 우측에 있는 墓表는 총 길이 137㎝로, 장방형의 민무늬 비좌에 冠石形으로 구름문양에 日月圖가 새겨져 있다. 비에는 2열로 "通訓大夫行安岳郡守沈光門之墓 淑人全州李氏之墓"라 써 있다. 우측의 새로 만든 비에는 4열로 "通訓大夫行安岳郡守黃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靑松沈公光門之墓 淑人綾城具氏祔左 淑人完山李氏祔右"라 써 있다. 비문은 洪彦弼이 찬한 것으로, 건립연대는 1531년(중종 26)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8㎝ · 너비 76㎝ · 두께 40㎝, 비신 높이 94㎝ · 너비 51㎝ · 두께 16㎝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63. 沈光彦 墓 및 神道碑



사진263 심광언 묘

□소재지 : 오남면 양지리 산2(지도25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심광언(1490~1568)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彦之이고, 호는 鈍菴이며 본관은 청송이다. 할아버지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安仁이며, 아버지는 안성군수 濱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불우하게 지냈으나 학업에 열중하여 경전을 능통하게 통달하였고 서책을 두루 섭렵하여 우리나라 및 중국의 법률에 정통하였다. 1519년(중종 14) 생원시와 진사시에 연이어 합격하고, 1525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에 특별히 제수되고, 그 뒤 사간원정언 · 홍문관부수찬 · 사헌부장령 등의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1537년 파주목사로 선정을 베풀어 감사의 추천으로 이듬해 사복시정에 승진되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탄핵으로 다시 외직으로 밀려나 창원부사, 파주목사를 역임하면서 민폐를 제거하고 진휼에 힘썼다. 그 뒤 대사간에 발탁되어 시무책을 제시하였고, 1543년 예조참판이 되었으며 이어서 사은사로 明에 다녀왔다. 인종이 즉위하자 전라도관찰사에 제수되어 지방수령의 탐학을 감독하고 민간에 효행과 절의를 장려하는 데 힘썼다. 1547년(명종 2) 이조참의, 1549년(명종 4)에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 1550년 이조참판, 1552년 한성판윤겸도총관에 올랐고, 이어서 형조판서 · 공조판서를 역임하고, 1588년 지중추부사의 한직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곧 형조판서에 발탁되었고, 1561년 우참찬이 되어서는 과거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성품이 검소하고 엄격하였고, 직무에 임하여서는 매우 공정하였다. 권세와 재물을 즐기지 않았고, 직언을 잘하였다. 특히 법률에 밝아 형정을 오랫동안 주관하며 송사를 바르게 처리하였다. 시호는 胡安이다.

묘는 양지리 청송심씨묘역의 심광정 묘 좌측에 위치하며 정부인 한양조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앞에는 상석(左 : 134㎝×82㎝×21㎝, 右 : 154㎝×89㎝×20㎝) 두 개가 나란히 붙여 있으며, 그 앞에 4각향로석이 있다. 봉분 우측에는 새로 만든 묘표가 있는데, 비에는 3열로 "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靑松沈公光彦之墓 貞夫人漢陽趙氏祔"라 써 있다.

神道碑는 마을 소로에 인접하여 묘역 입구에 南向하고 있는데, 받침대 형태의 비좌에 비신은 월두형이다. 신도비의 형태가 월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 상단에 "左贊成沈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贈諡胡安沈公神道碑銘 并序"이며, 비문은 金貴榮이 찬하고, 宋寅이 書하였다. 전면 상단 우측 측면으로 직경 20㎝의 큰 파손이 있으며 비신 전면으로 직경 10~20㎝의 큰 탄흔이 있다. 後面에는 상단에 篆書로 "鈍菴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으며, 비제는 "有明朝鮮國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 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贈諡胡安沈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礪城君 宋寅이 찬하고 書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574년(선조 7)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20㎝ · 너비 134㎝ · 두께 70㎝, 비신 높이 225㎝ · 너비 91.5㎝ · 두께 24㎝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64. 沈錦 墓



사진264 심금 묘

□소재지 : 오남면 양지리 산2(지도25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심금(1531~156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美仲이고 본관은 청송이다. 청송백 심덕부의 후손으로, 의정부 좌우참찬과 판서를 역임한 光彦의 아들이다. 그의 풍체는 단아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덕행과 학문이 뛰어났다. 또한 그는 병가의 학문에도 뛰어나서 문무를 겸전하였다. 15세에 진사를 하고 여러 내직을 거쳐 감찰이 되었다가 이후 과천현감으로 전직되었다. 그러나 35세란 젊은 나이로 관사에서 사망하였다. 후에 양주를 중심으로 하여 거족을 이룬 청송심씨 가문의 번성함은 주로 그의 직계 비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그의 사상의 표연함과 특출한 기상을 엿볼 수 있는 詩想들이 『靑松世稿』에 전한다.

묘는 양지리 제4단 제일 좌측에 정부인 한양조씨와 여흥민씨와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상석(左 : 105㎝×75㎝×17㎝, 右 : 105㎝×75㎝×18㎝)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으며, 그 앞에 향로석이 있다. 봉분 좌측에 안상문과 복련을 사방에 장식한 장방형의 비좌에 비신은 월두형이다. 비에는 4열로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行奉正大夫司憲府監察沈錦之墓 淑夫人驪興閔氏之墓 淑夫人漢陽趙氏之墓"라 써 있으며, 비문은 沈定鎭이 찬한 것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10㎝ · 너비 92㎝ · 두께 44㎝, 비신 높이 138㎝ · 너비 57.5㎝ · 두께 20.5㎝이다. 봉분 우측에는 새로 세운 비가 있는데, 비문의 내용은 좌측 비의 내용과 같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65. 南楊州 陽地里 향나무



지도265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위치도(성동 028)



사진265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소재지 : 오남면 양지리 535-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천연기념물 제232호인 이 향나무는 조선시대 중종반정이 일어나 폐위된 연산군의 부인 신씨의 조부인 襄簡公 居昌府院君 신전이 화를 피하기 위해 심심산골인 양지바른 이곳에 피신하여 살았는데 그의 사후에 자손이 선조의 묘소 위치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표시목으로 식재한 나무라 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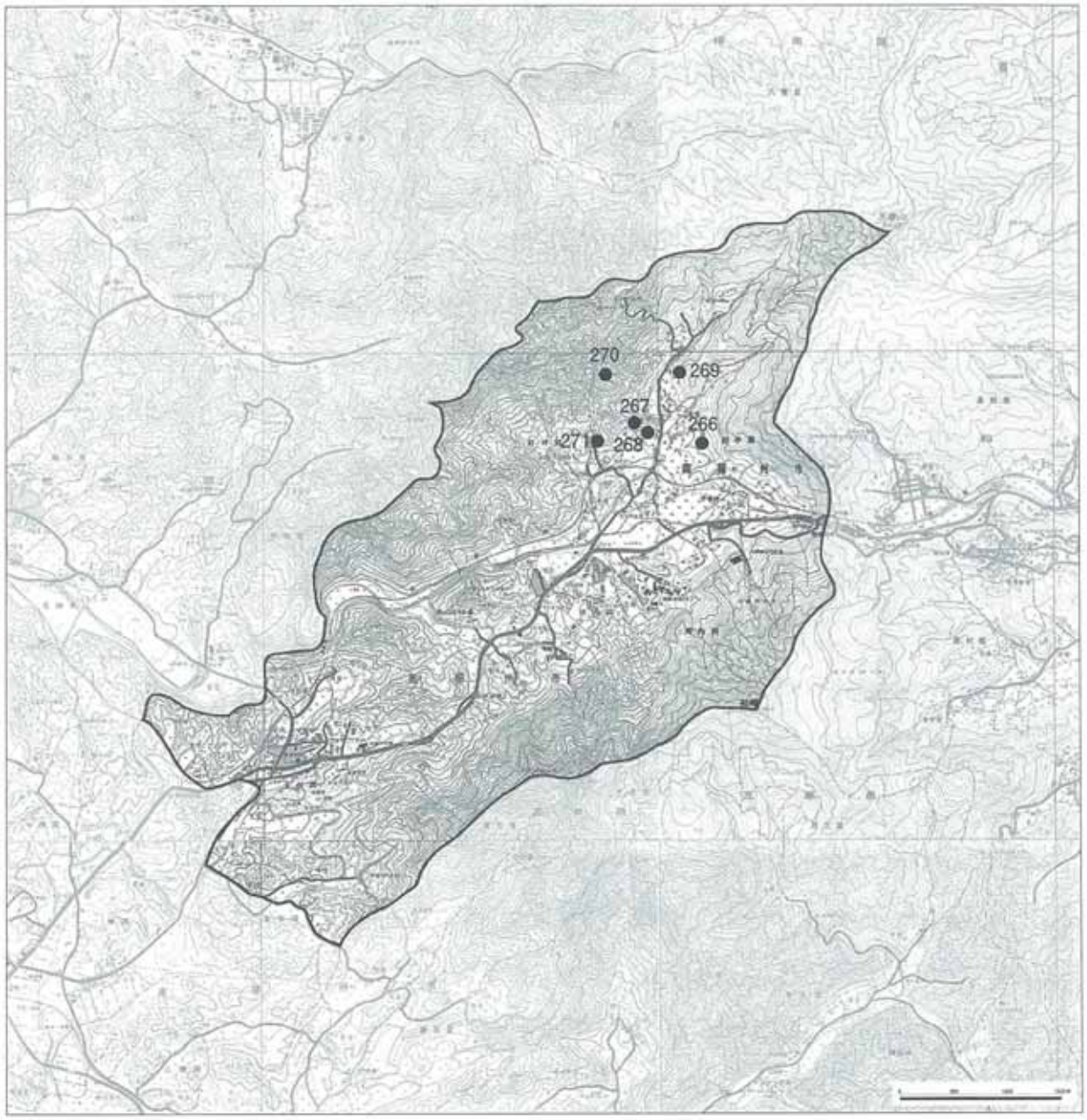
주간높이 2m 부위에서 줄기가 다섯 갈래로 갈라지면서 잔가지가 밑으로 많이 늘어져 전체 형태가 버섯모양으로 공처럼 둥글고 향나무잎이 뭉게구름을 연상시키듯 신비로우며 가지가 위아래로 뻗는 특징이 있다.

오남천을 가로지르는 삭다니교를 건너 약 1.2㎞ 정도 진입하면 낮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불암산 봉우리가 한 눈에 들어오는 양지바른 삭다니마을의 居昌愼氏 사당인 陽山齊 앞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서있는 이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수령 500년, 수고 11m, 흉고둘레 3.6m, 수관폭 1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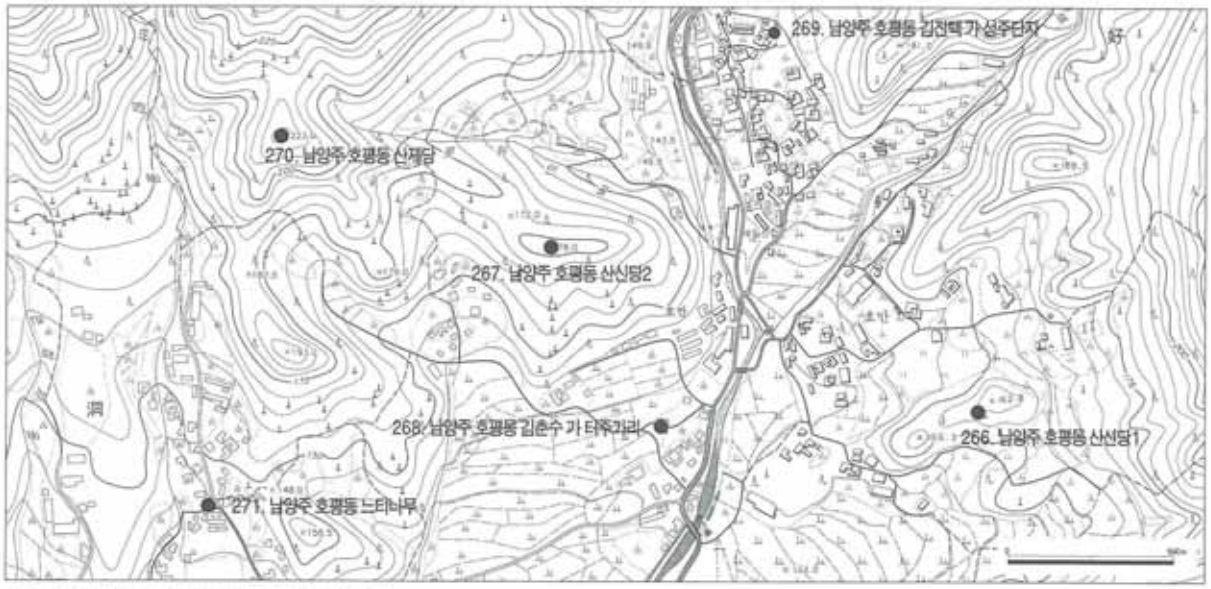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천연기념물 제232호
경기-남양주-40(1970. 11. 5)

好坪洞



호평동 문화유적 분포현황

266. 南楊州 好坪洞 山神堂1



지도266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1 위치도(양수 031)



사진266-1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1



사진266-2 호평동 평촌마을의 산제바위

□소재지 : 호평동 산5-32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1) 조사지 개관

경춘 국도를 따라 마치고개 바로 직전 호평동 진입로에서 좌측 신호를 받아 들어가면 바로 이 마을이 평촌(벌말)이다. 조사지역인 호평동은 원래 양주군 상도면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면 통폐합에 따라 호만리, 평동리, 지사리, 궁평리, 장내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호만과 평동의 이름을 따서 호평리라 하여 미금면(읍)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1월 미금읍이 미금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1월 미금시가 남양주시로 통합되면서 남양주시 관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22]

호평동은 수리적으로 볼 때 북위 37°38′~37°41′, 동경 127°13′~127°16′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중앙적 위치로 자연 및 생활 모습이 우리나라의 중간적 성격을 띄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남양주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금곡동과 연하여 있으며 천마산을 배경으로 하여 백봉산을 바라보고 있다. 경춘국도를 이용한 동서간 교통로를 따라 서울과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역에 속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청량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 면적은 호평동 전체 면적이 9.3㎢이다. 그러나 임야가 전체 면적의 80%(7.5㎢)가 되어 경지율은 14%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논보다는 밭이 약간 많은 편이다. 인구는 1992년의 경우 호평동 전체 인구가 4,049명(남 2,107명, 여 1,942명)이었으나 2년 후인 1994년에는 4,027명으로 2년전 보다 22명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지역에 외지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생업활동 역시 도시 근교지역으로서 최근 들어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농업보다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사마을인 호평동 벌말의 경우 호평동의 가장 중심지역으로 상가(商街)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을 오가는 165-2번과 765번 시내버스 종점이 있으며, 호평동 사무소가 마을 입구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앞 백봉산에는 최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서울리조트(백봉스키장) 공사현장이 흉물스럽게 들어나 있고, 경춘국도 좌측으로는 호평동에서 제일 넓은 옥답이 널려 있다. 마을 앞으로는 경춘국도가 지나고 있으며, 마을 중앙 역시 경춘선이 가로지르고 있어 얼핏 보아 산란한 느낌을 주나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분지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 예전에는 꽤 아늑하고 조용한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유씨와 박씨가 모여 살았던 이곳은 대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최근 마을에 목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마을의 유휴노동력을 비롯하여 외지인들을 흡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23]으로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마을 공동으로 천마산 자락 벌통재에 있는 산신당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행해지고 있다.

(2) 위치와 형태

평촌마을의 산신당은 마을로부터 동북쪽 약 2㎞ 떨어진 천마산 3부 능선 '벌통재'라고 부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산신당은 1칸짜리 슬레이트 지붕에 벽돌로 벽을 쌓아 만들었다. 산신당 내부에는 넓적한 큰돌이 놓여 있어 이를 젯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신당 안에는 놋그릇으로 된 옥수그릇, 솥, 촛대, 접시, 수저 등과 같은 각종 제기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산신당 뒤편 약 20여 미터 거리에는 산치성을 드리는 큰 산제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촛대가 1개 있다. 한편 산신당 주변에는 지금도 아름드리 노송이 있어 신목으로 위해지고 있다. 그리고 산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산신당에 땔나무로 사용할 장작을 많이 해 놓아야 한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평촌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밤 1시경 마을로부터 동북쪽 약 2㎞ 떨어진 천마산 3부 능선 "벌통재"라고 부르는 곳에서 마을 공동으로 산치성을 드린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마을제를 "산치성" 또는 "산신제"라고도 부르나, 대개 "산치성"이라고 부른다. 현재 산치성은 벌말재에 있는 산신당에서 치러진다. 약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벌말의 경우 산신당이 없었다고 한다. 즉 오래된 노송(老松) 아래 평평한 곳(자연제단)에서 산신제를 지내오던 것을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30여 년 전에 산신당을 처음 지었다고 한다.

한편 산신당 주변은 매우 영험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근접하지 않는다. 특히 비린 것 등을 먹고 산신당

2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327쪽, 1985.

23) 특히 호평동의 경우 젊은 층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제보자인 정명국씨의 경우 1991년부터 새마을지도자로 일하면서 마을 역사 및 유래, 생활풍속 등에 대하여 마을 어른들에게 탐문 조사하여 안규영씨 등과 함께 『호평동 향토지』를 발간하는 등 우리 전통문화의 전승 보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주변에 가면 해를 입는다고 하여 산치성을 드릴 때 이외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

벌말에서는 男神을 위한다. 즉 천마산 산신은 남신이고, 평내동 뒷산인 백봉에는 女神이 거주하고 있다. 제의 목적을 살펴보면 3월 3일에 치러지는 봄치성의 경우 일년 농사를 잘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豫祝的 의미가 담겨있고, 가을치성의 경우에는 햇곡식으로 천신함으로써 추수감사제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즉 가을치성의 경우 햇곡식을 종류별로 조금씩 그릇에 담아서 제상에 올리고 천신함으로써 추수 감사 및 마을의 액운을 막아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이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가을치성이 끝나야만 각 가정에서는 조상에 대한 시제와 집 고사인 가을고사를 치를 수 있다고 한다.

(4) 관련의례

산치성 날짜가 다가오면 각 반장들을 중심으로 마을 어른들이 의논하여 산치성을 주관할 당주와 부당주, 그리고 제주를 선출한다. 대개 2월말과 8월말에 이들을 선출한다. 이들은 각각 1명씩 선출하는데, 당주는 음식준비와 제의를 주관하고, 부당주는 제당 주변 청소 및 우물 청소, 땔나무 준비 등을 담당한다. 제주는 제주로 쓸 조라술을 담그는 일을 담당한다. 한편 마을 어른들은 생기복덕을 보아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제관을 선출한 다음, 반장이 제관으로 선출된 것을 당사자에게 알려 수락 여부를 묻는다. 당주로 선임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으면 대개 처음에는 사양하나 여러 사정으로 수락하게 된다. 그러면 반장은 이 사실을 온 동네에 알린다. 이렇게 하여 당주로 정해지면 최소한 치성일 3일전부터 목욕재계를 하고 심신의 준비와 정성을 드리며 바깥출입을 삼간다. 심지어 예전에는 초하루부터 당주집과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쳐 부정함을 막았다고 하나 20여 년 전부터는 금줄을 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 금기 사항들이 많이 느슨해져 마을에 초상이 나더라도 당주만 깨끗하면 제를 그대로 지낸다. 그러나 예전에는 마을에 부정이 발생할 경우 제의를 연기하거나 때로는 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아무튼 까다로운 금기 때문에 서로 당주가 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때로는 통장들이 제를 주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마을에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주로 선정되면 거절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제의 경비는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한번 제를 지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30여 만원으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제의가 끝나면 제물을 집집마다 나누어 먹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제물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마을 기금을 이용하지 않고 쌀 1되와 돈 1,000원씩을 집집마다 걷어 제의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제물로는 삶은 소머리(예전에는 통소) 1개, 백설기 1말(예전에는 1가마 정도), 밤 · 대추 각각 1되, 사과 7개, 소간과 소천엽(생것으로) 각각 1근씩, 노구메 3그릇, 옥수 1그릇, 술(예전엔 조라술), 초 2개, 향, 소지종이 등이 차려진다. 그런데 가을치성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햇곡식을 주발에 가득 담아 천신한다. 햇곡식으로는 쌀, 콩, 팥 등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햇곡식을 1되 정도 되는 주발에다 담아 제상 맨 앞줄에 진설한다. 한편 한국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산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통소를 잡았다고 한다. 제물로 쓸 소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웠다고 한다. 제물로 쓸 소는 마을에서 잡은 다음 지금과 같이 소머리와 간, 그리고 천엽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 제물로 바쳤다. 제물로 사용된 소는 제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 제물은 당주가 서울 마장동에 가서 구입한다. 제물 구입시에도 부정이 없어야 한다.

치성날에 앞서 당주와 부당주, 그리고 제주는 산신당 진입로의 풀을 깎고 산신당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함은 물론 당 앞에 있는 우물을 정갈하게 치워놓는다. 이때 산에서 내려오면서 산신당에 보관되어 있는 제기를 가지고 내려와 깨끗하게 닦는다. 한편 祭酒는 '조를 잡힌다' 고 하여 산치성 3일전에 산신당 밑 땅을 파고 조라술을 담근다. 그러나 근래에는 조라술 대신 약주를 사용한다. 노구메 역시 산신당에서 지어 올린다.

대신 떡은 집에서 쪄서 시루채 지고 간다. 축문은 예전에는 있었으나 근래에는 축문을 쓸 사람이 없어 축문을 읽지 않고 각 세대별 소지만을 올린다.

이렇게 하여 모든 준비가 끝나면 산신당 위 신목 앞에 마련된 제단 위에 제수를 진설한 후 제주(술)를 올리고 재배한다. 이어 축문을 읽고(현재는 생략) 준비된 각 세대별 소지를 올린 다음 음복을 한다. 음복이 끝나면 진설했던 제물을 당주집으로 가지고 내려온다. 당주 집으로 운반된 제물 중 떡과 고기, 대추, 밤 등은 세대수대로 나누어서 분배되며, 다시 식구수대로 나뉘어져 주민 모두가 먹게 된다. 예전에는 이 날 모처럼 고기 맛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치성 제물을 먹어야 치성덕을 본다고 믿어 거의 모든 세대가 받아 갔으나 근래에는 점차 사라져 가는 풍속이 되었다. 치성 후 음복시에는 쇠탕(소머리탕)을 마련하고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여 술과 국을 먹으면서 당주와 부당주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이런 가운데 부조, 노역, 품앗이, 경작문제 등을 의논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풍습도 이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유적의 향후조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의 방식에 있어서 약간 변모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나, 도심 속에서도 그 오랜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제의 전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속문화재로서 전승될 수 있도록 행정적 · 학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천마산 산신제와도 연관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 지도번호 : 마석 206-3

□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 1985.

안규영, 『호평동 향토지』, 1994.

267. 南楊州 好坪洞 山神堂2



사진267-1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사진267-2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의 산제당



사진267-3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의 신목에 걸어 놓은 현납숙



사진267-4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내부에 설치된 단



사진267-5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아궁이

□소재지 : 호평동 산54(지도266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 목조물
□내 용

(1) 조사지 개관

경춘국도를 따라 마치고개 바로 직전 호평동 진입로에서 좌측 신호를 받아 들어가면 호평동사무소가 있고, 호평동 평촌마을이 나온다. 평촌에서 북동쪽으로 포장된 마을길을 따라 경춘선 철길 밑을 지나 약 1㎞ 정도 들어가면 산 아래에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을이 호만마을이다.

조사지역인 호평동은 원래 양주군 상도면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 · 면 통폐합에 따라 호만리, 평동리, 지사리, 궁평리, 장내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호만과 평동의 이름을 따서 호평리라 하여 미금면(읍)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1월 미금읍이 미금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1월 미금시가 남양주시로 통합되면서 남양주시 관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24] 호만 마을[25]은 평촌마을보다 안쪽 깊숙이 천마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로 마을 뒤쪽에는 최근 아파트가 들어와 개발붐이 일고 있으나, 그 아래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여전히 구옥들이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는 터주와 성주 등을 모시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호만마을 역시 경춘 국도를 이용한 동서간 교통로를 따라 서울과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역에 속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청량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 각종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외지인들이 대거 유입되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생업활동 역시 도시 근교지역으로서 최근 들어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농업보다는 상업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경춘선이 지나고 있는데, 철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지사 마을이 경계를 하고 있다. 호만마을 역시 마을 북쪽 천마산 줄기 천지골에 있는 산신당에서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마을 공동으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행해지고 있다.

(2) 위치와 형태

마을로부터 서북쪽 약 1㎞ 정도 떨어진 천마산 줄기 3부 능선 '천지골'이란 곳에 마을 공동으로 산치성을 드리는 산신당이 위치하고 있다. 산신당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파른 언덕길 위에 넓은 공터가 있고 공터 뒤쪽에 산신당이 있다. 산신당 오른쪽으로 큰 바위와 함께 여러 그루의 老松이 있고, 노송 앞에는 넓은

24) 한글학회, 1985,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327쪽.
25) 호만마을의 일반적인 현황 및 지역개관은 호평동 평촌마을에서 언급한 관계로 그 내용이 중복되어 이곳에서는 생략하였음.

바위가 놓여져 있다. 바로 이 바위가 산제를 지내는 산제단이다. 산제단 반대편 낭떠러지 위에는 역시 노송 1그루와 바위가 있는데, 노송에는 오색천으로 현납속을 매달아 놓았다.

다음으로 산신당의 구조와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신당은 1칸짜리 시멘트 벽돌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방형의 건물로 정면 좌측에 출입문이 있고 산신당 좌측 옆면에는 굴뚝이 한 개 있다. 산신당의 크기를 살펴보면 정면이 461.5㎝이고, 옆면이 280㎝, 높이가 197㎝이다. 출입문의 크기는 97㎝×146㎝로, 좌측 벽으로부터 140㎝ 떨어져 있다. 산신당 내부 시설을 살펴보면 출입문 쪽을 제외한 3면이 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출입문에서 보아 좌측에 길이 244㎝, 폭 60㎝, 높이 15.5㎝되는 단이 있고, 단 중앙에는 솥을 걸 수 있는 아궁이(폭 33㎝, 높이 23㎝) 시설이 되어 있다. 아궁이 옆 안쪽 모퉁이에는 질그릇으로 된 시루가 놓여 있다. 출입문 정면 역시 길이 283㎝, 높이 15㎝, 폭 51㎝되는 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출입문 오른쪽에도 길이 244㎝, 높이 28㎝, 폭 82㎝되는 단이 만들어져 있다. 이 단 위에는 촛대 2개가 놓여 있다. 이들 단은 특별한 기능을 하기보다는 제기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호만마을 역시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밤 1시경 마을로부터 서북쪽 약 1㎞ 떨어진 천마산 줄기 3부능선 '천지골'이란 곳에서 마을 공동으로 산치성을 드린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마을제를 "산치성" 또는 "산신제"라고도 부르나, 대개 "산치성"이라고 부른다. 현재 산치성은 천지골에 있는 산신당에서 치러진다. 현재의 산신당은 약 30여 년 전에 새로 건립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초가집이었다고 한다. 산신당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으나 실제로 제의는 산신당에서 치러지지 않고 산신당 옆 바위 아래에 마련된 제단에서 치러진다. 원래 산신당에는 제기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또는 비바람을 피하는 장소로서, 그리고 메를 짓는 장소로서의 기능만을 하고 있다.

(4) 관련의례

호만마을 역시 산신으로 男神(할아버지)을 모신다. 천마산 산신을 모시기 때문이다. 한편 산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를 주관할 당주를 선출해야 한다. 제의를 주관할 사람으로는 당주 1명과 소임 2명을 선출하는데 호만마을의 경우 제보자인 김진택씨에 의해 당주와 소임이 선출된다. 즉 생기복덕을 볼 줄 아는 김진택씨가 생기복덕을 보아 일진에 맞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 한 다음 통보를 해 준다. 축문 역시 김진택씨가 써 준다. 당주와 소임의 선출은 제 지내기 4일전에 이루어진다. 당주는 음식 장만과 소지올리기 등 제를 주관하고 소임들은 당주를 도와 제 지낼 준비를 하고 축문도 읽는다. 대신 산신당 청소는 당주와 소임 등 3명이 함께 같이 가서 한다. 한편 당주와 소임으로 선출되면 3일전부터 금기에 들어가야 한다. 당주집 대문 앞에는 황토를 뿌리는데, 대문 양쪽에 한 무더기씩 두 무더기를 놓는다. 이렇게 황토를 뿌리는 이유는 이 집은 신성한 당주집이므로 외부인들의 출입을 삼가해 달라고 하는 표시라고 한다. 이외에도 당주와 소임들은 부정한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며, 제 지내기 전날에는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는 등 근신을 해야 한다. 만일 제 지내기 10여 일 전부터 마을내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10일 이상을 연기하였다가 卯日이나 亥日로 날을 정해 산치성을 드린다. 그런데 부정 중 산부정보다 죽은 부정이 더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죽은 부정이 생기면 제일을 더 많이 연기한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금기 때문에 서로 당주가 되기를 꺼려한다. 1998년의 경우 전영직(58세)씨가 당주가 되었고 소임은 통장인 황진범(44세)씨와 김양수(44세)씨가 담당하였다.

제의 경비는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마을기금이 없었을 때에는 집집마다 반장이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걷어 충당하였다고 한다. 각 가구수에 대한 제비의 배정은 총 소요된 경비를 가구수로 똑같이 나누어 내도록 하였다. 한 번 제를 지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98년 봄치성의 경우 약 13만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제물은 매우 다양한 품목들이 차려진다. 1998년 봄

치성시 들어간 제물 목록을 통해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떡살 3.3되, 소고기 2근, 소간 1근, 양힙(천엽) 1근, 닭 1마리, 북어 5마리, 대추 5승, 밤 5승, 다시마, 숙주나물, 시금치 1단, 참기름 1병, 참깨 1승, 후추 1병, 미원 1봉, 미나리 2단, 두부 5모, 감 5개, 팥 1되, 양초 3개, 창호지 10장, 사고지 인명수대로, 무 큰 것 3개 등이다. 이외에도 제물로 돼지머리가 올려지는데, 예전에는 돼지머리 대신 소머리가 올려졌다고 한다. 이러한 제물들은 서울 마장동 시장에 가서 구입한다. 한편 예전에는 제 지내기 전날 밤 12시경에 산치성 드리는 산신당 옆의 땅을 파고 조라단지를 묻었다고 한다. 산치성에는 술 대신 식혜를 올리는데, 식혜 역시 조라단지에 만들어 산신당에 갖다 묻는다. 즉 식혜를 만들어 담은 조라 단지를 땅에 묻은 다음 나뭇잎으로 덮어두었다가 제주 대신 사용한다. 이를 마을 사람들은 '조라 잡힌다' 라고 한다. 그리고 제기는 임진택씨 집에 보관하고 있다. 단지 질그릇 시루와 촛대는 산신당에 보관한다.

다음으로 산치성을 드리는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제 지내기 3일전 당주와 소임들은 산신당으로 올라가서 주변 청소와 함께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런 다음 당주 일행은 당일날 저녁 해가 질 무렵 준비된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신당으로 올라간다. 산신당에 올라가면 밤 11시까지 촛불만 켜놓고 산신당 안에서 조용히 근신하면서 기다린다. 이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다. 심지어 잡담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밤 11시가 되면 당주는 준비해간 쌀로 메를 짓는다. 메는 모두 3그릇을 짓는데, 각기 남신과 여신, 그리고 마부(하인)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남신과 여신에게 바치는 메는 앞쪽에다 모시고 마부에게 바치는 메는 산치성 드리는 옆쪽에 따로 놓는다. 마부에게는 메 1그릇과, 떡 1시루, 식혜 1잔만 올리는데 절은 하지 않는다. 떡은 당주집에서 쪄 가지고 가는데 떡 역시 3시루를 찐다. 떡의 양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많이 준비했으나 요즘은 1시루에 1되 정도 찐다. 이렇게 하여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를 지낸다. 우선 조라술 한 잔을 붓고(모사잔이라고 함), 축문을 읽는다. 그런 다음 당주가 재배를 하고 싸리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시접에 올려놓는다. 이어 다시 당주가 재배를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대주 소지를 모두 올려 주었으나 지금은 당주 소지와 소임 소지, 그리고 대동 소지 등 모두 3번만 올린다. 가구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가구수대로 세대주 소지를 다 올려주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소화시킨 것이라고 한다. 즉 10여 년 전에 약 200여 가구이던 것이 지금은 330여 가구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당주 일행은 제물을 마을회관으로 모두 가지고 내려와서 마을 어른들과 함께 음복을 한다. 즉 모든 제의가 끝나고 내려오는 시간은 새벽 1시경으로 마을 어른들과 함께 간단하게 음복을 한다. 그런 다음 그 다음날 아침 당주는 제물을 한지에 조금씩 골고루 싸서 집집마다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제의는 끝이 난다.

한편 이러한 산치성에 교인들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산치성을 안 지낼 경우 1년 내내 꺼림칙하다고 한다. 따라서 호만마을의 경우 지금껏 산치성을 지내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단지 택지개발로 인하여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내려온 산치성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호만 마을의 축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만마을 산치성 축문

유셰차 임인 삼월 계유 삭 초삼일 을해 유학 김진택 감소고우

천마지령 천지정기 종우차산 신기영영 복원사차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호평리 호만부락

가금불침 호표원둔 재해일거 복녹일진 백곡풍등 육축번승

금자재셩 근이주생 지츤(천)우신 상 향

(5) 유적의 향후조치

산속 깊숙이 아늑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호만마을의 산신당은 그 주변에 많은 노송과 함께 산제단, 현납속 등 여러 형태의 신앙대상물들이 있어 마을신앙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제의 전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단지 택지개발로 인하여 마을이 해체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민속문화재로서 전승될 수 있도록 행정적 · 학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지도번호 : 마석 206-3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 1985.

안규영, 『호평동 향토지』, 1994.

268. 南楊州 好坪洞 김춘수家 터주가리



사진268 남양주 호평동 김춘수家 터주가리

□소재지 : 호평동 251(지도26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1) 조사지 개관

경춘국도를 따라 마치고개 바로 직전 호평동 진입로에서 좌측 신호를 받아 들어가면 호평동사무소가 있고, 호평동 평촌마을이 나온다. 평촌에서 북동쪽으로 포장된 마을길을 따라 경춘선 철길 밑을 지나 약 1㎞ 정도 들어가면 산 아래에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을이 호만마을이다.

호만 마을 뒤에 있는 천지골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위하는 산신당이 있고, 천지골 아래 남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마을 중앙 들판 가운데에 터주가리를 모시고 있는 김춘수(48세) 家가 위치하고 있다.(호평동 호만마을 산신당 참조)

(2) 위치와 형태

• 크 기

– 터주가리 : 높이 85㎝, 밑둘레 130㎝

• 수 량 : 터주가리 2기(1기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묵은 터주임)

• 명 칭

– 제의명칭 : '가을고사'

– 신앙대상물의 명칭 : '터주'

• 재 질 : '짚', '항아리'

• 위 치

호만마을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도로 오른쪽에 마을회관이 있고 이곳에서 왼쪽으로 나 있는 농로길을 따라 약 200여 미터 정도 가면 도로 오른쪽에 터주가리를 모시고 있는 김춘수 家가 있다. 터주가리는 김춘수 家 뒤뜰에 위치하 고 있다.

장독대는 뒤뜰에 있지 않고, 뒤뜰과 앞 마당을 연결시켜 주는 집 옆쪽에 있다.

• 외 형

– 터주 : 조그만 항아리에 벼를 담아 뚜껑을 덮은 다음, 짚으로 원뿔 형태의 주저리를 틀어 놓았다. 즉 짚으로 이엉을 엮어 위쪽을 뾰족하게 하고 아랫부분을 넓게 하여 항아리를 둘러 친 다음, 위쪽에는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짚으로 엮어 마무리를 하였다. 그런 다음 터주가리 앞쪽에는 한지를 접어 새

끼줄로 매달아 옷을 입혀 놓았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터주를 모시고 있는 김춘수씨의 경우 언제부터 터주를 모시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모셔오고 있다. 단지 항아리를 제외한 벼와 짚 주저리는 해마다 가을 추수 후 가을고사를 지낼 때 새로 교체하고 있다. 한편 김춘수 家의 경우 묵은 터주는 스스로 망가질 때까지 그대로 놔둔다.

(4) 관련의례

터주는 집터를 지키는 신으로 장독대나 뒤꼍에 모신다. 가을걷이를 한 후에 햅곡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타작한 좋은 나락(벼)을 단지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짚으로 '주저리'를 틀어 터주가리를 만들어 모신다. 터주 중간 주저리에는 문종이를 접어서 새끼줄로 묶어 놓는데 이를 "예단 드린다"고 한다. 터주가리는 1년에 한번씩 바꾸는데, 터주에는 나락을 주로 넣어 두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쌀을 넣기도 한다. 헌짚 주저리는 마당에서 불을 놓아 태운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에는 터주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다시 모셔 놓는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동·서·남·북·중앙 등 다섯 방위에 각각 다섯의 신이 있다고 믿었다. 그 중, 터주는 다섯 신 가운데 북쪽의 신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터주는 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터주에는 항상 터주항아리 놓는 돌과 떡시루 놓는 돌 두 개를 놓았다. 그 이유는 집안 고사 후 항상 터주에게 먼저 봉양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터주항아리를 다시 위할 때는 그 속에 들어 있던 쌀로 떡을 해 먹었다고 한다. 가을에 고사떡을 하면 반드시 터주에 갔다 놓고 위하였다. 요즘도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난 후 햅곡식으로 시루떡을 하여 그것을 먹기 전에 장독대에 시루채 갔다 놓고 터를 위한다. 터주고사를 지낼 때에는 팥시루떡과 북어, 막걸리(막걸리가 없으면 냉수를 대신 떠놓고 지낸다) 등을 차려 놓고 터주를 모시는데, 만신이 와서 터주고사를 할 때는 삼색실과 등 각종 제물을 고루고루 차려 놓고 지낸다. 성주나 터주, 조왕, 업, 대감, 칠성 등 집에서 모시는 신들은 모두 하루에 다 모신다.[26]

호평동 호만마을 김춘수 家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김춘수 家에는 터주가리가 2개 모셔져 있다. 집 뒤꼍에 있는 이 터주가리는 옛것과 새것이라고 한다. 터주항아리에는 벼를 넣어 두는데, 해마다 가을농사를 지은 후 첫 수확물을 넣어 놓는다. 터주는 가을고사시 교체하며, 이때 집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순서에 따라 함께 모신다. 짚 주저리는 남자가 만든다. 터주가리가 완성되면 한지 1장을 접어 터주가리 앞에 끼워 놓는다. 이를 '옷 입힌다'고 한다. 이외에도 김춘수 家에는 문 앞에 부적을 붙여 놓고 있다.

(5) 유적의 향후조치

택지개발로 인하여 호만 마을에 있는 가옥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비록 집안에서 모시는 개인신앙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생활사는 물론이고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개인 신앙대상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학술조사를 통하여 이를 분석함은 물론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지도번호 : 마석 206-3

26) 이 내용은 김춘수 家의 신앙 형태와는 무관하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터주가리의 일반적인 신앙형태를 필자가 정리 요약한 것임.

269. 남양주 호평동 김진택家 성주단지



사진269 남양주 호평동 김진택家 성주단지

□소재지 : 호평동 396(지도266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1) 조사지 개관

경춘국도를 따라 마치고개 바로 직전 호평동 진입로에서 좌측 신호를 받아 들어가면 호평동 사무소가 있고, 호평동 평촌 마을이 나온다. 평촌에서 북동쪽으로 포장된 마을길을 따라 경춘선 철길 밑을 지나 약 1㎞ 정도 들어가면 산 아래에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을이 호만마을이다.

호만마을 뒤에 있는 천지골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위하는 산신당이 있고, 천지골 아래 남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마을중앙 마을회관 위쪽에 성주를 모시고 있는 김진택(73세) 家가 위치하고 있다.(호평동 호만마을 산신당 참조)

(2) 위치와 형태

• 크 기
– 성주단지 : 높이 약 25㎝, 윗지름 약 10㎝
• 수 량 : 성주단지 1기
• 명 칭
– 제의명칭 : '가을고사'
– 신앙대상물의 명칭 : '성주단지'
• 재 질 : '백자 항아리(단지)'
• 위 치

호만 마을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도로 오른쪽에 마을회관이 있고 이곳에서 마을 위쪽으로 농로길을 따라 약 100여 미터 정도 가면 도로 오른쪽에 성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김진택 家가 있다. 성주단지는 김진택家 대청마루 위에 위치하고 있다.

• 외 형

– 성주단지 : 조그만 호리병 모양의 백자 항아리(단지)에 쌀을 담아 뚜껑을 덮어 대청마루 시렁 위에 모셔 놓았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성주를 모시고 있는 김춘수씨의 경우 언제부터 성주를 모시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모셔오고 있다. 단지 항아리에 들어 있는 쌀은 해마다 가을 추수 후 가을고사를 지낼 때 새로 교체하고 있다.

(4) 관련의례

성주는 집안에서 모시는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신이다. 대개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좋은 날을 받아 성주를 모신다. 지금은 성주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성주를 모셨다고 한다. 성주는 보통 마루나 대청마루 중앙 대들보 위에 모신다. 모시는 형태는 대개 한지를 접어서 그 안에 곡식을 넣은 다음 명주실로 묶어 놓는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모두 성주 탓으로 돌렸다.

한편 성주를 모실 때에는 무당을 불러서 성주굿이나 성주고사를 하였다. 성주굿은 먼저 장독대에 가서 터주굿을 한 다음 부엌으로 가서 조왕굿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주굿을 한다. 그러나 성주굿은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한 다음 성주를 새로 모시고자 할 때 주로 하였다. 보통 가을에 추수를 마친 후 햇곡식으로 가을 떡을 해 놓고 북어와 막걸리, 산적(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등의 제물을 차려 놓고 성주 앞에서 비손 한다. 주로 부녀자들이 하는데 10월 상달 중 좋은날로 날을 잡는다. 대개 戊午日이나 甲子日이 성주를 모시는

데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한다.

새로 집을 지으면 제일 먼저 성주를 모신다. 성주는 상량식 하는 날 모신다. 성주는 '대주(할아버지)' 이기 때문에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성주를 만들어 북어 한 마리를 매달아 대들보에 걸어 놓는다. 그런데 만약 세 대주가 죽으면 원래 성주는 없애고 장남이 성주를 이어받아 다시 모신다. 성주를 없앨 때에는 성주에 들어 있던 묵은 쌀을 꺼내어 반드시 떡을 해 먹고 쌀을 쌌던 종이는 불 태워 버린다.[27]

호평동 호만마을 김진택 家의 경우 지금도 성주를 모시고 있다. 항아리에 쌀을 담아 그 위에 한지를 접어 넣는다. 성주는 가을고사시 터주와 함께 같이 모신다. 성주를 모시는 날은 산치성을 마친 후 음력 10월 중 戊午日로 날을 잡는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을농사를 지은 다음 첫 수확한 깨끗한 쌀 1말로 팥 시루떡을 2시루 찐다. 이때 성주시루에는 백설기 1되 정도를 팥 시루떡 위에 함께 넣고 쪄서 청수 1그릇과 함께 밥상에 올려놓아 부엌에 갔다 놓는다. 조왕신을 모시기 위해서이다. 한편 팥 시루떡에는 시루 속에다 술 1잔을 올려놓고, 이어 통북어 1개를 시루에 걸쳐놓은 다음 성주가 있는 마루에 갔다 놓는다. 그런 다음에 터주를 모시는데, 터주는 성주를 모신 다음에 올린다. 터주시루에 역시 북어 1마리와 술 한 잔을 올린다. 한편 백설기는 가을 농사를 지은 다음 제일 먼저 쌀 한 되를 따로 떠놓았다가 그 다음해 가을고사를 지낼 때 백설기를 쪄서 조왕에게 바친다. 성주와 터주, 그리고 조왕에게는 절을 두 번 반씩 한다. 그런 다음에 떡을 잘라 각 방과 대문, 우물, 그리고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갔다 놓는다. 이때 터주시루는 그대로 놔두고 성주시루를 잘라 떡을 접시에 담은 다음 집안 곳곳에 갔다 놓는다. 김진택 家의 경우 봄에도 이러한 고사를 지낸다. 즉 집 생일날인 음력 2월 27일날 '성주 생일 고사' 라 하여 가을 고사 때처럼 고사를 지낸다.

(5) 유적의 향후조치

택지개발로 인하여 호만마을에 있는 가옥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비록 집안에서 모시는 개인신앙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생활사는 물론이고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개인 신앙 대상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학술 조사를 통하여 이를 분석함은 물론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도번호 : 마석 206-3

270. 南楊州 好坪洞 山祭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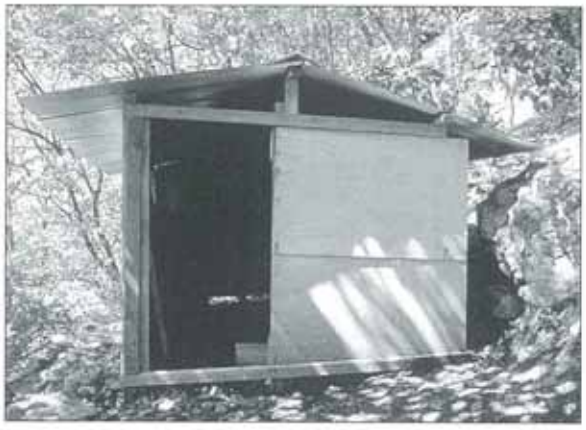


사진270-1 남양주 호평동 산제당



사진270-2 남양주 호평동 지사마을의 산제터

27) 이 내용은 김진택 家의 신앙형태와는 무관하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주의 일반적인 신앙형태를 필자가 정리 요약한 것임.



사진270-3 호평동 지사마을의 굿터

□소재지 : 호평동 산49-1(지도266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1) 조사지 개관

경춘 국도를 따라 마치고개 바로 직전 호평동 진입로에서 좌측 신호를 받아 들어가면 호평동사무소가 있고, 호평동 평촌 마을이 나온다. 평촌에서 북서쪽(왼쪽)으로 포장된 마을길을 따라 가다보면 경춘선 철길이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조그만 시골역인 평내역이 있다. 평내역에서 철도 건널목을 지나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약 100여 미터 가면 바로 산제당이 있는 지사 마을이 나온다.

조사지역인 호평동은 원래 양주군 상도면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 · 면 통폐합에 따라 호만리, 평동리, 지사리와 궁평리, 장내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호만과 평동의 이름을 따서 호평리라 하여 미금면(읍)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1월 미금읍이 미금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1월 미금시가 남양주시로 통합되면서 남양주시 관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28]

지사마을[29]은 호만마을 서쪽 천마산 자락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마을로 평촌, 호만, 지사마을 중 가장 개발이 안된 마을이다. 따라서 민가 역시 여전히 구옥들이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중앙에는 오래된 느티나무[30]가 있다. 지사마을 역시 경춘국도를 이용한 동서간 교통로를 따라 서울과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역에 속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청량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 각종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외지인들이 대거 유입되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생업 활동 역시 도시 근교지역으로서 최근 들어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농업보다는 상업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통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마을 앞으로는 경춘선이 지나고 있는데, 철길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호만 마을이 있고 마을 앞 평지에는 평촌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지사 마을 역시 마을 북쪽 바랑골산 중턱 산제터에서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마을 공동으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행해지고 있다.

(2) 위치와 형태

호평동 4통에 속해 있는 지사마을의 산제당은 마을로부터 북쪽 약 1㎞ 떨어진 바랑골산(마을 뒷산) 중턱 '산제터'에 위치하고 있다. 즉 마을 중앙에 있는 보호수인 느티나무를 지나 마을 뒤로 나 있는 농로길을 따라 가다보면 둑 아래로 산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있고, 냇물을 따라 산길로 접어들면 등산로가 나온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여기서 오른쪽 길을 따라 약 200여 미터만 올라가면 산등성이

2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상), 327쪽, 1985.
29) 지사마을의 일반적인 현황 및 지역 개관은 호평동 평촌 마을에서 언급한 관계로 그 내용이 중복되어 이 곳에서는 생략하였음.
30) 이 느티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품격 : 시 나무 · 수 종 : 느티나무 · 수 령 : 300년 · 수고 : 6m · 나무둘레 : 3m · 고유번호 : 5-12-3 · 지정일자 : 1982. 10. 15
· 소재지 : 호평동 453번지 · 관리자 : 호평동장

에 산제당이 있다.

현재 산제당은 베니아판으로 벽을 만든 다음 함석으로 지붕을 한 임시 제당 형태로, 앞면 239㎝, 옆면 324㎝, 높이 173㎝의 장방형 건물이다. 앞면에는 폭 84㎝, 높이 163㎝ 크기의 문이 있다. 산제당 내부에는 솥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불에 그을린 벽돌 6개가 있으며, 산제당 오른쪽 뒷편에는 산제터가 있다. 산제당 왼쪽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으며 산제당 아래쪽 등산로 바위 밑에는 무당들이 굿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호평동 4통에 속해 있는 지사마을에서도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밤 10시경에 마을로부터 북쪽 약 1㎞ 떨어진 바랑골산(마을 뒷산) 중턱 '산제터'에서 산치성을 드린다. 산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산을 위해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따라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산신을 위해 오고 있다. 지사 마을 역시 마을제를 부르는 명칭에 있어서 "산치성 드린다"라고 하며, 산치성 드리는 장소를 '산제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호만이나 벌말과 같이 지사마을에서도 1년에 봄가을 2회 산치성을 드리는데, 만일 제를 앞두고 마을에 초상이나 출산, 심지어 개 등 짐승을 잡아먹는 등의 부정이 발생하면 다음달로 제를 연기한다. 산치성 날짜를 연기할 경우에는 일진을 보아 좋은 날로 날을 다시 잡아 지낸다.

원래 지사마을의 경우 산제당이 없었다. 현재 산치성을 드리는 터인 산제터에서 건물 없이 산치성을 드리던 것을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산제당을 지었다고 한다. 산제당을 처음 지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여년 전으로, 당시에는 흙집에 초가지붕이었다. 그 후 시멘트 벽돌에 슬레이트로 산제당을 지어 사용해 왔는데, 1997년 산사태가 나면서 산제당이 무너져 1998년 봄 나무기둥을 세우고 베니아판으로 벽을 만든 다음, 슬레이트로 지붕을 하여 산제당을 임시로 다시 지었다. 이렇게 임시로 산제당을 세운 이유는 택지개발로 인하여 언제 마을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4) 관련의례

산치성을 지내기 위해서는 당주 1명과 일꾼 3명 등 모두 4명을 제 지내기 10여 일 전에 생기복덕을 보아 선출한다. 당주가 되기 위해서는 집안에 부정이 없어야 하고 몸이 정갈해야 한다. 따라서 대개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당주를 뽑는다. 여기서 당주는 제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고 일꾼은 당주를 도와 청소를 하거나 제물을 지고 가는 보조자를 말한다. 때문에 일꾼들은 대개 젊은층이 담당한다. 일단 당주로 선출되면 당주집 대문 앞에 황토 두 무더기를 놓는다. 그리고 솔가지를 꺾어다가 대문에 꽂아 놓는다. 이는 신성한 지역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라는 표시이다.

제의 경비는 마을기금을 이용한다. 그러나 약 12년 전만 하더라도 가가호호 쌀과 돈을 조금씩 걷어 경비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걸립은 제 지내기 전날 각 반장들이 담당해 주었다. 한 번 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약 20여 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제물은 노구메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주집에서 준비해 간다. 노구메는 산신당에서 지어 올린다. 제물로는 백설기 3시루, 사과, 밤, 대추, 노구메 3그릇, 돼지머리, 단술(감주), 통북어 3마리, 초, 탕(무) 등이 준비된다. 여기서 노구메와 떡, 그리고 통북어를 3마리씩 올리는 것은 산신이 3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신의 정확한 신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한편 노구메는 산제당 앞을 흐르는 개울에서 쌀을 씻어 메를 짓는데, 밥이 새옹(노구메를 짓는 그릇을 새옹이라 함) 위로 소복하게 올라오면 그 해 재수가 좋고, 새옹 아래로 밥이 가라앉으면 운수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구메는 당주와 일꾼들이 나누어 각자 짓는데, 심지어 노구메가 소복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고까지 생각한다. 따라서 당주 일행은 모든 정성을 드려 메를 짓는다. 그리고 단술(감주)은 제의 전날 밤에 당주집에서 만들어 올리는데, 단술은 반잔씩 3번 올린다. 이러한 제물은 당주가 교문리 시장에 가서 구입한다. 한편 제기는 놋그릇으로 당주집에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당주 일행들은 저녁을

먹고 8시경에 제물을 지고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그런 다음 노구메를 지어 제물을 진설한다. 제의 절차는 유교식 제례로 호만이나 벌말과 유사하다. 소지는 제일 먼저 당주 소지를 올린 다음 세대주 소지를 집집마다 모두 올려준다. 소지를 올리면서 당주는 "아무개 소지입니다. 몸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축원을 한다. 소지가 하늘 높이 잘 올라가면 재수가 좋고 땅으로 떨어지면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지 올리기가 모두 끝나면 철상을 한다. 이때 산에서는 음복이나 헌식을 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제물을 지게에 지고 당주집에 내려와 음복을 하는데, 산치성을 드리고 내려올 즈음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당주집으로 모인다. 당주집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한지에 제물을 골고루 조금씩 싼다. 한지에 싼 제물은 집집마다 몫으로 나누어준다. 그러면 각자 집으로 가지고 가서 온 식구가 제물을 나누어 먹는데, 이때 팥고물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 제사 음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제물을 나누어 먹지 않는다고 한다. 제물을 나누어 주어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당주 일행만 나누어 먹는다. 한편 당주집에서의 음복은 산치성을 드리러 간 당주 일행만 할 뿐 마을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 대신 제물을 한지에 싸서 나누어 준다고 한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당일날 저녁에 결산을 한다.

(5) 유적의 향후조치

택지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임시제당 형태로 산제당이 현존하고 있지만 마을제의 역사와 전승형태 등으로 볼 때 지사마을의 산제당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복원되어 계승될 수 있도록 행정적 · 학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지도번호 : 마석 206-3

□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 1985.

안규영, 『호평동 향토지』, 1994.

271. 南楊州 好坪洞 느티나무



사진271 남양주 호평동 느티나무

□ 소재지 : 호평동 453(지도266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 내 용

경춘선 간이역인 평내역 뒷편으로 난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지세울 또는 지사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의 중심부 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에 서 있는 이 느티나무는 주위의 작은 느티나무들과 함께 어울려 만드는 넉넉한 수관이 하부에 넓은 그늘을 만들고 있다. 그늘밑에서 마을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수목 하부 포장면에 비닐장판이 깔려있고 의자 등이 놓여있는 정자목이며 고사지낸 흔적이 남아 있는 주민들이 정성으로 위하는 나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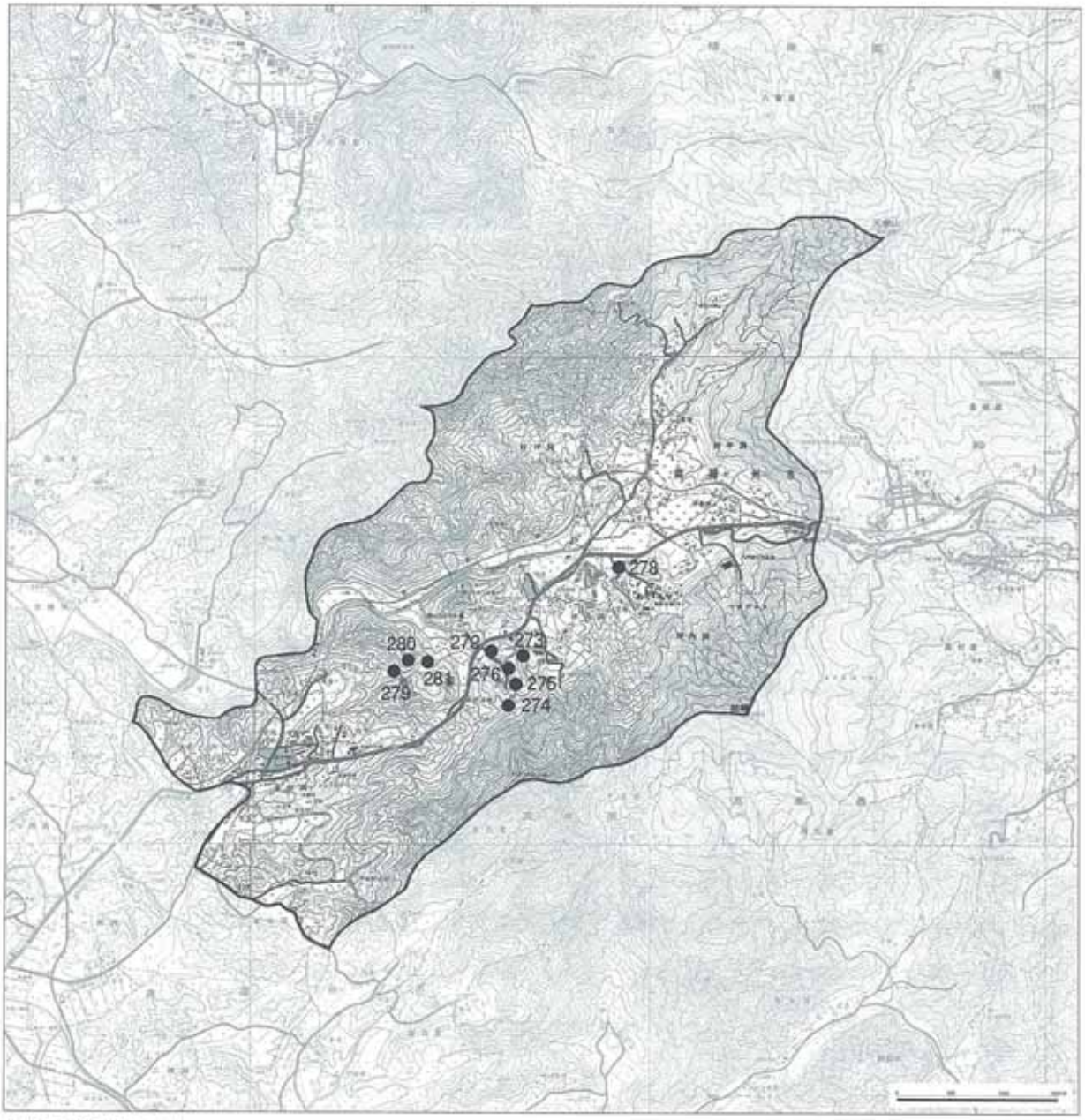
주간 하단부는 작은 느티나무와 큰 느티나무의 뿌리가 서로 엉켜서 넓게 뿌리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간 높이 약 1.5m 부위에서 주간끼리 붙어 자라는 형상으로 전체 모습은 인근 가옥으로 기울어진 원정형이다.

수령 300년, 수고 16m, 흉고둘레 5.3m, 수관폭 24m.

□ 지도번호 : 양지 2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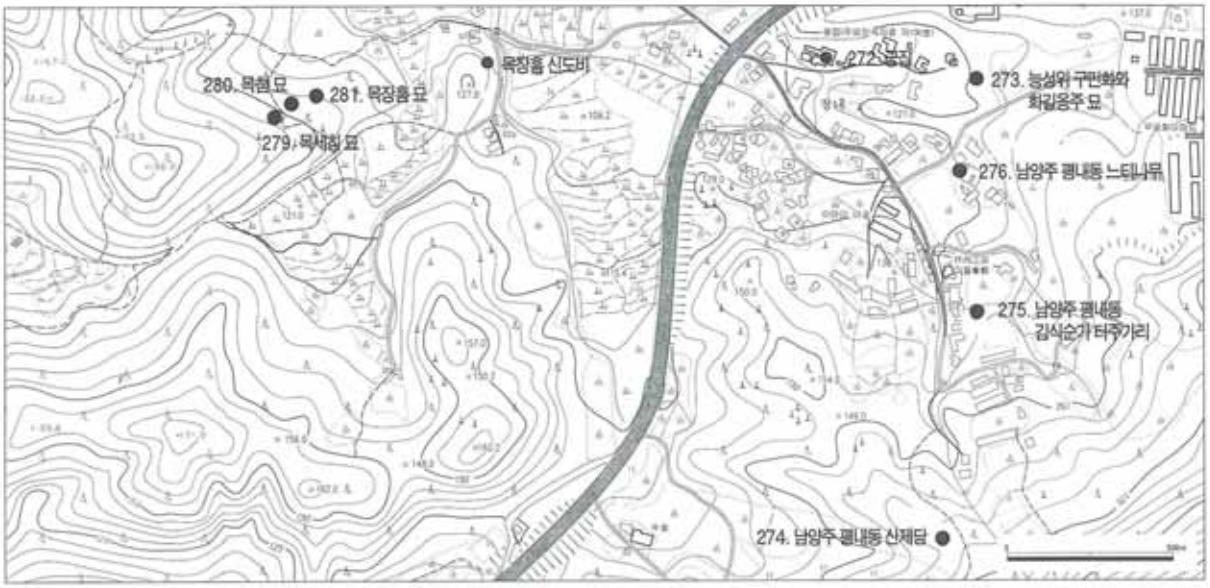
□ 비 고 : 경기-남양주-5(1982. 10. 15)

坪內洞



평내동 문화유적 분포현황

272. 궁집



지도 272 궁집 위치도(성동 050)



사진272 궁집

□소재지 : 평내동 426-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古家

□내　용

궁집은 평내동을 지나는 46번 국도변에 인접하여 우측에 있다. 영조의 막내딸인 和吉翁主(1765~1772)가 綾城尉 具敏和에게 시집가자 왕이 지어준 집으로, 나라에서 재목과 목수를 보내어 지어주었기에 궁집이라는 별호가 생겼다.

안채는 전형적인 'ㅁ' 자형으로 당시의 전형적인 안채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다. 부엌 4칸, 대청 4칸, 방 3칸, 앞퇴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침 좌 · 우의 날개는 방과 곳간이고, 남행랑에는 곳간과 중문이 설치되어 있다. 중문은 2칸으로 만들어 내외벽을 구성하였다. 사랑채는 안채의 서남쪽에 있는데 'ㄱ' 자형의 평면으로 방 2칸 이외에는 모두 마루를 깔았고, 서남쪽으로 내루 1칸이 부설되어 있다. 또 이러한 유형의 집들은 세워진 시기를 밝히기가 어려운데, 이 집은 화길옹주가 출가하여 죽을 때까지 거처했을 것이므로 건축연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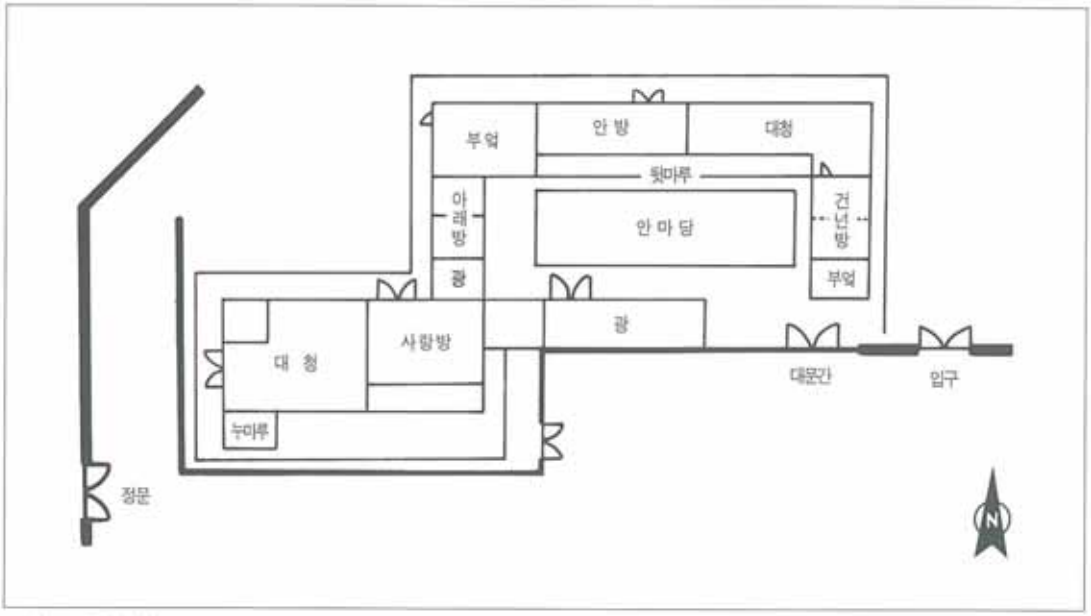
초가는 궁집의 일을 거들던 아랫사람들이 거처하던 집이라고 하는데, 초가라고 하지만 조성은 매우 담대하면서 견실하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도면272 궁집 평면도

273. 綾城尉 具敏和와 和吉翁主 墓



사진273 능성위 구민화와 화길옹주 묘

□소재지 : 평내동 산24(지도27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능성위 구민화(1754~1800)는 본관은 능성, 영조의 駙馬이다. 1765년 영조의 12女 화길옹주와 결혼하여 능성위에 봉해졌다. 화길옹주(1754~1772)는 英祖와 廢黜된 淑儀文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7세에 봉작을 받고 12세에 구민화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낳았다.

묘는 평내동 궁집에서 남쪽으로 약 100m 거리의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하는데 화길옹주와 구민화의 합장묘이다. 北東向하고 있는 원형의 봉분은 화강암 기단석에 한옥기와를 올린 시멘트 벽돌담장의 곡장내에 안치되어 있다. 봉분 앞에는 중간석 · 상석 · 6각향로석이 있는데, 상석은 4면에 鬼面을 양각한 높이 32㎝의 고석위에 놓여져 있다. 향로석 우측에 혼유석이 있고, 그 좌측에 묘비가 있다. 비는 정사각형 민무늬 비좌,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前 · 左 · 後 3면에 비문이 있는데 前面에는 2열로 "朝鮮 綾城尉具公敏和墓 和吉翁主祔左"라 하여 묘주를 밝히고, 좌면에는 1881년(고종 18)에 세웠음을 알 수 있는 "崇禎紀元後4辛巳"의 건립연기가 있다. 비문은 아들 具命喜가 썼다.

크기는 비좌 높이 54㎝ · 너비 90㎝ · 두께 90㎝, 비신 높이 155㎝ · 너비 55㎝ · 두께 51㎝, 옥개석 높이

62㎝ · 너비 102㎝ · 두께 102㎝이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단순한 형태의 망주석 · 양석이 있는데 약간 통통한 편이다. 향로석 앞에는 1800년대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단순하지만 조각기법이 떨어지는 높이 223㎝의 장명등이 있다. 사각형의 받침대에는 龍문양을 조각하였고, 그 위에 국화문양을 장식하였으며, 사각의 화창을 만들고 그 위에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이 화려하게 있다. 묘의 뒷쪽 좌우와 장명등 앞 좌우에 천막을 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양석이 4개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사진274-3 남양주 평내동 산제당 부엌

274. 南楊州 坪內洞 山祭堂



사진274-1 남양주 평내동 산제당



사진274-2 남양주 평내동 산제터

□소재지 : 평내동 산21(지도272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

□내 용

(1) 조사지 개관

경춘국도를 따라 남양주시청이 있는 금곡동 고개를 지나면 금곡동과 경계를 하여 평내동이 있다. 즉 평내동은 금곡동과 호평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내동의 중심지역은 아파트촌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이다. 그 중 조사지인 평내동 장내마을은 이러한 도심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시골의 정취가 풍기는 농촌마을로, 경춘국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입구 경춘국도 왼쪽에는 평내파출소가 자리하고 있고 도로 오른쪽 마을 입구에는 경기도 중요민속자료 제129호인 궁집이 위치하고 있다. 마을은 이곳 궁집으로부터 남쪽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 뒤 산 밑에는 '약사암'이 있다.

행정구역상 평내 3통에 속해 있는 장내마을은 원래 양주군 상도면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 · 면 통폐합에 따라 궁평리와 장내리를 병합하여 궁평과 장내의 이름을 따서 평내리라 하여 미금면(읍)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양주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1월 미금읍이 미금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1월 미금시가 남양주시로 통

합되면서 남양주시 관할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31]

평내동의 경우 수리적으로 볼 때 북위 37°38′~37°41′, 동경 127°13′~127°16′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중앙적 위치로 자연 및 생활 모습이 우리나라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남양주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금곡동과 연하여 있으며, 마을 뒤로는 백봉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춘국도를 이용한 동서간 교통로를 따라 서울과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역에 속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청량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이 지역에 외지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생업활동 역시 도시 근교지역으로서 특히 최근 들어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농업보다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평내동의 경우에는 시내 중심지로서 현재도 이미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 밀집지역이다. 단지 조사대상 마을의 경우 중심지로부터 외곽에 떨어져 있는 마을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 뒤 동남쪽 약사암 아래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위하는 산제당이 있다.

(2) 위치와 형태

평내동 3통에 속해 있는 장내 마을의 산제당은 마을로부터 동남쪽 약수암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산제당이 있는 곳을 "학당골" 또는 "산제당골"이라 부르는데 산제당은 마을 뒷편에 있는 약수암 바로 아래 개울 옆에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산신제를 올리는 산제터는 비록 작은 야산이지만 마을 맨 뒤쪽에 있는 봉우리로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그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는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으며 산제터와 산제당을 오갈 수 있는 산길이 나 있다.

산제당은 시멘트 벽돌집에 슬레이트 지붕을 하였으며, 구조는 방 1칸에 부엌 1칸으로 이루어졌다. 산제당의 크기를 살펴보면 정면 505㎝, 옆면 271㎝의 장방형으로 건물 높이는 추녀끝까지가 204㎝이고, 중앙부는 261㎝이다. 정면에서 보아 오른쪽(약수암 방향)에 방이 있고 왼쪽에는 부엌이 있다. 우선 방의 구조를 살펴보면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가로 76㎝×세로 151㎝)이 부엌을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판자문으로 여닫이문이다. 그리고 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나 있다. 즉 정면에 판자로 된 창문(가로 69㎝×세로 61.5㎝)이 나 있고, 반대편인 뒤쪽에도 역시 같은 크기의 여닫이 창문이 있다.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으며, 방 안에는 각종 제기와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 한편 부엌은 정면이 개방되어 있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2면은 벽 윗부분이 터져 있다. 즉 부엌 뒤쪽 벽은 그 높이가 102㎝이며, 부엌 옆면은 167㎝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엌 뒤쪽에는 부뚜막(길이 228×폭 78.5×높이 23.5㎝)이 있어, 그 위에 2개의 솥(지름 28㎝, 지름 50㎝)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부뚜막 뒤쪽에는 역시 두 개의 굴뚝이 있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평내동 3통에 속해 있는 장내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9일 밤 9시경에 마을로부터 동남쪽 약수암 바로 아래에 있는 산제당에서 마을 공동으로 산치성을 드린다. 산제당이 있는 곳을 "학당골" 또는 "산제당골"이라 부르는데 산제당은 마을 뒷편에 있는 약수암 바로 아래 개울 옆에 자리하고 있다. 장내 마을 역시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마을제를 "산치성" 또는 "산제"라고 하며 '산신'을 위하고 있다. 실제로 옛날에는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개나 소 등 가축을 물어갔다고 한다. 심지어 사람도 잡아갔기 때문에 산제를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산제당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전에 건립하였다. 산치성을 드릴 때면 날이 춥고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산제당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산제

3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327쪽, 1985.

당 건물은 없었다. 따라서 지금도 산치성은 산제당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산제당으로부터 약 25m 정도 떨어진 동산 위 공터에서 산치성을 드린다. 즉 예로부터 산치성은 마을 뒤에 자리하고 있는 백봉산 아래 조그마한 산봉우리에서 지내오고 있다.

(4) 관련의례

산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를 주관할 당주를 선출해야 한다. 제의를 주관할 사람으로는 안당주 1명과 바깥당주 1명, 나뭇꾼 2명, 소임 1명, 축관 1명 등 총 6명이 선출된다. 이들은 제 지내기 10여 일 전에 나이 등 생기복덕을 보아 부정없는 사람으로 선출하는데, 이들만이 산치성을 드리러 산제당에 갈 수 있다. 일단 당주로 선출되면 안당주와 바깥당주 집에는 대문에 황토를 뿌리고 부정한 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 금줄은 치지 않는다. 안당주가 모든 제의를 주관하는 주체자이기 때문에 바깥 당주보다 더 엄한 금기를 지켜야 한다. 제물은 안당주와 바깥 당주, 그리고 나무꾼 등 4명이 준비한다. 소임은 제사 경비를 걷는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나무꾼은 나무하는 일과 뒷심부름을 담당한다. 나무꾼은 2일 전에 산제당 청소를 깨끗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나무를 해 놓는다. 나무는 장작으로 준비하는데, 묵은 나무는 땔나무로 사용하고, 새로 준비한 나무는 비가 맞지 않게 쌓아 놓았다가 다음해에 불쏘시개로 사용한다.

제사경비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임이 걷어 충당한다. 만일 돈을 안내는 사람은 소지를 올려 주지 않는다. 한 가구당 5천원씩 걷어서 제사경비에 충당하는데, 약 100가구 정도 된다. 한편 장내마을에서 평내동 문화촌(또는 해골촌이라고도 함)으로 이사한 사람들도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를 올려준다. 대신 돈을 똑같이 내야 한다. 현재 해골촌에서는 5가구 정도가 산치성에 참여하고 있다. 제물로는 소머리 1개, 산적, 간, 천엽, 탕(소고기 부위별로 3종류), 사과, 배, 대추, 밤, 통북어 10마리(3마리만 제물로 바침), 백설기 1시루(3되), 팥시루떡 1시루(7되), 3탕, 두부, 전, 메 2그릇, 냉수 1그릇 등이 준비된다. 한편 한국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소머리 대신 통소(황소)를 잡아 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제물은 서울 마장동에 가서 구입한다.

제의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2일전에 산제당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 다음날에는 나무를 해놓고 당일날에 제물을 구입하러 시장에 간다. 제물구입이 끝나면 곧바로 산제당으로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산제당에서 소머리를 삶는다. 이 때 떡과 메도 산제당에서 짓는다. 예전에는 산에서 절구로 방아를 쪄 떡과 메를 지어 올렸다고 하나, 요즘은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는다. 이렇게 하여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제물을 진설하고 저녁 9시경에 제를 지낸다. 제의 순서는 우선 절을 하고 축문을 읽은 다음 다시 절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돈을 낸 사람에 한해서 모두 이름을 부르면서 축원해준다. 소지 올리는 순서는 우선 당주 일행의 소지를 먼저 올리고 이어 세대주 소지를 올려 준다. 소지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주변에 헌식한 다음 제물을 철상하여 산제당 안에 갖다 놓는다. 그런 다음 산제당에서 간단하게 음복을 하고 제물은 산제당에 놓아둔 채 마을로 내려와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날 새벽 일찍 5시경에 당주 일행은 산제당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물을 가지고 안당주 집으로 내려온다. 이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음복을 하고 하루를 논다. 이때 마을대표들은 결산을 한다.

만일 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에 부정이 발생하면 달을 넘겨서 다음달로 지내는데 이를 '달가신다' 고 한다. 한편 교인들은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내마을 사람들은 산치성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하여 택지개발로 인하여 마을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산치성은 계속 지낼 계획이라고 한다.

(5) 유적의 향후조치

비록 산제당이 세워진 지가 20여 년밖에 안 되었지만, 장내마을의 산신제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를 지내는 산제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앞에 있는 궁집과 더불어 이 지역이 문화유적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양주시의 문화관

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 상), 1985.

275. 南楊州 坪內洞 김식순家 터주가리



사진275 남양주 평내동 김식순家 터주가리

□소재지 : 평내동 404(지도27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

□내 용

(1) 조사지 개관

경춘국도를 따라 남양주시청이 있는 금곡동 고개를 지나면 금곡동과 경계를 하여 평내동이 있다. 즉 평내동은 금곡동과 호평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내동의 중심지역은 아파트촌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이다. 그 중 조사지인 평내동 장내마을은 이러한 도심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시골의 정취가 풍기는 농촌마을로, 경춘국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입구 경춘 국도 왼쪽에는 평내파출소가 자리하고 있고 도로 오른쪽 마을 입구에는 경기도 중요민속자료 제129호인 궁집이 위치하고 있다. 마을은 이곳 궁집으로부터 남쪽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 뒤 산 밑에는 '약사암' 이 있다.

평내동의 경우에는 시내 중심지로서 현재도 이미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 밀집지역이다. 단지 조사대상 마을의 경우 중심지로부터 외곽에 떨어져 있는 마을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 뒤 동남쪽 약사암 아래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위하는 산제당이 있다. 마을 입구에서 마을 안 길을 따라 약 150여 미터 정도 올라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 길을 따라 가면 넓은 공터와 함께 터주가리를 모시고 있는 김식순(74세) 家가 위치하고 있다.(남양주 평내동 산제당편 참조)

(2) 위치와 형태

• 크 기

– 터주가리 : 높이 92㎝, 밑둘레 135㎝

• 수 량 : 터주가리 1기

• 명 칭

– 제의명칭 : '가을고사'

– 신앙대상물의 명칭 : '터주'

• 재 질 : '짚', '항아리'

• 위 치

마을 입구에서 마을 안 길을 따라 약 150여 미터 정도 올라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 길을 따라 가면 넓은 공터와 함께 터주가리를 모시고 있는 김식순(74세) 家가 위치하고 있다. 터주가리는 김식순家 뒤뜰 구릉 위 약 1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외 형

– 터주 : 조그만 항아리에 동전을(예전에는 벼) 담아 뚜껑을 덮은 다음, 짚으로 원뿔 형태의 주저리를 틀어 놓았다. 즉 짚으로 이엉을 엮어 윗쪽을 뾰족하게 하고 아랫부분을 넓게 하여 항아리를 둘러 친 다음, 윗쪽에는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짚으로 엮어 마무리를 하였다.

(3) 제작연대 및 유래

터주를 모시고 있는 김식순씨의 경우 언제부터 터주를 모시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대대로 모셔오고 있다. 단지 항아

리를 제외한 벼와 짚 주저리는 해마다 가을 추수 후 가을고사를 지낼 때 새로 교체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터주가리 아래쪽에 업가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 때 폭격을 당하여 업가리는 없어지고, 지금은 터주만 모시고 있다. 터주의 형태를 보면 항아리에 뚜껑을 덮고 짚 주저리를 해 놓았다. 터주 안에는 3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벼를 넣어 두었다고 하나, 근래 들어 벼에 곰방이가 나는 등 썩어서 3년 전부터 동전을 대신 넣는다고 한다. 동전은 10원 짜리로 약 1,000원 정도 넣는데, 터주에 넣을 동전은 1년 내내 모았다가 깨끗한 돈만을 골라 넣는다. 터주를 교체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항아리 바닥에 한지를 깔고 그 위에 동전을 넣는다. 그런 다음 오지 뚜껑을 덮고 사방 30㎝ 정도 되는 사각형의 덮개(기와)를 덮어 바람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이 모두 끝나면 그 위에 짚 주저리를 덮고 왼새끼를 3발 정도 꼬아 주저리를 칭칭 동여맨다.

(4) 관련의례

평내동 장내마을 김식순 家의 경우에도 뒤꼍 장독대 위에다 터주를 모시고 있다. 수대에 걸쳐 이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김식순 家의 경우 집 뒤 장독대 뒤편 약 10m 거리를 두고 구릉 위에 터주가 모셔져 있다.

터주가리는 가을 추수 무렵인 음력 10월에 모신다. 대개 戊午日과 甲子日 중 좋은날을 선정하여 지내는데, 이를 통틀어 '가을고사 지낸다'고 한다. 이때 터주뿐만 아니라 가을떡을 하여 성주와 조왕, 터주, 업, 문간신 등 집안에 있는 여러 신들을 모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가 있는 신앙대상물은 터주뿐이다. 나머지는 그 위치에다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기만 한다. 한편 돈 대신 벼를 터주 항아리에 넣어 두었을 때에는 터주 교체시 터주에 넣었던 벼를 꺼내어 말려 두었다가 이듬해 봄 甲子日이나 戊午日에 집에서 벼를 방아찧어 그 쌀로 팥시루떡을 만들어 터주에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고사를 지낼 때에는 막걸리 2사발과 통북어 2마리, 그리고 떡은 시루째(약 5되 정도) 터주 앞에 갔다 놓고, 절을 5번 정도 한 다음 집안이 아무 탈 없이 잘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축원한다. 이러한 절차는 봄이나 가을이나 똑같다. 이와 같이 터주를 위하는 목적은 地神을 위하기 위해서이다. 짚 주저리는 예전의 경우 할아버지가 만들었으나 세상을 떠나시면서 지금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김태성씨에게 부탁하여 만든다. 수고비로 담배값 정도를 준다. 짚 주저리를 만들 때에는 깨끗한 햇짚으로 추려서 정성껏 만든다. 요즘에는 터주에 동전을 넣기 때문에 봄에는 고사를 안 지낸다. 택지개발로 집이 헐릴 위기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터주를 모시지 못할 것 같다.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주를 없앨 때에는 터주님께 '더 이상 터주를 모시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고사를 지낸 후 그대로 터주를 놔두고 갈 예정이라고 한다.

(5) 유적의 향후조치

택지개발로 인하여 장내마을에 있는 가옥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특히 김식순씨의 경우 택지개발로 집이 헐리면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터주가리는 그대로 놓고 갈 예정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보존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즉 집안에서 모시는 개인 신앙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생활사는 물론이고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개인신앙 대상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학술조사를 통하여 이를 분석함은 물론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276. 南楊州 坪內洞 느티나무



사진276 남양주 평내동 느티나무

□소재지 : 평내동 416(지도27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경기도 민속자료 제130호인 궁집이 위치한 장내마을(담안마을) 중심에 서 있는 이 느티나무는 고풍스런 돌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에는 나무에 고사를 지내고 마을사람들이 정성을 기울였으며 가지를 치거나 나무에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해가 온다는 얘기가 전해내려온다.

새로운 가지가 뻗어 나오고 있는 주간은 하부로부터 3m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중심가지는 낙뢰로 인해 부러져 수형은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며 부러진 주간 때문에 상부수관이 비어 있다.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아래 동네사람들이 모여 바둑을 두며 한가로이 즐기는 정자목으로 정성스럽게 쌓아올려진 자연석 돌단 위에 서서 마을을 내려보고 있다.

수령 500년, 수고 12m, 흉고 둘레 7.2m, 수관폭 18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1(1982. 10. 15.)

277. 義安大君 李和 墓



지도277 의안대군 이화 묘 위치도(양수 041)



사진277-1 의안대군 이화 묘

□소재지 : 평내동 산97-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의안대군 이화(?~1408)는 조선 太祖 이성계의 이복동생이다. 호는 二樂亭, 본관은 전주, 母는 定安翁主 金氏이다. 시호는 襄昭이다. 조선왕조를 개국하는데 적극 협력한 宗親으로서 위화도회군 때 뜻을 같이해 回軍功臣에 봉해지고 개국 후 개국공신 1등이 되고 義



사진277-2 의안대군 이화 묘표

安伯에 봉해졌다. 태조 7년(1398) 1차 왕자(방원)의 난에 정도전 추종세력을 평정하고 定社功臣 1등이 되었으며 정종 2년 2차 왕자(방간)의 난에 朴苞 일파를 평정하여 좌명공신 1등이 되었다. 4회에 걸쳐 공신에 봉해져 570결의 공신전을 받아 공신중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1407년(태종 7)에 영의정이 되고 大君으로 進封되었다. 태조의 사당에 함께 配享되었다. 그의 졸기에 그를 평가하기를, "和는 순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여 젊어서부터 太祖를 潛邸에 모시어 左右를 떠나지 않았으며, 매양 征討에 따라다녀 여러 번 戰功을 나타내서 마침내 開國功臣이 되고, 또 定社·佐命의 列에 참여하였다."라고 하였다. 자식이 7명 있는데, 李之崇·李淑·李澄·李湛·李皎·李淮·李漸이다.

묘는 평내동 궁평마을 협동산업 협동쓰레기하치장 뒷산 중턱에 西北向하여 있다. 묘역은 최근에 다시 정비한 관계로 산 중턱까지 길이 잘 나 있다. 높이 170cm인 원형의 봉분은 곡장을 갖추고, 하단부에 높이 80cm인 19매의 호석을 둘렀다. 호석 각 면에는 12지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새겨 넣었다. 우측에는 고려식 묘표가 있는데 복련과 안상문을 조각한 비좌 및 비신과 花冠石을 갖추고 있다. 비신 前面에는 2열로 "領議政義安大君襄昭公和之墓"라 썼으며, 측면에 "後孫慶相○○○"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4cm · 너비 78cm · 두께 48cm, 비신 높이 95cm · 너비 47cm · 두께 17cm, 화관석 높이 48cm · 너비 66cm · 두께 24cm이다. 좌측에는 새로 세운 묘비가 있는데, 前面에 3열로 "開國功臣定社佐命元勳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義安大君諡襄昭號二樂亭李公和之墓"라 써 있다. 봉분 앞에는 새로 만든 혼유석 · 상석 · 장대석 · 향로석 · 동자석이 있는데, 동자석은 부처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앞에 민무늬로 단출한 모양을 한 망주석 · 금관조복형의 문인석 · 장명등과 문인석 좌 · 우로 각각 馬石 · 羊石 · 虎石이 놓여져 있는데 석물들은 조선 말기 조잡한 형태의 석물들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8, 1994.

278. 義安大君 李和 祠堂



사진278 의안대군 이화 사당

□ 소재지 : 평내동 151(지도277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사묘

□ 내 용

사당은 조선 개국공신이자 이성계의 아우인 義安大君 李和의 사우이다. 평내동 궁평마을 내에 西向하여 맞배지붕 솟을삼문을 갖춘 담장내에 정면 3칸, 측면 1칸 반으로 맞배지붕에 목조한식 골기와를 얹고 防風板을 갖추었다. 사당은 조선 태종의 특명으로 건립되었으며, 전란으로 소실된 것을 숙종대에 다시 건립하였다. 한국전쟁 때 건물이 많이 파괴되고 멸실된 것을 1956년과 1977년 2회에 걸쳐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 사당에는 의안대군과 그의 아들 좌명 1등공신 의정부찬성사 完川君, 손자 좌명 2등공신 우찬성 河寧君 등 세 분의 위패를 함께 모셔져 '三代不遷之位'로 후손들이 제향하고 있다. 태종대 신도비가 내려졌으나 단종사화 때 하령군이 연루되어 절사되어서 이후 300년간 묘를 수호하지 못해 소실되었다고 한다. 의안대군은 태조 이성계의 아우로 조선 개국에 적극 협조한 종친으로 襄昭公의 시호를 받았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향토유적 제4호(1986.4.10)
□참고문헌
경기도, 『향토유적총람』, 1987.

279. 睦世秤 墓



사진279 목세칭 묘

□소재지 : 평내동 산9(지도27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목세칭(1487~1551)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泗川, 자는 公達, 호는 玄軒 · 散翁이다. 父는 참의를 지낸 希顔이다. 아들은 영의정을 증직받은 첨이며, 김식 선생이 고종형이 된다. 己卯名賢으로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묘는 정부인 한양조씨와의 합장묘로서 東向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 우측에는 새로 갖춘 민무늬 비좌와 비신 월두형의 묘표가 있다. 비신 前面에는 3열로 "贈資憲大夫吏曹判書玄軒先生泗川睦公諱世秤之墓 配贈貞夫人漢陽趙氏之墓"라 써 있다. 그 앞에 혼유석 · 상석 · 계체석 · 사각향로석 · 망화를 조각한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80. 睦詹 墓



사진280 목첨 묘

□소재지 : 평내동 산9(지도27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목첨(1515~1593)은 조선 중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泗川, 자는 思可, 호는 時雨堂 · 逗日堂이다. 己卯名賢으로 이조참판에 증직된 世秤의 아들이며, 母는 義禁府 經歷 趙激의 딸이다. 벼슬은 이조참판에 이르고,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묘는 정경부인 동래정씨와의 합장묘로서 東向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복련에 안상문을 조각한 장방형 비좌와 비신이 월두형인 묘표가 있다. 비에는 "吏曹參判贈領議政睦公之墓 貞敬夫人東萊鄭氏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5㎝ · 너비 101㎝ · 두께 60㎝, 비신 높이 119㎝ · 너비(上) 55㎝ · 너비(下) 50㎝ · 두께 15㎝이다. 그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계체석 · 4각 향로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이 중 상석은 높이 32㎝ · 너비 189㎝ · 두께 92㎝로서 상당히 크고 넓은 편이다. 또 향로석 앞의 좌우에 앙화를 조각한 망주석은 균형미가 있고, 조각 수준도 우수한 편으로 높이는 163㎝이다.

神道碑는 묘역 아래 길옆에 北東向하며 아들 長欽의 神道碑와 나란히 있다. 민무늬의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71년 다시 세웠다. 前面 상단에 篆書로 "泗川睦公"이라 횡서했으며, 그 밑에 종으로 "泗川睦氏贈領議政逗日堂公神道碑"라 썼다. 본래의 신도비는 1630년(인조 8)에 세워진 것으로 弘文館 大提學 柳根이 짓고, 通德大夫 承政院 右承旨 睦大欽이 글을 썼다.

규모는 비좌 높이 64㎝ · 너비 127㎝ · 두께 96㎝, 비신 높이244㎝ · 너비 83㎝ · 두께 52㎝, 이수 높이 76㎝ · 너비 103㎝ · 두께 72㎝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281. 睦長欽 墓 및 神道碑



사진281-1 목장흠 묘



사진281-2 목장흠 신도비

□소재지 : 평내동 산9(지도27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목장흠(1572~1641)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泗川, 자는 禹卿, 호는 孤石이다. 父는 이조참판 詹이며, 母는 증병조참판 鄭謇의 딸이다. 1599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은 호조참의를 지냈다.

묘는 정부인 의령남씨와의 합장묘로서 東向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 앞에는 혼유석 · 계체석 · 상석 · 4각 향로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봉분 우측(남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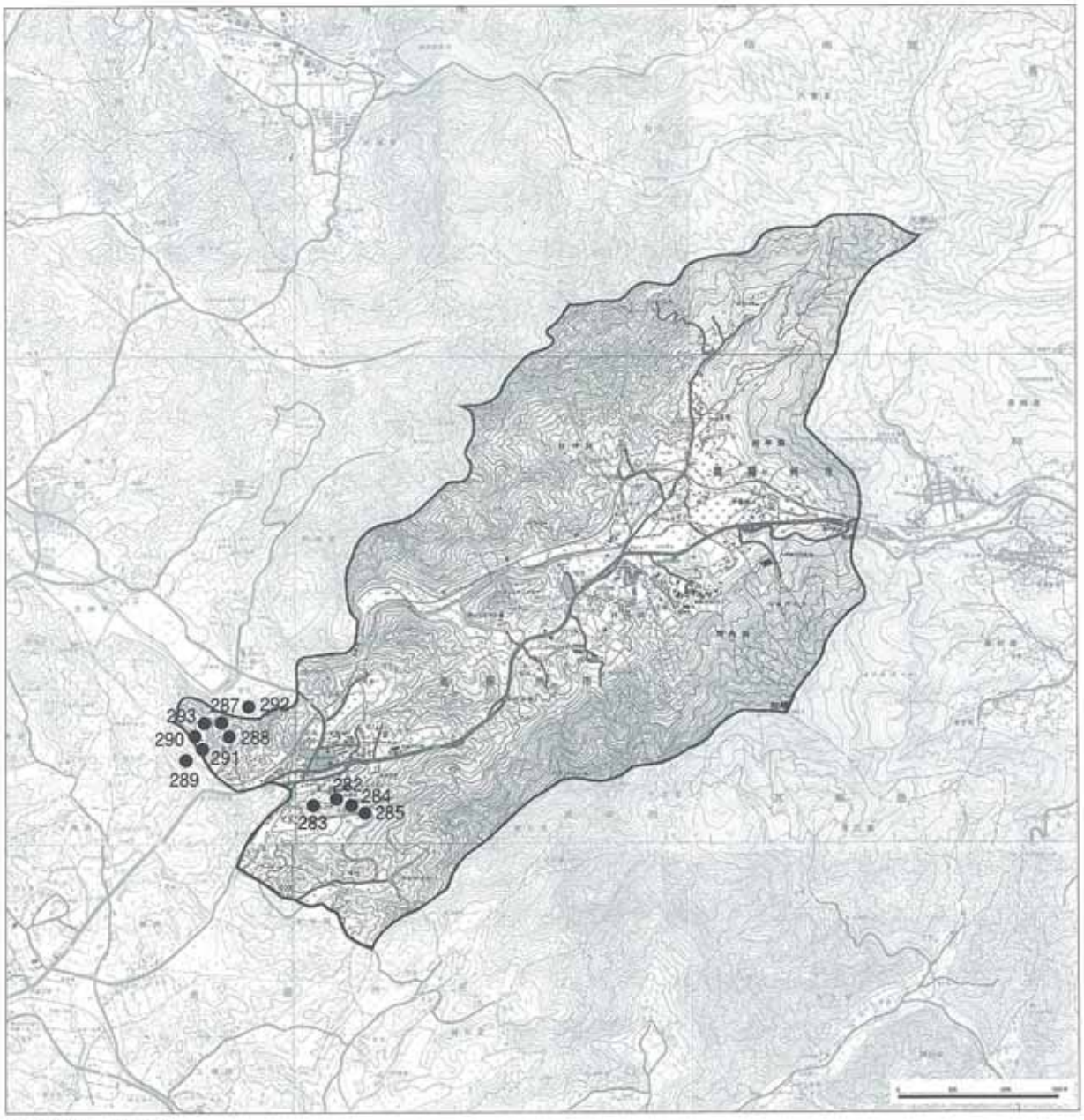
전후 5엽, 좌우 1엽의 단판복련문과 4면에 안상문을 조각한 장방형 비좌와 비신이 월두형인 墓表가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2열로 "嘉善大夫戶曹參判睦公長欽之墓 贈貞夫人宜寧南氏祔"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3㎝ · 너비 94㎝ · 두께 60㎝, 비신 높이 139㎝ · 너비(上) 60㎝ · 너비(下) 57㎝ · 두께 22㎝이다.

神道碑는 묘역 아래 길 옆에 父 睦詹의 神道碑와 나란히 하여 北東向하고 있다. 총 높이 340㎝로 백색화강암의 비좌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상부에 前後 6엽, 左右 1엽씩의 대형 단판복련을 우수하게 조각하였다. 비신의 비문은 前 · 後 · 左 3면에 있으며, 前後 2면 상단에 篆書로 "戶曹參判睦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戶曹參判○○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睦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대사간 黃屋가 찬하고, 弘文館교리 李震休가 글을 짓고 썼으며, 건립연대는 1691년(숙종 11)이다. 하단부 40㎝ 지점에 파손된 것을 접합한 흔적이 있으며, 前面에 20여 개소의 탄흔 및 우측 하단 측면에 탄흔으로 인한 직경 30㎝가량의 파손흔적이 있다. 옥개석은 처마면의 두께가 18㎝로 두꺼워 뭉툭한 느낌이 있다. 전체적으로 비는 탄흔으로 인한 파손이 있지만 순백색에 가까운 비좌 · 비신 · 옥개석이 인상적이며 상대적으로 비신의 두께가 얇다.

규모는 비좌 높이 68㎝ · 너비 135㎝ · 두께 76㎝, 비신 높이 218㎝ · 너비 83㎝ · 두께 22㎝, 옥개석 높이 54㎝ · 너비 127㎝ · 두께 66㎝이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金谷洞



금곡동 문화유적 분포현황

282. 洪陵



지도282 홍릉 위치도(성동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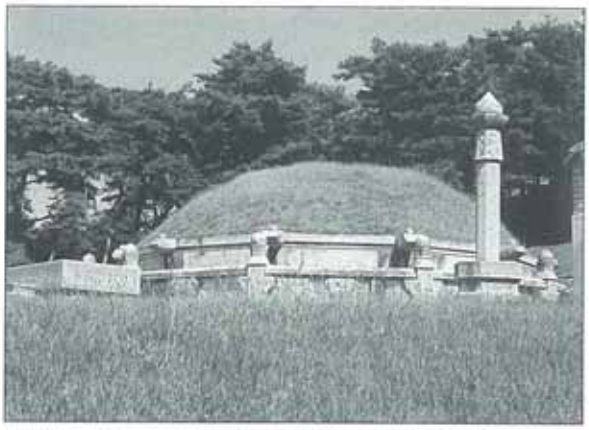


사진282-1 홍릉



사진282-2 홍릉 상석의 고석



사진282-3 홍릉 망주석

□소재지 : 금곡동 141-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내 용

홍릉은 제26대 高宗皇帝와 明成皇后 閔氏의 능이다. 고종은 哲宗 3년(1852) 英祖의 玄孫 興宣君 李昰應의 第2子로 誕生, 哲宗이 後嗣없이 昇遐하자 12세로 翼宗의 嗣子로 하여 卽位하였다. 在位 44년 동안 왕조의 쇠퇴기를 당하여 밀려드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甲申政變, 東學亂, 淸日戰爭, 乙未事變, 俄館播遷, 露日戰爭, 大韓帝國宣布 등이 點綴되는 사이 春秋 67歲로 승하하였다.

皇后 閔氏는 興宣大院君 府大夫人 민씨가 추천, 1866년(고종 3) 왕비로 책봉되었다. 高宗親政을 이루기 위한 計策을 爲始하여 親政 이후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實權을 장악하였다. 한때 壬午軍亂으로 장호원에 피신하여 숨어 살았고 1895年 日本公使가 보낸 일본 浪人에 의해 춘추 45세 때 慘變을 당해 숨졌다. 光武 원년(1897년)에 明成皇后로 追奉되었으며 淸凉里 洪陵에 葬事하였다가 고종 昇遐 때 금곡동의 洪陵으로 移葬하였다.

陵은 금곡동을 지나는 46번 국도 금곡역 3거리에서 우회전하여 300m 거리에 능내의 독립된 구릉에 西向

하여 있다. 능은 일반 왕릉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明 태조의 능인 孝陵을 본받아 구성하였다. 즉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에 등극한 관계로 능제도 역시 중국의 형태를 따라서 기존의 왕릉과는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공원같은 느낌이 들며, 입구를 통과하면 작은 연못이 나오고 길을 따라 가다가 다리를 건너면 좌우에 수복방이 있고, 왼쪽에 재실과 부속건물이 있다. 재실은 기존의 작은 규모의 것이 아니라 행랑채와 부속건물이 있는 살림집형이다. 홍살문을 중심으로 좌측에 판위가 있고, 묘도를 따라 가면 좌우에 각각 석물을 배치하였다. 석물은 제일 앞에 문인석(385㎝), 무인석을 세우고 이어 홍살문까지 기린 · 코끼리 · 해태 · 사자 · 낙타 · 말 등의 순으로 石獸를 세워놓고 있으나 유릉에 비하면 석수의 크기가 작다. 홍 · 유릉의 문인석은 幞頭 대신 金冠을 쓰고 있으나 조각수법에 있어서 도식화되고 경직되어 있다. 중앙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종래의 丁字閣 대신 정면 5칸, 측면 4칸의 寢殿이 있다. 침전에 올라가는 계단은 정면과 양 옆에 마련되어 참도를 구분하고 있다. 침전 우측에는 능표각이 있다. 능표각 뒤에는 울타리를 치고 그 우측편에 곡장을 두른 御水井이 있는데, 어수정의 덮개는 24개의 돌로 만들었다. 침전 좌측에는 소대가 있다. 곡장안의 봉분 주위에는 난간석을 두르고 있는데, 이러한 난간석은 현종 이후 다시 등장한 병풍석과 난간석이다.

寢殿 뒷 陵山의 石物配置는 石獸와 文武石의 配置만 빼고 전통적인 제도에 따르고 있다. 즉 봉분 주위에 난간석을 두르고 그 앞에 상석 · 망주석 · 장명등을 설치하였다. 장명등은 4角室形式의 것이나 臺石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屛風石에는 蓮花 牧丹文을 조각하고 있다. 망주석은 8각기대석에 간주석이 꽂아져 있는데 좌측은 청설모가 올라가고 우측은 내려가는 모습을 양각하여 각종 화려한 무늬로 장식하였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사적 제207호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한국문원, 『왕릉』, 1995.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283. 裕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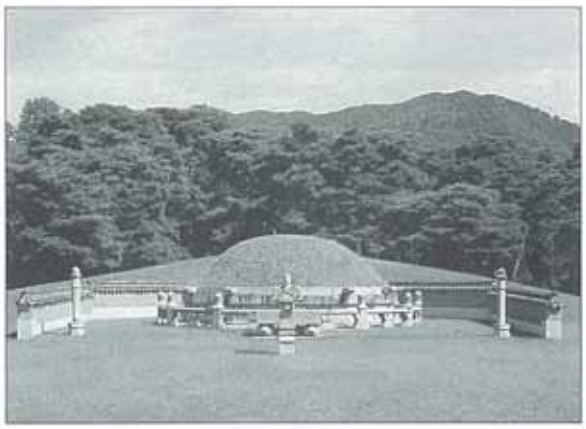


사진283-1 유릉

□소재지 : 금곡동 141-1(지도28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내　용

유릉은 제27대 純宗皇帝와 同后 純明孝皇后 閔氏 및 繼妃 純貞孝皇后 윤씨의 同陵三室의 능이다. 순종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둘째아들로 1874년(고종 11)에 창덕궁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拓, 자는 君邦이다. 1875년 왕세자로 책봉되고, 1897년(광무 원년)에 皇太子로 책봉, 1907년(광무 11년) 즉위하여 年號를 隆熙라 하였다. 재위 4년 동안 일제의 간섭으로 虛位에 앉았다가 1910년 韓日合邦으로 조선왕조의 終幕을 告하였다. 1926년 昌德宮에서 53세로 昇遐하였다. 재위기간 동안 일본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간섭받고 차관정치의 빌미를 제공한 丁未七條約을 강제로 체결당했다. 일본은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1910년 데라우치 통감은 이완용과 한일합방 조약안을 마련하



사진283-2 유릉 침전 앞의 문 · 무인석과 석수



사진283-3 유릉 상석의 고석

고, 8월 29일 순정황후의 숙부 윤덕영을 시켜 황제의 옥새로 날인케 하였다. 李王으로 강등된 순종은 창덕궁에 있다가 1926년 4월 25일 53세로 승하하였다. 순종의 장례식날 전국에서 6 · 10만세 사건이 일어났고, 6월11일 유릉에 안치되었다.

妃 純明孝皇后는 驪興府院君 閔台鎬의 딸로 1882년(고종 19) 11세로 世子嬪으로 책봉되고 광무 원년 皇太子妃에 책봉되었으나 純宗 卽位 前인 광무 8년 33세로 승하하였다. 같은해 11월 29일 양주군 용마산 내 동기슭(현 어린이 대공원 내)에 묻혀 裕康園이라 하였다가 순종이 승하하자 金谷 裕陵에 이장하였다.

繼妃 純貞孝皇后는 海豊府院君 尹澤榮의 딸로 1894년(고종 29) 출생하여 1906년(광무 10) 13세에 皇太子妃에 책봉되고 순종이 즉위하자 황후가 되었다. 1910년 국권이 강탈될 때 병풍 뒤에서 어전회의를 듣고 있었는데 이때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합방조인서에 날인 할 것을 강요하자 옥새를 치마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다가 결국 숙부 윤덕영에게 강제로 빼앗기기도 하였다. 일제의 강점 이후 왕비로 강등되고 1926년 순종이 후사없이 승하하자 왕의 아우 英王을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만년에 불교에 귀의해 불명 大地月로 불리며 창덕궁 낙선재에서 여생을 보냈다. 1996년 낙선재에서 昇遐하여 裕陵에 合葬되었다. 陵制는 洪陵과 같이 皇帝陵의 制度로 造營하였다.

능의 입구에는 오른쪽에 수라간과 수복방 등을 갖춘 수십칸의 재실이 있고, 길을 따라 올라가면 홍살문 좌측에 어수정이 있으며, 24개의 덮개로 덮어져 있다. 홍살문 안쪽 양 옆으로 깃대를 꽂았을 것으로 보이는 홈이 파진 듯한 돌이 놓여 있다. 홍살문 좌측에는 판위가 있고, 신도를 따라 양쪽으로 석물을 배치하였다. 석물은 침전쪽에서부터 문 · 무인석을 세우고 이어 홍전문까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의 순으로 석수를 세워놓고 있다. 끝의 말 2필은 종래 문무석 뒤에 배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홍릉의 경우 유릉과 달리 다른 석수보다 1층 낮은 대석위에 세워놓고 있다. 양릉의 문인석은 건릉, 원릉의 문인석처럼 복두대신 금관을 쓰고 있으나 조각 수법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고 있다. 홍릉이 조선 왕릉 석인의 전통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진데 비하여, 유릉의 것은 특정인을 모델로 한 것처럼 사실적이고 개성적이며 입체감을 잘 살렸다.

중앙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종래의 丁字閣 대신 정면 5칸 측면 4칸의 寢殿이 있다. 침전에 올라가는 계단은 정면과 양 옆에 마련되어 참도를 구분하고 있다. 침전안의 천장에는 두 마리의 용이 외호하고 있는 화려한 용상과 문양, 단청 또한 선명하고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홍릉이 시범된 황제릉이었다면 유릉은 실험정신을 거치고 난 다음의 숙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 침전 우측에는 능표각이 있으며, 좌측에는 소대가 있다. 침전 너머 능침은 서향으로 침전과 일자형이 아닌 약간 틀어 앉아 있다. 봉분에는 곡장을 두르고 연화문 모란문이 새겨진 병풍석과 난간석을 12간석으로 둘

렀다. 봉분앞에는 상석 · 망주석이 있으며 상석 앞의 장명등은 4각실 형식의 것이나 대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새로운 제도는 모두 국망 후 이루어진 것이기에 조선 능제의 발전상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하겠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사적 제207호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한국문원, 『왕릉』, 1995.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 3, 1997.



사진284-1 영원 정자각



사진284-2 영원

284. 英園

□소재지 : 금곡동 141(지도28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陵 · 園

□내　용

영왕 李垠(1897~1970)은 조선 말기의 왕족으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이다. 본관은 전주, 고종의 일곱번째 아들로 어머니는 貴妃 嚴氏이다. 英親王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정식명칭은 英王이다. 순종과는 이복형제간이다. 1900년 8월에 영왕으로 봉하여졌으며, 1907년 황태자에 책봉되었으나 그해 12월 伊藤博文 통감에 의하여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갔다. 1910년 국권이 상실되자 순종이 폐위되어 李王이 되니, 황태자였던 이왕 역시 王世弟로 격하되었다. 1920년 4월 일본황실의 이른바 내선일체 용합정책에 따라 일본왕족 나시모토(梨本宮)의 맏딸인 마사코(한국명 方子)와 정략결혼하였다. 1926년 순종의 사후 형식상으로는 왕위계승자가 되어 李王이라 불렸으나 일본에 머문 채 귀국하지 못하였다. 일본에 강제체류하는 동안 철저한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을 거쳐 육군중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어 환국하고자 하였으나 국교단절 및 국내 정치의 벽에 부딪혀 귀국이 좌절되었다. 한편 일본의 패망으로 인하여 황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고 재일한국인으로 등록하여 1963년까지 일본에서 간고한 나날을 보냈다. 그 뒤 1963년 11월 당시 朴正熙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의 주선으로 국적을 회복하고, 이방자와 함께 귀국하였다. 그러나 귀국 당시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가 오래도록 꿈꾸어온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생전에 부인 이방자와 함께 1966년 심신장애자재활원인 慈行會, 1967년에는 그의 아호를 빌린 신체장애자훈련원인 明暉園을 설립하여 사회봉사의 정신은 사후에도 이방자에 의하여 1971년 영친왕기념사업회, 정신박약아교육시설인 慈惠學校,

1982년 신체장애아교육시설인 明惠學校 설립 등으로 계승되었다. 晉과 玖 두 아들을 두었으나 맏아들인 진은 어려서 죽고, 둘째아들 구는 미국여인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귀화하였다 최근에 다시 돌아왔다. 1989년 4월 30일 죽은 부인 이방자와 합장하였다.

원은 금곡동 홍릉 뒷편 언덕에 위치하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왕과 부인 이방자가 안장되어 있으며, 그 우측에 덕혜옹주의 묘역이 있다. 영원은 입구 좌측에 제실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하여 규모는 작지만 아담하게 만들어 놓았다. 정면 6칸, 측면 2칸의 일자형으로 팔작지붕형이다. 제실을 지나면 홍살문과 신도가 나오고 다른 곳에 비하여 규모는 작지만 아담한 정자각이 나온다. 정자각 우측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원표각이 있다. 비각 안에는 "大韓 懿愍皇太子英園 懿愍皇太子妃祔左"라 써 있다. 비는 정방형 비좌에 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묘역에는 곡장을 두르고 그 안에 봉분과 석물을 조성하였다. 봉분은 호석이 없이 주위에 난간석(155㎝)을 둘렀으며 중간에 있는 받침대에는 연화문을 조각하였다. 봉분 주위에는 난초를 조각한 양석 2개, 무늬없는 호석 2개씩이 각각 양쪽에 있다. 봉분 앞에는 4개의 높이가 45㎝인 받침대에 귀면화를 새긴 받침돌이 있고, 그 위에 높이 57㎝, 너비 274㎝, 두께 151㎝의 상석이 있다. 상석 좌우에는 8각받침대를 가진 안상문 · 청솔모 · 앙화를 조각한 높이 188㎝의 망주석이 있고, 그 앞에 장대석을 놓았다. 상석 앞 좌우에 있는 문인석은 높이 255㎝이며 금관조복형의 머리 중앙에는 무궁화 문장이 있다. 그 양쪽에는 말석과 높이 240㎝의 무인석, 다시 말석이 있다. 그 가운데는 사각형의 받침대 형태에 꽃문양을 사방에 새겼으며, 그 위에 화창을 만든 높이 170㎝의 장명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묘역은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해방 이후에 조성하였지만 그 형태나 조각은 홍유릉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홍원에 있는 석물들과 양식이 비슷하다. 현재 영원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85. 德惠翁主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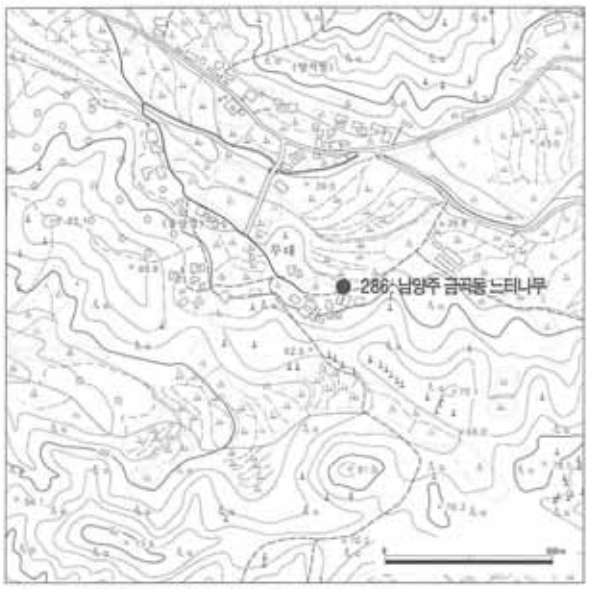
□소재지 : 금곡동 141(지도28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덕혜옹주(1913~1990)는 고종과 貴人 梁氏 사이에 태어났다.

묘는 영원 우측 구릉에 활개를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 조성되어 아담한 느낌이다. 봉분 앞의 상석은 4개의 귀면을 사방에 새긴 고석 위에 얹혀져 있고, 그 앞에는 직사각향로석 · 장대석 · 망주석 · 장명등의 석물이 있다. 봉분 우측에는 墓表가 있는데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이 월두형이다. 비 앞면에는 "大韓 德惠翁主之墓"이라 하였고, 뒷면에는 "開國 五百二十一年 五月二十五日生 五百九十八年 四月二十一日卒 全州后人 李旺載 謹書"라 하였다. 크기는 비좌 높이 28㎝ · 너비 80㎝ · 두께 50㎝, 비신 높이 149㎝ · 너비 54㎝ · 두께 24.5㎝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86. 南楊州 金谷洞 느티나무



지도286 남양주 금곡동 느티나무 위치도(성동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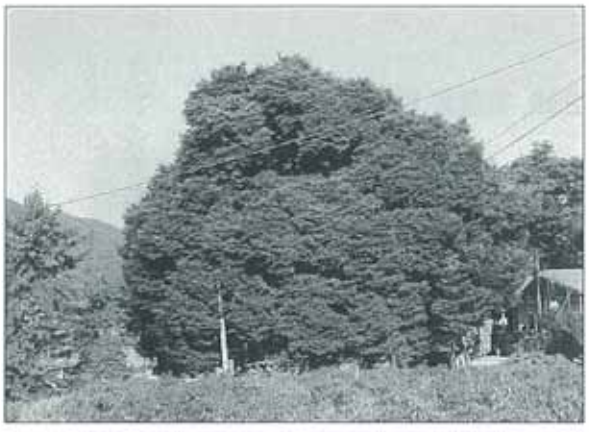


사진286 남양주 금곡동 느티나무

□소재지 : 금곡동 508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양주조씨 선조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이 나무는 무대부락 응달말의 정자목으로 수고에 비해 수관폭이 유난히 넓은 풍성한 외형을 자랑하며 서 있다. 곧게 올라간 주간의 높이 2m 부위에서부터 측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사방으로 고루 뻗은 가지는 무성한 잎의 무게에 처져 바닥에 닿을 듯하여 그늘아래 들어가면 감싸지듯 포근한 느낌이 든다.

나무에 해를 입히면 해를 입힌 사람이 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마을사람들의 얘기로는 한국전쟁 전 이 나무의 가지를 잘랐던 사람이 벙어리가 된 일이 있어 그 후론 절대 나무를 자르거나 가지를 치지 않는다고 한다. 하부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무아래 서 있으면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시원한 그늘 때문에 마을사람들의 이용이 높은 나무이다.

전면이 논으로 둘려싸인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수세가 양호한 이 나무를 만나려면 금곡2동의 무대부락 응달말을 찾아 들어오면 된다.

수령 300년, 수고 15m, 흉고둘레 3.3m, 수관폭 20m.

□지도번호 : 양지 205-4
□비　　고 : 경기-남양주-4(1982. 10. 15)

287. 具壽永 墓



지도287 구수영 묘 위치도(성동 048)



사진287 구수영 문인석 및 망주석

□소재지 : 금곡동 군장리 산9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구수영(1456~1523)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眉叔, 본관은 綾城, 호는 一嘯堂, 父는 致洪이다. 12세에 세종의 여덟째 아들인 永應大君의 사위로 봅혀 세조로부터 특별히 宣略將軍副護軍을 제수받았다. 예종대에 折衝將軍, 성종대에 原從功臣이 되고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지중추부사에 올랐으며, 1493년(성종 24) 五衛都摠府 都摠管이 되어 군대통솔의 책임을 맡았고, 이어 尙衣院 提調를 지냈다. 연산군 재위시 한성부 판윤에까지 올랐으나, 朴元宗 등이 중종반정을 도모하자, 이에 가담하여 靖國功臣 2등에 책록되고 綾川府院君에 봉해졌다. 효성이 지극하고 성품이 자상했으며 음률과 악기에 재주가 있었다.

묘는 군장리 능성구씨 묘역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여 南向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정경부인 전주이씨와의 합장묘로 활개를 갖추고 있다. 본래 陽平郡 西終面 外門掩里 花谷 甲坐에 있었던 것을 1914년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왔다. 봉분 앞에는 비신이 없는 묘비의 비좌 · 혼유석 · 장대석 · 상석 · 6각형의 향로석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상석 좌측 옆에는 또 하나의 상석이 있으며, 그 좌측에는 1979년 새로 세운 묘비가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4열로 "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正憲大夫知敦寧府事兼五衛都摠管綾川君 贈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綾城具公壽永之墓 配貞夫人吉安縣主 贈貞敬夫人全州李氏祔左"라 써 있다. 향로석 좌우에는 높이 200㎝인 장대하고 균형잡힌 문인석이 있다. 幞頭의 머리부분이 58㎝로 눈을 감고 있는 외모는 준수한 인상을 주며, 홀을 맞잡은 손마디의 표현이 뚜렷하다. 그 앞에는 꽃무늬를 장식한 높이 210㎝의 8각망주석이 있다. 본래 망주석 앞에 문인석이 있어야 하지만 구수영 묘는 위치가 바뀌어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3, 1994.

288. 具希景 墓



사진288 구희경 묘표

□소재지 : 금곡동 군장리 산93(지도28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구희경(1488~154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綾城이며, 자는 廣平이다. 通訓永柔縣令을 지냈으며 左贊成 綾平君에 추증되었다. 부인은 증정경부인 居昌 愼氏와 延日 鄭氏이다.

묘는 수영의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南向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민무늬 비좌에 비신 월두형의 墓表가 있는데,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4열로 "朝鮮贈資憲大夫刑曹判書綾平君行通勳大夫永平縣令具公希景之墓 贈貞夫人居昌愼氏贈貞夫人延日鄭氏祔左"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12㎝ · 너비 91㎝ · 두께 50㎝, 비신 높이 111㎝ · 너비 49㎝ · 두께 15.5㎝이다. 현재 비신은 흑적색으로 탈색되어 있다. 이외에 장대석 · 상석 · 6각형의 향로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는데, 망주석의 받침대는 6각형에 대석은 복련을 하였고, 사방에 안상문을 새겼다. 우측 하단에는 혼유석이 있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89. 具淳 墓



사진289 구순 묘

□소재지 : 금곡동 군장리 산93(지도28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구순(1507~1551)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子浩, 본관은 綾城으로 父는 希璟이다. 1533년(중종 28)에 음직으로 典牲署 參奉에 임명되고, 平市署 奉事와 宗廟署 · 司纂寺直長과 宗簿寺 · 軍器寺 · 內資寺 등의 主簿 및 司憲府 監察, 司圃署 司圃 등을 역임하였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 衛社原從功臣에 훈록되고, 1546년에 江陰縣監으로 나갔다가 그후 通禮院 引儀에 임명되고 다시 사헌부감찰과 사포서 사포에 전임되었다. 1548년(명종 3) 通津縣監에 임명되고, 1551년 3월에 關東으로 행하던 도중에 병으로 귀가하여 별세하였다. 아들 思孟이 현달하자 崇錄大夫議政府左贊成兼 判義禁府事에 증직되고 綾城君에 봉해졌으며, 議政府 領議政에 추증되었다.

묘는 금곡동 군장리 구굉 묘의 우측 철도 건너편에 正南向하여 있는데 정경부인 전주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본래 와부읍 도곡리에 있었던 것을 1914년에 이장하여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봉분 앞의 상석은 장대석 위에 얹혀져 있으며, 4각 향로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墓表는 묘의 왼쪽에 위치하여 비좌와 유난히 길쭉한 비신을 갖추고 있다. 비신은 월두형이며 비문은 前 · 後 2면에 있는데, 前面에 2열로 "○○大夫議政府左贊成兼 判義禁府事○○通勳大夫通津縣監具公之墓 貞敬夫人全州李氏祔葬于東"이라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비문이 음기로 새겨져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알아보기 힘들다. 묘갈명은 汲古 李洪男이 찬하고, 묘지명은 礪城君 宋寅이 찬한 것으로, 건립연대는 1659년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16㎝ · 너비 84㎝ · 두께 54㎝, 비신 높이 162㎝ · 너비 53㎝ · 두께 20㎝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290. 具思孟 墓 및 神道碑



사진290-1 구사맹 묘



사진290-2 구사맹 신도비



사진290-3 구사맹 신도비 이수(前面)

□소재지 : 금곡동 군장리 산93(지도28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구사맹(1531~160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淸白吏이다. 본관은 綾城, 자는 景時, 호는 八谷, 시호는 文懿이다. 양주 금곡에서 성장하였으며, 정국공신 판돈녕부사 壽永의 증손이자 증영의정 淳의 아들로 원종(인조의 생부로 추존)의 비인 仁憲王后의 生父이다. 1549년(명종 4) 진사가 되고 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를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가 된 뒤 여러 요직을 거쳤다. 1590년 좌부승지가 되고 光國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금을 호종하여 의주로 피난하고, 평양으로 왕자를 호종한 공으로 이조참판에 올랐다. 선조 때 신진사류들의 원로사류에 대한 탄핵이 심하여 대부분의 사류들이 뜻을 굽혔으나 끝내 신진을 따르지 않아 자주 탄핵을 받았다. 왕실과 인척이면서도 청렴결백하고 더욱 근신하여 자제나 노복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死後인 1632년 사위 정원군이 원종으로 추존되고 딸이 인헌왕후로 추존됨에 따라 綾安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저서로 『八谷集』이 있다.

묘는 군장리 능성구씨 묘역의 구순 묘와 인접한 철길변에 南東向하여 있으며 淸州府夫人韓氏 · 平山府夫人申氏와의 합장묘이다. 본래 接東面 蜂遇峴에 있었던 것을 1939년 현재의 자리에 이장한것으로,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다. 장대석은 흙으로 단을 두어 형태만 갖추었다. 봉분 앞에는 상석 · 4각 향로석 · 8각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는데, 망주석은 8각 기대석을 갖춘 높이 142㎝의 소형이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으로 높이 178㎝이며 머리부분이 58㎝이다. 눈을 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며,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들어 홀을 잡은 손의 표현이 섬세하다.

墓碑는 묘의 오른쪽에 南西向하여 백색화강암의 비좌와 비신은 월두형이다. 묘비에는 6열로 "崇祿大夫議

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管 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大匡補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綾安府院君諡文懿具公之墓 淸州府夫人韓氏祔左 平山府夫人申氏祔右"라 쓰여져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7㎝ · 너비 113㎝ · 두께 68㎝, 비신 높이 165.5㎝ · 너비 53㎝ · 두께 21.5㎝이다.

神道碑는 구사맹의 묘 아래에 구굉 · 구인기의 신도비와 각각 6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는데, 그 중 왼쪽에 南向하고 있는 비가 구사맹의 신도비이다. 비는 一石의 흑적색으로 탈색된 대리석의 비신과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전후면 상단에 걸쳐 篆書로 "贈領議政諡文懿具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崇祿大夫原任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贈純忠積德補祚功臣 大匡補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綾安府院君諡文懿具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嘉義大夫 司憲府 大司憲 李植이 찬하고, 嘉義大夫 兵曹參判 吳竣이 쓰고, 嘉義大夫行 弘文館 부제학 金光炫이 전하였다. 아울러 金敬一이 監刻하였는데, 조정에서 감각관이 나와서 감독할 정도로 화려하며, 건립연대는 1635년(인조 13)이다. 이수는 前後 2면에 걸쳐 각각 발가락이 3개인 두 용이 입을 꾹 다문 채 운문 속에 몸을 'ㄹ' 자로 꼬고 앞발을 치켜들어 여의주를 서로 잡고 있는 모양을 양각하였다. 괴수와 턱수염 및 몸의 비늘 등의 표현이 사실적이다.

규모는 비신 높이 158㎝ · 너비 83.5㎝ · 두께 29㎝, 이수 높이 71㎝ · 너비 91㎝ · 두께 34.5㎝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291. 具宏 墓 및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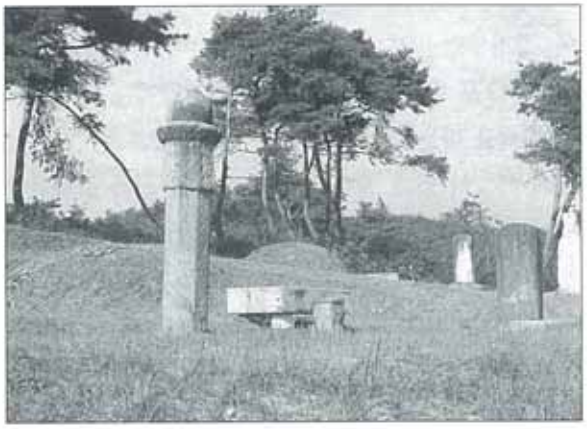


사진291-1 구굉 묘



사진291-2 구굉 신도비

□소재지 : 금곡동 군장리 산93(지도28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구굉(1577~1642)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본관은 綾城, 자는 仁甫, 호는 群山, 시호는 忠穆으로 좌찬성 思孟의 아들이다. 金長生의 문인으로 1608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인조반정의 공으로 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綾城君에 봉해졌다. 이괄의 난 때 공주로 왕을 호종하였으며, 병자호란시 남한산성을 지켰던 공으로 병조판서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후 형조 · 공조판서와 오

위도총부 도총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묘는 구사맹의 묘 아래에 위치하여 東南向하고 있으며, 정경부인 淳昌 趙氏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2단으로 활개를 갖추고 있다. 묘 앞에는 특이하게도 황색을 띠는 화강암제의 상석 · 4각향로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墓碑는 향로석의 앞 왼쪽에 화강암의 비좌에 월두형 비신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상부에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단판복련문과, 4면에 전후 2엽, 좌우 1엽씩의 안상문을 조각하였다. 비신의 비문은 전후 2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有明朝鮮國靖社功臣綾成府院君忠穆公具宏之墓 貞敬夫人淳昌趙氏祔右"라고 쓰여져 있다. 비문은 朴世采가 찬하였으나 마모가 심하여 알아보기 힘들다. 건립연대는 1681년(숙종 7)이며, 검게 탈색되고 前面이 박리된 상태로 우측 '鮮'과 '國' 자 사이에 직경 8㎝의 큰 탄흔이 1개소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6㎝ · 너비 99.5㎝ · 두께 65㎝, 비신 높이 145㎝ · 너비 66㎝ · 두께 23㎝이다.

神道碑는 구사맹과 구인기 신도비 중간에 위치하여 南向하고 있다. 총 높이 285㎝이며, 화강암의 비좌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화강암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마모가 심한 상태이며,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다. 상부에는 篆書로 전후 2면에 걸쳐 "綾成府院君贈領議政諡忠穆具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奮忠贊謨立記明倫靖社功臣輔國崇祿大夫綾成府院君兼判義禁府事兵曹判書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諡忠穆具公神道碑銘并序"이다. 비문은 崇政大夫 議政府 右贊成 兼成均館 祭酒 宋時烈이 찬하고, 正憲大夫 行司憲府 大司憲 兼成均館 祭酒 宋浚吉이 글을 쓰고, 嘉善大夫 兵曹參判 李正英이 전하였다.

신도비의 글씨를 쓴 송준길은 한석봉체에 안진경체와 같은 중후한 맛을 가미하였다. 건립연대는 1660년(현종 1)이다. 현재 비신의 중앙부로는 직경 5~10㎝인 7개소의 큰 탄흔자국이 있다. 옥개석은 처마 끝 면석이 거의 '一' 자에 가깝고 얇은 판석으로 단조로운 팔작지붕 모양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48㎝ · 너비 156.5㎝ · 두께 98㎝, 비신 높이 217㎝ · 너비 97㎝ · 두께 30㎝, 옥개석 높이 57㎝ · 너비 147㎝ · 두께 92㎝이다.

묘와 신도비는 본래 포천군 남면 松峴에 있던 것을 1924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 왔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292. 具仁堅 墓 및 神道碑



사진292 구인기 신도비

□소재지 : 금곡동 군장리 산87(지도28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구인기(1597~1676)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綾城, 자는 季依, 시호는 忠簡이다. 능성부원군 宏의 아들로 綾豊君에 봉해졌다. 큰아버지 具宬의 문인으

로 인조와는 왕위에 오르기 전 같이 공부하였다. 광해군이 점술인의 말을 듣고 인조의 동생인 綾昌君을 죽이자 친척들이 화를 두려워하여 출입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내왕하였으며, 仁祖反正에 참여하여 그 공으로 靖社功臣 3등에 봉해졌다. 사헌부감찰, 수원부사, 공조참의를 거쳐 공조판서 재직 후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고, 이후 府院君에 봉해졌다. 병자호란 이후 심양에 파견되어서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문밖 출입을 일체 하지 않았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군장골 소로변에 인접한 구릉에 西向하여 있으며 정경부인 여흥민씨 · 전주최씨와의 합장묘이다. 활개없이 봉분 앞에는 장대석 · 상석 · 6각향로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망주석은 높이 149㎝로 작으면서 통통한 느낌이다. 봉분 오른쪽의 墓碑는 비좌 상부에 전후 5엽, 좌우 2엽씩의 복련에 안상문을 사방에 조각하였고, 월두형 비신의 형태로, 후면의 행장은 1678년(숙종 4) 아들인 鎰이 지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2열로 "有明朝鮮國靖社功臣綾豊府院君諡忠簡公具仁 墜之墓 貞敬夫人驪興閔氏祔右 貞敬夫人 全州崔氏祔左"라 써 있다. 비신의 크기는 비좌 높이 25㎝ · 너비 100㎝ · 두께 68㎝, 비신 높이 140㎝ · 너비 64.5㎝ · 두께 21.5㎝이다.

神道碑는 구사맹과 구굉 3기의 신도비 중 제일 오른쪽에 南向하고 있다. 총 높이 259㎝로 화강암에 복련문이 새겨진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상부에는 篆書로 전후에 걸쳐 "綾豊府院君具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奮忠贊謨靖社功臣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兼工曹判書五衛都摠府都摠管綾豊府院君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諡忠簡具公神道碑銘并序"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祿大夫 原任 議政府 左議政 宋時烈이 찬하고,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金壽恒이 전을, 正憲大夫 原任 漢城府 判尹 綾平君 具鎰이 글을 썼으며, 건립연대는 1687년(숙종 13)이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99㎝ · 너비 87㎝ · 두께 27㎝이다. 옥개석은 높이 51㎝의 팔작지붕 형태로 최근에 새로 만든 것이며, 본래의 것은 옥개석에 용마루를 만들고 여기에 양쪽에 용머리를 새겨 모양이 화려하였다. 그러나 1997년 가을에 도난 당하였다.

본래 묘와 신도비는 양주군 남면 송현리에 있었으나 1924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 지도번호 : 양지 205-4

□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293. 具鎰 墓



사진293-1 구일 묘



사진293-2 구일 묘표

□소재지 : 금곡동 군장리 산93(지도28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구일(1620~1695)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綾城, 자는 重卿이다. 증조부는 思孟이며, 할아버지는 宏이고, 父는 仁壁이다. 1642년(인조 20) 진사가 되고, 1644년 洗馬를 거쳐, 1646년 공신의 嫡長子라 하여 품계가 올라 瓦署 別提가 되었다. 1656년(효종 7) 금부도사가 되고, 1658년에 횡성현감으로 나가 묵은 땅을 개간하는 등 치적이 있어 송덕비가 세워졌다. 1668년 무과별시에 급제하여 都摠府經歷 · 훈련원부정을 역임하고 이듬해 洪陽營將이 되었는데, 父의 병이 위독하여 왕의 특령으로 해직을 허락받았다. 1670년에 장단부사가 되고 얼마 후 황해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672년에 경기수군절도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그만두었다. 1674년 禁軍別將을 거쳐 1675년에 한성부우윤으로 승진되고 總管이 포도대장을 겸하였다. 1678년(숙종 4) 綾平君으로 봉해졌다. 1680년 특별히 한성부판윤 겸 摠戎使에 임명되고, 1688년 知敦寧府事가 되었다. 1689년 己巳換局으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삭직당하여 송추에서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知訓鍊院事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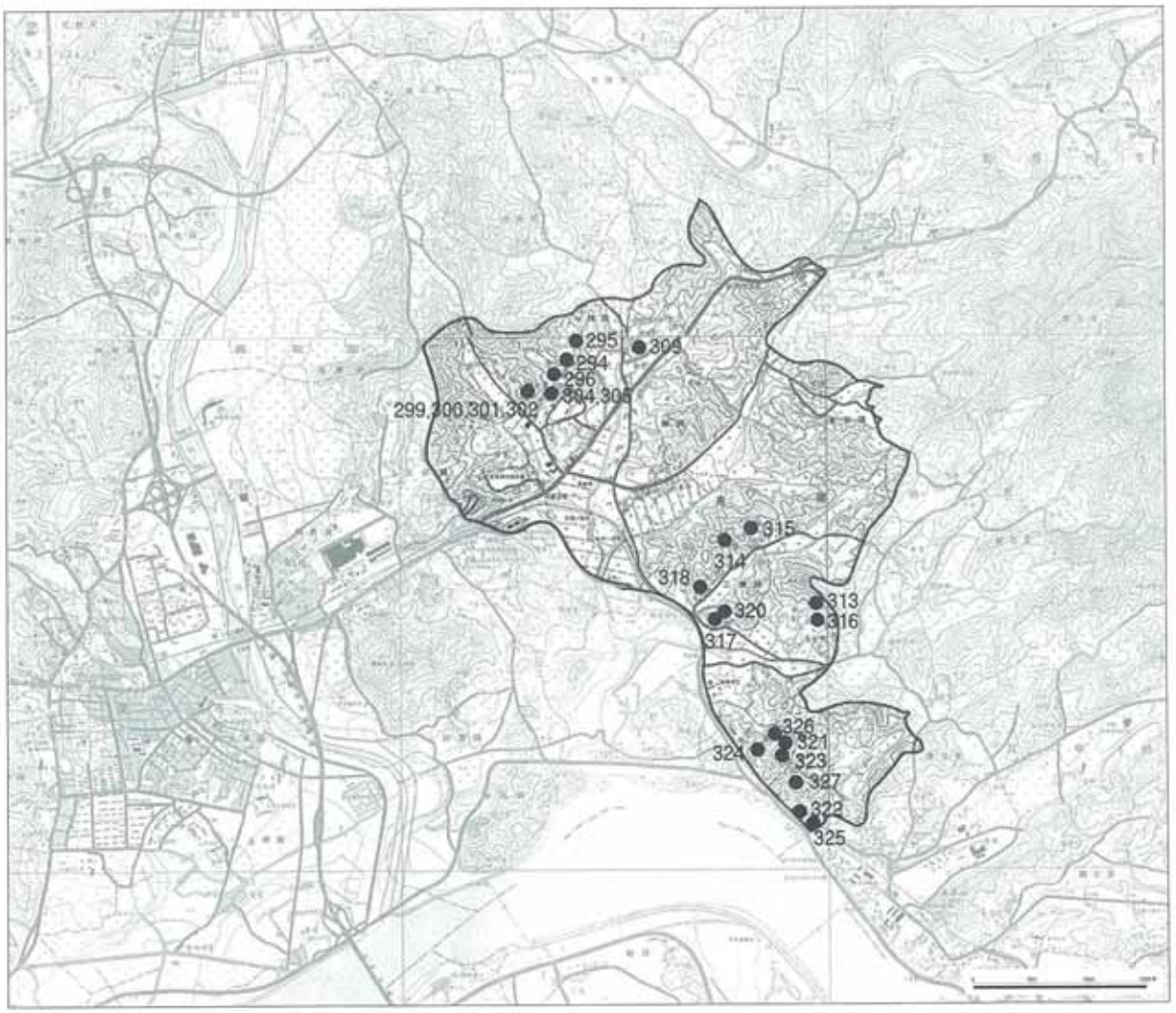
묘는 구상정 묘의 오른쪽 뒷편에 東南向하여 있다. 묘는 상석 · 4각향로석과 간주석 상부에 앙화를 새긴 8각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墓碑는 묘 왼쪽에 위치하여 백색화강암의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政憲大夫漢城府判尹綾平君具鎰之墓貞夫人全義李氏祔左"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1647년(인조 25)에 朴世堂이 찬하고 아들 具志禎이 썼다. 옥개석은 처마면이 거의 '一' 자로 밋밋한 감을 준다. 크기는 비좌 높이 25㎝ · 너비 108㎝ · 두께 75㎝, 비신 높이 131㎝ · 너비 65㎝ · 두께 19㎝, 옥개석 높이 35㎝ · 너비 99㎝ · 두께 64㎝이다.

□지도번호 : 양지 205-4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養正洞



양정동 문화유적 분포현황

294. 桂陽君別廟 및 李善英孝子旌門



지도294 계양군별묘 및 이선영효자정문 위치도(성동 058)



사진294 계양군별묘 및 이선영효자정문

□소재지 : 일패동 산658-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충효비
□내 용

계양군 별묘와 이선영 효자 정문은 일패동 논골의 소로변에 南向하여 있는 하나의 사당안에 같이 모셔 놓았다. 사당은 맞배지붕에 정문 2칸, 측면 1칸 반의 구조로 防風板을 갖추고 있다. 적벽돌로 담장을 새로 둘렀으며, 정문은 1칸으로 골기와를 얹었다. 좌측에는 위패를 모셔 놓은 사당 밖의 벽에 현판을 만들어 놓았다. 좌측에는 "世宗王子桂陽君別廟"라 써 있고, 우측에는 "孝子朝散大夫行繕工監後官李善英之門 辛亥四月 命旌"이라 하였다. 이곳은 세종의 아들인 계양군 일파들이 제사를 합동으로 지내는 곳이라 한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295. 桂陽君夫人 韓氏 墓



사진295-1 계양군부인 한씨 묘



사진295-2 계양군부인 한씨 묘 장명등

□소재지 : 일패동 산37-1(지도29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계양군 이증(1427~1464)은 본관은 全州로 字는 顯之이며, 世宗大王의 別子로서 愼嬪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빈 김씨는 六子를 낳았는데 이증이 그 長子였으며 관례대로 封君되어 桂陽君에 봉해졌다. 世祖 즉위 후 佐翼功臣에 策錄되었다. 1464년(세조 10)에 병을 얻어 38세로 돌아가니 이듬해 楊州 府治 동쪽 白石原에 禮葬하였다. 左議政 西原府院君 韓確의 따님인 旌善郡夫人 韓氏에게 장가들어 3남 3녀를 낳았다.

정선군부인 한씨(1426~1480)는 한확의 딸로 묘는 일패동 논골 계양군 사당 아래 우측 능선에 東南向하여 있다. 원형의 봉분은 높이 180㎝, 직경 730㎝로서 용미와 활개를 갖추고 있다. 봉분 중앙에는 비좌와 비신을 갖춘 화관석형의 고려식 墓表가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비신 상부 '旌' 자와 '善' 자 사이에 파손된 것을 접합한 흔적이 있다. 묘표는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마모되어 가지만 그 부분이 더욱 화려하게 보이며, 뒷면의 글씨는 이중배가 찬한 것이다. 묘비 앞에는 상석과 2단의 계체석이 있으나, 향로석과 망주석은 없다. 2단의 계체석간 간격은 780㎝이다. 상석 앞에 있는 높이 192㎝의 장명등은 역삼각형으로 단순하면서도 장중한 느낌을 준다. 사각형의 민무늬에 前後 방형, 左右 원형인 4개의 화창을 놓고 그 위에 사각으로 팔작지붕 형태의 상륜부를 만들고 보주는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장명등 앞 좌우에는 크고 단순한 느낌을 주는 幞頭의 높이 225㎝인 문인석이 있다. 문인석은 머리길이가 70㎝로 신체의 약 1/3을 차지하며 고려초기 양식으로 단순하게 선을 처리하고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296. 富林君 李湜 墓



사진296-1 부림군 이식 묘



사진296-2 부림군 이식 묘 문인석(큰 눈과 길다란 소매가 특징이다)

□소재지 : 일패동 산37-1(지도29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부림군 이식(1458~1488)은 세종의 아들인 계양군의 아들로 富林君에 봉해지고 문집으로 『四雨亭集』이 있다. 그는 天性이 淡淡하고 意氣가 한가롭고 고요하며 詩酒로써 스스로 즐겼는데, 한 시대의 文人才士가 더불어 노는 이가 많았다. 졸함에 미쳐 사람들이 많이 애석해 하였다 한다.

묘는 일패동 논골 사당 맛은편 능선에 東向하여 있다. 원형의 봉분은 높이 170㎝, 남북직경 590㎝로서 용미를 갖추고 있다. 봉분 중앙에 있는 고려식 墓表는 장방형 사각 비좌에 비신과 상부 연화형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전면에 종으로 "正義大夫富林君諱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3㎝ · 너비 90㎝ · 두께 52㎝, 비신 높이 144㎝ · 너비 47㎝ · 두께 15㎝이다.

묘표 앞에는 상석 · 2단의 계체석과 幞頭의 높이 173㎝인 통비형의 문인석 한 쌍이 있는데 문인석은 눈이 매우 크며, 머리길이가 52㎝인 조선 초기의 양식으로 신체 1/4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보존은 양호한 편이다. 우측의 문인석은 얼굴 부분이 검게 탈색되어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297. 寧源君 李澧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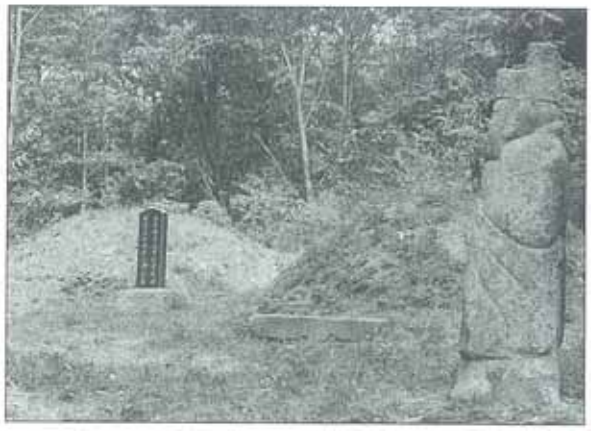


사진297 영원군 이예 묘

□소재지 : 일패동 산37-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영원군 이예(1450~1513)는 본관은 전주, 寧源君에 봉해졌다.

묘는 일패동 논골에 西向하여 있으며 평창군부인 청송심씨와의 쌍분이다. 원형의 봉분은 높이 160㎝, 남북직경 470㎝이다. 봉분 앞에 있는 墓表는 장방형의 마모가 심한 비좌와 근래 새로 세운 비신을 갖추고 있는데, 비신 前面에는 "寧源君全州李公澧之墓 平昌郡夫人靑松沈氏祔"라 써 있다. 봉분 앞에는 각각 상석이 있고, 그 앞으로 흙으로 자연스럽게 계단을 만들었다. 향로석과 망주석은 없으며, 상석 앞의 높이 180㎝인 幞頭의 문인석은 통비형이며 머리부분이 55㎝로 신체의 약 1/4을 차지한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298. 李應麒 墓



사진298 이응기 묘 망주석

□소재지 : 일패동 산37-1(지도29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응기(1530~1588)는 본관은 全州, 字는 廷瑞이다. 莊憲大王의 6대손이고 桂陽君 李瑁의 5대손이며, 父는 龍岡縣令 李文衡이다. 1549년(중종 28년)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고, 1561년(명종 16년)에 大科에 올라 槐院에 選補되었다가 吏局에 추천받아 들어가 승진하여 奉敎에 이르렀으며, 戶曹 · 禮曹 · 工曹의 郎官을 거쳐 慶尙都事 · 宗簿寺僉正 · 司饔 · 掌樂院正 · 通川郡守 · 鐵原府使 · 平山府使 · 公州牧使 · 海州牧使 등을 지냈다. 부인은 羅允明의 따님이다. 어려서 成東洲에게 수업하였는데, 箕穎洗耳圖詩를 지어 이르기를, "수중에 물이 있는 것 같고, 물은 또한 그 물을 씻는 듯하다."하였으므로 동주가 크게 기이하게 여겼다 한다.

묘는 일패동 논골 이응슬 묘의 바로 아래에 南向하여 있는데 숙인 금성나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용미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120㎝, 직경 480㎝이다. 봉분 앞의 묘비는 복련과 안상문을 사방에 장식한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 前面에는 2열로 "翰林院待敎全州李公應麒 配淑人錦城羅氏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28㎝ · 너비 94㎝ · 두께 59㎝, 비신 높이 125㎝ · 너비 43㎝ · 두께 21㎝, 옥개석 높이 45㎝ · 너비 76㎝ · 두께 45㎝이다.

그 앞에는 계체석 · 상석 · 장대석 · 4각향로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는데, 망주석은 높이 206㎝로 안상문을 새긴 4각받침대에 석주형으로 중간에 다람쥐를 조각하고 그 위에 안상문과 앙화를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문인석은 갖추고 있지 않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299. 全城君 李忭 墓



지도299 정성군 이변 묘 위치도(성동 058)



사진299 전성군 이변 묘

□소재지 : 일패동 산37-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전성군 이변(1471~1500)은 본관은 全州, 자는 彦甫, 군호는 金城君이다. 成宗의 제11남으로, 母는 현령 권수조의 딸인 貴人 安東權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묘는 양정동4거리에서 일패동 마을로 진입하여 700m쯤 가다 보면 도로변과 인접한 오른쪽의 나지막

한 구릉에 이변 외 3인의 묘가 正南向하여 나란히 있다. 그 중 이변 묘는 봉사골에 위치한 전성군파 묘역중에서 제일 위에 위치하여, 丹陽郡夫人 權氏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앞에는 원래의 석물인 혼유석 · 상석 · 장대석 · 4각향로석 · 장명등과 근래에 새로 마련한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 중 문인석 앞 중간에 있는 장명등은 높이 215m로 하대석의 4면에 커튼 모양과 그 위에 안상문을 2중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화창을 놓았으며, 지붕은 팔작지붕 형태의 보주형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의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준다.

墓碑는 봉분 좌측에 위치하여 南向하고 있는데, 4면에는 전후 2엽, 좌우 1엽씩의 안상문을 새기고, 상부에는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복련을 장식한 장방형 비좌와 황색을 띠는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새로 만들어 얹은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2열로 "王子全城君之墓 丹陽郡夫人權氏之墓" 써 있다. 비문은 申孝仲이 쓰고, 宋寅이 찬을 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570년(선조 3) 9월이다. 현재 후면은 심하게 마모되어 하단부 일부만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23㎝ · 너비 89㎝ · 두께 50㎝, 비신 높이 127㎝ · 너비 49㎝ · 두께 19.5㎝이다.

神道碑는 본래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1968년에 새로 신도비를 세웠다. 본래 신도비는 후손 李尙薰이 찬하고, 李警旭이 썼다. 비에는 "王子 全城君肅愍公神道碑"라 써 있다. 구비는 1589년(선조 22)에 세운 것으로 驪城君 宋寅이 찬하고, 慈山君 申孝仲이 썼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00. 廣川君 李壽麒 墓



사진300 광천군 이수기 묘

□소재지 : 일패동 산46(지도299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광천군 이수기(1510~1588)는 본관은 전주, 자는 仲瑞, 생부는 益陽君 懷이며, 전성군 이변의 양자이다. 1522년(중종 17)에 직위가 3품에 이르고 廣川正이 되면서 전성군의 후사로 삼으면서 자급을 승직하여 承憲大夫로 군호를 주었다. 1567년(명종 22)에 명종이 승하하자 자급을 승직하여 昭德大夫 광천군에 봉해졌다. 본래 묘역은 衿川 선영묘역에 있었던 것을 이장한 것이다.

묘는 전성군 이변의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正南向하고 있으며, 파평군부인 윤씨 및 의성군부인 김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앞에는 원래의 석물인 혼유석 · 상석 · 장대석 · 사각향로석 · 문인석 등과 최근에 새로 마련한 망주석 · 장명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 중 상석 앞 좌우의 문인석은 높이 180㎝로 금관조복형이며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마주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머리부분이 60㎝로 신체의 1/3을 차지하는 형태이다.

墓碑는 봉분 좌측에 南向하여, 안상문과 복련을 장식한 비좌와 월두형 비신으로 되어 있다. 비신의 비문

은 前面에만 있으며, 2열로 "昭德大夫廣川君之墓 坡平郡夫人尹氏之墓"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8㎝ · 너비 100㎝ · 두께 68㎝, 비신 높이 129㎝ · 너비 上 57㎝ · 下 55㎝ · 두께 18㎝이다. 봉분 우측에는 새로 비를 만들어 세웠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301.平山君 李俶 墓



사진301 평산군 이숙 묘

□ 소재지 : 일패동 산46(지도299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평산군 이숙(1526~1591)은 본관은 전주, 자는 景初로 광천군 이수기의 아들이다. 처음에 副守에 제수되었으며, 승급하여 崇憲大夫 平山君에 봉해졌다. 묘는 衿川 高寺里에서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묘는 광천군 이수기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正南向하고 있으며, 함창현부인 김씨와 연일현부인 정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앞에는 원래의 석물인 혼유석 · 상석 · 직사각 향로석 · 동자석 · 문인석 등과 근래에 새로 만든 망주석 · 장명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 중 동자석은 높이 123㎝의 금관조복형으로 코가 마모된 상태였으나, 최근 시멘트로 코를 보수하여 놓았다. 머리부분이 40㎝로 신체의 1/3을 차지한다. 문인석 역시 금관조복형으로 높이 170㎝이며 머리부분이 55㎝로 신체의 1/3을 차지하는 형태이다.

봉분 좌측에는 새로 만든 묘비가 위치하는데 비에는 "崇政大夫平山君 咸昌縣夫人金氏 延日縣夫人金氏之墓"라 써 있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302. 宣城君 李愼胤 墓



사진302 선성군 이신윤 묘

□ 소재지 : 일패동 산46(지도299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선성군 이신윤(1585~1644)은 본관은 전주, 자는 謙夫, 평산군 이숙의 아들이다. 처음에 副令을 제수받았으며, 광해군의 폐모사건 때 龜川君 등 19종친을 배척하는 상소와 적을 물리친 공으로 正義大夫宣城君에 봉해졌다. 묘역은 본래 금천 고사리에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묘는 일패동 봉사골에 소재한 전성군 묘역중에서 제

일 아래에 있는 관계로 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正南向하고 있는 원형의 봉분은 파평현부인 윤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얕게 두르고 왼쪽에는 높이 43㎝ · 너비 63㎝ · 두께 43㎝의 돌을 놓았다. 왼쪽은 현재 놓여져 있지 않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장대석 · 정사각 향로석 등의 석물과, 봉분 좌측에는 새로 만든 묘비가 있다. 비에는 2열로 "正義大夫宣城君 坡平縣夫人 尹氏之墓"라 써 있다. 상석 좌우에는 새로 만든 망주석과 금관조복형의 문인석이 있고 그 가운데 새로 만든 장명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문인석은 높이 135㎝의 소형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묘는 전성군 묘역에서 오른쪽으로 약 100m 거리의 능선에 가까이 위치하여 南向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군부인 전주황씨와의 쌍분으로 되어 있다. 묘역이 전체적으로 장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전성군 등 4위가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에 비하여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봉분 앞에 새로 만든 묘비에는 "昭德大夫平海君之墓 配全州郡夫人黃氏祔左"라 써 있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사각향로석과, 향로석 바로 옆에는 상석 끝과 나란히 하여 동자석이 서 있다. 문인석은 높이 183㎝의 금관조복형으로 장대한 느낌을 주며 머리부분이 신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03. 平海君 李倓 墓



사진303 평해군 이담 묘

□소재지 : 일패동 산46(지도299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평해군 이담(1544~1576)은 본관은 전주, 자는 景熾이고, 광천군 이수기의 아들이다. 처음에 副守를 제수받고 자급을 승직하여 올랐다. 사후 증직으로 昭德大夫 平海君을 제수받았다.

304. 寧山君 李禮胤 墓



사진304 영산군 이예윤 묘

□소재지 : 일패동 산46(지도299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영산군 이예윤(1568~1625)은 본관은 전주, 자는 源孝, 평해군 이담의 아들이다. 처음에 副令을 제수받고, 임진왜란때 선조를 호성한 공으로 호성공신 정의대부 영산군에 봉해지고, 이후에 소덕대부 호성원종일등공

신에 봉해졌다.

묘는 평해군 이담 묘 아래에 위치하며 화평현부인 광주김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장대석 · 6각향로석 등의 석물이 있고, 봉분 좌측에 새로 만든 묘비에는 2열로 "昭德大夫寧山君 配化平縣夫人金氏祔左"라 써 있다. 향로석 앞으로 좌우에는 높이 90㎝의 동자석과 금관조복형의 크고 웅장한 문인석이 한쌍씩 있다. 문인석은 높이 215㎝이며 머리부분이 65㎝로 신체의 약 1/3을 차지한다. 눈동자를 크게 양각하였으며, 인중을 포함한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그 앞 중간에 있는 장명등은 높이 140㎝로 전체적으로 무늬없이 소박한 느낌을 주며, 사각형의 받침대에 팔작지붕형의 옥개석은 원통형보주형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05. 閔齊仁 墓 및 神道碑



지도305 민제인 묘 위치도(성동 058)



사진305 민제인 신도비

□소재지 : 일패동 산17-17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민제인(1493~154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驪興, 자는 希仲, 호는 立巖이다. 父는 전적 龜孫이다. 을사사화때 尹元衡을 지지하여 尹任 등을 제거하는데 공을 위사공신 2등에 책봉 및 驪原君에 봉해졌다.

묘는 6번 도로변에 인접하여 일패동 명우마을 좌측의 해발 40m내의 나지막한 구릉에 正東向하고 있는데, 민제인외 사용 · 여건 · 여준의 묘가 나란히 있다. 풍수학상 산소자리가 소(牛)가 앉아 있는 형태이며, 민제인의 묘는 여흥민씨 묘역의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경부인 고성이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남북직경 880㎝, 높이 230㎝의 대형으로, 앞에 혼유석 · 상석 · 4각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 장명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중 상석은 흑색의 화강암으로 크기는 높이 36㎝ · 너비 171㎝ · 두께 110㎝이다. 장명등은 높이 180㎝로 방형의 비좌에 사각형의 팔작지붕형 옥개석으로 모양이 아름답다. 봉분 우측에는 비신 월두형의 묘표가 있는데,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五衛

都摠府都總管贈諡公閔齊仁之墓 貞敬夫人固城李氏之墓"라 써 있다. 건립연대는 後面에 "萬曆辛巳4月日立"의 연기로 보아 1581년(순조 9)에 세운 것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24㎝ · 너비 81㎝ · 두께 41㎝, 비신 높이 136㎝ · 너비 51㎝ · 두께 13㎝이다.

神道碑는 묘에서 약 30m 아래에 南向하여 碑主인 민제인의 묘를 바라보고 있다. 총 높이 325㎝로 비좌 아래 이중으로 높이 30㎝ · 너비 185㎝ · 두께 124㎝의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무늬없는 백색화강암의 비좌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前後 2면에 걸쳐 "議政府左贊成閔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總管閔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宋時烈이 짓고, 宋浚吉이 썼으며 金壽恒이 전을 하였다. 건립연대는 1668년(현종 9)이다. 옥개석은 처마 면이 '一' 자이나 끝을 약간 반전시키고 있다. 안정적인 비좌와 균형잡힌 비신에 비해 옥개석의 규모가 작고 납작하여 균형이 안 맞는다.

규모는 비좌 높이 72㎝ · 너비 167㎝ · 두께 99㎝ · 비신 높이 220㎝ · 너비 102㎝ · 두께 36㎝ · 옥개석 높이 33㎝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306. 閔思容 墓



사진306 민사용 묘

□소재지 : 일패동 산17-17(지도30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민사용(1515~1579)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彦默, 본관은 驪興이며, 父는 의정부 좌찬성 齊仁, 母는 固城 이씨이다. 1546년(명종 1) 생원이 되었고, 관직은 문천군수에 이르렀다. 사후에 의정부좌참찬 겸 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다.

묘는 父 제인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東向하고 있다. 贈貞夫人 光州金氏 · 廣州李氏와의 합장묘인 원형의 봉분은 남북직경 750㎝, 높이 200㎝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흑색화강암 제질의 상석 · 4각향로석 · 장대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향로석 앞 좌우의 망주석(높이 150㎝)과 문인석(높이 140㎝)은 다른 묘역과 달리 적은 편이다.

봉분 좌 · 우에는 2기의 묘비가 위치하여 東向하고 있다. 우측의 비는 비신 월두형으로 전후 2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淑人光州金氏之墓 通訓大夫行文川郡守閔思容之墓 淑人廣州李氏"라 써 있으다. 건립연대는 1581년(선조 14)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32㎝ · 너비 93㎝ · 두께 61㎝ · 비신 높이 124㎝ · 너비(上) 53㎝ · 너비(下) 49㎝ · 두께 12㎝이다. 좌측

의 비도 우측과 마찬가지로 상부를 말각한 비좌에 비신이 월두형으로 되어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4열로 "有明朝鮮國文川郡守贈議政府左參贊閔公諱思容之墓 贈貞夫人光州金氏祔左 贈貞夫人廣州李氏祔右"라 써 있다. 비문은 숭정 재기사 9월에 7세손으로 통훈대부이자 星州牧使를 지낸 閔百男이 썼다. 크기는 비좌 높이 34㎝ · 너비 100㎝ · 두께 65㎝ · 비신 높이 156㎝ · 너비 64㎝ · 두께 26㎝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묘는 여건 묘 바로 아래에 東向하고 있다. 공인 완산 이씨와의 합장묘인 원형의 봉분 앞에는 흑색화강암 제질의 상석 · 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봉분 좌측의 묘비는 비좌와 월두형 비신으로, 비신의 비문은 앞의 민여건 묘비와 마찬가지로 前 · 後 · 右 3면에 있다. 前面에는 3열로 "有明朝鮮國贈通善郎郎閔公汝俊之墓 贈恭人完山李氏祔左"라 써 있으며, 비문은 世子 侍講院 贊善 송준길이 쓴 것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24㎝ · 너비 100㎝ · 두께 62㎝, 비신 높이 161㎝ · 너비上 66㎝ · 下 64㎝ · 두께 22.5㎝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07. 閔汝俊 墓



사진307 민여준 묘의 상석(여흥민씨 묘역의 모든 상석은 흑색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다)

□소재지 : 일패동 산17-17(지도30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민여준(1539~1599)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英伯, 본관은 여흥, 군수 사용의 아들이며, 여건의 동생이다. 음보로 彰信校尉를 지냈다. 李夢鶴의 난 때 叛民을 토벌하고 백성을 安輯시킨 공으로 호조정랑에 추증되었고, 뒤에 종증손 維重의 건의에 의하여 좌참찬 겸 지의금부사 · 오위도총부 도총관이 加贈되었다.

308. 閔光勳 墓 및 神道碑



사진308-1 민광훈 묘

□소재지 : 일패동 산17-17(지도30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민광훈(1595~1659)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驪興, 자는 仲集, 父는 부윤 機이며, 母는 남양홍씨이다. 父기는 1597년(선조 30)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등용되고, 그 후 전적 · 제주목사 등을 거쳐 경주부윤에 올랐다. 1616년(광해군 8)에 진사에 합격



사진308-2 민광훈 신도비

하고 인조 초에 음보로 별검이 되어 출사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52년에 승지에 오르고, 이듬해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재변을 보고하지 아니한 죄로 삭직되었다. 1656년 다시 복직되어 병조와 공조의 참의를 지냈다. 그는 성색을 멀리하였고 치가에는 법도가 있었으며 관직에 나아가서는 현명한 관리라는 평을 들었다. 그가 안변부사로 있을 때, 가난한 부민을 돕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아껴서 義倉을 설치하여 부민의 생활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 丙子胡亂 때에는 청군이 몽고병과 함께 강화도에 침입하자 강화도의 수비가 허술하여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종묘서령으로서 송국택과 함께 그곳에 피신중이던 元孫을 데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를 건너 교동을 거쳐 인근 섬으로 피신하여 무사하였다. 난이 그친 뒤 원손을 호위한 공으로 통정으로 승진하여 호조참의가 되었다. 평소 현명한 관리로 명성이 높았으며, 死後 領議政에 추증되었다.

묘는 정부인 연안이씨와의 합장묘로 이패동 명우마을의 6번도로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상에 東向하고 있다. 봉분의 모습은 특이하게도 올챙이의 꼬리가 연상되는 길다란 용미를 갖추고 있다. 봉분의 앞에는 상석과 꽃무늬가 장식된 화려한 향로석 · 장대석 · 망주석과 조각이 우수한 문인석 등의 석물과 묘갈을 갖추고 있다.

墓碣은 봉분 우측에 東向하여, 민무늬 비좌와 비신 및 사각형의 팔작지붕에 중앙이 원통형 모양인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4열로 "有明朝鮮國 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贈資憲大夫 吏曹判書閔光勳 仲集之墓 貞夫人延安李氏祔右"이라 써 있으며, 별도로 우측 하단부에 자경 3㎝의 작은 글씨로 5열에 걸쳐 "庚申仲子入台司加贈領議政辛酉季子第二女膺德選正位坤極庚午遷奉于楊州鳴牛里○○公○左甲向之罔"이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36㎝ · 너비 131㎝ · 두께 117㎝, 비신 높이 164㎝ · 너비 68㎝ · 두께 57㎝, 옥개석 높이 58㎝ · 너비 110㎝ · 두께 102㎝이다.

神道碑는 묘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南向하고 있다. 총 높이 351㎝로 이중으로 된 받침대에 화려한 복련을 조각하고 사면에 안상문을 조각한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全面에 있으며 상부 전면에 篆書로 "守江原道觀察使贈吏曹判書閔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世子左賓客閔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兼領 經筵사감 春秋館事 宋時烈이 짓고, 정헌대부 議政府 左參贊 宋浚吉이 쓰고, 후손 嘉善大夫 平安道觀察使 閔維重이 전을 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671년(현종 12)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74㎝ · 너비 145㎝ · 두께 85㎝, 비신 높이 203㎝ · 너비 99㎝ · 두께 27㎝, 옥개석 높이 80㎝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 참고문헌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309. 李敏承 墓



지도309 이민승 묘 위치도(성동 058)



사진309-1 이민승 묘



사진309-2 이민승 묘갈의 옥개석

□소재지 : 일패동 산34-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민승 묘는 일패동을 지나는 46번 도로변에 인접하여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정부인 청주한씨와의 합장묘로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의 크기는 높이 180㎝, 직경 540㎝이다. 봉분 하단에는 높이 30㎝, 길이 240㎝의 호석을 둘렀으며 그 앞에 오석재질의 혼유석 · 앙련무늬을 장식한 고석 4개 위에 오석의 상석 · 계체석 · 백색대리석의 크고 화려한 직사각형 모양의 향로석이 있고, 향로석 좌측에 화강암으로 만든 직사각형의 향로석이 하나 더 있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높이 20㎝인 8각받침대에 석주 기둥을 세운 총 높이 210㎝의 망주석이 있는데, 석주에는 청솔모를 조각하고 그 위에 안상문과 앙화를 조각하였다. 망주석은 단순하지만 크고 장대한 느낌을 주며 대체로 홍릉의 석물과 유사한 수준이다. 망주석 앞의 문인석은 높이 182㎝로 머리길이가 55㎝이며 金冠朝服形으로 근대적 사실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앞뒤에 구름 모양을 조각하였다. 얼굴에 눈동자가 표현된 눈은 뜨고 입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墓碣은 묘역 앞에 철망으로 보호막을 치고 그 안에 있다. 민무늬의 장방형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正憲大夫議政府贊政完山李公諱敏承之墓 貞夫人淸州韓氏祔左"라 하였다. 비문은 장남 根澔가 찬하고, 3남 根洪이 글씨를 썼으며 5남 根沐이 前面의 비문을 썼다. 옥개석은 상부 지붕의 골기와 표현과 2단 겹처마, 서까래에 연목 및 望瓦에는 보상화 문 등을 빈틈없이 조각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더해주고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67㎝ · 너비 117㎝ · 두께 87㎝, 비신 높이 164㎝ · 너비 87㎝ · 두께 67.5㎝, 옥개석 높이 64㎝ · 너비 107㎝ · 두께 83㎝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10. 具寇 墓



지도310 구성 묘 위치도(성동 048)



사진310 구성 묘

□소재지 : 일패동 309-2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구성(1558~161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綾城, 자는 元裕, 호는 草塘이다. 좌찬성 思孟의 아들이며 인헌왕후의 오빠이다. 1585년(선조 18)에 사마시를 거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가 되고 곧 박사에 올랐다. 1589년 승정원주서로 천거되었으나 종형이 翰林에 있어 相避로 임명되지 못하였다. 예조좌랑 · 지제교를 거쳐 사간원정언으로 있을 때 기축옥사에 연루된 崔永慶의 공초에 착오가 있어 파직되었다. 얼마 뒤에 병조좌랑으로 복직되어 성균직강 · 병조정랑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임금을 호위하여 개성에 이르러 변란의 책임이 李山海에게 있다고 주장하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이 일로 인하여 이산해는 평해에 유배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1596년 호조참판으로 奏聞使가 되어 燕京에 다녀온 뒤 장례원판결사 · 해주목사를 지냈다. 1601년 대사성으로 승진하였으나 사양하였다. 1602년에 鄭仁弘 등이 기축옥사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홍주로 유배되었다가, 1604년 아버지상을 당하여 석방되어 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나, 이때 대간의 심한 論劾이 있었다. 1618년에 廢母論이 일어나자 병으로 庭請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처벌하자는 대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마침 병으로 사망했다. 인조반정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그의 詩文集으로 『草塘集』이 전한다.

묘는 일패동 나무농장 안에 南向하여 일렬의 '…' 형태로 정경부인 전주 이씨 및 하동 정씨의 묘와 나란히 있다. 원형의 봉분은 높이 90㎝, 동서직경 500㎝로서 활개를 갖추고, 그 안에 東西로 나란히 3기의 봉분이 안장되어 있다. 墓表는 좌측 구성 묘와 정경부인 하동 정씨 봉분 사이에 위치하여 전후 5엽, 좌우 1엽씩의 단판복련이 장식된 비좌에 비신 월두형이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4열로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資憲大夫綾海君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綾海府院君諡忠肅公具寇之墓"라 하였고, 뒷면에는 "崇禎十六年癸未八月日立"이라 하여, 건립연대가 1643년(인조 21)임을 알 수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15㎝ · 너비 113㎝ · 두께 62㎝, 비신 높이 153㎝ · 너비(上) 67.5㎝ · 너비(下) 63.5㎝ · 두께 20㎝이다. 묘표 앞에는 계체석과 4개의 원형고석을 받친 상석 · 직사각향로석 · 안상문과 앙화를 조각한 8각망주석 · 금관조복형의 문인석이 있다. 이 문인석은 높이가 194㎝이

며 머리 부분이 63㎝로 신체의 1/3을 차지하는 17세기 중반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넓은 묘역에 단순화된 석물배치를 한 형태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311. 海兵隊北漢江地區戰捷碑



사진311-1 해병대북한강지구전첩비



사진311-2 해병대북한강전첩비 안내판

□소재지 : 일패동 산73-8(지도305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념비

□내 용

해병대북한강지구전첩비는 일패동 6번 도로변에 인접하여 北向하고 있다.

북한강지구 전투는 1950년 9월 28일 수도서울 탈환의 대위업을 완수한 한국해병대가 수도권 안전확보를 위하여 동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망우리고개에서 경춘가도를 따라 북한강 방향으로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일 현 전적비가 있는 일대에서 재침공 준비중인 북괴군 1개연대와 치열한 격전 끝에 적사살 200명, 포로 50명을 포획하는 대전과를 올리면서 적을 격퇴하고 서울 외곽방어선을 확보하였다. 이 전투로 서울을 향한 적의 재침공기도를 사전 분쇄하였으며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 38선을 돌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전투이다.

이 비는 1958년 9월 28일 해병대사령부에서 건립하였던 것을 그 당시의 비문을 되새겨 남양주시 해병대전우회에서 87년 12월 10일 재건립한 것으로 높이 124㎝의 기단 위에 높이 9.1m의 탑신이 세워져 있다. 기단 정면에는 높이 121㎝ · 너비 58㎝ · 두께 2.5㎝의 오석에 10행으로 다음과 같은 추도비문이 새겨져 있다.

해병대가 수행한 9 · 28 수도탈환은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겨레의 멍에를 벗기고 역사의 광휘를 회복하였으며 나아가 낙동강 전선 총 반격의 기연을 지어냈으니 이 어찌 보천욱일의 위훈이 아니리오. 해병은 진정 조국의 주역이요 삼군의 정병이었노라. 1950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해병대는 북한강지구 차단작전을 전격적으로 수행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로써 경인작전의 최종목적은 달성되었도다.

이 전투에서 벅찬감격과 보람을 안고 푸른 하늘아래고이 잠든 전몰해병들이여 그대들의 영웅무쌍한 이름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지어다.

1958년 9월 28일

탑신 前面에는 5매의 얇은 장방형 오석에 종으로 "海兵隊北漢江地區戰捷碑"라 새겨져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12. 顯忠塔



사진312 현충탑

□소재지 : 일패동 산73-8(지도305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비

□내 용

현충탑은 6번 도로변에 해병대북한강지구전첩비와 東西로 마주보고 東向하여 있다. 높이 260㎝의 백색 화강암 직방형 기단 위에 팬촉 형태의 탑신이 세워져 있다.

이 탑은 1980년 4월 1일 분군으로 인하여 현 남양주시에 顯忠塔이 없어 국가를 위해 散華한 護國英靈들의 冥福을 빌 수 없게 되자 郡費와 각계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것이다.

탑의 기단 정면에는 쌍비둘기가 마주보고 있고 左右에는 각각 채화시설과 가로 74㎝, 세로 54㎝의 동판에 이 탑을 세우게 된 동기와 추도문이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左側

이 탑은 남양주군에서 군민의 뜻을 모아 이일영 화백에게 제작 위촉하여 1981년 6월6일 제막되었음

남양주군수 박 창 곤

右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영령이시여 영전의 안식처를 군민의 정성으로 모시오니 고이 잠드소서

□지도번호 : 덕소 205-2

313. 金壽恒 墓 및 墓碣



사진313-1 김수항 묘

□소재지 : 이패동 산11(지도4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수항(1629~1689)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久之, 호는 文谷, 본관은 안동으로 할아버지는 좌의정 상헌, 父는 동지중추부사 광찬이다. 1646년(인조 24) 泮試에 수석하고 진사시에 장원했으며, 1651년(효종



사진313-2 김수항 묘표



사진313-3 김수항 묘갈

2)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전적이 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53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淸에 다녀왔다. 1659년(현종 즉위년) 효종릉비의 전서를 쓴 공로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도승지 · 예조참판 · 이조참판을 지냈다. 1662년 왕의 특명으로 예조판서에 발탁되었으며, 이후 6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명사들을 조정에 선임하는 데 힘썼으며, 1672년 44세의 나이로 우의정에 발탁되고, 이어 좌의정에 승진하여 세자부를 겸하였다. 1674년 갑인예송에서 서인이 패하여 영의정이던 형 수흥이 쫓겨나자, 그 대신 좌의정으로 다시 임명되고, 숙종 즉위 후 허적 · 윤휴를 배척하고 종실 복창군 정과 복선군 남 형제의 추문을 들어 그 처벌을 주장하다가 집권파인 南人의 미움을 받아 영암에 유배되고 1678년(숙종 4) 철원으로 이배되었다. 1680년의 庚申大黜陟으로 남인들이 실각하자 복귀, 영의정이 되어 남인의 죄를 다스리는 한편, 송시열 · 박세채 등을 불러들였다. 이후 8년 동안 영의정으로 있다가 1687년 영돈녕부사로 체임되었고, 1689년 태조어용을 전주에 모셔놓고 돌아오는 길에 己巳換局이 일어나 남인이 재집권함으로써, 남인 명사를 남살하였다는 장령 김방걸 등의 탄핵을 받고 진도로 유배되어 위리안치되었다. 뒤이어 예조판서 민암을 비롯한 6판서 · 참판 · 참의 등 남인 泮試 수십인의 공격과 사헌부 · 사간원의 合啓로 사사되었다.

그는 절의로 이름 높던 김상헌의 손자로 家學을 계승하였고, 김장생의 문인인 송시열 · 송준길과 교유하였다. 특히 송시열이 가장 아끼던 후배로 한때 사림의 종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할 때 송시열을 옹호하고 외척과 가까운 노론의 영수가 되었던 관계로, 소론 명류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시문에 뛰어났고 그의 변려문은 당대의 제1인자로 손꼽혔으며, 가풍을 이은 필법이 단아하여 전서와 해서 · 초서에 모두 능하였다.

1694년에 신원 · 복관되었으며, 1886년(고종 23)에는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고, 진도의 봉암사 · 영암의 녹동서원 · 영평의 옥병서원 등에 제향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 · 전주의 호산사에 추가 제향되었다. 시호는 文忠이다. 저서로는 28권 13책의 목활자본인 『文谷集』이 전한다.

묘는 이패동 돌로계마을 논 사이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向하고 있는데 정경부인 안정나씨와의 합장묘이다. 바로 앞에는 철탑이 있으며, 활개와 날씬한 모습의 용미를 갖춘 원형의 봉분 중앙에는 민무늬 백색화강암의 장방형 비좌와 황색을 띠는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상부를 평평하게 절두한 맞배지붕 형태의 단순한 형태를

한 평옥개석을 갖추고 있는 墓表가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有明朝鮮國領議政文谷先生金公壽恒之墓 貞敬夫人安定羅氏祔"라 써 있다. 이 비는 1712년(숙종 38) 8월에 세워진 것으로 후손 김창흡이 글씨를 썼다. 크기는 비좌 높이 30cm · 너비 93cm · 두께 58.5cm, 비신 높이 124cm · 너비 54.5cm · 두께 22.5cm, 옥개석 높이 19cm · 너비 86cm · 두께 59cm이다.

비 앞에는 혼유석 · 장대석 · 상석 · 민무늬의 4각향로석과 그 좌우에 앙화를 조각하고 안상문을 조각한 8각 망주석과 금관조복형의 높이 176cm의 문인석이 있는데 얼굴모습은 눈을 감고 눈꼬리가 올라가게 표현하였다. 머리길이가 60cm로 신체의 1/3을 차지하지만 균형미가 있다.

墓碣은 묘의 좌측 앞에 西向하여 있는데 민무늬 비좌에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前後 2면에 걸쳐 "領議政文谷金公墓碣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贈益文忠公文谷金先生墓碣銘 并序"이다. 본래의 것은 송시열이 찬하고, 형인 김수증이 쓰고, 손자 金濟謙이 쓴 것을 1792년(정조 16)에 현손 통정대부 성균관좨주 김이안이 찬하고, 5대손 정헌대부 병조판서 중동지경연성균관사 金文淳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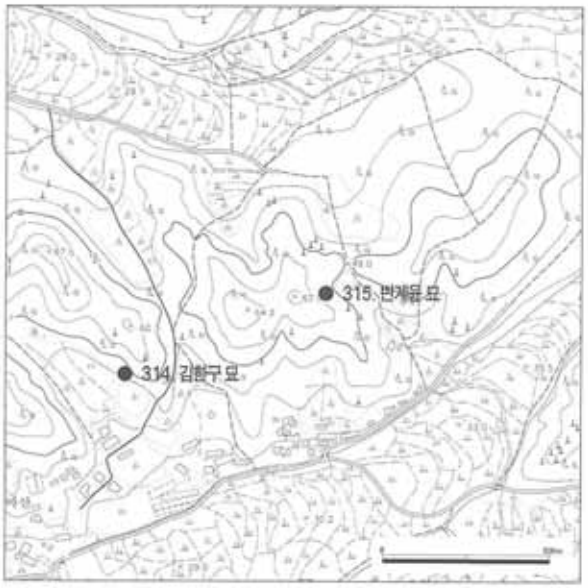
규모는 비좌 높이 50cm · 너비 102cm · 두께 74cm, 비신 높이 145.5cm · 너비 53cm · 두께 30cm, 옥개석 높이 42cm · 너비 95cm · 두께 74cm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314. 金漢耆 墓 및 墓碣



지도314 김한구 묘 위치도(성동 059)



사진314-1 김한구 묘(영조의 장인 김한구의 묘이다)

□소재지 : 이패동 산43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한구(?~1769)는 영조의 장인으로 본관은 경주이며 父는 참의 選慶이다. 1759년 그의 딸이 영조의 계비 貞純王后가 되자 敦寧府都正이 되고, 아울러 慶興府院君에 봉해졌다. 그해 금위대장을 거쳐 1763년에는 어영대장이 되어, 1764년 아들 龜柱가 척신으로서 당론에 관여했다 하여 파직될 때 함께 파직되었다.



사진314-2 김한구 묘갈



사진314-3 김한구 문인석 후면

1766년에 장악원제조로 복직, 이듬해 어영대장이 되었다. 그가 國舅가 됨으로써 父 홍욱을 배향하고 있는 서산 聖巖書院이 훼철된 지 19년 만인 1760년에 복구되었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忠憲이다.

묘는 이패동 마산마을 경로당 부근 뒤의 인근 군부대의 사격장과 인접한 나지막한 능선에 南西向하여 있다. 원형의 봉분은 원풍부부인 元씨와의 합장묘이며, 봉분 앞에 혼유석 · 상석 · 4각향로석 · 망주석 · 문인석 · 4각장명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중 백색화강암의 망주석은 8각기대석 위에 민무늬의 형태로 양질의 석재를 사용한 듯 손상됨이 없이 매끈한 모습이며, 높이 204㎝이다. 문인석은 金冠朝服形으로 얼굴의 모습은 눈을 뜨고 입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두손으로 맞잡은 笏은 높이 46㎝ · 너비 7㎝로 길쭉하다. 세련되고 우수한 조각 솜씨이며, 높이 182㎝로 머리부분은 50㎝이다.

墓碣은 묘의 좌측에 西北向하여 묘를 바라보고 있다. 백색화강암의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민무늬로 상부를 말각하였다. 비신은 4면에 비문이 있는데, 前面 상단에 "御筆"이라 횡서했으며 그 아래 3열로 "有明朝鮮國 勇贈領議政繕興府院君謚忠憲金公漢耆之墓 原豊府夫人元氏祔左"라 썼고, 그 아래 다시 小字로 "七旬有六書"라 쓰여 있다.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 143年 庚寅正月의 연기로 보아 1770년(영조 46)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지붕의 龍장식과 측면에 운문속에 보주문이 우수한데, 용 장식은 날카로운 괴수를 드러낸 두 용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71㎝ · 너비 123㎝ · 두께 92㎝, 비신 높이 163㎝ · 너비 67㎝ · 두께 43㎝, 옥개석 높이 70㎝ · 너비 111㎝ · 두께 87㎝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 1994.

315. 邊季胤 墓

□ 소재지 : 이패동 46(지도314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墓

□ 내 용

변계윤(?~1529)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원주이며 父는 士謙이다. 벼슬은 음직으로 沔川郡守를 거



사진315 변계윤 묘

처 중추부경역 증직으로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兼領 經筵事 觀象監事를 지냈다고 『원주변씨참판공파보』 하에 기록되어 있다.

묘는 이패동 마산마을 말미골의 나지막한 구릉에 南西向하여 정경부인 수원최씨와의 쌍분이다. 봉분은 특이하게도 높이 45㎝의 호석을 8각형 모양으로 둘렀으며, 크기는 높이 150㎝, 직경 430㎝이다. 봉분 앞에는 묘표 자리에 비신이 없이 높이 33㎝ · 너비 85㎝ · 두께 54㎝인 비좌만 있는데, 비좌는 복연에 안상문을 조각하였다. 본래부터 비신은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이 묘 자리가 풍수지리상 말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석물은 하찮은 것이라 한다. 묘표석 앞에는 중간석 · 상석 · 장대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는데, 망주석은 높이 184㎝로 8각형의 복연을 새긴 비좌를 받침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단에는 꽃무늬를 새겨 넣어 크고 장대한 느낌을 준다. 망주석 앞 좌우에 礎頭의 높이 178㎝인 문인석은 조각이 우수하고 균형미가 있다. 본래 묘역에는 사각 받침대에 팔작지붕을 이중으로 한 장명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16. 李宜振 墓



사진316 이의진 묘

□소재지 : 이패동 산10-9(지도44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의진(생몰년 미상)은 조선후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龍仁이다. 參奉 世應의 아들이며, 영조 때의 揚武功臣인 判敦寧府事 仁平君 普爀의 父이고 영의정 在浹의 고조부이다. 영의정 李宜顯과는 종형제간이다. 母는 尹衡志의 딸이다. 일찍이 진사가 되었고, 殷山縣監을 지냈다. 1726년(영조 4) 아들 보혁이 공신이 되자 그도 사후에 仁原君 의정부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묘는 김수항 묘에서 북쪽으로 200m 거리에 인접하고 있다. 정경부인 파평윤씨 및 남양홍씨의 묘를 에워싸고 있는 큰 활개내에 3기의 묘가 "∴" 모습으로 南西向하고 있는데, 이 중 가운데의 묘가 이의진의 묘이다. 원형의 봉분 앞에는 장대석을 놓고, 그 앞에 상석이 있는데 앞쪽에는 사방에 문고리모양이 양각된 두 개의 고석을 놓고 뒤에는 장대석에 걸쳤다. 그 앞에 사각 향로석과 좌우로는 8각받침대위에 민무늬로 된 높이 172㎝의 망주석이 있다. 봉분 우측에는 민무늬의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춘 묘표가 묘를 바라보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4열로 "朝鮮 贈純忠補祚功臣左贊成仁原君行甑山縣

令李公宜振之墓 贈貞敬夫人坡平尹氏祔左 貞敬夫人南陽洪氏祔右"라 써 있다. 비문은 종제인 이의현이 썼는데 앞의 것은 蘇軾(한호라고도 함)의 것을, 뒤의 명문은 柳權의 글을 집자한 것이다. 비좌 · 비신에 비해 유난히 큰 옥개석이 특이하며 돌이끼가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48㎝ · 너비 119.5㎝ · 두께 87㎝, 비신 높이 134㎝ · 너비 57㎝ · 두께 32㎝, 옥개석 높이 52㎝ · 너비 116㎝ · 두께 88㎝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사진317 이의현 묘

317. 李宜顯 墓 및 墓碣



지도317 이의현 묘 위치도(성동 058)

□소재지 : 이패동 산28-9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이의현(1669~1745)은 조선 후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龍仁, 자는 德哉, 호는 陶谷으로 좌의정 世白의 아들이다. 母는 鄭昌徵의 딸이다. 農巖 金昌協의 문인으로, 대제학 宋相琦에 의하여 당대 명문장가로 천거되었다. 1694년(숙종 20)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다. 1720년 경종 즉위시 冬至正使로 차정되어 淸에 다녀온 뒤 형조판서에 올랐다. 그는 박식하고 기억력이 비상하여 『숙종실록』의 편찬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조판서를 거쳐 예조판서에 재임하던 중 1721년 王世弟(뒤의 영조)의 대리청정 문제로 소론 金一鏡 등의 공격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났다. 뒤이어 睦虎龍의 고변으로 辛壬士禍가 일어나 많은 노론 관료들이 처벌되자, 그 역시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여 노론이 득세하게 되자 유배에서 풀려 돌아왔고, 1725년(영조 1) 형조판서로 서용되었다가, 이조판서에 전임되어 守禦使를 겸하였다.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면서 명사들을 조정에 끌어들이는 데 힘썼다. 判義禁府事에 임명되어 柳鳳輝 등 소론에 대한 治罪를 맡기도 하였다. 1727년(영조 3)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며, 이 해에 노론의 지나친 강경책에 염증을 느낀 영조에 의하여 정권이 소론에게로 넘어가는 정미환국이 있자 그도 파직되어 양주로 낙향하였다. 이듬해 李麟佐 등에 의하여 戊申亂이 발생하자, 판중추부사로 기용되어 반란 관련자에 대한 치죄를 담당하였다. 이어 『경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732년 謝恩正使로 淸에 다녀왔다. 1735년(영조 11) 특명으로 영의정에 임명되어 왕으로부터 金昌集 · 李頤命 두 대신의 伸寃을 요구하는 노

론의 완강한 주장을 누그러뜨리도록 부탁받았다. 그러나 신원할 수 없다는 왕의 半夜下敎(밤중에 내리는 교서)에 사직을 청하였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 파직되었다. 우의정 金興慶의 구원으로 곧 판중추부사에 서용되어 양주에 머물면서 국가의 크고 작은 정사의 자문에 응하였다. 1739년 영중추부사에 제수되고, 1742년 致仕하여 奉朝賀가 되었다. 그는 신임사화 때나 정미환국 등의 비상시에 처하여 홀로 淸議를 지켜 의론을 굽히지 않았다. 영조 초 이조판서로 재직하면서 사사로운 보복에 급급했던 閔鎭遠 · 趙觀彬 등의 전횡을 견제하고 청론을 심고자 노력하여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청빈 검소를 스스로 실천하여 청백리로 이름이 났다. 글씨에도 탁월하여 「金陽尉朴瀰碑」 · 「忠正公洪翼漢碣」 등의 비문이 남아 있다. 저서로는 『陶谷集』 32권이 있다. 시호는 文簡이다.

묘는 중앙선 철도와 인접한 이패동 석포마을 입구 은행나무 식당 뒷편의 나지막한 구릉에 東向하여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활개를 갖추고 있는 원형의 봉분은 증정경부인 함종어씨와 은진송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 4면에 열쇠고리 모양이 조각되어 2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는 상석 · 장대석 · 직사각향로석 · 8각 받침대에 석주형태인 높이 186㎝인 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 중 백색대리석의 상석은 높이 60㎝ · 너비 189㎝ · 124㎝로 무척 두터운 편이다.

墓碣은 봉분 좌측에 위치하여 南向한 채 묘를 바라보고 있다. 민무늬 백색화강암의 비좌와 순백색의 대리석 비신 및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 있으며 前面에 큰 글씨로 3열에 걸쳐 "領議政奉朝賀文簡李公宜顯墓 贈貞敬夫人咸從魚氏祔上右 贈貞敬夫人恩津宋氏祔下左"라 써 있다. 비제는 묘갈 후면에 쓰여 있는데,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致仕奉朝賀陶谷李公自銘"이라 하고 있다. 비문은 金致萬이 짓고 썼으며, 전면의 글씨는 韓濩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다. 비의 건립연대는 1746년(영조 22)이다. 옥개석은 면이 '一' 자이며 끝을 약간 치켜 세워 놓았다. 크기는 비좌 높이 36㎝ · 너비 120㎝ · 두께 76㎝, 비신 높이 173㎝ · 너비 65㎝ · 두께 21㎝, 옥개석 높이 42㎝ · 너비 120㎝ · 두께 76㎝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318. 三旌閣



사진318-1 삼정각



사진318-2 삼정각 현판

□소재지 : 이패동 342-1(지도31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충효비
□내 용

삼정각은 朴榮臣(1578~1624)을 모신 旌門으로 이패동 마산마을내에 東向하여 있다.

박영신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자는 仁輔, 본관은 密陽, 병조참판 宗南의 아들이다. 1605년(선조 38)에 무과에 급제하여 宣傳官을 거쳐 熊川縣監이 되고 1614(광해군 6)에 영창대군을 죽이려는 것을 반대하다가 珍島에 유배되었다.[32] 1623년 인조반정때 五衛將이 되고 慶原府使를 거쳐 豊川府使가 되었다. 이듬해 李适의 난 때 그들에게 끝까지 협력하지 않다가 희생당하였다. 이후 박영신을 포상하고 증직하였다.[33] 효종 4년에 정문하고[34] 숙종 43년에 증직으로 병조참판에 추증되고 忠壯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다.[35] 金川의 愍忠祠에 제향되었다.

박지병은 박영신의 아들로 이괄의 난 때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하여 李文雄 등 5인이 함께 李守白의 머리를 베어 받쳤다. 이수백은 이괄의 난 때 박영신이 싸움에서 전사하자 머리를 베어 이괄에게 받치고 공을 요구하며 박영신의 머리를 상대편에 보내어 사기를 잃게 하자는 계책을 낸 사람이었다. 이후 투항하여 용서받았다. 11년 후인 1634년(인조 12)에 길에서 이수백을 만나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고, 그 죄를 용서를 빌자 나라에서는 충신의 아들이지만 죄를 용서한 사람을 죽인 벌은 받아야만 법이 바로 선다고하여 박지병을 昌平에 유배보냈다.[36] 순조 3년 박영신의 처 이씨와 아들인 之垣, 之藩을 정려하게 하였다. 즉 처 이씨는 박영신이 죽자 걸어서 난리속에 나가 시신을 헤쳐 보고서 떠메고 돌아왔는데,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을 통분스럽게 여겨 합장을 하지 말도록 경계하자, 두 아들이 10년 동안 원수를 찾다가 마침내 원수를 죽이고 머리를 베어 궐문에 나아가 伏法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37]

박영신 정문은 정자각의 "三旌閣"이라는 현판은 새로 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새로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형태로 防風板을 갖추고 있다. 정려각 안에는 붉은 현판에 흰 글씨로 정여내용이 있는데, 중간에는 "忠臣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使諡忠壯公行通勳大夫豊川都護府事朴榮臣之門 崇禎紀元後三癸亥上之年 十二月 日 命旌"이라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1803년(순조 3)에 정문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박영신 충신정문 우측에는 부인인 광주이씨의 정문이 있다. "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僉知義禁府使諡忠壯公行通勳大夫豊川都護府事朴榮臣妻贈貞夫人廣州李氏之門 崇禎紀元後三癸亥上之年 十二月 日 命旌"이라 하였다. 좌측에는 아들인 박지병의 효자정문이 있다. "孝子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朴之屛之門 崇禎紀元後三癸亥上之年 十二月 日 命旌"이라 써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19. 南楊州 二牌洞 遺物散布地

□소재지 : 이패동 산10-2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1) 위치와 현황

이패동 홍릉천 서편의 해발 60m 내외의 야트막한

32) 『광해군일기』 권75, 광해군 6년 2월 기유.
33)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4월 계축.
34) 『효종실록』 권10, 효종 4년 1월 기축.
35) 『숙종실록』 권60, 숙종 43년 8월 경자.
36) 『인조실록』 권29, 인조 12년 3월 기해.
37) 『순조실록』 권5, 순조 3년 12월 기묘.



지도319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위치도(성동 068)



사진319-1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원경



사진319-2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근경

구릉 남사면상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능선 정상부에는 송전탑이 서 있고 이 송전탑 동편의 야산 사면에 새로 조성된 2기의 민묘가 있다. 이 일대에서 1점의 마제석착과 조선시대 토기편 등을 채집하였다. 석기의 존재로 보아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부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어떤 유적인지는 현재상태로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채집유물

① 마제석착(사진319-3-1, 도면319-1)

천매암제 암석을 전면 마연하여 성형한 소형의 석착이다. 날은 조갯날을 이루고 있고 단면 형태는 타원형이다. 등면과 배면, 인부는 매우 매끈하게 마연되어 광택이 난다. 길이 7.3㎝, 폭 2.3㎝, 두께 1.6㎝이다.

② 회색연질토기 구연편(사진319-3-2, 도면319-2)

기형 불명의 회색연질토기 구연편이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고 구연부는 동체에서 급하게 외반하고 있다.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석립이 섞여 있다. 구경의 측정은 불가능하다. 기벽두께 0.4㎝이다.

③ 황갈색 연질토기 저부편(사319-3-3, 도면319-3)

기형 불명의 황갈색 연질토기 저부편이다. 소성이 불량하여 내면의 박리가 심하다. 태토는 점토에 세석립을 다량 섞어 썼다. 단면 역삼각형의 낮은 굽을 가지고 있다. 추정저경 10㎝, 기벽두께 0.5㎝, 바닥두께 0.4㎝, 굽높이 1.0㎝이다.

④ 회색연질토기 저부편(사진319-3-4, 도면319-4)

기형 불명의 회색연질토기 저부편이다. 내외면은 잘 정면되어 매끈하며 바닥은 편평하다. 태토는 점토에 세석립을 약간 섞어 썼다. 추정저경 15.8㎝, 기벽두께 0.8㎝, 바닥두께 0.6㎝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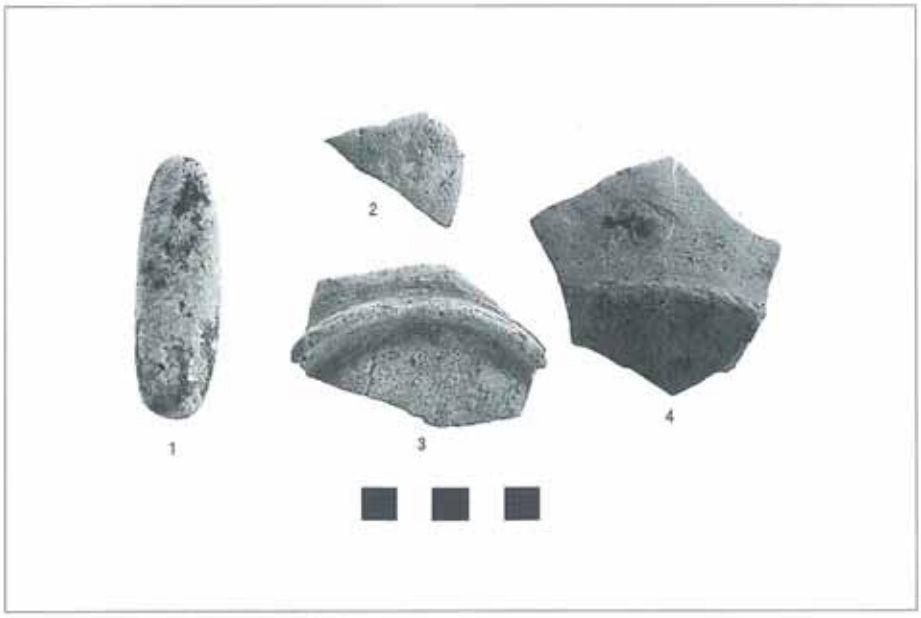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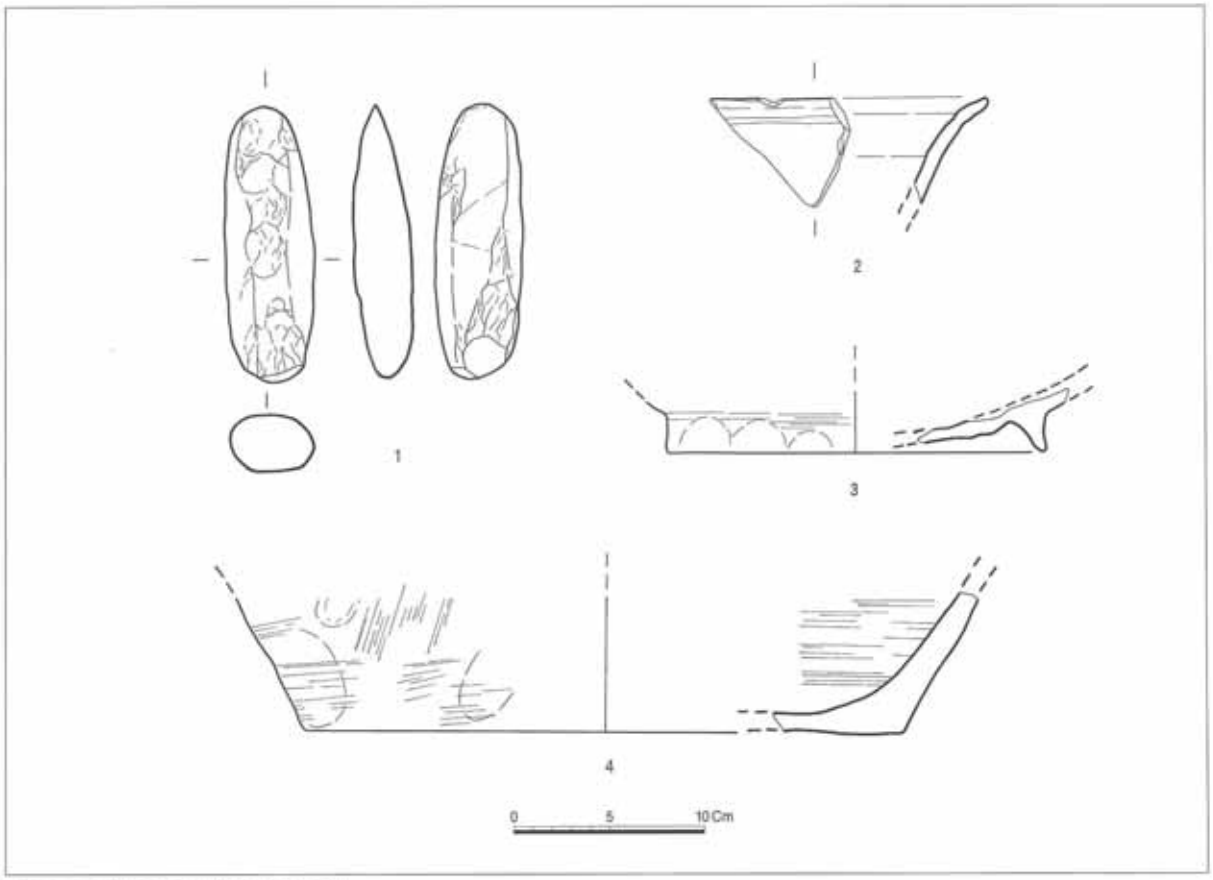


사진319-3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도면319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320. 南楊州 二牌洞 은행나무



사진320 남양주 이패동 은행나무

□소재지 : 이패동 375-5(지도31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주간의 높이 1.5m 부위에서부터 측지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부채형으로 잎과 가지가 발달한 이 은행나무는 암나무로 한해 평균 4~5말 정도의 열매가 열리나 해가 갈수록 수확량과 굵기가 작아지고 있다고 한다.

수세가 약해지면서 일부 가지가 마르고 있지만 위로 곧게 뻗은 줄기는 강건한 기상을 품고 있다.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서있는 비슷한 크기의 은행나무와 서로 끝가지가 연결되어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 이 나무를 만나려면 86번 지방도를 타고 사능에서 덕소방향으로 진행하다 이패동 석포부락으로 들어와 말미마을을 찾으면 된다.

수령 210년, 수고 20m, 흉고둘레 2.2m, 수관폭 10m.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남양주-8(1982. 10. 15)

321. 金堉 墓 및 神道碑



지도321 김육 묘 위치도(성동 068)



사진321-1 김육 묘

□소재지 : 삼패동 산42-2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육(1580~1658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실학자로서 제도개혁을 추진한 정치가이기도 하다. 자는 伯厚이며 호는 潛谷, 初號는 晦靜堂, 본관은 淸風, 참봉 興宇의 아들이다. 1605년(선조 38) 사마시, 1624년(인조 2)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49년 효종 즉위 후 대사헌 · 우의정이 되었다. 이



사진321-2 김육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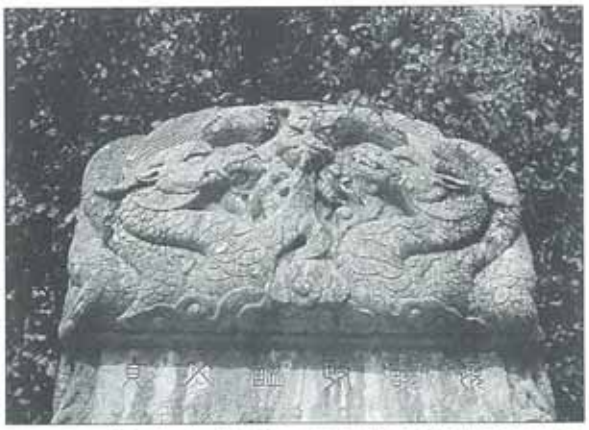


사진321-3 김육 신도비 이수(雙龍이 서로 앞 발을 치켜들어 여의주를 잡고 있다)



사진321-4 김육 신도비 비좌(雙虎가 서로 마주보면서 땅에 엎드려 웅크리고 비신을 떠 받들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듬해 실록청 총재관이 되어 『인조실록』을 편찬했고 領敦寧府事를 거쳐 1655년(효종 6) 영의정이 되었다. 그는 경제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지녀 충청도관찰사 재직시 大同法 실시를 주장하여 1651년(효종 2)에 충청도, 1657년에는 전라도 연안지방에 이를 실시케 하였다. 또한 時憲歷의 시행, 灌漑에 水車 활용, 常平通寶의 주조와 유통, 서적의 간행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시호는 文貞이다.

묘는 삼패동 소쿠리마을의 나지막한 구릉에 東南向하여 있으며 貞敬夫人 파평 윤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 분묘는 1988년 주위에 曲墻을 둘렀다. 묘 앞의 묘비는 백색화강암 비좌 상부에 복련 및 사방에 안상문을 조각하였으며, 백색대리석 비신은 월두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다. 前面에 4열로 "朝鮮國領議政文貞公金堉之墓(大字) 勤學好問曰文(小字) 貞敬夫人坡平尹氏祔左(大字) 淸白守節曰貞(小字)"라 써 있다. 건립연대는 "崇禎後己亥九月"의 연기로 보아 1658년(효종 10)에 건립된 것이다. 규모는 비좌 높이 38㎝ · 너비 108㎝ · 두께 70㎝, 비신 높이 144㎝ · 너비(上) 60㎝, 너비(下) 54㎝ · 두께 22㎝이다. 묘비 앞에는 화강암 재질의 혼유석과 고석에 문고리무늬를 양각한 상석 및 육각형의 화려한 문양을 새긴 향로석 · 장대석 · 망주석 · 문인석이 있는데 망주석은 꽃을 장식하여 화려하며, 문인석도 수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神道碑는 소쿠리마을 도로변에 東南向하여 아들 김좌명의 신도비와 8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다. 총 높이 385㎝의 거대한 비로 비좌와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상부에 전후 7엽, 좌우 2엽 총 18엽의 복련 및 전후면을 2등분하여 안상문 대신 두 虎가 서로 마주보면서 땅에 엎드려 웅크리고 비신을 떠 받들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비신은 前後 2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 상단에 篆書로 "領議政諡文貞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마모되어 전체확인이 곤란하다. 비문은 영의정 李景奭이 글을 짓고, 아들 병조판서 金佐明이 글씨을 썼다. 건립연대는 말미에 "崇禎紀元戊辰之後三十七年甲辰"의 연기로 보아 1664

년(현종 5)에 건립된 것이다. 前面 상단에 직경 8㎝의 큰 탄흔 1개소와 橫으로 2~3줄의 결이 엇비슷하게 나 있다. 이수는 전후 2면에 두 龍이 서로 앞 발을 치켜들어 여의주를 잡고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 · 뿔 · 턱수염 등의 표현이 사실적이다. 좌측의 용은 입을 벌리고 있으나, 우측의 용은 입을 다물고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80㎝ · 너비 191㎝ · 두께 118㎝, 비신 높이 219㎝ · 너비 106㎝ · 두께 36㎝, 이수 높이 86㎝ · 너비 130㎝ · 두께 56㎝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향토유적 제2호

□참고문헌

京畿道, 『鄕土遺蹟總攬-市 · 郡指定篇』, 1987.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 향토문화총서3, 1997.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322. 金湜 墓 및 神道碑



사진322-1 김식 묘

□소재지 : 삼패동 산29-1(지도3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사진322-2 김식 신도비(파도문의 비신이 극히 아름답다)



사진322-3 김식 신도비 이수

□내　용

김식(1482~1520)은 조선 중기 중종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淸風, 자는 老泉, 호는 沙西 · 淨友堂 · 東泉이다. 贈職으로 領議政에 올랐다. 생원 叔弼의 아들로 일찍 父를 여의고 학문에 전념하여 1501년(연산군 7) 진사가 되고 중종대 學行으로 천거되어 趙光祖 등과 왕도정치 구현에 노력하였다. 중종반정때 공신록에 오른 훈구파 76인에 대한 勳爵의 삭제를 요구하다 己卯士禍로 큰 화를 입고 선산으로 유배된 후 다시 奧地로 유배된다는 말을 듣고 거창으로 도피하다가 「君臣千歲義」라는 시를 짓고 자결하였다. 조광조 · 김정 · 기

준 · 박세희 등과 己卯八賢의 일인으로 일컬어지며 遂源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묘는 삼괘동 소쿠리마을의 중앙선 철도와 인접한 나지막한 산기슭에 南西向하여 아래로 漢江을 굽어보고 있다. 정경부인 전주이씨와의 원형쌍분이며, 용미를 갖추고 흙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웅장하게 만든 활개내에 안치되어 있다. 봉분 중앙에는 비좌와 비신 월두형의 묘비가 있는데 비신은 4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有明朝鮮國大司成 贈左贊成諡文毅金公湜之墓 贈貞敬夫人全州李氏祔左"라 써 있다. 비문은 김좌명이 찬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659년(효종 10) 9월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33㎝ · 너비 92㎝ · 두께 62㎝, 비신 높이 129㎝ · 너비 54㎝ · 두께 23.5㎝이다. 상석은 중앙의 것이 본래의 것이나 마모가 심하며, 좌우에 장대석을 받침대로 부인 묘와 김식 묘 앞에 다시 상석과 향로석을 놓았다. 좌우에 있는 망주석은 앙화로 장식되어 있고, 문인석은 관이 둥근 형태이다.

廟庭碑는 묘역 우측 약 50m 지점에 北向하여 1993년 건립한 文毅公派宗中系譜圖表와 함께 3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 비는 본래 선생이 경상도 선산으로 유배되었을 때 후학들이 따라가 학문을 수련하며 그곳에 세웠던 것이다. 이후 땅속에 묻혔던 것을 근래 후손들이 발굴해 이곳에 옮겨 세웠는데 마모가 심하다. 비는 총높이 227㎝로 화강암의 비좌는 새로 만들었으며, 백색대리석의 비신과 팔작지붕 형태의 투박한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은 前面에만 비문이 있으며, 前面상단에 篆書로 "文毅公金先生廟庭碑"라 횡서했다. 비문은 자헌대부 禮曹判書 兼弘文館大提學 黃景源이 찬하고, 통훈대부 行沔川郡守 李運永이 글을 쓰고, 9대손 金峙默이 전을 하였다.

규모는 비신 높이 162㎝ · 너비 73㎝ · 두께 19㎝, 옥개석 높이 54㎝ · 너비 120㎝ · 두께 75㎝이다

神道碑는 묘역 입구에 東南向하여 비좌와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총 높이 367㎝의 거대한 비로 가로 214㎝, 세로 154㎝의 기단석에 비좌를 올려 놓았다. 비좌는 전후 7엽, 좌우 2엽 총 18엽의 복련과 각 면에 안상문 2개씩을 조각하였다. 비신은 前後2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後 상단에 篆書로 "己卯名賢大司成金先生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冬至經筵春秋館成均館事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兼經筵參贊官金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비문은 숭정대부 판중추부사 원임대제학 趙絅이 찬하고, 가의대부 예조참판 金佐明이 서와 전을 하였다. 건립연대는 1662년(현종 3)이다. 김좌명은 김육의 아들이고, 신익성의 사위이다. 송설체에 뛰어나 연미한 가운데 내재된 힘이 느껴진다. 파임의 곡선미를 살려 부드럽고 넉넉함이 느껴진다. 전자의 획은 무겁게 시작하여 무겁게 끝을 맺었고, 좌우대칭에 삼각형 모양으로 벌려 안정감을 추구하였다. 이수는 前後면에 걸쳐 각각 발가락이 3개인 두 용이 구름무늬 속에서 서로 앞발을 들어 여의주를 올려놓고 바라보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뿔, 턱수염, 비늘, 날카로운 어금니 등의 표현이 우수하다. 前面은 두 용이 입을 다물고 있으나, 後面은 좌측의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반면, 우측의 용은 입을 다물고 있어 조각상의 차이가 있다. 이 비는 己卯士禍에 연루되었던 士林들이 복위되면서 세워진 비로, 특히 비신은 파도문양의 청석대리석을 사용하여 매우 아름답다.

규모는 비좌 높이 85㎝ · 너비 165㎝ · 두께 105㎝, 비신 높이 194㎝ · 너비 96㎝ · 두께 37㎝, 이수 높이 88㎝ · 너비 124㎝ · 두께 58㎝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323. 金佐明 墓 및 神道碑



사진323-1 김좌명 묘



사진323-2 김좌명 신도비



사진323-3 김좌명 신도비 비좌(전후 2면에 猛虎 1쌍씩을 조각하였다)

□소재지 : 삼패동 산42-2(지도3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좌명(1616~1671)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淸風, 자는 一正, 호는 歸溪 · 歸川, 시호는 忠肅이다. 영의정 堉의 아들이자 현종의 비 明聖王后의 백부이다. 1633년(인조 11) 사마시, 164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병조좌랑,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이후 영의정에 추증 및 淸陵府院君에 추봉되었다. 1668년 병조판서 때 군률을 바로 잡고, 호조판서 때는 국비를 크게 덜어 재정을 원활하게 하였다. 붕당이 한참 일어났을 때에도 별로 휘말리지 않아 명망을 얻었으며, 글씨에 능하여 도연명체를 본받아 필법에 있어 힘찼다. 저서로는 『歸溪遺稿』가 있으며, 현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묘는 삼패동 소쿠리마을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南向하여 父인 김육의 묘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부인 평산신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민무늬 백색대리석의 비좌에 백색대리석의 비신 월두형인 묘비가 있다.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2열로 "貞夫人贈貞敬夫人平山申氏祔左 朝鮮國兵曹判書忠肅金公佐明之墓"라 썼으며 비문은 김만주가 찬하였다. 크기는 비좌 높이 38㎝ · 너비 110㎝ · 두께 70㎝, 비신 높이 136㎝ · 너비(上) 58㎝ · 너비(下) 53㎝ · 두께 24㎝이다. 그 앞에 중간석 · 상석 · 6각향로석 · 장대석이 있으며, 좌우로 꽃무늬를 장식한 망주석과 높이 170㎝의 작고 통통한 형태의 문인석이 있다. 전체적으로 김좌명 묘역의 석물은 백색을 띄는 화강암에 무늬를 장식하지는 않았지만 화려하게 보인다.

神道碑는 소쿠리마을의 도로변에 東南向하여 父인 김육 신도비와 나란히 서 있는데,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총 높이 389㎝로 백색화강암의 비좌에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전후 2면에 猛虎 1쌍씩을 조각하였는데, 前面의 맹호는 웅크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後面의 맹호는 좌측이 정면을 바라보는 반면 우

측은 좌측의 맹호를 바라보고 있어 조각상의 차이가 있다. 비신은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前後 2면에 걸쳐 "兵曹判書贈領議政忠肅金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贈純忠積德兼義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淸陵府院君行輔國崇祿大夫知中樞府使兼兵曹判書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贈謚忠肅金公神道碑銘 并序"이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謚法 危身奉上曰忠 執心決○曰肅"이라 하였다. 비문은 資德大夫 議政府 右參贊 朴世堂이 짓고, 外孫 通德郎 趙正緖가 쓰고, 嘉善大夫 漢城府 右尹 金壽增이 전액을 썼으며, 건립시기는 1698년(숙종 25)이다. 이수는 전후면에 걸쳐 각각 두 마리 용을 양각하였는데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은 김육 신도비의 이수와 비슷하지만 머리를 거의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다. 前面의 두 용은 입을 벌리고 있는 반면, 後面의 두 용은 입을 다물고 있어 차이가 있다. 비는 마치 근래 세운 것같이 보존상태가 좋아 전체 순백색을 띠고 있다.

규모는 비좌 높이 83cm · 너비 186cm · 두께 111cm, 비신 높이 236cm · 너비 104cm · 두께 34cm, 이수 높이 70cm · 너비 128cm · 두께 58cm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사진324-1 김성응 묘



사진324-2 김성응 신도비

324. 金聖應 墓 및 神道碑

□소재지 : 삼패동 산41-1(지도3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성응(1699~1764)은 조선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淸風 자는 君瑞, 시호는 孝靖이다. 증조부는 청풍부원군 佑明이며, 父는 진사 道泳이다. 1728년(영조 4) 李麟佐의 난 이후 어영대장 張鵬翼의 천거로 司僕寺內乘으로 기용되어 선전관 등을 거쳐 고부군수를 역임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1735년 평안도 병마절도사 · 총융사 · 어영대장, 이듬해 훈련대장, 1737년 병조판서 · 형조판서, 이듬해 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740년 다시 병조판서가 된 뒤 1743년 판윤, 1748년 좌포도대장, 1757년 판의금부사를 지냈으며, 20여 년간 병조판서와 훈련대장을 번갈아가면서 역임하여 군사책임자로서 軍政을 일신하고 城을 수축하는 등 국방 강화에 노력하였다.

묘는 삼패동 소쿠리마을 왼쪽의 나지막한 산능선에

중앙선 철도와 인접하여 東向하고 있다. 신설도로 공사로 인해 父 도영의 묘와는 단절된 채 마주보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貞敬夫人 南陽洪氏와의 합장묘이며, 최근 화강암 기단과 토담에 한옥기와를 올려 새로 만들어 정비한 곡장내에 있다. 봉분 앞의 묘비는 민무늬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는데, 비신에는 4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에 3열로 "有明朝鮮國行兵曹判書孝靖金公諱聖應之墓 貞敬夫人南陽洪氏祔左"라 써 있다. 이수는 발가락이 4개인 두 용이 운문속에 입을 벌리고 여의주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작지만 섬세하게 표현하여 놓았다. 규모는 비좌 높이 45㎝ · 너비 108㎝ · 두께 79㎝, 비신 높이 128㎝ · 너비 60㎝ · 두께 32㎝, 이수 높이 42㎝ · 너비 74㎝ · 두께 44㎝이다.

묘비 앞에는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대석 등의 석물이 있는데, 상석의 고석에는 흔히 문고리모양이나 귀면 대신 다람쥐 무늬가 前面에 1개씩 양각되어 있다. 향로석 좌우에는 민무늬 망주석과 그 앞에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측의 것은 파괴되어 하단부만 남아 있으며, 좌측의 문인석은 해맑은 모습에 입을 벌려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神道碑는 묘역 입구 하단에 거의 중앙선 철도와 인접하여 東南向하고 있다. 화강암의 민무늬 비좌와 烏石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상부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전체적인 규모 파악이 곤란하다. 비신은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상단에 篆書로 前後 2면에 걸쳐 "兵曹判書謚孝靖金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崇祿大夫行兵曹判書兼判義禁府事贈謚孝靖公神道碑名 并序"이며, 그 옆에 "謚法 慈惠愛親曰孝 寬樂令終曰靖"이라 써 있고 비문은 通政大夫 工曹參議 兼 成均館 祭酒 金元行이 짓고, 男 崇政大夫 判敦寧府司兼 五衛都摠府 都摠官 金持默이 쓰고 전하였다.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3丙辰의 연기로 보아 1784년(정조 8)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비문을 뚜렷이 알아 볼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비신 前面 중앙에 직경 6㎝의 탄흔 1개소가 있다. 옥개석은 망와의 표현이 있으며, 두툼한 비신과 육중한 옥개석이 안정감이 있다.

비좌를 제외한 비신과 옥개석의 규모는 비신 높이 207㎝ · 너비 88.5㎝ · 두께 45㎝, 옥개석 높이 87㎝ · 너비 144㎝ · 두께 105㎝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25. 金權 墓



사진325 김권 묘

□소재지 : 삼패동 산29-1(지도3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권(1549~1622)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淸風이며, 자는 而中, 호는 拙灘이다. 父는 참봉 德懋이며, 母는 파평 윤씨로 麟의 딸이다. 1580년(선조 13)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獻納으로 재임중에 李珥를 비난하는 鄭汝立을 논박하다가 파직당하였다. 1590년 持平으로 복직되었으나 그 이듬해 鄭澈 등이 축출당할 때 다시 파면당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문학 · 교리 · 지평 · 사간 등을 역임하고, 난이 끝난 뒤 舍人 · 修撰 · 直講 · 연안부사 · 사복시첨정 등을 거쳐 호조참판이 되었다. 1612년(광해군 4) 임진왜란 때 전

주로 광해군을 호종한 공으로 淸風君에 봉해졌다. 1615년 謝恩使로 明에 다녀온 뒤 정치가 문란하므로 사직하였다. 1617년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강계로 유배되었다가 무안으로 이배되어 5년 뒤 그곳에서 사망했다. 인조 때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청풍의 鳳岡書院과 무안의 松林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忠簡이다.

묘는 한강을 바라보는 중앙선 철도변에 인접하여 父 김덕무 묘역 우측 나지막한 능선에 경경부인 한산 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복연을 조각하고 사방에 안상문을 조각한 비좌와 비신 월두형의 묘비가 있다. 묘비는 前面에 "贈領議政諡忠簡 行戶曹參判金公權之墓 贈貞敬夫人韓山李氏祔"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높이 40㎝ · 너비 88㎝ · 두께 60㎝, 비신높이 126㎝ · 너비 52㎝ · 두께 24㎝이다. 그 앞에는 마모된 상석이 있으며, 계체석과 향로석은 없다. 상석 앞으로는 양화를 조각한 망주석과 문인석이 각각 한쌍씩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326. 金允植 墓



사진326 김윤식 묘

□소재지 : 삼패동 산41-1(지도3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윤식(1835~1922)은 한말의 관료 · 문장가로 자는 洵卿, 호는 雲養이며, 서울출신이다. 증이조판서 · 좌찬성 益泰의 아들이며, 母는 전주 이씨이다. 숙부인 淸恩君 益鼎의 집이 있는 楊根에서 성장하였으며, 俞莘煥 · 朴珪壽의 문인이다. 1865년(고종 2) 蔭官으로 출사하여 健寢郎이 되었고, 1874년 문과에 급제하여 황해도암행어사 · 문학 · 시강원 겸 사서 · 부응교 · 부교리 · 승지 등을 역임하였으며, 1880년 순천부사에 임명되었다. 정부의 개항정책에 따라 領選使로 학도와 工匠 38명을 인솔하고 중국으로 가서 그들을 機器局에 배속시키는 한편, 연미사를 위하여 北洋大臣 李鴻章과 7차에 걸친 회담을 하고, 그 결과 朝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統理內務衙門의 설치에 따라 協辦統理內務衙門事務로 임명되었고, 그 뒤 이 아문의 개칭에 따라 協辦軍國事務로 임명되었다. 갑오경장 입안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한편, 일본에 의하여 국권이 잠식당하는 굴욕적인 모든 조약이나 조처에 순응하였다. 1896년 (건양 1) 2월(이하 양력임) 아관파천 사건이 야기되자 외무대신직에서 면직되었고, 을미사변과 관련되어 탄핵받아 濟州牧으로 종신정배 되었다. 1898년 1월 제주목에 유배되었으나 그 뒤 民黨과 천주교인의 대립에서 시작한 民擾가 일어나자 1901년 6월 다시 智島로 이배되었다. 1907년 7월 一進會의 간청과 정부의 70세 이상자에 대한 석방조처에 따라 10년 만에 해금되어 서울에 돌아왔다. 서울에 돌아온 뒤 皇室制度局總裁 · 帝室會計監査院卿 · 中樞院議長 등을 맡아보았다. 1908년 정부로부터 勳一等太極章을 받았다. 한편, 갑신정변과 을미사변에 관련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講舊會를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고, 이 회가 주최가 되어 愛國死士追悼會를 가지는 등 정치활동도 하였다.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국권회복활동이 활발해지자 畿湖學會 회장, 興士團長, 敎育俱樂部 부장, 大

同敎總會 총장으로 활약하였다. 1910년 8월 창덕궁에서 합방에 관하여 순종의 물음이 있었을 때 홀로 합방의 옳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다. 일제의 한반도강점 후에 일제가 베풀어주는 중추원부의장의 취임과 受爵·恩金을 사퇴하였으나 후에 고종과 순종의 권유에 따라 수작하였다. 1916년에는 經學院大提學에 임명되었으나 두문불출하였고, 1919년 고종의 붕어시 位號議定에 있어서 일본측이 '前韓國'이라는 '前' 자를 고집하자 이에 항의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李容稙과 더불어 독립을 요구하는 「對日本長書」를 제출하여 저항한 바 있다. 저서로는 『운양집』을 비롯하여 『壬甲零稿』·『天津談草』·『陰晴史』·『續陰晴史』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운양집』은 시문집으로, 16권 8책이며 석인본이다.

묘는 김좌명 묘역 뒤쪽 왼편에 西向하여 정경부인 파평윤씨와의 합장묘이다. 묘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관계로 석물은 전체적으로 단출한 면이 있다. 원형의 봉분은 3단의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130㎝, 남북직경 480㎝이다. 봉분앞에는 혼유석·상석·향로석·계체석·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봉분 우측에는 민무늬 비좌에 대리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춘 墓表가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전면에 2열로 "雲養先生淸風金公允植之墓 贈貞敬夫人坡平尹氏祔左"라 써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13.5㎝·너비 81㎝·두께 48㎝, 비신 높이 112㎝·너비 40.5㎝·두께 21㎝, 옥개석 높이 30㎝·너비 72㎝·두께 52㎝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327. 金時默 墓



사진327-1 김시묵 묘



사진327-2 김시묵 묘 문인석

□소재지 : 삼패동 산29-1(지도321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김시묵(1722~1772)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淸風이며, 자는 而愼(爾愼)이다. 領敦寧府事 佑明의 현손이자, 병조판서 聖應의 아들이며, 정조의 비인 孝懿王后의 父이다. 1741년(영조 17) 21세에 진사가 되고, 1750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承文院에 보직되고 예문관검열·홍문관교리 등을 거쳐, 1757년(영조 33)에 통정대부에 승차하여 승지가 되고 대사간과

형조참의를 거쳐 양주목사를 지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1762년 경기도관찰사로 있을 때 딸이 世孫嬪이 되자 摠戎使에 발탁되었고, 이조 · 호조의 참판을 거쳐 한성부판윤 등을 지냈다. 1769년에는 병조판서로서 御營大將을 겸하였다. 그 뒤 공조 및 호조의 판서를 거쳐 판의금부사 · 선혜청당상 · 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 1776년(정조 즉위) 딸이 왕비로 진봉되면서 영의정 · 淸原府院君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靖翼이다.

묘는 김식 묘 가기 전 윗 산 능선에 위치하여 贈宜春府夫人 南氏 및 唐城府夫人洪氏와의 합장묘이다. 西北向하고 있는 원형의 봉분은 정면에 김육과 김좌명의 신도비를 바라보고 있다. 앞에는 혼유석 · 장대석 · 백색화강암의 상석 · 향로석과 8각 망주석 및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의 후기양식으로 머리부분이 1/4을 차지하고 있다. 눈은 뜨고 있으며 눈꼬리의 표현을 하였다. 두 손으로 홀을 잡아 턱에 대고 있는데, 손은 옷소매 속에 집어 넣어 안보인다. 우측으로 옷 고름 및 관복은 '八' 자형이나 끝을 말아올려 놓고 있다. 묘비는 봉분 우측에 위치하여 민무늬 비좌에 오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신의 비문은 4면에 있으며, 前面에 4열로 "有明朝鮮行左參贊贈領議政淸原府院君謚靖翼金公위時默之墓 贈宜春府夫人南氏祔右 唐城府夫人洪氏祔左"의 비문이 있다. 이수는 前後 2면에 걸쳐 발가락이 3개인 두 용이 좌측의 용은 위에서, 우측의 용은 아래에서 각각 입을 벌리고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큰 귀, 뿔, 턱수염, 비늘의 표현이 매우 우수하며, 건립연대는 1773년(영조 49)이다. 크기는 비좌 높이 6.5㎝ · 너비 109㎝ · 두께 83㎝, 비신 높이 143㎝ · 너비 56㎝ · 두께 30㎝, 이수 높이 47.5㎝ · 너비 67.5㎝ · 두께 72㎝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28. 驛村土城



지도328 역촌토성 위치도(성동 068)



사진328-1 역촌토성지 원경

□소재지 : 삼패동 37-2임

□시 대 : 미상

□종 류 : 성

□내 용

(1) 위치와 현황

역촌토성은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동의 역촌마을의 한강에 면한 해발 52.6m 구릉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한강 본류가 덕소 부근부터 거의 직각으로 굽이치며 흐르는 강가 언덕에 형성된 토성이다. 이 토성의 정면

에는 나루가 있었던 곳으로 나루터를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 같다. 이 토성은 나루 언덕의 자연 지세를 이용하며 한강을 한눈에 굽어 볼 수 있게 설치하였다.[38] 이 토성은 1994년에 서일전문대학에서 간행한 『경기동부지역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1)』에서 처음으로 조사보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서쪽 방향으로는 현재 목장이 있으며, 목장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설치한 진입로가 성벽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강을 면한 성벽, 즉 북쪽 성벽은 현재 남아 있는 높이로 볼 때 상당히 높게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서쪽 벽면과 동쪽 벽면은 경사면을 이루며 북쪽 면의 높은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북쪽 성벽이 이 토성의 장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토성벽 사면에서도 북동쪽면에는 수백 기의 크고 작은 고분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고분들은 대대적으로 도굴당했으며, 토성의 북쪽 벽면 아래에도 직경 6~7m정도의 대형 폐고분이 있으나 이 고분도 봉분의 상단부가 완전히 도굴되어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결과 현지 유구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여서 토성의 유무 및 구조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성이 있다고 하는 구릉 사면과 정상부에서는 현재 많은 양의 유물이 노출되어 있는데 대부분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치는 어골문이나 청해파문 와편과 자기편으로서, 이 구릉상에 고려시대 이후의 건물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2)채집유물

① 원판형 토제품(사진328-2-1, 도면328-1)

토기의 동체부를 이용하여 원판형으로 만든 것이다. 회흑색의 연질이며, 깨뜨려서 성형을 한 후 부분적으로 갈아서 둥글게 처리하였다. 직경은 4㎝이고, 두께는 0.5㎝이다.

② 회색토기편(사진328-2-2, 도면328-2)

호형토기의 동부편으로 추정되는데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표면은 손에 묻어날 정도로 연질이다. 안쪽에는 성형시에 횡방향의 깊은 굴곡이 형성되어 있다. 두께는 0.7㎝이다.

③ 백자병편(사진328-2-3, 도면328-3)

성형 및 시유상태가 매우 양호한 주병편이다. 경부쪽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의 푸른빛이 감도는 백색을 띠고 있으며, 유약은 빙열이 생성되지 않고 두텁게 시유되어 있다. 두께는 0.8㎝이다.

④ 백자접시(사진328-2-4, 도면328-4)

관요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성형 및 시유상태가 매우 양호한 백자접시이다. 약 1/2 정도가 결실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약간의 푸른빛이 감도는 흰빛을 띠고 있다. 내저원각이 넓고 약 35°의 경사를 이루며 벌어지다가 구단부는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굽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구경은 19㎝이고, 내저원각직경은 12㎝, 저경은 6.6㎝, 두께는 0.5㎝이다.

⑤ 어골문수키와(사진328-3, 도면328-5)

어골문 수키와로 와구부의 1/3 정도가 절단된 유단식기와이다. 언강은 약간의 경사를 이루며 미구로 연결되며 미구는 길이 3㎝ 정도인데, 즙와 과정에서 잘 맞지 않아서인지 미구부의 표면이 인위적으로 박락되어 있다. 등에는 종방향으로 폭6㎝ 정도의 장판고판에 의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며 문양이 겹치도록 타날하였다. 측면은 한쪽면만 와도를 안쪽에서 1/2 정도 그은후 잘라내어 다른 한쪽면은 안쪽면이 상당부분 박락된 상태이다. 안쪽에는 포흔히 희미하게 남아있다. 두께는 2㎝이고, 중간부분의 직경은 15.5㎝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 참고문헌

서일전문대학 강경향토문화연구소, 『경기동부지역의 문화유적 지표조사(1)』, 1994.

38) 윤종일 · 신복순, 『경기 동부지역의 문화유적 지표조사(1)』, 서일전문대학 강경향토문화연구소, 38~39쪽,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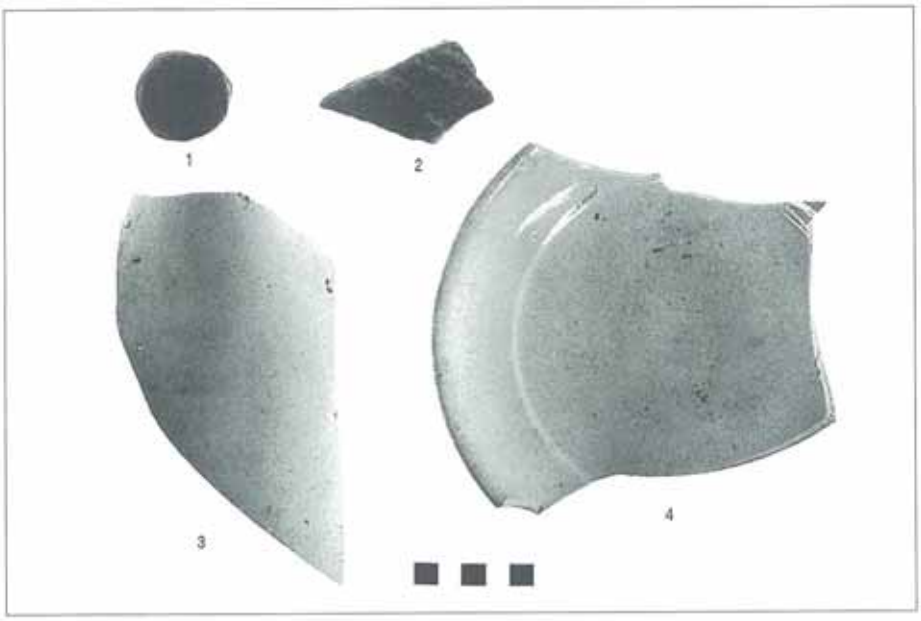


사진328-2 역촌토성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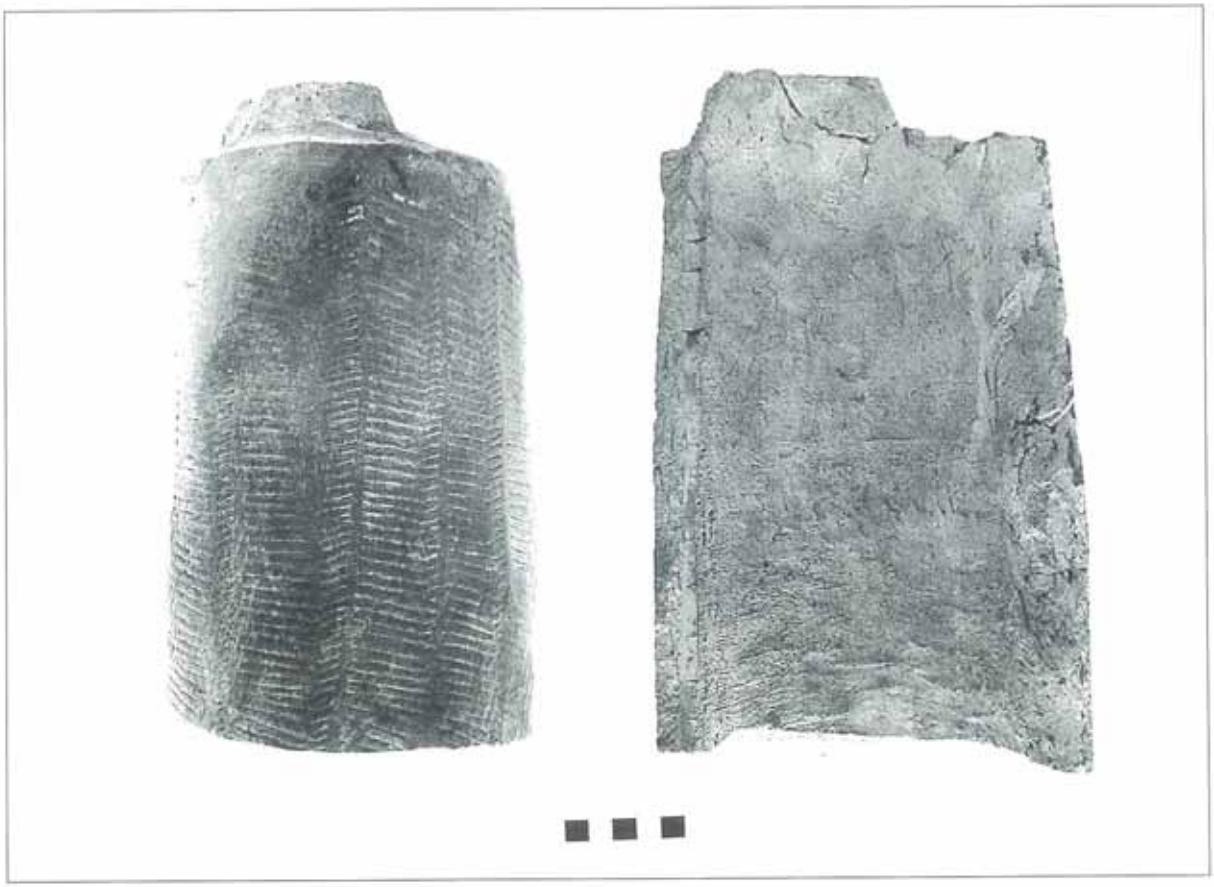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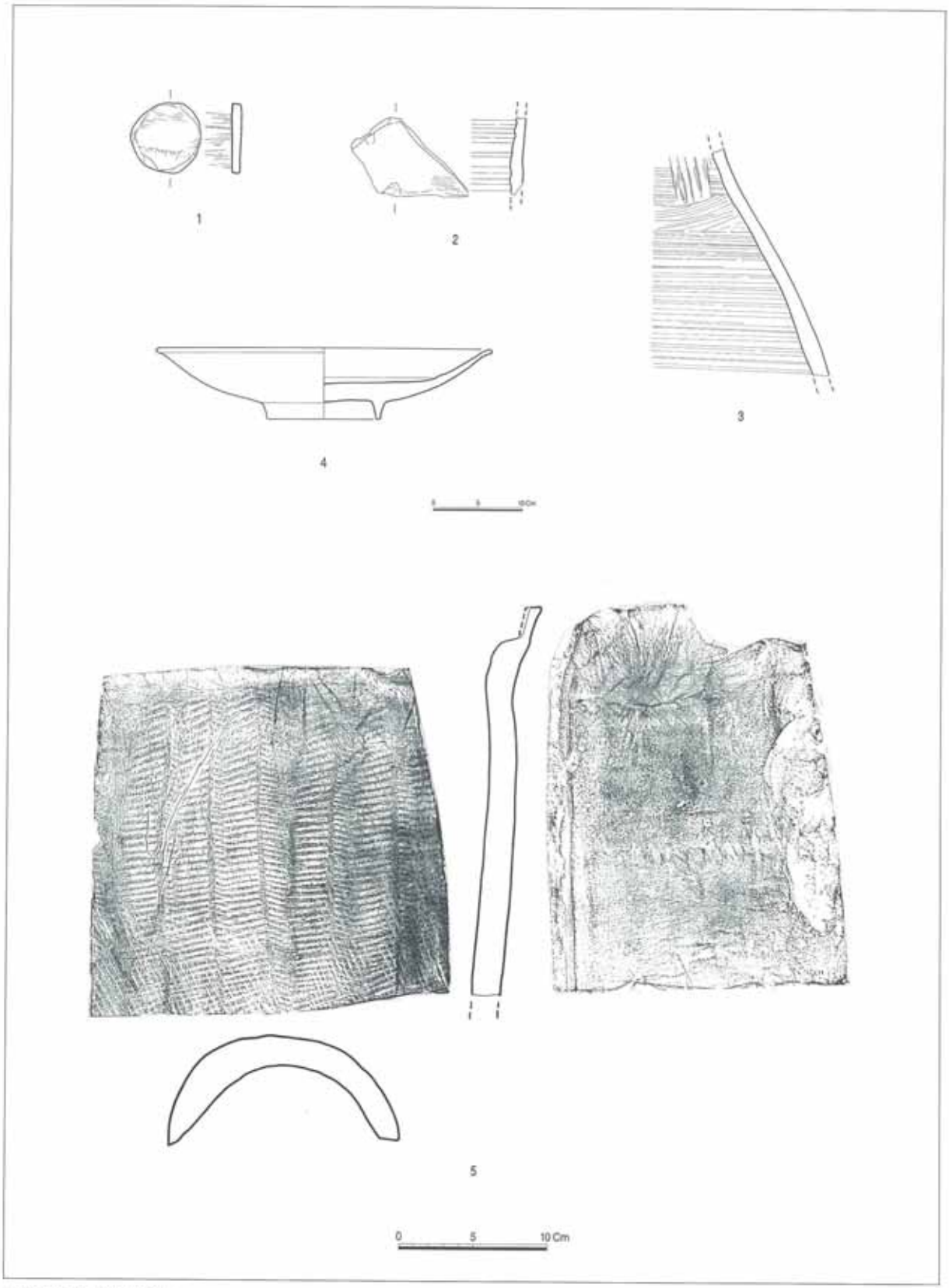


사진328-3 역촌토성 출토수키와(앞 · 뒷면)



도면328 역촌토성 출토유물

329. 平丘驛



사진329 평구역터 전경

□소재지 : 삼패동 365-5대(지도328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역
□내 용

평구역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망우리를 지나 왕숙천을 건너 춘천과 양평으로 가는 갈림길에 해당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평구역이 주의 동쪽 70리 지점에 있으며 본도의 속역 11개를 찰방하는데 그 속역은 녹양, 안기, 양문, 봉안, 오빈, 쌍후, 전국, 백동, 구곡, 감천, 연동 등이라고 하였다. 『대동지지』에는 동일한 내용에 찰방 1인이 있었음을 부기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의 『양주군 읍지』역원조에는 "평구역은 주의 동쪽 금촌면에 있으며 70리 거리이다. 관통 통로에 해당하며 말 9필이 있었다"고 하였다.

삼패동의 역말은 조선시대 평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며, 평구역터로 추정되는 곳은 도로변에 접한 삼패동 365-5번지 강도언씨 집부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한국전쟁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ㄱ' 자 형태의 마굿간이 있었다고 한다. 마굿간 옆에는 관터가 있어서 죄인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곤 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그 자리에는 사또 가든이 자리잡고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30. 南楊州 三牌洞 遺物散布地



지도330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위치도(성동 068)



사진330-1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소재지 : 삼패동 306번지 일원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1) 위치와 현황

삼패삼거리에서 6번 지방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삼패동 역촌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북쪽으로 해발 40m 내외의 야트막한 구릉지가 이어진다. 이 구릉 사이로 조그만 콘크리트포장 소로가 나 있는데 이 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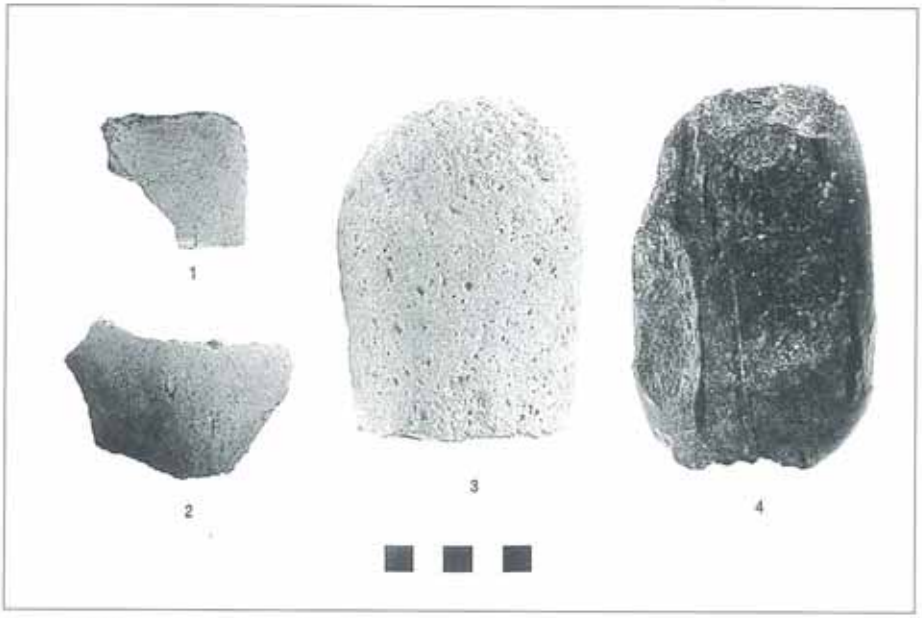


사진330-2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변과 소로 동편에 연접한 구릉사면에서 유물이 채집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서편에는 홍릉천이 흐르고 주변에 강변 충적지가 펼쳐져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채집된 유물은 주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과 석기류 등이다. 채집유물의 양은 적으나 토양 퇴적 상태가 두텁고 비교적 지형 훼손이 적어 주거유적 등이 부존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향후 이 일대에서 형질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화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채집유물

① 무문토기 동체편(사진330-2-1, 도면330-1)

기형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색조는 밝은 적갈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점토에 약간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매우 단단하게 소성되어 있으며 기면도 잘 정면하여 안정되어 있다. 내면에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벽두께는 0.8㎝이다.

② 무문토기 동체편(사진330-2-2, 도면330-2)

기형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색조는 밝은 적갈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점토에 약간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매우 단단하게 소성되어 있으며 기면도 잘 안정되어 있다. 내면에 횡방향의 정면 흔적이 남아 있다. 기벽두께는 0.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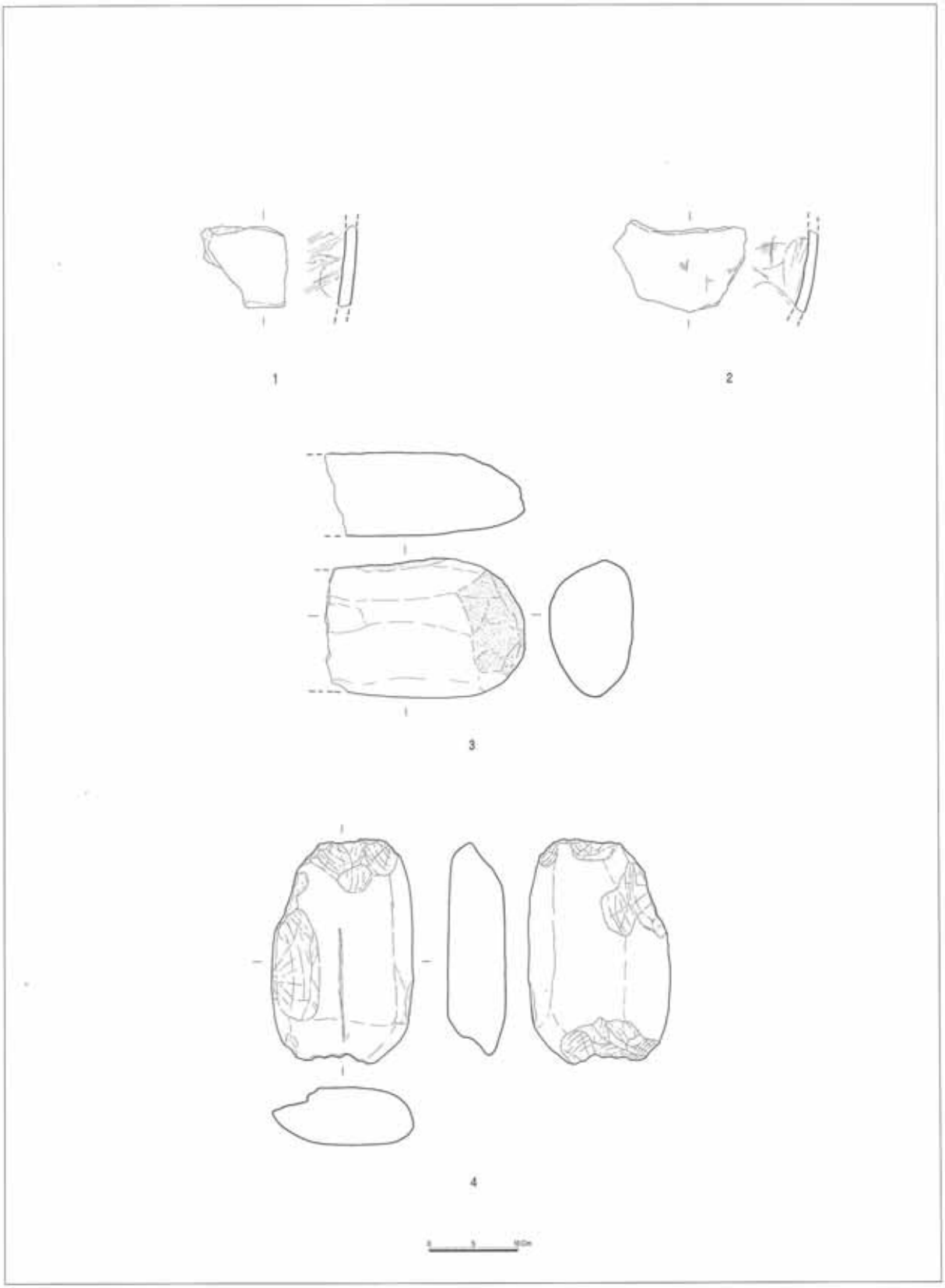
③ 공이(사진330-2-3, 도면330-3)

1/2 이상이 결실된 석기이다. 현재는 공이로 추정되나 정확한 용도는 불분명하다. 선단부와 측면에 쪼아서 생긴 흔적이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매끈한 상태이다. 마연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길이는 11.3㎝, 폭은 7.8㎝, 두께는 4.7㎝이다.

④ 석기 반제품(사진330-2-4, 도면3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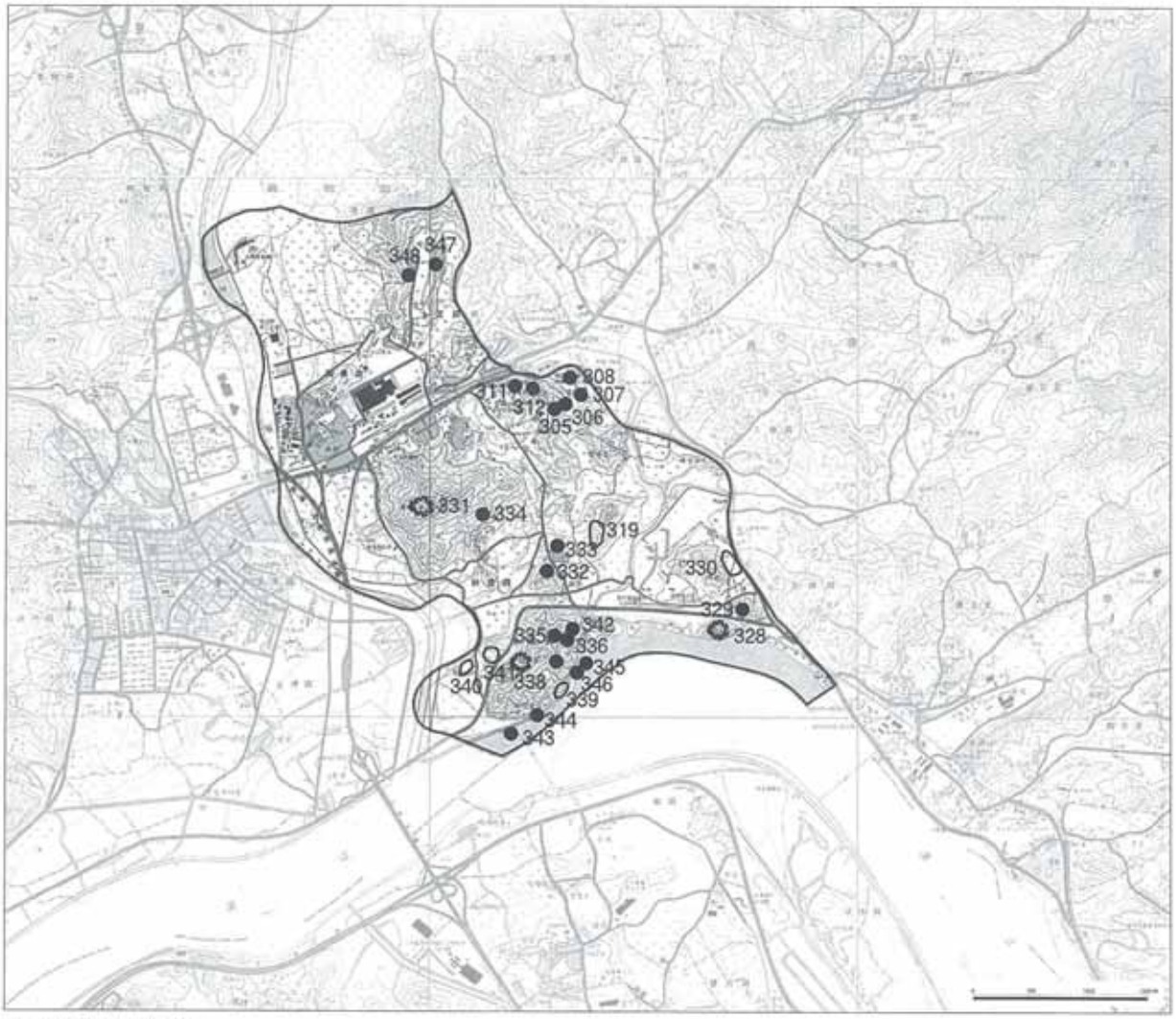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한 검은색 강돌을 타격하여 성형을 시도한 석기 반제품이다. 양쪽 선단부와 한쪽 측면에 지각 타격에 의한 타격흔과 박리흔이 엿보인다.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석부류를 제작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이 너무 단단하여 의도한 데로 성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길이 12.8㎝, 폭 8.2㎝, 두께 3.1㎝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도면330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芝錦洞



지금동 문화유적 분포현황

331. 案山堡壘



지도331 안산보루 위치도(성동 067)



사진331-1 안산보루 성벽



사진331-2 안산보루 정상부

□소재지 : 가운동 산50-1임

□시 대 : 삼국시대

□종 류 : 성(보루)

□내 용

(1) 위치와 현황

안산은 왕숙천 동쪽 6번국도의 남쪽에 있는 해발 128.8m의 독립구릉이다. 이 산은 높지는 않지만 정상부에 올라서면 남쪽으로 수석리토성과 한강유역, 서쪽으로 아차산일대, 북쪽으로는 퇴계원일대까지 조망되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산 정상부는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성벽은 정상부의 바로 외곽을 따라가며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148.2m이고 장축은 65.4m, 단축은 25.7m이다. 정상을 돌아가며 쌓은 성돌은 대체로 30~40㎝ 정도의 다듬지 않은 할석을 이용하여 쌓은 높이 1m 정도의 석축시설이 남아 있다. 내부는 중앙이 가장 높고 남쪽이 약간 낮다.

정상부에는 현재 체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많은 등산객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표면에는 전체적으로 마사토 암반층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벤치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퇴적토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성내유구의 상당부는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많은 양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지만 대체로 두시기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하나는 단면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식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이고, 다른 한 종류는 적갈색 연질의 단경호를 포함한 회색의 경질토기군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면 이곳에는 선사시대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가 삼국시대 관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2) 채집유물

① 점토대토기 구연부편(사진331-3-2, 도면331-2)

흑회색 연질의 단면원형 점토대토기 구연부편이다. 태토에는 0.1㎝ 내외의 석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구연부 직경은 1.3㎝이다.

② 단경호 구연부편(사진331-3-1, 도면3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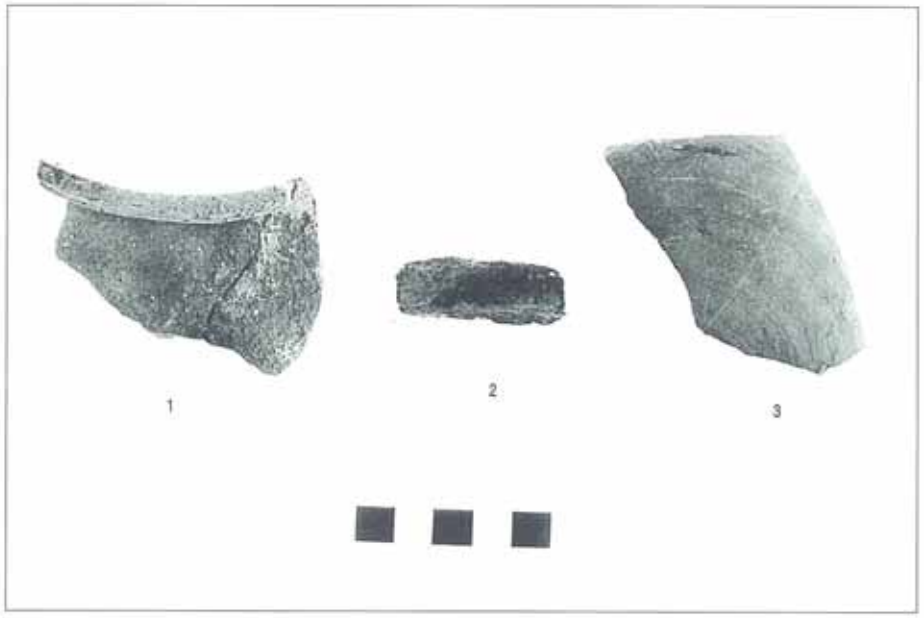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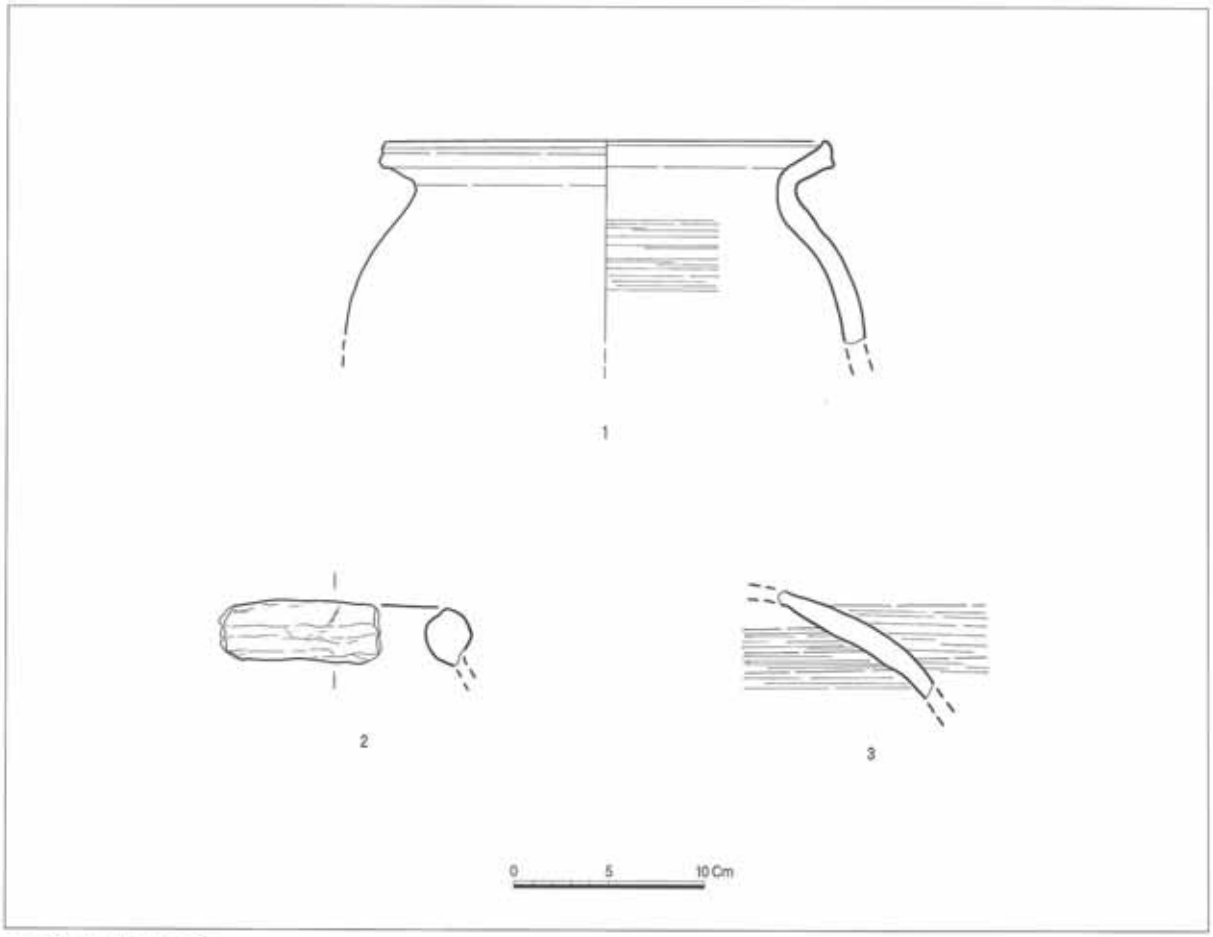


사진331-3 안산보루 출토유물



도면331 안산보루 출토유물

적갈색 연질의 단경호 구연부편이다. 기복부의 줄 간부에서 호형을 이루며 좁아들다가 짧게 외반하여 구연을 이루는데 구단부는 가운데 부분에 한줄의 침선이 돌아가며 끝부분은 위로 돌출시켜 놓았다. 태토에는 장석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기벽의 두께는 0.4㎝이다.

③ 호형토기편(사진331-3-3, 도면331-3)

기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병형토기의 동부편으로 추정된다. 회색의 경질토기이며 표면과 안쪽면에는 물손질정면하였다. 태토는 매우 정선되었다. 두께는 0.6㎝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오순제, 『한성백제사』 집문당, 1995.

332. 加雲洞 支石墓



지도332 가운동 지석묘 위치도(성동 068)



사진332 가운동 지석묘

□소재지 : 가운동 산17-2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선사분묘

□내　용

가운동 지석묘는 가운동 조운 3리 마을 뒷편의 배나무 과수원내에 위치한다. 남북방향에 가까운 길쭉한 능선 상부에 놓여 있는 남방식의 지석묘이다. 주변에서 돌화살촉이 채집되었다고 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별다른 유물이 채집되지 않았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 방향은 대체로 동서 방향에 가깝다. 하부에 작은 천석들이 받혀있으나 외관에서 정확한 구조가 파악되지 않는다. 규모는 장축 330㎝, 단축 160㎝, 높이 60㎝이다.

인근의 한강변의 지석묘들이 강변 충적지에 군락을 이루며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지와 구조상의 차이점이 엿보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향후 적극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상태를 추정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문화재 자료 제80호

□참고문헌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향토문화총서3, 199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333. 鄭士龍 墓



사진333-1 정사룡 묘



사진333-2 정사룡 묘표



사진333-3 정사룡 묘갈

□소재지 : 가운동 산26(지도33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정사룡(1491~1570)은 조선 초기의 문신 · 문인으로 본관은 東萊이며, 자는 雲卿, 호는 湖陰, 동래군 蘭宗의 손, 부사 光輔의 자, 영의정 光弼의 질이다. 1509년(중종 4)에 진사가 되고 1512년 박사과에 뽑혔으며, 이해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장원하여 1514년 賜暇讀書하였다. 이후 여러 요직을 거치다가 1562년 사화를 일으켜 사림을 제거하려던 李樑이 물러날 때 일당이라 하여 삭직 당하였다. 일찍이 明에 사신으로 가서 文名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번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동안 주고 받은 시가 많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明 使行 중에 읊은 시를 『朝天錄』, 『龍灣日錄』등으로 정리한 것과 중국사신과 같이 나눈 글을 『儐接日錄』, 『皇華和稿』등으로 묶어둔 것이다. 저서로는 『湖陰雜稿』, 『朝天日錄』등이 있다.

묘는 가운 1동 마을회관과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東南向하여 있는데, 묘역은 잘 정비되어 있다. 2단의 활개를 갖추고 있는 원형의 봉분은 높이 200㎝ · 직경 520㎝로, 하단부는 높이 44㎝ · 너비 200㎝의 백색화강암 호석 8매를 원형으로 돌려놓고 있다. 봉분 중앙에는 묘표석 · 혼유석 · 상석 · 4각향로석과 그 우측에 묘갈 및 좌우로 8각망주석 · 문인석 등 다수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 중 묘표석은 백색화강암 재질의 민무늬 비좌와 백색대리석제인 一石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이수와 일석인 비신은 前面에만 비문이 있는데, 전면에 자경 10㎝ 크기로 "湖陰鄭公之墓"라 쓰여 있다. 이수는 前後 2면에 걸쳐 발가락이 4개인 두 용이 몸을 'ㄹ'자로 틀고 운문속에 마주보면서 크게 벌린 입에 서로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을 우수하게 조각하였다. 대개 신도비 등에 있는 이수조각이 여의

주를 바라보거나 서로 앞발을 들어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반해, 정사룡 묘표석의 이수조각은 유례가 없는 드문 예로 주목된다. 크기는 비좌 높이 36㎝ · 너비 97㎝ · 두께 57㎝, 비신 높이 103㎝ · 너비 54㎝ · 두께 19㎝, 이수 높이 51㎝ · 너비 64㎝ · 두께 28㎝이다. 상석은 백색화강암제로 높이 22㎝ · 너비 161.5㎝ · 두께 98㎝의 평평하고 납작한 모습이며, 향로석은 높이 48㎝로 조각된 모습이 화려하다. 망주석은 복련문이 새겨진 8각 기대석에 청솔모가 양각된 간주석과 앙화문이 화려한 상부를 갖추고 있으며, 높이는 196㎝이다. 문인석은 1단의 계체석 아래에 눈을 감은 채 엄지를 세우고 4지로 홀을 잡고 좌 · 우 마주보고 있다. 金冠朝服形으로 높이 205㎝의 신체에 머리부분이 62㎝이다. 특히 우측의 문인석은 턱 밑의 턱수염이 인상적이다.

墓碣은 봉분 우측에 위치하여 東南向하고 있다. 백색화강암의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상부에 전후 5엽, 좌우 1엽 총 12엽의 복판복련문이 새겨져 있다. 비신의 비문은 前後 2면에만 있으며, 前面의 비제는 "大提學湖陰鄭公士龍墓碣銘"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眉叟 許穆이 찬하고, 12세손 應朝가 서하였다. 건립연대는 숭정기원 316년 辛巳 3월 改刻立石하였다.

규모는 비좌 높이 22㎝ · 너비 94㎝ · 두께 58㎝, 비신 높이 110㎝ · 너비 38㎝ · 두께 16㎝, 옥개석 높이 38㎝ · 너비 71㎝ · 두께 52㎝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334. 南楊州 加雲洞 음나무



사진334 남양주 가운동 음나무

□소재지 : 가운동 산37-1(지도332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이 보호수는 인동장씨 집성촌인 가재부락(가재울)이 형성되기 전부터 자생하던 나무로 300여 년전부터 마을의 당산목으로 신성시 되어온 노거목이다. 이곳에 제를 올리면 귀신을 쫓아 액운을 막는 영험함이 있다 전해오고 있어 지금도 2년에 한번씩 짝수로 끝나는 해, 음력 10월 초에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뿌리에서부터 세 갈래로 나뉘어 길게 뻗어나가는 줄기중 한 줄기는 심하게 휘어 지면에 닿아 뿌리가 생겨나 가지를 이어나가는 형상으로 넓게 수관이 형성되어 있다. 음나무 주변으로 굿을 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근처 소나무앞에는 제웅이 놓여있고 이 나무들을 배경으로 작은 제기보관소가 있는 마을의 신령한 공간이다. 지금의 교회자리에 있던 도당 할아버지나무였던 참나무는 없어졌으나 여전히 건재한 도당 할머니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만나려면 가운 1동 마을회관을 지나 가

재마을의 뒷산으로 올라가면 된다.

수령 400년, 수고 15m, 흉고둘레 6.8m, 수관폭 20m.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남양주-51(1982. 10. 15)

335. 趙末生 墓 및 墓碑 · 神道碑



지도335 조말생 묘 위치도(성동 068)



사진335-1 조말생 묘



사진335-2 조말생 묘비



사진335-3 조말생 묘비(後面:팔작지붕에 골기와의 표현이 정교한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사진335-4 조말생 신도비

□소재지 : 수석동 산2-1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조말생(1370~1447)은 조선 초기 문신이자 書藝家이다. 본관은 楊州, 자는 謹初 · 平仲, 호는 華山 · 杜谷이다. 書雲觀正 誼의 아들로 1401년(태종 1)에 增廣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이조정랑, 형조판서, 領中樞院事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재임 중 태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世宗의 즉위시 奏聞使로 明에 다녀왔다. 1438년에는 경상 · 전라 · 충청 등 都巡問使로서 축성을 감독했다. 1439년 几杖을 하사받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1446년(세종 28) 영중추원사가 되었으나 다음해 돌아갔다. 그는 대학자로 특히 글씨에 뛰어났는데, 시호는 文剛이다.

묘는 수석동 서원마을의 조말생 사당인 영모재 바로 뒷산에 위치하여 정면에 漢江을 굽어보면서 東南向하고 있다. 양주조씨 묘 중에는 제일 상부에 안장되어 있으며 부인 平山 申氏와의 합장묘이다. 본래 묘역은 양주군 금촌면 금곡리 묘적산(현 금곡동)에 위치했으나 1900년 9월 이곳이 고종의 능으로 봉표되자 현재의 묘비 왼쪽 언덕에 이장하였다. 홍유릉 터에서 이장시 원형의 호석(74㎝×57㎝)을 둘러 잘 정비하였으며, 현 봉분의 규모는 직경 400㎝, 높이 160㎝로 활개를 갖추고 있다. 봉분의 호석에는 16면에 鳥紋과 화문을 조각하였다. 봉분 좌측에는 묘표가 있는데, 총 높이 156㎝로 비좌와 비신 월두형의 비이다. 비문은 前面에만 있으며 4열로 "輔國崇祿大夫領中樞院事兼兵曹判書寶文閣大提學謚文剛趙公末生之墓 貞敬夫人平山申氏祔右"라 쓰여져 있으며, 마모 및 균열이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18㎝ · 너비 92㎝ · 두께 60㎝, 비신 높이 136㎝ · 너비(上) 61㎝ · 너비(下) 55㎝ · 두께 21.5㎝이다. 봉분 앞에는 장대석 · 상석 · 향로석과 향로석 앞 좌 · 우로 羊石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향로석 앞 중앙에는 새로 만든 장명등과 봉분의 좌 · 우로는 상부 연봉 모양의 높이 38㎝인 차양석 2기가 있다.

墓碑는 조말생 묘역에서 우측의 아래에 東向하여 백색화강암에 용머리 모양을 한 거북머리를 갖추고 있는 귀부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화강암으로 팔작지붕에 골기와를 정교하게 조각한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원래 묘비는 숙종 33년(1707) 묘소 앞에 건립되었으며, 1938년 5월 묘 이장시 현재의 위치로 같이 옮겨 왔다. 귀부는 거북이의 머리 모양이 고개를 내밀고 본래의 자리인 홍릉을 바라보고 있어 이장을 예견하고 만든 것 같아 특이하다. 비신은 全面에 비문이 있으며, 비제는 "有明朝鮮國輔國崇祿大夫領中樞院事兼兵曹判書寶文閣大提學贈謚文剛趙公墓碑文"이다. 비문은 10대손 通政大夫 吏曹參議 趙泰東이 찬하고, 10대손 嘉善大夫 平安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趙泰耆가 쓰고, 10대손 通訓大夫 海州牧使 趙泰期가 전을 하였다. 조태구의 비문에서는 결구를 비롯하여 파임과 오른쪽 갈고리 등에서 조맹부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씨에서도 역시 조선초기 송설체와 같이 필획의 변화가 적다. 전면 중앙에는 직경 8㎝의 큰 탄흔이 1개소 있다.

규모는 귀부 높이 120㎝ · 너비 400㎝ · 두께 260㎝, 비신 높이 214㎝ · 너비 92㎝ · 두께 29㎝, 옥개석 높이 54㎝ · 너비 152㎝ · 두께 88㎝이다.

神道碑는 영모제 뒤 조말생 묘역의 입구에 北東向하여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말생 묘비를 향하고 있다.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좌는 백색화강암으로 근래 마련된 것이며 상부를 몰딩하였다. 비신은 前 · 左 · 後 3면에 비문이 있으며 前面 상부에는 篆書로 前後 2면에 걸쳐 "司憲府大司憲趙公神道碑銘"이라 횡서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趙公神道碑銘并序"이다. 비문은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世子師 李宗城이 찬하고, 玄孫 進士 宗鉉이 서 및 孫 崇政大夫 行吏曹判書 兼 判義禁府事 榮國이 전하였다. 건립연대는 崇禎紀元 後3丙子이다. 옥개석은 처마가 '一' 자로 밋밋하나 끝을 약간 반전시키고 있으며

하단부에 '井' 자문을 하였다.

규모는 비좌 높이 26㎝ · 너비 126㎝ · 두께 90㎝, 비신 높이 239㎝ · 너비 75㎝ · 두께 38㎝, 옥개석 높이 40㎝ · 너비 125㎝ · 두께 58㎝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향토유적 제8호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群誌』下, 1992.

남양주시 ·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유적』 남양주 향토문화총서3, 1997.

南楊州文化院 · 南楊州市, 『南楊州金石文大觀 Ⅰ』, 1998.

336. 永慕齋



사진336 영모재

□소재지 : 수석동 산2-1(지도335 참조)

□시　대 : 현대

□종　류 : 기타목조물(제실)

□내　용

영모재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書藝家인 조맹생을 비롯하여 조씨 선조들의 제사관리를 할 수 있는 조씨 문중의 제각으로 수석동 서원마을 조맹생의 문중묘역 입구에 있다. 과거 영모제는 현판만 걸어 붙인 보통의 어염집 구조였다. 그러나 1998년 사당을 다시 개축하여 묘 아래 맞배지붕 형태로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개축하였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37. 趙無疆 墓



사진337 조무강 묘

□소재지 : 수석동 산2-1(지도33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墓

□내　용

조무강(1488~1541)의 본관은 楊州, 漢川尉 李瑾의 증손으로, 成宗의 따님인 肅惠翁主에게 장가들어 駙馬가 되었다.

묘는 수석동 서원마을 양주조씨 묘역 남쪽의 언덕 중간에 北東向하여 있다. 원형의 봉분은 용미와 2단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130㎝, 직경 430㎝이다. 묘역은 새로 조성한 듯하며 봉분 앞에는 상석 · 향로석 등의 석물이 있고, 봉분 좌측에는 墓表가 있는데 비좌와 비신 및 冠石을 갖추고 있다. 크기는 비좌 높이 11㎝ · 너비 90㎝ · 두께 58.5㎝, 비신 높이 108㎝ · 너비 60㎝ · 두께 15.5㎝, 관석 높이 48㎝ · 너비 68㎝ · 두께 22㎝이다.

봉분 右측에는 새로 새운 비가 있는데, 비신 前面에 "儀賓嘉靖大夫漢川尉楊州趙公無疆之墓 貞夫人肅惠翁主祔左"라 써 있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높이 101㎝의 문인석이 있는데, 크기는 적으나 金冠朝服形으로 입에 미소를 띠고 있는 귀여운 모습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38. 水石洞 土城



사진338-1 수석동 토성 성벽



사진338-2 수석동 토성 정상부

□소재지 : 수석동 산2-2임(지도335 참조)

□시 대 : 삼국시대

□종 류 : 토성

□내 용

(1) 역사 및 유래

'토미재' 라고 부르는 한강에 면한 해발 82.3m 의 구릉 정상부에 있는 토성이다. 이곳에 서면 서쪽으로 아차산, 남쪽으로 이성산과 남한산, 동쪽으로 천마산, 북쪽으로 수락산이 , 그리고 마을 앞의 미음나루가 한눈에 조망된다. 토성의 남쪽은 미음나루가 있었다. 또한 토성의 남동쪽 구릉 말단부에는 1961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수석리 선사유적이 조사되어 잘 알려져 있다.

수석리 토성에 관한 조선시대의 기록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42년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둘레는 약 70칸이며 외측사면의 높이는 약 1칸 반이며 정상부는 대략 사각형이다고 기록하고 있다.[39] 이후 1977년에 간행된 『전국문화유적총람』에는 성터라기보다는 봉화를 올렸던 자리가 뚜렷하여 봉화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지금 남아 있는 성지의 면적은 300평 정도이며, 높이는 4m, 둘레는 126m 정도라고 하였다.[40] 수석리 토성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보고는 1985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경기도백제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유적이 백제의 토성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41]

(2) 구조 및 현황

수석리 토성은 해발 82.3m의 구릉 정상부를 삭토하여 축성한 것으로 전체둘레는 140.5m이고 직경은 남북이 37.5m, 동서가 49.3m인 반월형의 토성이다. 이 성은 특별히 토축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산 정상부를 삭토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며 성벽의 높이는 4~5m정도이며 약 70°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즉 삼국시대 성 중에서 백제시대의 성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

39)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朝鮮總督府.
4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覽』(上卷), 171쪽.
41) 漢陽大學校, 1986, 『京畿道百濟文化遺蹟』, 漢陽大博物館叢書 3集, 13-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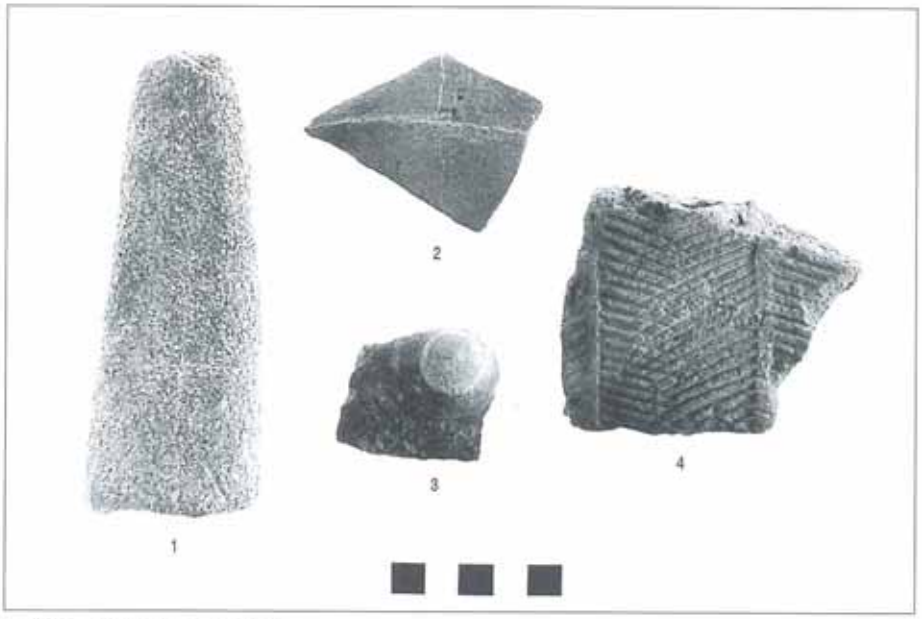


사진338-3 수석동 토성 주변 출토유물

용하며 성을 조성하였는데 이 성도 그와 같은 경우이다. 현재 성으로 들어가는 문지는 보이지 않는다. 성내에는 동서 13.5m, 남북 5.7m에 높이 4.8m의 高臺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약간 우묵하고 불에 탄 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를 달리하며 봉화를 올렸던 자리로 추정되기도 한다.

수석리 토성 정상부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어 지표상에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으며, 주변의 능선상의 평탄면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발견되는 유물은 대체로 회흑색의 연질토기편과 어골문계통의 와편으로서 대체로 고려시대의 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이 유적은 지정학적인 위치나 축성방법 등을 고려할 때 백제의 토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유물이나 정확한 축성방법등 백제 토성임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유적은 조속한 학술조사가 실시되어 정확한 성격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채집유물

① 석제품(사진338-3-1, 도면338-1)

사암계통의 석재를 갈아서 만들었다. 길쭉한 석봉형이며, 한쪽 부분은 결실되어 전체길이를 알수는 없다. 횡단면은 원형에 가까운 장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갈아서 형태를 만들었다. 용도는 알 수 없으나 넓은 쪽의 한면만이 납작하게 갈린 것으로 보아 갈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길이 13㎝, 중간부분의 횡단면 길이 4.7㎝, 폭 3㎝이다.

② 토기저부(사진338-3-2, 도면338-2)

회색경질토기 저부편이다. 편이 작아 크기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큰 항아리 같은 토기의 저부편으로 평저의 바닥에서 80°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며 동부가 연결되고 있다. 기벽은 바닥과 동체부가 0.6㎝ 정도로 거의 일정하다.

③ 토기 뚜껑편(사진338-3-3, 도면338-3)

회흑색연질토기 뚜껑편이다. 잔존부가 너무 작아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합같은 용기의 뚜껑으로 추정되는데 표면에 인위적으로 회흑색의 연이 입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토기로 추정된다. 뚜껑꼭지는 단추처럼 위로 돌출시켜 윗부분이 둥글게 처리되

었으며, 꼭지를 만들어 몸통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안쪽에서 끝이 뾰족한 도구로 눌러서 뚜껑안쪽에는 오목하게 홈이 파여 있다다. 꼭지부분 직경 1.6㎝, 기벽의 두께 0.4㎝

④ 암키와편(사진338-3-4, 도면338-4)

암갈색의 암키와편이다. 표면에는 종방향의 어골문이 찍혀 있으며, 안쪽의 포흔은 거의 마멸된 상태이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에 약간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두께는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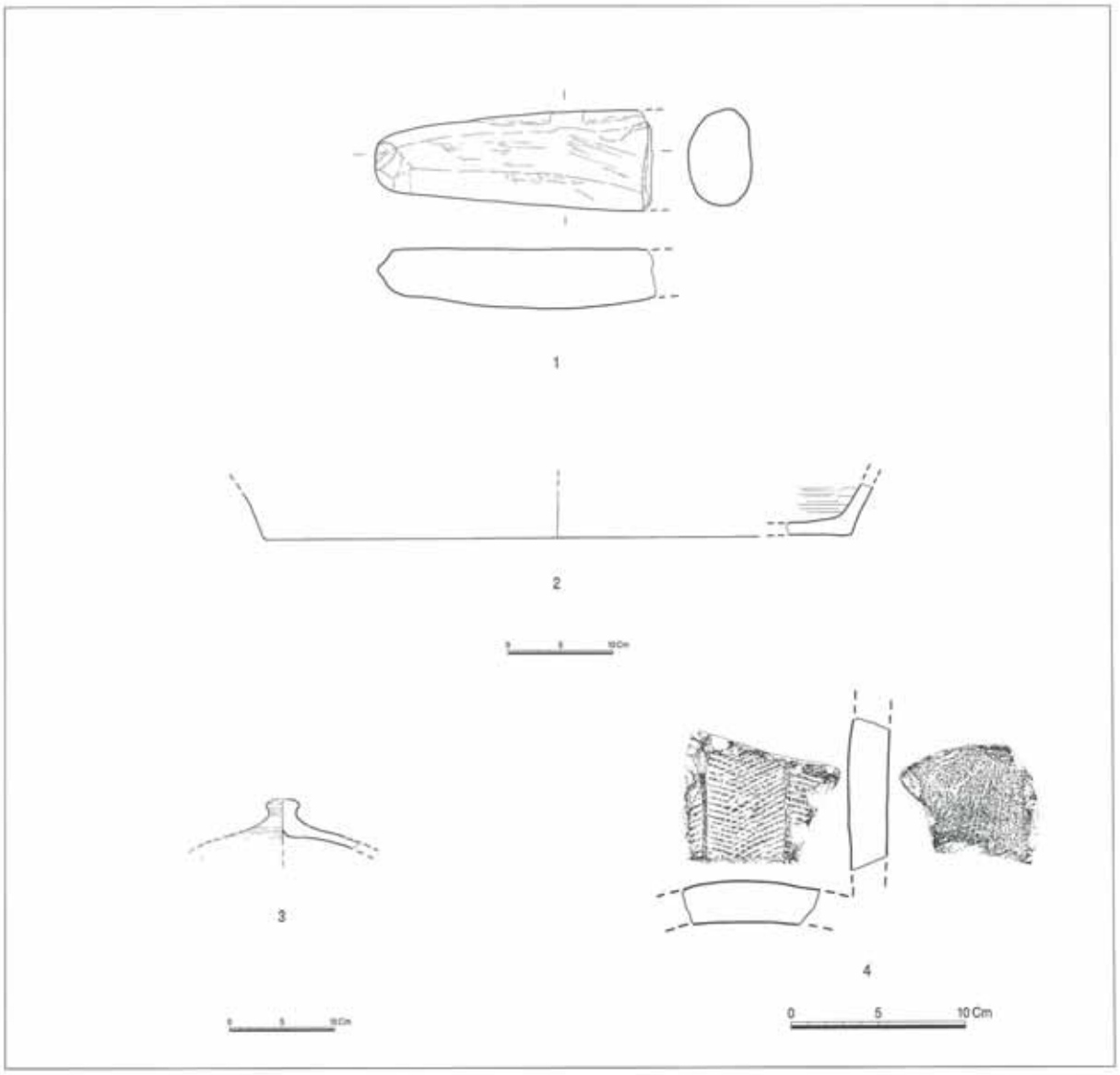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도 기념물 제94호(1986. 5. 7)

□참고문헌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상, 197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98.



도면338 수석동 토성 주변 출토유물

339. 南楊州 水石洞 先史遺蹟



사진339-1 남양주 수석동 선사유적 전경



사진339-2 남양주 수석동 선사유적 근경

□소재지 : 수석동 석실마을 서편(지도335 참조)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선사유적
□내 용

수석동 남한강변의 석실마을 서편 구릉 안부에 형성된 선사취락유적이다. 우연히 청동기시대 유물이 지표에서 채집되어 알려지게 되었는데 1961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정식 발굴조사되었다. 입지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 시기 유적이 남향한 구릉 사면에 분포하는데 비해 수석동의 주거지들은 계곡 안부 사면에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강바람을 정면으로 받지 않는 지점을 주거입지로 선택한 결과로 보여진다.

주거지는 총6기가 발굴조사되었는데 대부분 구릉 사면을 'L' 자 형태로 굴토하여 조성한 것들로 주혈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로는 원형점토대토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고 환상파수를 갖춘 직구호류와 공반된다. 일부 주거지 내부에서 즐문토기편도 수습되었으나 주거지의 중심유물은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석기로는 강돌을 타격하여 성형후 부분적인 마연을 시도한 석부류와 전면 마연을 시도한 마제석착류가 있다.

현재 이곳은 발굴조사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인근의 석실마을에서 전원주택과 강변 까페 등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보아서는 이 곳에서도 그러한 건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김원룡, 「水石里 先史時代 聚落住居止 調査報告」, 『美術資料』 제11집, 1996.
韓相仁, 『粘土帶土器 文化性格의 一考察』,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340. 南楊州 水石洞 遺物散布地1

□소재지 : 수석동 324-1임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1) 위치와 현황

수석동 안말부락 뒷편의 야트막한 구릉 정상부 일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서쪽으로는 수석동 어귀에서 한강 본류로 유입되는 왕숙천이 남류하고 동으로는



지도340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위치도(성동 068)


사진340-1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원경


사진340-2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전경

수석리 토성이 위치한 해발 100m 가량의 능선이 이어지고 있다. 왕숙천변에는 비옥한 하안평지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양호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산포지 주변은 구릉 정상부의 비교적 편평한 대지가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의 왕숙천은 제방공사가 이루어져 비교적 곧바로 흐르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유적에 인접하여 곡류하고 있었음을 우각호처럼 남아 있는 지류 절단부를 통해 알 수 있다.

채집된 유물은 주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 들이다. 산포범위도 좁고 유물의 양도 많지 않으나 인근의 수석리유적을 참고로 살펴보면 정상부를 중심으로 완만한 사면에 걸쳐 주거유적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가와 민묘가 조성되고 예비군 참호가 들어서면서 유적의 상당 부분은 이미 훼손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위치에 유구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차후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이 일대에 대해서 더 이상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토양 형질 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채집유물

① 무문토기 구연부편(사진340-3-1, 도면340-1)

약간 외반하고 있는 무문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고 내면에는 목리정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외면은 황갈색, 내면은 흑갈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점토에 석립을 다량 섞어 썼다. 현재 남은 부분이 작아서 구경 측정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기벽두께 0.7㎝이다.

② 무문토기 동체편(사진340-3-2, 도면340-2)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내외면에 목리조정에 의한 정면 흔적이 잘 남아 있고 외면은 황갈색, 내면은 암갈색을 띠고 있다. 비교적 단단하게 소성되어 있고 기면이 잘 안정되어 있다. 태토는 점토에 석립을 다량 섞어 썼다. 기벽두께 0.7~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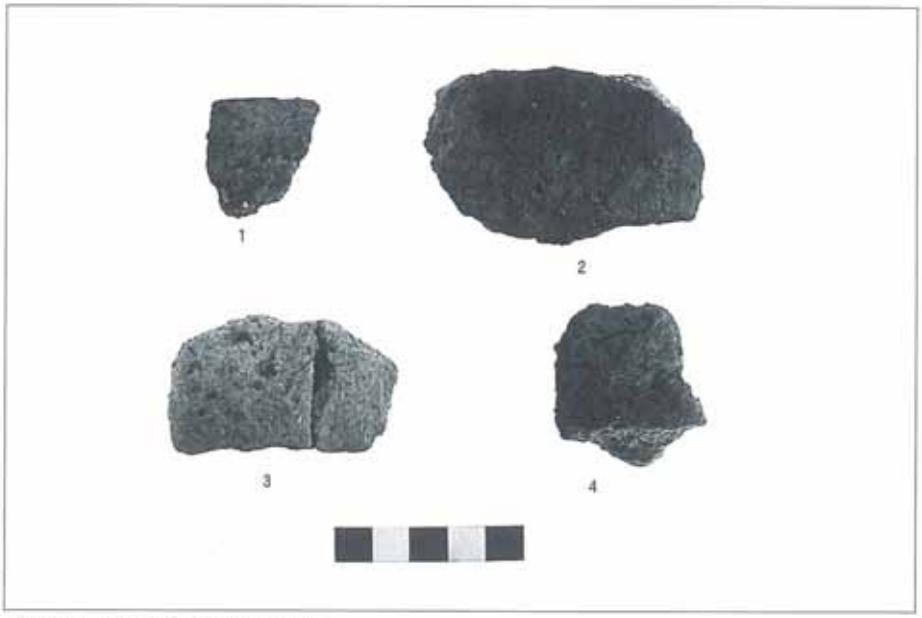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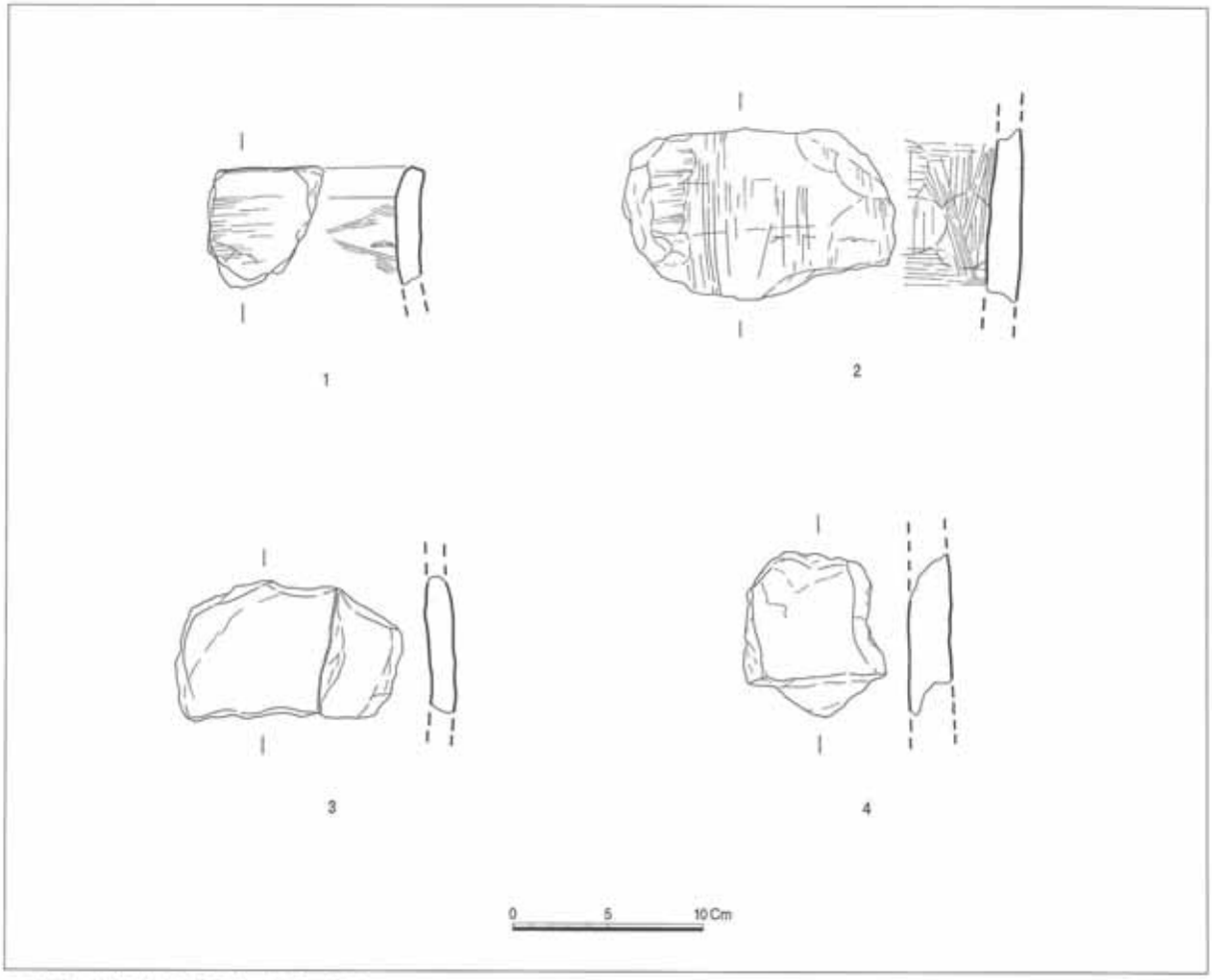


사진340-3 수석동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도면340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출토유물

③ 무문토기 동체편(사진340-3-3, 도면340-3)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소성이 불량하여 기면이 거칠다. 색조는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점토에 다량의 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 0.7㎝이다.

④ 무문토기 동체편(사진340-3-4, 도면340-4)

기형 불명의 무문토기 동체편으로 저부와 가까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소성은 양호하여 비교적 단단하나 기면은 접합흔으로 인해 거칠다. 색조는 황갈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점토와 다량의 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는 1.0~1.3㎝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41. 南楊州 水石洞 遺物散布地2



사진341-1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전경

□소재지 : 수석동 353-3답(지도340 참조)

□시 대 : 신석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1) 위치와 현황

남양주 수석동 공동묘지 남쪽의 경작지 일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수석동 유물산포지1과 연결되고 있는 능선 남쪽의 경사가 완만한 사면상 경작지 일대로 인근에 실내 야구 연습장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파밭으로 경작중인데 유물산포 범위가 넓고 채집되는 유물의 시대폭도 다양하여 유적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밭주인에게 문의한 결과 원래의 대지 위에 흙을 성토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성토 과정에서 다른 곳의 유물이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성토하기 위해 반입한 흙의 출처를 탐문하였으나 알 수 없었다. 한편 인근에 수석리 토성과 수석리 선사유적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유적과 연관성 있는 유적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채집된 유물은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와 삼국시대 경질토기편 그리고 약간의 고구려기와편 등이다.

(2) 채집유물

① 즐문토기 동체편(사진341-2-1, 도면341-1)

외면에 횡주 어골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시문된 즐문토기 동체편이다. 시문의 깊이는 매우 얕으며 납작하고 폭이 2.5㎜ 가량 되는 시문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색조는 암갈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사질 점토에 운모와 약간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기벽두께는 0.8㎝이다.

② 고배(사진341-2-2, 도면341-2)

고배류로 추정되는 경질토기 동체부이다. 내외면 모두 회전 물손질에 의해 정면되어 있다. 외면은 암회색, 내면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에는 정선된 점토에 약간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추정 구경 11㎝, 기벽두께 0.4㎝이다.

③ 회색경질토기 저부편(사진341-2-3, 도면341-3)

기형 불명의 회색경질토기 저부편이다. 바닥은 편평하나 실로 끊어낸 자국이 거칠게 남아 있다. 외면에는 성형후 부분적인 물손질을 가한 흔적이 엿보이며 내면에는 굵은 돌림흔적과 회전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옅은 회색을 띠고 있고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약간의 세석립을 섞어 썼다. 추정저경 8.8㎝, 기벽두께 0.6㎝, 바닥두께 0.8㎝이다.

④ 광구호 구연부편(사진341-2-4, 도면341-4)

회색경질토기 광구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짧은 목을 거쳐 급격히 외반하고 있으며 어깨는 급하게 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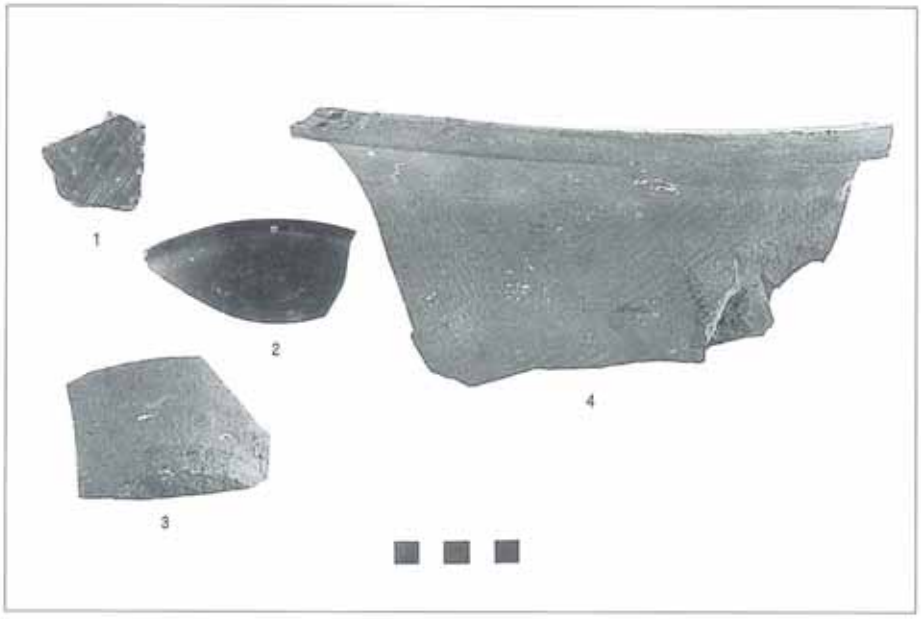


사진341-2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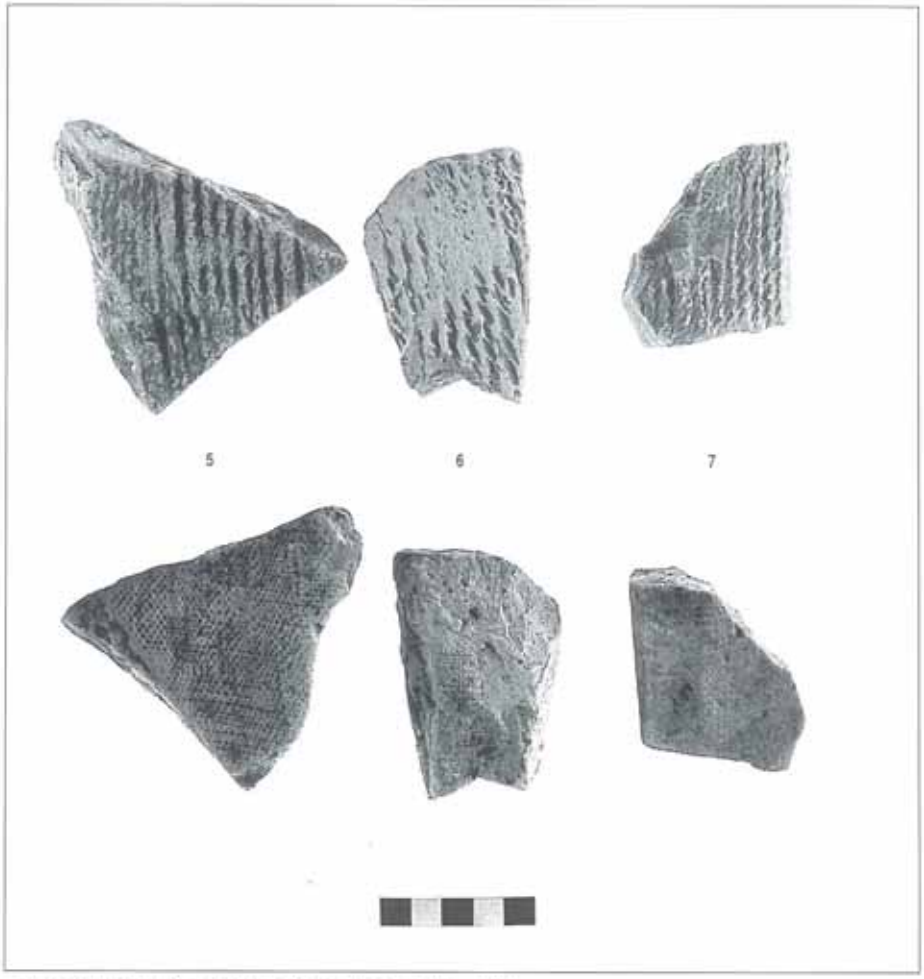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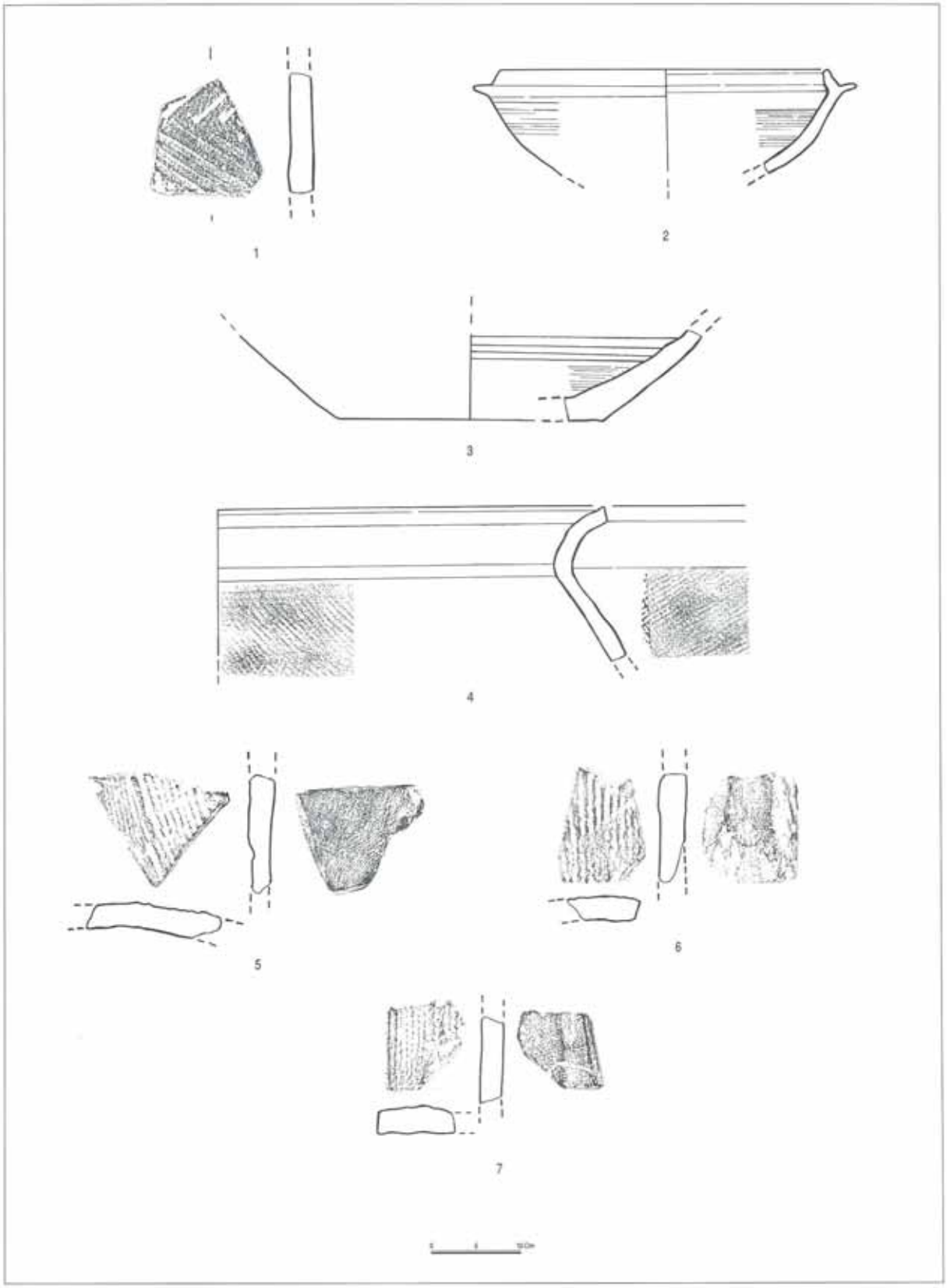


사진341-3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출토 고구려기와(앞 · 뒷면)



도면341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출토유물

어져 동체로 이어진다. 내외면은 짙은 회색이고 속심은 옅은 회색이다. 부분적으로 기포가 발생하여 부풀어 올라있다. 외면에는 목부분 하단부터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시문 후 물손질이 가해져 문양이 매우 얕게 남아 있다. 내면에는 외면의 시문부위와 맞추어 사격자상의 내박자 흔이 남아 있다. 추정구경 52㎝, 기벽두께 0.9㎝이다.

⑤ 승문 암키와편(사진341-3-5, 도면341-5)

황갈색 연질의 승문 암키와 편이다. 뒷면에는 굵은 승문이 종방향으로 나란하게 시문되어 있다. 측면은 와도를 사용하여 단번에 자라내어 깨끗하다. 앞면에는 올이 가는 포흔이 얕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점토에 약간의 석립을 섞어 썼다. 두께 1.8㎝이다.

⑥ 승문 암키와편(사진341-3-6, 도면341-6)

황갈색 연질의 승문 암키와편이다. 뒷면에는 승문이 종방향으로 나란하게 시문되어 있다. 측면은 와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잘라내었고 측면 모서리도 깨끗하게 다듬었다. 앞면에는 올이 가는 포흔과 모골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두께 1.9㎝이다.

⑦ 승문 암키와편(사진341-3-7, 도면341-7)

황갈색 연질 승문 암키와편이다. 뒷면에는 승문이 종방향으로 나란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고판이 엇갈려 찍힌 부분이 관찰된다. 앞면에는 올이 가는 포흔이 얕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두께 1.9㎝이다.

□ 지도번호 : 덕소 205-2

342. 石室書院址



사진342 석실서원지

□ 소재지 : 수석동 산2-2(지도335 참조)

□ 시 대 : 조선시대

□ 종 류 : 서원

□ 내 용

석실서원은 수석동 서원마을 영모재 뒷터에 있었던 서원이다. 이 서원은 丙子胡亂시에 淸에 대항하여 싸우기를 주장한 金尙容과 金尙憲을 기리기 위하여 1656년(효종 7) 후학들이 세운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서원 중 하나이다. 석실서원은 안동김씨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곳으로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서 완전히 훼철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이 서원에는 金尙容, 金尙憲, 金壽恒, 閔鼎重, 李端相, 金昌集, 金昌協, 金昌翕, 金元行, 金履安, 金祖淳 등을 배향하였다. 서원터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아직 우물과 석물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다. 특히 서원 앞에 세웠던 석실서원 묘정비는 현재 와부읍 덕소5리 석실마을에 있다.

석실서원은 겸재 정선(1675~1759)이 그린 京郊名勝帖 중의 석실서원도에 서원 주변의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강상에서 바라 본 경치를 俯瞰法으로 그린 것이다.

현재 수석동 조말생 묘역 입구에 과거 석실서원 터였음을 알리는 화강암 비가 南向하여 세워져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참고문헌

楊州文化院, 『楊州郡誌』下, 1992.

서일대학 강경향토문화연구소 · 남양주문화원, 『석실서원-지표 및 문헌조사-』 남양주향토문화총서 4, 1998.

343. 미음나루터



사진343 미음나루터

□소재지 : 수석동(지도34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나루터)

□내 용

미음나루터는 수석동 외미음에 있었던 나루터로 남양주시와 하남시 미사리를 건너던 한강나루 중의 하나였다. 안동김씨 후손의 호를 따서 불여진 나루로 한강의 나루터 중 광나루(廣津)에 버금가는 곳이었다. 나루터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현재는 콘크리트로 둑을 만들어 논 상태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미음진의 주위 동쪽 70리에 있어 광주로 통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평구역(삼패동 경기연와 자리 부근에 있던 역)에서 광주로 이르는 나루터의 하나로 남북 교통로의 요지였다. 미음나루터는 안동김씨 석실서원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 주위에는 김창협 선생이 살았다는 "삼주삼산각"이 있고, 여기를 통과하여 야산을 가로 지르면 석실서원지가 나온다. 즉 한강을 타고 내려오는 배들이 미음나루에서 물건을 내려 석실서원에 필요한 물건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주변은 겸재 정신이 『삼주삼산각』이나 『석실서원』을 그린 것처럼 주위에 풍광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특히 석실서원 앞에 있는 한강을 渼湖라고 하여 한강이 마치 호수같이 보인다고 하여 아름다움을 극찬하였다.

현재 터에는 높이 48㎝ · 너비 110㎝ · 두께 40㎝의 백색화강암 기단에 높이 84㎝ · 너비 120㎝ · 두께 34㎝ 가량의 자연석 화강암에 "미음나루터"라 음각된 비가 세워져 있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344. 南楊州 水石洞 은행나무



사진344 남양주 수석동 은행나무

□소재지 : 수석동 산7-1임(지도340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한강변의 높은 언덕에 서서 훤하게 트인 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은행나무는 계속되는 인근의 건축공사로 전면에 도로가 가설되면서 뿌리의 노출이 심각한 상태이다. 곧게 올라간 주간에는 작은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로 쪽으로 측지가 수평하게 뻗어 불균형적인 모습의 암나무로 한 해 평균 2~3가마 정도의 은행이 열리나 알이 잘아 별도로 수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마을에 살던 밀양 박씨의 선조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외미음 마을의 정자목으로 주변나무들 중 단연 돋보이는 웅장하고 씩씩한 기상이다. 도로개설로 인해 발생된 절개지위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이 나무를 보려면 수석동의 외미음 마을로 진입하여 강변을 따라 마을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수령 500년, 수고 20m, 흉고둘레 10m, 수관폭 30m.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남양주-2(1982. 10. 15)

345. 南楊州 水石洞 느티나무1



사진345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1

□소재지 : 수석동 442(지도33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한강을 건너는 나루를 지키기 위해 축조된 水石里土城(경기도 기념물 제94호)의 유적이 남아 있는 한강변 구릉지에 있는 두 그루의 오래된 느티나무 중 한 그루인 이 보호수는 시원하게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며 서있다. 지금은 주변이 복토가 되어 제법 넓직한 쉼터를 끼고 있으나 전에는 계속 되는 건설공사로 인해 흙이 쓸려내려가 나무아래 바로 강물이 흘렀었다고 한다.

간높이 1.3m 부위에서 굵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 중 한 줄기가 다시 네 갈래로 나뉘어 뻗어 올라가며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달한 풍성한 우산형의 모습이다. 마을주민들보다 한강변의 경관을 즐기기 위해 외지에서 놀러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나무로 촘촘하게 달린 잎의 무게에 가지가 쳐져있다. 수석동 석실마을을 찾아 마을회관을 지나 강변으로 내려오면 휴게공간이 잘 정비된 너른 공간에 풍채좋게 서있는 이 나무를 볼 수 있다.

수령 200년, 수고 23m, 흉고둘레 6.4m, 수관폭 26m.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남양주-3(1982. 10. 15)

346. 南楊州 水石洞 느티나무2



사진346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2

□소재지 : 수석동 442(지도335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이 느티나무는 마을로 처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은 마을내부의 젯마당(고개마당)을 지나면 우환이 있으므로 강가쪽의 길로 돌아나가고 들어와야 한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는 석실부락의 정자목이다. 경기-남양주-3호 보호수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고 서 있으며 나무가 바닥으로 길게 약 45° 정도 기울어져 세 개의 콘크리트 받침대가 힘겹게 줄기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수목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져서 수고와 흉고둘레에 비해 수관폭이 넓게 퍼져있으며 양쪽으로 가지가 벌어짐에 따라 수관 중심부는 빈 형상이다. 넓은 수관에 의해 만들어진 넉넉하고 시원한 그늘은 오고가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 농구대 등이 정비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나무이다.

경기도 기념물 제94호인 수석리 토성의 유적이 남아 있는 한강변의 수석마을을 찾아 들어오면 훤하게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고 서있는 이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수령 190년, 수고 18m, 흉고둘레 4.2m, 수관폭 25m.

□지도번호 : 덕소 205-2
□비　　고 : 경기-남양주-7(1982. 10. 15)

347. 南楊州 芝錦洞 遺物散布地



지도347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위치도(성동 057)



사진347-1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소재지 : 지금동 산33-5임
□시　대 : 청동기시대
□종　류 : 유물산포지
□내　용

(1) 위치와 현황

구 원진레이온 공장 북쪽에 인접한 지금동 지사마을 동편의 남북으로 길게 빠져 있는 구릉 정상부에서 1점의 마제석부가 채집되었다. 이 일대는 현재 배나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과수원 조성과정에서 유적이 파괴되어 유물이 노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변에서 석부 이외의 다른 유물은 전혀 관찰되지 않으나 동편으로는 왕숙천변의 강변 충적평지가 펼쳐지고 주변에는 해발 100m 미만의 나지막한 구릉이 이어지고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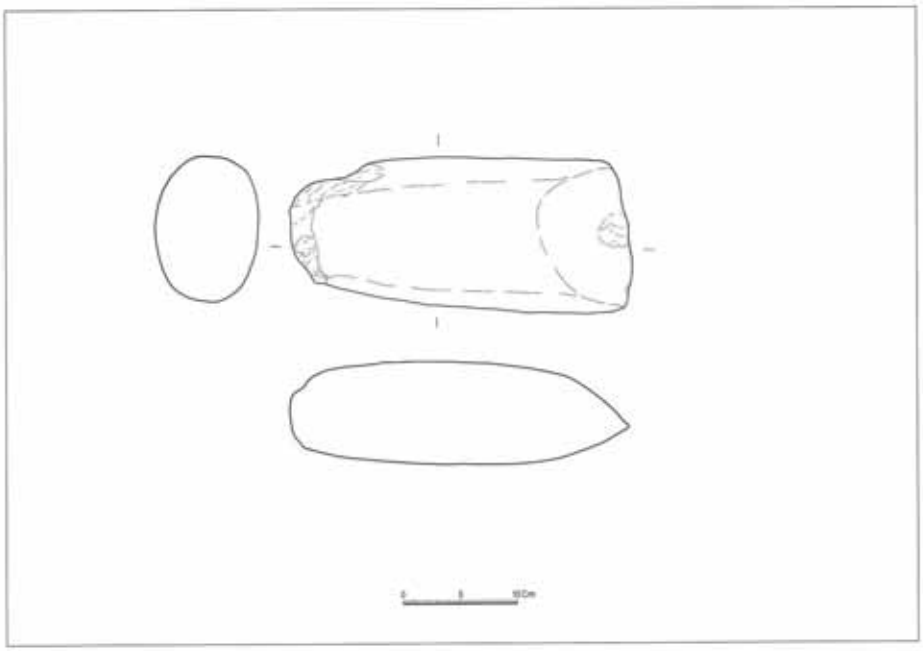
이 일대의 구릉지들에서 간간이 선사시대 유물이 채집되고 있어 과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에 집중적인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도심의 확대와 공장의 신설, 경작지의 확대 등으로 대부분의 유적은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유물이 채집되는 지점은 유적 부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이므로 향후 형질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밀한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채집유물

① 마제석부(사진347-2, 도면347)

완형의 마제석부이다. 전면적으로 마연되었으며 표면은 침식으로 인해 약간 거칠고 주홍색을 띠고 있다. 날은 조갯날을 이루고 있으며 날면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이다. 횡단면은 타원형이다. 길이 15.1㎝, 폭 6.9㎝, 두께 4.5㎝이다.

□지도번호 : 덕소 205-2



도면347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사진347-2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출토 마제석부 정면과 측면

348. 南楊州 芝錦洞 느티나무

□비　고 : 경기-남양주-6(1982. 10. 15)



사진348-1 남양주 지금동 느티나무

□소재지 : 지금동 337-1(지도347 참조)
□시　대 : 조선시대
□종　류 : 기타유적(노거수)
□내　용

동네 아이들이 들어가 놀곤 하던 주간에 있던 커다란 동공은 대대적인 외과수술로 치료가 되어 현재 수세가 회복중인 이 느티나무는 밀양박씨 집성촌인 지금동 지세월마을의 정자목이다. 밀양박씨 선조가 심었다고 전해지며 단오절 무렵이면 그네를 매어타고 놀기도 했던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위하는 나무라고 한다.

주간은 측지없이 올라와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뻗은 원형의 아담한 형태로 내부가지와 잎이 무성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폭이 작으며 전체적으로 도로쪽으로 기운 형상이다. 세월마을로 들어오는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지점에 공터를 옆에 두고 하부에 휴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쉼터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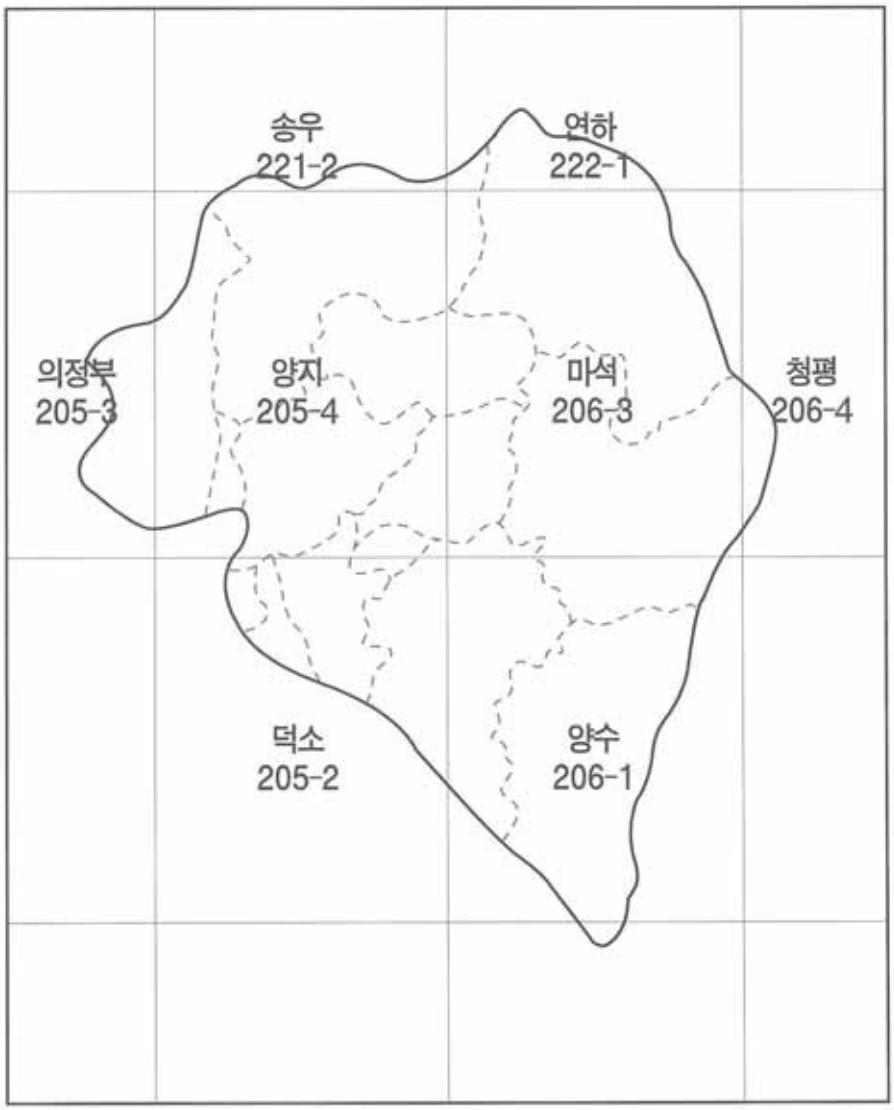
수령 420년, 수고 10m, 흉고둘레 3.5m, 수관폭 9m.

□지도번호 : 덕소 205-2

Ⅲ. 문화문화유적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수동면
조안면
오남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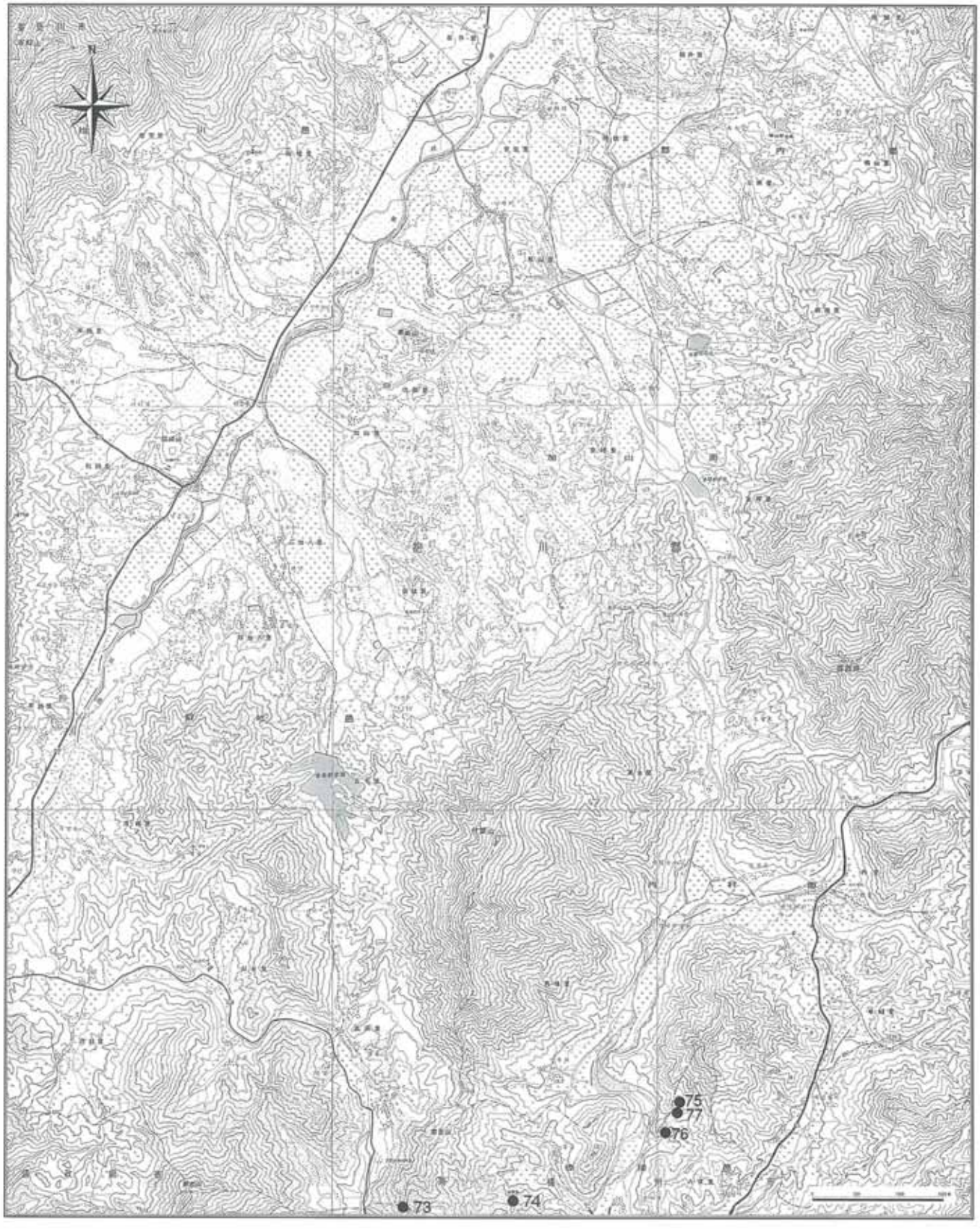


유적분포지도 색인도

송 우

동두천 221-3	신읍 221-4	기산 222-3
덕정 221-1	송우 221-2	연하 222-1
의정부 205-3	양지 205-4	마석 206-3

No.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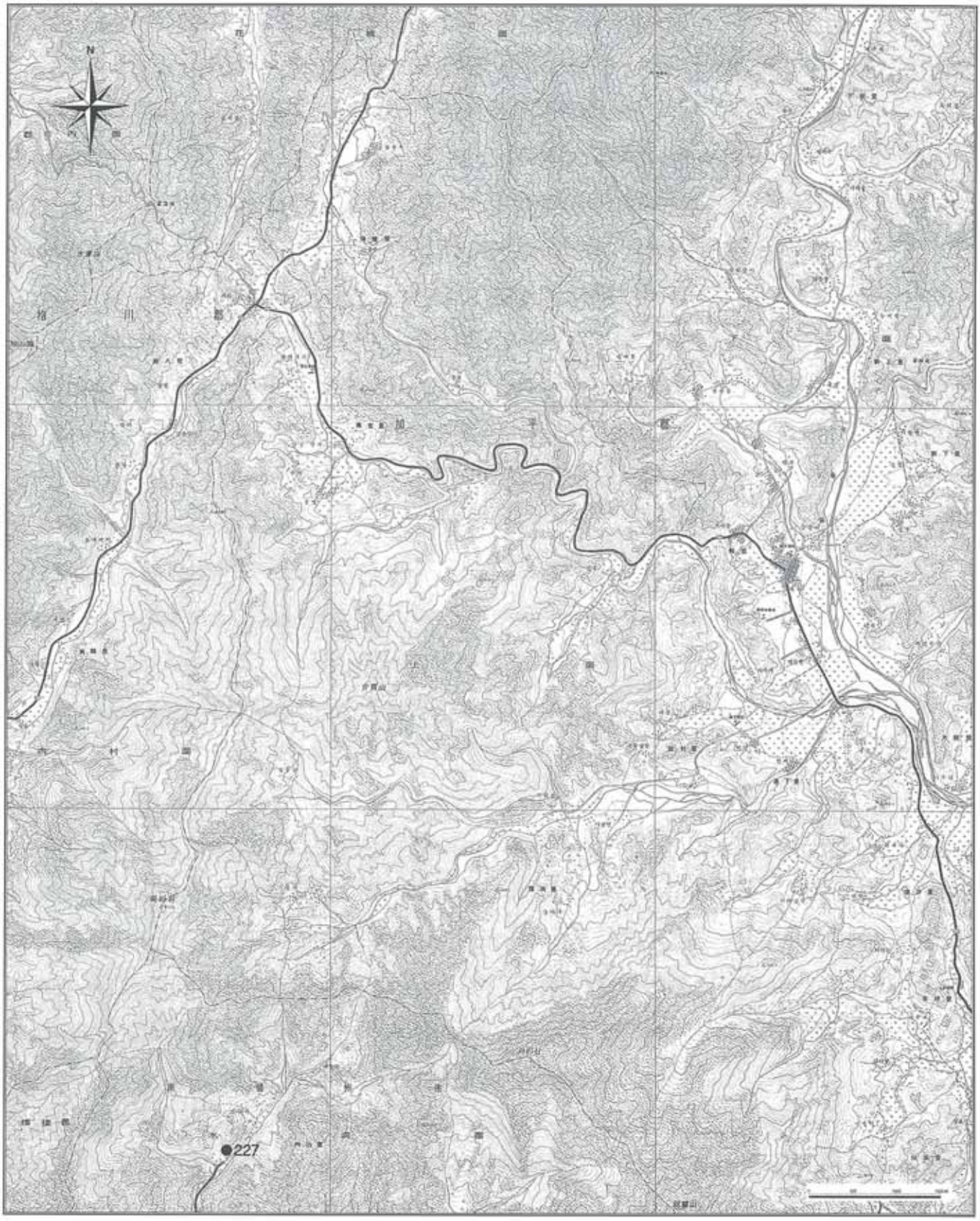
지도「송우」유적 목록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73	광릉	진접읍 부평리 산 100-1	능 · 원	조선	사적 제197호
74	휘경원	진접읍 부평리 267	능 · 원	조선	사적 제360호
75	이단상 묘 및 신도비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76	이시원 묘 및 묘갈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77	이희조 묘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연 하

신읍 221-4	기산 222-4	적목 222-3
송우 221-2	연하 222-1	상천 222-2
양지 205-4	마석 206-3	청평 206-4

No.2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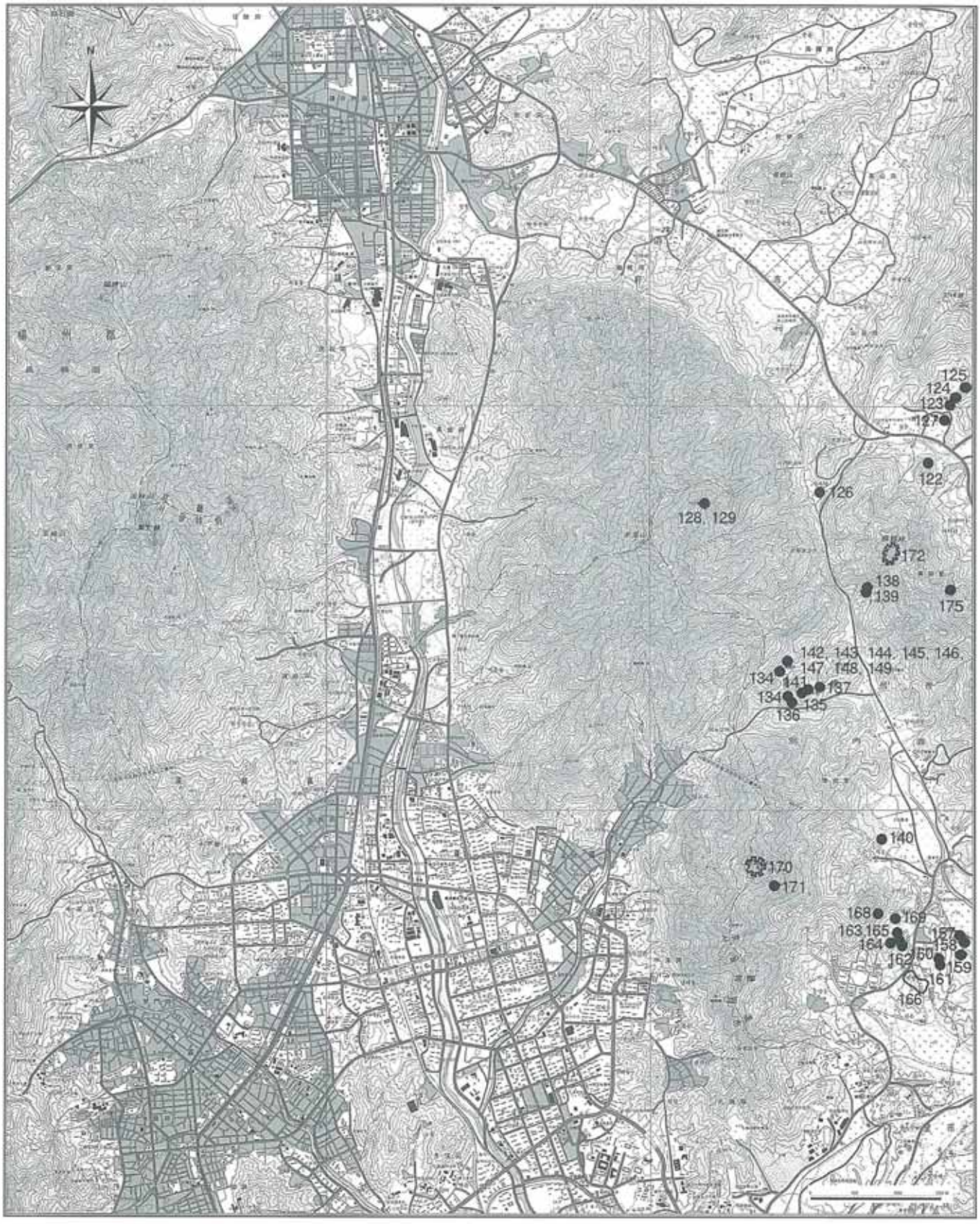
지도「연하」유적 목록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227	반공회생자 합동위령비	수동면 내방리 251-2	기타비	현대	

광적 220-2	덕정 221-1	송우 221-2
고양 204-4	의정부 205-3	양지 205-4
서울 204-2	성동 205-1	덕소 205-2

의 정 부

No.2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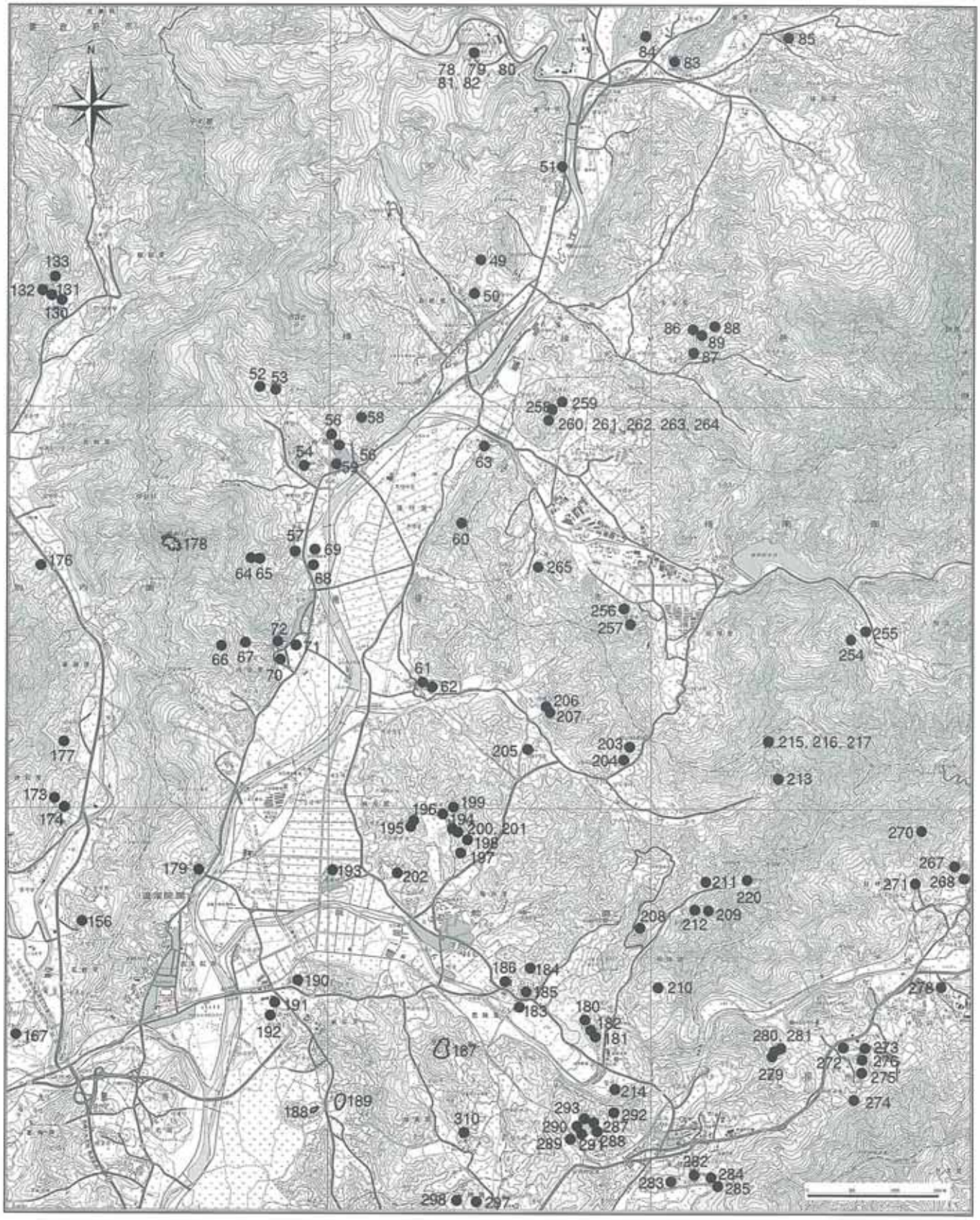
지도「의정부」유적 목록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122	남선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78	묘	조선	향토유적 제7호
123	남병철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124	남상길 묘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125	남용익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126	이홍술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90	신도비	조선	
127	남양주 청학리 은행나무	별내면 청학리 204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1
128	내원암 석불입상	별내면 청학리 578	석불	조선	
129	내원암 석조	별내면 청학리 578	석조	조선	
134	덕흥대원군 이초 묘 및 신도비	별내면 덕송리 산5-13	묘	조선	기념물 제55호
135	덕흥사	별내면 덕송리 339	사묘	조선	
136	하원군 이정 묘 및 신도비	별내면 덕송리 산5	묘	조선	
137	덕릉마을 산신각	별내면 덕송리 산5-126	기타목조물(산신각)	조선	민속자료 제9호
138	순빈김씨 묘	별내면 덕송리 산1-1	묘	조선	
139	순화군 이보 묘	별내면 덕송리 산1-1	묘	조선	
140	안홍량 묘	별내면 덕송리 산49-4	묘	조선	
141	남양주 덕송리 느티나무	별내면 덕송리 339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9
142	흥국사 대웅보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문화재자료 제56호
143	흥국사 영산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144	흥국사 만월보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145	흥국사 시왕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146	흥국사 성임당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147	흥국사 만월보전 뒷편 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148	흥국사 석종형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149	흥국사 범종각 내 법고,목어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150	흥국사 석조	별내면 덕송리 331	석조	조선	
151	흥국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152	흥국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별내면 덕송리 331	석불	조선	
153	흥국사 소조16나한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154	흥국사 목조시왕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155	남양주 덕송리 상수리나무	별내면 덕송리 산51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0
157	남을번 묘	별내면 화접리 282-1	묘	조선	
158	남재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282-1	묘	조선	향토유적 제5호
159	충경사	별내면 화접리 282-2	사묘	조선	
160	남치욱 묘	별내면 화접리 30-3	묘	조선	
161	남언순 묘	별내면 화접리 30-3	묘	조선	
162	김광서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163	김기명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164	김유악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165	김흔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166	연주현씨 묘역	별내면 화접리 산34-1	묘	조선	
168	윤천뢰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산58-1	묘	조선	
169	윤지청 묘 및 묘갈	별내면 화접리 산58-1	묘	조선	
170	불암산성	별내면 화접리 산97	성	삼국	
171	불암사 사적비	별내면 화접리 797	기념비	조선	
172	국사봉보루	별내면 광전리 산92	성	삼국	
218	봉인사 부도암사리탑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	부도	조선	보물 제928호
219	봉인사 사리탑 중수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	기타비	조선	

덕정 221-1	송우 221-2	연하 222-1
의정부 205-3	양지 205-4	마석 206-3
성동 205-1	덕소 205-2	양수 206-1

양 지

No.205-4



지도「양지」유적 목록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49	영빈김씨 묘	진접읍 장현리 산175	능·원	조선	사적 제367호
50	외솔 최현배 묘	진접읍 장현리 산175	묘	현대	
51	남양주 장현리 3.1운동기념비	진접읍 장현리 20	기념비	현대	
52	순강원	진접읍 내각리 150	능.원	조선	사적 제356호
53	의창군 이광 묘 및 신도비	진접읍 내각리 150	묘	조선	
54	풍양궁지(구궐지)	진접읍 내각리 723-21	궁	조선	
55	완원군 이유명 묘	진접읍 내각리 산8-9	묘	조선	
56	함릉군 이직 묘	진접읍 내각리 산8-9	묘	조선	
57	현창지	진접읍 내각리 483	기타유적	조선	
58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진접읍 내각리 산24	기타목조물(산신당)	현대	
59	남양주 내각리 느티나무	진접읍 내각리 285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2
60	대이산봉수	진접읍 연평리 산32-1	봉수	고려	
61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1	진접읍 연평리 산44	기타유적(노거수)	고려	남양주-9
62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2	진접읍 연평리 산408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3
6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진접읍 연평리 160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4
64	홍주국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71	묘	조선	
65	홍만적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71	묘	조선	
66	이민보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49-3	묘	조선	
67	영지동비	진접읍 내곡리 308	기타비	조선	
68	태극정	진접읍 내곡리 474	정자	조선	
69	쌍수역	진접읍 내곡리 473	기타유적(역)	조선	
70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1	진접읍 내곡리 132-10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5
71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2	진접읍 내곡리 363-25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6
72	여경구가옥	진접읍 내곡리 286	고가	조선	민속자료 제129호
73	광릉	진접읍 부평리 산100-1	능.원	조선	사적 제197호
78	봉선사 대종	진접읍 부평리 255	기타유적(동종)	조선	보물 제397호
79	봉선사 하마비	진접읍 부평리 225	기타비(하마비)	조선	
80	봉선사 당간지주	진접읍 부평리 225	당간지주	조선	
81	봉선사 보운당부도	진접읍 부평리 225	부도	조선	
82	남양주 부평리 느티나무	진접읍 부평리 255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1
83	임중선 묘 및 묘갈	진접읍 팔야리 산88	묘	조선	
84	유순 묘 및 묘갈	진접읍 팔야리 산10	묘	조선	
85	남양주 팔야리 느티나무	진접읍 팔야리 160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0
86	한상경 묘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87	한상경 사당	진접읍 금곡리 789	사묘	조선	
88	한혜 묘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89	한계순 묘 및 묘갈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130	이곤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131	이종인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132	이반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133	송은 정충환 묘	별내면 용암리 산26-1	묘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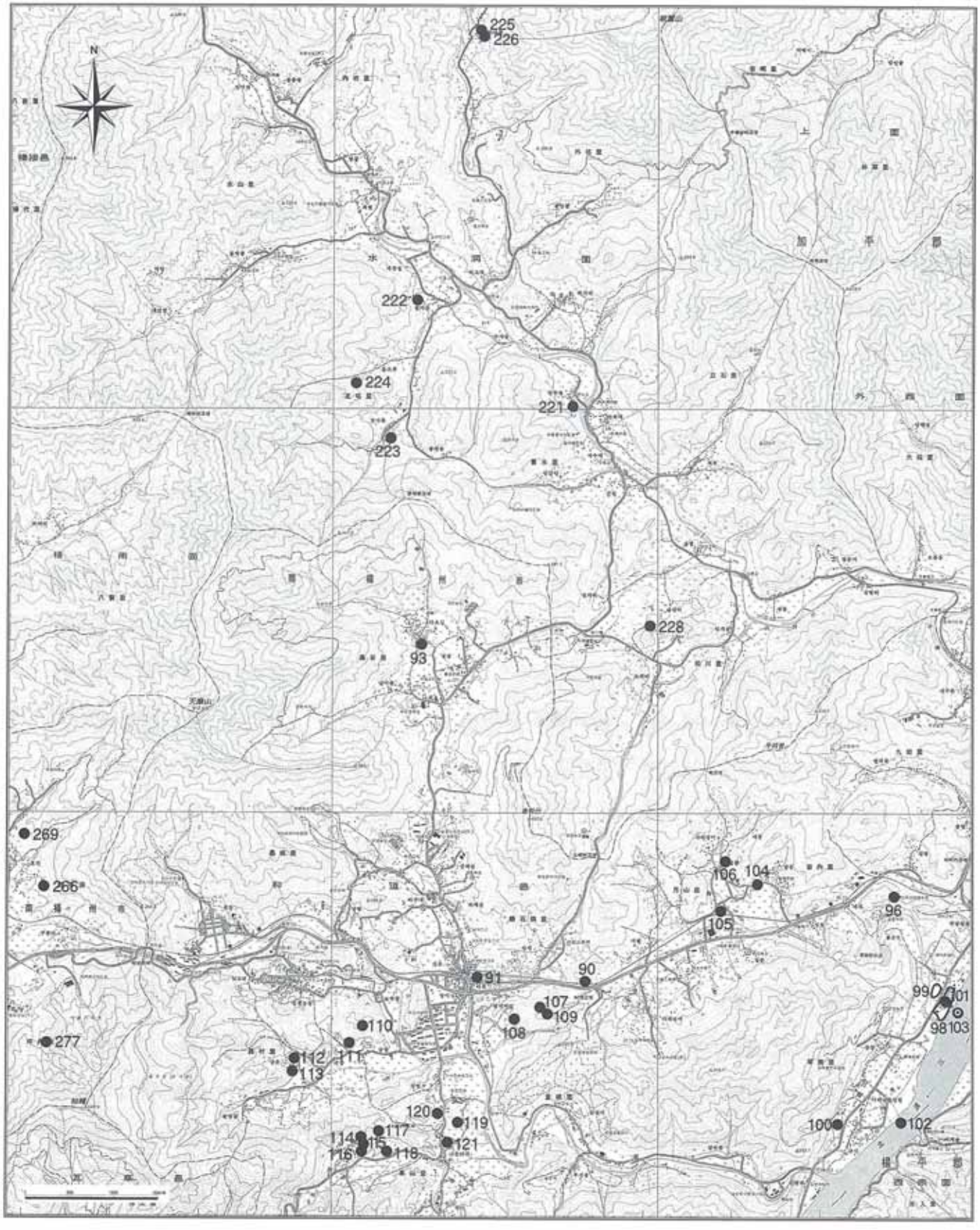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156	한효원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산11-1	묘	조선	
167	김효원 묘 및 묘갈	별내면 화접리 산24-4	묘	조선	
173	견성군 이돈 묘	별내면 광전리 산153-5	묘	조선	
174	선성군 이흠 묘 및 묘갈	별내면 광전리 산153-5	묘	조선	
175	보성군 이용 묘 및 신도비	별내면 광전리	묘	조선	
176	보청재	별내면 광전리	기타목조물(재실)	조선	
177	변사겸 묘	별내면 광전리 산141-2	묘	조선	
178	퇴뫼산성	별내면 광전리 산28-1	성	조선	
179	남양주 퇴계원리 느티나무	퇴계원면 퇴계원리 6-3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41
180	사릉	진건면 사릉리 산65-1	능.원	조선	사적 제209호
181	정효준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사릉리 산65-1	묘	조선	
182	정미수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사릉리 산65-1	묘	조선	
183	해평사	진건면 사릉리 149	사묘	조선	
184	조정구 묘	진건면 사릉리 산47	묘	근대	
185	이팡수은거지	진건면 사릉리 520-2	기타유적	근대	
186	남양주 사릉리 느티나무	진건면 사릉리 250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47
187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진건면 배양리 산73-8	유물산포지	청동기	
188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진건면 진관리 302-3	유물산포지	청동기	
189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진건면 진관리 산118-1	유물산포지	청동기	
190	충목사	진건면 진관리 산53	사묘	현대	
191	효간사	진건면 진관리 414-3	사묘	조선	
192	남양주 진관리 느티나무	진건면 진관리 568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48
193	남양주 신월리 느티나무	진건면 신월리 496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46
194	익현군 이연 묘	진건면 용정리 637	묘	조선	
195	이덕강과 정순공주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9-2	묘	조선	
196	이계린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9-2	묘	조선	
197	변안렬 묘 및 묘표	진건면 용정리 산197	묘	조선	
198	변현 묘	진건면 용정리 702	묘	조선	
199	변이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0	묘	조선	
200	변상복 묘	진건면 용정리 산198	묘	조선	
201	추원재	진건면 용정리 700	기타목조물(재실)	조선	
202	김종 묘	진건면 용정리 산47	묘	조선	
203	최청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용정리 산83	묘	조선	
204	모송재	진건면 용정리 550	기타목조물(재실)	조선	
205	홍익한원배 능성구씨 묘	진건면 용정리 산22-4	묘	조선	
206	이화영 묘	진건면 용정리 산16	묘	조선	
207	청해재	진건면 용정리 130-1	기타목조물(재실)	현대	
208	광해군 묘	진건면 송능리 산59	능.원	조선	사적 제363호
209	성묘	진건면 송능리 산55	능.원	조선	사적 제365호
210	안빈이씨 묘	진건면 송능리 산66	능.원	조선	사적 제366호
211	임해군 이진 묘	진건면 송능리 산56	묘	조선	
212	조맹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송능리 산55	묘	조선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213	조상우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송능리 산1	묘	조선	
214	남양주 송능리 느티나무	진건면 송능리 535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49
215	견성암 대웅전	진건면 송능리 3	사찰	조선	
216	견성암 수양굴	진건면 송능리 3	기타유적	고려	
217	견성암 석조약사여래좌상	진건면 송능리 3	석불	조선	
220	봉인사 풍암취우대사비	진건면 송능리 307	기타비	조선	
254	하자종 묘 및 묘갈	오남면 괄현리 산101	묘	조선	
255	발현재	오남면 괄현리 297-1	기타목조물(재실)	현대	
256	남양주 오남리 향나무	오남면 오남리 661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8
257	남양주 오남리 느티나무	오남면 오남리 650-3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9
258	심선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259	망세정	오남면 양지리 산2	정자	조선	
260	심안인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261	심빈 묘 및 송장비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262	심광문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263	심광언 묘 및 신도비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264	심금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265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오남면 양지리 535-1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천연기념물 제232호
271	남양주 호평동 느티나무	호평동 453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5
272	궁집	평내동 426-1	고가	조선	민속자료 제130호
273	능성위 구민화와 화길옹주 묘	평내동 산24	묘	조선	
274	남양주 평내동 산제당	평내동 산21	기타목조물	현대	
275	남양주 평내동 김식순가 터주가리	평내동 404	기타유적	조선	
276	남양주 평내동 느티나무	평내동 416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
277	의안대군 이화 묘	평내동 산97-1	묘	조선	
278	의안대군 이화 사당	평내동 151	사묘	조선	향토유적 제4호
279	목세칭 묘	평내동 산9	묘	조선	
280	목첨 묘	평내동 산9	묘	조선	
281	목장흠 묘 및 신도비	평내동 산9	묘	조선	
282	홍릉	금곡동 141-1	능.원	조선	사적 제207호
283	유릉	금곡동 141-1	능.원	조선	사적 제207호
284	영원	금곡동 141	능.원	조선	
285	덕혜옹주 묘	금곡동 141	능.원	조선	
286	남양주 금곡동 느티나무	금곡동 508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4
287	구수영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288	구희경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289	구순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290	구사맹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291	구굉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292	구인기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87	묘	조선	
293	구일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송우 221-2	연하 222-1	삼천 222-2
양지 205-4	마석 206-3	청평 206-4
덕소 205-2	양수 206-1	국수 206-2

마 석

No.2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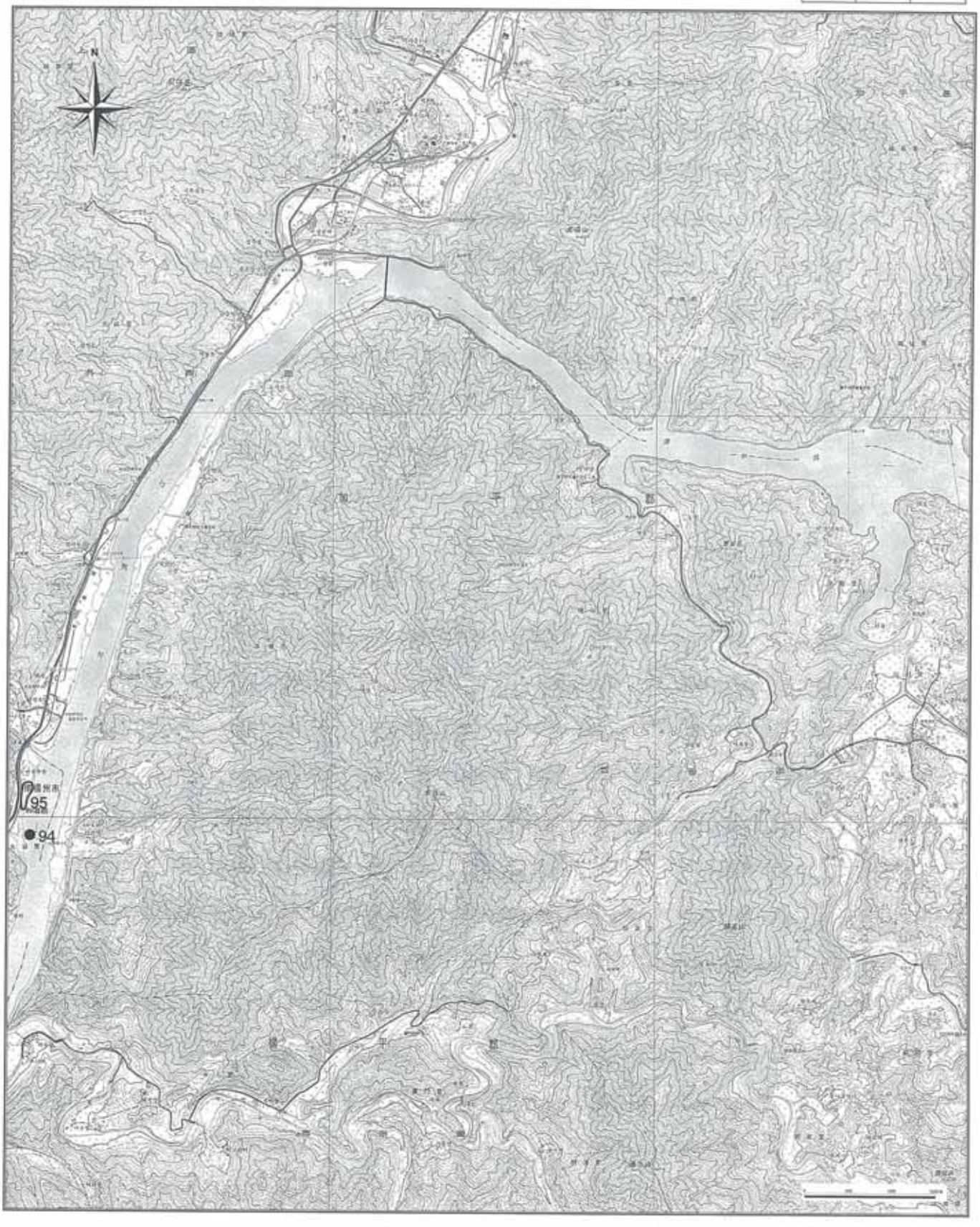
지도「마석」유적 목록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90	화도면민 독립기념비	화도읍 마석우리 산9-1	기념비	현대	
91	순국선열추념비	화도읍 마석우리 292-17	기타비(추념비)	현대	
92	묵현리원지	화도읍 묵현리 367-5	기타유적(원)	조선	
93	남양주 가곡리 느티나무	화도읍 가곡리 257-31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1
96	인촌 김성수 묘	화도읍 구암리 산102-3	묘	현대	
98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화도읍 금남리 181-1	유물산포지	청동기	
99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화도읍 금남리 209-5	유물산포지	청동기	
100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1	화도읍 금남리 511-7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2
101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2	화도읍 금남리 207-1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3
102	금남리 내미연나루터	화도읍 금남리	기타유적(나루터)	조선	
103	금남리나루터	화도읍 금남리	기타유적(나루터)	조선	
104	남양주 답내리 느티나무	화도읍 답내리 439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4
105	남양주 월산리 3.1운동기념비	화도읍 월산리 490	기념비	현대	
106	남양주 월산리 느티나무	화도읍 월산리 458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6
107	홍원	화도읍 창현리 산22-2	능.원	조선	기념물 제48호
108	영선군 이준용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창현리 산22-2	묘	조선	
109	이재면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창현리 산22-2	묘	조선	
110	의안군 이성 묘	화도읍 녹촌리 산14-3	묘	조선	
111	능원대군 이보 묘 및 신도비	화도읍 녹촌리 192	묘	조선	향토유적 제3호
112	남양주 녹촌리 느티나무	화도읍 녹촌리 327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7
113	남양주 녹촌리 향나무	화도읍 녹촌리 334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8
114	유성증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115	유황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116	유철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117	유강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116	묘	조선	
118	박호현처기계유씨정문	화도읍 차산리 산27	충효비(정문)	조선	
119	유수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42-1	묘	조선	
120	이순지 묘	화도읍 차산리 산5	묘	조선	문화재자료 제54호
121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	화도읍 차산리 156-17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5
221	남양주 운수리 느티나무	수동면 운수리 325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44
222	남양주 지둔리 지석묘군	수동면 지둔리 295-1	선사분묘(지석묘)	청동기	
223	남양주 지둔리 시무나무	수동면 지둔리 416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42
224	남양주 지둔리 소나무	수동면 지둔리 527-1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45
225	남양주 외방리 소나무	수동면 외방리 182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43
226	남양주 외방리 은행나무	수동면 외방리 177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50
228	이유원 묘	수동면 송천리 산90-2	묘	조선	
266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1	호평동 산5-32	기타목조물(산신당)	현대	
267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호평동 산54	기타목조물(산신당)	현대	
268	남양주 호평동 김춘수가 터주가리	호평동 251	기타유적(터주가리)	조선	
269	남양주 호평동 김진택가 성주단지	호평동 396	기타유적(성주단지)	조선	
270	남양주 호평동 산제당	호평동 산49-1	기타목조물(산제당)	현대	

청 평

연하 222-1	상천 222-2	가평 223-1
마석 206-3	청평 206-4	모곡 207-3
양수 206-1	국수 206-2	신점 207-1

No.2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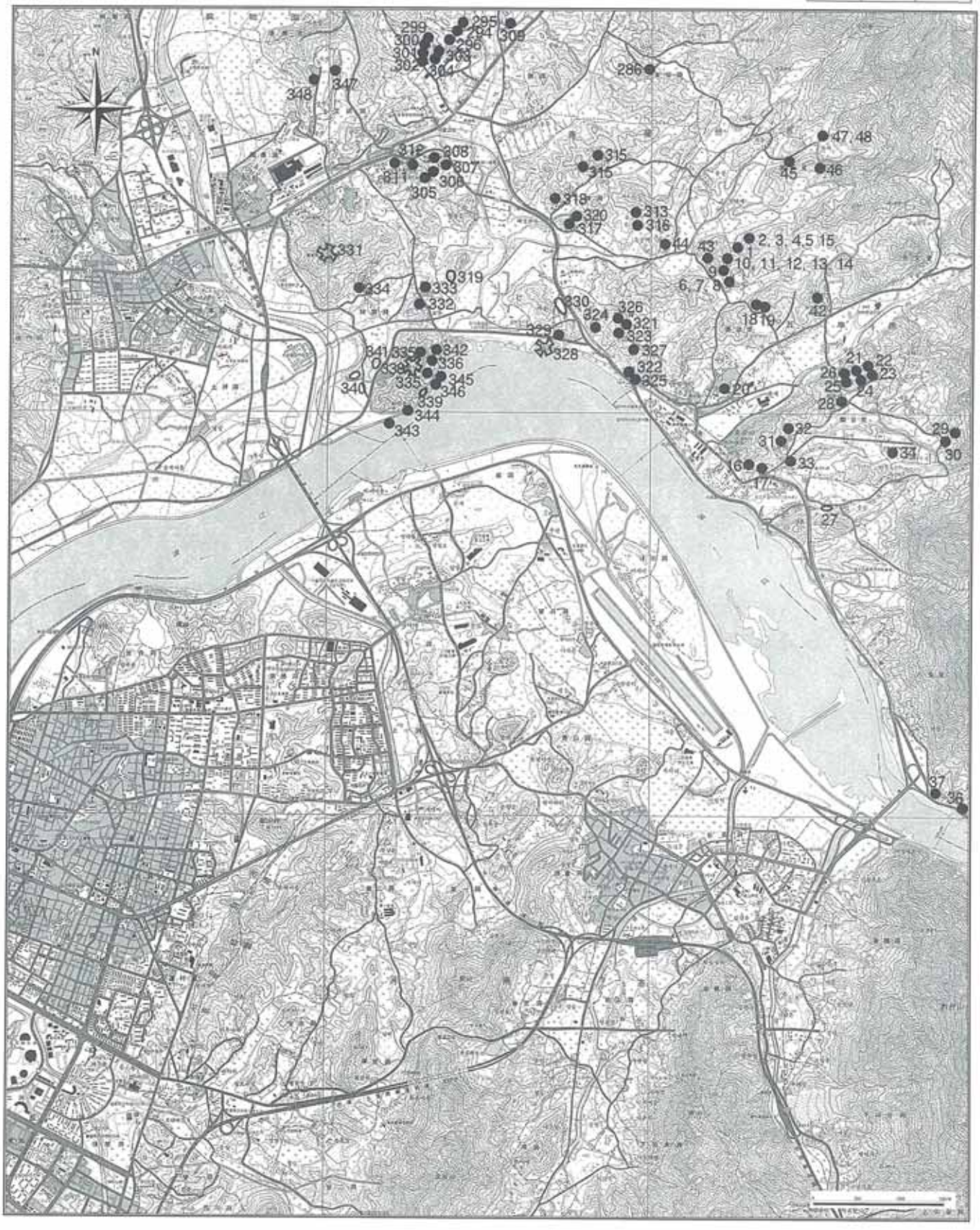
지도「청평」유적 목록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94	사기막나루터	화도읍 구암리 585	기타유적(나루터)	조선	청평 206-4
95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화도읍 구암리 173-2	유물산포지	청동기	청평 206-4

의정부 205-3	양지 205-4	마석 206-3
성동 205-1	덕소 205-2	양수 206-1
둔전 190-3	성남 190-4	광주 191-3

덕 소

No.205-2



지도「덕소」유적 목록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1	김번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2	김생해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3	김극효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4	김상헌 묘 및 묘비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5	김광찬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6	김상용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덕소리 산6	묘	조선	기념물 제99호
7	김상용 충효문	와부읍 덕소리 산6	기타유적	현대	
8	김수증 묘	와부읍 덕소리 산6	묘	조선	
9	김창협 묘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10	송백당 유허비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11	취석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12	석실서원 묘정비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13	도산석실려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14	고송오류문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15	도산정사	와부읍 덕소리 산5	사묘	조선	
16	이맹현 묘	와부읍 덕소리 산45-1	묘	조선	기념물 제114호
17	대산재	와부읍 덕소리	기타목조물	조선	
18	김세민 묘	와부읍 덕소리 산39-6	묘	조선	
19	김겸 묘	와부읍 덕소리 산39-6	묘	조선	
20	남양주 덕소리 느티나무	와부읍 덕소리 424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2
21	박원종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향토유적 제6호
22	세덕사	와부읍 도곡리 819-1	사묘	조선	
23	도산재	와부읍 도곡리 819-2	기타목조물(재실)	현대	
24	박운 묘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25	박중선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26	박가홍 묘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27	박원종 정자터	와부읍 도곡리 570	정자	조선	
28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와부읍 도곡리 산32-4	유물산포지	조선	
29	흥완군 이정응 묘	와부읍 도곡리 산97-1	묘	조선	
30	백조 이해선 묘 및 추모비	와부읍 도곡리 산97-1	묘	조선	
31	신빈신씨 묘	와부읍 도곡리 산13	능 · 원	조선	
32	이인교 효자정문	와부읍 도곡리 964-2	충효비(정문)	조선	
33	반공투사 배순동 충혼비	와부읍 도곡리 978	기념비	현대	
34	이세백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73	묘	조선	
37	미제25사단한강도하기념비	와부읍 광당리 347-2	기념비	현대	
42	남양주 월문리 향나무	와부읍 월문리 산323-3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7
43	김상준 묘 및 신도비	와부읍 율석리 산45	묘	조선	
44	김수흥 묘	와부읍 율석리 831-7	묘	조선	
45	김홍복 묘 및 묘갈	와부읍 율석리 산193-3	묘	조선	
46	남양주 율석리 느티나무	와부읍 율석리 519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3
47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1	와부읍 율석리 485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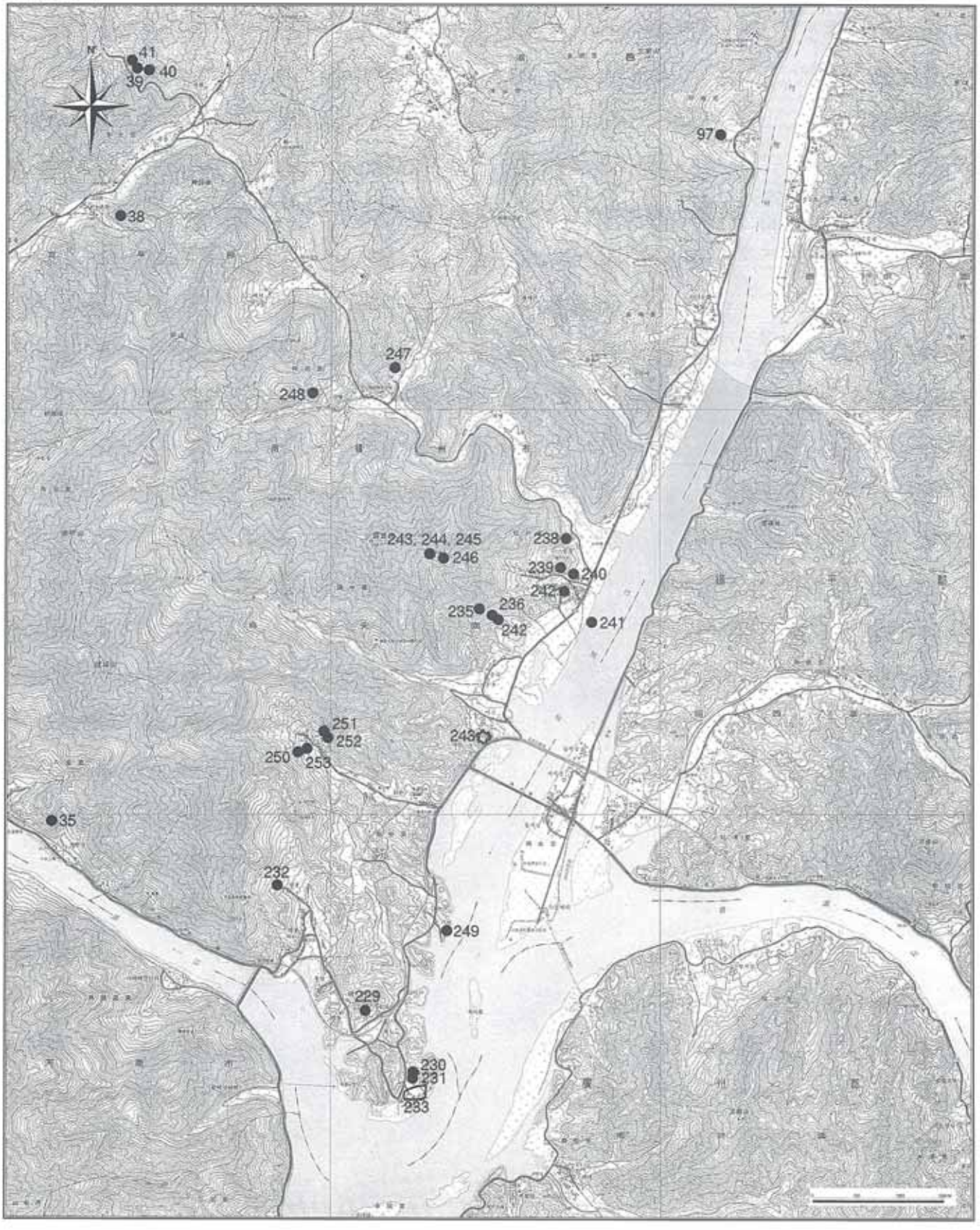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48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2	와부읍 율석리 485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5
294	계양군별묘 및 이선영효자정문	일패동 산658-3	충효비(정문)	조선	
295	계양군이증배정선군부인 한씨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296	부림군 이식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297	영원군 이예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298	이응기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299	전성군 이변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300	광천군 이수기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301	평산군 이숙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302	선성군 이신윤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303	평해군 이담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304	영산군 이예윤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305	민제인 묘 및 신도비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306	민사용 묘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307	민여준 묘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308	민광훈 묘 및 신도비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309	이민승 묘	일패동 산34-3	묘	조선	
310	구성 묘	일패동 309-2	묘	조선	
311	해병대북한강지구전첩비	일패동 산73-8	기념비	현대	
312	현충탑	일패동 산73-8	기타비	현대	
313	김수항 묘 및 묘갈	이패동 산11	묘	조선	
314	김한구 묘 및 묘갈	이패동 산43	묘	조선	
315	변계윤 묘	이패동 46	묘	조선	
316	이의진 묘	이패동 산10-9	묘	조선	
317	이의현 묘 및 묘갈	이패동 산28-9	묘	조선	
318	삼정각	이패동 342-1	충효비	조선	
319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이패동 산10-2	유물산포지	청동기	
320	남양주 이패동 은행나무	이패동 375-5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8
321	김육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2-2	묘	조선	향토유적 제2호
322	김식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29-1	묘	조선	
323	김좌명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2-2	묘	조선	
324	김성응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1-1	묘	조선	
325	김권 묘	삼패동 산29-1	묘	조선	
326	김윤식 묘	삼패동 산41-1	묘	조선	
327	김시묵 묘	삼패동 산29-1	묘	조선	
328	역촌토성	삼패동 37-2	성		
329	평구역	삼패동 365-5	기타유적(역)	조선	
330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삼패동 306	유물산포지	청동기	
331	안산보루	가운동 산50-1	성	삼국	
332	가운동 지석묘	가운동 산17-2	선사분묘	청동기	문화재자료 제80호
333	정사룡 묘	가운동 산26	묘	조선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334	남양주 가운동 음나무	가운동 산37-1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51
335	조말생 묘 및 묘비,신도비	수석동 산2-1	묘	조선	향토유적 제8호
336	영모재	수석동 산2-1	기타목조물(재실)	현대	
337	조무강 묘	수석동 산2-1	묘	조선	
338	수석동 토성	수석동 산2-2	성	삼국	기념물 제94호
339	남양주 수석동 선사유적	수석동	선사유적	청동기	
340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수석동 324-1	유물산포지	청동기	
341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수석동 353-3	유물산포지	신석기	
342	석실서원지	수석동 산2-2	서원	조선	
343	미음나루터	수석동	기타유적(나루터)	조선	
344	남양주 수석동 은행나무	수석동 산7-1임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
345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1	수석동 442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
346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2	수석동 442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7
347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지금동 산33-5	유물산포지	청동기	
348	남양주 지금동 느티나무	지금동 337-1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6

양 수

양지 205-4	마석 206-3	청평 206-4
덕소 205-2	양수 206-1	국수 206-2
성남 190-4	광주 191-3	양평 191-4

No.206-1



지도「양수」유적 목록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 대	비 고
35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	와부읍 팔당리 산147-2	기타목조물(산신각)	현대	
36	남양주 팔당리 오종섭가 터주가리	와부읍 팔당리 258	기타유적	조선	
38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	와부읍 월문리 산32-1	기타목조물	현대	
39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와부읍 월문리 222	석탑	조선	향토유적 제1호
40	묘적사 활터	와부읍 월문리 222	기타유적	조선	
41	남양주 월문리 보리수	와부읍 월문리 222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36
97	이춘원 묘 및 신도비	화도읍 금남리 산56-9	묘	조선	
229	한확 묘 및 신도비	조안면 능내리 산69-5	묘	조선	유형문화재 제127호
230	정약용 묘	조안면 능내리 산75-1	묘	조선	기념물 제7호
231	여유당	조안면 능내리	기타목조물	조선	
232	남양주 능내리 느티나무	조안면 능내리 767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8
233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조안면 능내리	유물산포지	청동기	
234	마진산성	조안면 진중리 산5-1	성	조선	
235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조안면 진중리 산1-1	고분	삼국	
236	변협 묘	조안면 송촌리 산26-4	묘	조선	
237	변응성 묘	조안면 송촌리 산26-4	묘	조선	
238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조안면 송촌리 635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9
239	이덕형 별서지	조안면 송촌리 775	기타유적	조선	
240	관가정지	조안면 송촌리 779	정자	조선	
241	용진나루터	조안면 송촌리 216	기타유적(나루터)	조선	
242	3.1의거애국선열추념탑	조안면 송촌리	기타비	현대	
243	수종사 부도	조안면 송촌리 1060	부도	조선	유형문화재 제157호
244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조안면 송촌리 1060	석탑	조선	유형문화재 제22호
245	수종사 소탑	조안면 송촌리 1060	석탑	조선	
246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조안면 송촌리 산26-22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17
247	유량 묘	조안면 시우리 산26	묘	조선	기념물 제78호
248	남양주 시우리 산제당	조안면 시우리	기타목조물(산제당)	현대	
249	남양주 조안리 도당집	조안면 조안리 248	기타목조물(도당집)	현대	
250	남양주 조안리 당집	조안면 조안리	기타목조물(당집)	조선	
251	남양주 조안리 박치홍가 터주가리	조안면 조안리 41	기타유적(터주가리)	조선	
252	남양주 조안리 박광덕가 터주가리	조안면 조안리	기타유적(터주가리)	조선	
253	남양주 조안리 느티나무	조안면 조안리 937	기타유적(노거수)	조선	남양주-20

Ⅴ. 부록

1. 통계표

1) 지역별 통계표

2) 시대별 통계표

2. 유적 목록

1) 지역별 목록

2) 시대별 목록

3) 종류별 목록

4) 지정문화재 목록



1. 통 계 표

1) 지역별 통계표

면,동 / 종류	와부	진접	화도	별내	퇴계원	진건	수동	조안	오남	호평	평내	금곡	양정	지금	계
성, 보루				3				1					1	2	7
봉수		1													1
궁		1													1
사찰				4		1									5
석불				2		1									3
석탑	1							2							3
부도		1		3				1							5
당간지주		1													1
석조				2											2
신도비				1											1
기념비	2	1	2	1									1		7
충효비	1		1										2		4
기타비	5	2	1			1	1	1					1		12
서원														1	1
정, 각	1	1						1	1						4
사묘	2	1		2		3					1				9
능, 원	1	4	1			4						4			14
고분								1							1
묘	21	15	12	30		17	1	5	7		5	7	28	3	151
선사분묘							1							1	2
선사유적														1	1
고가		1									1				2
기타목조물	4	1		2		3		4	1	3	1			1	20
기타유적	9	11	12	7	1	6	5	8	3	3	2	1	2	6	76
유물산포지	1		3			3		1					2	3	13
계	48	41	32	57	1	39	8	25	12	6	10	12	37	18	346

* 관외 소재 문화재 2점 포함 348개 유적

2) 시대별 통계표

종류 \ 면,동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	계
성, 보루		5		1	1	7
봉수			1			1
궁				1		1
사찰				5		5
석불				3		3
석탑				3		3
부도				6		6
당간지주				1		1
석조				2		2
신도비				1		1
기념비				1	6	7
충효비				4		4
기타비				9	4	13
서원				1		1
정, 각				4		4
사묘				8	1	9
능, 원				12		12
고분		1				1
묘				150	3	153
선사분묘	2					2
선사유적	1					1
고가				2		2
기타목조물				7	13	20
기타유적			2	72	2	76
유물산포지	12			1		13
계	15	6	3	294	30	348

2. 유 적 목 록

1) 지역별 목록

(1) 와부읍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	김번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2	김생해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3	김극효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4	김상헌 묘 및 묘비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100호
5	김광찬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6	김상용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덕소리 산6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99호
7	김상용 충효문	와부읍 덕소리 산6	기타유적	현대	덕소 205-2	
8	김수증 묘	와부읍 덕소리 산6	묘	조선	덕소 205-2	
9	김창협 묘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10	송백당 유허비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1	취석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2	석실서원 묘정비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3	도산석실려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4	고송오류문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5	도산정사	와부읍 덕소리 산5	사묘	조선	덕소 205-2	
16	이맹현 묘	와부읍 덕소리 산45-1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114호
17	대산재	와부읍 덕소리	기타목조물	조선	덕소 205-2	
18	김세민 묘	와부읍 덕소리 산39-6	묘	조선	덕소 205-2	
19	김겸 묘	와부읍 덕소리 산39-6	묘	조선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0	남양주 덕소리 느티나무	와부읍 덕소리 424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2
21	박원종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6호
22	세덕사	와부읍 도곡리 819-1	사묘	조선	덕소 205-2	
23	도산재	와부읍 도곡리 819-2	기타목조물	현대	덕소 205-2	
24	박운 묘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25	박중선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26	박가흥 묘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27	박원종 정자터	와부읍 도곡리 570	정자	조선	덕소 205-2	
28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와부읍 도곡리 산32-4	유물산포지	조선	덕소 205-2	
29	흥완군 이정응 묘	와부읍 도곡리 산97-1	묘	조선	덕소 205-2	
30	백조 이해선 묘 및 추모비	와부읍 도곡리 산97-1	묘	조선	덕소 205-2	
31	신빈신씨 묘	와부읍 도곡리 산13	능.원	조선	덕소 205-2	
32	이인교 효자정문	와부읍 도곡리 964-2	충효비	조선	덕소 205-2	
33	반공투사 배순동 충혼비	와부읍 도곡리 978	기념비	현대	덕소 205-2	
34	이세백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73	묘	조선	덕소 205-2	
35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	와부읍 팔당리 산147-2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36	남양주 팔당리 오종섭가 터주가리	와부읍 팔당리 258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37	미 제25사단 한강도하 기념비	와부읍 팔당리 347-2	기념비	현대	덕소 205-2	
38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	와부읍 월문리 산32-1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39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와부읍 월문리 222	석탑	조선	양수 206-1	향토유적 제1호
40	묘적사 활터	와부읍 월문리 222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41	남양주 월문리 보리수	와부읍 월문리 222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36
42	남양주 월문리 향나무	와부읍 월문리 산323-3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7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43	김상준 묘 및 신도비	와부읍 율석리 산45	묘	조선	덕소 205-2	
44	김수흥 묘	와부읍 율석리 831-7	묘	조선	덕소 205-2	
45	김홍복 묘 및 묘갈	와부읍 율석리 산193-3	묘	조선	덕소 205-2	
46	남양주 율석리 느티나무	와부읍 율석리 519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3
47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1	와부읍 율석리 48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4
48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2	와부읍 율석리 48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5

(2) 진접읍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49	영빈김씨 묘	진접읍 장현리 산175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7호
50	외솔 최현배 묘	진접읍 장현리 산175	묘	현대	양지 205-4	
51	남양주 장현리 3.1운동기념비	진접읍 장현리 20	기념비	현대	양지 205-4	
52	순강원	진접읍 내각리 150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56호
53	의창군 이광 묘 및 신도비	진접읍 내각리 150	묘	조선	양지 205-4	
54	풍양궁지(구궐지)	진접읍 내각리 723-21	궁	조선	양지 205-4	
55	완원군 이유명 묘	진접읍 내각리 산8-9	묘	조선	양지 205-4	
56	함릉군 이적 묘	진접읍 내각리 산8-9	묘	조선	양지 205-4	
57	현창지	진접읍 내각리 48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58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진접읍 내각리 산24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59	남양주 내각리 느티나무	진접읍 내각리 28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2
60	대이산봉수	진접읍 연평리 산32-1	봉수	고려	양지 205-4	
61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1	진접읍 연평리 산44	기타유적	고려	양지 205-4	남양주-9
62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2	진접읍 연평리 산408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3
6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진접읍 연평리 16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64	홍주국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71	묘	조선	양지 205-4	
65	홍만적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71	묘	조선	양지 205-4	
66	이민보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49-3	묘	조선	양지 205-4	
67	영지동비	진접읍 내곡리 308	기타비	조선	양지 205-4	
68	태극정	진접읍 내곡리 474	정자	조선	양지 205-4	
69	쌍수역	진접읍 내곡리 47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70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1	진접읍 내곡리 132-1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5
71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2	진접읍 내곡리 363-2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6
72	여경구가옥	진접읍 내곡리 286	고가	조선	양지 205-4	민속자료 제129호
73	광릉	진접읍 부평리 산100-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197호
74	휘경원	진접읍 부평리 267	능.원	조선	송우 221-2	사적 제360호
75	이단상 묘 및 신도비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송우 221-2	
76	이시원 묘 및 묘갈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송우 221-2	
77	이희조 묘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송우 221-2	
78	봉선사 대종	진접읍 부평리 25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보물 제397호
79	봉선사 하마비	진접읍 부평리 225	기타비	조선	양지 205-4	
80	봉선사 당간지주	진접읍 부평리 225	당간지주	조선	양지 205-4	
81	봉선사 보운당부도	진접읍 부평리 225	부도	조선	양지 205-4	
82	남양주 부평리 느티나무	진접읍 부평리 25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1
83	임중선 묘 및 묘갈	진접읍 팔야리 산88	묘	조선	양지 205-4	
84	유순 묘 및 묘갈	진접읍 팔야리 산10	묘	조선	송우 221-2	
85	남양주 팔야리 느티나무	진접읍 팔야리 16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0
86	한상경 묘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87	한상경 사당	진접읍 금곡리 789	사묘	조선	양지 205-4	
88	한혜 묘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양지 205-4	
89	한계순 묘 및 묘갈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양지 205-4	

(3) 화도읍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90	화도면민 독립기념비	화도읍 마석우리 산9-1	기념비	현대	마석 206-3	
91	순국선열추념비	화도읍 마석우리 292-17	기타비	현대	마석 206-3	
92	묵현리원지	화도읍 묵현리 367-5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93	남양주 가곡리 느티나무	화도읍 가곡리 257-3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1
94	사기막나루터	화도읍 구암리 585	기타유적	조선	청평 206-4	
95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화도읍 구암리 173-2	유물산포지	청동기	청평 206-4	
96	인촌 김성수 묘	화도읍 구암리 산102-3	묘	현대	마석 206-3	
97	이춘원 묘 및 신도비	화도읍 금남리 산56-9	묘	조선	양수 206-1	
98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화도읍 금남리 181-1	유물산포지	청동기	마석 206-3	
99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화도읍 금남리 209-5	유물산포지	청동기	마석 206-3	
100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1	화도읍 금남리 511-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2
101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2	화도읍 금남리 207-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3
102	금남리 내미연 나루터	화도읍 금남리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103	금남리나루터	화도읍 금남리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104	남양주 답내리 느티나무	화도읍 답내리 439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4
105	남양주 월산리 3.1운동기념비	화도읍 월산리 490	기념비	현대	마석 206-3	
106	남양주 월산리 느티나무	화도읍 월산리 458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6
107	흥원	화도읍 창현리 산22-2	능.원	조선	마석 206-3	기념물 제48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08	영선군 이준용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창현리 산22-2	묘	조선	마석 206-3	
109	이재면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창현리 산22-2	묘	조선	마석 206-3	
110	의안군 이성 묘	화도읍 녹촌리 산14-3	묘	조선	마석 206-3	
111	능원대군 이보 묘 및 신도비	화도읍 녹촌리 192	묘	조선	마석 206-3	향토유적 제3호
112	남양주 녹촌리 느티나무	화도읍 녹촌리 32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7
113	남양주 녹촌리 향나무	화도읍 녹촌리 334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8
114	유성증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마석 206-3	
115	유황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마석 206-3	
116	유철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마석 206-3	
117	유강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116	묘	조선	마석 206-3	
118	박호현처 기계유씨 정문	화도읍 차산리 산27	충효비	조선	마석 206-3	
119	유수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42-1	묘	조선	마석 206-3	
120	이순지 묘	화도읍 차산리 산5	묘	조선	마석 206-3	문화재자료 제54호
121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	화도읍 차산리 156-1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5

(4) 별내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22	남선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78	묘	조선	의정부 205-3	향토유적 제7호
123	남병철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의정부 205-3	
124	남상길 묘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의정부 205-3	
125	남용익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의정부 205-3	
126	이홍술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90	신도비	조선	의정부 205-3	
127	남양주 청학리 은행나무	별내면 청학리 204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남양주-31
128	내원암 석불입상	별내면 청학리 578	석불	조선	의정부 205-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29	내원암 석조	별내면 청학리 578	석조	조선	의정부 205-3	
130	이곤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양지 205-4	
131	이종인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양지 205-4	
132	이반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양지 205-4	
133	송은 정충환 묘	별내면 용암리 산26-1	묘	조선	양지 205-4	
134	덕흥대원군 이초 묘 및 신도비	별내면 덕송리 산5-13	묘	조선	의정부 205-3	기념물 제55호
135	덕흥사	별내면 덕송리 339	사묘	조선	의정부 205-3	
136	하원군 이정 묘 및 신도비	별내면 덕송리 산5	묘	조선	의정부 205-3	
137	덕릉마을 산신각	별내면 덕송리 산5-126	기타목조물	조선	의정부 205-3	민속자료 제9호
138	순빈김씨 묘	별내면 덕송리 산1-1	묘	조선	의정부 205-3	
139	순화군 이보 묘	별내면 덕송리 산1-1	묘	조선	의정부 205-3	
140	안흥량 묘	별내면 덕송리 산49-4	묘	조선	의정부 205-3	
141	남양주 덕송리 느티나무	별내면 덕송리 339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남양주-29
142	흥국사 대웅보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문화재자료 제56호
143	흥국사 영산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144	흥국사 만월보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145	흥국사 시왕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146	흥국사 성임당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의정부 205-3	
147	흥국사 만월보전 뒷편 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의정부 205-3	
148	흥국사 석종형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의정부 205-3	
149	흥국사 범종각 내 법고,목어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150	흥국사 석조	별내면 덕송리 331	석조	조선	의정부 205-3	
151	흥국사 목조 석가삼존불좌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52	흥국사 석조 약사여래좌상	별내면 덕송리 331	석불	조선	의정부 205-3	
153	흥국사 소조16나한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154	흥국사 목조시왕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155	남양주 덕송리 상수리나무	별내면 덕송리 산5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남양주-30
156	한효원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산11-1	묘	조선	양지 205-4	
157	남을번 묘	별내면 화접리 282-1	묘	조선	의정부 205-3	
158	남제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282-1	묘	조선	의정부 205-3	향토유적 제5호
159	충경사	별내면 화접리 282-2	사묘	조선	의정부 205-3	
160	남치욱 묘	별내면 화접리 30-3	묘	조선	의정부 205-3	
161	남언순 묘	별내면 화접리 30-3	묘	조선	의정부 205-3	
162	김광서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3	김기명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4	김유악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5	김흔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6	연주현씨 묘역	별내면 화접리 산34-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7	김효원 묘 및 묘갈	별내면 화접리 산24-4	묘	조선	양지 205-4	
168	윤천뢰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산58-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9	윤지형 묘 및 묘갈	별내면 화접리 산58-1	묘	조선	의정부 205-3	
170	불암산성	별내면 화접리 산97	성	삼국	의정부 205-3	
171	불암사 사적비	별내면 화접리 797	기념비	조선	의정부 205-3	
172	국사봉보루	별내면 광전리 산92	성	삼국	의정부 205-3	
173	견성군 이돈 묘	별내면 광전리 산153-5	묘	조선	양지 205-4	
174	선성군 이흉 묘 및 묘갈	별내면 광전리 산153-5	묘	조선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75	보성군 이용 묘 및 신도비	별내면 광전리	묘	조선	양지 205-4	
176	보청재	별내면 광전리	기타목조물	조선	양지 205-4	
177	변사겸 묘	별내면 광전리 산141-2	묘	조선	양지 205-4	
178	퇴뫼산성	별내면 광전리 산28-1	성	삼국	양지 205-4	

(5) 퇴계원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79	남양주 퇴계원리 느티나무	퇴계원면 퇴계원리 6-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1

(6) 진건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80	사릉	진건면 사릉리 산65-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9호
181	정효준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사릉리 산65-1	묘	조선	양지 205-4	
182	정미수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사릉리 산65-1	묘	조선	양지 205-4	
183	해평사	진건면 사릉리 149	사묘	조선	양지 205-4	
184	조정구 묘	진건면 사릉리 산47	묘	근대	양지 205-4	
185	이광수은거지	진건면 사릉리 520-2	기타유적	근대	양지 205-4	
186	남양주 사릉리 느티나무	진건면 사릉리 25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7
187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진건면 배양리 산73-8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지 205-4	
188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진건면 진관리 302-3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지 205-4	
189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진건면 진관리 산118-1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지 205-4	
190	충목사	진건면 진관리 산53	사묘	현대	양지 205-4	
191	효간사	진건면 진관리 414-3	사묘	조선	양지 205-4	
192	남양주 진관리 느티나무	진건면 진관리 568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8
193	남양주 신월리 느티나무	진건면 신월리 496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6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94	익현군 이연 묘	진건면 용정리 637	묘	조선	양지 205-4	
195	이덕강과 정순공주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9-2	묘	조선	양지 205-4	
196	이계린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9-2	묘	조선	양지 205-4	
197	변안렬 묘 및 묘표	진건면 용정리 산197	묘	조선	양지 205-4	
198	변현 묘	진건면 용정리 702	묘	조선	양지 205-4	
199	변이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0	묘	조선	양지 205-4	
200	변상복 묘	진건면 용정리 산198	묘	조선	양지 205-4	
201	추원재	진건면 용정리 700	기타목조물	조선	양지 205-4	
202	김종 묘	진건면 용정리 산47	묘	조선	양지 205-4	
203	최청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용정리 산83	묘	조선	양지 205-4	
204	모송재	진건면 용정리 550	기타목조물	조선	양지 205-4	
205	홍익한원배 능성구씨 묘	진건면 용정리 산22-4	묘	조선	양지 205-4	
206	이화영 묘	진건면 용정리 산16	묘	조선	양지 205-4	
207	청해재	진건면 용정리 130-1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208	광해군 묘	진건면 송능리 산59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3호
209	성묘	진건면 송능리 산55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5호
210	안빈이씨 묘	진건면 송능리 산66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6호
211	임해군 이진 묘	진건면 송능리 산56	묘	조선	양지 205-4	
212	조맹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송능리 산55	묘	조선	양지 205-4	
213	조상우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송능리 산1	묘	조선	양지 205-4	
214	남양주 송능리 느티나무	진건면 송능리 53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9
215	견성암 대웅전	진건면 송능리 3	사찰	조선	양지 205-4	
216	견성암 수양굴	진건면 송능리 3	기타유적	고려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17	견성암 석조약사여래좌상	진건면 송능리 3	석불	조선	양지 205-4	
220	봉인사 풍암취우대사비	진건면 송능리 307	기타비	조선	양지 205-4	

(7) 수동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21	남양주 운수리 느티나무	수동면 운수리 325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4
222	남양주 지둔리 지석묘군	수동면 지둔리 295-1	선사분묘	청동기	마석 206-3	
223	남양주 지둔리 시무나무	수동면 지둔리 416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2
224	남양주 지둔리 소나무	수동면 지둔리 527-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5
225	남양주 외방리 소나무	수동면 외방리 182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3
226	남양주 외방리 은행나무	수동면 외방리 17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50
227	반공희생자 합동위령비	수동면 내방리 251-2	기타비	현대	연하 222-1	
228	이유원 묘	수동면 송천리 산90-2	묘	조선	마석 206-3	

(8) 조안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29	한확 묘 및 신도비	조안면 능내리 산69-5	묘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127호
230	정약용 묘	조안면 능내리 산75-1	묘	조선	양수 206-1	기념물 제7호
231	여유당	조안면 능내리	기타목조물	조선	양수 206-1	
232	남양주 능내리 느티나무	조안면 능내리 767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18
233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조안면 능내리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수 206-1	
234	마진산성	조안면 진중리 산5-1	성	조선	양수 206-1	
235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조안면 진중리 산1-1	고분	삼국	양수 206-1	
236	변협 묘	조안면 송촌리 산26-4	묘	조선	양수 206-1	
237	변응성 묘	조안면 송촌리 산26-4	묘	조선	양수 206-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38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조안면 송촌리 635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19
239	이덕형 별서지	조안면 송촌리 775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40	관가정지	조안면 송촌리 779	정자	조선	양수 206-1	
241	용진나루터	조안면 송촌리 216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42	3.1의거애국선열 추념탑	조안면 송촌리	기타비	현대	양수 206-1	
243	수종사 부도	조안면 송촌리 1060	부도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157호
244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조안면 송촌리 1060	석탑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22호
245	수종사 소탑	조안면 송촌리 1060	석탑	조선	양수 206-1	
246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조안면 송촌리 산26-22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17
247	유량 묘	조안면 시우리 산26	묘	조선	양수 206-1	기념물 제78호
248	남양주 시우리 산제당	조안면 시우리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249	남양주 조안리 도당집	조안면 조안리 248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250	남양주 조안리 당집	조안면 조안리	기타목조물	조선	양수 206-1	
251	남양주 조안리 박치흥가 터주가리	조안면 조안리 41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52	남양주 조안리 박광덕가 터주가리	조안면 조안리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53	남양주 조안리 느티나무	조안면 조안리 937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20

(9) 오남면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54	하자종 묘 및 묘갈	오남면 팔현리 산101	묘	조선	양지 205-4	
255	발현재	오남면 팔현리 297-1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256	남양주 오남리 향나무	오남면 오남리 661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38
257	남양주 오남리 느티나무	오남면 오남리 650-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39
258	심선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59	망세정	오남면 양지리 산2	정자	조선	양지 205-4	
260	심안인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1	심빈 묘 및 송장비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2	심광문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3	심광언 묘 및 신도비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4	심금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5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오남면 양지리 535-1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천연기념물 제232호

(10) 호평동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66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1	호평동 산5-32	기타목조물	현대	마석 206-3	
267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호평동 산54	기타목조물	현대	마석 206-3	
268	남양주 호평동 김춘수가 터주가리	호평동 25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269	남양주 호평동 김진택가 성주단지	호평동 396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270	남양주 호평동 산제당	호평동 산49-1	기타목조물	현대	마석 206-3	
271	남양주 호평동 느티나무	호평동 45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5

(11) 평내동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72	궁집	평내동 426-1	고가	조선	양지 205-4	민속자료 제130호
273	능성위 구민화와 화길옹주 묘	평내동 산24	묘	조선	양지 205-4	
274	남양주 평내동 산제당	평내동 산21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275	남양주 평내동 김식순가 터주가리	평내동 404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276	남양주 평내동 느티나무	평내동 416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
277	의안대군 이화 묘	평내동 산97-1	묘	조선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78	의안대군 이화 사당	평내동 151	사묘	조선	양지 205-4	향토유적 제4호
279	목세칭 묘	평내동 산9	묘	조선	양지 205-4	
280	목첨 묘	평내동 산9	묘	조선	양지 205-4	
281	목장흠 묘 및 신도비	평내동 산9	묘	조선	양지 205-4	

(12) 금곡동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82	홍릉	금곡동 141-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7호
283	유릉	금곡동 141-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7호
284	영원	금곡동 141	능.원	조선	양지 205-4	
285	덕혜옹주 묘	금곡동 141	능.원	조선	양지 205-4	
286	남양주 금곡동 느티나무	금곡동 508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
287	구수영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88	구희경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89	구순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0	구사맹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1	구굉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2	구인기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87	묘	조선	양지 205-4	
293	구일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13) 양정동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94	계양군별묘 및 이선영효자정문	일패동 산658-3	충효비	조선	덕소 205-2	
295	계양군부인 한씨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6	부림군 이식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97	영원군 이예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8	이응기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9	전성군 이변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300	광천군 이수기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1	평산군 이숙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2	선성군 이신윤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3	평해군 이담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4	영산군 이예윤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5	민제인 묘 및 신도비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306	민사용 묘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307	민여준 묘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308	민광훈 묘 및 신도비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309	이민승 묘	일패동 산34-3	묘	조선	덕소 205-2	
310	구성 묘	일패동 309-2	묘	조선	덕소 205-2	
311	해병대북한강지구 전첩비	일패동 산73-8	기념비	현대	덕소 205-2	
312	현충탑	일패동 산73-8	기타비	현대	덕소 205-2	
313	김수항 묘 및 묘갈	이패동 산11	묘	조선	덕소 205-2	
314	김한구 묘 및 묘갈	이패동 산43	묘	조선	덕소 205-2	
315	변계윤 묘	이패동 46	묘	조선	덕소 205-2	
316	이의진 묘	이패동 산10-9	묘	조선	덕소 205-2	
317	이의현 묘 및 묘갈	이패동 산28-9	묘	조선	덕소 205-2	
318	삼정각	이패동 342-1	충효비	조선	덕소 205-2	
319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이패동 산10-2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20	남양주 이패동 은행나무	이패동 375-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8
321	김육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2-2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2호
322	김식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29-1	묘	조선	덕소 205-2	
323	김좌명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2-2	묘	조선	덕소 205-2	
324	김성응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1-1	묘	조선	덕소 205-2	
325	김권 묘	삼패동 산29-1	묘	조선	덕소 205-2	
326	김윤식 묘	삼패동 산41-1	묘	조선	덕소 205-2	
327	김시묵 묘	삼패동 산29-1	묘	조선	덕소 205-2	
328	역촌토성	삼패동 37-2	성		덕소 205-2	
329	평구역	삼패동 365-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330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삼패동 306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14) 지금동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31	안산보루	가운동 산50-1	성	삼국	덕소 205-2	
332	가운동 지석묘	가운동 산17-2	선사분묘	청동기	덕소 205-2	문화재자료 제80호
333	정사룡 묘	가운동 산26	묘	조선	덕소 205-2	
334	남양주 가운동 음나무	가운동 산37-1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51
335	조말생 묘 및 묘비.신도비	수석동 산2-1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8호
336	영모재	수석동 산2-1	기타목조물	현대	덕소 205-2	
337	조무강 묘	수석동 산2-1	묘	조선	덕소 205-2	
338	수석동 토성	수석동 산2-2	성	삼국	덕소 205-2	기념물 제94호
339	남양주 수석동 선사유적	수석동	선사유적	청동기	덕소 205-2	
340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수석동 324-1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341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수석동 353-3	유물산포지	신석기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42	석실서원지	수석동 산2-2	서원	조선	덕소 205-2	
343	미음나루터	수석동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344	남양주 수석동 은행나무	수석동 산7-1임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2
345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1	수석동 442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
346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2	수석동 442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7
347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지금동 산33-5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348	남양주 지금동 느티나무	지금동 337-1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6

2) 시대별 목록

(1) 선사시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41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수석동 353-3	유물산포지	신석기	덕소 205-2	
95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화도읍 구암리 173-2	유물산포지	청동기	청평 206-4	
98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화도읍 금남리 181-1	유물산포지	청동기	마석 206-3	
99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화도읍 금남리 209-5	유물산포지	청동기	마석 206-3	
187	남양주 배양리 운령산 유물산포지	진건면 배양리 산73-8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지 205-4	
188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진건면 진관리 302-3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지 205-4	
189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진건면 진관리 산118-1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지 205-4	
222	남양주 지둔리 지석묘군	수동면 지둔리 295-1	선사분묘	청동기	마석 206-3	
233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조안면 능내리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수 206-1	
319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이패동 산10-2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330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삼패동 306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332	가운동 지석묘	가운동 산17-2	선사분묘	청동기	덕소 205-2	문화재자료 제80호
339	남양주 수석동 선사유적	수석동	선사유적	청동기	덕소 205-2	
340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수석동 324-1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347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지금동 산33-5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2) 삼국시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70	불암산성	별내면 화접리 산97	성	삼국	의정부 205-3	
172	국사봉보루	별내면 광전리 산92	성	삼국	의정부 205-3	
235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조안면 진중리 산1-1	고분	삼국	양수 206-1	
178	퇴뫼산성	별내면 광전리 산28-1	성	조선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31	안산보루	가운동 산50-1	성	삼국	덕소 205-2	
338	수석동 토성	수석동 산2-2	성	삼국	덕소 205-2	기념물 제94호

(3) 고려시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60	대이산봉수	진접읍 연평리 산32-1	봉수	고려	양지 205-4	
61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1	진접읍 연평리 산44	기타유적	고려	양지 205-4	남양주-9
216	견성암 수양굴	진건면 송능리 3	기타유적	고려	양지 205-4	

(4) 조선시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	김번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2	김생해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3	김극효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4	김상헌 묘 및 묘비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100호
5	김광찬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6	김상용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덕소리 산6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99호
7	김상용 충효문	와부읍 덕소리 산6	기타유적	현대	덕소 205-2	
8	김수증 묘	와부읍 덕소리 산6	묘	조선	덕소 205-2	
9	김창협 묘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10	송백당 유허비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1	취석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2	석실서원 묘정비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3	도산석실려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4	고송오류문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5	도산정사	.와부읍 덕소리 산5	사묘	조선	덕소 205-2	
16	이맹현 묘	와부읍 덕소리 산45-1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114호
17	대산재	와부읍 덕소리	기타목조물	조선	덕소 205-2	
18	김세민 묘	와부읍 덕소리 산39-6	묘	조선	덕소 205-2	
19	김겸 묘	와부읍 덕소리 산39-6	묘	조선	덕소 205-2	
20	남양주 덕소리 느티나무	와부읍 덕소리 424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2
21	박원종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6호
22	세덕사	와부읍 도곡리 819-1	사묘	조선	덕소 205-2	
24	박운 묘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25	박중선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26	박가흥 묘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27	박원종 정자터	와부읍 도곡리 570	정자	조선	덕소 205-2	
28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와부읍 도곡리 산32-4	유물산포지	조선	덕소 205-2	
29	흥완군 이정응 묘	와부읍 도곡리 산97-1	묘	조선	덕소 205-2	
30	백조 이해선 묘 및 추모비	와부읍 도곡리 산97-1	묘	조선	덕소 205-2	
31	신빈신씨 묘	와부읍 도곡리 산13	능.원	조선	덕소 205-2	
32	이인교 효자정문	와부읍 도곡리 964-2	충효비	조선	덕소 205-2	
34	이세백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73	묘	조선	덕소 205-2	
36	남양주 팔당리 오종섭가 터주가리	와부읍 팔당리 258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39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와부읍 월문리 222	석탑	조선	양수 206-1	향토유적 제1호
40	묘적사 활터	와부읍 월문리 222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41	남양주 월문리 보리수	와부읍 월문리 222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36
42	남양주 월문리 향나무	와부읍 월문리 산323-3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7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43	김상준 묘 및 신도비	와부읍 율석리 산45	묘	조선	덕소 205-2	
44	김수흥 묘	와부읍 율석리 831-7	묘	조선	덕소 205-2	
45	김홍복 묘 및 묘갈	와부읍 율석리 산193-3	묘	조선	덕소 205-2	
46	남양주 율석리 느티나무	와부읍 율석리 519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3
47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1	와부읍 율석리 48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4
48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2	와부읍 율석리 48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5
49	영빈김씨 묘	진접읍 장현리 산175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7호
52	순강원	진접읍 내각리 150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56호
53	의창군 이광 묘 및 신도비	진접읍 내각리 150	묘	조선	양지 205-4	
54	풍양궁지(구궐지)	진접읍 내각리 723-21	궁	조선	양지 205-4	
55	완원군 이유명 묘	진접읍 내각리 산8-9	묘	조선	양지 205-4	
56	함릉군 이직 묘	진접읍 내각리 산8-9	묘	조선	양지 205-4	
57	현창지	진접읍 내각리 48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59	남양주 내각리 느티나무	진접읍 내각리 28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2
62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2	진접읍 연평리 산408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3
6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진접읍 연평리 16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4
64	홍주국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71	묘	조선	양지 205-4	
65	홍만적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71	묘	조선	양지 205-4	
66	이민보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49-3	묘	조선	양지 205-4	
67	영지동비	진접읍 내곡리 308	기타비	조선	양지 205-4	
68	태극정	진접읍 내곡리 474	정자	조선	양지 205-4	
69	쌍수역	진접읍 내곡리 47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70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1	진접읍 내곡리 132-1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5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71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2	진접읍 내곡리 363-2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6
72	여경구가옥	진접읍 내곡리 286	고가	조선	양지 205-4	민속자료 제129호
73	광릉	진접읍 부평리 산100-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197호
74	휘경원	진접읍 부평리 267	능.원	조선	송우 221-2	사적 제360호
75	이단상 묘 및 신도비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송우 221-2	
76	이시원 묘 및 묘갈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송우 221-2	
77	이희조 묘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송우 221-2	
78	봉선사 대종	진접읍 부평리 25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보물 제397호
79	봉선사 하마비	진접읍 부평리 225	기타비	조선	양지 205-4	
80	봉선사 당간지주	진접읍 부평리 225	당간지주	조선	양지 205-4	
81	봉선사 보운당부도	진접읍 부평리 225	부도	조선	양지 205-4	
82	남양주 부평리 느티나무	진접읍 부평리 25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1
83	임중선 묘 및 묘갈	진접읍 팔야리 산88	묘	조선	양지 205-4	
84	유순 묘 및 묘갈	진접읍 팔야리 산10	묘	조선	송우 221-2	
85	남양주 팔야리 느티나무	진접읍 팔야리 16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0
86	한상경 묘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양지 205-4	
87	한상경 사당	진접읍 금곡리 789	사묘	조선	양지 205-4	
88	한혜 묘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양지 205-4	
89	한계순 묘 및 묘갈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양지 205-4	
92	묵현리원지	화도읍 묵현리 367-5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93	남양주 가곡리 느티나무	화도읍 가곡리 257-3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1
94	사기막나루터	화도읍 구암리 585	기타유적	조선	청평 206-4	
97	이춘원 묘 및 신도비	화도읍 금남리 산56-9	묘	조선	양수 206-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00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1	화도읍 금남리 511-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2
101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2	화도읍 금남리 207-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3
102	금남리 내미연 나루터	화도읍 금남리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103	금남리나루터	화도읍 금남리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104	남양주 답내리 느티나무	화도읍 답내리 439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4
106	남양주 월산리 느티나무	화도읍 월산리 458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6
107	흥원	화도읍 창현리 산22-2	능.원	조선	마석 206-3	기념물 제48호
108	영선군 이준용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창현리 산22-2	묘	조선	마석 206-3	
109	이재면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창현리 산22-2	묘	조선	마석 206-3	
110	의안군 이성 묘	화도읍 녹촌리 산14-3	묘	조선	마석 206-3	
111	능원대군 이보 묘 및 신도비	화도읍 녹촌리 192	묘	조선	마석 206-3	향토유적 제3호
112	남양주 녹촌리 느티나무	화도읍 녹촌리 32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7
113	남양주 녹촌리 향나무	화도읍 녹촌리 334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8
114	유성증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마석 206-3	
115	유황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마석 206-3	
116	유철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마석 206-3	
117	유강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116	묘	조선	마석 206-3	
118	박호현처 기계유씨 정문	화도읍 차산리 산27	충효비	조선	마석 206-3	
119	유수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42-1	묘	조선	마석 206-3	
120	이순지 묘	화도읍 차산리 산5	묘	조선	마석 206-3	문화재자료 제54호
121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	화도읍 차산리 156-1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5
122	남선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78	묘	조선	의정부 205-3	향토유적 제7호
123	남병철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의정부 205-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24	남상길 묘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의정부 205-3	
125	남용익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의정부 205-3	
126	이홍술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90	신도비	조선	의정부 205-3	
127	남양주 청학리 은행나무	별내면 청학리 204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남양주-31
128	내원암 석불입상	별내면 청학리 578	석불	조선	의정부 205-3	
129	내원암 석조	별내면 청학리 578	석조	조선	의정부 205-3	
130	이곤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양지 205-4	
131	이종인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양지 205-4	
132	이반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양지 205-4	
133	송은 정충환 묘	별내면 용암리 산26-1	묘	조선	양지 205-4	
134	덕흥대원군 이초 묘 및 신도비	별내면 덕송리 산5-13	묘	조선	의정부 205-3	기념물 제55호
135	덕흥사	별내면 덕송리 339	사묘	조선	의정부 205-3	
136	하원군 이정 묘 및 신도비	별내면 덕송리 산5	묘	조선	의정부 205-3	
137	덕릉마을 산신각	별내면 덕송리 산5-126	기타목조물	조선	의정부 205-3	민속자료 제9호
138	순빈김씨 묘	별내면 덕송리 산1-1	묘	조선	의정부 205-3	
139	순화군 이보 묘	별내면 덕송리 산1-1	묘	조선	의정부 205-3	
140	안흥량 묘	별내면 덕송리 산49-4	묘	조선	의정부 205-3	
141	남양주 덕송리 느티나무	별내면 덕송리 339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남양주-29
142	흥국사 대웅보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문화재자료 제56호
143	흥국사 영산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144	흥국사 만월보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145	흥국사 시왕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146	흥국사 성임당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의정부 205-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47	흥국사 만월보전 뒷편 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의정부 205-3	
148	흥국사 석종형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의정부 205-3	
149	흥국사 범종각 내 법고.목어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150	흥국사 석조	별내면 덕송리 331	석조	조선	의정부 205-3	
151	흥국사 목조 석가삼존불좌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152	흥국사 석조 약사여래좌상	별내면 덕송리 331	석불	조선	의정부 205-3	
153	흥국사 소조16나한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154	흥국사 목조시왕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155	남양주 덕송리 상수리나무	별내면 덕송리 산5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남양주-30
156	한효원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산11-1	묘	조선	양지 205-4	
157	남을번 묘	별내면 화접리 282-1	묘	조선	의정부 205-3	
158	남재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282-1	묘	조선	의정부 205-3	향토유적 제5호
159	충경사	별내면 화접리 282-2	사묘	조선	의정부 205-3	
160	남치욱 묘	별내면 화접리 30-3	묘	조선	의정부 205-3	
161	남언순 묘	별내면 화접리 30-3	묘	조선	의정부 205-3	
162	김광서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3	김기명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4	김유악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5	김혼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6	연주현씨 묘역	별내면 화접리 산34-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7	김효원 묘 및 묘갈	별내면 화접리 산24-4	묘	조선	양지 205-4	
168	윤천뢰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산58-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9	윤지청 묘 및 묘갈	별내면 화접리 산58-1	묘	조선	의정부 205-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71	불암사 사적비	별내면 화접리 797	기념비	조선	의정부 205-3	
173	견성군 이돈 묘	별내면 광전리 산153-5	묘	조선	양지 205-4	
174	선성군 이흠 묘 및 묘갈	별내면 광전리 산153-5	묘	조선	양지 205-4	
175	보성군 이용 묘 및 신도비	별내면 광전리	묘	조선	양지 205-4	
176	보청재	별내면 광전리	기타목조물	조선	양지 205-4	
177	변사검 묘	별내면 광전리 산141-2	묘	조선	양지 205-4	
179	남양주 퇴계원리 느티나무	퇴계원면 퇴계원리 6-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1
180	사릉	진건면 사릉리 산65-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9호
181	정효준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사릉리 산65-1	묘	조선	양지 205-4	
182	정미수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사릉리 산65-1	묘	조선	양지 205-4	
183	해평사	진건면 사릉리 149	사묘	조선	양지 205-4	
186	남양주 사릉리 느티나무	진건면 사릉리 25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7
191	효간사	진건면 진관리 414-3	사묘	조선	양지 205-4	
192	남양주 진관리 느티나무	진건면 진관리 568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8
193	남양주 신월리 느티나무	진건면 신월리 496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6
194	익현군 이연 묘	진건면 용정리 637	묘	조선	양지 205-4	
195	이덕강과 정순공주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9-2	묘	조선	양지 205-4	
196	이계린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9-2	묘	조선	양지 205-4	
197	변안렬 묘 및 묘표	진건면 용정리 산197	묘	조선	양지 205-4	
198	변현 묘	진건면 용정리 702	묘	조선	양지 205-4	
199	변이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0	묘	조선	양지 205-4	
200	변상복 묘	진건면 용정리 산198	묘	조선	양지 205-4	
201	추원재	진건면 용정리 700	기타목조물	조선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02	김종 묘	진건면 용정리 산47	묘	조선	양지 205-4	
203	최청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용정리 산83	묘	조선	양지 205-4	
204	모송재	진건면 용정리 550	기타목조물	조선	양지 205-4	
205	흥익한원배 능성구씨 묘	진건면 용정리 산22-4	묘	조선	양지 205-4	
206	이화영 묘	진건면 용정리 산16	묘	조선	양지 205-4	
208	광해군 묘	진건면 송능리 산59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3호
209	성묘	진건면 송능리 산55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5호
210	안빈이씨 묘	진건면 송능리 산66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6호
211	임해군 이진 묘	진건면 송능리 산56	묘	조선	양지 205-4	
212	조맹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송능리 산55	묘	조선	양지 205-4	
213	조상우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송능리 산1	묘	조선	양지 205-4	
214	남양주 송능리 느티나무	진건면 송능리 53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9
215	견성암 대웅전	진건면 송능리 3	사찰	조선	양지 205-4	
217	견성암 석조약사여래좌상	진건면 송능리 3	석불	조선	양지 205-4	
218	봉인사 부도암사리탑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	부도	조선		보물 제928호
219	봉인사 사리탑 중수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	기타비	조선		
220	봉인사 풍암취우대사비	진건면 송능리 307	기타비	조선	양지 205-4	
221	남양주 운수리 느티나무	수동면 운수리 325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4
223	남양주 지둔리 시무나무	수동면 지둔리 416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2
224	남양주 지둔리 소나무	수동면 지둔리 527-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5
225	남양주 외방리 소나무	수동면 외방리 182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3
226	남양주 외방리 은행나무	수동면 외방리 17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50
228	이유원 묘	수동면 송천리 산90-2	묘	조선	마석 206-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29	한확 묘 및 신도비	조안면 능내리 산69-5	묘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127호
230	정약용 묘	조안면 능내리 산75-1	묘	조선	양수 206-1	기념물 제7호
231	여유당	조안면 능내리	기타목조물	조선	양수 206-1	
232	남양주 능내리 느티나무	조안면 능내리 767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18
234	마진산성	조안면 진중리 산5-1	성	조선	양수 206-1	
236	변협 묘	조안면 송촌리 산26-4	묘	조선	양수 206-1	
237	변응성 묘	조안면 송촌리 산26-4	묘	조선	양수 206-1	
238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조안면 송촌리 635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19
239	이덕형 별서지	조안면 송촌리 775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40	관가정지	조안면 송촌리 779	정자	조선	양수 206-1	
241	용진나루터	조안면 송촌리 216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43	수종사 부도	조안면 송촌리 1060	부도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157호
244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조안면 송촌리 1060	석탑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22호
245	수종사 소탑	조안면 송촌리 1060	석탑	조선	양수 206-1	
246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조안면 송촌리 산26-22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17
247	유량 묘	조안면 시우리 산26	묘	조선	양수 206-1	기념물 제78호
250	남양주 조안리 당집	조안면 조안리	기타목조물	조선	양수 206-1	
251	남양주 조안리 박치흥가 터주가리	조안면 조안리 41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52	남양주 조안리 박광덕가 터주가리	조안면 조안리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53	남양주 조안리 느티나무	조안면 조안리 937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20
254	하자종 묘 및 묘갈	오남면 팔현리 산101	묘	조선	양지 205-4	
256	남양주 오남리 향나무	오남면 오남리 661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38
257	남양주 오남리 느티나무	오남면 오남리 650-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39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58	심선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59	양세정	오남면 양지리 산2	정자	조선	양지 205-4	
260	심안인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1	심빈 묘 및 송장비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2	심광문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3	심광언 묘 및 신도비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4	심금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5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오남면 양지리 535-1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천연기념물 제232호
268	남양주 호평동 김춘수가 터주가리	호평동 25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269	남양주 호평동 김진택가 성주단지	호평동 396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271	남양주 호평동 느티나무	호평동 45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5
272	궁집	평내동 426-1	고가	조선	양지 205-4	민속자료 제130호
273	능성위 구민화와 화길옹주 묘	평내동 산24	묘	조선	양지 205-4	
275	남양주 평내동 김식순가 터주가리	평내동 404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276	남양주 평내동 느티나무	평내동 416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
277	의안대군 이화 묘	평내동 산97-1	묘	조선	양지 205-4	
278	의안대군 이화 사당	평내동 151	사묘	조선	양지 205-4	향토유적 제4호
279	목세칭 묘	평내동 산9	묘	조선	양지 205-4	
280	목첨 묘	평내동 산9	묘	조선	양지 205-4	
281	목장흠 묘 및 신도비	평내동 산9	묘	조선	양지 205-4	
282	홍릉	금곡동 141-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7호
283	유릉	금곡동 141-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7호
284	영원	금곡동 141	능.원	조선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85	덕혜옹주 묘	금곡동 141	능.원	조선	양지 205-4	
286	남양주 금곡동 느티나무	금곡동 508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
287	구수영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88	구희경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89	구순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0	구사맹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1	구굉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2	구인기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87	묘	조선	양지 205-4	
293	구일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4	계양군별묘 및 이선영효자정문	일패동 산658-3	충효비	조선	덕소 205-2	
295	계양군부인 한씨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6	부림군 이식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7	영원군 이예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8	이응기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9	전성군 이변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300	광천군 이수기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1	평산군 이숙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2	선성군 이신윤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3	평해군 이담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4	영산군 이예윤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5	민제인 묘 및 신도비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306	민사용 묘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307	민여준 묘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08	민광훈 묘 및 신도비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309	이민승 묘	일패동 산34-3	묘	조선	덕소 205-2	
310	구성 묘	일패동 309-2	묘	조선	덕소 205-2	
313	김수항 묘 및 묘갈	이패동 산11	묘	조선	덕소 205-2	
314	김한구 묘 및 묘갈	이패동 산43	묘	조선	덕소 205-2	
315	변계윤 묘	이패동 46	묘	조선	덕소 205-2	
316	이의진 묘	이패동 산10-9	묘	조선	덕소 205-2	
317	이의현 묘 및 묘갈	이패동 산28-9	묘	조선	덕소 205-2	
318	삼정각	이패동 342-1	충효비	조선	덕소 205-2	
320	남양주 이패동 은행나무	이패동 375-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8
321	김육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2-2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2호
322	김식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29-1	묘	조선	덕소 205-2	
323	김좌명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2-2	묘	조선	덕소 205-2	
324	김성응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1-1	묘	조선	덕소 205-2	
325	김권 묘	삼패동 산29-1	묘	조선	덕소 205-2	
326	김윤식 묘	삼패동 산41-1	묘	조선	덕소 205-2	
327	김시묵 묘	삼패동 산29-1	묘	조선	덕소 205-2	
329	평구역	삼패동 365-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333	정사룡 묘	가운동 산26	묘	조선	덕소 205-2	
334	남양주 가운동 음나무	가운동 산37-1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51
335	조말생 묘 및 묘비.신도비	수석동 산2-1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8호
337	조무강 묘	수석동 산2-1	묘	조선	덕소 205-2	
342	석실서원지	수석동 산2-2	서원	조선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43	미음나루터	수석동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344	남양주 수석동 은행나무	수석동 산7-1임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2
345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1	수석동 442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
346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2	수석동 442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7
348	남양주 지금동 느티나무	지금동 337-1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6

(5) 근, 현대 및 미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84	조정구 묘	진건면 사릉리 산47	묘	근대	양지 205-4	
185	이광수은거지	진건면 사릉리 520-2	기타유적	근대	양지 205-4	
23	도산재	와부읍 도곡리 819-2	기타목조물	현대	덕소 205-2	
33	반공투사 배순동 충혼비	와부읍 도곡리 978	기념비	현대	덕소 205-2	
35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	와부읍 팔당리 산147-2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37	미 제25사단 한강도하 기념비	와부읍 팔당리 347-2	기념비	현대	덕소 205-2	
38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	와부읍 월문리 산32-1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50	외솔 최현배 묘	진접읍 장현리 산175	묘	현대	양지 205-4	
51	남양주 장현리 3.1운동기념비	진접읍 장현리 20	기념비	현대	양지 205-4	
58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진접읍 내각리 산24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90	화도면민 독립기념비	화도읍 마석우리 산9-1	기념비	현대	마석 206-3	
91	순국선열추념비	화도읍 마석우리 292-17	기타비	현대	마석 206-3	
96	인촌 김성수 묘	화도읍 구암리 산102-3	묘	현대	마석 206-3	
105	남양주 월산리 3.1운동기념비	화도읍 월산리 490	기념비	현대	마석 206-3	
190	충목사	진건면 진관리 산53	사묘	현대	양지 205-4	
207	청해재	진건면 용정리 130-1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27	반공희생자 합동위령비	수동면 내방리 251-2	기타비	현대	연하 222-1	
242	3.1의거애국선열 추념탑	조안면 송촌리	기타비	현대	양수 206-1	
248	남양주 시우리 산제당	조안면 시우리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249	남양주 조안리 도당집	조안면 조안리 248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255	발현재	오남면 팔현리 297-1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266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1	호평동 산5-32	기타목조물	현대	마석 206-3	
267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호평동 산54	기타목조물	현대	마석 206-3	
270	남양주 호평동 산제당	호평동 산49-1	기타목조물	현대	마석 206-3	
274	남양주 평내동 산제당	평내동 산21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311	해병대북한강지구 전첩비	일패동 산73-8	기념비	현대	덕소 205-2	
312	현충탑	일패동 산73-8	기타비	현대	덕소 205-2	
336	영모재	수석동 산2-1	기타목조물	현대	덕소 205-2	
328	역촌토성	삼패동 37-2	성	미상	덕소 205-2	

3) 종류별 목록

(1) 성, 보루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70	불암산성	별내면 화접리 산97	성	삼국	의정부 205-3	
172	국사봉보루	별내면 광전리 산92	성	삼국	의정부 205-3	
178	퇴뫼산성	별내면 광전리 산28-1	성	삼국	양지 205-4	
234	마진산성	조안면 진중리 산5-1	성	조선	양수 206-1	
328	역촌토성	삼패동 37-2	성	미상	덕소 205-2	
331	안산보루	가운동 산50-1	성	삼국	덕소 205-2	
338	수석동 토성	수석동 산2-2	성	삼국	덕소 205-2	기념물 제94호

(2) 봉수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60	대이산봉수	진접읍 연평리 산32-1	봉수	고려	양지 205-4	

(3) 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54	풍양궁지(구궐지)	진접읍 내각리 723-21	궁	조선	양지 205-4	

(4) 사찰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42	흥국사 대웅보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문화재자료 제56호
143	흥국사 영산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144	흥국사 만월보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145	흥국사 시왕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215	견성암 대웅전	진건면 송능리 3	사찰	조선	양지 205-4	

(5) 석불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28	내원암 석불입상	별내면 청학리 578	석불	조선	의정부 205-3	
152	흥국사 석조 약사여래좌상	별내면 덕송리 331	석불	조선	의정부 205-3	
217	견성암 석조약사여래좌상	진건면 송능리 3	석불	조선	양지 205-4	

(6) 석탑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9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와부읍 월문리 222	석탑	조선	양수 206-1	향토유적 제1호
244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조안면 송촌리 1060	석탑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22호
245	수종사 소탑	조안면 송촌리 1060	석탑	조선	양수 206-1	

(7) 부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81	봉선사 보운당부도	진접읍 부평리 225	부도	조선	양지 205-4	
146	흥국사 성임당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의정부 205-3	
147	흥국사 만월보전 뒷편 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의정부 205-3	
148	흥국사 석종형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부도	조선	의정부 205-3	
218	봉인사 부도암사리탑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	부도	조선		보물 제928호
243	수종사 부도	조안면 송촌리 1060	부도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157호

(8) 당간지주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80	봉선사 당간지주	진접읍 부평리 225	당간지주	조선	양지 205-4	

(9) 석조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29	내원암 석조	별내면 청학리 578	석조	조선	의정부 205-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50	흥국사 석조	별내면 덕송리 331	석조	조선	의정부 205-3	

(10) 신도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26	이홍술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90	신도비	조선	의정부 205-3	

(11) 기념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3	반공투사 배순동 충혼비	와부읍 도곡리 978	기념비	현대	덕소 205-2	
37	미 제25사단 한강도하 기념비	와부읍 팔당리 347-2	기념비	현대	덕소 205-2	
51	남양주 장현리 3.1운동기념비	진접읍 장현리 20	기념비	현대	양지 205-4	
90	화도면민 독립기념비	화도읍 마석우리 산9-1	기념비	현대	마석 206-3	
105	남양주 월산리 3.1운동기념비	화도읍 월산리 490	기념비	현대	마석 206-3	
171	불암사 사적비	별내면 화접리 797	기념비	조선	의정부 205-3	
311	해병대북한강지구 전첩비	일패동 산73-8	기념비	현대	덕소 205-2	

(12) 충효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2	이인교 효자정문	와부읍 도곡리 964-2	충효비	조선	덕소 205-2	
118	박호현처 기계유씨 정문	화도읍 차산리 산27	충효비	조선	마석 206-3	
294	계양군별묘 및 이선영효자정문	일패동 산658-3	충효비	조선	덕소 205-2	
318	삼정각	이패동 342-1	충효비	조선	덕소 205-2	

(13) 기타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0	송백당 유허비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1	취석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2	석실서원 묘정비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3	도산석실려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14	고송오류문	와부읍 덕소리 산5	기타비	조선	덕소 205-2	
67	영지동비	진접읍 내곡리 308	기타비	조선	양지 205-4	
79	봉선사 하마비	진접읍 부평리 225	기타비	조선	양지 205-4	
91	순국선열추념비	화도읍 마석우리 292-17	기타비	현대	마석 206-3	
219	봉인사 사리탑 중수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	기타비	조선		
220	봉인사 풍암취우대사비	진건면 송능리 307	기타비	조선	양지 205-4	
227	반공희생자 합동위령비	수동면 내방리 251-2	기타비	현대	연하 222-1	
242	3.1의거애국선열 추념탑	조안면 송촌리	기타비	현대	양수 206-1	
312	현충탑	일패동 산73-8	기타비	현대	덕소 205-2	

(14) 서원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42	석실서원지	수석동 산2-2	서원	조선	덕소 205-2	

(15) 정, 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7	박원종 정자터	와부읍 도곡리 570	정자	조선	덕소 205-2	
68	태극정	진접읍 내곡리 474	정자	조선	양지 205-4	
240	관가정지	조안면 송촌리 779	정자	조선	양수 206-1	
259	망세정	오남면 양지리 산2	정자	조선	양지 205-4	

(16) 사묘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5	도산정사	와부읍 덕소리 산5	사묘	조선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2	세덕사	와부읍 도곡리 819-1	사묘	조선	덕소 205-2	
87	한상경 사당	진접읍 금곡리 789	사묘	조선	양지 205-4	
135	덕흥사	별내면 덕송리 339	사묘	조선	의정부 205-3	
159	충경사	별내면 화접리 282-2	사묘	조선	의정부 205-3	
183	해평사	진건면 사릉리 149	사묘	조선	양지 205-4	
190	충목사	진건면 진관리 산53	사묘	현대	양지 205-4	
191	효간사	진건면 진관리 414-3	사묘	조선	양지 205-4	
278	의안대군 이화 사당	평내동 151	사묘	조선	양지 205-4	향토유적 제4호

(17) 능, 원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1	신빈신씨 묘	와부읍 덕소리 424	능.원	조선	덕소 205-2	
49	영빈김씨 묘	진접읍 장현리 산175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7호
52	순강원	진접읍 내각리 150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56호
73	광릉	진접읍 부평리 산100-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197호
74	휘경원	진접읍 부평리 267	능.원	조선	송우 221-2	사적 제360호
107	홍원	화도읍 창현리 산22-2	능.원	조선	마석 206-3	기념물 제48호
180	사릉	진건면 사릉리 산65-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9호
208	광해군 묘	진건면 송능리 산59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3호
209	성묘	진건면 송능리 산55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5호
210	안빈이씨 묘	진건면 송능리 산66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6호
282	홍릉	금곡동 141-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7호
283	유릉	금곡동 141-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7호
284	영원	금곡동 141	능.원	조선	양지 205-4	

285	덕해옹주 묘	금곡동 141	능.원	조선	양지 205-4	

(18) 고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35	남양주 진중리 석곽분	조안면 진중리 산1-1	고분	삼국	양수 206-1	

(19) 묘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	김번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2	김생해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4	김상헌 묘 및 묘비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100호
5	김광찬 묘 및 묘갈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6	김상용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덕소리 산6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99호
8	김수증 묘	와부읍 덕소리 산6	묘	조선	덕소 205-2	
16	이맹현 묘	와부읍 덕소리 산45-1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114호
18	김세민 묘	와부읍 덕소리 산39-6	묘	조선	덕소 205-2	
19	김겸 묘	와부읍 덕소리 산39-6	묘	조선	덕소 205-2	
21	박원종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6호
24	박운 묘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25	박중선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26	박가흥 묘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29	흥완군 이정응 묘	와부읍 도곡리 산97-1	묘	조선	덕소 205-2	
30	백조 이해선 묘 및 추모비	와부읍 도곡리 산97-1	묘	조선	덕소 205-2	
34	이세백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73	묘	조선	덕소 205-2	
43	김상준 묘 및 신도비	와부읍 율석리 산45	묘	조선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44	김수흥 묘	와부읍 율석리 831-7	묘	조선	덕소 205-2	
45	김흥복 묘 및 묘갈	와부읍 율석리 산193-3	묘	조선	덕소 205-2	
50	외솔 최현배 묘	진접읍 장현리 산175	묘	현대	양지 205-4	
53	의창군 이광 묘 및 신도비	진접읍 내각리 150	묘	조선	양지 205-4	
55	완원군 이유명 묘	진접읍 내각리 산8-9	묘	조선	양지 205-4	
56	함릉군 이직 묘	진접읍 내각리 산8-9	묘	조선	양지 205-4	
64	흥주국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71	묘	조선	양지 205-4	
65	흥만적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71	묘	조선	양지 205-4	
66	이민보 묘 및 묘갈	진접읍 내곡리 산49-3	묘	조선	양지 205-4	
75	이단상 묘 및 신도비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송우 221-2	
76	이시원 묘 및 묘갈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송우 221-2	
77	이희조 묘	진접읍 부평리 산1-1	묘	조선	송우 221-2	
83	임중선 묘 및 묘갈	진접읍 팔야리 산88	묘	조선	양지 205-4	
84	유순 묘 및 묘갈	진접읍 팔야리 산10	묘	조선	송우 221-2	
86	한상경 묘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양지 205-4	
88	한혜 묘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양지 205-4	
89	한계순 묘 및 묘갈	진접읍 금곡리 산125	묘	조선	양지 205-4	
96	인촌 김성수 묘	화도읍 구암리 산102-3	묘	현대	마석 206-3	
97	이춘원 묘 및 신도비	화도읍 금남리 산56-9	묘	조선	양수 206-1	
108	영선군 이준용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창현리 산22-2	묘	조선	마석 206-3	
109	이재면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창현리 산22-2	묘	조선	마석 206-3	
110	의안군 이성 묘	화도읍 녹촌리 산14-3	묘	조선	마석 206-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11	능원대군 이보 묘 및 신도비	화도읍 녹촌리 192	묘	조선	마석 206-3	향토유적 제3호
114	유성증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마석 206-3	
115	유황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마석 206-3	
116	유철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67-1	묘	조선	마석 206-3	
117	유강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116	묘	조선	마석 206-3	
119	유수 묘 및 신도비	화도읍 차산리 산42-1	묘	조선	마석 206-3	
120	이순지 묘	화도읍 차산리 산5	묘	조선	마석 206-3	문화재자료 제54호
122	남선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78	묘	조선	의정부 205-3	향토유적 제7호
123	남병철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의정부 205-3	
124	남상길 묘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의정부 205-3	
125	남용익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27-2	묘	조선	의정부 205-3	
130	이곤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양지 205-4	
131	이종인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양지 205-4	
132	이반 묘	별내면 용암리 산70	묘	조선	양지 205-4	
133	송은 정충환 묘	별내면 용암리 산26-1	묘	조선	양지 205-4	
136	하원군 이정 묘 및 신도비	별내면 덕송리 산5	묘	조선	의정부 205-3	
138	순빈김씨 묘	별내면 덕송리 산1-1	묘	조선	의정부 205-3	
139	순화군 이보 묘	별내면 덕송리 산1-1	묘	조선	의정부 205-3	
140	안흥량 묘	별내면 덕송리 산49-4	묘	조선	의정부 205-3	
156	한효원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산11-1	묘	조선	양지 205-4	
157	남을번 묘	별내면 화접리 282-1	묘	조선	의정부 205-3	
158	남재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282-1	묘	조선	의정부 205-3	향토유적 제5호
160	남치욱 묘	별내면 화접리 30-3	묘	조선	의정부 205-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61	남언순 묘	별내면 화접리 30-3	묘	조선	의정부 205-3	
162	김광서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3	김기명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4	김유악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5	김흔 묘	별내면 화접리 산56-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6	연주현씨 묘역	별내면 화접리 산34-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7	김효원 묘 및 묘갈	별내면 화접리 산24-4	묘	조선	양지 205-4	
168	윤천뢰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산58-1	묘	조선	의정부 205-3	
169	윤지청 묘 및 묘갈	별내면 화접리 산58-1	묘	조선	의정부 205-3	
173	견성군 이돈 묘	별내면 광전리 산153-5	묘	조선	양지 205-4	
174	선성군 이흠 묘 및 묘갈	별내면 광전리 산153-5	묘	조선	양지 205-4	
175	보성군 이용 묘 및 신도비	별내면 광전리	묘	조선	양지 205-4	
177	변사겸 묘	별내면 광전리 산141-2	묘	조선	양지 205-4	
181	정효준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사릉리 산65-1	묘	조선	양지 205-4	
182	정미수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사릉리 산65-1	묘	조선	양지 205-4	
184	조정구 묘	진건면 사릉리 산47	묘	근대	양지 205-4	
194	익현군 이연 묘	진건면 용정리 637	묘	조선	양지 205-4	
195	이덕강과 정순공주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9-2	묘	조선	양지 205-4	
196	이계린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9-2	묘	조선	양지 205-4	
197	변안렬 묘 및 묘표	진건면 용정리 산197	묘	조선	양지 205-4	
198	변현 묘	진건면 용정리 702	묘	조선	양지 205-4	
199	변이 묘	진건면 용정리 산200	묘	조선	양지 205-4	
200	변상복 묘	진건면 용정리 산198	묘	조선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02	김종 묘	진건면 용정리 산47	묘	조선	양지 205-4	
203	최청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용정리 산83	묘	조선	양지 205-4	
205	흥익한원배 능성구씨 묘	진건면 용정리 산22-4	묘	조선	양지 205-4	
206	이화영 묘	진건면 용정리 산16	묘	조선	양지 205-4	
211	임해군 이진 묘	진건면 송능리 산56	묘	조선	양지 205-4	
212	조맹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송능리 산55	묘	조선	양지 205-4	
213	조상우 묘 및 신도비	진건면 송능리 산1	묘	조선	양지 205-4	
228	이유원 묘	수동면 송천리 산90-2	묘	조선	마석 206-3	
229	한확 묘 및 신도비	조안면 능내리 산69-5	묘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127호
230	정약용 묘	조안면 능내리 산75-1	묘	조선	양수 206-1	기념물 제7호
236	변협 묘	조안면 송촌리 산26-4	묘	조선	양수 206-1	
237	변응성 묘	조안면 송촌리 산26-4	묘	조선	양수 206-1	
247	유량 묘	조안면 시우리 산26	묘	조선	양수 206-1	기념물 제78호
254	하자종 묘 및 묘갈	오남면 팔현리 산101	묘	조선	양지 205-4	
258	심선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0	심안인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1	심빈 묘 및 송장비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2	심광문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3	심광언 묘 및 신도비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64	심금 묘	오남면 양지리 산2	묘	조선	양지 205-4	
273	능성위 구민화와 화길옹주 묘	평내동 산24	묘	조선	양지 205-4	
277	의안대군 이화 묘	평내동 산97-1	묘	조선	양지 205-4	
279	목세청 묘	평내동 산9	묘	조선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80	목첨 묘	평내동 산9	묘	조선	양지 205-4	
281	목장흠 묘 및 신도비	평내동 산9	묘	조선	양지 205-4	
287	구수영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88	구희경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89	구순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0	구사맹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1	구굉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2	구인기 묘 및 신도비	금곡동 군장리 산87	묘	조선	양지 205-4	
293	구일 묘	금곡동 군장리 산93	묘	조선	양지 205-4	
295	계양군부인 한씨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6	부림군 이식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7	영원군 이예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8	이응기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299	전성군 이변 묘	일패동 산37-1	묘	조선	덕소 205-2	
300	광천군 이수기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1	평산군 이숙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2	선성군 이신윤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3	평해군 이담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4	영산군 이예윤 묘	일패동 산46	묘	조선	덕소 205-2	
305	민제인 묘 및 신도비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306	민사용 묘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307	민여준 묘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308	민광훈 묘 및 신도비	일패동 산17-17	묘	조선	덕소 205-2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09	이민승 묘	일패동 산34-3	묘	조선	덕소 205-2	
310	구성 묘	일패동 309-2	묘	조선	덕소 205-2	
313	김수항 묘 및 묘갈	이패동 산11	묘	조선	덕소 205-2	
314	김한구 묘 및 묘갈	이패동 산43	묘	조선	덕소 205-2	
315	변계윤 묘	이패동 46	묘	조선	덕소 205-2	
316	이의진 묘	이패동 산10-9	묘	조선	덕소 205-2	
317	이의현 묘 및 묘갈	이패동 산28-9	묘	조선	덕소 205-2	
321	김육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2-2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2호
322	김식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29-1	묘	조선	덕소 205-2	
323	김좌명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2-2	묘	조선	덕소 205-2	
324	김성응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1-1	묘	조선	덕소 205-2	
325	김권 묘	삼패동 산29-1	묘	조선	덕소 205-2	
326	김윤식 묘	삼패동 산41-1	묘	조선	덕소 205-2	
327	김시묵 묘	삼패동 산29-1	묘	조선	덕소 205-2	
333	정사룡 묘	가운동 산26	묘	조선	덕소 205-2	
335	조말생 묘 및 묘비.신도비	수석동 산2-1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8호
337	조무강 묘	수석동 산2-1	묘	조선	덕소 205-2	
3	김극효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9	김창협 묘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134	덕흥대원군 이초 묘 및 신도비	별내면 덕송리 산5-13	묘	조선	의정부 205-3	기념물 제55호

(20) 선사시대분묘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22	남양주 지둔리 지석묘군	수동면 지둔리 295-1	선사분묘	청동기	마석 206-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32	가운동 지석묘	가운동 산17-2	선사분묘	청동기	덕소 205-2	문화재자료 제80호

(21) 선사유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339	남양주 수석동 선사유적	수석동	선사유적	청동기	덕소 205-2	

(22) 고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72	여경구가옥	진접읍 내곡리 286	고가	조선	양지 205-4	민속자료 제129호
272	궁집	평내동 426-1	고가	조선	양지 205-4	민속자료 제130호

(23) 기타목조물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7	대산재	와부읍 덕소리	기타목조물	조선	덕소 205-2	
23	도산재	와부읍 도곡리 819-2	기타목조물	현대	덕소 205-2	
35	남양주 팔당리 산신각	와부읍 팔당리 산147-2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38	남양주 월문리 산제당	와부읍 월문리 산32-1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58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진접읍 내각리 산24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137	덕릉마을 산신각	별내면 덕송리 산5-126	기타목조물	조선	의정부 205-3	민속자료 제9호
176	보청재	별내면 광전리	기타목조물	조선	양지 205-4	
201	추원재	진건면 용정리 700	기타목조물	조선	양지 205-4	
204	모송재	진건면 용정리 550	기타목조물	조선	양지 205-4	
207	청해재	진건면 용정리 130-1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231	여유당	조안면 능내리	기타목조물	조선	양수 206-1	
248	남양주 시우리 산제당	조안면 시우리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249	남양주 조안리 도당집	조안면 조안리 248	기타목조물	현대	양수 206-1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50	남양주 조안리 당집	조안면 조안리	기타목조물	조선	양수 206-1	
255	발현재	오남면 팔현리 297-1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266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1	호평동 산5-32	기타목조물	현대	마석 206-3	
267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호평동 산54	기타목조물	현대	마석 206-3	
270	남양주 호평동 산제당	호평동 산49-1	기타목조물	현대	마석 206-3	
274	남양주 평내동 산제당	평내동 산21	기타목조물	현대	양지 205-4	
336	영모재	수석동 산2-1	기타목조물	현대	덕소 205-2	

(24) 기타유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7	김상용 충효문	와부읍 덕소리 산6	기타유적	현대	덕소 205-2	
20	남양주 덕소리 느티나무	와부읍 덕소리 424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2
36	남양주 팔당리 오종섭가 터주가리	와부읍 팔당리 258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40	묘적사 활터	와부읍 월문리 222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41	남양주 월문리 보리수	와부읍 월문리 222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36
42	남양주 월문리 향나무	와부읍 월문리 산323-3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7
46	남양주 율석리 느티나무	와부읍 율석리 519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3
47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1	와부읍 율석리 48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4
48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2	와부읍 율석리 48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5
57	현창지	진접읍 내각리 48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59	남양주 내각리 느티나무	진접읍 내각리 28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2
61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1	진접읍 연평리 산44	기타유적	고려	양지 205-4	남양주-9
62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2	진접읍 연평리 산408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3
6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진접읍 연평리 16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4

69	쌍수역	진접읍 내곡리 47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70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1	진접읍 내곡리 132-1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5
71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2	진접읍 내곡리 363-2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6
78	봉선사 대종	진접읍 부평리 25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보물 제397호
82	남양주 부평리 느티나무	진접읍 부평리 25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1
85	남양주 팔야리 느티나무	진접읍 팔야리 16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0
92	묵현리원지	화도읍 묵현리 367-5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93	남양주 가곡리 느티나무	화도읍 가곡리 257-3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1
94	사기막나루터	화도읍 구암리 585	기타유적	조선	청평 206-4	
100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1	화도읍 금남리 511-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2
101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2	화도읍 금남리 207-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3
102	금남리 내미연 나루터	화도읍 금남리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103	금남리 나루터	화도읍 금남리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104	남양주 답내리 느티나무	화도읍 답내리 439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4
106	남양주 월산리 느티나무	화도읍 월산리 458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6
112	남양주 녹촌리 느티나무	화도읍 녹촌리 32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7
113	남양주 녹촌리 향나무	화도읍 녹촌리 334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8
121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	화도읍 차산리 156-1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25
127	남양주 청학리 은행나무	별내면 청학리 204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남양주-31
141	남양주 덕송리 느티나무	별내면 덕송리 339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남양주-29
149	흥국사 범종각 내 법고,목어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151	흥국사 목조 석가삼존불좌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153	흥국사 소조16나한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154	흥국사 목조시왕상	별내면 덕송리 33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55	남양주 덕송리 상수리나무	별내면 덕송리 산51	기타유적	조선	의정부 205-3	남양주-30
179	남양주 퇴계원리 느티나무	퇴계원면 퇴계원리 6-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1
185	이광수은거지	진건면 사릉리 520-2	기타유적	근대	양지 205-4	
186	남양주 사릉리 느티나무	진건면 사릉리 250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7
192	남양주 진관리 느티나무	진건면 진관리 568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8
193	남양주 신월리 느티나무	진건면 신월리 496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6
214	남양주 송능리 느티나무	진건면 송능리 53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9
216	견성암 수양굴	진건면 송능리 3	기타유적	고려	양지 205-4	
221	남양주 운수리 느티나무	수동면 운수리 325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4
223	남양주 지둔리 시무나무	수동면 지둔리 416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2
224	남양주 지둔리 소나무	수동면 지둔리 527-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5
225	남양주 외방리 소나무	수동면 외방리 182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43
226	남양주 외방리 은행나무	수동면 외방리 177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남양주-50
232	남양주 능내리 느티나무	조안면 능내리 767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18
238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조안면 송촌리 635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19
239	이덕형 별서지	조안면 송촌리 775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41	용진나루터	조안면 송촌리 216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46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조안면 송촌리 산26-22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17
251	남양주 조안리 박처흥가 터주가리	조안면 조안리 41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52	남양주 조안리 박광덕가 터주가리	조안면 조안리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253	남양주 조안리 느티나무	조안면 조안리 937	기타유적	조선	양수 206-1	남양주-20
256	남양주 오남리 향나무	오남면 오남리 661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38

257	남양주 오남리 느티나무	오남면 오남리 650-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39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65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오남면 양지리 535-1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천연기념물 재232호
268	남양주 호평동 김춘수가 터주가리	호평동 251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269	남양주 호평동 김진택가 성주단지	호평동 396	기타유적	조선	마석 206-3	
271	남양주 호평동 느티나무	호평동 453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5
275	남양주 평내동 김식순가 터주가리	평내동 404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276	남양주 평내동 느티나무	평내동 416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1
286	남양주 금곡동 느티나무	금곡동 508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남양주-4
320	남양주 이패동 은행나무	이패동 375-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8
329	평구역	삼패동 365-5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334	남양주 가운동 음나무	가운동 산37-1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51
343	미음나루터	수석동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344	남양주 수석동 은행나무	수석동 산7-1임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2
345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1	수석동 442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3
346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2	수석동 442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7
348	남양주 지금동 느티나무	지금동 337-1	기타유적	조선	덕소 205-2	남양주-6

(25) 유물산포지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8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와부읍 도곡리 산32-4	유물산포지	조선	덕소 205-2	
95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화도읍 구암리 173-2	유물산포지	청동기	청평 206-4	
98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화도읍 금남리 181-1	유물산포지	청동기	마석 206-3	
99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화도읍 금남리 209-5	유물산포지	청동기	마석 206-3	
187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 유물산포지	진건면 배양리 산73-8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지 205-4	

188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진건면 진관리 302-3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지 205-4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189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진건면 진관리 산118-1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지 205-4	
233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조안면 능내리	유물산포지	청동기	양수 206-1	
319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이패동 산10-2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330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삼패동 306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340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수석동 324-1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341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수석동 353-3	유물산포지	신석기	덕소 205-2	
347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지금동 산33-5	유물산포지	청동기	덕소 205-2	

4) 지정문화재 목록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4	김상헌 묘 및 묘비	와부읍 덕소리 산5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100호
16	이맹현 묘	와부읍 덕소리 산45-1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114호
107	흥원	화도읍 창현리 산22-2	능.원	조선	마석 206-3	기념물 제48호
134	덕흥대원군 이초 묘 및 신도비	별내면 덕송리 산5-13	묘	조선	의정부 205-3	기념물 제55호
247	유량 묘	조안면 시우리 산26	묘	조선	양수 206-1	기념물 제78호
230	정약용 묘	조안면 능내리 산75-1	묘	조선	양수 206-1	기념물 제7호
338	수석동 토성	수석동 산2-2	성	삼국	덕소 205-2	기념물 제94호
6	김상용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덕소리 산6	묘	조선	덕소 205-2	기념물 제99호
120	이순지 묘	화도읍 차산리 산5	묘	조선	마석 206-3	문화재자료 제54호
142	흥국사 대웅보전	별내면 덕송리 331	사찰	조선	의정부 205-3	문화재자료 제56호
332	가운동 지석묘	가운동 산17-2	선사분묘	청동기	덕소 205-2	문화재자료 제80호
137	덕릉마을 산신각	별내면 덕송리 산5-126	기타목조물	조선	의정부 205-3	민속자료 제9호
72	여경구가옥	진접읍 내곡리 286	고가	조선	양지 205-4	민속자료 제129호
272	궁집	평내동 426-1	고가	조선	양지 205-4	민속자료 제130호
78	봉선사 대종	진접읍 부평리 255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보물 제397호
218	봉인사 부도암사리탑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	부도	조선		보물 제928호
73	광릉	진접읍 부평리 산100-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197호
282	홍릉	금곡동 141-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7호
283	유릉	금곡동 141-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7호
180	사릉	진건면 사릉리 산65-1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209호
52	순강원	진접읍 내각리 150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56호
74	휘경원	진접읍 부평리 267	능.원	조선	송우 221-2	사적 제360호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종류	시대	지도번호	지정사항
208	광해군 묘	진건면 송능리 산59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3호
209	성묘	진건면 송능리 산55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5호
210	안빈이씨 묘	진건면 송능리 산66	능.원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6호
49	영빈김씨 묘	진접읍 장현리 산175	묘	조선	양지 205-4	사적 제367호
229	한확 묘 및 신도비	조안면 능내리 산69-5	묘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127호
243	수종사 부도	조안면 송촌리 1060	부도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157호
244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조안면 송촌리 1060	석탑	조선	양수 206-1	유형문화재 제22호
265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오남면 양지리 535-1	기타유적	조선	양지 205-4	천연기념물 제232호
39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와부읍 월문리 222	석탑	조선	양수 206-1	향토유적 제1호
321	김육 묘 및 신도비	삼패동 산42-2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2호
111	능원대군 이보 묘 및 신도비	화도읍 녹촌리 192	묘	조선	마석 206-3	향토유적 제3호
278	의안대군 이화 사당	평내동 151	사묘	조선	양지 205-4	향토유적 제4호
158	남재 묘 및 신도비	별내면 화접리 282-1	묘	조선	의정부 205-3	향토유적 제5호
21	박원종 묘 및 신도비	와부읍 도곡리 산31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6호
122	남선 묘 및 신도비	별내면 청학리 산78	묘	조선	의정부 205-3	향토유적 제7호
335	조말생 묘 및 묘비.신도비	수석동 산2-1	묘	조선	덕소 205-2	향토유적 제8호

찾아보기

ㄱ

가구산봉수 ····· 134
가오고략 ····· 305
가을고사 ····· 339, 341
가정신앙 ····· 342
갈판 ····· 173
강백년 ····· 261
강연 ····· 262
강희맹 ····· 152
거창부원군 신전 ····· 354
견성군 이돈 묘 ····· 243
견성암 ····· 291
견성암 대웅전 ····· 293
견성암 석조약사여래좌상 ····· 294
견성암 수양굴 ····· 293
경질토기 ····· 439
계양군별묘 및 이선영효자정문 ····· 398
계양군이증배정선군부인한씨 묘 ····· 398
계체석 ····· 87
고랭이 ····· 331
고리성 ····· 42
고모루성 ····· 248
고송오류문 ····· 79
골의노현 ····· 42
공빈김씨 ····· 286
관가정지 ····· 322
관석 ····· 276
광동학교 ····· 264
광릉 ····· 145
광릉 문인석 ····· 145
광배 ····· 203
광천군 이수기 묘 ····· 402
광해군 묘 ····· 283
괘불 ····· 213
구굉 묘 및 신도비 ····· 393
구사맹 묘 및 신도비 ····· 392
구성 묘 ····· 410
구수영 묘 ····· 389
구순 묘 ····· 391
구인기 묘 및 신도비 ····· 394
구일 묘 ····· 396
구희경 묘 ····· 390
국사봉보루 ····· 239
국조보감 ····· 284
궁집 ····· 370
율산문고 ····· 305
금곡동 ····· 383
기호학림 ····· 190
김겸 묘 ····· 82
김광서 묘 ····· 226
김광찬 묘 및 묘갈 ····· 73
김권 묘 ····· 428
김극효 묘 및 신도비 ····· 70
김기명 묘 ····· 227
김번 묘 및 묘갈 ····· 68
김상용 묘 및 신도비 ····· 73
김상용 충효문 ····· 75
김상준 묘 및 신도비 ····· 110
김상현 묘 및 신도비 ····· 71
김생해 묘 및 묘갈 ····· 69
김성응 묘 및 신도비 ····· 427
김세민 묘 ····· 82

김수증 묘 ····· 76
김수항 묘 및 묘갈 ····· 412
김수홍 묘 ····· 111
김시묵 묘 ····· 430
김식 묘 및 신도비 ····· 424
김유악 묘 ····· 228
김육 묘 및 신도비 ····· 423
김윤식 묘 ····· 429
김종 묘 ····· 279
김좌명 ····· 425
김창협 묘 ····· 76
김한구 묘 및 묘갈 ····· 414
김혼 묘 ····· 229
김홍복 묘 및 묘갈 ····· 113
김효원 묘 ····· 231
김희수 ····· 262

ㄴ

남구만 ····· 291
남병철 묘 및 신도비 ····· 198
남상길 묘 ····· 199
남선 묘 및 신도비 ····· 197
남양주 가곡리 느티나무 ····· 164
남양주 가운동 옴나무 ····· 443
남양주 가운동 지석묘 ····· 441
남양주 구암리 사기막나루터 ····· 165
남양주 구암리 유물산포지 ····· 166
남양주 금곡동 느티나무 ····· 389
남양주 금남리 나루터 ····· 176
남양주 금남리 내미연 나루터 ····· 176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1 ····· 174
남양주 금남리 느티나무2 ····· 175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1 ····· 170
남양주 금남리 유물산포지2 ····· 173
남양주 내각리 느티나무 ····· 133
남양주 내각리 산신당 ····· 128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1 ····· 143
남양주 내곡리 느티나무2 ····· 143
남양주 녹촌리 느티나무 ····· 185
남양주 녹촌리 향나무 ····· 186
남양주 능내리 느티나무 ····· 310
남양주 능내리 유물산포지 ····· 310
남양주 답내리 느티나무 ····· 177
남양주 덕송리 느티나무 ····· 212
남양주 덕송리 산신각 ····· 209
남양주 덕소리 느티나무 ····· 83
남양주 덕송리 상수리나무 ····· 220
남양주 도곡리 박원종 정자터 ····· 89
남양주 도곡리 유물산포지 ····· 90
남양주 마석우리 순국선열추념비 ····· 163
남양주 배양리 문령산유물산포지 ····· 265
남양주 부평리 느티나무 ····· 154
남양주 사릉리 느티나무 ····· 265
남양주 삼패동 유물산포지 ····· 435
남양주 송능리 느티나무 ····· 292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 320
남양주 송촌리 은행나무 ····· 325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1 ····· 458
남양주 수석동 느티나무2 ····· 458
남양주 수석동 선사유적지 ····· 450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1 ····· 450
남양주 수석동 유물산포지2 ····· 453
남양주 수석동 은행나무 ····· 458
남양주 시우리 산제당 ····· 328
남양주 신월리 느티나무 ····· 272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 353
남양주 연평리 상수리나무 ····· 137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1 ····· 136
남양주 연평리 은행나무2 ····· 137
남양주 오남리 느티나무 ····· 347
남양주 오남리 향나무 ····· 346
남양주 와부읍 월문당 산제당 ····· 103
남양주 외방리 소나무 ····· 302
남양주 외방리 은행나무 ····· 303
남양주 운수리 느티나무 ····· 299
남양주 월문리 보리수 ····· 109
남양주 월문리 향나무 ····· 109
남양주 월산리 느티나무 ····· 178
남양주 월산리3 · 1운동기념비 ····· 177
남양주 율석리 느티나무 ····· 114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1 ····· 115
남양주 율석리 향나무2 ····· 116
남양주 이패동 유물산포지 ····· 419
남양주 이패동 은행나무 ····· 422
남양주 장현리3 · 1운동 기념비 ····· 119
남양주 조안리 느티나무 ····· 343
남양주 조안리 당집 ····· 334
남양주 조안리 박광덕가 터주가리 ····· 340
남양주 조안리 박치홍가 터주가리 ····· 339
남양주 지금동 느티나무 ····· 462
남양주 지금동 유물산포지 ····· 460
남양주 지둔리 소나무 ····· 301
남양주 지둔리 시무나무 ····· 301

남양주 지둔리 지석묘 ····· 299
남양주 진관리 느티나무 ····· 271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1 ····· 267
남양주 진관리 유물산포지2 ····· 269
남양주 차산리 느티나무 ····· 194
남양주 퇴계원리 느티나무 ····· 257
남양주 팔당2리 산신각 ····· 97
남양주 팔당2리 오종섭가 터주가리 ····· 101
남양주 팔야리 느티나무 ····· 157
남양주 평내동 김석순가 터주가리 ····· 376
남양주 평내동 느티나무 ····· 378
남양주 평내동 산제당 ····· 373
남양주 호평동 김춘수가 터주가리 ····· 363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 ····· 367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1 ····· 356
남양주 호평동 산신당2 ····· 359
남양주 호평동 호만마을 김진택가 성주단지 ····· 365
남양주 화도면민 독립기념비 ····· 163
남언순 묘 ····· 226
남응익 묘 및 신도비 ····· 200
남을번 표 ····· 222
남재 묘 및 신도비 ····· 223
남치욱 묘 ····· 225
내동마을 산제사 제문 ····· 132
내원암 석불입상 ····· 203
내원암 석조 ····· 204
노구메 ····· 368
노산기 ····· 77
녹유기와 ····· 263
논골 ····· 177
능성위 구민화 ····· 371
능성위 구민화와 화길옹주 묘 ····· 372
능원대군 이보 묘 ····· 183
능표각 ····· 385



다포계 건물 ····· 213
단경호 ····· 439
단종 ····· 259
달기산 ····· 178
당산목 ····· 443
당주 소지 ····· 362
당확주 ····· 336
대동 소지 ····· 362
대산재 ····· 81
대이산봉수 ····· 134
대전회통 ····· 179
대제사 ····· 333
덕소장 ····· 335
덕혜옹주 묘 ····· 388
덕흥대원군 묘 및 신도비 ····· 206
덕흥사 ····· 208
도감마을 ····· 204
도당 할머니나무 ····· 443
도당집 ····· 333
도산석실려 ····· 78
도산재 ····· 86
도산정사 ····· 79
독성탱화 ····· 293
독정요곡 ····· 281
돋을새김 ····· 203
돌모루마을 ····· 302
돌배게 ····· 264
동국신속삼강행실 ····· 284
동국여지지 ····· 248
동원이강 ····· 146
동자석 ····· 82
돼지업 ····· 341



마산마을 ····· 415, 419
마제석착 ····· 266, 269, 420, 450
마진산성 ····· 313
마탄전투 ····· 319
마현마을 ····· 310
만월보전 ····· 213
망세정 ····· 349
맞배지붕 ····· 85, 263
매성 ····· 43
명헤학교 ····· 388
명휘원 ····· 387
모송재 ····· 281
모표석 ····· 276
목대흠 ····· 381
목세청 묘 ····· 380
목장흠 ····· 381
목장흠 묘 및 신도비 ····· 381
목첨 묘 ····· 380
묘적사 활터 ····· 108
묘적사팔각칠층석탑 ····· 107

묵현리원지 ····· 164
문곡집 ····· 413
문충사 ····· 327
미제25사단한강도하기념비 ····· 103
미음나무 ····· 447
미음나무터 ····· 457
민광훈 묘 및 신도비 ····· 408
민사용 묘 ····· 406
민여준 묘 ····· 407
민제인 묘 및 신도비 ····· 405

ㅂ

바랑골산 ····· 367
바른층쌓기 ····· 236
박가흥 묘 ····· 88
박미 ····· 290
박승임 ····· 276
박영신 ····· 419
박운 묘 ····· 86
박원종 묘 및 신도비 ····· 84
박중선 묘 및 신도비 ····· 87
박필성 ····· 287
박필성 ····· 288
박호현처기계유씨 정문 ····· 192
반공투사 배순동 충혼비 ····· 95
반공희생자 합동위령비 ····· 303
발현재 ····· 346
밤섬유원지 ····· 142
방풍판 ····· 210
백조 이해선 묘 및 추모비 ····· 93
뱅이삼거리 ····· 257
벌통재 ····· 357
변계윤 묘 ····· 415
변사겸 묘 ····· 246
변사겸 묘갈 ····· 246
변상복 묘 ····· 277
변안렬 ····· 275
변안렬 묘 및 묘표 ····· 275
변응성장군 전적지 ····· 314
변응성 묘 ····· 319
변이 묘 ····· 276
변현 묘 ····· 276
변협 묘 ····· 318
벌내면 ····· 196
병풍석 ····· 146, 288
보각국사정혜원융탑 ····· 323
보덕사 ····· 204
보성군 이옹 묘 및 신도비 ····· 244
보청재 ····· 246
보호수 ····· 302
봉선사 ····· 51, 264
봉선사 당간지주 ····· 153
봉선사 대종 ····· 151
봉선사 보운당 부도 ····· 153
봉선사 하마비 ····· 152
봉안마을 ····· 310
봉인사 부도암사리탑 ····· 294
봉인사 사리탑 중수비 ····· 296
봉인사 풍암취우대사비 ····· 297
부감법 ····· 456
부림군 이식 묘 ····· 399
불암사 사적비 ····· 238
불암산 ····· 235
불암산성 ····· 234
빗살무늬토기 ····· 453

ㅅ

사계부락 ····· 83
사당 ····· 208
사릉 ····· 259
사안마을 ····· 331
사원건축 ····· 213
산신당 ····· 360
산신제 ····· 361
산제 ····· 329
산제당 ····· 329, 361, 369, 374
산제당골 ····· 374
산제당터 ····· 329
산제사 ····· 339
산제터 ····· 368
산치성 ····· 361, 362
삼성각 ····· 215
3 · 1의거애국선열추념탑 ····· 322
삼정각 ····· 418
삼족오 ····· 275, 276
삼주삼산각 ····· 457
상팔당마을 ····· 101
상호 ····· 294
석수 ····· 385
석실마을 ····· 68, 450

석실서원 ····· 59
석실서원묘정비 ····· 78
석실서원지 ····· 456
선사취락유적 ····· 450
선성군 이신윤 묘 ····· 403
선성군 이흠 묘 및 신도비 ····· 244
선조 ····· 286
성묘 ····· 286, 287
성주 ····· 365
성주고사 ····· 365
성주굿 ····· 365
세덕사 ····· 85
세종실록 ····· 134
소임 소지 ····· 362
소제사 ····· 333
소쿠리마을 ····· 325, 423
소화주 제물 ····· 330
솟을대문 ····· 246
송백당유허비 ····· 77
송설체 ····· 445
송은 정충환 묘 ····· 206
송인 ····· 276
수동면 ····· 298
수락산 ····· 240
수복방 ····· 386
수석동 토성 ····· 447
수석리 선사유적 ····· 447
수석리토성 ····· 439
수양대군 ····· 259
수장비 ····· 305
수종사 ····· 51
수종사 다보탑 ····· 324
수종사부도 ····· 323
수종사소탑 ····· 325
수종사팔각오층석탑 ····· 324
수호목 ····· 138
순강원 ····· 119
순명효황후 ····· 386
순빈 김씨 묘 ····· 210
순화군 이보 묘 ····· 211
숫돌 ····· 173
시우리 향토사료관 ····· 329
시헌기요 ····· 199
신동국여지승람 ····· 235
신빈신씨 묘 ····· 93
신양수검문소 ····· 332
신양수대교 ····· 332
신중탱화 ····· 293
신증동국여지승람 ····· 284
심광문 묘 ····· 351
심광언 묘 및 신도비 ····· 352
심금 묘 ····· 353
심빈 묘 및 족장비 ····· 350
심선 묘 ····· 348
심안인 묘 ····· 349
쌍수역 ····· 142



아미타후불탱화 ····· 293
안빈 이씨 묘 ····· 287
안산보루 ····· 439
안홍량 묘 ····· 211
암나무 ····· 321, 326
약사암 ····· 376
약사탱화 ····· 293
약수암 ····· 374
약합 ····· 294
양수리장 ····· 335
양정동 ····· 397
양주 회암사지 부도 ····· 323
양평장 ····· 335
어수정 ····· 385
업 ····· 341, 342
업가리 ····· 340, 342
업시루 ····· 341
여경구 가옥 ····· 144
여유당 ····· 308
여지도서 ····· 127
역촌마을 ····· 431
역촌토성 ····· 431
연세중학교 ····· 321
연주현씨 묘역 ····· 229
영모재 ····· 327, 446
영빈 김씨 묘 ····· 117
영산탱화 ····· 293
영선군 이준용 묘 및 신도비 ····· 180
영왕 ····· 387
영원 ····· 387
영원군 이예 묘 ····· 400
영지동비 ····· 141
영친왕 ····· 387
예봉산 ····· 332
오남면 ····· 344

옥개석 ····· 96
와도 ····· 456
와부읍 ····· 67
완원군 이유명 묘 ····· 126
왕숙천 ····· 268
외솔 최현배 묘 ····· 118
용뉴 ····· 152
용두 ····· 213
용비어천가 ····· 284
용진교회 ····· 322
용진나루터 ····· 322
용진나루 ····· 321
우동마루 ····· 217
우럭바위 ····· 328
우리말본 ····· 118
우물천정 ····· 214
운길산 ····· 319, 321
운문일월도 ····· 276
웃독정 ····· 280
원정형 ····· 369
원터 ····· 164
위례성 ····· 240
유감 묘 및 신도비 ····· 190
유근 ····· 381
유량 묘 ····· 326
유릉 ····· 385
유성룡 ····· 319
유성증 묘 및 신도비 ····· 186
유수 묘 및 신도비 ····· 192
유순 묘 및 묘갈 ····· 155
유순 묘의 동자석 ····· 156
유응부 ····· 259, 270
유철 묘 신도비 및 시비 ····· 189
유황 묘 및 신도비 ····· 188
6 · 10만세 사건 ····· 386
육화주 제물 ····· 330
윤지형 묘 및 묘갈 ····· 234
윤천뢰 묘 및 신도비 ····· 232
의안군 이성 묘 ····· 183
의안대군 이화 묘 ····· 378
의안대군 이화 사당 ····· 378
의창군 이광묘 ····· 122
이계린 묘 ····· 274
이곡저수지 ····· 110
이곤 묘 ····· 204
이광수 은거지 ····· 264
이단상 묘 및 신도비 ····· 148
이덕강과 정순공주 묘 ····· 273
이덕형 별서지 ····· 321
이맹현 묘 ····· 80
이민보 묘 및 묘갈 ····· 138
이민승 묘 ····· 409
이반 묘 ····· 205
이성산성 ····· 240
이세백 묘 및 신도비 ····· 96
이순지 묘 ····· 193
이시원 묘 및 묘갈 ····· 149
이유간 ····· 297
이유원 묘 ····· 304
이응기 묘 ····· 401
이의진 묘 ····· 416
이의현 묘 및 묘갈 ····· 417
이인교 효자정문 ····· 94
이재면 묘 및 신도비 ····· 182
이정영 ····· 261
이종인 묘 ····· 205
이춘원 묘 및 신도비 ····· 169
이현 ····· 290
이홍술 신도비 ····· 201
이화영 묘 ····· 282
이회조 묘 ····· 150
익현군 이연 ····· 272
인빈 김씨 묘 ····· 120
인촌 김성수 묘 ····· 168
임중선 묘 및 묘갈 ····· 155
임하필기 ····· 305
임해군 이진 묘 ····· 289
잉읍점봉수 ····· 134

ㅈ

자혜학교 ····· 387
장내마을 ····· 373
장릉 ····· 259
적성골 ····· 289
전성군 이변 묘 ····· 401
전지리골마을 ····· 303
점토대토기 ····· 439
정미수 묘 및 신도비 ····· 261
정미첩조약 ····· 385
정사룡 묘 ····· 442
정세호 ····· 271
정순공주 ····· 273
정순왕후 송씨 ····· 259

정약용 묘 308
정의옹주 323
정자목 257, 271, 462
정효준 묘 및 신도비 260
정희왕후 윤씨 145
조건 425
조동마을 335
조라술 132, 362
조라촉주 336
조말생 묘 및 묘비 · 신도비 444
조맹 293
조맹 묘 및 신도비 289
조맹부 208
조맹부체 445
조무강 묘 446
조상우 묘 및 신도비 291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248
조안면 306
조안면 조안리 도당집 331
조왕굿 365
조윤형 297
조정구 묘 263
조정묘 425
조천일록 442
존용 294
주두 213
주련 214
주시경 118
주천증별시 190
지네철 215
지대석 154
지사마을 368
지세마을 273
지장시왕도 293
진건면 258
진접읍 116
진중리 석곽분 316

ㅊ

천마산 산신제 359
천지골 360, 363
청해재 283
최청 묘 및 신도비 279
추원재 278
측령산 303
충경사 224
충목사 270
취석 77
취우대사 297
칠성 337
칠성탱화 293
칠월칠석날 342
침전 386

ㅌ

태극정 142
터대감 342
터왕 342
터주 340, 341
터주가리 339, 341, 363
터주고사 364
터주굿 365
터주시루 341
터주항아리 342
테뫼식 236
토끼 275, 276
토미재 447
토성 431
토수 215
토제마 240
토축 447
퇴계원면 256
퇴계원북산성 248
퇴계원 산대놀이 61
퇴뫼산성 247
퇴물림 쌓기 236

ㅍ

파사성 319
팔작지붕 94, 168, 187, 213
평구역 435
평내동 370
평내역 367
평산군 이숙 묘 403
평촌마을 360
평해군 이담 묘 404
평해군 이예윤 묘 403

풍양 ····· 42
풍양궁 ····· 54
풍양궁지 ····· 123
풍양궁지 궁궐유지비 ····· 124
풍양조씨 ····· 50, 264
풍양현 ····· 45

ㅎ

하원군 이정 묘 및 신도비 ····· 208
허자종 묘 및 묘갈 ····· 345
학당골 ····· 374
한계순 묘 및 묘갈 ····· 160
한글갈 ····· 118
한글학회 ····· 118
한상경 묘 ····· 158
한상경 사당 ····· 159
한혜 묘 ····· 159
한확 묘 및 신도비 ····· 307
한효원 묘 및 신도비 ····· 221
할머니나무 ····· 321
할아버지나무 ····· 321
함릉군 이직 묘 ····· 126
합장묘 ····· 112, 113
해병대북한강지구전첩비 ····· 411
해평사 ····· 263
현목수빈박씨 묘 ····· 147
현왕탱화 ····· 293
현창지 ····· 127
현충탑 ····· 412
협시보살 ····· 218
호만마을 ····· 360, 363
호석 ····· 327
호음잡고 ····· 442
호평동 ····· 355
홈돌 ····· 268
홍릉 ····· 385
홍만적 묘 및 묘갈 ····· 138
홍문관 ····· 148
홍익한원배 능성구씨 묘 ····· 281
홍주국 묘 및 묘갈 ····· 138
화길옹주 ····· 371, 372
화도읍 ····· 162
화랭이(광대) ····· 335
화주 ····· 336
화주집 ····· 100
환상파수 ····· 450
활터거리 ····· 333
황양 ····· 43
회다짐 ····· 146
효간사 ····· 270
휘경원 ····· 147
흥국사 대웅보전 ····· 213
흥국사 만원보전 뒷편 부도 ····· 216
흥국사 만월보전 ····· 214
흥국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 218
흥국사 목조시왕상 ····· 220
흥국사 범종각 내 법고 및 목어 ····· 217
흥국사 석조약사여래좌상 ····· 219
흥국사 석종형부도 ····· 217
흥국사 성임당 부도 ····· 216
흥국사 소조16나한상 ····· 219
흥국사 시왕전 ····· 215
흥국사 영산전 ····· 214
흥국사 영산전 앞 석조 ····· 218
흥선대원군 ····· 179
흥완군 이정응 묘 ····· 92
흥원 ····· 179

토지박물관 발간자료 현황

□ **토지박물관 연구총서**

제1집 문화재 실무편람(1994)
제2집 개발과 보존(1995)
제3집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1996)
제4집 문화재조사요람(1997)
제5집 분당의 땅이름이야기(1999)

□ **토지박물관 학술조사 총서**

제1집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8)
제2집 연천호로고루(1999)
제3집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제4집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제5집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제6집 남한산성 행궁지 시굴 · 발굴조사보고서(1999 예정)
제7집 남한산성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2000예정)
제8집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2000예정)

·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유물 및 관련자료들은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463-0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전 화 : (0342)738-7774 팩 스 : (0342)738-8895
담당자 : 김주홍(토지박물관 학예사)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5집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발 행 일 : 1999년 11월 27일
발 행 처 : 남양주시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편집·제작 : 도서출판 큰기획(02-2268-3832)
표지디자인 : 김은영
본 문 편 집 : 우성이
지 도 작 업 : 장은경 · 김효진
교정·교열 : 이기만 · 이성복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5집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